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 호

평 양 근로자사 1974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1호(381)

차 례

신 년 사

김 일 성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한 영광의 해인 1973년을 보내고 새로운 투쟁과 승리로 빛날 희망찬 새해 1974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지난해에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여온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고있는 영용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그리고 사회안전원들과 로농적위대원들, 붉은청년근위대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민주인사들,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조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홍봉수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대표단 성원들과 총련의 여러 대표단성원들을 열렬히 축하하며 한덕수동지를 비롯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 조선동포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1973년은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강령을 수행하는 투쟁에서 국제국내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된 승리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왔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며 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직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였으며 온 나라가 일하면서 학습하고 학습하면서 일하는 혁명적학습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였습니다.

지난해에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 혁명적로동계급과 당핵심들, 청년인테리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당핵심들과 청년인

테리들은 근로자들속에 들어가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으며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초급간부들이 모든 일에 주인답게 참가하였으며 간부들이 군중의 앞장에 서서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사상혁명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게 되였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의식수준과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졌으며 모든 사람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적으로 하는 기풍이 수립되였습니다.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지난해에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1974년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에 힘을 집중하는것이였습니다.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매우 짧은 기간에 금성뜨락또르공장을 현대적인 대규모공장으로 꾸리고 뜨락또르를 대량적으로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에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가 2~2.5대에 이르게 되였으며 벌방지대에서는 3~4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온갖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자동차생산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 농촌기술혁명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료공장을 꾸리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화학비료를 정보당 물동량으로는 1톤이상, 성분량으로는 200키로그람이상씩 줄수 있는 물질적토대를 닦아놓았습니다. 특히 린회석광산을 대대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린비료를 국내원료에 의거하여 넉넉히 생산공급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양과 농작물의 특성에 맞게 미량원소비료를 원만히 공급할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지난해에 농업대학출신간부들과 청년인테리들이 농촌에 적극 진출하여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없애고 영농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였으며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고 과학적시비체계를 철저히 세웠습니다.

농촌기술혁명이 적극 추진되고 영농사업에 대한 지도가 개선됨으로써 농업생산에서 일대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협동농민들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모든 영농작업을 실속있게 하여 지난해에도 례년에 드문 대풍작을 이룩하였으며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지난해에 중공업부문에서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는 사업에서 일정한 전진을 가져왔으며 힘든 로동을 훨씬 줄이고 많은 로력을 절약하였으며 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로동자, 기술자들과 청년인테리들이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새로운 기술적창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당과 국가에서는 지난해에 수송사업에 큰 힘을 넣어 여러가지 새로운 수송체계를 세우는 한편 선박공업기지를 신설, 확장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올해부터 큰 배를 비롯한 여러가지 배를 많이 만들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여놓았습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방직공장, 편직물공장, 신발공장, 일용품공장, 식료공장들을 많이 건설하였으며 매개 군과 로동자구에 옷공장을 꾸려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중공업과 경공업의 균형적발전을 더 잘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들에게 질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공급하고 녀성들의 가정일을 훨씬 덜어줄수 있게 되였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경제건설을 빨리 다그친 결과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적파동이 매우 심하고 여러 나라에서 연료위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경제적난관을 겪고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제는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적 파동과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매우 안전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습니다.

지난해에 문화혁명을 수행하는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전체 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지난해에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벌써 그것을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지금과 같이 높은 열의를 가지고 계속 투쟁하여나간다면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기한전에 완전히 실시할수 있으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학교교육사업과 함께 학령전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있었습니다. 탁아소와 유치원을 많이 건설하고 그 운영사업을 개선함으로써 350만명이상의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게 되였으며 녀성들이 직장에 나가 마음놓고 일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지난해에 근로자들속에서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기술지식보급사업을 널리 진행하여 근로자들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을 훨씬 높였습니다.

지난해에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 결과 공장, 기업소들이 깨끗이 꾸려지고 도시와 농촌의 면모가 일신되였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양식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농촌의 수도화와 메스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군중적운동으로 벌려 많은 지방들에서 이 사업을 완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여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생활력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

과 출판보도부문일군들은 생산현장에 나가 자신을 단련하는 한편 로동자, 농민들의 생산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습니다. 당은 작가, 예술인들과 출판보도부문일군들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예선전활동으로, 직접적인 로력투쟁으로 3대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부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습니다. 우리의 사회안전원들은 혁명적경각성을 높여 적들의 파괴암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지켰으며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은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전투준비를 더욱 완성하였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여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린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근로인테리들과 학생청년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그리고 사회안전원들과 로농적위대원들, 붉은청년근위대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두개 조선》 유엔동시가입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게 치명적타격을 주었으며 미제의 침략과 내정간섭 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지난해에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파쑈적폭압이 그처럼 엄혹한 《비상사태》하에서도 또다시 구국투쟁에 용감히 일며섰습니다. 지금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미일침략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반인민적이며 매국배족적인 행위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있습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의 투쟁이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애국적인 투쟁입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한층 높아졌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지난해에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규탄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1974년은 우리 인민이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투쟁해야 할 해입니다. 우리가 당 제5차대회에서 내세운 6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앞당겨완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올해 전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6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기본건설에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넣어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기본열쇠는 올해에 기본건설을 잘하는데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올해를 건설의 해로 정하고 기본건설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로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김책제철소 확장공사와 4월13일제철소 확장공사, 서두수발전소 제2계단공사와 북창화력발전소 제2계단공사, 청천강화력발전소, 대동강발전소, 청년화학공장, 남포화학공장, 순천세멘트공장을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에 힘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건설을 다그침으로써 그 조업기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세운 농촌기술혁명의 주요과업들을 완수하며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을 맞이합니다. 올해에 우리는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방침대로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과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온 나라가 떨쳐나서 농촌을 적극 도와주어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뜨락또르, 자동차, 련결농기계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며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질좋은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농촌테제 발표 열돐을 보다 의의깊게 맞이하며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훨씬 덜어주고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하겠습니다.

광업부문에서는 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여 지금 있는 광산들에서 생산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광산들을 개발하여 광물생산을 빨리 늘이며 특히 유색금속광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빨리 늘어나는 유색금속광물을 제때에 처리하기 위하여 유색야금공장들에서 설비리용률을 더욱 높이며 단천지구에 현대적인 대규모의 유색야금기지를 새로 창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내세운 방침대로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탄광설비를 대형화, 현대화하며 탄광들에서 탐사와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대상설비생산에 힘을 넣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대상설비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산업과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며 대외무역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선박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큰 배를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선박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달라붙어 이미 마련하여놓은 선박공업의 토대에 의거하여 만톤이상의 큰 배를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배생산이 늘어나는데 따라 여러가지 엔진생산을 늘이며 의장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질좋은 의장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할것입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중앙공업과 함께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도, 시, 군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주인다운 립장에서 지방의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곡산공장, 식료공장, 방직공장, 편직물공장, 옷공장, 가구공장, 일용품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질좋은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넉넉하고 문명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선진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는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적립장에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다그쳐 3대기술혁명과 6개년계획수행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풀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것입니다.

교육부문에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교육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학교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고 교원들과 학생들 속에서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문학예술부문일군들은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적극 불러일으킬수 있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전투훈련을 정력적으로 하여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인민군대의 믿음직한 후비대, 예비대로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서는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며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시키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당, 국가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은 주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경제기관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를 더욱 합리화하며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우리는 7.4남북공동성명에 지적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할것이며 남조선의 모든 진보적력량과 힘을 합쳐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입니다.

올해에 총련조직들과 재일 조선동포들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하며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총련조직들은 주체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모든 재일 조선동포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국제정세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올해에도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며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입니다.

동지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합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또다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킴으로써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완수하며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두다 맑스-레닌주의기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김 일 성

(전국농업대회에서 한 연설 1974년 1월 10일)

동지들!

나는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지난해에 농업생산에서 대풍작을 이룩하기 위하여 농업전선에서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우리의 모든 협동농민들과 협동농장관리일군들, 농촌경리부문의 당일군들과 농업지도일군들 그리고 농촌을 적극 도와준 여러 부문의 로동계급과 국가기관일군들, 교원들과 청년학생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나자신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많은 협동농장들에서 농업생산을 1972년에 비하여 배 또는 배이상으로 높이는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였습니다. 한해동안에 농업생산을 배 또는 배이상으로 높인 전례는 아직 세계농업력사에 있어본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농업생산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최고의 기록을 창조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농촌경리발전에서의 이러한 위대한 승리는 오직 천리마조선에서만 있을수 있으며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영웅적 우리 인민만이 이룩할수 있는것입니다.

나는 지난해에 농촌경리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모든 동무들이 다 이에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리라고봅니다. 그리고 이 대회의 연단에서 한 동무들의 자랑찬 보고를 전체 조선인민이 흥분된 심정으로 듣고 그에 박수갈채를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난해에 동무들이 농업생산에서 거둔 자랑찬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것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한주일동안에 걸쳐 지난해에 농촌경리부문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총화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그에 기초하여 앞으로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1974~1975년에 6개년계획에 예견된 알곡고지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것입니다. 나는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에 넘쳐있으며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농촌테제를 내놓을 때 자본주의나라 사람들은 사회주의나라는 농사를 할줄 모른다느니, 사회주의나라는 아무리 농업을 발전시킨다고 하여도 자본주의나라 농업을 따라잡을수 없다느니 하면서 사회주의나라의 농업정책을 비방중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농촌테제를 발표하였을 때 자본주의사상에 물젖은 우리 나라의 일부 사람들가운데는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수행할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지난 기간 사회주의농촌건설사업정형을 총화하여본 결과 농촌경리부문에서 이룩된 성과가 매우 크며 특히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수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와 사상적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졌다는것이 뚜렷이 증명되였습니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진 이상 우리에게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으며 우리는 반드시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고야말것입니다.

어제 어느 처녀작업반장동무가 토론에서 지난해에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 2대를 가지고 농산작업을 기계화하여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많이 덜어주었는데 앞으로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를 2대씩만 더 주면 당의 방침대로 농산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한사람이 10정보의 밭을 다루게 하며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겠다는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많은 동무들이 다 이와 같이 좋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세상에 내놓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리상으로 여겼는데 오늘은 그것이 현실로 되여가고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하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 대회과정에 동무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1947년에 재령나무리벌에 나가 김제원농민과 담화하던 일을 회상하여보았습니다.

김제원농민은 토지개혁을 한 이듬해에 맨선참으로 나라에 애국미를 바친 애국적인 농민이며 농민영웅입니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을 지켜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적들과 용감히 싸우다 공화국의 농민답게 장렬하게 희생되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1947년에 김제원농민을 만나 농민들이 나라에 바친 애국미를 가지고 학교를 짓는것이 좋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뜨락또르를 사오는것이 좋

겠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농촌에서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농민들이 땅의 주인으로 되기는 하였으나 부농들이 부림소를 가지고 농민들을 착취하고있기때문에 애국미를 가지고 뜨락또르를 사다 농민들에게 주는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오늘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애국미를 가지고 학교를 짓는것이 더 좋을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직 나라의 밑천이 든든하지는 못하지만 한편으로 농기계임경소를 만들고 다른 편으로 대학을 건설하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김제원농민을 만나 담화하면서 이런 결심을 다지던 때가 어제같은데 벌써 26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참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는 수많은 뜨락또르와 뜨락또르운전수들이 있으며 농민들이 기계로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대학과 농업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들에서 자라난 청년인테리들이 농촌에 나가 3대혁명을 도와주고있으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해방후 우리 당이 취한 조치는 전적으로 정확하였으며 김제원농민이 제기한 의견도 옳았습니다. 나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당중앙위원회가 농민들과 합심하여 투쟁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한편으로는 뜨락또르공장, 화학비료공장, 발전소, 련결농기계공장을 비롯하여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공장들을 많이 건설하였으며 다른 편으로는 대학을 대대적으로 창설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새로운 인테리들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우리의 대학에서 자라난 청년인테리들은 지금 농촌에 나가 농업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었고 공업이라는 말조차 모르던 우리 인민이 이미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전기화를 완성하고 이제는 기계화와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있으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농업정책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을 전면적으로 공업화, 현대화하는 시대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우리는 멀지 않은 앞날에 농민들을 몇천년동안 하여오던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영원히 해방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을 매우 기쁘게 하며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영향을 줍니다.

나는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에 대하여 이 대회에 참가한 여러 동무들과 함께 커다란 기쁨을 느끼며 높은 긍지를 가지게 됩니다. 나는 멀지 않아 우리 나라의 농업이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되고 우리 나라의 농촌이 문명한 지상락원으로 전변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하여 걸어온 혁명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에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지주의 땅을 빼앗아 땅이 없거나 땅이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었으며 그 다음에는 농촌고리대금업자들과 부농들의 착취행위를 반대하여 투쟁하였습니다. 전후에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를 완성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세워 농민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였으며 뒤이어 농업현물세제를 폐지하여 농민들을 세금부담에서까지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를 착취와 압박이 없고 농업현물세제가 없는 나라로 만들었을뿐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치료받는 나라로, 사람들이 세상에 태여나자부터 먹고 살수 있는 조건을 보장받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투쟁은 첨예한 계급투쟁을 동반하였으며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원과 로농동맹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진행되였습니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원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성과의 중요한 담보로 되였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농촌에서 봉건적토지소유제도와 자본주의제도를 없애며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국가는 농업현물세제를 없앴으며 농촌에 뜨락또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농기계를 보내주고 농민들에게 문화주택을 무상으로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일어난 모든 전변은 오직 우리의 로동계급이 모든 힘을 다하여 농민을 적극 도와준 결과에 이루어진것입니다.

협동농민들은 로동계급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에 보답하여야 할것입니다. 농민들이 로동계급의 지원에 보답하는 길은 자신을 철저히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며 농업을 빨리 공업화, 현대화하여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지으며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방침대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입니다.

나는 모든 협동농민들이 로동계급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로동계급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하루빨리 농업을 공업화하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함으로써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것을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은 착취와 압박이 없고 계급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길이며 모든 사람들이 힘든 로동에서 해방되여 헐하게 일하면서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남반부의 한줌도 못되는 지주, 매판자본가들과 반동들은 남조선사회를 잘사는 사람은 더욱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은 더욱더 못살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로 만들고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여야 하며 모든 농민들이 넉넉하고 문명하게 사는 행복한 농촌, 계급이 없는 발전된 사회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나는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행복한 사회주의농촌,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영예로운 혁명투쟁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10돐을 맞이합니다.

농촌테제에는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이 지적되여있습니다.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이러한 과업을 실현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동안의 투쟁을 통하여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짧은 시일안에 능히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실현할수 있는 물질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여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현대적인 대규모의 뜨락또르공장도 있고 자동차공장도 있으며 여러 지방에 련결농기계공장과 뜨락또르부속품공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는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에서 뜨락또르를 사올수 있겠는가, 뜨락또르를 사다가 농민들의 논밭을 갈아주고 임경료를 얼마나 받겠는가 하는것을 타산하였다면 오늘은 자체로 뜨락또르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고있으며 농민들에게서 임경료도 받지 않고 밭갈이를 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와 련결농기계, 뜨락또르부속품, 다이야 같은것도 다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습니다.

농촌기술혁명의 초병인 뜨락또르운전수대렬도 수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뜨락또르운전수를 몇십명 키워 농촌에 내보낼 때 그들에게 동무들은 농촌에 파견되는 로동계급의 선발대이다, 동무들이 농촌에 나가 수천수만의 로동계급을 키워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희망하였던것이 오늘은 현실로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농촌에는 수만명의 뜨락또르운전수가 있으며 그가운데는 녀성들도 적지않습니다.

농촌테제가 내세운 기술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서 기본은 뜨락또르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는것입니다. 지난날 국가에서는 뜨락또르생산에 큰 힘을 넣어왔으며 농촌에 많은 뜨락또르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아직 뜨락또르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농촌에 나가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나 작업반장들에게 농사하는데서 무엇이 걸리는가고 물으면 모두 뜨락또르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이번 농업대회에서도 많은 동무들이 뜨락또르만 더 있으면 농사를 더잘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동무들도 아는바와 같이 해방직후에 국가에서는 토지개혁을 한 다음 소를 사서 농사를 지으라고 농민들에게 돈을 대부하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가 아니라 뜨락또르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현대적인 대규모의 뜨락또르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농민들이 요구하는대로 많은 뜨락또르를 농촌에 보내줄수 있게 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천리마》호뜨락또르와 《풍년》호뜨락또르뿐아니라 《전진》호와 《충성》호 같은 작은 뜨락또르도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멀지 않아 모든 농사일을 뜨락또르로 할수 있게 만들수 있습니다. 뜨락또르로 모든 농사일을 할수 있게 되려면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가 8～9대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6개년계획기간에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가 6～7대씩 차례지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다음 한 2～3년동안 잘 투쟁하면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가 8～9대씩 차례지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의 과업이 완수될것이며 농업이 공업화되였다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농촌에 자동차를 많이 보내주기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승리자동차종합공장에 나가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농촌테제가 내세운 기술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자동차생산을 빨리 늘일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승리자동차종합공장 로동계급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찬 투쟁을 벌려 지난해에 자동차생산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였습니다.

우리가 10년전에 농업을 공업화하고 농민을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리상적인 강령을 내놓았는데 오늘은 그것을 짧은 시일안에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닦아놓았습니다. 이것은 농촌테제를 관철하며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들과 협동농민들은 농촌테제발표 10돐이 되는 올해에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농업생산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야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토대도 튼튼히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우리 당은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함께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능력있는 간부들을 많이 키워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렸습니다. 우리 당은 몇해전에 도마다 농업대학, 의학대학, 사범대학을 내오고 지방들에서 농업기술일군과 보건일군, 교육일군을 비롯한 간부들을 자체로 키워내도록 하였습니다. 도에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를 꾸리고 모든 지방들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 필요한 간부들을 키워내도록 한 당의 조치는 이미 첫 열매를 맺었으며 생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뚜렷이 실증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농촌과 농업과학연구기관들에는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혁명적인 청년인테리들이 많이 들어가 일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농민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교양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핵심적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청년인테리들과 청년일군들은 당정책을 똑똑히 알고있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려는 용기를 가지고있으며 건설적인 의견도 많이 제기하고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있은 전국농업일군열성자대회에서도 농촌에 진출한 청년인테리들이 토론을 잘하였고 이번 대회에서도 청년인테리들과 농촌청년일군들이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제기하였습니다.

혁명적인 청년인테리들과 농촌청년일군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 농업기술이 훨씬 발전하였으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게 되였습니다. 지난해에 농촌경리부문에서 대풍작을 마련할수 있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도 바로 청년인테리들과 농촌청년일군들이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도들에 농업대학, 의학대학, 사범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을 내옴으로써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혁명적인테리의 대부대를 키워 농촌에 보낼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 투쟁하여 협동농장들에 농업대학졸업생을 몇10명씩 들여보낸다면 우리 나라 농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할것이며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위대한 변혁이 일어날것입니다.

지방에 종합적간부양성기지가 튼튼히 꾸려지고 중앙에 대학들이 많이 신설, 확장됨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100만명의 인테리대군을 마련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닦아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기간 우리 당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후대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은 결과에 이루어진것입니다. 인구비례로 볼 때 우리 나라와 같이 학생수가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대학과 고등기술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만 하여도 24만명이 넘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를 공부시킨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생이 많은것을 우환거리로 여기는것이 아니라 커다란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기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키워낸 능력있는 새세대들이 사상전선과 문화전선에 나가 온 사회를 혁명화하고 문명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지난 기간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할수 있는 기초이며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귀중한 밑천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농촌테제발표 10돐을 맞이하면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테제에서 내세운 과업들을 앞으로 10년안에 거의 다 수행하고 새로운 농촌테제를 쓰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앞으로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먼저 농촌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놓은 농촌기술혁명의 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이미 수리화, 전기화가 빛나게 완성되였으며 기계화, 화학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습니다. 오늘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다그쳐 그것을 빨리 완성하는것입니다.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들을 더 많이, 더잘 만들어 보내주어야 하며 효능이 높은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토지정리사업을 잘하고 모든 도와 군들에 뜨락또르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완성하여 모든 농사일을 기계의 힘으로, 화학적방법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할뿐아니라 로동생산능률을 훨씬 높여 한사람이 논은 5정보이상, 밭은 10정보이상 다루도록 하며 농촌에서도 공업부문에서와 같이 8시간로동제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우리는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완성함으로써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우리가 달성하려는 목표입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전체 농업부문일군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당이 내세운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용감히 투쟁함으로써 이번 대회를 농촌경리의 기계화의 대회, 화학화의 대회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정확한 민족간부양성방침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양성되였습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에 많은 민족간부를 양성하다보니 그들의 자질이 좀 낮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인테리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충실히 일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공장, 기업소들은 다 우리가 키운 인테리들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테리들은 매우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뜨락또르를 처음 만들 때 우리의 기술자들은 뜨락또르를 분해하여놓고 부속품을 하나하나 설계하여가지고 뜨락또르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현대적인 공장과 기계설비들도 다 우리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고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기술수준도 어리지마는 앞으로 실천투쟁을 통하여 더욱 풍부한 경험을 쌓게 될것이며 기술수준도 높이게 될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잘 발동한다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일군들이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배치한 다음에는 그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거의나 하지 않

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적지않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알지 못하고있으며 낡은 사상에 오염되여 일을 되는대로 하고있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한 결과 우리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수준이 높지 못하며 특히 농업부문의 과학기술이 뒤떨어져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이른바 《록색혁명》 다시말하여 종자개량사업을 널리 하여 알곡생산을 몇배로 높이고있으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종자개량사업을 잘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이 뒤떨어지게 된것은 지도일군들이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한데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혁명을 하려면 기술을 아는 사람들 다시말하여 대학을 나왔거나 자습하여 기술자격을 소유한 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그들에게 연구과제를 똑똑히 주는것입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무슨 문제를 연구하고 무슨 책을 읽으라고 과제를 똑똑히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다. 지금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연구과제를 똑똑히 주지 않기때문에 적지않은 사람들이 과학연구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으며 별로 하는 일 없이 그저 시간만 보내고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려면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다 연구과제를 똑똑히 주어 그들이 과학연구사업을 정력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문화혁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기술혁명을 잘하기 위하여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농촌문화혁명에서는 무엇보다먼저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농촌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뜨락또르와 화학비료를 더 많이 보내주는것과 함께 농민들과 농업부문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빨리 높여야 합니다. 농촌에 나간 농업대학졸업생들이나 농업부문의 몇몇 과학자들의 힘만으로는 농촌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독불장군이라는 말과 같이 혼자서는 용빼는 재간이 없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광범한 농민대중에게 과학기술지식을 가르쳐주어 농촌기술혁명을 밀고나갈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키워야 농촌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평안북도 향산군에 실습나가있는 종합대학 학생동무는 먼저 자기부터 뜨락또르운전기술을 배우고 다음에는 처녀들과 아주머니들까지 뜨락또르운전을 할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학생동무가 한것처럼 기술지식보급사업을 잘하여 모든 농민들이 토양학과 생물학, 비료와 농기계, 성장촉진제에 대한 지식을 비롯한 농업기술지식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하지 않고 농민들을 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없습니다. 이 회의에 참가한 분조

장, 작업반장, 관리위원장, 리당비서들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여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도 비록 대학을 나왔지마는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기술지식수준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공부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도서들을 많이 출판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열리게 될 교원대회를 계기로 모든 대학교원들이 책을 한권씩 쓰든지, 다른 나라의 책을 한권씩 번역하든지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인테리가 60만명이나 되는것만큼 그들이 책을 한권씩 쓰든가 번역한다면 60만권의 책이 나올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찍어내는것과 함께 도서관을 많이 꾸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협동농장들에 혁명력사연구실이 있고 선전실도 있습니다. 혁명력사연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혁명력사도 연구할수 있고 회의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을 새로 지으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선전실을 농민들이 과학기술지식을 학습하는 장소로 꾸리는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은 농업기술지식보급실이라고 해도 좋고 선전실이라는 이름을 그냥 붙여서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이라고 하여도 좋을것입니다. 거기에는 농장의 토양표본도 만들어놓고 여러가지 농작물의 표본, 농장의 생산도표, 시비체계에 대한 자료, 다른 농장들의 영농경험자료 같은것도 만들어놓아야 하며 뜨락또르의 구조도 그리붙여야 합니다. 선전실에 농업과학기술도서들도 많이 갖추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내는 《농업근로자》 신문대신에 분조마다 한권씩 돌아갈수 있도록 반월간잡지를 찍어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잡지에는 물론 간단한 시사해설도 실어야 하겠지만 기본은 농업기술지식을 많이 실어야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2모작과 간작을 한 경험, 3요소비료와 미량원소비료를 준 경험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영농기술지식을 많이 실어야 하겠습니다. 잡지에 실는 글들은 중학교를 나온 사람이 알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들은 누구나 다 잡지를 읽을수 있도록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지식수준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은 리에 있는 고등중학교 선생들이 나가서 꾸려주며 그에 대한 지도는 도에 있는 농업대학이 맡아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대학을 졸업한 동무들이 자기 도의 협동농장들에 나가서 일하게 되는것만큼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들에 대한 지도는 마땅히 농업대학이 맡아서 하여야 합니다. 농업대학에서는 농촌에 나가 순회강연도 하고 강습도 주어야 합니다.

문화혁명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생산문화를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협동농장들에서 생산도구를 알뜰히 거두는 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을 쓴 다음에는 반드시 차고와 창고에 넣어두어야 하며 농기구들도 다 쓰고 보관할 때에는 깨끗이 닦고 기름칠을 하여 창고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농기계와 농기구를 아껴쓰며 그 보관관리를 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기계검열주간을 정하고 정무원과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 해마다 한두번씩 협동농장들에 나가 농기계와 농기구들을 검열하고 실사하는 제도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탈곡장을 잘 만들고 알뜰하게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협동농장들에서는 탈곡장을 잘 꾸리지 않고 제대로 거두지 않기때문에 많은 낟알을 허실하고있습니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탈곡장을 깨끗이 포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생산문화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여러가지 창고들이 있어야 합니다. 창고가 있어야 협동농장들에서 낟알과 농기구들을 잘 보관관리할수 있습니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쌀창고, 강냉이창고, 농기구창고와 뜨락또르차고를 짓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하겠습니다. 벽돌이 있는데서는 벽돌로 짓고 벽돌이 없는데서는 석비레로 지어도 됩니다. 강냉이창고는 삼석구역 장수원협동농장에서 만든식으로 짓는것이 좋겠습니다.

생산문화와 함께 생활문화를 세워야 합니다.

먼저 집과 마을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농촌집들에서 해마다 봄과 가을에 벽에 회칠을 하며 회가루가 없는데서는 흙으로라도 벽을 깨끗이 바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농민들이 늘 집을 깨끗이 거두고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촌에서 집마당과 마을길에 돌을 까는 운동도 벌려야 합니다. 황해남도 신천군 백석리에서는 포장한 큰길로부터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다 돌을 깔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길에서 먼지가 나지 않을뿐아니라 신발에 흙이 묻지 않기때문에 집안도 깨끗하게 되여 아주 좋습니다. 모든 농촌리들에서 포장한 큰길에서부터 마을로 들어가는 길과 집에 들어가는 길, 집마당들에 돌을 까는 운동을 벌려 마을길과 농촌집마당들을 알뜰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집과 마을을 알뜰히 거두는 사업에서 농촌건설대들과 소년단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농촌건설대들은 새로운 농촌문화주택을 많이 건설할뿐아니라 농민들의 집을 보수하는 일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자기 집과 마을을 늘 깨끗이 거두며 문화위생적으로 잘 꾸려야 하겠습니다. 소년단원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려면 학교에서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할것입니다.

농촌에서 집과 마을을 알뜰히 거두는것과 함께 주택건설을 힘있게 벌려 당창건 30돐까지 모든 농민들이 현대적인 문화주택에서 살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새로 짓는 농촌문화주택은 수도, 목욕탕 같은 시설을 다 갖추어 도시주택에 못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택조건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차 없애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화후생시설들도 잘 꾸려야 합니다.

지금 농촌리들에 목욕탕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화후생시설들이 거의다 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제대로 리용할수 없는것들도 더러 있습니다. 농촌리들에서 목욕탕을 잘 꾸릴데 대하여서는 우리가 10여년전부터 강조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목욕탕을 제대로 꾸리지 않고있다는것은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들에게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없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농촌에 세탁소도 꾸려놓아야 합니다. 세탁소를 꾸려야 농촌녀성들의 부담을

덜어줄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이미 건설한 문화회관들을 잘 리용할수 있도록 난방시설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문화회관의 난방시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평양시에 시험적으로 만들어놓은 농촌2층주택난방시설을 가보았는데 그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주택난방시설은 아래층을 덥힌 열이 벽으로 올라가 2층벽을 덥히게 되여있습니다. 농촌문화회관의 난방시설은 이런식으로도 하고 간단한 농촌용 보이라를 놓는 방법으로도 하여야 합니다. 농촌용 보이라는 석탄뿐아니라 벼겨나 벼짚 같은것도 땔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농촌을 문화적으로 꾸리며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농촌수도화를 빨리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수도화를 실현하는것은 녀성들을 물동이를 이는 일에서 해방하는 영예로운 일이며 농촌에서 여러가지 질병을 방지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농촌수도화를 실현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지금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농촌에서까지 수도화를 한다는데 수도화된 농촌에 가서 살고싶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농촌당조직들과 농촌지도일군들은 구호만 웨치지 말고 농촌수도화를 빨리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오수관도 묻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다음해에 맞이하게 될 우리 당 창건 30돐기념일까지 우리의 농촌을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완전히 전변시켜야 하겠습니다.

농촌문화혁명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봉건사회의 뒤떨어진 생활양식을 답습해도 안되며 부르죠아적생활양식을 본따려고 하여도 안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사회주의적인 생활양식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은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잘살게 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의 집단주의적생활양식입니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사회에서 넘어온 온갖 뒤떨어진 생활양식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지금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에는 낡은 사회의 생활습성이 적지않게 남아있습니다. 잔치하는것을 놓고보아도 일부 사람들은 음식을 굉장히 차리고 요란하게 하여야 잔치가 잘되는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동무들이 예술영화 《잔치날》을 보아서 알겠지만 그 영화에서는 잔치는 일생에 한번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돼지를 잡고 술을 만들고 음식을 굉장히 차려야 된다고 하는것과 음식을 간단히 차리고 동무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놀면 된다고 하는 두 견해가 대립되고있습니다. 이 두가지 가운데서 어느것이 좋습니까? 우리는 음식을 굉장히 차려놓고 술한 사람들이 모여서 랑비하는것보다 음식을 간단히 차려놓고 동무들이 몇명 모여 신랑신부를 축하하며 즐겁게 노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것도 낡은 생활습성의 하나입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이나 사진 앞에다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것은 아무런 의의도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는것은 죽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날에 무덤앞에 꽃다발을 가져다놓든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죽은 사람의 지난날의 투쟁을 회상하면서 그가 다하지 못한 일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저 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지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생활습성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인 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하겠습니다. 낡은 생활양식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많이 관련되여있기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 없애려고 하여도 안되며 강제적방법으로 없애려고 하여도 안됩니다. 우리의 생활속에 남아있는 낡은 습성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발전하는데 따라 하나씩하나씩 점차적인 방법으로 개변해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우리 공산주의자들, 선각자들이 먼저 낡은 생활양식을 버리는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는 다 공산주의자들이 모였다고 볼수 있는데 회의에 참가한 동무들자신이 먼저 낡은 생활습성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자각된 사람들이 먼저 낡은 생활습성을 하나하나 없애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점차 따라나서게 될것이며 나중에는 낡은 사회의 온갖 뒤떨어진 생활양식이 깨끗이 없어지고 온 사회에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이 철저히 서게 될것입니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모든 사람이 집단을 사랑하며 집단생활에 습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집단을 사랑하며 집단주의생활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어려서부터 집단생활에 습관되도록 교양하며 특히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탁아소, 유치원 때부터 좋은 생활습성을 붙여야 학교를 거쳐 사회에 나와서도 생활을 문화적으로 할수 있으며 집단생활을 잘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사상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입니다.

지금 일부 일군들가운데는 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가 부족하며 일을 요령주의적으로 하는 현상이 적지않습니다. 이것은 일군들의 머리속에 수정주의사상, 자본주의사상과 같은 낡은 사상이 작용하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이러한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책임성없이 일을 되는대로 하는 요령주의, 형식주의를 철저히 없애야 하겠습니다.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사상, 수정주의사상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군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자신이 주인이며 자기가 생산하는것이 다 자기자신과 사회를 위한것이라는것 따라서 모든 일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진심으로 하여야 한다는것을 깊이 깨닫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일하지 않고 놀고먹으려는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권리가 없으며 있을 자리도 없

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다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고먹기를 좋아한다면 사회주의 사회가 유지될수 없을것입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 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놀고먹으려는 현상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쌀을 한키로그람에 8전씩 받고 공급하여주고있습니다. 국가에서 이처럼 거저 주나 다름없는 눅은 값으로 쌀을 공급하여주는것만큼 로동자, 사무원들은 마땅히 국가의 혜택에 보답하기 위하여 일을 더잘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였으며 조선혁명을 완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인민들은 반동들의 파쑈통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은 감옥과 단두대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있는데 우리가 일하지 않고 놀고먹으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하기 싫어하는 현상과의 사상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로동규률을 엄격히 세워 놀고먹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좀먹는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금 농촌에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며 랑비하는 현상이 적지않습니다. 우리는 농촌에서 사회의 공동재산을 랑비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관리하는데서 재정규률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농장의 재정관리정형을 정기적으로 농장원들앞에 공개하여 모든 농장원들이 매달 농장의 수입이 얼마이고 쓴것이 얼마이며 남은것이 얼마이라는것을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재정관리에서 잘못된점들을 제때에 비판하여 바로잡을수 있습니다.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규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규정의 요구에 맞게 사업하고 생활하여야 합니다. 창고에서 물건을 하나 꺼내는것도 다 규정된 절차대로 하여야 하며 일군들이 출장을 다닐 때에도 국가에서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 기차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지금 국가규정을 지키지 않는 현상들과 강하게 투쟁하지 않는것이 큰 결함입니다.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사업 규범과 규정들을 바로 만들고 그것을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해설해주어 그들이 법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한편 법규범을 어기는 현상들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당사업은 곧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직 농촌경리부문의 당조직들은 자기 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세도를 많이 쓰고있습니다.

군당위원회, 리당위원회를 비롯한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당조직들은 이러한 결

함을 하루빨리 고치고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며 근로단체들을 발동시켜 군중과의 사업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바로잡으며 농업부문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옳게 교양하기 위하여서는 년간사업총화회의를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당조직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 날인 2월 25일을 계기로 하여 해마다 년간사업총화회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주로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수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총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농촌경리부문 간부들과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할수 있도록 날카로운 비판과 사상투쟁의 분위기속에서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군이 노는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때문에 농촌테제에는 군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지적되여있습니다.

농촌테제가 나온후 군의 역할이 많이 높아졌으며 군이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적지않은 일을 하였습니다. 지방공업의 실례 하나만 들어보아도 지난날에는 집집마다 장을 담그어먹었으나 지금은 군의 식료공장에서 장을 만들어 농민들에게 공급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군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한다고 말할수 없으며 군급기관들의 사업에서는 적지않은 결함들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지금 군급기관일군들 가운데는 농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대신 도리여 농민들에게 관료주의를 부리는 사람이 적지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마땅히 군당위원회가 제때에 바로잡아야 하겠으나 지난 기간 군당위원회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군당위원회는 자기 역할을 더욱 높여 국가의 말단집행기관들인 군기관들이 당의 정책과 정부의 결정지시들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늘 살피며 잘못된것은 인차 바로잡아주어야 하겠습니다.

군당위원회와 함께 군행정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농기계작업소의 역할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업도 더욱 발전시켜 농민들에게 장뿐아니라 옥쌀과 국수도 만들어공급해주고 기름과 과일가공품, 두부 같은것도 팔아주어 농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더잘 도모하여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군이 농민을 위하여 더잘 복무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군의 간부들을 잘 꾸리고 그들이 충실히 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해마다 실시하게 되는 농촌테제총화사업을 농촌리들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군당과 군행정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그리고 농촌과 관련된 군의 모든 기관들에서 다하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는 군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로농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농촌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하며 농민들이 다 유족하게 살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는 무계급사회를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6개년계획을 앞당겨끝내자

희망찬 새해, 새로운 승리와 혁신으로 빛나게 수놓아질 1974년이 왔다.

새해를 맞이하여 전체 근로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끄시여 조국강토우에 민족적번영의 휘황찬란한 새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승리로 빛날 1974년을 맞으면서 우리 나라 전체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력사적인 신년사를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를 총화하시고 모든 근로자들의 투쟁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여주시였으며 새해에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신년사는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을 전반적으로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위대한 설계도이다. 그것은 또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새로운 전투와 영웅적위훈에로 부르는 힘찬 호소이며 당면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 1973년은 벅찬 투쟁과 끊임없는 혁신의 해로, 위대한 승리의 해로 조국청사에 찬연히 빛나고있다. 지난해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주석으로 높이 모신 끝없는 환희와 감격을 안고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을 다그침으로써 국제국내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새로운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사상혁명수행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온것은 지난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거둔 가장 귀중하고도 빛나는 성과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생활이 강화되고 일하면서 학습하고 학습하면서 일하는 혁명적학습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였으며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군중을 이끌고 맡겨진 일을 주인다운 태도로 깐지게, 알뜰하게, 이악하게 수행해나가는 혁명적사업기풍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 발양되였다. 전당과 온 사회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꽉 들어차게 되였으며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이 더욱 철석같이 다져졌다.

6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인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지난해 농업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관철하는데 커다란 힘이 돌려짐으로써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배려에 의하여 지난해 많은 뜨락또르와 자동차가 농촌에 공급되였으며 화학비료 특히 린비료와 미량원소비료를 원만히 생산공급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토대가 마련되였다. 또한 농업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보수주의, 경험주의가 마사지고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였으며 과학적시비체계가 철저히 서게 됨으로써 농사를 확고히 과학기술

적으로 지을수 있게 되였다. 농촌기술혁명이 적극 추진되고 농사일에 대한 지도가 개선된 결과 농업생산에서 일대 전변이 일어났다. 례년에 보기드문 대풍이 들었으며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려졌다.

지난해 중공업부문에서도 기술혁명이 힘있게 벌어졌다. 로동자, 기술자들과 청년인테리들 속에서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생산공정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는 사업에서 일정한 전진이 이룩되였다. 이리하여 힘든 로동이 훨씬 줄어들고 많은 로력이 절약되였으며 금속, 전력, 화학, 선박공업을 비롯한 중공업기지가 더욱 튼튼히 꾸려졌다.

경공업부문에서도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그 생산이 크게 늘어났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 경제건설이 빨리 진척된 결과 우리 나라 경제의 자립성은 더욱 강화되였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적파동이 심하고 여러 나라들에서 경제적난관을 겪고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제는 매우 안전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지난해 문화혁명을 수행하는 투쟁에서도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학령전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있었으며 기술자, 전문가의 대오를 100만명이상으로 늘이는 거창한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였다. 또한 근로자들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가 철저히 세워졌다. 많은 지방들에서 농촌 수도화와 뻐스화가 완성되고 2층농촌살림집들이 수많이 늘어났다.

당과 수령님의 각별한 보살피심속에서 주체예술의 꽃은 활짝 피여났으며 그것은 사회주의예술의 본보기로서 구라파와 일본을 비롯한 온 세계를 진감시켰다.

수령님의 자위적군사로선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나라의 방위력은 전에 비할바없는 공고한것으로 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둔 커다란 성과와 튼튼히 꾸려진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린 결과 이 분야에서 또한 자랑찬 승리를 거두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 더한층 고조되였으며 나라의 분렬을 고착시키려는 미제와 박정희매국도당들의 범죄적책동이 여지없이 파탄되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은 대승리를 거두었으며 전세계인민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의 커다란 승리와 당의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대외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는 비상히 높아졌다.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지지자와 동정자의 대렬이 급속히 늘어나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거둔 자랑찬 성과는 모두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우리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혁명과 건설의 전반적사업을 몸소 진두에서 정력적으로 이끄시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와 전국농업부문열성자대회를 비롯하여 여러 협의회를 마련하시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강령적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을 새로운 전투과업수행에 한사람과 같이 떨쳐

나서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지난해에 당핵심들과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새것에 민감한 청년인테리들이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나가 벅찬 현실속에서 산지식을 배우면서 우리의 혁명적로동계급, 붉은 협동농민들과 함께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을 이끄시고 세계혁명을 헤아리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시여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지난해 정초부터 황해남도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농촌들을 찾으시여 당사업과 사회주의농촌경리운영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었으며 근로자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친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전체 인민들은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대담하게 불사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였으며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과업수행에서 찬란한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오늘 우리앞에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가 펼쳐준 강령적과업을 앞당겨수행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빨리 다그치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더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6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6개년계획후반기의 첫해이다. 올해에 우리는 6개년계획을 앞당겨끝내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투쟁해야 한다. 왜냐 하면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6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앞당겨완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올해 전투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기때문이다.

올해 전투에 힘있게 떨쳐나서 맡은 일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는것은 곧 6개년계획을 앞당기는 길이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나가는 길이다.

우리의 투쟁은 더욱 힘있고 보람찬것으로 되였으며 우리앞에는 보다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있다.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이 수행되면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더욱 부강하여질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에서는 위대한 비약이 이룩될것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속도와 기세로 나간다면 6개년계획의 주요지표들을 명년에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을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웅대한 6개년계획수행에서 다시한번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기본열쇠는 올해에 기본건설을 잘하는데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올해를 건설의 해로 정하고 기본건설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올해를 건설의 해로 정하신것은 가장 적절하고 현명한 조치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현실

태와 그 발전의 객관적요구, 장래전망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반영한것이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방침을 따라 기본건설에 힘을 넣게 되면 우리 주체공업의 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생산에서 그 잠재력은 전면적으로 발휘될것이며 6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은 앞당겨끝내게 될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올해를 건설의 해로 규정하시고 건설에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돌리게 하심으로써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사회주의건설강령을 앞당겨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새롭게 내놓으신 현명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모든 건설장들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로 건설을 다그침으로써 조국의 대지우에 새로운 현대적인 대공업기지들을 일떠세워야 한다. 올해에 우리는 김책제철소와 4월13일제철소의 확장공사를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에 힘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건설을 다그쳐 그 조업기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겨야 한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세운 농촌기술혁명의 주요과업들을 완수하며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것이다.

올해는 농촌테제발표 열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우리는 이 해를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결정적인 승리의 해로,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에서 더높은 비약을 이룩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방침대로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과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온 나라가 떨쳐나서 농촌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뜨락또르, 자동차, 련결농기계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며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질좋은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농약을 더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기계에 의한 작업범위를 적극 넓히고 토양조건과 작물의 특성에 맞게 과학적시비체계를 세워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함으로써 농촌테제가 내건 농촌기술혁명의 력사적과업을 완성하여야 한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더많이 벗어나게 하며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도록 하여야 한다.

채취공업은 생산의 첫공정이다. 석탄을 비롯한 광석, 목재들이 충분히 보장되여야 가공공업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시킬수 있고 인민경제전반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우선 석탄공업부문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내세운 방침대로 석탄공업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탄광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하며 탄광들에서 탐사와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광업부문에서는 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여 지금있는 광산들에서 생산을 늘이는 한편 새로운 광산들을 개발하여 광물생산을 빨리 늘이며 특히 유색금속광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올해에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대상설비생산에 힘을 넣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대상설비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선박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달라붙어 만톤이상의 큰 배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우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전체 인민이 다 잘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에 우리는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식료가공공업과 수산업을 더빨리 발전시켜 부식물문제를 더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더욱 활짝 꽃피게 하여야 한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야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고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적립장에서 과학연구사업을 다그쳐 3대기술혁명과 6개년계획 수행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풀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교육부문에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며 학교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고 교원들과 학생들 속에서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워야 하며 문학예술부문에서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더많이 창작해내야 한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면서 이와 병행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참으로 올해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은 방대하고 보람차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절대로 자만할수 없다. 우리는 계속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로동계급,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 할것없이 모두가 다 자기의 초소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불굴의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자.

올해계획과 전반적6개년계획을 앞당겨끝내기 위한 장엄한 진군을 다그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모든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수령님에 대한 충직성을 북돋아주는것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들에서는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모두가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일편단심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나 강한 조직생활과 사회주의적 행동준칙, 법규범을 지키기 위한 투쟁 속에서만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도록 하며 법규범과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요구에 맞게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실천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업에 투신하지 않고 예물어물 《적당히》 지내며 되는대로 거칠게 일하는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단위, 모든 초소의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은 소극성과 보수주의, 경험주의와 요령주의, 주관주의, 관료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의 사소한 표현과도 타협없는 투쟁을 벌려 모든 사람들이 주인다운 태도로 당과 혁명을 위하여 참답게 살며 싸워나가도록 하자.

3대기술혁명은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이다. 로동자, 기술자, 지도일군 할것없이 모두가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대담하게 불사르고 기술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일터마다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

3대기술혁명을 다그치고 생산의 앙양을 이룩하는 믿음직한 방도의 하나는 높은 수준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이다. 모든 부문에서는 기술을 혁신하여 설비와 공정들간의 균형을 바로잡아 기계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만가동시켜야 하며 급속한 생산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장사업을 더욱 세밀히 짜고들어 원료, 자재, 설비들을 제때에 넉넉히 대주어야 한다.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지키는것은 기술혁신과 생산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모두다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는 한마음에서 련대적협조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련관된 단위들을 성심성의 도와주면서 다같이 천리마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자.

오늘 나라와 집단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절약투쟁을 널리 벌리는 여기에 6개년계획을 넘쳐할수 있는 커다란 예비가 있다. 우리는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그것을 더욱 늘이기 위해 적극 투쟁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 랑비현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에 맞게 상품화폐관계를 옳게 리용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수령님께서 밝히신 상품화폐관계와 독립채산제에 관한 탁월한 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기업관리운영에서 그것을 바로 실시함으로써 대안의 사업체계의 위대한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게 하며 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은 근로자들의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요구한다.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나라의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웅대한 6개년계획을 앞당겨끝낼수 있다. 모든 부문에서는 기술학습체계를 바로세우고 기술학습을 강화함으로써 가까운 시일안에 기사, 기수 대렬을 빨리 늘이며 모든 근로자들의 기술지식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한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공장안은 궁전과 같이, 공장밖은 공원과 같이 꾸리라고 하신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설비와 건물, 집과 일터 등을 깨끗이 거두며 모든 근로자들이 맑은 정신으로 홍겹게 일하고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웅대한 사회주의건설강령을 앞당겨끝내는가 못끝내는가 하는것은 당조직들이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달려있다. 당조직들은 자기의 전투력을 강화하며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틀어쥐고 그것을 더욱 심화시키는것은 현시기 당조직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사업을 유격대식사업방법,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철저히 전환시키고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강령을 수행하는 투쟁에서 높은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잘하며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밑에 모든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의 조직정치사업이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합되게 하며 그것이 경제사업에서의 빛나는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당, 국가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경제기관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와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웅대한 6개년계획을 넘쳐수행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6개년계획을 앞당겨끝내는 투쟁행정에서는 많은 애로와 난관에 부닥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진도상의 애로와 난관이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우리에게는 영명하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의 기발이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억세게 투쟁함으로써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강령적과업을 어김없이 넘쳐수행하여야 할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달리고 또 달려나아가자. •

혁명적세계관확립과 혁명전통교양

강 석 숭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워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며 혁명진지를 반석같이 다지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것은 혁명전통교양이다.

우리는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움으로써 그들을 수령님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할것이다.

혁명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하는 시대에 살고있으며 혁명을 계속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혁명을 포기하고 자기만 안일하게 잘 살겠다는 사상에 물젖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혁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조국강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내쫓을수 없으며 남조선에서 지주, 자본가 제도를 뒤집어엎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혁명하는 사람답게 혁명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살며 투쟁하는 건전한 기풍이 온 사회를 지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다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6개년계획을 하루빨리 끝내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는 동시에 조국을 한시바삐 통일하며 전국혁명을 완수하여야 할 어렵고도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선 이 력사적과업을 영예롭게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다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그 주인이며 담당자인 사람들이 어떻게 사상적으로 준비되고 동원되는가 하는데 전적으로 의존된다. 그런것만큼 사람들이 다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튼튼히 준비되여 혁명위업을 수행하는데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굴함없이 투쟁하게 될 때 그 승리를 촉진시킬수 있다.

사람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준비시킨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사람으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단 한순간을 살아도 혁명을 위하여 값있게 살며 너절하게 살기보다는 혁명을 하다가 죽는것을 더 영예롭게 생각하며 육체적생명보다 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간직하고 혁명위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혁명적헌신성과 강의한 혁명적지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혁명가이다.

혁명가의 이러한 징표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 참다운 혁명가로서의 모든 기풍과 자질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수령은 혁명의 심장이며 최고뇌수이다.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지도사상과 전략전술도 수령에 의하여 제시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도 바로 수령에 의

하여 승리적으로 령도된다. 수령을 떠나서는 혁명 그자체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수령의 령도를 받지 않고서는 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수 없다.

그러므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곧 혁명에 대한 충실성이며 수령께 충성하는것은 혁명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징표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난 혁명가란 있을수 없다.

조선의 공산주의자, 조선의 혁명가로서의 가장 근본적인 풍모와 자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성을 다하는것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과업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자신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준비하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하고 고귀한 의무이며 최대의 영예이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 이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영광스럽고 고상한 칭호이다.

모든 사람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로 준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적세계관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사회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주며 사물과 현상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개조할수 있는 사상리론적무기를 준다.

그러므로 사람들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야만 사회현상의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고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을 확고히 고수하며 인류의 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혁명적 각오와 의지를 가질수 있다. 또한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워야만 어떠한 난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혁명적지조를 꿋꿋이 지킬수 있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경향을 반대하여 견결히,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수 있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무조건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있어서 출발점으로 되며 근본을 이루는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를 자로 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곧 수령의 혁명사상이다. 수령의 사상은 로동계급의 의사와 요구를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체현하고있는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며 사회발전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가장 과학적인 사상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야만 자연과 사회의 모든 현상을 로동계급의 립장, 혁명적립장에서 옳게 분석판단할수 있고 로동계급의 리익, 혁명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견결히 투쟁할수 있다.

그러므로 수령의 혁명사상을 떠나서 혁명적세계관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은 빈터에서 저절로 생겨나는것이 아니라 꾸준한 사상교양과 자체수양에 의하여 형성되며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실천투쟁행정에서 공고화되고 발전된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꾸준하고도 적극적인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대한 교양사업이다.

혁명전통교양은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가장 힘있는 수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세대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선 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가들이 수많이 자라났습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견결한 혁명정신과 영웅적투쟁은 오늘 우리의 근로자들 특히 새세대들이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본보기로 되고있습니다.》(《교육과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16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선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는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사상체계와 혁명정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등이 다 담겨져있다.

그것은 수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란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생동한 모범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교양할 때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훌륭히 키워낼수 있으며 항일혁명선렬들이 그러했던것처럼 그 어떤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거나 굴하지 않고 수령님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할수 있다.

우리 당 사상사업의 실천적경험은 혁명전통교양이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비할바없이 큰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한히 감동시킨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혁명전통교양은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키우는 가장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혁명전통교양은 우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수행에 무한히 충실한 사상정신적량식을 마련하여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승리해온 영광스러운 면모가 전면적으로 생동하게 반영되여있다.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에 창시되고 조선혁명운동전반에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혁명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마침내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게 되였다.

그러므로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본질과 기초, 그 구현원칙과 방법들을 전면적으로, 력사적으로 파악할수 있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할데 대한 사상관점을 확고히 가질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또한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하고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한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사상정신적풍모들이 전면적으로 체현되여있다.

15성상의 긴 력사적기간을 포괄하는 항일무장투쟁은 강적 일제를 타승하는 류례없이 간고한 혁명투쟁이였다. 이처럼 어려운 투쟁조건에서도 항일혁명선렬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조로 삼고 그이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방침, 명령과 지시들을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으로 철저히 옹호관철하였으며 단두대의 이슬이 되는 마지막순간에도 수령님의 혁명전사라는 고귀한 칭호를 가장 크나큰 영광과 궁지로 깊이 간직하였다.

그러므로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서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원만히 갖출수 있게 한다.

혁명전통교양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자들이 소유하여야 할 혁명적기풍의 중요내용을 이루는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으로 무장하도록 함으로써 혁명임무수행에 끝없이 충실할수 있게 한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공산주의자, 혁명가의 기본징표의 하나이며 혁명적세계관의 중요한 사상적내용을 이룬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수령과 당,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며 이것은 자기희생성에 기초한 혁명적헌신성과 철저한 조직성, 혁명적군중관점과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고상한 공산주의적도덕풍모에서 발현된다.

이러한 혁명적기풍과 사상도덕적풍모의 고귀한 전형과 생동한 모범은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선렬들의 영광스러운 투쟁행정에서 빛나게 창조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그 어떤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조건에서 오직 인민대중의 지원과 보호를 받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야만 하는 간고한 투쟁이였다.

항일혁명선렬들은 이러한 조건에서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불요불굴의 혁명적투지와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지고 헌신성과 강한 조직성을 발휘하여 모든것을 오직 수령님과 혁명위업수행에,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행복을 위한 위업수행에 남김없이 바치였다. 그들은 또한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 혁명적군중관점을 확고부동한 신조로 삼고 그것을 생활화하고 습성화하였다.

바로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 혁명적군중관점에 기초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혁명적조직규률에 기초한 강한 조직성의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였다.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이러한 고귀한 혁명정신과 관점, 방법을 생동한 모범을 통하여 본받게 함으로써 그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튼튼히 자라날수 있게 한다.

혁명전통교양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선 혁명가로 육성하는데서 이처럼 위대한 생활력을 가지게 되는것은 이 전통이 긴 력사적기간에 걸치는 류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특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밑에 창시된것으로 하여 더욱더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있다는데 있다.

혁명전통교양은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질뿐아니라 그것을 계속 공고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운 다음에는 실천투쟁속에서 그것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변함없이 혁명에 충실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9페지)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것은 사람들을 혁명가로 키우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세계관을 세우는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모든 사물현상이 변하듯이 사람들의 사상의식도 변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어떤 영향과 교양을 받는가에 따라 좋게 변할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혁명적세계관을 세운 다음에는 그것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원래 혁명적세계관은 사회적현상과 혁명의 원리를 인식하는 과정과 혁명투쟁의 실천과정에서 형성된다. 이 두 측면은 서로 보충하는 관계에 있다. 혁명의 원리와 리론을 깊이 파악함으로써만 혁명적실천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적실천속에서 그 리론에 대한 신념도 확고해진다.

혁명전통교양은 맑스-레닌주의의 사상적, 리론적 제원칙들을 생동한 전형적사실에 기초하여 깊이 파악시킬뿐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목적의식적으로 혁명투쟁을 진행하며 그 혁명적실천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공고화하는데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논다.

그것은 혁명전통이 단순한 사상리론적사업의 결과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풍부하고도 다면적인 혁명적실천투쟁속에서 이룩되고 풍부화되였기때문이다.

참으로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선렬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며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불요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이악하게 투쟁하였으며 최후를 마치는 순간까지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하였다.

혁명전통교양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이러한 생동한 모범으로 교양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혁명적실천투쟁에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무비의 용감성과 견결성을 발휘하게 하며 이 행정에서 혁명적세계관이 더욱 공고화되게 된다.

혁명전통교양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하며 수령님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사상적 및 리론적 수준을 급속히 높이고 그들의 실천활동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며 이 과정에서 혁명적세계관이 더욱 공고화되게 된다.

이처럼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사상리론적량식과 청신도덕적풍모들을 원만히 갖출수 있게 함으로써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그것을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하여 혁명전통학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자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고 실속있게 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 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길을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것으로서 소중히 간직하고 대를 이어 계승하여야 할 혁명의 귀중한 재부이며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력사적뿌리이다.

그러므로 혁명전통을 계승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력사에 대한 태도문제인것이 아니라 오늘의 혁명발전, 나아가서는 혁명의 장래까지를 포괄하는 혁명발전전반의 운명과 관련되는 원칙적문제이다.

따라서 혁명전통에 대한 태도문제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창시한 수령에 대한 태도문제이며 혁명을 계속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태도문제로서 혁명적세계관 확립의 근본문제로 된다.

때문에 혁명전통학습을 더 잘하고 강화하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단체들은 혁명전통교양을 통하여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공산주의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며 그들을 당주위에 굳게 묶어세우는데 주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81페지)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 목적자체가 단순히 혁명의 과거에 대한 지식, 개별적사실을 리해하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혁명전통에 담겨진 고상한 혁명사상을 따라배우자는데 있는것만큼 혁명전통교양은 마땅히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튼튼히 준비

시키는데 실제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학습하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는것이다. 수령님의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잘하여야만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본질을 깊이있게 알수 있고 그 구현원칙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알수 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수 있다.

그러므로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거점으로 하여 수령님의 혁명적가계와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더욱 깊이있게 학습하여야 한다.

또한 혁명전통교양을 당면한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위력한 무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은 혁명전통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그 생활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 어떤 형식이나 회수 그자체에만 치중하는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그것을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다. 혁명전통교양의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계기와 형식을 옳게 결합시키고 그 모든 행정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감화시켜 혁명의식을 높이는데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에서 형식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교양사업을 천편일률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교양대상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지 못하고 착취와 압박을 당해보지 못한 젊은 새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돌리는것이 중요하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전통으로 교양하여야만 그들을 우리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키울수 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가면서 끝까지 실현해나갈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서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은 거대한 교양적의의를 가진다.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은 그 형상의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 생동성과 비상한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을 통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광범히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사업에서 당조직들의 조직사업수준을 높이고 필요한 조건들을 잘 보장하여주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전통교양의 방향과 방도를 옳게 세우고 그 형식과 방법들이 해당 조건과 특성에 맞게 옳게 적용되도록 끊임없이 장악지도하며 혁명전통교양자료에 대한 출판사업을 적극 짜고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철저히 준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룩된 이신작칙의 빛나는 모범

박 희 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들이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다.

간부들이 대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할 때 대중은 거기에서 고무를 받고 감화되며 그 생동한 모범을 따라 혁명과업수행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된다.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에서 간부들의 이신작칙은 몇백번의 강조나 지시보다 더 큰 힘을 나타내게 되는것이다.

간부들이 혁명적사업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해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룩된 이신작칙의 모범을 따라배우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룩된 이신작칙하는 혁명적사업기풍은 간부들의 대중지도방법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는데 있어서 더 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본보기로 된다.

모든 간부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룩된 이신작칙의 모범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수행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이신작칙하는 혁명적사업기풍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이신작칙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과 지도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대중지도방법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제나 어떤 일에서나 지도일군들이 모범이 되고 이신작칙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신작칙이라는것은 실지행동으로써 모범을 보인다는것을 의미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69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업과 생활에서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간부들자신이 사업과 생활에서 모범이 되지 않고서는 군중에게 강하게 요구할수도 없으며 아래일군들을 교양할수도 없다.

간부들의 행동은 가정에서의 부모들의 행동과 같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모범적으로 행동하여야 자식들도 그것을 본받아 옳게 행동하게 된다. 부모들의 행실이 나쁠 때에는 아이들도 자연히 그 뒤를 따라가는 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도일군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모범이 되는가 못되는가에 따라서 아래일군들이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혁명과업수행에서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도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서 실천적모범을 보임으로써 대중을 더욱 빨리 각성시킬수 있으며 제기된 혁명과업을 보다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나갈수 있다.

또한 지도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이신작칙함으로써 간부들과 대중사이에 혁명적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상하가 서로 믿고 사랑하면서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실천투쟁속에서 간부들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이신작칙하는것은 간부들과 지도일군들의 역할을 부단히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촉진시키며 일군들의 혁명화과정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신작칙하는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에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극히 어려운 조건하에서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15성상에 걸쳐 진행된 피어린 민족해방전쟁이였다.

이처럼 간고하고도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언제나 투쟁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각성시키고 조직동원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오직 혁명의 주인인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함으로써만 항일무장투쟁을 발전시켜나갈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이러한 특성은 지도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만약 어때에 지도일군들이 인민대중에게 호령과 명령하는 관료주의를 부린다면 그들은 대중과 리탈되였을것이며 따라서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수 없었을것이다.

그러므로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군중로선에 기초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만이 요구되였으며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이신작칙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나갈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이처럼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던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관한 문제는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빛나게 해결하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간부들이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공산주의자들에게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로부터 항일혁명투쟁의 전행정에 걸쳐 간부들에게 그들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시고 군중에 대한 옳은 관점과 혁명임무수행에서 높은 책임성을 간직하도록 그들을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모든 일군들이 이신작칙의 혁명적사업기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그 바쁘신 나날에도 군정간부회의, 당지부회의, 행군 및 전투 총화회의 등을 친히 소집하시고 지휘관들의 사업작풍에서 나타난 결함과 부족점들을 바로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지휘관들이 언제나 대중의 앞장에 서도록 교양하시였을뿐아니라 몸소 이신작칙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싸움의 나날 언제나 대오의 진두에 서시여 전투와 행군을 직접 조직지휘하시였으며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모든 난국들을 몸소 타개하여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투와 행군에서뿐아니라 학습과 당조직생활, 대중정치사업을 비롯한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솔선 수범하시였다.

실로 항일무장투쟁의 15성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신의 위험을 돌보지 않으시고 이신작칙의 실천적모범으로 혁명의 준엄한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며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참된 혁명가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키우시고 그들을 혁명승리에로 이끌어주신 영광스러운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과 실천적모범은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의 모든 군사정치활동과 일상생활에서 확고한 지침으로, 생활의 거울로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은 수령님께서 보여주신 이신작칙의 위대한 모범을 따라 항상 대원들의 앞장에 서서 제기된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속에서 높이 발현된 이신작칙의 모범은 무엇보다도먼

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 그이께서 주신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옹호관철하는데서 표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 그이께서 주신 명령과 지시는 항일혁명투쟁의 승리를 담보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지침이였으며 행동강령이였다.

그러므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을 통하여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 그이께서 주신 명령과 지시를 옹호관철하는것을 첫째가는 의무로,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였으며 바로 거기에서 혁명가로서의 삶의 보람을 느꼈다.

하기에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은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건이나 능력을 앞세워 생각한 적이 없었으며 항상 대원들의 앞장에 서서 그것을 어김없이 관철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항일빨찌산에서는 간부들이 모든 일에서 이신작칙하였습니다. 지휘관들은 적과의 싸움에서 공격할 때에는 늘 맨 앞장에 섰으며 후퇴할 때에는 제일 뒤에 섰습니다. 중대가 후퇴할 때에는 어느 소대장에게 부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것을 지시하고 중대장과 정치부중대장은 대렬의 맨 뒤에서 적들의 추격을 막으면서 퇴각하였습니다. 항일빨찌산에서 이것은 철칙으로 되여 있었습니다.》(우와 같은 책, 269~270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은 적과의 싸움에서 공격할 때에는 언제나 맨 앞장에서 부대의 진격로를 개척하였다. 그리고 후퇴할 때에는 제일 뒤에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대원들의 안전을 돌보며 부대의 전투행동을 지휘하였다.

그들은 험산준령을 넘고 천고의 밀림을 헤가르는 어려운 행군때에도,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모진 추위와 한길이 넘는 생눈길, 굶주림이 앞길을 가로막는 때에도 대오의 앞뒤를 오가며 전투와 행군을 지휘하였으며 자기들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원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의 이러한 모범을 《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며 끝까지 관철하기에 힘썼다》, 《룩파송파 쟈신즈에서》를 비롯한 수많은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들에서 가슴 뜨거이 찾아보게 된다.

1937년 봄, 수령님께서는 조국진군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오중흡동지에게 소부대를 인솔하고 장백지구에 나가 지방혁명조직들을 확대강화하며 부대의 후방물자를 준비해놓을데 대한 어려운 임무를 주시였다.

오중흡동지는 이 중대한 임무를 관철하는것으로써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 굳은 결심을 안고 소부대를 거느리고 장백지구를 향하여 떠났다. 그는 밤마다 적들이 피워놓은 우등불사이로 은밀히 소부대를 인솔하며 행군을 다그쳤다. 적들의 겹겹한 포위망을 뚫고 행동하는것도 물론 쉬운 일이 아니였지만 보다 어려운 난관은 식량문제였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힘든 기색, 어려워하는 기색을 나타내지 않고 식량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대오의 앞장에 서서 대원들을 고무하였다.

그는 《이 마지막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야만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실천할수 있소.…혁명가는 혁명임무를 앞에 두고 물러설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소.》라고 대원들을 고무하면서 중첩되는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고 수령님께서 명령하신대로 600여벌의 군복과 많은 식량을 기한전에 해결하였다.

그리하여 수령님께서 친솔하신 주력부대는 오중흡동지의 소부대성원들이 마련해놓은 새 군복을 일제히 갈아입고 사기충천하여 국내에로 진군할수 있

었다.

이와 같이 오중흡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간부들은 아무리 어렵고 불리한 조건에서도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과 지시를 어김없이 관철하였다. 지휘관들의 이러한 모범은 대원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수행에서 헌신성과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 그이께서 주신 명령과 지시들을 자의대로 해석하거나 제멋대로 변경하려는 사소한 현상에 대해서도 강한 투쟁을 벌렸으며 수령님의 교시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데서도 언제나 대원들의 모범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의 이신작칙의 모범은 또한 당조직생활과 학습에서도 높이 발현되였다.

그들은 일제침략자들과 생사를 판가리하는 가렬처절한 싸움의 나날에도 당지부회의에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당조직으로부터 출선 분공을 받고 그 집행에서 항상 모범이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은 동지들의 비판에 대하여서는 허심하게 접수하고 나타난 결함을 끝까지 고치고야말았다. 그리고 부정적현상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원칙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비판과 자기비판에서 항상 대원들의 앞장에 섰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은 이와 함께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고 하신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도 언제나 모범을 보이였다.

그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때, 어떤 조건에서도 학습을 꾸준히 정력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은 간고한 싸움의 나날 식량이 떨어져 끼니를 넘기는 때는 있어도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은 단하루도 중단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어려운 행군과정의 설참에도 공부하였고 하루밤 묵어가는 숙영지의 우등불과 달빛 아래에서도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읽으며 혁명의 진리와 탁월한 전략전술을 배웠다. 그들은 어렵고 복잡할 때일수록 학습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출선 제강을 짜가지고 강의에도 출연하였다. 그리고 혁명적출판물들을 받게 되면 이손에서 저손으로 옮겨가며 읽고 또 읽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은 이와 같이 모든 기회와 수단들을 다 리용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체득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학습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은 이처럼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시기 학습에서 출선 수범하였을뿐아니라 대원들의 학습에도 깊은 관심을 돌렸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안에서는 혁명적학습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은 또한 군사정치활동을 비롯한 사업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항상 대원들의 모범이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빨찌산에서는 군사훈련을 할때에도 지휘관들이 먼저 총을 쏘면서 모범을 보인 다음에 대원들에게 총을 쏘게 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270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은 군사훈련을 할때에도 반드시 시범동작을 먼저하고 대원들에게 시키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은 언제 어디서나 대원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그들에게 싸움하는 방법, 정찰하는 방법, 군중정치사업방법, 심지어 숙영지에서 천막을 치고 밥을 끓이는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실천적모범으로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부대관리를 알뜰히 하고 혁명적생활기풍을 세우는데서도 지휘관들은 항상 모범이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유능한 군사정치일군으로 자라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속에서 높이 발양된 이신작칙의 이러한 모범은 대원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영웅적인 투쟁에로 불러일으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속에서 발양된 이신작칙의 모범은 대원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거대한 힘으로 되였다.

항일혁명투쟁의 실천적경험은 간부들이 혁명사업에서 이신작칙할 때 아무리 어렵고 불리한 조건에서도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룩된 이신작칙은 지휘관들과 대원들사이에 혁명적단결을 더욱 두터이 하고 상하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호상 믿고 도와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불패의것으로 되게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의 이신작칙은 대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워주고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켰을뿐아니라 지휘관들자신의 혁명화과정을 비상히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였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창조하신 이신작칙의 혁명적사업기풍의 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

그것은 오늘 우리 간부들과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있어서 더없이 고귀한 재부로, 교과서로 된다.

그러므로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룩된 이신작칙의 모범을 따라배우는것은 우리 간부들과 지도일군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영예이며 숭고한 의무이다.

간부들과 지도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기세에 지도를 따라세우며 언제나 군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다그치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해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지도일군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직접 받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전민무장화방침과 그 정당성

태 병 렬

오늘 우리 인민은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내놓으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로농적위대창건 열다섯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이날을 맞이하여 지금 전체 인민들과 로농적위대원들은 우리 나라를 위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까지 충직하려는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창건하신 로농적위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자원적무장대오로서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을 튼튼히 지켜야 할 숭고한 사명을 지닌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이다.

로농적위대가 창건됨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참으로 로농적위대의 창건은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자위적군사로선의 빛나는 결실이며 전민무장화방침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전민무장화방침을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적들이 일단 덤벼들 때에는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할수 있도록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나가야 한다.

전민무장화방침의 정당성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전민무장화방침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군사분야에 구현한 가장 정당한 무력건설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의 국방력은 말그대로 방위적인 성격을 띠고있으며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기를 옹호보위하는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라도 역시 자기를 보위하는 수단을 가져야 하는것입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9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전민무장화방침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매개 나라는 자기를 보위하는 수단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국방에서 자위는 자주독립국가의 필수적요구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내외의 원쑤들로부터 자기의 주권을 옹호할수 있는 자위적인 방위력을 가지지 못한 국가는 사실상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전민무장화는 바로 남을 침략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위하기 위한것이다. 이것은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것이며 자위사상은 전민무장화방침의 확고부동한 초석이다.

매개 나라는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여 자체의 힘, 주체적력량으로 자기를 보위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그 나라 내부의 주체적력량이다. 외래침략자들과의 전쟁에서 외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남이 주인을 대신하여 싸워줄수는 없는것이다.

매개 나라가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자면 정규무력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전체 인민을 무장시켜야 한다.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며 군사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만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전민무장화방침은 또한 강력한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철벽으로 다지게 하는 군사전략상 가장 우월한 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는 적들의 어떠한 침공도 막아낼수 있는 군사전략상 가장 위력한 방위체계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64페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전민무장화방침은 현대전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방침이다.

현대전은 립체전이다. 싸움은 하늘과 땅, 바다 할것없이 어디서나 벌어지게 된다. 현대전에서는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다. 따라서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 후방을 지키는 사람이 따로 없게 되며 모두가 다 전투원으로 되여야 한다. 현대전쟁에는 포, 땅크, 함선, 비행기만 아니라 로케트를 비롯한 원거리타격수단들이 동원된다. 원쑤들은 현대전쟁에서 높은 기동력에 의한 불의타격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정규군만 가지고서는 전쟁에서 승리할수 없으며 조국과 인민을 튼튼히 보위할수 없다.

현대전에 대처하자면 정규무력과 함께 싸울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장시켜야 한다. 전체 인민을 무장시켜야 전선과 후방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덤벼드는 적들을 성과적으로 때려눕힐수 있다. 전체 인민을 무장시킴으로써만 일단 유사시에 군사력을 량적으로 급속히 늘이고 그 질을 보장할수 있으며 군사력의 절대적우세를 보장할수 있다.

전민무장화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세울수 있게 하며 군사전략전술적우세를 보장할수 있게 한다.

제한된 정규무력만 가지고서는 현대전에서 승리할수 없으며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철벽으로 다지자면 정규무력과 민간무력을 배합하여야 한다. 로농적위대를 비롯한 민간무력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은 생산자이면서 전투원으로 되여있다. 따라서 온 나라는 조밀한 민간군사조직망으로 뒤덮이게 된다. 민간무력은 자립적으로 군사전략전술적임무를 수행할수 있을뿐 아니라 정규무력과 협동작전도 능숙하게 조직진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정규무력과 민간무력을 배합하고 현대적무기와 재래식무기를 결합시켜야 지상, 해안, 대공 방어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철벽으로 다질수 있으며 자위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전민무장화는 전략전술상 가장 우월한 방위체계이다.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는것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나라의 독립과 평화를 지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는 인민들은 주로 자기 조국강토에서, 자기 고향과 마을에서 싸우게 된다. 그러나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침략자들은 자연지리적조건이 생소한 다른 나라에서 싸우게 된다. 인민들

온 공고한 후방에 의거하여 밤과 낮, 기후와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력량상 절대적우세와 자기 나라의 유리한 지형조건을 잘 리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능숙하게 조직진행할수 있다. 또한 그들은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옳게 배합하여 자립적으로 혹은 정규무력과 협동하여 적들을 성과적으로 때려부실수 있다. 이리하여 전민무장화는 정규무력과 민간무력을 배합하고 현대적무기와 재래식무기를 결합시켜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철벽으로 다지게 함으로써 전쟁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침략자들을 피동에 몰아넣어 사면팔방에서 타격을 주고 각을 떠 철저히 소멸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전민무장화방침은 또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잘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장의 로농적위대원들과 로동자들은 자기의 공장을 지키고 농촌의 로농적위대원들과 농민들은 자기의 농촌을 지키며 전체 인민이 한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사회주의를 계속 훌륭히 건설하여나아가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65페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으며 국방건설을 잘하여야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있고 조국과 인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틀어쥐고나가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굳건히 보위할수 있다.

전민무장화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이러한 필수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전민무장화방침에 의하여 근로자들은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전투원으로 된다. 그들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에 필요한 중공업, 경공업 제품과 농업생산물, 무기와 전투기재를 생산하면서 민간군사조직에 망라되여 군사기술을 배우며 군사훈련을 하게 된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으며 또한 국방건설을 잘하여야 경제건설을 군사적으로 담보해줄수 있다.

전민무장화방침은 이와 함께 정규무력을 더 증가시키지 않고도 조국보위의 완벽을 기할수 있게 하며 보다 많은 로력과 자금을 경제건설에 돌리게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전민무장화방침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잘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시킬수 있게 하는 탁월한 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과 함께 강한 혁명적조직성을 가져야만 참다운 공산주의자라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68페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한다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자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되자면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여야 하며 강한 혁명적조직성을 가져야 한다.

민간군사조직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은 우선 사회주의건설자로서 사회생활과정에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게 되며 조직생활을 통하여 단련된다. 또한 그들은 사회주의건설자로서, 전투원으로서 민간군사조직생활과정에 혁명적교양을 받으며 조직생활과 규률생활에

악숙하게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받는 우리의 로농적위대를 비롯한 민간군사조직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다. 민간군사조직에 망라되여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있으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군사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수령님의 명령지시에 대한 무조건성, 어떤 역경속에서도 맡겨진 혁명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등은 우리 나라의 모든 민간군사조직성원들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생활의 신조로 되고있다. 근로자들은 군사조직생활을 통하여 사상정신적으로 단련되며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라나고있다.

전민무장화방침은 바로 생산자이면서 전투원들인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생활과 생산실천을 통해서 교양개조할뿐아니라 혁명적인 군사조직생활속에서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전민무장화방침의 위력의 원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무장하는것은 우리의 특징이며 우리의 무궁무진한 군사력의 원천입니다. 이것은 로케트보다 더 낫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전민무장화방침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고있다.

인민대중은 국방건설과 군사활동에서도 주인이며 그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력량이다.

사람은 무장력의 기본구성요소이다. 군사력은 사람, 무장, 진지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사람이 기본이다. 현대적무기나 요새화된 진지도 사람을 위한것이며 사람이 없이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전투에서 적을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고 지역을 점령하며 전쟁의 승리를 이룩하게 하는 결정적력량이다. 결국 국방건설과 군사활동에서도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

전쟁의 운명은 결코 그 어떤 현대적무기나 군사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근로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어떻게 준비시키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국방건설과 군사활동에서의 성과여부는 근로대중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국방건설과 군사활동의 결정적요인인 전체 근로대중을 무장시키고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여기에 전민무장화방침의 무궁무진한 위력의 원천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는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과 나라의 튼튼한 자립적경제토대에 기초한 가장 위력한 방위체계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7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전민무장화방침은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에 기초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착취계급과 온갖 착취제도의 청산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의 처지와 사회적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결과 로동자, 농민, 병사, 인테리들은 모두다 사회주의근로자로 되였으며 그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고있다. 우리의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은 리익과 목적의 공통성, 자기 조국의 독립과 자주성을 수호하는 과업의 공통성으로 하여 굳게 결합된

단일한 통일체를 이루고있으며 온 사회는 화목하고 단란한 하나의 붉은 대가정을 이루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 이것은 전민무장화방침의 정치적기초이며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전민무장화방침은 또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는 군사력의 물질적토대이다. 경제력을 떠난 군사력이란 있을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전체 인민을 무장시킬수 없으며 국방력도 강화할수 없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튼튼한 자립적인 국방공업기지가 창설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자체의 원료와 자재, 자기의 힘과 기술로 조국보위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만들어내고있다.

위력한 자립적경제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전선과 후방에서 필요한 모든 물질적수요를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경제적토대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전민무장화의 위력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게 하는 물질적기초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전민무장화방침은 이와 같이 혁명적인 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으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하고있음으로 하여 불패의 위력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것이다.

전민무장화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자

전민무장화방침을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하는것은 우리 국가의 기본기능의 하나이며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오늘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7.4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짓밟고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전쟁준비에 광분하고있다. 박정희도당은 여러가지 무기와 작전장비들을 끌어들여 무력을 계속 증강하고있으며 미제침략군과 함께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우리에 대한 공격을 가상하는 대규모적인 공격작전훈련을 빈번히 벌리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안일성과 해이성을 반대하고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어떤 불의의 시각에 원쑤들이 쳐들어와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맞받아나아가 싸울수 있도록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나라이며 우리 인민은 평화를 열렬히 사랑하는 인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자기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61페지)

전민무장화방침을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로농적위대를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우리의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은 원쑤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이다.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전민무장화방침의 혁명적본질과 정당성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께 끝까지 충직하려는 열화같은 충성심, 그이의 명령지시에 대한 무조건성, 로동계급적자각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 등은 그 어떤 제국주의군대도 가

잘수 없는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의 특성이며 우월성이다. 그러므로 전체 인민들을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인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견결한 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전민무장화방침을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전체 인민을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인민군대의 믿음직한 후비대, 예비대로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적무장력의 전투력은 지휘관들과 전사들의 정신상태와 함께 그들의 군사기술수준에 의하여 좌우된다.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이 현대적군사기술과 결합될 때에는 참말로 위대한 힘을 발휘할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 인민이 군사를 성실히 배워야 하며 군사훈련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무기와 전투기술기재에 정통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들을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일군들속에서 군사훈련에 대한 옳은 관점을 세우는것이다. 생산에 빙자하면서 군사훈련을 소홀히 하는것도 잘못이며 군사훈련에만 치우치면서 경제건설에 지장을 주는것도 잘못이다. 경제건설도 잘하고 군사훈련도 잘해야 한다. 이리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이 한손에 마치와 낫을 들고 다른 한손에 총을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면서 적들이 덤벼들 때에는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자들을 소멸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전민무장화방침을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6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는데 필요한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충분히 마련할수 있으며 자위의 원칙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전민무장화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각급 당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전민무장화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각급 당단체들은 무엇보다도먼저 전체 인민들을 당의 유일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단결시키는 사업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로농적위대를 비롯한 민간군사조직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지휘체계를 바로 세우며 모든 전투단위들이 자립적으로 혹은 인민군대와 협동작전을 능숙하게 조직진행할수 있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리하여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총을 쏠줄 알게 하며 민간군사조직을 정연한 조직체계와 지휘체계를 가진 강철의 대오, 불패의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림으로써 전민무장화방침을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우리의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철벽으로 다져나갈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민무장화방침의 본질과 정당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을 군사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할것이다.

민족어발전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사상

최 정 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열돐이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서 혁명의 요구에 맞게 민족어를 발전시키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어문제해결을 위해서뿐아니라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새롭고 복잡한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며 맑스-레닌주의언어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풍부화시킨 고전적문헌이다.

1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서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민족어를 건설하기 위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독창적인 언어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언어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말과 글은 우리 나라의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페지)

언어는 단순히 인간교제의 수단, 사상교양의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이다.

언어는 인류의 발생과 함께 사람들의 집단적인 로동생활속에서 창조되고 발전되였으며 사람들을 위하여 복무한다. 매개 민족의 언어는 그 민족의 륭성발전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투쟁에 적극 복무한다.

말과 글은 인민들의 사회정치생활과 경제, 문화 생활 및 생산활동의 모든 령역에 작용하면서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고 생산과 기술을 발전시키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무기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언어의 본질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민족어문제해결에서 옳은 관점을 가지게 하며 또한 로동계급이 언어정책수립에서 혁명적립장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적언어사상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의 민족어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사상이다.

수령님께서는 언어의 본질과 기능, 언어발전의 합법칙성, 언어발전에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민족어발전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어의 발전문제를 민족문제, 나라의 과학기술의 발전문제와 결부시켜야 하며 민족적특성과 세계공통적인 발전방향을 옳게 결부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민족어발전의 합법칙적방

향을 천재적으로 해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같은 뜻의 단어로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두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될수 있는대로 고유어를 쓰며 일정한 한자어를 쓰되 이미 우리 말로 굳어진것만 쓰고 그 범위를 제한하며 새로운 한자어를 자꾸 만들어낼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고유한 어근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말을 더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우리 말을 발전시키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와 같은 책, 7~8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사회주의하에서의 언어발전의 유일하게 정확한 방향은 민족어를 주체성있게 발전시키는것이라는것을 밝혀주시였다. 말을 주체성있게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자기 나라의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여 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언어에서 민족고유의 요소는 그 민족자체가 창조하고 발전시켜왔으며 민족의 슬기와 자랑이 깃들어있는 언어적요소로서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가장 철저히 체현하고있다. 언어의 민족적특성은 자주적인 민족의 언어가 응당 갖추어야 할 본질적속성이다. 그러므로 언어에서 질이 다른 외래적요소를 가시고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여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리는것은 민족어의 순수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언어를 주체성있게 발전시키는데서 또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적지향과 감정에 맞게 언어를 발전시키는것이다.

언어는 혁명하는 시대의 로동계급의 계급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다듬어지야만 주체성이 산 혁명적인 언어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민족어를 주체성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불필요한 외래적요소들과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온갖 비혁명적이며 비문화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정리하고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계급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민족어발전방향에 관한 사상은 민족적특성과 로동계급의 계급적지향을 통일시켜 발전시킬데 대한 민족어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철저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자체의 민족어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가 중심이 되여 평양말을 기준으로 민족어를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고유한 말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가 중심이 되여 조선말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와 같은 책, 10페지)

공화국북반부는 조선혁명의 기지일뿐아니라 우리 민족어를 발전시키는데서 튼튼히 의거해야 할 혁명적기지이며 평양말은 그 기준으로 된다.

평양은 우리 혁명의 발원지이며 우리 나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혁명의 붉은 수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기간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혁명의 매 단계마다 우리 인민의 휘황한 앞날이 설계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한 현명한 로선과 방침이 세워졌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인민들의 장엄한 투쟁속에서 우리의 민족문화가 찬란히 꽃피여났으며 우리 말은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새로운 어휘들로 더욱 풍부화되였다. 평양말은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인민적문풍으로 다듬어진 민족어의 전형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공화국북반부가 언어발전의 기지로 되

여야 하며 수령님의 심오한 언어사상이 구현된 평양말이 기준으로 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가 중심이 되여 민족어를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언어발전의 기지에 관한 사상으로서 민족어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계급과 맑스-레닌주의당은 민족어발전의 튼튼한 기지를 가지고 그에 의거하여야만 언어를 주체성있게 통일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인민들의 언어생활에서 혁명적기풍을 세울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언어생활에서의 혁명적기풍을 세울데 대한 사상은 민족어를 주체성있게 발전시키며 언어생활에서의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울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사상이다.

참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서 천명하신 주체적인 언어사상은 민족어를 주체성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밝혀준 독창적인 언어사상으로서 로동계급과 맑스-레닌주의당이 민족어건설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어발전을 위한 주체적언어사상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의 민족어를 빛나게 발전시키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문화어는 더욱 활짝 꽃피여나게 되고 민족어가 주체성있게 통일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문화어는 어음과 어휘, 문법과 문체 등 모든 분야에서 지난날 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이 끼친 사대주의적후과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민족어말살정책에 의하여 입었던 심한 상처들이 가셔졌으며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고 로동계급의 계급적지향과 요구가 전면적으로 반영된 혁명적인것으로 빛나게 발전하였다. 우리 말의 어휘구성은 문화적으로 다듬어지고 혁명적으로 세련되였다. 문법이 더욱 완성되고 문체는 혁명하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체로 발전되고 언어의 규범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말에 기초하여 인민적인것으로 발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발전된 우리 문화어는 조선어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남김없이 구현하고 새로운 혁명적인 요소들에 의하여 더욱 풍부화된 사회주의민족어의 전형으로서 그것은 인민들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모든 분야에서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문화어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또한 우리 인민은 문화어를 통하여 과학과 기술 특히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고있다.

참으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꽃피여난 자랑스러운 우리 말과 글은 인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나라의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수행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말과 글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그 사회적기능을 더욱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유한 우리 말을 살려쓰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

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63페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말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 수령님의 주체적인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우리의 민족어문제해결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수 있으며 사회주의적민족어를 건설하는데서 지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지켜나갈수 있다. 수령님의 주체적언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말과 글의 민족적특성을 살리고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주체성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민족의 자랑이 깃든 우리 말과 글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현시기 특히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미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말과 글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오늘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말을 지켜내고 그것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민족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혁명임무이다.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족적재부인 아름다운 우리 말은 오늘 남조선에서 엄중한 위기를 겪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조선말은 점차 민족적고유성을 잃어버리고 마구 들어온 사대주의적요소들과 퇴폐적인 요소들로 가득찬 말, 주체를 잃은 잡탕말로 변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감행되고있는 민족어말살정책은 오랜 력사를 두고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민족문화를 가지고 한강토에서 단일한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기 위한 책동의 한고리로 되고있다.

언어란 민족을 이루는 공통성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의 하나인것만큼 민족적특성을 잃고 잡탕말로 된 남조선의 말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공통성의 하나가 파괴되고 슬기로운 우리 민족어가 둘로 갈라질수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민족문화의 개화발전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말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전민족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을 둘로 갈라놓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시면서 언어의 공통성, 민족의 공통성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말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은 곧 민족의 공통성을 지켜내고 그 자주성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며 놈들의 민족분렬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는 민족어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전민족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문화어를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언어발전의 합법칙적방향에 따라 우리는 민족어발전에서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고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는 민족어를 발전시키는데서 기본문제로 되여있는 말다듬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한자말과 외래어를 우리 말로 다듬는 사업과 함께 다듬은 말을 쓰기 위한 투쟁을 널리 벌려야 한다. 한자말과 외래어를 우리 말로 잘 다듬고 그것을 널리 쓰도록 하여야만 우리 말의 체계를 고유어를 기본으로 한 하나의 정연한 체계로 만들수 있다.

다른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어휘정리를 비롯한 우리 말과 글을 발전시키는 사업도 인민대중이 참가하여 전사회적운동으로 벌릴 때 성과를 거둘수 있

다.

말과 글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며 그 주인도 그들자신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력량이 적극 동원됨이 없이는 민족어를 발전시키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없으며 문화어의 빛나는 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 인민들로 하여금 우리 말과 글을 다듬고 발전시키는 사업에 사상적으로 동원되여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어를 주체성있게 발전시키며 그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또한 모든 인민들이 언어생활에서 혁명적기풍을 세우도록 하는것이다.

인민들이 언어생활에서 혁명적기풍을 세울 때라야만 사람들속에서 힘든 한자어를 쓰지 않게 되고 군중이 알수 있는 쉬운 말을 쓰게 되며 인민적문풍이 지배하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남이 모르는 한자어를 많이 쓰는것을 유식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은 이런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쉬운 말을 하고 쉬운 글을 쓰는것이 더 유식하고 고상하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2페지)

언어생활에서의 혁명적기풍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언어사용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는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자말과 외래어를 써야 유식하고 위신있는것으로 생각하고있다.

인민들이 리해하기 힘든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쓰는 사람들은 유식한 사람인것이 아니라 민족적긍지와 자부심도 없는 사람이며 문명한 사람이 아니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자말과 외래어를 필요없이 쓰는 낡은 관점을 반대하여야 하며 로동자, 농민들이 잘 리해할수 있는 쉬운 말을 언어규범에 맞게 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 말과 글을 옳바르게 쓰는 기풍을 세우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풍을 철저히 따라배우는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불면불휴의 혁명적문필활동을 통하여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풍의 빛나는 전통을 창시하시였으며 몸소 그 모범을 훌륭히 보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풍은 우리 시대의 문풍의 모범이며 우리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문풍의 위대한 귀감이다.

우리들은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시고 몸소 그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풍을 따라배움으로써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언어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언어사상을 빛나게 관철하여 우리 민족의 자랑이 깃들어있는 우리 말과 글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갈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적번영을 담보하는 불멸의 기치

김 주 영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적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여 공화국북반부혁명기지는 반석같이 다져졌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밑천을 튼튼히 마련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된 사회주의건설성과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주고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튼튼한 정치적 토대로 되고있다.

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성과에 고무되여 남조선에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되였으며 그들의 조국통일지향이 그 어느때보다도 급격히 높아졌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날로 늘어남으로써 조국통일의 국제적지원력량도 훨씬 강화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는 보다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이 모든 성과는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과 인민의 진두에 서계시고 그이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있음으로써만 가능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첫날부터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로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투쟁을 우리 혁명에서 가장 중심적문제로 내세우시고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위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였으며 민족의 모든 애국력량을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감으로써 언제나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 시대의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구현하고있는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조국통일위업의 승리와 민족적번영은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 *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적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혁명적기치이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명백한 해답을 주고있을뿐아니라 혁명발전의 매 전략전술적단계의 요구에 맞는 투쟁방침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는 인류사상 최고봉의 혁명적학설이며 영생불멸의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전서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로정에서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매개 민족국가단위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벌려나갈것을 요구하는 우리 시대의 초미의 문제들에 천재적해명을 주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단번에는 도달될수 없으며 여러 혁명단계를 거쳐 발전하게 된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매개 민족국가단위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벌려나갈것을 요구하는 우리 시대의 력사적조건은 전반적국제혁명력량의 한고리로 되는 매개 민족국가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의 승리를 공고발전시키며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할것을 필연적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바로 이 모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가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과 근본요구를 밝혀주고있다. 민족국가단위에서 혁명을 수행하여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나라 혁명을 모든 사업의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행동하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에 모든것을 복무시켜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여야 한다. 이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이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확고히 담보하는 혁명적지도원칙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 나라 혁명을 수행하는데 모든것을 복종시킬것을 요구하는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혁명실천에서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을것을 요구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4페지)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은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로서 우리 시대의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운동발전에서 맑스-레닌주의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사고방식이며 혁명적립장이다.

그것은 개별적나라들에서의 혁명투쟁이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세계혁명운동의 한부분이며 매개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으며 세계혁명의 하나의 흐름에 합류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매개 민족국가단위에서의 혁명투쟁을 발전시켜 개별적나라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력량을 강화하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하는것은 세계혁명력량을 보다더 강화하며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기본전략을 성과적으로 파탄시킬수 있게 한다.

때문에 개별적나라들의 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은 자기 나라 혁명을 모든 사업의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워야 하며 그것을 국제주의적임무를 수행하는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혁명실천에서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는다는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맑스-레닌주의를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대로 사고하며 그것을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행동한다면 모든 사람들속에서 사대주의사상과 민족허무주의사상 잔재를 뿌리뽑고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자각과 책임성을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행동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적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또한 모든것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회적존재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

을 위하여 복무할것을 요구하는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요구입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2페지)

수령님의 이 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위대한 사상이며 맑스-레닌주의당활동의 최고원칙과 혁명투쟁의 근본목적을 밝혀주고 있는 강령적지침이다.

사람은 혁명투쟁에서나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이며 추동력으로 된다. 사람이 없이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나갈수도 없으며 또 개조할 필요도 없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은 사람을 위한것이며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근본목적은 자신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것이며 사회적진보와 민족적번영을 이룩하자는데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의 하나인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한다는것은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고 개조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 사람을 개조하는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그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보람찬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본질적내용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한다. 그것으로 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민족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사회발전을 앞당기고 민족적대번영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는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며 조국의 통일독립을 완성할수 있는 강력한 혁명력량을 마련하고 민족적대업을 성취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인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 혁명사상으로서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력사적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기의 힘과 지혜를 확고히 믿고 혁명과 건설을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준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적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그 위대한 생활력과 정당성이 확증된 불패의 혁명사상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통일독립을 완성하고 전국적범위에서의 민족적번영을 이룩하는것을 우리 나라 혁명의 중심문제로 규정하시고 그의 성과적실현을 위한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현단계에 있어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임무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89페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통치로 하여 력사적으로 하나이던 우리 나라와 민족은 8.15후부터 량단과 분렬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였다. 벌써 근 30년간이나 계속되고있는 국토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우리 인민

특히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이 큰 민족적고통과 재난을 들씌우고있으며 전조선사회의 통일적발전과 민족적번영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할 임무가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제기되고있다.

조국의 통일독립을 이룩하는것은 현 단계에서 우리 혁명의 중심문제이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근본요구이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첫째가는 중심과업인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해방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밝혀주신 조국통일방침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방침에 관통되고있는 근본사상은 무엇보다먼저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의사와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래침략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을 끝장내고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뉴대와 정치, 경제, 문화의 련계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이다.

오직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미제의 침략정책을 철저히 분쇄하고 통일문제해결에서의 자주성의 원칙을 견결히 고수함으로써만 조국의 통일을 민족의 지향과 인민의 의사에 맞게 해결할수 있다.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고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사상은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원칙적인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완전한 정치적자결을 실현하며 자기 권리를 자기 손에 틀어쥐고 행사하여야만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수 있으며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5페지)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민족자결권에 속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인민이 민족내부문제인 통일문제를 자기자신의 의사대로 해결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며 그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당할수 없는 우리 민족의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어떤 외부세력도 자기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인민의 내정에 간섭할수 없다.

우리 인민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는 문명한 민족이다.

우리 인민은 유구한 력사와 문화전통을 가졌으며 나라의 절반땅에 훌륭한 새 사회를 건설하고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번영을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일어난 민족이며 용감하고 근면하고 슬기롭고 애국적이고 단결력이 강한 민족이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운명을 누구의 간섭도 없이 능히 자주적으로 훌륭히 해결할수 있다.

조국통일문제에서의 자주성에 관한 사상은 이러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주체적 힘과 능력에 대한 정확한 타산에 기초한것으로서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민족적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전략전술적방침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관되고있음으로 하여 가장 정당하며 불패의 생활력을 가진다. 이 방침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혁명력량이 반혁명세력을 결정적으로 압도하고 주동적인 투쟁을 벌릴수 있게 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승리적인 로정을 담보하였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조국통일의 믿음직한 담보인 혁명적민주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혁명력량에 확고히 의거하여 조국통일위업의 완성과 전국적범위에서의 민족적번영을 위한 투쟁을 주동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갔다. 우리 당은 이러한 투쟁행정을 통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반대하는 반혁명세력들을 철저히 고립타격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광범한 주체적혁명력량을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웠으며 국제적지지동정세력들을 더 많이 쟁취하였다.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조국통일을 위한 3대혁명력량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국내외정세는 우리 혁명발전에 유리하게 급격히 전변되여갔다.

수령님께서는 급변하여가는 국내외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신데 기초하시여 오래동안 지속된 남북사이의 동결상태를 깨뜨리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획기적이고도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을 새로이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8월6일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습니다.》(《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18페지)

이 새로운 방침은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근본적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대담한 주동적조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구현되고있는 이 력사적인 조치는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의 통일독립의 력사적대업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자주적인 구국대책이였다. 이 방안은 그 정당성과 시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전세계인민들속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리하여 박정희매국역도들도 대중속에서 앙양되는 평화통일기운을 더는 저지시킬수 없게 되였다.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획기적방안을 제시하신 이후 그 실현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압력이 강화되고 세계인민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게 되자 이때까지 남북사이의 모든 접촉을 완전히 거부하여오던 박정희역도들도 대화의 마당에 끌려나오지 않을수 없었다. 수령님의 주체적인 조국통일방안은 북과 남사이의 문을 열고 대화를 실현할수 있게 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는 7.4남북공동성명은 나라의 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통일문제해결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고있다.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수령님께서 해방후 첫시기부터 내세우신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열매이며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다.

남북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는것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는 확고한 담보이다. 그러나 박정희매국도당은 남북공동성명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전에 《남북공동성명에 기대를 가지지 말라.》느니, 《대화없는 대결로부터 대화있는 대결》이니, 《미군은 외세가 아니》라느니 하면서 남북공동성명의 실현을 모조리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1년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북과 남의 대화에서는 아무런 전진을 보지 못하였다. 박정희도당은 대화의 막뒤에서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

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분렬주의적정책에 결정적타격을 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유명한 조국통일5대강령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의 이 조국통일방안이 실현된다면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의 공통된 념원에 맞게 평화적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는데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될것입니다.》(《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12페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5대강령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전제조건과 수행방도에 이르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해명을 주고있다.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력사적인 조국통일5대강령을 실현하는것은 통일문제해결에서 우리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것이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고 창조적인 생활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실로 이 강령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 온 민족을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전체 인민을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되게 하는 길을 밝혀주는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조국통일강령이며 민족적해방의 기치이다.

조국통일5대강령이 실현되면 북과 남사이의 불신이 가셔지고 호상 신뢰가 이룩될것이며 남북을 가로막고있는 장벽이 허물어지고 여러 분야에서 끊어졌던 민족의 유대가 다시 이어지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과 남의 각계층 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조국통일위업은 더 빨리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철저히 구현되고있는 조국통일5대강령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박정희매국도당이 미일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우리 인민의 통일념원을 거역하고 《남북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을 유엔총회에 제기하여 우리 나라를 영구히 분렬하려던 발광적인 책동을 분쇄할수 있었다. 지난 유엔총회 제28차회의는 박정희매국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어용기구이며 내정간섭의 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완전히 해체하였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에 따라 조선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을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구현인 조국통일3대원칙의 정당성과 그 빛나는 생활력의 시위로 되며 자주로선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

실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전략전술적방침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 *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시는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가장 영예로운 민족적임무이다.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한강토우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우리 시대에 와서 둘로 갈라진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없는 일이며 후대들에게

분렬된 조국을 넘기줄수 없다.

우리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한다.

《남북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이 유엔에서 응당한 규탄을 받고 저지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일제국주의의 부추김을 받는 남조선통치배들은 영구분렬책동을 여전히 계속하고있다.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은 힘을 합쳐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범죄적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민족회의의 소집은 분렬을 방지하고 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나라안의 모든 애국력량을 결속시키기 위한 구국대책이다.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여 흉금을 터어놓고 의견을 나누면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공통점을 찾고 분렬이 지속되는 과정에 쌓인 오해와 불신을 풀수 있을것이며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수 있고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앞당길수 있는 구국방책들을 토의강구할수 있을것이다.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제의한 우리의 대민족회의소집방안에 적극 호응해나섬으로써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제정당, 사회단체들은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에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반드시 물러가야 하며 우리 인민의 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이 종식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중요한 투쟁과업이며 그것은 우리 인민의 당당한 권리이다.

유엔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전적으로 찬동하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를 결정한 조건에서 미제는 자기의 침략군대를 남조선에 두어둘 아무러한 리유와 구실도 있을수 없다. 우리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근본장애물이며 남조선인민들에게 온갖 불행과 재난을 들씌우고있는 원흉인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놈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야말것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부추김밑에 남조선통치배들이 끝끝내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면서 매국배족의 길로 나간다면 그것은 천추에 씻지 못할 《을사오적》의 치욕밖에 남길것이 없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나가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범죄적책동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견결한 투쟁으로써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조국통일위업은 앞으로도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나라들과 인민들의 더욱 커다란 지지와 성원을 받을것이다.

전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는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필연적인것이며 멀지않아 현실로 될것이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는 3천리강토우에 모든 근로자들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나라, 세상에 부러울것없는 살기좋고 부강한 새 조선을 건설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고 전국적판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고야말것이다.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단호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해야 한다

김 화 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 10월 28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에서 현시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침략정책을 전면적으로 폭로분석하시면서 세계인민들이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명백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평화는 오직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단호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하여야 합니다.》(《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13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립장을 취하여야 하며 평화를 쟁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가르쳐주고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변들은 제국주의자들이 결코 인민들에게 평화를 《선사》할수 없으며 평화는 오직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단호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소동에 더욱 경각성을 높이며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원칙적이며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평화》의 막뒤에서 감행하고있는 놈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산산이 짓부시고 진정한 평화를 쟁취할수 있다.

인민들을 속이기 위한 연막

지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국제무대에서 날로 커가고있는 평화와 평화적협조에로의 시대적조류를 리용하여 제놈들도 마치 《평화》와 《협상》에 그 무슨 관심이나 있는듯이 떠들고있다.

닉슨을 우두머리로 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입만 벌리면 제놈들은 침략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교류》를 원하고있으며 세계에 《평화의 구조물》을 건설하고 《전쟁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는듯이 표방해나서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민들을 속이기 위한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짖고있는 《평화》의 허위성에 대하여 폭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것은 저들의 침략정체를 가리우며 세계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기 위한 상투적인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제의 〈평화전략〉이란 곧 뒤집어놓은 전쟁전략을 의미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93페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오늘 《평화》의 간판을 들고나오는것은 무엇보다도 세계인민들앞에 드러난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워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감행함으로써 세계인민들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강도적본성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벌려왔으며 무력으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여왔다. 놈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였으며 새로 독립한 나라

들을 다시금 계속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침략과 파괴 활동을 감행하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에 의하여 많은 나라들이 자주권을 침해당하고있으며 놈들의 침략위협을 받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이 저지른 범죄적만행으로 하여 세계인민의 공동의 원쑤로서 세계의 가는곳마다에서 인민들의 치솟는 증오와 규탄을 받고있으며 배격당하고있다. 반미투쟁의 불길은 날이 갈수록 더욱 넓은 지역에로 퍼져가고있으며 반미투쟁대렬은 끊임없이 확대되고있다. 반미투쟁은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추세로 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교활하게도 제놈들을 《평화의 사도》로 가장해나섬으로써 세계인민들의 드높은 반제반미감정을 무마해보려고 꾀하고있다. 한편 놈들은 《평화》에 대한 위선적인 구호로써 세계인민들을 현혹시켜 인민들속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그들을 안일해이하게 하여 반제전신을 분렬와해시키며 제놈들에게 집중되고있는 세계인민들의 공격의 화살을 피해보려 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결국 인민들을 혁명투쟁에서 물러서게 하여 제놈들의 지배밑에 두려는 음모술책이며 로골적인 침략과 전쟁의 방법으로 달성하지 못한 야망을 반동적인 《평화전략》으로써 이루어보려는 음흉하고 모험적인 책동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이 국제적분쟁문제들에 대하여 《평화적조정》을 떠벌이며 일부 나라들에 대하여 《최혜국》대우를 한다느니, 《원조》를 제공한다느니, 《동서간의 접촉과 교류》를 확대한다느니 하면서 사상문화적공세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는것은 이러한 책동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현시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의 간판을 들고나오는 중요한 목적은 특히 숨돌릴 틈을 얻어 원기를 회복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간섭과 전복 활동,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강화하려는데 있다.

닉슨도당은 《평화》에 대하여 운운하면서도 미국이 세계에서 《두번째가 아니라 바로 첫번째의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떠벌이였다. 놈들은 군사비지출을 전후의 가장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렸으며 군비확장과 최신형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놈들은 《닉슨주의》의 침략적교리에 따라 제놈들은 침략과 전쟁에서 손을 떼는척하면서 괴뢰들과 추종국가들을 부추겨 아세아에서는 아세아사람끼리 싸우게 하고 중근동에서는 중근동사람끼리 싸우게 하려고 책동하고있으며 제놈들의 앞잡이들과 맺은 침략적인 《공약》들을 계속 준수할것을 다짐하고있다. 미제는 윁남과 라오스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회복할데 대한 협정을 조인해놓고서는 그것을 계통적으로 위반하고있을뿐 아니라 남부윁남괴뢰들, 라오스반동들과 캄보쟈의 론놀괴뢰도당에게 막대한 군사적지원을 계속 주고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평화》를 전면에 내걸고 그 뒤에서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으며 새로운 침략전쟁의 기회를 노리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제국주의자들이 들고나오는 《평화》의 간판은 인민들을 속이기 위한 연막이며 놈들이 벌리고있는 《평화》소동은 제국주의의 량면전술로부터 나온 기만술책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에 대하여 떠들면서 제놈들의 침략정책을 가리워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으나 놈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제놈들의 침략적본성을 숨길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처지가 어려

워질수록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칼을 쥐고 휘두르면서 더욱더 량면전술에 매달리고있으며 《평화》의 간판밑에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간섭, 전복활동을 교활하게 감행하고있습니다.》(《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11페지)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승냥이의 야수적본성이 변할수 없는것처럼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그 처지가 어려워지고 궁지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더 발악한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평화》를 표방해나서고있다고 하여 그것은 결코 놈들의 침략적본성이 변하였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이 들고나오는 《평화》구호는 놈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의 파탄으로부터 오는 위기의 산물이며 량면전술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제2차대전후 미제가 감행하여온 침략과 전쟁의 전과정과 놈들에 의하여 지금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실은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흉악한 야망밑에 《힘의 정책》을 공공연히 추구하면서 강도적인 침략과 전쟁 정책을 끊임없이 감행해나섰다. 놈들은 종속적인 동맹체계에 있는 다른 제국주의나라들과 괴뢰들을 긁어모아 침략적군사쁠럭을 조작하고 세계도처에 군사기지를 설치해놓았다. 이와 함께 미제국주의자들은 군비경쟁을 미친듯이 추구하면서 핵무기로 세계인민들을 위협공갈하였다.

1950년 미제가 조선에서 도발한 야만적인 침략전쟁은 놈들의 이러한 《힘의 정책》의 한 고리였다.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람기에 교살하며 아세아와 온 세계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려는 미제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강도적진출이였다.

그러나 미제는 이 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커다란 군사, 정치, 도덕적 참패를 당하였으며 이것은 놈들이 오만하게 휘둘러온 《힘의 정책》, 로골적인 군사적간섭과 침략정책의 심대한 파산으로 되였다.

조선전쟁이후에도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의 야망을 버리지 않았으며 침략과 전쟁 정책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되밀어내기정책》, 《대량보복정책》 등으로 구체화된 《힘의 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전쟁의 불집을 일으킴으로써 반제민족해방투쟁을 말살해보려고 미쳐날뛰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962년에는 까리브해위기를 조성하여 꾸바공화국을 압살하려고 획책하였으며 뒤이어 바크보만사건을 조작하여 웰남침략전쟁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1968년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1969년의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 등은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그것을 아세아전역에로 확대하려는 놈들의 악랄한 도발행위였다.

그러나 미제의 모든 침략정책은 모조리 실패하고말았다.

미제는 끊임없는 침략전쟁과 거듭되는 군사정치적패배로 말미암아 심각한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에 빠져들어가게 되였다. 국내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반전투쟁, 반정부운동이 높아지게 되였으며 반동지배층내에서도 알륵과 모순이 커가게 되였다. 경제가 만성적인 침체상태에 빠지고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게 되였으며 딸라의 지위가 폭락되고 국제수지형편이 극도로 악화되게 되였다.

미제가 핵공갈과 딸라의 힘으로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종전과 같이 《힘》에 의거하는 방법으로는 혁명력량, 진보적력량에 정면으로 대결할수 없게 되였으며 온 세계를 지배하려는 침략야망을

실현할수 없게 되였다는것이 더욱 명백하게 되였다.

미제의 《힘의 정책》은 마침내 총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이것은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의 전반적쇠퇴몰락과정이 그 어느때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이러한 현실앞에서 극도로 당황하고 불안해진 미제는 드디여 저들의 세계정책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그의 《변경》과 《전환》을 표방해나서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이 표방하는 정책과 구호가 달라진다고 하여 놈들에게서 그 어떤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날수는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모든 정책은 놈들의 침략적본성으로부터 나오는것이며 미국이 제국주의국가로 남아있고 세계제패의 야망을 버리지 않는한 달리될수 없는것이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평화》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진보적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파괴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가 칠레에서 감행한 파쑈적군사정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부추겨 애굽과 수리아를 반대하여 감행한 침략전쟁, 미제의 추종밑에 앙골라,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 아자니아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서 감행되고있는 식민지전쟁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미제는 특히 남조선에서 침략과 전쟁정책을 다그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반동들로 하여금 마지못해 남북공동성명에 조인하게 해놓고는 놈들에게 《대결》과 《승공》을 고취하면서 남조선군대의 현대화와 군사력증강을 대대적으로 뒤받침해주고있다. 미제는 지어 남조선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소동까지 벌려놓고 우리를 적으로 가상한 상륙작전과 공격작전을 감행하고있으며 군사분계선상에서 각종 도발행위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정세는 의연히 긴장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여전히 엄중한 장애에 부닥치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이 변하지 않았으며 놈들이 죽음에 가까와감에 따라 더욱더 펀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진정한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길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평화》의 기만성을 예리하게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진정한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뚜렷한 길을 가리켜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화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단호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가짜평화에 속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그들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들이 평화의 길에 나오지 않을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3페지)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줄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그 어떤 기대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놈들을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하여야 한다.

평화를 위한다고 하여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회피할수 없으며 무원칙한 타협을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려 해서는 안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노예적굴종이 가져다주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평화의 파괴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노예의 평화를 반대하여 억압자들의 통치를 뒤집어엎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에게서 평화를 바라는것은 강도에게 《리성》과 《선의》를 구걸하는것과 같다. 강도의 가슴속에 품은 칼은 언제나 인민들을 해치기 마련이다.

만약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여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회피한다면 놈들을 더욱 오만무례하게 해주며 놈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더욱 조장시켜주게 될따름이다.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에 환상을 가지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놈들의 롱락물로, 침략과 전쟁의 희생물로밖에 될수 없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평화를 위하여 제국주의앞에 굴복하고 양보할것이 아니라 마땅히 놈들에게 위엄있는 압력을 가하고 강경한 립장을 견지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의 길에 끌려나오지 않을수 없게 해야 한다. 오직 이렇게 쟁취한 평화라야만 인민의 념원에 맞는 진정한 평화로 될수 있다.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가짜평화에 속지 말고 그것을 철저히 폭로분쇄하며 《평화》의 막뒤에서 감행하는 침략과 전쟁 정책에 더욱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위업에서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매개 나라의 문제가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들자신의 리익에 맞게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평화적해결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하는 침략과 간섭 정책에 원칙적인 립장과 태도를 견지하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는 침략과 간섭책동은 다른 나라 인민들의 자주성을 엄중히 말살한다. 따라서 인민들은 외부세력의 침략과 압력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떠서게 된다. 매개 나라 문제는 정의의 위업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해결되여야 참말로 옳게 해결될수 있다.

공산주의자들, 혁명가들은 자기의 숭고한 리념으로부터 출발하여 평화를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평화가 귀중하다고 하여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인민의 리익을 희생시킬수 없으며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서 물러설수 없다.

그러므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원칙적으로 투쟁하여야 하며 인민들의 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지하고 성원해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세계의 모든 반제력량과 평화애호력량의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 세계 모든 평화애호나라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와 같은 책, 15페지)

세계의 반제력량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력한 력량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은 제국주의에 비한 사회주의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한다.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나라들의 련합된 힘을 무엇보다 무서워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을 각개격파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단결된 력량으로 나갈 때 세계혁명발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투쟁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성에 기초한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를 뚜렷이 가르쳐주시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 함께 또한 3대륙의 신생독립국가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나라들이 굳게 단합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오늘 제국주의와 맞서서 놈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짓부시는 강력한 력량으로 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에 의하여 가장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다.

세계반제력량의 단결은 그 힘을 몇배로 강화하게 한다.

사회주의나라들과 3대륙의 신생독립국가들 그리고 세계 모든 평화애호나라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 때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은 걸음마다 파탄될것이며 놈들은 마침내 평화의 길에 나오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이렇듯 평화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투쟁을 통하여 이룩해야 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평화만이 진정하고 공고한 평화로 될수 있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물론 평화를 귀중히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제국주의자들, 분렬주의자들과의 무원칙한 타협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를 이룩할수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오직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단호한 투쟁을 통하여 평화를 쟁취하며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확고한 결의를 다지고있다.

오늘 전반적정세는 우리 인민의 반제혁명투쟁과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다.

지난해 유엔총회 제28차회의과정이 보여준바와 같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전면적으로 파탄되고있으며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은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아무리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가로막아보려 하고있지만 우리 인민에게 날로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는 대세의 흐름을 막을수 없다.

정의의 위업에 떨쳐나선 인민들은 언제나 승리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우리 조국강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단결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빛나는 승리만이 있을것이다.

근로자 제1호(루계 381호)

편집위원회

발행소•근로자사 주소•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74년 1월 10일 발행• 1974년 1월 15일

ㄱ—34341 값 50전

(정기간행물 번호
제13206호)

8102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2 호

평 양 근로자사 1974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2 호(382)

차 례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1월에 있은 전국농업대회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농촌에서 례년에 보기드문 대풍작이 이룩된데 대하여 깊이 분석하시고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농업근로자들과 농업전선을 지원한 전체 인민들의 자랑찬 로력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또한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농촌테제의 혁명적기치밑에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거둔 빛나는 승리를 전면적으로 총화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하루빨리 농업을 공업화하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여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연설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에 대한 자랑찬 승리의 총화이며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뚜렷한 전망과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새로운 영웅적위훈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기치이며 위대한 전투적강령이다.

수령님의 연설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관철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가져오며 전반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사상리론실천적무기이다.

수령님께서는 이번 연설에서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다시금 심오하게 전개하시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우리 나라의 산 현실로 힘있게 확증하시였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에 대한 또하나의 위대한 공헌으로 되며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을 끝없이 고무하고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비방중상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에게는 치명적타격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연설에 접한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하여 걸어온 영광에 찬 투쟁행로를 감회깊게 돌이켜보면서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높은 긍지로 가득차있으며 대회에서 주신 그이의 강령적교시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수령님께서 이번 연설에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난해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참으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많은 협동농장들에서 농업생산을 그 전해에 비하여 배 또는 배이상으로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세계농업력사가 아직 그 전례를 모르는 위대한 승리이며 최고기록의 창조이다.

이는 오직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천리마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승리이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영웅적 우리 인민만이 이룩할수 있는 승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번 대회에서 지난 기간 사회주의 농촌건설사업정형을 총화하여본 결과 농촌경리부문에서 이룩된 성과가 매우 크며 특히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수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와 사상적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졌다는것이 뚜렷이 증명되였습니다.》

지난해 농촌경리부문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는 우리 당의 혁명적농업정책이 얼마나 정당하며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가지고있는가를 확증하는 힘있는 시위로 된다.

그것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관철에서 이룩된 성과에 확고히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견실하고 공고한 승리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농촌테제가 세상에 발표될 때에만 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리상으로 여겼으나 오늘은 그것이 현실로 되여가고있다.

우리 인민은 농촌테제가 밝혀준 휘황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테제에서 제시된 모든 과업들을 짧은 시일안에 능히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실현할수 있는 물질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여있습니다.》

지난 기간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의 하나는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실현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완전히 갖추게 된것이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전기화가 완성되였다. 우리에게는 또한 농촌경리를 종합적으로 기계화하고 화학화할수 있는 현대적인 대규모의 뜨락또르공장과 자동차공장,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농약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으며 여러 지방에 련결농기계공장과 뜨락또르부속품공장도 있다.

또한 농촌기술혁명의 초병인 뜨락또르운전수의 대렬도 수만명으로 늘어났다.

우리 농촌에서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는 지난해에 2~2.5대, 벌방지대에서는 3~4대에 이르게 되였으며 6개년계획기간에는 6~7대로 늘어나게 된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앞으로 가까운 몇해사이에 농촌에서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를 8~9대에 이르게 함으로써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완성할데 대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시였다.

이리하여 지난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었고 공업이라는 말조차 모르던 우리 인민이 이제와서는 농업을 전면적으로 공업화, 현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멀지 않은 앞날에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영원히 해방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실로 우리 당의 혁명적농업정책의 위대한 승리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난 기간 우리 농촌에서는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수행할수 있는 토대도 튼튼히 마련되였다.

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농촌사상혁명이 촉진되고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정신도덕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교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들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붉은 농업전사로 자라났다.

특히 지난 기간 우리 당이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능력있는 간부들을 많이 키워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림으로써 이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의 농촌과 농업과학연구기관들에는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혁명적인 청년인테리들이 많이 들어가 일하고있다.

그들은 농민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온 사회를 혁명화하며 문명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으며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핵심적역할을 놀고있다.

혁명적인 청년인테리들과 농촌청년일군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농업기술도 빨리 발전하고 농사도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게 되였다.

당의 정확한 방침이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가까운 앞날에 100만명의 인테리대군을 마련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지난 기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후대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음으로써 이루어진 고귀한 열매이다.

지난 기간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은 전적으로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농업대회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원대한 구상에 기초하시여 일찌기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 해방직후에 벌써 농민들이 나라에 바친 애국미를 가지고 한편으로는 뜨락또르임경소를 만들도록 하시고 다른편으로는 대학을 건설하도록 하신 현명한 조치는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수령님의 이 방침은 나라의 밑천이 아직 넉넉하지 못하던 당시의 조건에서도 우리 조국의 앞날을 위하여 우리 자체의 힘으로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하여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나가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혁명적립장을 구현한것이였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토지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시고 뒤이어 농촌고리대금업자들과 부농들의 착취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수령님께서는 전후 농업협동화를 완성하신 다음 두 요새 점령을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이끌어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농촌에서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내놓으시고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이 세가지 혁명을 통일적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심으로써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하여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농촌에서 두 요새 점령을 위한 투쟁은 오직 로농동맹을 강화하고 로동계급이 농촌을 적극 지원하는 기초우에서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는것을 밝히시고 전당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농촌을 돕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의 이러한 혁명적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지난 10년동안에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와 사상적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지게 되였다.

이것은 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멀지 않아 우리 나라의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하고 농촌을 더욱 문명한 지상락원으로 전변시킬수 있는 확고한 기초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오늘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 앞에는 수령님께서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더욱 공고발전시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수령님께서 이번 대회에서 주신 교시를 깊이 학습하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위대한 농촌테제 발표 1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농업대회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앞으로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먼저 농촌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다그쳐 그것을 빨리 완성하는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농촌에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들을 더 많이, 더 잘 만들어 보내주어야 하며 효능이 높은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토지정리사업을 잘하고 모든 도와 군들에 뜨락또르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농촌의 모든 일군들과 남녀농장원들은 농업이 공업화, 현대화되여가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답게 누구나 뜨락또르를 다 몰수 있도록 뜨락또르운전기술을 배우는 운동을 전군중적으로 벌려야 한다.

농촌에서는 과학적시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토양과 작물의 요구에 맞게 화학비료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하며 작물과 품종을 정확히 배치하고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지키며 벼농사와 함께 강냉이농사를 잘 짓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또한 닭과 오리, 돼지를 비롯한 집짐승기르기를 대대적으로 벌려 고기와 알을 더 많이 생산하며 파일과 남새, 누에고치 생산에서도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이번 연설에서 농촌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농촌경리부문의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수령님의 교시대로 과학자, 기술자들을 늘 만나보며 그들에게 연구과제를 똑똑히 주고 그들로 하여금 과학연구사업을 정력적으로 하도록 잘 도와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음으로 문화혁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기술혁명을 잘하기 위하여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농촌문화혁명에서는 무엇보다먼저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빨리 높여야 한다.

농촌에서는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강화하고 농민들이 공부할수 있는 조건을 잘 지어주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철저히 세우며 다음해에 맞게 될 우리 당창건 30돐기념일까지 모든 농촌을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완전히 전변시켜야 한다.

농촌문화혁명에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한 투쟁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은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잘살게 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의 집단주의적생활양식이다.

우리는 농민들속에서 낡은 사회의 뒤떨어진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며 여기에서 특히 농촌 지도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이 모범을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고있는 모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계속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일군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자신이 주인이며 자기가 생산하는것이 다 자기자신과 사회를 위한것이라는것 따라서 모든 일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진심으로 하여야 한다는것을 깊이 깨닫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농촌경리부문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속에서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계속 심화시키며 소극성과 보수주의, 요령주의와 형식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모두가 자기의 혁명초소를 책임적으로 지키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하지 않고 놀고먹으려는 사상을 반대하며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적극 애호하고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한 국가의 법규들을 잘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당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당조직들은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며 근로단체를 발동하여 군중과의 사업도 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의 당조직들과 농업부문 지도기관들은 수령님께서 이번 대회에서 주신 교시에 따라 농촌테제가 발표된 2월 25일을 계기로 해마다 년간사업총화회의를 할수있게 하여 농촌에서의 3대혁명수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총화하는것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이번 연설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군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군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자기의 역할을 더욱 높여 국가의 말단집행기관들인 군기관들이 당의 결정과 정부의 결정지시들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늘 살피며 농민들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군행정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농기계작업소의 역할을 높이며 군내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군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로농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농촌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하며 농민들이 다 유족하게 살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는 무계급사회를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완전히 실현한다는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테제의 과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현실적가능성이 있다.

수령님께서 이번 대회에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이 농촌테제가 밝혀준 휘황한 길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진 이상 우리에게 점령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농업이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되고 모든 농민들이 넉넉하고 문명하게 사는 행복한 농촌, 계급이 없는 발전된 사회를 하루속히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더욱 빛나는 승리와 찬란한 미래가 약속되여있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의 위대한 승리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이 그 어느때보다도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장엄한 력사적환경속에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농촌테제는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이며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에 불멸의 기여를 한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로작이다.

테제의 발표는 수령님께서 반세기에 이르는 창구한 기간에 쌓으신 고귀한 사상리론적업적가운데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서 농촌문제와 같이 그처럼 중요하고도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종국적으로 풀어나가는 길에서 10년이란 매우 짧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당은 지난 10년간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위대한 농촌테제의 혁명적기치밑에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농촌테제관철을 위한 지난 10년간의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은 우리 농촌에서 세기적락후와 가난의 마지막흔적을 털어버리고 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가져온 창조와 변혁의 자랑찬 10년이다.

참으로 농촌테제가 밝혀준 휘황한 빛발아래 우리 농촌에서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자연도 달라지고 사회도 전진하였으며 사람들도 몰라보게 발전하였다.

농촌테제의 과학적정당성과 생활력은 실천을 통하여 힘있게 증명되였다.

위대한 농촌테제발표 열돐을 맞는 우리 인민과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우리 농민들에게 오늘의 행복과 끝없는 영광을 마련하여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앞으로도 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할 불같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테제의 력사적의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농민문제, 농업문제의 종국적해결의 길을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밝혀준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다.

농민문제, 농업문제는 인류를 온갖 계급적착취와 민족적억압에서 해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특히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예속밑에 있던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이 반제민족해방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서고있으며 이미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혁명이 승리하고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서고있는 오늘의 력사적조건에서 더욱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인류의 선진사상가들은 세계인구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는 농민해방문제를 일찍부터 제창하였으며 그 해결의 길을 모색하였다.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특히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에 의하여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였다.

그들은 농민문제, 농업문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이 문제의 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그러나 농민문제, 농업문제 해결에서는 해명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남

아있었으며 더우기 사회주의농촌문제에 대하여서는 완전한 미개척분야로 되여 있었다.

사회주의농촌문제는 우리 시대에 와서 혁명실천이 절박하게 해결을 요구한 새로운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그것은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준비함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당이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문제의 하나로 나섰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여러 나라들에서의 력사적경험은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는것은 더욱 어렵고 오랜 시일을 요구하는 창조적사업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가 못시키는가, 사회주의의 영예를 지키는가 못지키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농촌문제의 해결여부와 직접 잇닿아있다.

최근년간 제국주의자들과 그 사환군들은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농사가 잘 안되고 농촌문제가 어려운 고비를 겪고있는것을 기화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악랄하게 공격하여나섰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은 농촌문제를 해결할줄 모른다.》고 하면서 온갖 비방중상을 다하였다.

사회주의농촌문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였고 시급히 해결을 기다리는 중대한 문제였다.

위대한 농촌테제의 력사적공적은 바로 우리 시대 혁명실천이 절박하게 제기한 이 중대한 문제에 처음으로 완전무결한 과학리론적해답을 주었다는데 있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몸소 독창적으로 내놓으시고 빛나게 실현하신 우리 나라에서의 토지혁명과 농업협동화운동,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력사적경험을 심오하게 일반화하시여 농촌테제를 발표하심으로써 우리 시대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섰던 숭고한 임무를 가장 훌륭히 수행하시였다.

테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독창적이고도 심오한 사상과 리론, 원대한 구상의 고귀한 결실이며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쌓으신 그이의 풍부하고도 다방면적인 경험의 리론적총화이며 집대성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발표는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바로 농촌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강령입니다. 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수행한다는것은 농촌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첫단계의 과업, 다시말하여 과도기의 과업을 수행한다는것을 의미하며 또 그렇게 하여야만 공산주의로 갈수 있는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411～412페지)

위대한 농촌테제는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히 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할 확고한 전망을 펼쳐주었다. 농촌테제가 발표됨으로써 우리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에서 앙양된 농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이면서 혁명을 중도반단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길을 찾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아무런 우여곡절도 없이 곧바로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테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농촌

건설뿐아니라 전반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가장 가까운 길을 밝혀주었으며 우리 인민에게 찬란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면서 그들을 계속 새로운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하고있다.

농촌테제는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될뿐아니라 남반부 농민들과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렬한 희망과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을 더욱 북돋아주고있으며 반미구국투쟁에로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위대한 농촌테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을 풍부히 하고 농촌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순결성을 고수하였으며 그것을 새로운 가장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빛나는 모범이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계속혁명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의 기본원칙과 방도,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등을 비롯하여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심오하게 전개하신 위대한 사상과 방침들, 리론적명제들은 사회주의정치경제학과 과학적공산주의리론에서 처음으로 되는 천재적해명이며 고전적정식화들이다.

테제에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심오한 원리들이 사람들의 심장을 힘있게 틀어잡으며 강철의 론리로 전개되여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테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신생독립국가인민들, 아직도 제국주의의 예속밑에 있는 인민들의 투쟁을 끝없이 고무하여주며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에게는 치명적타격으로 된다.

오늘 세계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농촌테제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맑스-레닌주의발전력사에서 하나의 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 로작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한 귀중한 맑스-레닌주의문헌》으로,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정확한 교과서》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위대한 농촌테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강력한 투쟁의 무기이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투쟁강령으로서 거대한 영향력과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고 우리 혁명과 건설,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더욱 큰 승리에로 고무추동하는 불멸의 기치로 된다.

위대한 령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과학적리론을 창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가장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농민문제, 농업문제는 우리 혁명의 첫날부터 가장 중요한 전략적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였다.

우리 나라는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으며 농민이 인구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고있었다. 그러므로 농촌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혁명의 승패와 사회적진보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천재적예지로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중요한 전략적 구성부분으로 제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벌써 광범한 농민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시고 혁명화하시여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나라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력사적뿌리를 확고히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영웅적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근거지—해방치

구에서 몸소 쌓으신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토지강령을 작성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불멸의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정식화하신 토지문제해결의 길은 우리 농민들을 봉건적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할수 있게 한 투쟁의 기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신후 우리 나라에서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대한 전망을 예견성있게 구상하시면서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나섰던 농촌문제를 가장 빛나게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우리 당은 해방직후에 토지개혁을 제때에 실시하고 농촌고리대금업자들과 부농들의 착취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농민대중을 정확히 이끌수 있었으며 전후시기에는 사회주의협동화와 같은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여곡절없이 순조롭게 수행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농촌에서 토지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신후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에 전면적으로 착수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수령님의 사색과 심려는 실로 다방면적이고 구체적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히시기 위하여 농촌의 현실을 여러 방면으로 깊이 료해하시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빠짐없이 연구하시였다. 그리고 몸소 구상하시고 설계하신 문제들을 현실에 하나하나 구현하시여 그 정당성을 확증하시였으며 본보기를 창조하시고 전국적으로 일반화하여나가시였다.

위대한 농촌테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령님의 쉬임없는 탐구와 연구의 과학적결실이다.

수령님께서는 테제를 발표하신후 몸소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진두에 서시여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테제관철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첫걸음부터 많은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그것은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이 격화되고 정세가 매우 긴장된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에서와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정세를 극도로 첨예화시켰다.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나라의 많은 재정적, 물적 자원을 국방력강화에 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또한 농촌의 많은 청장년들도 조국보위초소에 떨쳐나서야 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정세가 극도로 첨예화되고 많은 물적, 재정적, 인적자원을 국방력강화에 돌리야 하였던 어려운 조건에서도 완강한 혁명적전개력과 강의한 의지를 지니시고 모든 난국을 타개하는데로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내놓으시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시는 한편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 나라의 사정이 몹시 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테제를 발표하신 직후였던 1964년 3월에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3차회의를 소집하시고 농업현물세를 1964년부터 1966년까지 년차별로 폐지하며 농촌의 주택건설과 기본건설을 국가자금으로 진행하며 농촌의 중요한 생산설비와 농기계를 국가부담으로 공급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도록 하신것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력사는 아직 우리 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항시적인 전

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강화에 커다란 힘을 돌리면서도 공업화와 사회주의농촌문제의 해결과 같은 어렵고 방대한 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추진시켜나간 실례를 모르고있다.

수령님께서는 테제관철을 위한 방대한 사업을 포치하시고 령도하시면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모든 힘을 다하여 농촌사업을 책임적으로 지도하고 방조하며 로농동맹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혁명적립장을 견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는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제도의 발생과 공고발전을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농민은 오직 로동계급의 령도와 방조하에서만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설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에로 넘어갈수 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7페지)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세기적락후와 빈궁속에 있던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여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기 위하여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로동계급이 농민과의 련계를 밀접히 하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점차 전환시키는 이 모든 문제가 구경은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태도여하에 달리게 된다.

수령님의 원칙적립장과 혁명적방침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농촌을 돕자》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기본구호의 하나로 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이 구호를 실현하는 투쟁이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 투쟁으로 벌어지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이 농촌사업을 지도함에 있어서 언제나 사상혁명을 앞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통일적과정으로 수행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과업은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그것들은 통일적과정으로서 수행되여야 한다.

그가운데서도 사상혁명은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혁명과업이다.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만 치우치고 사상혁명을 소홀히 하는것은 엄중한 착오로 된다.》(우와 같은 책, 35페지)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앞세움이 없이는 농민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할수 없고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점령할수 없다는것을 가르치시고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혁명의 기본과업과 내용, 구체적방도에 이르기까지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농촌에서 테제의 과업을 수행하며 특히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에 있어서 수령님에 의한 농업근로자동맹의 창설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이것은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농업근로자들의 대중적정치조직을 가질수 있게 한 력사적조치이며 농민대중을 참다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워나갈수 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의 강력한 인전대를 마련한 획기적조치이다.

수령님께서는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도록 하시면서 사회주의공업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며 국가가 농촌을 물질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로력적으로, 문화적으로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혁명적대책을 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수많은 당핵심들과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새세대의 청년인테리들을 농촌에 파견하시여 농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힘있게 돕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또한 나라의 방위력이 철벽으로 다져지고 사회주의공업의 위력이 강화된데 기초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도록 하시였으며 전당과 전군, 전민이 달라붙어 농촌경리를 힘있게 지원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며 협동적소유를 공고히 하는 기초우에서 그것을 점차 전인민적소유에로 접근시키기 위한 독창적인 방침들을 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국가적지도의 지역적단위와 거점으로 되는 군사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특히 지방에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림으로써 우리 농촌을 떠메고나갈 능력있는 민족간부의 대부대를 짧은 시일내에 수많이 키워내도록 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서 기본으로 되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농촌경리의 가장 합리적인 생산조직형태이며 농민들의 집단생활의 세포인 분조관리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현명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전기간 우리 농민들에게 친부모도 다 미치지 못할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끊임없이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농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시고 인민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 농촌을 끊임없이 현지지도하시고 농민들의 생활을 극진히 돌보아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하루속히 해방시키며 그들도 도시근로자들과 똑같이 생활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해마다 농촌에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들과 살초제, 화학비료 등을 수많이 보내주시고 농촌수도화와 뻐스화, 텔레비존화, 농촌리진료소의 병원화와 같은 독창적이고도 현명한 방침들을 련이어 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자신께서 몸소 구상하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웅대한 설계도에 따라 농촌문화주택건설의 시범을 친히 창조하시고 그것을 전국농촌에 일반화하도록 하시는 뜨거운 육친의 사랑을 베푸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눈내리고 비바람 사나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벌방으로부터 두메산골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농촌을 일일이 찾으시여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그들에게 알곡과 고기, 남새와 과일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농민들의 간장과 된장 맛에 이르기까지 념려하시며 생활의 구석구석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의 협동농장치고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극진한 배려가 미치지 않은곳이란 없다.

수령님의 이처럼 위대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는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일어나고 위대한 전변의 력사가 찬란히 펼쳐지게 되였다.

빛나는 결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

드밀에 우리 인민은 테제관철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농업대회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세상에 내놓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리상으로 여겼는데 오늘은 그것이 현실로 되여가고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하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지난날 낡은 사회에서 우리 농촌은 세기를 두고 버림받았으며 오직 착취와 략탈의 대상으로만 되여왔다.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의 길에서 우리 농촌은 새로운 면모를 갖추면서 힘차게 전진하였으나 과거에 너무나 뒤떨어졌던 탓으로 하여 아직은 모든 면에서 락후와 빈궁의 흔적이 가셔지지 못하고있었다.

게다가 우리 농촌은 미제에 의한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또다시 혹심하게 파괴당하였다.

우리의 협동농장들은 전후 모든것이 파괴된 페허우에서, 농기계도 없고 로력과 부림소도 모자란 어려운 형편에서 조직되였다. 또한 우리의 농민들은 주택과 살림도구마저 거의다 잃어버리고 먹을것과 입을것도 부족하던 형편에서 협동화의 길에 들어섰다.

우리 당이 농촌테제를 관철하는 길에 들어섰을 때에만 하여도 일부 사람들가운데는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수행할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농촌테제는 하나의 리상적인 강령이 아니라 우리 농촌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되고있는 엄연한 력사적현실로 되였다.

우리 인민은 지난 10년간의 영웅적투쟁을 통하여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모든 과업을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와 사상적준비를 완전히 갖추게 되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농촌테제는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에서 사회주의의 꽃, 혁명의 붉은 꽃을 활짝 피우게 한 은혜로운 빛발로 되였다.

농촌테제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의 하나는 우리 농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것이다.

농촌에서의 사상혁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은 비상히 높아졌으며 그들속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정신과 조직성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우리 농촌의 계급진지는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 전체 농업근로자들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향하여 신심도 드높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나가고있다.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우리 농촌에서 수리화와 전기화의 과업은 이미 오래전에 성과적으로 실현되였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의 과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수령님께서는 농촌테제에서 농촌의 뜨락또르대수를 7만~8만대(15마력환산으로)에 이르게 할데 대한 과업을 내세우시였다.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제시하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위한 이 방대한 과업이 우리 나라에서 올해에 실현되게 될것이다. 이 과업의 실현으로 우리 농촌에서는 경지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가 5~6대에 이르게 된다.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시여 앞으로 가까운 몇해사이에 농촌경리의 뜨락또르대수를 경지면적 100정보당 8~9대씩 차례지게 할데 대한 전망적목표를 제시하시였다. 모든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 목표도 훨씬 앞당겨점령될 확고한 전망이 내다보이고

있다. 이것은 가까운 몇해사이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 종합적기계화의 과업이 완수되게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농촌에서는 올해에 또한 정지정보당 물동량으로 화학비료의 시비량을 1톤이상에 이르게 할데 대한 테제의 과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될것이다. 최근년간 농촌경리의 화학화에서는 특히 화학비료의 구색을 합리적으로 맞추는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농촌기술혁명의 과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농업로동과 공업로동간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있으며 우리 농촌에서는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하는 시대에 이미 확고하게 들어서게 되였다.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유기적결합과 공업과 농업간의 생산적련계가 강화됨에 따라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은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현대적기계기술과 도시의 선진적생산문화가 농촌에 더 넓고 더 깊이 침투하고 있다.

농촌문화혁명수행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최근년간 우리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은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특히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방마다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가 꾸려짐으로써 오늘 우리 농촌에는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새로운 혁명적인테리들이 수많이 들어가 농촌테제관철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하고있다.

농촌에서는 도시에서와 똑같이 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으며 수많은 유치원과 탁아소에서 학령전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우리 농촌에서는 가는곳마다에 유선방송이 들어가고 텔레비존화, 농촌리진료소의 병원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으며 농가마다 신문, 잡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출판물들이 골고루 들어가고있다. 특히 농촌 수도화와 뻐스화의 성과적인 추진으로 오랜 세월 농촌녀성들의 부담으로 되여오던 물동이가 점차 자취를 감추고있으며 농촌주민들도 도시부럽지 않게 교통에서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되고있다.

우리 농민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에서 완전히 해방되였으며 국가가 무상으로 지어주는 문화주택에서 생활을 흥겹고 알뜰하게, 문화위생적으로 꾸려나가고있다.

농촌에서의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우리 농촌에서는 해마다 농사가 잘되고있다.

특히 지난해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례년에 볼수 없는 대풍작이 마련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식량문제가 완전히 풀렸을뿐아니라 농촌경리의 다른 모든 부문을 더욱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공고한 알곡생산토대가 마련되였다.

알곡생산과 함께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이 해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 10년간 테제가 밝혀준 휘황한 빛발아래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먼리 앞으로 전진하였다.

위대한 농촌테제의 혁명적기치밑에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더욱 휘황한 미래가 약속되여있다.

농촌사상혁명수행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

김 이 훈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여놓았으며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다.

농촌테제가 발표된 때로부터 10년간, 그것은 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농촌에서 온갖 낡은것, 보수적인것을 쓸어버리고 새것, 혁명적인것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으로 아로새겨졌으며 제국주의와 기회주의의 온갖 잡소리를 짓부시고 공산주의농촌건설의 본보기를 창조하는 영광스러운 승리로 수놓아졌다.

지난 기간 사회주의농촌건설 특히 사상혁명에서 이룩된 눈부신 성과들은 전적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그이께서 농촌테제에서 밝혀주신 사상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다.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가난하고 뒤떨어진 우리 나라 농촌을 발전된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키시여 오늘의 이 행복, 이 영광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을 표시하고있으며 농촌테제를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하려는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공산주의사상개조의 휘황한 길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농업협동화가 완성된 다음 농촌사상혁명수행의 가장 옳바른 길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에서 사상혁명을 수행하는것은 아직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이다.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 사상혁명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할것인가 하는것은 우리 시대가 과학적인 해답을 기다리는 절박한 문제였다.

이 문제는 오직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하여 근로대중을 혁명화하시여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모든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는 해결을 보게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사상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보물고와 선진적인 인류사상사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농촌사상혁명에 관한 리론은 물질적요새와 함께 사상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 공산주의에로 가는 지름길을 밝혀준 불멸의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은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이라고 늘 강조하였으며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울것을 당조직들에 호소하였습니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은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농업협동화의 력사적위업이 완수된 후에도 농민들의 머리속에,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낡은 사상 잔재와 뒤떨어진 생활관습이 남아있게 된다. 또한 제국

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계속된다. 이런 조건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지 않는다면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굳건히 지켜낼수 없을뿐아니라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민들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한다는것은 결국 로동자와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앤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민들을 견결한 혁명가로 키워야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락후한 농촌과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뒤떨어진 농민을 그대로 두고서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는것이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것과 함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것만으로는 공산주의사회를 훌륭히 건설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지고 생활이 높아진다고 하여 농민들의 사상의식이 저절로 개조되는것은 아니다. 물론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는 낡은 사상을 낳는 경제적기초를 청산하며 농민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있는 사회적, 물질적 조건을 지어준다.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도 농민들의 의식속에는 낡은 사상 잔재 특히 소소유자적근성이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이것들은 사상사업이 약화될 때에는 되살아날수 있고 더욱 조장될수 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은 농민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우지 않고 물질적토대를 쌓는 투쟁만 하여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농민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여야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사상적요새와 함께 물질적요새도 더 잘 점령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농촌사상혁명에 관한 리론은 또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다.

농업근로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함으로써만 사회주의농촌의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결코 저절로 발양되지 않는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데서 큰 장애로 되는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이다. 이것들은 농민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좀먹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마비시킨다. 농민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는 또한 계급적원쑤들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바탕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민들을 철저히 로동계급화, 혁명화하여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농촌에서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농촌사상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은 사상혁명에서 기본이 무엇인가를 밝혀준 탁월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에서 기본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

체사상의 근본원리에서 출발하고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주인은 농업근로자대중이며 농촌에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농업근로자대중에게 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은 농민들을 위한것이며 농민대중의 의식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에 의하여 실현된다. 그런것만큼 농민대중은 마땅히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계급적자각은 농민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혁명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더욱 공고화된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이다. 비록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사상적으로 뒤떨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면 그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정신적불구자로밖에 될수 없다. 그러므로 농민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그들이 혁명적세계관을 바로세우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수 있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는 농민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찾아하며 모든 일을 알뜰하고 이악하게 책임적으로 하며 집단주의정신을 발양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특히 땅을 사랑하고 농기계, 농기구, 농업생산시설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산림을 애호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농민들을 교양하는것은 농촌의 특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농업로동은 공업로동과는 달리 인차 그 성과가 눈에 보이는것이 아니라 몇달 혹은 1년후에야 나타난다. 또한 농민들은 넓은 들판에서 분산되여 일하며 개별적으로 하는 일도 적지 않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은 온갖 자본주의적인것을 없애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치렬한 계급투쟁이며 낡은것, 보수적인것을 쓸어버리고 혁명적인것, 로동계급적인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사업이다. 그것은 또한 자연을 개조하며 정복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사상혁명을 통하여 농민들을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워야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점차 공산주의에로 넘어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민은 오직 로동계급의 령도와 방조하에서만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설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에로 넘어갈수 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7페지)

로동자와 농민은 같은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힘을 합쳐 투쟁하는 동맹자이며 다같이 사회주의적근로자이다. 그들은 모두다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그러나 농민은 로동계급의 령도와 방조없이 공산주의사회에로 갈수 없다.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생산수단이 전인민적소유에 기초하고있으며 근로자들이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되고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며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질것을 요구한다.

로동계급은 농촌에서 봉건적토지소유제도와 자본주의제도를 없애며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농민들은 오직 로동계급의 령도와 적극적인 지원밑에서만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협동적소유로 전환시키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할수 있으며 무계급

사회를 실현할수 있다.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농민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워야 농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당이 농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철저히 로동계급화, 혁명화하여야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농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도와주어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사명이며 그들을 동맹자로, 혁명의 전우로 여기고 서로 손잡고 끝까지 혁명하려는 로동계급의 숭고한 사상으로부터 출발한 영예로운 임무이다.

농촌사상혁명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리론은 우리 농민들을 한없이 따사롭고 자애로운 한품에 안으시여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에로 이끌고가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구현한 불멸의 사상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농촌사상혁명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수령님에 의하여 농촌사상혁명에 관한 리론이 창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옳바른 전략전술을 세우고 공산주의에로의 가장 곧바른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촌사상혁명에 관한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모략선전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로동계급의 계급적원칙과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찬란한 업적, 위대한 성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에서의 사상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이 부닥친 온갖 난관과 시련을 타개하시면서 농촌에서의 사상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지난 시기 우리 혁명의 안팎의 정세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반공》선전을 미친듯이 들이대는 한편 세계도처에서 특히 우리 나라에서 새 전쟁 도발에 미쳐날뛰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는 온갖 기회주의가 대두하여 우리 혁명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닥친 온갖 애로와 난관들을 타개하시면서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혁명의 기본부대의 하나인 농민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19~20페지)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벌써 농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에게 계급의 눈을 띄워주시고 사상적으로 각성시키시여 혁명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과 업적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우리 농민들의 땅에 대한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었을뿐아니

라 그들을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진 사회주의농업근로자로 키우시기 위하여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을 앞세울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시고 농촌에서 사상혁명의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도록 온갖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사회주의농업근로자동맹의 창설은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수령님께서는 개인농때의 농민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산하시고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농촌의 새 환경에 맞게 사회주의농업근로자동맹을 무어주심으로써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근맹이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사상혁명을 직접 담당하고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 사명을 지니고있다는것을 밝히시고 농근맹으로 하여금 농민의 특성과 농촌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사상교양체계를 세우고 정치사상교양단체로서의 자립적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보살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농근맹에 농장원들과 함께 국영농목장과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공장, 기업소 로동자들을 망라시키는 현명한 조치를 세워주시여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과 지도적역할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이리하여 농촌에서 사상혁명은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농민들은 공산주의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7년 2월 전국농업일군대회를 마련하시고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할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취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대회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새로운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농민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더욱 다그쳐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시고 그 수행을 위한 명확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를 다시금 천명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농촌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모든 농업부문일군들과 농장원들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56페지)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에 제대군인들과 청장년들, 우수한 일군들을 파견하시여 농촌의 계급진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게 하시는 한편 농민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밝혀주시고 몸소 농촌에 나가시여 농업근로자들을 견결한 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영명하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는 농민들의 정신도덕적풍모와 농업생산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을뿐아니라 경제,국방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제4차당대회이후의 전반적인 당 사상사업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경험을 총화분석하시고 농민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할 방향과 과학적인 방도를 밝히시고 그 실현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민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기 위한 진공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 제5차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며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농근맹 제2차대회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우선 일군들이 당정책학습, 기술학습, 경영학습을 잘하며 농민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형식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우리 당은 농민들속에서 세가지 좋은 일하기운동, 다시말하여 땅을 사랑하는 운동, 농기계와 농기구, 농업생산시설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운동, 산림을 애호하는 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일군들의 지도수준은 빨리 발전하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었으며 사상혁명도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있었다.

영명하신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더욱 앞당겨야 할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와 사태발전의 본질을 꿰뚫어보시고 지난해초에 다시금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과정에서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이미 이룩된 성과에 자만하거나 생활이 넉넉해진데로부터 안일해이해질수 있다는것을 포착하시고 그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배양하며 모든 일을 알뜰하고 이악하게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수많은 당핵심들과 청년인테리들을 농촌에 파견하시여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경험주의를 뿌리빼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눈보라와 비바람을 헤치시며 피로도 무실사이 없이 벌방지대와 산간벽지, 해안농촌과 도시주변을 비롯한 여러 농촌들을 찾으시여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료해하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과 농민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뿌리빼고 집단주의사상을 넣어주시였으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심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농민들속에 심어주신 위대한 주체사상은 억세고도 깊은 뿌리를 내리고 무성한 가지를 뻗치였으며 화려한 꽃을 피우고 풍만한 열매를 맺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농업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난 기간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에서 사상혁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들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사회주의농업근로자로 되였다.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속에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의 사상체계가 꽉 들어찼으며 그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되고 농업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투쟁하고있다.

일군들속에서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경험주의, 요령주의 등이 극복되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확립되였으며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적인테리의 대부대를 키워 농촌에 보낼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농촌에서 문화혁명과 함께 사상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로 된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고 농민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높이 발양됨으로써 농업생산과 기술, 문화혁명수행에서도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농촌에서는 이미 수리화, 전기화가 완성되였으며 기계화와 화학화가 추진되여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기술혁명의 과업을 짧은 시일안에 실현하고 농촌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할수 있는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였다. 사회주의농촌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농업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알곡을 비롯한 농업생산은 불리한 기후에 관계없이 해마다 늘어나고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례년에 드문 대풍을 이룩하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에 이룩된것이며 농촌테제에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농촌사상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오늘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앞에는 이미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보다 큰 승리를 쟁취해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농업대회에서 밝혀주신대로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상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농업근로자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 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전체 농업근로자들을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꾸준히 학습하고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일하지 않고 놀고먹으려는 사상과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좀먹는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과 법규생활을 강화하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며 사상교양사업과 혁명적실천을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이 모든 사상교양은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배양하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을 세우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계속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동원하여 사상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공적으로 벌리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일적과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전체 농업근로자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갈것이다.

위대한 테제의 빛발아래 농촌기술혁명은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리 건 일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테제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혁명적원칙과 과학적방도들을 밝히시였으며 농촌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촌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은 농업을 공업화하고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며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길을 밝혀주고있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농촌기술혁명강령이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농촌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이 빛나게 실현되고있으며 그 거대한 생활력이 날을 따라 높이 발양되고있다.

* *

농촌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필수적인 요구이며 협동화가 완성된 다음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기술혁명은 농촌경리를 현대적기계와 기술로 장비하고 농업과학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며 그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4페지)

수령님께서는 농업생산력을 높이며 농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할뿐아니라 그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데 농촌기술혁명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농촌기술혁명의 사명과 목적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것을 요구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기때문에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자기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언제나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확고한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농촌기술혁명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이러한 요구, 철저한 로동계급적립장을 구현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농촌기술혁명은 무엇보다먼저 농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는데 복무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보람찬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것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마련하여주려면 그들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할뿐아니라 그들이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다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정도는 자연을 정복하고 힘든 로동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고 고된 로동에서 벗어나는것은 우리 농민들의 오랜 세기적인 숙망이였다.

지난날 나라가 락후한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탓으로 하여 우리 농민들은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받아왔으며 기나긴 세월 갖은 고역에 시달려왔다.

인간의 자주성과 존엄을 짓밟는 착취사회를 뒤집어엎고 보람찬 생활을 누려보려는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은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대하여서와 자녀교육, 병치료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아직 농업생산과정에 남아있는 힘든 로동을 모두 없애야 한다.

농촌기술혁명은 농촌경리를 현대적기계와 기술로 장비하고 농업과학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농업생산력을 높일뿐아니라 농업생산과정에 남아있는 힘든 일을 없앰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만들수 있게 한다.

수령님의 농촌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에는 지난날 가혹한 착취와 압박, 세기적인 고역과 빈궁에 시달려온 우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까지 영원히 해방하며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담겨져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촌테제에서 밝혀주신 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또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여 농민들을 공산주의사회에까지 이끌고갈데 대한 그이의 확고한 혁명적립장을 구현하고있다.

낡은 생산관계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고 사람들이 착취와 빈궁에서 해방되였다고 하여 혁명이 끝나는것은 아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한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사상, 기술, 문화적으로 뒤떨어져있다.

이러한 락후성으로 하여 공업과는 달리 농촌경리에는 협동적소유가 지배적인 형태로 남아있게 되며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차이가 있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혁명을 계속하여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없애야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농촌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여 이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의 차이를 없애는 기본담보로 된다.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 때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며 생산력을 높이고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지난날 중산계층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된다.

뿐만아니라 당면한 로력의 긴장성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농촌기술혁명은 많은 로력을 절약하여 알곡, 과수, 축산, 누에치기를 비롯한 농업의 다각적발전을 더잘 보장하게 하며 공업발전에 필요한 로력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속도를 이룩할수 있게 한다.

농촌기술혁명은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할뿐아니라 농촌에서 사상혁명, 문화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계급적각성과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야 기술혁명과 문화혁명도 성

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그리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하여야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일수 있으며 사상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농촌에서 기술혁명이 촉진되여 현대적기술수단들이 널리 도입되고 로동조건이 변화됨에 따라 농민들은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을 더잘 배울수 있게 되고 낡은 사상 잔재, 낡은 생활 인습에서 빨리 벗어날수 있다. 또한 그들의 일반문화수준이 높아지고 문화생활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여 사상, 문화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농촌기술혁명은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중요한 담보이다.

농촌기술혁명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은 혁명을 계속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며 로동계급이 농민을 끝까지 책임지고 공산주의에까지 이끌고가야 한다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혁명적립장을 구현한 위대한 사상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테제에서 농촌기술혁명의 사명과 목적을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그 기본과업과 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의 선후차, 호상관계 등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심오한 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농촌에서 협동화를 실현하는 한편, 곧 기술혁명의 수행에 착수하였다. 우리는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농촌기술혁명의 기본과업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돌렸다.》(우와 같은 책, 44페지)

농촌기술혁명의 기본과업과 선후차, 호상관계를 옳게 규정하는것은 이 사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수령님께서는 농촌기술혁명의 목적,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적조건, 농업생산의 구체적특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철저한 주체적립장에서 농촌기술혁명의 기본과업과 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의 선후차, 호상관계를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농촌기술혁명의 기본내용을 이루는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는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농업생산의 특성에 맞게 토지의 생산성과 로동생산능률을 높여 농촌기술혁명의 목적을 가장 훌륭하게 달성할수 있게 한다.

수리화, 화학화는 기계화, 전기화와 함께 밀고나갈 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으며 기계화, 전기화는 수리화, 화학화를 동반하여야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게 된다.

수령님께서는 수리화를 앞세우고 이에 전기화를 병행하며 수리화와 전기화가 기본적으로 끝나감에 따라 기계화,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추진시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여주신 농촌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실로 농촌기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며 농업근로자들을 끊임없는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농촌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농촌기술혁명은 처음부터 매우 어렵고 복잡한 가운데서 진행되였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농촌테제를 높이 받들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수많은 난관

들이 가로놓여있었다.

우리 인민앞에 가로놓인 주되는 난관은 나라의 안팎의 정세가 매우 긴장한것이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제침략자들이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더욱 로골화함으로써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 긴장하였다.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로부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제기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안팎의 정세가 긴장하고 나라의 사정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언제나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혁명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고 불굴의 투지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모든 애로와 난관을 이겨나가시면서 농촌기술혁명의 성과적실현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천재적인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농촌기술혁명방침과 그 수행방도들을 제시하시여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를 빨리 끝낼수 있는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촌기술혁명방침의 독창성과 정당성은 무엇보다도 수리화, 기계화에서 그 뚜렷한 실례를 찾아볼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논관개를 앞세우는 한편 분수식관수체계에 의한 밭관개를 널리 실시하며 고이는물빼기공사, 사방야계공사와 하천정리사업, 해안방조제공사 및 식수조림사업을 진행하며 국가부담으로, 전군중적운동으로 수리화를 널리 진행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침과 그 수행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며 현대적인 대기계화와 함께 중소기계화를 결합시켜 진행하며 기계화에 유리하고 그 효과성이 높은 평지대로부터 점차 산간지대에로 기계화를 확대하는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농촌기술혁명방침의 독창성과 정당성은 전기화, 화학화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촌기술혁명을 위한 이 모든 방침들은 각이한 지대적 특성을 가진 우리 나라의 전반적농촌들에서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방침이다.

이 방침들은 우리 나라 농촌경리발전의 현실적요구와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에 맞으며 인민대중속에 쉽게 파악되고 그들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학적인 농촌기술혁명방침과 그 수행방도를 제시하시고 어떠한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확고한 주체적립장,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 이것은 공산주의적혁명기풍과 혁명정신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동원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야 하며 어떠한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 새 사회를 건설할줄 알아야 합니다.》(《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02페지)

우리 나라에서 농촌기술혁명은 미제를 비롯한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반항을 물리치는 간고한 조건에서 진행된 어려운 투쟁인 동시에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보수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경험주의자들과의 심각한 투쟁이였다.

수천년동안 뿌리깊이 내려오던 농촌의 기술적락후성을 없애고 농촌경리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 이 거창한 사업이 쉽게 이루어질수 없으며 더우기 그 누가 우리의 투쟁을 대신하여줄수도 없

있다.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오직 우리 인민의 힘을 동원하여 부닥친 난관을 뚫고 농촌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심어주시고 키워주신 철저한 주체적립장,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도처에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아껴가면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현대적인 뜨락또르, 자동차 공장을 일떠세우며 대중적운동으로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 위대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전당, 전국가가 달라붙어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온 사회에 농촌기술혁명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강력히 지원하는 혁명적기풍이 서게 되여 이 사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농촌기술혁명을 위한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며 농업과학연구사업과 이 부문의 기술인재양성사업을 예견성있게 밀고나가시였다.

기계화된 우리 농촌의 앞날을 환히 내다보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에 벌써 여러곳에 농기계임경소를 설치하시였으며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도 그것을 도처에 확대하고 더많은 뜨락또르와 각종 농기계를 보내주시여 농촌기술혁명의 튼튼한 거점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후 그 어려운 시기에 벌써 등짐을 지는 농촌녀성들과 무더운 여름날 논김을 매는 농민들을 보시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뜨락또르와 자동차 생산을 다그칠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다른것은 미루는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국가적으로 큰 힘을 넣도록 하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 일떠선 현대적인 뜨락또르, 자동차 공장들과 크고작은 농기계공장들을 비롯한 모든 기계공장들과 화학공장들, 발전소들은 나라의 경제적토대를 강화하여 인민생활을 높이며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위대한 창조물이다.

수령님께서는 농촌기술혁명을 위한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시는 한편 수많은 농업기술일군들을 전망성있게 키우시였으며 농업과학연구기관들과 설계기관들을 조직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현대생물학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그 성과를 농업생산에 널리 도입하여 우리 나라의 지대별 기후풍토에 맞는 농작물의 품종을 개량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기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의 기본담보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590페지)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묶어세우며 대중에게서 힘과 지혜를 얻으며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수령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혁명적군중로선이다.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의 진두에 서시여 농촌기술혁명을 어떻게 령도하시였는가 하는것은 그이의 현지지도로정이 웅변으로 말하여주고있다.

수령님께서는 나라일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관개하천공사장을 비롯한 크고작은 공사장과 발

전소건설장, 기계공장들과 화학공장들에 나가시여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꺼질줄 모르는 투쟁의 불씨를 안겨주시였으며 당정책관철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도록 고무하시였다.

해방직후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여 대자연개조의 위대한 첫봉화를 올리신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모진 추위와 눈보라, 궂은 비와 무더운 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산간마을의 작은 저수지로부터 평남, 어지돈, 기양, 청단, 압록강지구의 대규모의 관개공사장들과 금성뜨락또르공장을 비롯한 크고작은 농기계공장들, 발전소건설장과 화학공장들을 찾으시여 설계도도 보아주시고 걸린 문제도 손수 풀어주시면서 앞으로 할일을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오늘 열두삼천리벌, 평남온천벌, 황주긴등벌, 연안청단벌, 신계미루등에 연연 수천수만리 물길과 2단, 3단 양수장을 거쳐 흘러드는 관개수도 어버이수령님의 이러한 정력적인 현지지도와 물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인 숙망을 풀어주시려는 그이의 뜨거운 사랑이 가져다 준 고귀한 생명수이다.

실로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으신 현지지도의 그 거룩한 자욱자욱마다에는 우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깃들어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기술혁명에서는 거대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농업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었고 공업이라는 말조차 모르던 우리 인민이 이미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전기화를 완성하고 이제는 기계화와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있으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농업정책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기술혁명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수리화를 완성한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마련한 관개시설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관개공사를 널리 진행하여 논관개는 완전히 끝냈으며 분수식관수체계를 도입하여 경사지를 비롯한 불리한 지형조건에 관계없이 밭관개까지 적지 않게 실현하였다.

중공업의 지원밑에 고이는물빼기공사를 힘있게 벌려 우리 나라의 중요벼생산지대들에서 고인물피해를 완전히 없앨수 있게 되였다. 나라의 전반적지역들에서 사방야계공사와 강하천정리사업, 해안방조제공사 및 식수조림사업을 널리 진행하여 논밭과 농작물을 자연의 피해로부터 더잘 보호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그 어떤 왕가물이 드나 큰 물이 져도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완성된 수리화체계가 마련되였다.

농촌경리의 기계화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 나라의 모든 시, 군에는 농촌기술혁명의 거점인 농기계작업소들이 설치되였으며 여러곳에 현대적인 련결농기계공장들과 뜨락또르부속품공장들이 건설되고 뜨락또르수리기지와 농기구공장들이 꾸려졌다.

특히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지난해 세계굴지의 자동화된 금성뜨락또르공장이 일떠선것을 비롯하여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져 농촌에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에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가 2~2.5대에 이르게 되였으며 벌방지대에서는 3~4대에 이르게 되였다.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농기계의 리용

체계와 수리체계가 잘 운영되여 많은 농기계들이 농촌기술혁명에 더잘 복무할수 있게 되였다.

오늘 협동농장들에서 밭갈이로부터 씨뿌리기, 모내기, 가을걷이, 낟알털기등 농산작업에 현대적농기계들을 널리 리용할수 있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전기화의 과업도 빛나게 실현되였다.

우리 나라의 모든 농촌 마을과 집집마다에 이미 전기가 들어갔으며 마당질, 물푸기, 집짐승먹이자르기, 먹이빻기 등 한자리에서 하는 모든 일에 전기동력이 광범히 리용되고있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화학화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에는 화학비료를 정보당 물동량으로는 1톤이상, 성분량으로는 200키로그람이상씩 줄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토대가 마련되였다. 뿐만아니라 땅의 성질과 작물에 맞게 과학적시비체계가 세워져 화학비료의 효능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되였다. 또한 농약의 살포량이 늘어나 농작물을 병충해로부터 더잘 보호할수 있게 되였으며 효능이 높은 살초제들이 적지 않게 생산공급되여 약으로 김을 잡게 되였다.

농업부문 기술인재양성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이 강화된 결과 이 부문에서 일하는 기술일군대렬이 훨씬 늘어났으며 농업과학의 연구성과들이 생산에 널리 도입되고있다. 특히 오늘 벼, 강냉이를 비롯한 중요작물들은 기본적으로 개량되여 비바람에 잘 견디고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품종으로 되였다.

농촌기술혁명이 수행됨에 따라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이 빨리 발전하였다.

지난해에만 하여도 최고의 높은 알곡수확을 거두었으며 1～2년안에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토대가 마련되였다. 알곡과 함께 과일, 남새, 고기, 누에고치 등 모든 농업생산부문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생산은 훨씬 늘어났다.

오늘 우리는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하는 시대에 들어서게 되였다.

농촌기술혁명에서 거둔 이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끊임없는 배려의 결과이며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이 가져온 고귀한 열매이다.

수령님께서는 전국농업대회에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다그쳐 가까운 앞날에 한사람당 논은 5정보이상, 밭은 10정보이상 다룰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이 과업은 지금 적지 않은 농업생산단위들에서 수행되였고 가까운 앞날에 모든 농촌들에서 빛나게 실현되게 된다.

이 과업이 전국적으로 실현되면 농업생산이 더욱 늘어나고 농민들이 힘든 로동에서 해방되는것은 물론 농촌에서도 공업부문에서와 같이 8시간로동제를 실시할수 있게 된다.

농촌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도먼저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사상투쟁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남아있는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 등 주체사상과 배치되는 낡은 사상 잔재들과 사업태도들을 없애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지난해 례년에 드문 대풍을 이룩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농촌테제발표 열돐을 맞는 올해에 또다시 만풍년을 이룩하고 어버이수령님께 영광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올리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농촌문화혁명에 관한 사상과 그 위대한 생활력

정　동　익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갔다.

10년, 이것은 반만년의 우리 나라 력사에서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테제의 빛발아래 우리 나라 농업은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농촌은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의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의식주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도 모르는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평안남도에서도 농촌의 온갖 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농업생산을 높이는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일어난 이 세기적변혁과 자랑찬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테제발표 열돐을 맞는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승리의 신심도 드높이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휘황한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농촌문화혁명에 관한 위대한 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농촌문화혁명의 필연성과 내용, 그 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주심으로써 농촌문화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농촌문화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문화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구성부분으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중심과업의 하나로 제기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57폐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질적요구로부터 흘러나오는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뿐아니라 근로자들의 높은 기술문화수준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은 결국 전체 인민들에게 부유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부단히 장성하는 그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경제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는 사업과 함께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온갖 문화적 락후성을 청산하며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수백만 근로자들을 문화적으로 계몽시키고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사회주의사회의 본

성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수 있다.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데서 농촌문화혁명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자본주의하에서 농촌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도시에 매여있으며 도시에 비하여 경제적으로뿐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멀리 뒤떨어져있다. 또한 자본주의하에서 문화와 문명은 도시에 집중되고 농촌은 무지와 몽매가 지배하고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이러한 농촌을 문화적으로 개조하며 농민들을 교양하여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지 않는다면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나라의 전반적인 문화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농업협동화를 실현한 다음에도 농촌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촌에서 사회주의협동화의 실현은 농민문제, 농업문제 해결에서 력사적인 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농촌에서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였다고 하여 혁명이 끝나는것은 아니다. 협동화가 실현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현대적공업에 비한 농촌의 기술적락후성, 도시주민에 비한 농촌주민의 문화적락후성, 로동계급에 비한 농민의 사상적락후성이 남아있게 된다.

농촌의 이러한 락후성을 없애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농촌에서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은 그자체에 큰 의의가 있을뿐아니라 기술혁명과 사상혁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일수 없으며 사상혁명과 기술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상혁명,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성과적실현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문화혁명을 계속혁명의 중심과업의 하나로 힘있게 밀고나갈 때라야만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앞당길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농촌문화혁명에 관한 사상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농촌문화혁명의 기본내용과 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힌것이다.

농촌문화혁명의 내용과 과업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문화혁명은 농민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며 농촌기술간부를 양성하며 농촌의 낡은 면모를 개변하고 온갖 뒤떨어진 생활양식과 인습을 없애며 생활을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리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9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며 농촌기술간부를 키우는것은 농촌문화혁명의 기본내용의 하나이다.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력사적인 과업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무장한 농업근로자들의 자각적이며 의식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된다. 따라서 농촌문화혁명을 다그쳐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그들의 창의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키고 농촌기술간부대렬을 늘이며 현대적인 기계기술을 더 잘 리용할수 있게 하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게 하는 전제로 된다. 또한 그것은 농촌문화혁명을 전

면적으로 전개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는것으로 되며 기술혁명과 사상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농촌문화혁명수행에서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데 항상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였으며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이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농촌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의 다른 하나는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농촌에서 생산문화를 철저히 세워야만 농민들속에서 논밭과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 탈곡장과 여러가지 창고들을 알뜰히 거두고 깐지게 쓰며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또한 농촌에서 생활문화를 높여 집과 마을을 깨끗이 거두고 문화후생시설들을 잘 꾸려야만 도시와 농촌 주민들간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앨수 있다. 따라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농촌문화혁명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농민들속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집단을 사랑하며 집단생활에 습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농촌문화혁명에서 제기되는 이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만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과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앞당겨나갈수 있다.

실로 농촌문화혁명의 내용과 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객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반영한 가장 정당한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강령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문화혁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도에 대하여서도 명확한 해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이 농촌문화혁명에서 나서는 근본원칙이라고 밝히시였다.

농촌문화혁명은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 실정과 특성에 맞게 하여야 한다.

매개 나라의 농업발전수준과 기후조건, 토질관계가 서로 다르며 매개 나라 민족들의 문화기술수준과 생활감정, 풍습과 생활양식이 다르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기 나라 실정과 특성에 맞게 농촌문화혁명을 창조적으로 수행하는것은 합법칙적이다.

농촌문화혁명을 자체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수행하여야만 자기 나라 농업발전에 쓸모있는 인재들을 키워내고 새로운 농업과학기술을 부단히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농촌문화혁명은 다른 모든 혁명과 마찬가지로 낡고 침체한것과의 투쟁을 통해서만 수행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것을 새것으로 바꾸는것도 하나의 혁명입니다. 그러므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도 반드시 낡고 침체한것과의 투쟁을 통해서만 수행될수 있습니다.》

혁명이란 반드시 낡고 침체한것과의 심각한 투쟁속에서만 진행된다.

농촌문화혁명도 새것과 낡은것, 진보와 보수, 전진과 답보간의 투쟁이며 농민들의 생활에서 봉건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잔재를 쓸어버리고 사회주의적문화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심각한 사상투쟁이다. 따라서 농촌문화혁명은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비문화적이며 비혁명적인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촌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도시

가 농촌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본질적특성의 하나이며 응당 하여야 할 일이다.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원을 강화하여야만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더 빨리 없애고 뒤떨어진 농촌을 선진적인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더 잘 꾸릴수 있다. 만약 농촌을 홀시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더욱더 커지게 될것이며 따라서 농촌문화혁명의 과업은 그만큼 더디게 진행될것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여 농촌의 온갖 문화적락후성을 하루빨리 없애고 농민을 모든 면에서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군을 거점으로 하여 농촌문화혁명을 진행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은 농촌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도 사회주의농촌의 발전에 강력한 작용을 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67페지)

군은 정치, 경제 생활에서뿐아니라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련계를 보장하는 거점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농촌문화혁명의 거점인 군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농촌학교들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고 학교가 농촌문화혁명수행에서 큰 역할을 하도록 하며 교원들을 동원하여 5호담당제를 실시하도록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천명된 농촌문화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농촌의 온갖 락후성을 없애고 농촌을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꾸리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곧바른 길을 밝혀준 지도적지침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농촌문화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의 농촌들을 지상락원으로 전변시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은 남조선 농민들과 인민들에게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신뢰감을 더욱 두터이 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그들을 힘차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수령님의 농촌문화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농촌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그 보물고를 더욱 풍부화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농촌문화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생활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농촌문화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 빛나게 실현되고있으며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가난과 빈궁속에서 고생하는 우리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다른 모든 사회경제적개혁에 앞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심으로써 땅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였을뿐아니라 농촌을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시키시기 위하여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농촌의 락후성을 청산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한 실제적조치들을 취해주심으로써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농촌문화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 조치들을 련이어 강구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몸소 여러 농촌마을을 찾으시여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였다.

실로 우리 나라 그 어느 농촌, 그 어느 협동농장치고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미치지 않은곳이란 없으며 그이의 따뜻한 배려가 돌려지지 않은데가 없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신 크나큰 은덕과 배려가 있었음으로 하여 농촌문화혁명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실시되고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이 급속히 높아졌으며 기술간부의 대부대가 농촌에서 일하고있다.

또한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들이 알뜰히 꾸려지고 집집마다 출판물과 유선방송이 들어갔으며 수도화, 빼스화, 텔레비존화가 빨리 추진되고 농촌병원들이 잘 꾸려짐으로써 농촌의 문화적락후성이 가셔지고 도시와 농촌 주민들간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다.

그리고 농촌마을들에 나라에서 지어준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가난과 빈궁 속에서 모대기던 우리 농민들이 의식주에 대한 근심걱정은 물론 자녀들을 공부시킬 걱정, 병고칠 걱정 없이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배우면서 흥겹게 일하며 문명하게 생활하고있다. 바로 이것이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보살피심속에서 변모된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일어난 이 세기적인 변혁과 함께 우리 평안남도에서도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오늘 평안남도의 농촌들은 낡은 사회의 유물인 락후와 빈궁의 흔적을 완전히 가시고 그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말그대로 살기 좋고 문명한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문화혁명에서 우리가 달성한 성과는 무엇보다먼저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인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농촌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빨리 높이는것입니다.》

농민들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

도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농업대학과 축산대학, 고등농업학교와 농업간부학교를 비롯한 도내 농업부문 간부양성기관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교원들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여 혁명적인 청년인테리들과 현직간부들을 체계적으로 키움으로써 농업기술일군대렬의 질적구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고 매개 협동농장들에서 관리일군들로부터 농장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기술학습반과 기술전습망에 망라시켜 그들에게 토양학과 생물학, 비료와 농기계, 성장촉진제에 대한 지식을 비롯한 농업기술지식을 배워줌으로써 그들의 기술문화수준을 현저히 높일수 있었다.

이리하여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은 전반적으로 중학교졸업정도이상에 도달하게 되였으며 농촌기술일군대렬은 테제가 발표되기 전시기에 비하여 4배로 장성하였으며 매 농장마다 근 20명에 달하는 기사, 기수들이 일하게 됨으로써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더 잘 지을수 있게 되였다.

문덕군의 경우에는 지금 1,000여명의 기사, 기수들이 일하고있으며 그들이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요구대로 농사

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음으로써 해마다 농업생산을 높이며 지난해에는 군적으로 벼정당수확고를 7톤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농촌기술일군대렬이 늘어나고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같은 땅, 같은 로력을 가지고도 도적으로 알곡생산량은 지난 10년전에 비하여 2배로 늘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문화혁명에서 우리가 달성한 성과는 또한 생산문화를 철저히 세운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에서 생산문화를 철저히 세워야 농업생산을 높일수 있고 농민들속에서 나라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알뜰히 거두고 사랑하는 기풍을 세울수 있습니다.》

농업에서 생산문화를 세우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논밭과 과수원을 알뜰히 거두고 산림을 잘 보호하며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소농기구들을 소중히 다루고 깨끗이 거두는것이다.

논밭을 알뜰히 거두고 잘 걸구어야 농업생산을 계속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논밭을 알뜰히 다루고 보호하며 기름지게 걸구는것은 농업근로자들의 본분이다.

도당위원회는 지난시기 농민들속에서 수령님께서 몸소 찾아주시였으며 혁명선렬들의 피가 스며있는 논밭을 아끼고 사랑하며 알뜰히 거둘데 대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는 한편 이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림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경사지고 물에 씻길수 있는 논밭머리마다에 돌뚝을 쌓고 버들을 심으며 돌과 각담을 모조리 들춰내여 수만정보의 논밭을 규격포전으로 전환시켰으며 강뚝을 든든히 만들고 강바닥을 깨끗이 가셔냄으로써 큰물피해로부터 토지를 보호하고 안전한 수확을 담보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비롯한 귀중한 농기계들을 소중히 다루며 알뜰히 거두기 위하여 강서군 청산리와 숙천군 운정리를 시범단위로 하고 도내의 모든 농장들에 그 모범을 일반화함으로써 농기계들의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명을 훨씬 연장할수 있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농민들속에서 나라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극력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을 키워주고 농촌에서 생산문화를 더욱 높일수 있게 되였다.

지난시기 평안남도내 농민들은 산림을 조성하고 과일나무를 심어 우리 농촌을 무릉도원으로 만들라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벌써 해방직후에 룡강군 옥도리를 찾으시고 이곳 농민들에게 우리 농촌을 백과주렁진 무릉도원으로 만들라고 하시면서 친히 묘목까지 보내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리고 1947년 가을 협산준령 아호비령을 넘으시여 양덕군 온하리의 두메산골 한 귀틀집을 찾으시고는 산림부원을 늘여 나라의 높고 낮은 모든 산들을 인민들의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황금산》으로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을 밝혀주시였다.

도내 근로자들과 학생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제시한 과업을 높이 받들고 해마다 나무를 심고 그것을 정성들여 관리함으로써 이르는곳마다에 과수원과 《사로청림》, 《소년단림》을 조성하였다.

실로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도내의 모든 농촌마을과 산들을 백과주렁진 과원으로, 울창한 푸른숲으로 뒤덮이게 하고 우리 농촌을 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상락원으로 전변시키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도의 농촌들에서는 생활문화를 확립하는데서도 위대한

변혁이 일어나고있다.

우리 농민들을 더 좋은 집에서 보다 윤택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언제나 심려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나날에도 몸소 강서군, 온천군을 비롯한 농촌마을들을 찾으시여 집터를 잡아주시고 주택전설 도면까지 보아주시며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배려가 있었음으로 하여 도내 근로자들은 매개 시, 군마다에 벽돌공장, 기와공장을 비롯한 지방전재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해마다 1만여세대의 농촌문화주택들을 일떠세웠으며 매개 농장마다에 아담한 학교와 현대적설비를 갖춘 농촌병원들을 건설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농민들은 현대적인 문화주택에서 철따라 좋은 옷을 갈아입고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으면서 도시사람들 부럽지않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또한 작업반마다에 훌륭한 설비를 갖춘 탁아소와 유치원들이 꾸려져 농장의 어린이들이 나라의 혜택으로 양육되고있으며 궁궐같은 문화회관들이 농민들의 문화적소양을 높여주고 그들의 생활을 더욱 명랑하고 흥겹게 만들고있다.

우리는 농민들속에서 낡은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인 생활양식을 세우는데서도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평안남도의 농촌들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자식에게 하나를 먹이면 둘을 먹이고싶어하는 어버이심정그대로 우리 농민들에게 부유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그토록 심려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의 결과이며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밝혀주신 농촌문화혁명에 관한 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제시하신 농촌테제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 농촌에는 천지개벽하는 시대, 행복과 번영의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농촌테제는 그 위대한 사상과 생활력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높은 찬양과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생활은 농촌테제야말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강령적문헌이며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을 앞당기게 하는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무기라는것을 확증하여주고있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와 전국농업대회에서 밝혀주신 농촌문화혁명의 강령적인 과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농업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다음해에 맞이하게 될 우리 당 창건 30돐기념일까지 우리의 농촌을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완전히 전변시켜야 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보람찬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농업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우리는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과 농촌에서의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더욱 높이고 그들속에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며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어김없이 점령하여야 한다.

우리 평안남도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 창건 30돐기념일까지 우리의 농촌을 더욱 훌륭한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할것이다.

당의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우리의 주체적인 영화예술

리 종 순

오늘 우리의 영화예술은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혁명적문학예술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영화분야에서는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영화로 옮기는 력사적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또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모습과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그려낸 우수한 작품들을 수많이 만들어냈다. 이 영화들은 그 혁명적내용의 심오성에 있어서나 예술형상의 높이에 있어서 사회주의적영화예술의 높은 경지에 오르고있으며 근로자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있다.

영화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으며 영화보급사업도 새로운 현실의 요구에 맞게 더한층 발전하고있다.

영화예술부문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영화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다그친 결과이다.

1

로동계급의 당이 영화사업에 대한 령도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적민족영화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맑스-레닌주의의 선행고전가들은 영화예술을 대중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당의 지도에 대하여 말하였으나 당적령도의 혁명적본질, 원칙과 방도 등에 대하여서는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였다. 더우기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영화사업을 어떤 원칙에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하여서는 이전까지 누구도 똑똑하게 밝혀놓은것이 없다.

사회주의적민족영화건설에서 당의 령도에 관한 문제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비로소 처음으로 빛나게 해명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문학예술부문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사회주의적문학예술에 대한 당적령도문제를 새롭게 밝히시였으며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사회주의적민족문학예술건설에서의 당의 령도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영화예술을 문학예술의 그 어느 분야보다 앞세워 발전시키며 영화사업 전반을 당이 직접 틀어쥐고 유일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는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근로자들과 청년들을 교양하는데서 여러가지 예술이 다 필요하지만 그가운데서도 소설과 영화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특히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51페지)

《문학예술부문에 대한 지도체계를 좀 고치는것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을 망라하는 련합조직을

만들고 당에서 직접 지도하는것이 좋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584페지)

영화예술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며 그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영화가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에서 노는 역할을 심오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내놓으신 탁월한 사상으로서 사회주의적민족영화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영화예술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업에서 위력한 선전선동력을 가진 힘있는 무기이며 대중을 교양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문학예술에는 소설을 비롯하여 가극, 음악, 무용, 연극, 미술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혁명적영화는 사람들의 사상정서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사상예술성이 높은 영화는 수백만 근로자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다.

그렇기때문에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사상교양의 강력한 수단으로 되는 영화예술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하며 그 모든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통일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만일 사상문화전선에서 첨예하게 벌어지고있는 계급투쟁의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면서 영화사업을 당이 직접 틀어쥐고 유일적으로 지도하지 않을 때에는 안으로는 형형색색의 부르죠아반동문예사조가 되살아나게 되고 밖으로는 제국주의 반동영화가 거침없이 쓸어들어 사회주의적민족영화의 건전한 발전을 저애할뿐아니라 사회주의제도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는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는 전기간 문학예술의 그 어느 분야보다도 영화예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영화예술의 선차적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배려와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영화예술앞에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절박하게 나서는데 따라 영화의 전반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조치를 취하시였다. 이것은 실로 우리 영화예술의 주체적발전을 확고히 보장하는 결정적담보였으며 영화인대렬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정치사상적통일을 실현하는 기초였으며 모든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게 하는 근본요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화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의 혁명적본질과 그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원칙을 명철하게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맑스-레닌주의당이 영화사업을 지도하는데서 언제나 정책적지도에 기본을 두고 이에 사상예술적지도를 안받침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정치적지도에 사상예술적지도를 안받침할데 대한 이 원칙은 영화예술을 철두철미 조선혁명의 리익에 맞게,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감정과 민족적정서에 맞게 발전시켜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영화예술의 사상적순결성과 예술적완벽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당적지도의 가장 옳바른 원칙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영화를 더 많이 보여주시려는 어버이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인민적인 창작지도원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적민족영화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견지하여야 할 지도원칙을 천재적으로 밝히시였을뿐아니라 몸소 정치적지도와 사상예술적지도를 결합하는 당적지도의 탁월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영화예술이 나아갈 방향과 작품창작의 주제방향을 정확히 규정하여주시였으며 수많은 강령적교시들에서 우리 영화예술에 담아야 할 사상정치적내용을 명확히 가르쳐주시고 우리 영화예술

의 공산주의적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도록 작가, 예술인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실로 위대한 사상가의 비범한 통찰력과 천재적예지로 영화작품들에 대하여 심오한 사상예술적분석을 하시고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으며 작품의 사상예술적내용에서 나타난 우결함을 하나하나 지적하시고 그 고칠 방도에 이르기까지 친어버이심정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처럼 세심한 보살피심과 뜨거운 사랑속에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긍지높고 행복한 혁명적 작가, 예술인으로 자라났으며 우리 영화예술은 참다운 인민의 예술, 혁명의 예술로 활짝 꽃피여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당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혁명적령도의 기본요구는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당정책집행에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61페지)

《문학예술의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혼자 하면 자기의 결함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보아야 잘못을 알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58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지도는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적각성을 높이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발동하여 그들스스로가 당의 문예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 그러자면 문학예술지도기관들과 예술동맹단체들의 사업에서 주관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행정식사업방법을 없애고 작가, 예술인들과의 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집체적지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혁명적문학예술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옳게 반영하고 그것이 구현되고 있는 위대한 현실을 담아야 하며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혁명투사들과 천리마기수들의 전형을 빛나게 그려내야 한다. 이처럼 책임적인 사업이 몇몇사람의 총명이나 지혜만으로 해결될수 없다. 혁명적영화창작은 오직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작가, 예술인들의 집체적지혜와 성실하고도 솔직한 호상비판과 동지적협조에 의해서만 원만히 풀려나갈수 있고 훌륭한 열매를 맺을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행정적방법만으로는 예술에 대한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시면서 3위1체에 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작가, 예술인들의 집체적지혜를 발휘하여 다같이 당의 문예정책을 관철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은 3위1체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상혁명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던 시기에 영화문학창작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창작지도체계로서의 집체적유일심의체계를 내오는 혁명적조치를 취하였다.

집체적심의란 문학예술부문의 지도일군들과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전문일군들이 한곳에 모여서 예술작품들을 집체적으로 토론하고 유일적으로 심의함으로써 예술창작에서 당의 정책적요구를 옳게 관철하며 창작가들로 하여금 가장 빠른 시일안에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도와주며 이끌어주는 새로운 심의 원칙이며 방법이다.

당은 집체적유일심의체계를 내오면서 그 사명과 임무, 집체적유일심의원칙과 방도 등을 명확히 밝혀주고 그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었다.

당은 작품심의에서는 어디까지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창작방향에 엄격히 의거하여 모든 작품들을 재여보고 따져보면서 매개 작품들이 당의 로

선과 정책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 사상예술성을 보장하도록 창작가들을 정책적으로 이끌어주며 작품에서 나타난 결함과 부족점을 집체적인 지혜를 발휘하여 고쳐주고 완성하도록 고무하여주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 영화예술의 실천적경험은 당이 마련하여준 집체적유일심의체계야말로 당적원칙과 군중로선을 훌륭히 결합한 새로운 창작지도원칙으로서 문학예술사업에서 창작가들과 지도일군들의 창조적련계를 더욱 강화하고 집체적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우리의 모든 문학예술작품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창작되도록 하는 가장 우월한 심의 체계이며 방법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집체적유일심의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창작지도와 심의사업이 참으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되고 작품창작과 지도에서 창조적협조와 집체적 지혜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 발양되였으며 모든 성원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일심동체가 되여 당의 예술, 당의 영화를 만들어나아가는 혁명적창작기풍이 철저히 확립되였다. 그 결과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한 모든 작품들은 당보의 사설과 같이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당정책을 기동적으로 반영하고있으며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이 영화창작사업의 모든 부문에서 유일적령도를 강화하였을뿐아니라 영화보급사업에서도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광범한 근로자들속에 혁명적인 영화가 제때에 빠짐없이 보급되여 사상문화교양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의 영화사업에서는 창작으로부터 보급에 이르는 전과정이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하나같이 움직여나가는 정연한 체계가 섰으며 모든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혁명가적기풍으로 일하게 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적민족영화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빛나는 승리이며 성과이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매개 당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자체의 지도리론을 작성하며 그것을 실천하여나아가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47폐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적민족영화건설을 지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자기의 혁명적인 문예사상과 지도리론을 가지고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옳게 이끌어주는것이다.

이 문제는 오늘날 사회주의적민족문학예술이 민족국가단위로 건설되여야하는 조건에서 더욱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민족문학예술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의 사명과 성격에 관한 문제, 민족문화유산의 계승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민족적바탕에서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사상성과 예술성, 정치성과 인간성을 결합할데 대한 문제, 혁명적대작을 창작할데 대한 문제, 문학예술을 대중적지반우에서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문제 등 사회주의적문학예술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새롭게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맑스-레닌주의문예리론을 가일층 발전시키시였으며 주체적문예사상을 완성하시였다.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예술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는 과정

에 주체적문예사상으로 일관된 새로운 혁명적영화리론을 창시하였다.

당에서는 혁명적문학예술건설과 창조에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문제, 작품의 종자에 관한 문제, 규모가 아니라 내용에서 대작으로 되게 할데 대한 문제, 창작에서의 속도전에 관한 문제, 창작 및 공연 과정을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되게 할데 대한 문제, 공산주의적창조체계와 창작지도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문제 등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에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제원칙과 방도들을 밝히고 그것을 영화부문에서 제일 먼저 구현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혁명적영화리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영화예술은 자기의 독창적인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가지게 되였으며 매우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그 어떤 편향도 없이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한길에서 빛나는 승리만을 거두어 왔다.

우리 당이 영화사업을 지도하면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사상은 위대한 주체사상이다. 우리의 모든 영화예술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는것을 첫째가는 의무로 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60～56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이다. 따라서 당사상사업의 한 부문을 맡고있는 우리 영화예술은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되여야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발전하여야 한다. 조선혁명의 리익을 떠난 영화예술이란 있을수 없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하지 않을때 영화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한 영화예술만이 진실로 조선혁명에 이바지할수 있고 인민대중의 열렬한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확립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구현하는 근본방도를 새롭게 밝혀주었다.

당은 창작가들에게 있어서 문예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이 원칙으로 되여야 한다는 사상과 수령님의 교시는 창작의 기초이며 창작 전과정의 지침이며 창작총화의 기준으로 되여야 한다는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 방침은 우리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을 가장 철저하게 관철할수 있게 하는 근본고리를 밝혀준 탁월한 사상의 구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우리 당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예사상에는 우리 문학예술의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술형상의 세부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적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다 밝혀져 있다. 따라서 작가, 예술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교시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여보고 사고하며 창작한다면 예술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수 있고 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능히 다 풀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려는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창작의 기초로, 창작전과정의 지침으로, 창작총화의 기준으로 삼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집행에서는 무조건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창작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 전체 작가, 예술인들은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할수 있으며 우리 문학예술의 모든 승리와 성과를 확고히 보장하며 그의 휘황한 미래를 내다볼수 있다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확신하고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문학예술이 어떤 사회적문제, 인간문제에 기본화산을 돌리는가 하는것은 혁명적문학예술의 사명을 옳게 수행하는가 못하는가를 결정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대가 해답을 기다리는 이 절박한 문제에 처음으로 새로운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큰 역할을 맡고있습니다.

문학예술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62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에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문학예술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작품을 창작하는데 있다는 심오한 사상이 밝혀져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물질적기초를 닦는것과 함께 사상혁명을 하여 사람들의 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물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됨으로써 낡은 사상을 낳는 경제적기초가 없어지고 사람들을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있는 사회적 및 물질적조건이 마련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은 사회의 물질적조건의 변화에 뒤떨어지는것만큼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 잔재는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부르죠아사상독소가 끊임없이 침투된다. 그러므로 사상혁명을 앞세워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당의 수중에 있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마땅히 프로레타리아독재앞에 나선 이 가장 중요한 과업인 사상혁명에 복무되여야 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필봉을 돌리고 창작적열정을 쏟아붓는것이 작가, 예술인들의 기본사명이며 우리 문학예술로 하여금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되게 하는 그 혁명적본질이 있다.

지난 시기 문학은 인간과 그의 생활을 그려야 한다고 하였으나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어디에서 찾으며 어떻게 그리는가에 대하여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사업을 지도하면서 인간학에 새로운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그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에 맞는 가장 높은 공산주의인간학의 경지에로 심화발전시켰다. 당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혁명하는 시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시대의 새로운 인간학은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이룩하며 인류의 최고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새형의 혁명투사들과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을

예술의 중심에 내세워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그리고 종자를 선택하는데로부터 주제와 사상, 구성, 대사 등 형상의 모든 요소들과 수단들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그의 무궁무진한 힘을 진실하게 밝히는데 복종시켜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즉 력사의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인간의 자주성과 정치적생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투사의 전형을 사상예술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내여 사람들을 새형의 공산주의자로 길러내는것이 공산주의인간학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이 인간학은 봉건제왕들과 량반귀족들, 억만장자들과 무위도식하는 착취계급들을 예술의 기본인물로 내세우는 부르죠아반동예술과 근본적으로 대치될뿐 아니라 착취받고 압박받는 근로대중을 예술의 중심에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나아갈 명확한 진로와 옳바른 투쟁방법을 똑똑하게 밝혀주지 못했던 종래의 모든 사실주의적문학예술과도 전혀 다른 주체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인간학이다.

당은 새로운 인간학의 혁명적내용을 밝혀주었을뿐아니라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을 그리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었다. 당은 새로운 인간학에서 중요한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혁명을 인식하고 혁명투쟁에 나서서 몸바쳐싸우는 가운데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 다시말하여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는것이라고 가르치고있다.

당은 우리 문학예술이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의 이러한 과정을 깊이있게 그려야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적본질과 부패상을 똑바로 인식시키고 자본가계급과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극도로 미워하며 혁명의 전취물과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옹호하며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고 가르치고있다. 당에서는 특히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에서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어야 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혁명적실천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여나가는 인간의 전형적모습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쳐준다.

우리 영화예술은 문학을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되게 할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 실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영화예술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등을 주제로 한 혁명적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해냄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들과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문학적주제로 밝힐수 있었다. 그리고 이 작품들에서 조선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을 그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과 밀접히 결합하여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우리 영화예술은 처음으로 현시대 사람들의 인간문제, 사회주의하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혁명화, 로동계급화 문제에 예술적인 해답을 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조선공산주의자의 충성의 모범을 빛나게 형상한 예술영화 《마을사람들속에서》와 《유격대의 오형제》가 그러하며 로동계급의 혁명화를 깊이있게 보여준 《로동가정》과 《압연공들》, 농민혁명화를 생동하게 그린 《꽃피는 마을》, 《사과 딸 때》 등이 바로 그러하다. 이 빛나는 형상들이야말로 간고하고도 준엄한 혁명의 폭풍속에서, 보람찬 창조적로동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나가는 우리 시대의 전형이며 현시대 사람들의 인간문제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참된 거울로 되고있다.

우리 영화예술을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되게 하는데서 당이 제시한 작품의 종

자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당은 종자란 헐하게 말해서 작품의 기본핵인데 이것은 작가가 생활속에서 독창적으로 찾아낸 사상적 알맹이라고 정식화하고 종자선택의 원칙과 종자를 키우는데서 지켜야 할 형상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었다. 당은 종자를 생활속에서 찾되 당정책에 맞게 골라쥐여야 하고 그것을 정치적의의가 있게 풀어야 하며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종자를 밝히는데 집중시켜 작품의 철학적심도와 사상예술성의 조화로운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었다.

주체적영화리론에서 종자에 관한 사상이 처음으로 창시됨으로써 사실주의적 문학예술은 비로소 작품의 전반사상과 형상을 제약하고 통일시키는 핵을 발견하게 되였으며 작품의 철학적깊이와 예술적형상의 완벽한 조화를 실현시키는 기본요인을 찾게 되였다.

당은 종자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혀주었을뿐아니라 우리 창작가들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생활속에서 가장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빛나게 가꾸어낼수 있게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세심한 정력적인 지도를 주었다. 이것은 《꽃피는 마을》, 《로동가정》, 《사과 딸 때》, 《처녀뜨락또르운전수》, 《어느 한 녀성직장에서》, 《압연공들》, 《우리 집문제》, 《아름다운 거리》를 비롯한 이미 나온 수많은 예술영화들의 창조과정이 잘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당의 현명하고 세심한 지도밑에서 창작가들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의의있고 절박한 문제들을 종자로 골라잡고 정치적의의가 있게 풀어나갈수 있었으며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해낼수 있었다.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한 당의 혁명적영화리론에서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사상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혁명, 문화혁명이 힘있게 벌어지는데 따라 문학예술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는 비상히 높아졌다. 이 요구에 제때에 보답하는것은 혁명적 작가, 예술인들의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이다. 우리 당은 사상혁명, 문화혁명의 중요성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창작의 본성을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창작에서의 속도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고 문학예술부문 특히는 영화예술부문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지도하여주었다.

당은 속도전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마련하여놓은 물질기술적토대에 기초하여 창작에서 빠른 속도를 견지함으로써 작품의 사상예술적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당사상사업의 요구를 제때에 관철할수 있게 하는 주체적인 창작원칙이라고 가르치면서 속도전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도들을 일일이 밝혀주었다. 당은 종자를 바로쥐고 작품에 대한 파악이 생긴 다음에는 무조건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문제, 정치사업을 앞세워 창작집단의 모든 성원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기 초소를 지킬데 대한 문제,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고 섬멸전, 전격전을 벌릴데 대한 문제, 빈틈없는 조직계획과 후방사업을 안받침할데 대한 문제, 사상투쟁의 분위기속에서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문제 등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과정에 그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우리 영화예술은 당이 제시한 속도전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 결과 최근 시기에 실로 눈부시게 빨리 발전하였으며 사상예술적질도 대단히 높아졌다. 우리 영화예술인들은 《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같은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불과 40여일동안에 손색없이 영화에 옮김으로써 일찌기 영화력사에 없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그 모범을 따라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하는 매우 어려운 현실주제의 영화들을 15일 혹은

20일에 한편씩 만들어냈다. 우리 영화예술부문에서 일어난 일대 혁명적앙양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창작원칙인 속도전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기도 하다.

3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적민족영화를 건설함에 있어서 작가, 예술인들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며 그들을 어떻게 교양하여 예술창조사업에 인입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적민족영화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지도의 기본은 결국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지도라고 말할수 있다. 아무리 옳바른 문예정책이 세워지고 창작방향이 명확하더라도 그것을 맡아서 할 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않고 자각적으로 동원되지 않을 때에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언제나 작가, 예술인들을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혁명적으로 단련시키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작가, 예술인들을 어떤 원칙과 방법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키며 창작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는가 하는것이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당적지도의 기본을 둘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밝히시고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그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단련시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단련되며 혁명가로 자라납니다.》(우와 같은 책, 468페지)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개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을 구현하여 당은 창작과 공연활동과정이 곧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원칙적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인 창작활동을 통하여 당과 인민에게 복무하며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준비해가고있다. 그가 얼마나 당에 충실하며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사상의식이 높은가 하는것은 창작활동에서 날날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적으로 단련시키는 가장 옳바르고 빠른 길은 바로 창작과 공연활동과정자체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되게 한다는것은 창작과정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주체적문예사상을 깊이 체득하는 과정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문예방침을 절대화하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충성의 과정으로, 혁명적주인공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공산주의적풍모에서 배우며 그들처럼 살며 일하며 싸워나가는 과정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창조집단의 사상의지의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삼는다는것을 말한다.

당은 예술인들의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적신임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 보답할데 대한 문제, 창작에서 요행수를 바라며 줄타기를 하지 말데 대한 문제, 육체적생명보다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순결하게 고수할데 대한 문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릴데 대한 문제 등 위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의 실현을 직접 지도하였다.

우리 영화예술인들은 당의 혁명화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 실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오늘 우리 영화인들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문예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당의 유일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라면 물과 불 속에라도 뛰여들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확고히 섰다. 영화인들이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됨으로써 그들속에서는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이 뿌리뽑아지고 영화예술을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창조하려는 불타는 창조적열정과 혁명적창조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특히 당의 유일적지도체계가 철저히 확립됨으로써 영화예술인대렬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이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영화예술부문에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이 꽉 들어찼으며 모든 영화예술인들이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한마음한뜻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의탁하고있으며 그 어떤 사나운 풍파가 휘몰아쳐도 오직 어버이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해가는 충성의 열정이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지고있다. 실로 오늘 우리 영화인대렬은 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며 일생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며 일하는 영예로운 근위대, 결사대, 돌격대로 자라났다. 이것은 영화부문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과정에서 이룩된 가장 위대한 승리이며 혁명적영화예술의 건설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빛나는 열매이다.

바로 이러한 영화인들이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영화에 성과적으로 옮기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수많은 우수한 영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오늘 우리 혁명적 영화들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그들을 참된 혁명가로 키워내는 강력한 무기로 되였을뿐아니라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가장 힘있는 무기의 하나로 되고있다.

영화예술의 력사에는 영화가 이처럼 근로자들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깊이 침투하여 대중속에서 선전선동자적 역할을 놀뿐아니라 조직자적역할을 놀며 그들의 실효투쟁의 무기로까지 된 그러한 일은 일찌기 없었다.

우리 영화예술은 남조선인민들에게 통일된 강토에서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살 불타는 열망과 북반부에 세워진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끝없는 동경심을 가지고 반제반미구국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그들을 고무하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바와 같이 우리 영화예술은 세계의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 속에서도 《생활의 참된 교과서》로, 《혁명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우리 혁명적영화예술이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의 승리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문예방침이 가져다준 빛나는 열매이다.

*　　　*

우리 나라 영화예술발전의 력사적경험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 복무하는 참으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영화예술은 오직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당의 유일적지도에 의해서만 찬란히 개화발전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영화예술을 우리 시대의 참다운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더욱더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앞으로도 계속 영화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유일적지도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주체사상을 영화창작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여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주고있다.

《피바다》식혁명가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가극예술의 불멸의 기치

리 면 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적문예사상이 구현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가극의 빛나는 새시대가 시작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중에서 혁명가극 《피바다》를 시발점으로 날을 따라 더욱 개화발전하고있는 《피바다》식 혁명가극은 그 고상한 사상성과 높은 예술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의 산 교과서로 되고있다.

우리의 혁명가극들을 본 세상사람들은 《〈피바다〉는 예술분야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조선예술의 승리》, 《공산주의교양의 위대한 학교》, 《사회주의사실주의작품의 모범이며 모체》, 《세계최고봉의 가극》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가극의 찬란한 개화발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문예사상, 탁월하고 독창적인 가극건설에 관한 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열매이다.

《피바다》식혁명가극의 탄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에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29페지)

가극이 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맞게 발전하자면 혁명적으로 개조되여야 한다.

세계가극력사가 보여준바와 같이 가극을 개조하기 위한 시도들은 한두번만 있은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도도 가극을 진정으로 혁명을 위한것으로, 인민을 위한것으로 만들지 못하였다. 계급사회의 조건에서 가극력사는 착취계급과 소수특권계층의 리익을 반영한 각종 가극류파들의 교체와 흥망을 기록한것에 불과하였다. 인민대중이 시대의 주인으로 등장한 오늘에 와서도 종래가극의 낡은 틀은 이모저모로 새로운 가극의 출현을 저애해왔다. 가극사발전이 보여준 이 계급적 및 력사적 제한성을 없애지 않고서는 가극을 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킬수 없다. 이것은 가극혁명이 가극예술자체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가극혁명에 대하여 직접적인 리해관계를 가지는것은 로동계급이다. 로동계급은 정치와 경제 분야뿐아니라 문화와 예술의 령역에서도 그의 참된 주인이 될것을 요구한다. 이로부터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정치와 경제, 문화와 예술을 포함한 모든것을 자기의 계급적요구에 맞게 개조하면서 가극예술도 혁명과 근로인민을 위한것으로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임무로부터 흘러나오는 합법칙적요구이다.

가극혁명이 필연적인것이라 하더라도 저절로 이룩될수는 없다. 여기에는 현실적조건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가극건설에 관한 정확한 지도사상과 리론, 당의 현명한 령도, 문학예술의 준비된 혁명적력량 등은 가극혁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조건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벌써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예전통과 혁명적가극예술의

깊은 뿌리를 마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가극을 포함한 우리 문학예술이 건전한 토대우에서 주체적으로 발전하도록 끊임없는 지도와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가극혁명의 모든 현실적조건을 마련하시였다.

혁명가극창조에 대한 당의 탁월한 구상과 직접적이고도 현명한 지도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가극혁명을 실현하게 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였다.

또한 당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작가예술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가일층 촉진되여 혁명적문학예술력량이 튼튼히 꾸려지고 그들의 창작적기량이 높아진것은 가극혁명을 이룩할수 있게 한 중요한 담보였다.

이렇듯 우리 나라에서 《피바다》식혁명가극의 새로운 탄생은 세계가극사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특히 우리 나라에서 성숙된 가극혁명의 현실적제조건에 기초한것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 혁명가극건설에 관한 탁월한 사상을 혁명가극 《피바다》에 구현하여 《피바다》식가극창작의 원칙과 방도를 마련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중에서 혁명가극 《피바다》를 비롯한 5대명작은 바로 이 원칙과 방도에 의하여 창조되였다.

《피바다》식혁명가극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새형의 가극이다. 《피바다》식혁명가극의 탄생은 가극사발전에서 새시대를 선포한 하나의 위대한 사변이며 혁명이다.

《피바다》식혁명가극은 주체사상의 참된 교과서

《피바다》식혁명가극은 그 사상적내용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관시킨 주체사상의 참된 교과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페지)

《우리는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기만 하면 참말로 큰 힘을 발휘할수 있으며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할수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근로인민의 해방에 관한 사상이며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로동계급의 계급적학설이다.

《피바다》식혁명가극은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하는 인간들의 정신적풍모와 그들이 진행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그 본질을 옳게 밝혀주고있다.

《피바다》식혁명가극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그리며 항상 그들의 편에 서서 작품의 내용을 전개한다.

《피바다》식혁명가극은 주인공들의 성격발전을 통하여 무엇보다먼저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며 모든 혁명투쟁은 민족적 및 계급적 예속과 억압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 사람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위대한 주체철학의 혁명적진리를 확증하여준다.

혁명가극 《피바다》에서 일제의 살륙만행아래 주인공일가와 당시 우리 인민이 겪은 참상,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에서 꽃분이에게 쌓이고 덧쌓여지는 불행한 운명, 이것들은 바로 나라를 잃고 사람이 자주성을 빼앗기면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혁명가극 《피바다》는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으며 인민대중이 나라와 민족,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일어나 싸울 때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가장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쳐준다.

《피바다》식혁명가극은 천대받고 버림받던 근로인민이 그처럼 거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것이 무엇때문인가에 대하여 밝히는데 모를 박는다.

혁명가극 《피바다》에서 일제놈이 증오스럽고 두렵기만 하던 어머니가 혁명은 보통사람이 하는것이며 혁명을 하여야만 살수 있다는것을 확신하였을 때 모든 곤난과 슬픔을 이겨내고 원쑤들을 타승할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된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철용이는 우리를 구원하는것은 우리의 힘뿐이라고 하면서 억눌린 마을사람들을 일떠세운다.

이처럼 《피바다》식혁명가극은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것을 깨달았을 때 어떠한 난관과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장성한다는것을 보여준다.

《피바다》식혁명가극은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자주의식이 어떻게 생겨나며 사람들이 자주의식을 가진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을 밝히는데로 작품의 주체사상을 심화시킨다.

계급적으로 아직 각성되지 못한 혁명가극 《피바다》의 어머니는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의 공작원을 통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체득함으로써 혁명투쟁에 나서게 되고 눈물로 꽃을 팔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꽃분이 또한 조선혁명군대원이 되여 돌아온 오빠에게 구원되여 혁명의 꽃씨앗을 뿌리며 투쟁의 길로 나아간다.

바로 《피바다》식혁명가극은 사람들이 자주의식을 가진다는것은 정치적생명을 가진다는것이며 그 정치적생명은 수령님께서 주신다는 사상을 통하여 인민대중은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해빛아래서만 자주의식으로 각성되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면서 혁명투쟁의 주인으로 큰 힘을 발휘할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일반화한다.

《피바다》식혁명가극은 자주의식으로 무장한 조선의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한다는것은 곧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충성다하는것이라는 그들의 혁명적신조에 기초하여 주인공들의 성격적특질을 깊이있게 부각시켜준다.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의 최병훈,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강연옥을 비롯한 가극의 주인공들은 자기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투쟁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수령님께 충성다함으로써만 목숨보다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일수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고 모든 난관과 희생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그처럼 고귀하고 영웅적인 행동을 가슴뜨겁게 보여준다.

《피바다》식혁명가극은 근로인민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 길은 자기 손에 국가주권을 틀어쥐는것이라는 혁명투쟁의 근본원리를 밝힌다. 바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꽃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근로인민이 누리는 보람찬 생활을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겼던 과거와 대비하여 보여주는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가 그러하다.

이처럼 《피바다》식혁명가극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의 사회적본성은 무엇이며 혁명투쟁은 무엇때문에 일어나며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등 현시대가 가장 절박하게 제기하는 혁명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은 예술적해답을 줌으로써 위대한 주체사상의 참된 교과서로 되고

있다.

《피바다》식혁명가극은 인민대중의 음악형식을 살려 쓴 새형의 가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음악도 다른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음악을 민족적인 선률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시켜야 하겠다는것도 결국 인민대중이 알아들을수 있고 즐길수 있는 음악을 창조하기 위한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56페지)

새로운 내용은 새로운 형식을 요구한다. 가극혁명은 작품의 내용에서뿐아니라 형식에서도 일어나야 한다.

근로인민의 리익을 반영한 가극의 혁명적내용을 착취계급과 소수특권계층의 취미에 맞게 만들어진 낡은 형식그대로를 가지고 표현할수는 없다.

혁명가극 《피바다》가 가극사발전에 남긴 위대한 공적의 하나는 바로 가극형식을 근로인민의 요구에 맞는것으로 개조하는 기본고리를 절가에서 찾고 가극음악의 전면적인 절가화를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은것이다.

종래의 가극음악에 끈덕지게 자리잡고있는 아리아나 대화창 형식은 어렵고 복잡하여 잘 안겨오지 않고 리해하기 힘들게 되여있는것이 특징이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서는 새형의 혁명가극에서 인민대중의 투쟁과 생활을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할수 없을뿐아니라 가극예술을 인민적인것으로 되게 할수 없다. 새로운 혁명가극의 형식으로서는 인민대중이 창조하였으며 오랜 세월을 두고 그들의 생활과 더불어 불리워온 인민적절가형식보다 더 위력하고 알맞는것은 없다.

혁명가극 《피바다》는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위대한 예술의 창조자일뿐아니라 그의 진정한 주인이라는데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들자신이 만들어낸 절가야말로 새형의 혁명가극에서 가장 훌륭한 음악형식으로 된다는 당의 확고한 신념을 처음으로 빛나게 구현하였다.

절가의 기본특징은 하나의 통일되고 완결된 음악적형상이 가사내용에서 변화와 대조를 이루면서 반복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여 구성된다는데 있다. 절가는 이러한 구조적특징을 가지고 인민성, 통속성을 담보하며 깊고 풍부한 사상적내용을 일반화하여 쉽게 전달한다.

그러나 절가의 구조를 가지고있다고 해서 노래들이 모든 경우에 인민적절가의 이러한 가능성을 다 가지는것이 아니다. 선률이 까다롭게 오르내린다거나 가사가 시화되지 않는다면 아리아나 대화창과 구별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극에서 가사를 절가로 하고 곡을 유순하게 붙이는것이 우리 가극예술의 독창적형식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의 이 가극사상은 가극음악으로서의 절가의 인민성, 민족적특성, 통속성을 규정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피바다》식혁명가극은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구현하여 절가의 본질적특성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아름답고 유순하며 알기 쉽고 듣기 좋을뿐아니라 부르기도 헐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감정에 맞는 훌륭한 절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써 가극음악을 일관시켰다. 《울지말아 을남아》, 《그 앞길 밝혀다오》, 《꽃파는 처녀》, 《리별의 시각은 다가오는데》를 비롯한 《피바다》식혁명가극들에 나오는 모든 노래들이 그처럼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우며 작품의 사상을 사람들의 심장속깊이에 심어주는것은 바로 절가의 이러한 인민성, 민족적특성, 통속성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데 있다.

절가의 기본특징은 또한 다양한 형태와 풍부한 형상적능력을 가지고있는것이다.

절가는 서정적인것, 서사시적인것,

극적인것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인민대중의 생활이 다양하고 그들의 감정이 풍부한것만큼 그것을 반영하는 절가의 형태도 다양하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절가가 각이한 양상의 가극에서 다양한 극적정황에 훌륭히 어울릴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절가는 또한 현실을 본질적측면에서 일반화하는것으로 하여 형상의 보편성과 구체성을 가진다. 이것은 절가가 가극예술에서 큰 기능과 역할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피바다》식혁명가극은 절가의 이러한 특징들에 기초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음악극작술을 만들어낸다.

개별적으로 완결된 형상을 가진 절가들이 하나의 가극음악으로 되자면 그것들이 음악적인 론리성을 가지고 극발전에 잘 어울려져야 한다.

《피바다》식혁명가극에서는 정황에 잘 맞는 절가들이 극발전에 따라 대조와 통일을 잘 보장하면서 극구성과 극조직에 음악적론리성을 주며 하나의 상대적독자성을 가진 음악극작술의 체계를 이룸으로써 그것은 작품의 형상과제해결에 주동적으로 참가한다.

《피바다》식혁명가극에서 음악극작술의 중요특징은 완결된 시-음악적형상을 가진 절가를 기본단위로 하여 작품의 내용과 극발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 누구나 리해하기 쉬우며 극은 음악을 살리고 음악은 극을 살리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게 되여있다.

《피바다》식혁명가극은 절가에 기초한 새로운 음악극작술의 다양한 수법을 보여준다.

주제가, 주제선률은 《피바다》식가극음악의 기둥을 이룬다. 그것은 작품의 기본주제사상을 집중적으로 체현하며 주제가로부터 파생되여 이룩된 음악양상의 통일은 그 작품의 성격을 음악적으로 규정하여준다.

반복수법은 음악발전의 일반적원리이며 그것은 절가에서 특수하게 작용한다.

《피바다》식혁명가극에서는 절가의 보편성과 구체성에 기초하여 주제가를 비롯한 좋은 절가들을 극발전의 각이한 정황에서 반복함으로써 음악발전의 론리와 극발전의 론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있다.

절가의 보편성과 구체성에 의거하여 《피바다》식혁명가극에서는 또한 절가를 가지고 등장인물들이 의사를 나누게 함으로써 종래가극의 낡은 틀에 있던 대화창을 내쫓고 아름다운 노래의 흐름속에서 등장인물들의 호상관계를 깊이있게 보여준다.

또한 가극음악을 더욱 풍부한 형상으로 부각시키는 절가의 다양한 연주형식, 절가를 잘 안받침해주면서 하나의 극적흐름을 이루고 극발전에 적극 작용하는 민족적이며 현대적인 새로운 가극관현악 등 절가에 기초한 새로운 음악극작술의 수법은 실로 다양하다.

절가, 이것은 불멸의 주체사상의 해빛아래 《피바다》식가극음악의 공고한 기초로 자리잡은 가장 인민적이며 사실주의적인 힘있는 가극음악수단이다.

우리 나라에 고유한 방창은 혁명가극 《피바다》에서 가극음악의 위력한 형상수단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그 무궁무진한 생활력으로 하여 《피바다》식가극음악에 무한히 깊고 다양한 세계를 열어주고있다.

방창의 본질적특성은 무대적제약성을 완전히 벗어난 절가의 객관적서술수단이라는데 있다.

방창은 묘사하는 대상의 범위와 시간적 및 공간적 제약성을 받지 않을뿐아니라 묘사하는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으며 그 방법도 무한히 다양하다.

방창의 묘사대상은 무엇보다먼저 주인공과 등장인물의 정신세계를 펼쳐보이는데 돌려진다. 그러나 때로는 시대의 목소리를 대신하기도 하고 작품의 표제적역할도 하며 장면들을 련결시키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처럼 방창이 파고드는 세계의 깊이와 넓이는 끝이 없다.

혁명가극 《피바다》가 개척한 방창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은 작품의 주제사상

적, 형상적 특성에 따라 개성적으로 나타난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방창은 주인공이 처한 불행한 운명의 사회적근원에 대하여 줄곧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더해준다.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에서 방창은 적의 구장으로 가장한 주인공의 외형상 행동과 다른 그의 본심을 펼쳐보임으로써 혁명가의 고결한 정신적풍모를 부각시키는데서 독특한 경지를 이룬다. 그런가 하면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에서는 방창이 아버지와 딸이 함께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깝고 기막힌 사연을 관객들에게 거듭 호소함으로써 작품의 극성을 더욱 심화시켜주고있다.

방창은 참말로 그 어떤 성격도 그 어떤 정황도 마음대로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는 무한한 형상적가능성을 가진 만능의 표현수단이다. 방창의 도입으로 《피바다》식혁명가극은 등장인물에게만 의존하던 종래의 가극보다 비할바없이 넓고 깊은 형상세계를 열어낸다.

절가와 방창, 이것은 참으로 가극예술을 인민대중의것으로 되게 하는 길에서 《피바다》식혁명가극의 위력을 남김없이 나타내게 하는 가장 사실주의적인 음악형상수단이며 우리 당의 혁명가극 지도방침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피바다》식혁명가극은 종합예술의 위력을 가장 높이 발휘하는 가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실로 사실주의적이고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인간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356페지)

가극은 원래 종합예술이다.

종합예술로서의 가극의 위력은 음악을 기본수단으로 하면서 무대미술, 무용, 연기 등 각종 예술수단들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작품의 형상과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는데 있다.

종래가극의 낡은 틀에서는 음악을 위주로 내세운다고 하면서 무대예술의 다른 요소들을 차요시하거나 약화시켰다. 그리하여 가극은 종합예술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없었다.

《피바다》식혁명가극은 종래가극의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고 종합예술로서의 가극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렸다. 특히 무대미술과 무용분야에서 일으킨 혁신은 참으로 의의가 크다.

수령님께서는 가극에서 미술을 주인공의 운명발전에 복종시킬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시간, 공간, 정황의 일치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종래가극의 낡은 틀에서는 무대미술이 작품이 추구하는 과제에 소극적으로 참가하거나 제외되는수밖에 없었다.

《피바다》식혁명가극의 무대미술은 무대적제약성을 창조적으로 극복하고 주인공의 운명발전에 충실히 이바지하며 현실그대로의 생활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립체적인 무대미술, 살아움직이는 무대미술이다.

흘러가는 환등과 조명, 움직이는 장치, 배경 등 다양한 수단들과 새로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동원리용하여 주인공에게 풍부한 생활적환경을 끊임없이 만들어주는 새로운 무대미술은 우여곡절에 찬 가극의 주인공들의 성격발전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또한 《피바다》식무대미술은 등장인물들의 정신세계의 움직임을 깊이 있고도 여러모로 반영하는데 충실히 이바지하고있다.

《피바다》식무대미술은 아름답고 선명하며 힘있고 섬세한 조선화기법의 특징을 무대화폭에 창조적으로 살렸다. 그리하여 《피바다》식무대미술은 민족적정서가 더욱 풍만하게 풍기는 훌륭한것으로 되였다.

혁명가극 《피바다》에서 온갖 파란곡절을 겪어온 어머니가 드디여 혁명투쟁의 커다란 보람을 체험하는 성문장면의 격동적인 무대미술은 바로 살아움직이

는 새로운 무대미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처럼 강한 사상적충격을 줄수 없는 형상을 보여준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현실이 너무나 참혹하기에 아름다운 미래를 꿈에서라도 그려보게 하는 꿈장면이나 혁명의 붉은 태양을 향해가는 세남매의 앞길을 축복하여 꽃숲마저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종장의 무대미술은 이 가극의 다른 모든 장면들과 함께 새로운 무대미술의 최고의 경지를 보여준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에서 밤하늘에 떠오른 북두칠성은 가장 어려운 시련에 부닥친 녀전사의 가슴에 아버지 수령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전해주며 금강산의 절경을 흐름식으로 펼쳐보이는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는 립체적인 무대미술의 극치를 이룬다.

《피바다》식 혁명가극은 무대미술과 더불어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우리의 민족무용을 극발전과 형상적과제에 적중하게 배합함으로써 종합예술로서의 가극의 사상예술성을 한층 높여주고있다.

《피바다》식혁명가극에서 무용은 음악, 무대미술과 함께 주인공의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펼쳐보이며 주인공들의 사회력사적환경도 또한 무용예술의 독특한 군상적처리로써 훌륭히 형상한다. 무용은 자연까지도 성격화하여 주인공의 정신세계를 폭넓게 부각시켜주는가하면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주인공의 절절한 념원을 펼쳐보이기도 한다.

혁명가극 《피바다》에서 어머니의 꿈장면과 물방아간에서의 키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달밤장면의 꽃정들의 춤을 비롯한 많은 무용장면들은 《피바다》식혁명가극에서 무용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무용은 참으로 종합예술로서의 《피바다》식혁명가극에서 중요한 형상수단으로 되고있다.

《피바다》식혁명가극에서 새롭게 탐구도입한 자막은 가극의 인민성을 더욱 높여주는 힘있는 형상수단의 하나이다.

자막은 관중에게 가극의 내용을 쉽게 리해하도록 도와주며 가극의 시문학적 형상을 보다 깊이있게 전달할뿐아니라 가극의 노래를 광범한 군중속에 빨리 보급할수 있게 한다.

《피바다》식혁명가극은 음악은 물론 무대미술, 무용, 자막 등 가극의 모든 형상수단들을 독창적으로 탐구하고 새롭게 개조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종합예술로서의 가극을 진실로 인민을 위한것으로, 인민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게 하는 말그대로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였다.

이것은 가극창작에서 철저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립장을 견지함으로써만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은 참으로 《피바다》식혁명가극의 사상적내용을 혁명적이며 사회주의적인것으로 일관하게 하는 유일한 지침일뿐아니라 그 형식을 인민적이며 민족적이며 통속적인것으로 혁신하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하신 혁명적문예전통을 이어받고 당의 세심한 배려와 현명한 지도밑에서 세상에 태여난 《피바다》식혁명가극은 날로 그 거대한 생활력을 과시하면서 현시대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들에 빛나는 예술적해답을 주고있으며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의 가극예술의 불멸의 기치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무기

로 태 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산리와 강서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시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신 때로부터 열네해가 지나갔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창조는 맑스-레닌주의당의 대중지도에 관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완성함에 있어서 실로 획기적인 전환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으로 되여있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98페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수령님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대중령도에 관한 지도사상이며 지도방법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당 및 국가, 경제 기관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던 온갖 낡은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마사지고 새로운 혁명적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확립되게 되였다.

전국의 각급 당조직들과 함께 숙천군당위원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무기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당사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오게 하였다.

오늘 군내 모든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 속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으며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촉진되고 그들의 정치적열의와 혁명적자각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농업근로자로 자라나고 있다.

협동농민들의 사상의식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농촌에서 기술, 문화 혁명을 촉진시킬수 있는 결정적담보로 되였다.

농촌에서 기술혁명이 강력히 추진됨으로써 군내 모든 협동농장들이 현대적농기계와 과학기술로 튼튼히 장비되여 농업생산이 확고한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해마다 풍년을 가져오는 믿음직한 알곡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

숙천군에서는 력사적인 청산리교시가 있은 때로부터 정당수확고는 2배, 알곡생산량은 2.1배, 호당분배몫은 3배로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최고수확년도에 비하여 2만톤이나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였으며 과일, 고기, 알, 누에고치 등 농업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례년에 없는 풍년을 마련하였다.

또한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온수난방을 갖춘 2～3층의 문화주택을 비롯한 4천여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였으며 뻐스화, 수도화가 완성되고 텔레비죤화가 실현되여가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숙천군의 모든 농촌은 말그대로 일하기 좋고 살기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되여가고있다.

숙천군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혁들과 자랑찬 성과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끊임없는 배려와 현명한 령도, 그이께서 몸소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에 근

50여차례의 현지교시를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몸소 숙천땅에 오시여 대규모의 관개시설을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전쟁시기에는 농업협동화의 새싹을 키우시고 정전후에는 그의 완성과 공고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시여 숙천땅에서 처음으로 새 농업지도체계를 창설해주시고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신 이후에만도 무려 30여차례의 현지지도를 주시고 열두삼천협동농장을 공산주의문화농촌건설의 표본으로 꾸려주시였으며 농촌테제의 빛발따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도록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여온 보람찬 로정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신뢰의 정에 휩싸여있으며 그이를 수령으로 영원토록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자부심으로 충만되여있다.

* *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사업에서 행정식사업방법이 없어지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확고히 세워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모든 당조직들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를 세워놓았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07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그것은 간부들과 당원들, 군중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그이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로 하여금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조직정치사업이다.

당사업은 사람들을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교양개조하여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인것만큼 행정식, 명령식 사업방법으로 대치할수 없다.

행정식사업방법은 당적인 방법이 아니며 당사업에서 가장 위험한것이다.

명령과 지시, 행정실무적사업방법으로써는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을 높일수 없고 오직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써만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행정화와 관료주의, 주관주의 등 온갖 그릇된 사업작풍을 극복하고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세우며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온갖 낡은 사업방법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사업을 참말로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게 하는 힘있는 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것을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가장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당사업에서 이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군당위원회는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당사업을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켰다.

군당위원회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데서 언제나 간부들이 당원들을, 당원들이 군중을 교양하고 하나가 열, 열이 백을, 백이 천을 움직일수 있게 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튼튼히 세웠다.

그리하여 군당위원회는 간부들과 핵심을 잘 교양하여 그들이 당원들을 교양하고 도와주도록 하였으며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그들이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여 혁명과업수행에로 고무추동하도록 하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는 투쟁행정에서 낡은 사무실적사업방법이 마사지고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 혁명적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튼튼히 세워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또한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웃기관일군들이 직접 아래에 내려가 아래일군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놓았습니다.**》(우와 같은 책, 508페지)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계는 사회주의하에서 군중로선에 기초한 하부지도의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군당위원회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늘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며 현실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세웠다.

종전까지 군당위원회는 하부지도에서 지시문을 내려보내고 통계를 받으며 회의나 하는것으로 대치시켜왔다.

행정실무적사업방법으로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없었고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없었다.

지도일군들과 대중의 힘을 합쳐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있게 풀어나가기 위하여서는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 지도체계와 사업방법을 세우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로부터 군당위원회는 정연한 하부지도체계를 세우고 우선 당정책을 더 잘알고 사업을 전반적인 련관속에서 파악하고있는 책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실지사업을 료해하고 아래일군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는것을 제도화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수령님의 교시집행을 위한 전투과업이 제기되면 우선 책임일군들이 해당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교시를 깊이 연구한 기초우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강을 짜가지고 한단위에 내려가 직접 조직사업을 하고 그 경험을 전반적단위에 일반화하였다.

군당위원회는 군당을 비롯한 군급기관일군들이 리에 늘 내려가 리일군들과 같이 일하며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아래일군들의 사업을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체계를 세웠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계가 서게 됨으로써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빨리 침투되게 되였으며 상하가 합심하고 기맥이 잘 통하게 되여 모두가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또한 국가, 경제 기관, 근로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방법이 보급되여 당,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 전변이 일어났으며 그 일군들의 지도수준도 훨씬 높아졌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99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거대한 생활력은 국가 및 경제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이게 하며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커다란 앙양을 이룩하게 하였다.

국가, 경제기관일군들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며 광범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새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군당위원회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식사업방법을 고치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며 기업적지도를 실현하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다.

지난 시기 경영위원회일군들의 사업에서는 지도를 생산자대중속에 접근시키지 못하고 잡다한 통계와 번잡한 회의에 매달려있었다.

군당위원회는 경영위원회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그릇된 사업방법을 극복하고 경영위원회의 우수한 기술력량을 발동시켜 지도를 생산자대중속에 접근시키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군내 농업생산지대를 6개지구로 구분하고 매 지구에 준비된 일군들을 책임자로 한 기술력량이 내려가 협동농장들에 대한 기술적방조를 주는 체계를 세웠다.

경영위원회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농산기술지도체계와 정연한 보장체계를 세우고 협동농장들을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였다.

특히 농산기술지도체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영농기술지도체계와 기제기술지도체계, 관개기술지도체계이다.

경영위원회는 이러한 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것을 옳게 운영함으로써 농업생산을 현대과학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웠으며 농업근로자들속에 선진기술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농사를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짓도록 하였다.

경영위원회일군들은 농사차비로부터 모판씨뿌리기, 모내기와 김매기 등 매 영농공정별로 따라가면서 이 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교시를 깊이 연구한 다음 과학기술문제를 가지고 강습과 방식상학, 기술전습회 등을 반복실시하여 모든 농사일에 수령님의 교시와 과학기술적요구가 철저히 실현되게 하였다.

지난해 군당위원회는 경영위원회일군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교시를 먼저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기술일군들을 내려보내여 지구별로 모판씨뿌리기에 대한 본보기를 만들어놓고 군내 협동농장관리위원장, 기사장, 작업반장들을 견학시키고 뒤따라 모든 일군들이 분조에 내리가 기술적지도를 심화시키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업체계가 서게 됨으로써 농업생산지도에서 나타났던 주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그릇된 사업작풍이 극복되고 모든 사업을 생산자대중과 토론하여 해결방도를 찾아내며 그 집행에서 이신작칙하는 혁명적기풍이 서게 되였다.

오늘 경영위원회일군들은 당과 기계를 보기전에 그것을 다루는 사람을 보며 언제나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대중의 주인다운 자각을 높여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고도로 발양시켜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경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현저히 높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실현하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사업에서뿐만아니라 군행정위원회와 근로단체들도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있다.

실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국가, 경제 기관, 근로단체들 특히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기업적지도를 실현함에 있어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게 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위력한 방법으로 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방법이 군중에게 접수되여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근로자들자신의 사업으로 되였으며 그들의 대중적인 사상개조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299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청산리방법은 군중에게 접수되여 근로

질적힘으로 나타나게 되였으며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하는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였다.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는 실로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특히 농민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소소유자적근성과 농사일에서 주인답지 못한 현상들은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사상개조사업은 오직 광범한 대중이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그들자신의 일상적인 사업으로 전개될 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농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사람별, 세대별에 따르는 구체적인 실태를 료해하고 대상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할 때 농민들의 혁명화과정을 다그칠수 있다는것을 체험하였다.

청산리방법은 한점을 뚫고 모범을 창조하여 그것을 일반화할것을 요구한다.

군당위원회는 수령님께서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다녀가셨고 그후 세차례나 현지지도하신 검산리를 농민혁명화의 시범단위로 꾸리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조직진행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핵심력량인 초급지휘성원들로부터 먼저 자신과 가정을 혁명화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초급일군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김일성동지혁명사상학습반》을 통하여 그들을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한편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앞장에 서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군당위원회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위한 사업에서 당세포들과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근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게 되였다.

또한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로 공동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며 사회와 집단의 리익, 혁명의 리익을 위함이라면 자신을 희생할줄 아는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게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의 혁명화를 촉진시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위력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더욱 높이 발양되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경제문화건설에서 집단적혁신이 련이어 일어나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있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이 더욱 심화발전되였다. 그 행정에서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도, 생산을 발전시키는 사업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게 되였다.

군내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업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킨 결과 농촌경리분야에서 7개의 천리마농장과 기관, 기업소, 279개의 천리마작업반대렬이 자라났으며 농업생산을 장성시키는 투쟁을 통하여 군이 근위1급군의 영예를 지니게 되고 군내의 모든 협동농장이 《제관근위》를 비롯한 영예칭호를 쟁취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이와 같이 당사업을 발전시키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거대한 위력을 발휘하고있다.

생활은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위력한 무기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 *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 그리고 올해 신년사와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들을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영예로운 과업은 모든 부문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휘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요구를 보다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모든것의 주인인 사람을 힘있게 발동할데 대한 당의 요구대로 먼저 사람과의 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의 경험이 보여준바와 같이 농업생산에서의 성과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로 모든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이악하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농장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농민들과의 사업, 기술자들과의 사업, 작업반장, 분조장 등 초급일군들과의 사업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그들속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로 살며 일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그들을 수령님께서 부르시는 새해 새 전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일군들은 현대과학기술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지도일군들은 경제리론, 기술지식을 모르고서는 현대과학기술의 토대우에서 진행되는 생산을 옳게 지도할수 없다.

특히 농업생산에서 현대적기계설비들과 화학비료, 농약 등이 더 많이 도입되고 영농과정이 더욱더 복잡한 기술공정으로 전환되고있는 현실은 농사를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지을것을 요구한다.

낡은 경험, 낡은 지식을 가지고서는 발전된 농촌경리를 제대로 움직여나갈수 없다. 농업지도일군들은 최신농업과학지식과 기술을 깊이 체득하고 농촌경리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농업관리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를 결정적으로 버리고 언제나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아래에 내려가 대중과 함께 일하며 혁명군대의 지휘관처럼 이신작칙하고 실천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대책을 세우고 모든 일을 주인답게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높은 앙양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은 더욱 앞당겨질것이다.

조국통일위업의 확고한 승리의 길을 밝혀준 력사적문헌

방 기 문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가 발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력사적연설에서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 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기는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된다는 원칙적인 사상을 밝히시고 독창적인 력량편성계획과 그 실현방도를 새롭게 천명하시였다.

수령님의 이 로작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서 획기적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문헌이며 위대한 주체의 빛발로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고 우리 시대에 와서 새롭게 나선 혁명전략의 근본문제에 완전한 해답을 준 고전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력사적인 로작에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전략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지난 10년동안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은 중첩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혁명력량편성에 관한 탁월한 전략사상

혁명력량편성문제는 혁명전략에서 기본을 이루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력량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혁명의 승리를 바라는것은 환상이다. 혁명력량을 강화하여야 반혁명과의 투쟁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혁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으며 반혁명을 결정적으로 때려부시고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전략에서 혁명력량의 준비가 차지하는 위치를 과학적으로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세계혁명력사상 처음으로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이 분렬된 조건에서 민족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혁명력량편성에 관한 독창적인 전략사상을 제시하시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제2차세계대전후 변화된 력사적조건에서 제기된 새로운 형태의 민족문제이며 종래의 맑스-레닌주의명제나 다른 나라 혁명운동의 경험에서 기성의 처방을 바랄수 없는 생소한 문제이다. 조국통일의 혁명력량편성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방침은 이 새로운 민족적재통합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 위대한 전략사상이다.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무엇보다먼저 혁명승리를 위한 력량편성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하루라도 빨리 쫓아내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겠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장기성을 띤 우리 혁명을 어떻게 하면 좀더 짧은 기간에 완수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혁명력량을 빨리 길러내는가 못내는가, 잘 싸우는가 못싸우는가에 달려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79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에는 조국통일위업을 우리 인민자신이 주체가 되여 자체의 힘과 투쟁으로 성취할데 대한 확고

한 주체적립장, 자주성의 원칙이 천명되여있다.

자주성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자주적립장을 떠나서는 나라의 통일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없으며 민족적리익을 진정으로 옹호할수 없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이며 그 담당자도 조선인민이다. 조국통일문제의 해결에서는 마땅히 민족자결의 원칙이 견지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은 결국 인민대중이 자기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개척해나가기 위한 투쟁이다.

다른 모든 혁명투쟁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도 우리 인민자신이 강력한 혁명력량을 어떻게 빨리 길러내는가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력량편성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을 밝히시고 이로부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세가지 혁명력량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전략사상을 력사상 처음으로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혁명이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세가지 혁명력량이 잘 준비되여야 합니다. 그 첫째는 북조선의 혁명력량이며, 둘째는 남조선의 혁명력량이며, 셋째는 국제적혁명력량입니다.》(우와 같은 책, 80페지)

세가지 혁명력량을 준비할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은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과 국제반동의 원흉이며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인 미제에 의하여 국토와 민족이 갈라지고 놈들과 직접 맞서있는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조건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과학적인 전략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유명한 전략사상에서 무엇보다먼저 남북반부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제혁명력량을 지원력량으로 꾸려야 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혁명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그 나라 내부력량이다. 혁명투쟁에서 외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매개 나라의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여있지 않은 조건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커도 맥을 출수 없다.

우리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체적력량의 준비여하에 달려있으며 우리 인민자신의 노력과 투쟁에 의해서만 성취될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주체적혁명력량중에서도 우선 북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공화국북반부는 전국에서 민족해방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혁명기지이며 북반부의 혁명력량은 전조선혁명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빨리 키우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며 혁명의 국제적환경을 유리하게 전변시키는 문제도 결국 북반부의 혁명력량을 어떻게 강화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수령님께서는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북반부혁명력량과 함께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남조선혁명력량은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의 기본구성부분을 이룬다. 남조선의 혁명력량은 조선혁명의 전진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남조선혁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중요한 력량이다.

북반부의 혁명력량과 남조선의 혁명력량은 그 어느 하나가 다른것을 대신할수 없으며 다같이 조국통일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으로 된다.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남북조선 두 지역에서 각각 조성할데 대한 수령님의 전략사상은 우리 혁명발전의 객관적현실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

다. 통일적인 전국혁명이 두 지역으로 나뉘여 진행되는 조건에서는 남북반부에서 다같이 혁명력량을 튼튼히 준비하여야만 전국적범위에서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남북조선에서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한편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세계혁명의 한 고리이며 조선혁명은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전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속에서 발전하고있다.

원래 혁명운동은 다른 민족부대들과 강력한 국제적뉴대를 가짐으로써만 더욱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우리가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 미제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녹아나고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는 전세계인민들의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때 남조선에서 놈들의 식민지통치지반은 더욱더 뒤흔들리게 되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는 유리한 국면이 열리게 된다.

나라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면서 국제혁명력량을 지원력량으로 꾸릴데 대한 전략사상은 세계혁명에서 조선혁명이 차지하는 지위와 혁명발전에서 작용하는 주체적요인과 객관적요인의 호상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에 기초하고있는 독창적인 력량편성방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조국통일의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원칙적인 요구를 내놓으시고 매 혁명력량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그것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하며 혁명의 주력군과 그를 보조할수 있는 광범한 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맑스-레닌주의당의 대외활동방침 등 모든 전략전술적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으로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사상은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우리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전략사상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을 위한 혁명력량편성의 탁월한 방침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최대한 고립시키고 조국통일을 위한 온 민족의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움으로써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확고히 보장하며 혁명승리의 주체적요인과 함께 객관적요인을 다같이 성숙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전략사상이다. 그것은 또한 반혁명세력을 항상 피동과 궁지에 밀어넣고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위대한 투쟁의 기치로 된다.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승리의 력량편성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사상은 분렬된 나라에서의 혁명승리의 길을 밝혀주고 우리 시대의 혁명전략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창조적사상이며 맑스-레닌주의혁명리론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불후의 사상리론적재부이다.

현명한 령도, 불패의 생활력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밝혀주신 탁월한 력량편성방침과 새로운 구국방안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지난 기간 내외정세는 매우 어려웠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이 더욱 격화되고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의 형편도 복잡하였다. 실로 지난 10년은 안팎의 원쑤들의 준동을 물리치며 혁명과 건설, 조국통일위업을 다같이 밀고

나가는 준엄한 시련과 영웅적투쟁의 시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하며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수령님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혁명기지는 더욱 불패의것으로 강화되고 적아간의 력량관계는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혁명기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다져졌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날로 더욱 번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북반부에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커다란 힘을 마련하여놓았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00페지)

오늘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전당, 전민, 전군이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을 중심으로 철통같이 통일단결되였으며 전당과 온 사회는 오직 하나의 혈통, 주체의 혈통으로 힘있게 맥박치고있다.

주체사상이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되여 우리 나라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자립경제와 불패의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되였다.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성과는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 튼튼한 정치적토대로,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세의 변화에 맞게 공명정대한 통일방침과 구국방안을 거듭 천명하시여 통일의 새 국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시였다.

특히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1971년 8월6일연설에서 천명하신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에 의하여 분렬의 장벽에는 돌파구가 열리고 남북대화가 마련되였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될수 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오직 수령님께서 밝히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방침과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해나갈수 있었다.

조국통일의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남조선에서도 혁명력량이 비할바없이 장성강화되였다.

오늘 남조선 혁명가들과 각계층 인민들속에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그들의 마음은 오직 수령님께로, 공화국북반부에로 쏠리고있다.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불멸의 주체사상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신봉은 그들의 확고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이루고있으며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속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혁명적당, 통일혁명당이 남조선혁명의 믿음직한 정치적참모부로 자라났다. 이것은 조국통일의 혁명력량편성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의 빛나는 구현이며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피어린 투쟁에서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자랑찬 투쟁의 길을 걸어온 통일혁명당은 오늘도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지도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으며 투쟁을 통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뭉쳐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옴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반동들의 탄압이 그처럼 심한 조건에서도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습니다.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에 의하여 남조선에서는 앞으로 반드시 결정적인 혁명투쟁이 일어날것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남조선에서는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을 통일하려는 기운이 전례없이 고조된 가운데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거세차게 벌어졌으며 투쟁의 불길은 남조선전역을 휩쓸고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주고있는 박정희도당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불만과 울분의 폭발이며 파쑈폭압을 반대배격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의로운 구국투쟁이다.

최근년간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식민지파쑈폭압과 매국배족적책동은 극도에 이르렀다. 박정희도당은 모처럼 마련된 남북대화를 파탄시키고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공공연히 정책화하는데까지 나갔다. 놈들은 밖으로는 외세의존정책에 매달려 민족의 영구분렬을 꾀하는 한편 안으로는 이른바 《10월유신》의 간판밑에 인민들에 대한 류례없는 파쑈폭압을 감행하여왔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우리 민족이 통일이냐 아니면 영구분렬이냐 하는 심각한 력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였던 때 조국통일 5대강령을 천명하시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획기적인 구국의 길을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은 나라의 영구분렬을 막고 남조선인민들을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결정적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과감히 일떠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처음부터 현군사파쑈정권을 반대하는데 투쟁의 예봉을 돌렸다. 그들은 《박정권 물러가라》, 《독재정권을 타도하자》, 《중앙정보부를 해체하라》 등 높은 정치적구호를 들고 파쑈테로통치와 민족분렬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는 박정희도당을 정면으로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우고있다. 투쟁은 또한 언론인, 지식인, 종교인, 녀성, 야당과 정치인 그리고 해외동포들 속에서까지 다양한 형태로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지금 박정희도당은 5.16《군사정변》이후 최대의 위기를 겪고있으며 그 통치지반은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다. 막다른 골목에 빠진 박정희도당은 올해 년초부터 이른바 《긴급조치》를 선포하고 포악한 《군정통치》로 일체 민주세력과 애국력량에 대한 류례없는 탄압을 감행하고있으며 이것으로써 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을 막아보려고 날뛰고있다.

그러나 박정희도당의 이러한 필사적인 발악은 부질없는 노릇이며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을 놀래울수 없을뿐더러 그들의 격분을 더욱 자아내고 힘찬 항거의 불길을 더욱더 지펴올리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과 함께 국제혁명력량도 더욱 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전반적국제정세는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 인민들이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인 수령님의 주체사상은 그 거대한 견인력으로 하여 모든 대륙, 모든 나라의 더욱더 많은 인민들로부터 열화같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오늘 세계진보적인민들이 모두다 주체사상을 따르며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정세발전의 중요한 추세를 이루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변천되는 복잡한 국제정세에 대하여 제때에 명확한 평가를 내리시고 대외활동을 주동적으로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적위신과 권위는 더욱 높아지고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의 대렬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 인민들이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을 열렬히 지지하고있다. 특히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지지하는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지난해 9월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4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그후 핀란드에서 진행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북구라파나라들의 련대성회의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규탄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또한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수령님께서 밝히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고 북과 남이 대화를 계속하며 다방면적인 교류와 합작을 실현하도록 요구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그리하여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은 단연 저지파탄되고 미제의 치욕스러운 침략과 간섭의 도구였던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영영 매장되게 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대승리이며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는 세계의 진보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인민들과 국제혁명력량의 공동의 승리로 된다.

모든 사태발전은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에 유리하게 되여가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인간쓰레기들은 호된 타격을 받고 녹아나고있다. 박정희도당은 국제고아의 신세에 더욱 깊이 굴러떨어지고있으며 제놈들의 피치 못할 멸망을 예감하고 극도의 불안과 절망에 휩싸여 있다.

이렇듯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방침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는 날이 갈수록 필승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실로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에 천명된 위대한 전략사상은 이미 실생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불멸의 투쟁기치이다.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우리는 오직 투쟁을 통하여서만 혁명력량을 강화할수 있으며 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다.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력량은 힘을 합쳐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수령님두리에 굳게 뭉쳐 나가는 조선인민은 반드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고야말것이다.

근로자 제2호(루계 382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4년 2월 1일　발행 • 1974년 2월 5일

ㄱ—441　값 50전

(정기간행물 번호
제13206호)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3 호

평 양 근로자사 1974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3 호

평 양 근로자사 1974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3 호(383)

차 례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김 일 성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4년 3월 4일)

존경하는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

존경하는 알제리의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평양시 각계층 인민들은 먼 아프리카대륙에서 오신 친선의 사절들인 알제리의 벗들과 상봉하게 되는 커다란 기쁨을 안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나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의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내각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각하와 그 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당신들을 통하여 영웅적알제리인민에게 보내는 조선인민의 뜨거운 형제적인사를 전하는바입니다.

알제리혁명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제3세계의 저명한 반제투사이며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인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알제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굳게 맺어진 전투적친선단결을 힘있게 시위하며 그것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키는 획기적사변으로 됩니다.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으로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이룩한 지난날의 투쟁의 공통성과 독립후 다같이 자주의 길을 따라 새 사회 건설을 추진

시키고있는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알제리인민들에 대하여 각별히 친선적인 감정을 품고있으며 알제리혁명의 지도자인 후아리 부메디엔각하를 높이 존경하고있습니다.

조선과 알제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은 일찌기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맺어진 참다운 혁명전우들사이의 친선입니다. 또한 이 친선은 온갖 형태의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고 주체적립장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형제적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의 구현입니다.

우리 인민은 알제리인민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지만 새 생활 창조를 위한 알제리인민의 투쟁을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알제리벗들과의 상봉을 통하여 영웅적인 무장투쟁으로 민족적독립을 쟁취한 알제리인민이 새 사회 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훌륭한 성과들을 더잘 알수 있게 되였습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나라의 주인으로 된 인민들은 참으로 기적을 낳을수 있습니다.

알제리인민은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리사회의 옳바른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전투적구호를 들고 중요한 사회경제적 변혁들을 이룩하였습니다. 알제리에서 외래제국주의독점체들의 소유였던 공장, 기업소, 회사들은 국유화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굳건히 다져지고있으며 농촌의 면모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교육문화가 새로이 발전하고있습니다.

독립후 불과 10년남짓한 짧은 기간에 알제리에서 일어난 모든 변혁들은 자체의 힘과 자원을 동원하여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알제리인민의 확고한 결의와 힘찬 로력투쟁의 고귀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알제리인민이 지금 진행하고있는 공업혁명, 토지혁명, 문화혁명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감탄하고있으며 알제리인민의 성과를 자기의 성과와 같이 기뻐하고있습니다.

알제리인민이 공업혁명, 토지혁명, 문화혁명의 세가지 혁명구호를 들고 힘차게 투쟁하고있는것은 매우 좋은 일이며 갓 독립한 나라 인민으로서 진보적길을 개척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알제리인민은 가까운 몇해안에 사회주의경제에 토대한 현대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단계에 들어설 확고한 전망을 가지고 제2차 4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은 자립적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정당한 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오늘 국제무대에서 그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독자적인 로선과 정책을 실시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이 대외관계분야에서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하고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3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있습

니다.

알제리 정부와 인민은 미제와 그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을 반대하고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권리회복과 아랍인민의 존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습니다.

또한 알제리인민은 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피압박인민들의 반제혁명운동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있습니다.

력사적경험은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이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식민지통치기구를 짓부시고 새로운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며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의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그의 경제적지반을 빼앗아내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알제리의 훌륭한 현실은 이 진리를 확증하는 좋은 실례로 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대륙에 알제리인민과 같은 용감하고 혁명적인 전우를 가지고 있는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 사회주의를 지향하여나가는 형제적알제리인민의 투쟁에서 앞으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동지들과 벗들!

오늘 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입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성스러운 해방투쟁에 용감히 일떠서 싸우고있으며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주, 자립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있습니다.

자주성은 매개 민족의 권리이며 그 어떤 민족도 남에게 예속되거나 민족적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행복이 있고 영예가 있으며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오래동안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압제밑에서 신음하던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이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한 결과에 지금 우리 시대는 제국주의가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고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여지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알제리에서 진행된 력사적인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우리 시대 발전의 이 근본적전환을 반영하였으며 현 국제관계발전에 미치는 제3세계의 커다란 영향력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가는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할 출로를 찾기 위하여 더욱더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달리면서 큰 나라들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 하며 아세아에서는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라

틴아메리카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침략전쟁과 무력탄압으로써도 그 어떤 량면전술과 신식민주의정책으로써도 결코 죽어가는 자기들의 운명을 건져낼수 없으며 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 오늘의 추세를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조선과 알제리, 웰남과 꾸바를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제국주의자들이 련이어 참패를 당한 사실은 이것을 잘 말하여줍니다.

지난해 10월 중근동전쟁시기에 아랍나라들은 어느때보다도 단결된 힘으로 미제와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아랍나라들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지원하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석유수출을 금지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서방세계로 하여금 수습할수 없는 경제적위기를 겪게 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은 전세계 인민들의 지지와 동정을 받고있습니다.

아랍인민들은 강점된 령토를 완전히 해방하고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권리를 회복할 때까지 계속 견결히 투쟁할것이며 이 투쟁에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것입니다.

오늘 제3세계나라 인민들속에서는 정치적자주권을 수호할뿐아니라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제국주의독점체들의 경제적지반을 허물어버리며 빼앗긴 자기나라 자연부원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더욱더 높아가고있습니다.

아프리카대륙에서는 아프리카통일기구의 공동결의에 따라 식민주의의 잔재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이 광범히 벌어지고있으며 동남아세아 여러 나라들에서는 미국의 군사기지화정책과 일본의 경제적침략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이 일어나고있으며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미국의 지배와 통제를 반대하고 민족적자주권과 자연부원, 령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고있습니다.

얼마전 후아리.부메디엔각하가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의장으로서 연료 및 원료 문제를 포함한 국제경제관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총회 특별회의를 소집할것을 제기한것은 이때까지 제3세계인민들의 리익을 희생시켜온 이 문제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됩니다.

이번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진행된 회교국가수뇌자회의도 자기 운명을 자신의 손에 틀어쥐고나가려는 제3세계인민들의 확고한 결의를 다시금 시위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제3세계인민들을 제멋대로 억압하고 략탈하며 그들의 운명을 가지고 막뒤에서 흥정하고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지금 제국주의세계는 제2차세계대전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파동을 겪고있으며 전면적인 위기에 부닥쳐 더욱더 허덕이고있습니다. 이제는 세계무대에서 발언권이 압박받던 인민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 할것없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

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숨돌릴 여유를 주지 않고 강한 타격과 압력을 가한다면 능히 제국주의를 멸망시킬수 있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조선인민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건설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싸우는 인도지나인민들, 아랍인민들을 비롯한 3대륙인민들과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그들과의 전투적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나갈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조선인민은 자기의 민족해방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래동안 투쟁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자주적인 로선과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올수 있었습니다.

해방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게 된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 결과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당, 전국, 전민이 6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앞당겨 수행하며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사회주의대건설에 총동원되고있으며 전체 근로자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를 들고 모든 진선에서 천리마진군의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고있습니다.

서방자본주의세계가 일찌기 없었던 심각한 경제적위기에 빠져들어가 크게 뒤흔들리고있는 이때에 우리 나라에서 경제가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위대한 생활력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뚜렷이 실증하여줍니다.

우리는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언제나 외세에 의존하려는 시도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자기의 민족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자주적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왔습니다.

오늘 조선문제는 구경은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나의 조선이냐 두개의 조선이냐 하는 문제에 귀결되고있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한결같이 나라의 통일을 념원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렬강들은 우리 나라가 분렬되기를 원하고있습니다. 분렬하여 통치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상투적수법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영원히 식민지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들의 상품판매시장으로 영원히 틀어쥐기 위하여 조선의 영구분렬을 꾀하고있습니다.

미일반동들의 간섭책동과 그 앞잡이들의 매국배족행위로 말미암아 7. 4남북공

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우리 나라의 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난관이 가로놓여있습니다.

요즘 남조선위정자들의 민족분렬책동과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도발책동은 더욱 더 참을수 없는 정도에 이르고있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으며 평화통일을 요구한다고 하여 남조선청년학생들과 량심적인 지식인들 지어는 종교계인사들까지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하고있으며 남조선전역을 살기어린 감옥으로 전변시키고있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자기들의 이러한 범죄적행동을 가리우고 인민들의 주의를 딴데로 돌리기 위하여 서해에서 간첩선침입과 같은 군사적도발책동을 계획적으로 감행하고 이를 구실삼아 《남침위협》 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으며 고의적으로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호전분자들의 도발책동에 발맞추어 공화국북반부에 련이어 고속도고공정찰기를 침입시켜 정탐행동을 감행하며 남조선에 대한 군사원조를 더욱 증강할데 대하여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라에 조성되고있는 이 모든 심상치 않은 사태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이 사실상 남북관계를 남북공동성명발표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조선에서 과연 누가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의 칼을 갈고있으며 누가 《통일》의 간판뒤에서 분렬의 영구화를 꾀하고있는가 하는것은 오늘에 와서 더욱 똑똑히 드러났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남조선을 영원히 식민지화하려는 미일반동들의 책동을 허용할것이 아니라 남조선에서 미군이 나가게 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자주적이며 통일독립된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합니다.

만일 우리 민족이 분렬된채로 살자고 한다면 무엇때문에 남북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남북대화는 반드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두개 조선으로 유엔에 들어가자고 한 지난해 6월의 《특별성명》을 취소하여야 하며 온 민족의 리익에 부합되게 통일을 위한 회담에로 나와야 합니다.

또한 평화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없는 《불가침조약》같은것을 들고나올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얼마전에 남조선당국자들이 들고나온 이른바 《불가침조약》이란것은 통일문제를 가지고 민족을 희롱하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군대의 통수권을 틀어쥐고있는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의 간판을 가진 미군사령관이며 대포와 총칼을 비롯한 각종 전쟁수단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있는것도 미제국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빈손만 가진 남조선통치배들이 남조선에 미제침략군을 그대로 남겨둔채 우리와 《불가침조약》을 맺자고 하는것은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일이며 론의할 가치조차 없는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분렬책동을 계속하는것으로 보아 그들이 진실로 통일을 위하여 대화의 길에 나섰다고 믿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남북당국자들사이에서만 론의할것이 아니라 전민족적인 토의에 붙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남북조절위원회와는 별개로 남북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대민족회의나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열것을 다시한번 제의합니다. 오직 이 길만이 조선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길입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사람자신이 해결해야지 어느 열강이나 다른 나라가 해결해줄수 없습니다.

현 정세는 나라의 분렬을 막고 평화적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이 투쟁은 구국이냐, 매국이냐 하는것을 판가름하는 투쟁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계속 외세의존정책에 매여달리면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거부하고 두개 조선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들은 천추에 씻지 못할 매국노의 치욕을 남긴채 파멸당하고말것입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통치배들의 가혹한 파쑈적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애국적투쟁이며 민족의 사활적리익에 직접 관련되는 정의의 투쟁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어느때나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원할것입니다.

우리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것은 결코 그 어떤 《내정간섭》이 아니라 민족의 내부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것을 자기의 응당한 의무라고 인정합니다.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파쑈폭압과 전쟁도발 책동을 일삼고있는 현 남조선당국자들을 옹호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중요한 한 고리로서 국제적으로 날로 커가는 지지와 동정을 받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우리의 조국통일 5대방침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이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있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속에서 지난해에 유엔총회에서는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제기하였던 《두개 조선》유엔가입안을 배격

하고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는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커다란 승리이며 세계평화애호인민의 공동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앞으로도 평화적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하나의 민족인 우리 민족을 두개로 영원히 갈라놓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야망과 그 앞잡이들의 매국배족행위에 공동의 타격을 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언제나 우리의 위업을 자신의 위업과 같이 여기면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지원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에 대하여 언제나 잊지 않을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있는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와 알제리정부와 알제리인민에게 다시한번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조선과 알제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단결과 형제적친선협조관계는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개화발전될것입니다. 조선과 알제리사이의 친선과 호상협조는 두 나라의 자주독립을 보위하는데 있어서뿐아니라 전반적반제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조선인민과 알제리인민은 다같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지고있으며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있는 전우로서 또한 형제로서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영원히 어깨겯고 함께 싸워나갈것입니다.

조선인민과 알제리인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 만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 만세!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를 수반으로 하는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만세!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김 일 성

(전국공업대회에서 한 연설
1974년 3월 7일)

동지들!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진행된 이번 대회는 매우 의의깊고 중요한 대회입니다. 대회에서는 많은 동무들이 열렬한 토론을 하였으며 용감히 전진하려는 굳은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나는 동무들이 대회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한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며 대회 참가자들과 전체 로동계급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오늘 대회를 끝마치면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려고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와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당중앙위원회의 붉은편지에 모든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어있기때문에 오늘은 몇가지 실무적문제에 대하여서만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1. 6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할데 대하여

우리가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기본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기본건설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중앙위원회는 올해를 건설의 해로 정하고 기본건설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본건설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6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점령하는데 필요한 기본건설을 기한전에 끝내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6개년계획의 강철고지점령을 위한 야금기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6개년계획의 강철고지를 점령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가본건설에 달려있습니다. 김책제철소 확장공사, 강선제강소 확장공사, 4월13일제철소 확장공사에 큰 힘을 넣어 그 조업기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특히 김책제철소 확장공사에 화력을 집중하여 공사를 빨리 끝내야 하겠습니다. 김책제철소 확장공사를 빨리 끝내야 6개년계획에 예견된 강철고지를 점령할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김책제철소의 용광로와 해탄로, 소결로 건설에 필요한 설비를 제때에 생산하여 보내주어야 할것입니다.

강철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야금기지건설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지금 있는 철광산들을 확장하며 새로운 철광산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쇠돌생산을 늘이지 않고서는 용광로를 아무리 많이 건설해도 소용없습니다. 빨리 늘어나는 쇠돌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금 있는 철광산들을 확장하며 새로운 철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산광산 확장공사를 적극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무산광산에는 품위높은 쇠돌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습니다. 제철소들에 원료를 제대로 대주는데서 기본고리는 무산광산을 빨리 확장하는데 있습니다. 무산광산 확장공사를 적극 다그쳐 그 생산능력을 올해에는 450만톤, 다음해에는 550만톤, 래명년에는 850만톤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덕성광산 개발도 적극 다그쳐야 합니다. 서부지구에서 쇠돌자원을 아직 많이 개발하지 못한 조건에서 품위가 높은 쇠돌이 매장되여있는 덕성광산을 빨리 개발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섭니다.

서부지구에서도 지금 있는 철광산들을 더 개건확장하며 새로운 철광산들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6개년계획의 전력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발전소건설에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발전소건설이 완만하게 진행되고있습니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북창화력발전소 제2계단공사, 서두수발전소 제2계단공사, 청천강화력발전소, 대동강발전소, 대보화력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빨리 완공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규모의 화학공업기지건설을 적극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농업생산을 높이고 경공업의 원료기지를 확대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하루빨리 새로운 대규모의 화학공업기지를 건설하여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화학공장 건설에 큰 힘을 넣어 36만톤 능력의 뇨소비료공장, 1만톤 능력의 아닐론공장, 2만 5,000톤 능력의 폴리에틸렌공장을 비롯하여 대규모의 화학공장들을 빨리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화학공장 건설은 매우 방대한 건설입니다. 뇨소비료공장건설 하나만 놓고

보아도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공장에서 생산될 36만톤의 뇨소비료를 류안비료로 환산하면 류안비료 76만톤에 맞먹습니다. 지금 흥남비료공장에서 한해에 100만톤의 비료를 생산하는데 이만한 생산능력을 마련하기까지는 10여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흥남비료공장에 못지않는 생산능력을 가진 뇨소비료공장을 한해동안에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 공장을 건설해야 6개년계획의 화학비료고지를 점령할수 있습니다.

청년화학공장을 건설하는것과 함께 남포지구에 합성고무공장, 3만톤 능력의 비날론공장, 5만톤 능력의 염화비닐공장과 이 공장들에 원료를 대줄만한 능력을 가진 카바이드공장 그리고 탄산소다공장, 가성소다공장 같은 현대적인 대화학공장들을 새로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세멘트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순천세멘트공장을 빨리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순천세멘트공장 제1계단 공사를 끝내면 300만톤의 세멘트를 생산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00만톤의 세멘트를 생산하고있는데 새로 300만톤의 세멘트생산능력을 마련하면 6개년계획에 예견된 세멘트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순천세멘트공장 건설을 빨리 다그쳐 다음해안으로 300만톤의 세멘트생산능력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하는데도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막대한 자재와 자금을 들여 많은 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하여놓고도 소소한 시설을 채 갖추지 못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는 공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9월방직공장은 수도공사와 같은 보조공사를 채 끝내지 못하여 완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리원방직공장은 보이라, 변압기와 같은 부대시설을 채 갖추지 못하여 자기 능력을 다 내지 못하고있습니다. 만일 지난해에 9월방직공장 건설과 사리원방직공장 건설을 완공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였더라면 질좋은 천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였을것입니다.

9월방직공장 건설과 사리원방직공장 건설이 늦어지게 된것은 이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할 정무원 위원회와 부들에서 기관본위주의를 하며 국가적립장에서 책임적으로 일하지 않은데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이러한 현상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일군들과 건설부문일군들은 지금 하고있는 경공업공장건설을 빨리 끝내여 경공업부문의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철도건설을 적극 다그치는것은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입니다. 철도운수부문일군들은 당이 내세운 철도건설방향에 따라 철도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늘어나는 화물수송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강계—혜산—무산사이의 철도 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빨리 완공하여야 하겠습니다.

강계—혜산—무산사이의 철도 건설을 빨리 끝내야 우리 나라 북부내륙지대의 동서부를 련결시켜 함경북도와 북부내륙 지대에서 많이 생산되는 강재, 석탄, 목재, 스프, 종이 같은 공업원료와 연료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원활히 보내줄수 있으

며 일단 유사시에 전시수송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라진—평양사이의 철도는 해안선을 끼고있으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제대로 리용하지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동부지방과 서부지방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어느때든지 원만히 수송할수 있도록 강계—혜산—무산사이의 새 철도를 빨리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본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중요건설대상들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건설력량이 제한되여있는 조건에서 건설을 분산시켜서는 어느 하나도 제기한에 완공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건설에서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중요건설대상들에 힘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건설을 다그침으로써 조업기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겨야 합니다. 조업기일을 한시간이라도 앞당기면 그만큼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할수 있습니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강철고지, 전력고지, 세멘트고지, 화학비료고지, 천고지, 알곡고지, 수산물고지를 비롯한 6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중요건설대상들에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장들에서 로력조직을 합리화하고 건설의 기계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 건설을 적극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방대한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기본건설전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내세운 방침에 따라 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어 기본건설전선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를 계기로 기본건설전선에 대한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건설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건설전선에 대한 로력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당에서는 기관, 기업소들에서 찾아낸 많은 로력을 기본건설전선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동무들도 돌아가서 로력예비를 많이 찾아내여 기본건설전선에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기본건설전선에 자재와 설비도 집중적으로 대주어야 합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대상설비생산에 힘을 넣어 기본건설전선에서 요구하는 설비들을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장, 기업소들에 사장되여있는 설비와 자재들을 적극 동원하여 기본건설전선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지금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필요없는 설비와 자재들을 쌓아두고 다른 부문에 주지 않고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관본위주의와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수송조직을 합리화하여 기본건설전선에 자재와 설비들을 제대에 실어다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초를 다투어 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늦어도 다음해 상반년까지는 6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점령하는데 필요한 기본건설을 다 완공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6개년계획을 한해 앞당겨완수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입니다.

우리 나라 공업에서 가장 약한 고리의 하나는 채취공업입니다. 지금 변압기와 전동기, 전선과 까벨선 같은것이 모자라 생산과 건설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있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광산들에서 유색금속광물을 원만히 대주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쇠돌을 넉넉히 대주지 못하여 용광로에 만부하를 걸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제강소들에서 전극이 딸려 강철생산에 지장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흑연이 많이 매장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전극 같은것은 마땅히 다른 나라에 수출하여야 하겠으나 광산에서 흑연을 넉넉히 대주지 않아 전극이 딸릴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산의 첫공정인 채취공업이 앞서지 못하여 다른 공업부문들에서 생산을 더 많이 할수 있는것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기업관리운영을 잘하지 못하고있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도 채취공업이 앞서지 못하여 원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데 있습니다.

원료와 연료, 동력 생산을 앞세우는것은 공업에서 하나의 법칙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생산의 첫공정인 채취공업이 앞서나가야 다른 모든 공업부문들도 빨리 발전할수 있습니다. 제철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산광산을 비롯한 철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변압기와 전동기, 전선을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채취공업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다른 부문들에서도 앙양을 일으킬수 있으며 채취공업이 확고히 앞서나가야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습니다. 채취공업을 앞세우는것은 6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서뿐아니라 6개년계획을 수행하고 앞으로 새로운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도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전당과 전국이 힘을 넣어 채취공업을 빨리 추켜세워야 하겠습니다.

채취공업을 빨리 추켜세우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에서 보수주의를 없애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아직도 채취공업부문일군들에게는 보수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채취공업부문일군들이 쩨쩨하고 통이 크지 못합니다.

지난날 일제놈들은 조선을 강점하고있는동안에 우리 나라의 자원을 더 많이 략탈해가기 위하여 반수공업적인 방법으로 품위높은 광석만 골라서 캐먹고 품위낮은 광석은 그냥 버렸습니다. 이것은 강도적인 자원략탈방법입니다.

우리는 일제놈들이 우리 나라의 자원을 략탈해갈 때 쓰던 쩨쩨하고 반수공업적인 방법을 답습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품위가 높은 광석뿐아니라 품위가 낮은 광석까지 다 캐내야 하며 다량채굴하고 다량처리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광석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우리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며 효과있게 리용하는 견지에서 보나 나라를 만년대계로 꾸리나가는 견지에서 보나 옳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채취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하며 광석을 다량채굴하고 다량처리하는 방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광석을 다량채굴하고 다량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채취공업부문에서 설비를 대형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여야 합니다. 압축기 같은것도 자그마한것이 아니라 큰것을 도입하여야 하며 고속도착암기와 고속도착정기, 대형굴착기와 대형불도젤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선광장도 능력이 작은 설비들을 여러대 놓아 자리만 많이 차지하게 하지 말고 능력이 큰 설비들을 놓아 작은 면적에서 선광능력을 몇배로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대회 과정에 설비를 개조하여 지금 있는 선광장들의 능력을 배이상으로 높일수 있는 예비를 찾아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운반을 다양화하는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탄광, 광산들에서 운반을 빨리하기 위하여 벨트콘베아를 놓아야 할데는 벨트콘베아를 놓고 삭도를 놓아야 할데는 삭도를 놓으며 전차를 놓을데는 전차를 놓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지하자원이 매우 많습니다.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옳게 리용하면 우리 나라는 더욱 부강한 나라로 될수 있습니다. 만일 강철을 1,000만톤 생산하여 그가운데서 500만톤은 국내에서 쓰고 500만톤을 다른 나라에 팔면 5억파운드의 외화를 벌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만톤의 유색금속을 생산하면 인구 한사람당 유색금속생산량에서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100만톤의 유색금속을 그대로 팔아도 5억파운드의 외화를 얻을수 있으며 그것을 가공하여 축전지나 동선, 전동기 같은것을 만들어팔면 그보다 몇십배 더 많은 외화를 얻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지하자원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더 많은 강철을 생산하여야 하며 유색금속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해서는 기계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술혁명은 곧 기계혁명입니다. 기계공업은 공업의 중심이며 심장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채취공업에서 설비를 현대화, 대형화, 고속도화하며 운반을 다양화하려고 하여도 기계공업부문에서 여러가지 현대적인 대형기계설비들을 많이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400~500마력엔진을 가지고 광산에서 쓸 25톤짜리 대형자동차도 만들수 있고 대형불도젤도 만들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고 달라붙으면 고속도착정기, 고속도착암기, 대형마광기 같은것들도 얼마든지 만들수 있습니다.

채취공업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대형기계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대형기계생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지금 있는 대형기계생산기지를 확대강화하며 강선지구에 새로 대형기계생산기지를 하나 더 꾸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빨리 늘어나는 대상설비에 대한 수요를 기계공업부문에만 의존하여서는 원만히 보장할수 없습니다. 모든 공업부문에서 자기 부문에 요구되는 대형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쓸수 있는 기계생산기지를 꾸려야 합니다.

례를 들어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압연설비 같은것을 자체로 만들어써야 합니다.

금속공업설비들은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것도 아니므로 금속공업부문에서 자체로 만들수 있습니다. 광업부문에서도 광산기계공장들을 가지고있는것만큼 그것을 더 잘 꾸려 대형채굴설비들을 자체로 만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기계제품들만 생산하도록 하고 채취공업이나 야금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부문 같은데서 요구되는 대상설비들은 해당부문에서 생산하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 기계공업부문에서 가지고있는 공작기계대수보다 다른 공업부문들에서 가지고있는 공작기계대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공작기계리용에서 아직 예비가 많습니다. 만일 모든 부문에서 지금 가지고있는 공작기계들을 바로 리용한다면 자기 부문에서 요구되는 기계설비들을 거의다 자체로 만들수 있을것입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직장장들이 돌아가면 자기 공장, 기업소에 있는 공작기계들을 바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작기계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여 공작기계들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불합리하게 배치되여있는것은 다시 배치하여 그 리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형기계생산기지들을 새로 창설하며 이미 있는 대형기계공장들을 확장하기 위하여서는 대형공작기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새로운 대형기계생산기지들을 꾸리는데 요구되는 설비들을 귀중한 외화를 들여 다른 나라에서 다 사올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군중적운동으로 대형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자체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959년에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린것과 같이 대형보링반, 대형선반, 대형타닝반과 같은 대형공작기계들을 새끼치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

만일 1959년에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리던 때와 같이 적극성과 창발성을 내여 대담하게 투쟁한다면 대형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을것입니다. 룡성기계공장에서는 벌써 10여년전에 8메터타닝반을 만들었으며 북중기계공장에서는 당 제5차대회를 계기로 10메터타닝반을 만들었는데 왜 오늘 다른 기계공장들에서는 15메터선반이나 16메터타닝반 같은 대형공작기계들을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지난날 우리가 어려운 조건에서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경제건설을 할 때에는 모두가 긴장하고 동원된 태세에서 적극적으로 투쟁하였으나 오늘 생활이 좀 넉넉해지니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자만하며 투쟁정신이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우리 조국 남반부는 아직 원쑤들에게 짓밟히고있습니다. 남반부에 둥지를 틀고있는 원쑤들은 우리와 판가리싸움을 하려고 날뛰고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하며 안일해이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 강한 힘을 키워 원쑤들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굳은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대형공작기계들을 대담하게 만들어냄으로써 대형기계생산기지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물고기잡이는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부식물문제를 푸는데서 물고기생산을 늘이는것이 축산업을 발전시키는것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가 여러곳에 큰 돼지공장들을 건설하였는데 여기에는 자금도 많이 들었으며 또 공장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고기생산원가도 높습니다. 우리 나라는 축산업의 력사가 짧기때문에 축산업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려면 아직도 얼마동안 시일이 걸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수산업은 력사가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쪽배라도 타고 물고기잡이를 하여왔기때문에 물고기잡이에서는 일정한 경험을 가지고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 한사람이 하루에 물고기를 200～300그람씩 먹으면 고기 100그람을 먹는것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의 부식물문제를 푸는 가장 빠른 길은 수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물고기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하여서는 수산부문에서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물고기잡이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고기배들을 대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연해에는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명태가 들어와 한 40일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큰 배가 적기때문에 연해에 들어오는 명태를 많이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배를 가지고서는 바람이 세게 불거나 파도가 높을 때 바다에 나가지 못하여 명태철에 고기잡이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작은 배를 가지고서는 명태가 들어와있는 40여일가운데서 그 절반가량밖에 바다에 나가지 못합니다. 만일 큰 배가 많아서 40일동안 계속 바다에 나가 물고기잡이를 한다면 명태만 하여도 100만톤이상 잡을수 있습니다.

3,750톤짜리 배 같은 큰 배들이 있으면 먼바다에 나가서도 한 100만톤의 물고기를 쉽게 잡을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여느때보다 한달이나 앞당기 먼바다고기잡이를 떠났는데 우리가 만든 3,750톤짜리 배에서 한 기망에 물고기를 40톤씩 잡고있습니다. 지금 가공모선을 미처 대주지 못하여 물고기를 더 잡을수 있는것도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몇백명의 로동자를 가지고있는 수산사업소에서 한해동안에 2만 5,000톤의 물고기를 잡는데 3,750톤짜리 배 한척으로는 70명의 로력이 그만한 물고기를 잡을수 있습니다. 우리가 3,750톤짜리 배 100척만 가지고있으면 250만톤의 물고기를 잡을수 있습니다.

쪽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쪽배를 가지고서는 물고기를 많이 잡을수 없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결정적으로 고기배들을 대형화하여야 합니다.

고기배들을 대형화하기 위하여 3,750톤짜리 배를 많이 무어내며 물고기를 잡는 족족 날라올수 있도록 5,000톤짜리, 1만톤짜리, 2만톤짜리 운반선들도 많이 만들

어야 하겠습니다.

큰 배를 많이 무이내기 위하여서는 여러가지 엔진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특히 2,500마력중속엔진을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2,500마력중속엔진이 있어야 5,000톤짜리 배와 1만톤짜리 배를 만들수 있습니다. 2,500마력중속엔진은 내연기관차를 만드는데도 쓸수 있습니다. 지금 2,500마력중속엔진생산이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고있는데 이 엔진 생산을 맡은 공장의 로동자들과 지도일군들은 분발하여 당앞에 다진 결의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고기배들을 대형화하는것과 함께 큰 배를 붙일수 있도록 항구들을 개건확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미 건설하여놓은 랭동공장들도 바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몇해동안 투쟁하여 원산을 비롯한 큰 항구들에 1만톤이상의 능력을 가진 랭동공장들을 많이 건설하였으며 소비지에도 여러개의 랭동공장들을 건설하여놓았습니다. 우리가 랭동공장을 많이 건설하였기때문에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잡은 물고기가 아직 한 6만톤이나 랭동창고에 저장되여있습니다. 랭동공장들을 건설하여 물고기를 저장해두고 사철 인민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고기배들을 대형화한다고 하여 세소어업발전에 관심을 적게 돌려서는 안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바다를 낀곳에서는 바다를 뜯어먹고 산을 낀곳에서는 산을 뜯어먹고 살라고 하였습니다. 세면이 바다로 둘리싸여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여야 합니다. 바다를 낀 농촌들에서는 반농반어업을 널리 하며 자그마한 배를 가지고 세소어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낚시질도 하고 양식사업도 잘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학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카바이드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원유를 사다가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보다 자체로 생산하는 카바이드에 기초하여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원유를 가지고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면 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아직 원유를 생산하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원유를 가지고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려면 다른 나라에서 숱한 원유를 사와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사오려면 운반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원유매장량이 그리 많지도 못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카바이드원료인 석회석과 무연탄이 무진장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카바이드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그것을 원료로 하는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습니다.

카바이드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카바이드공업부문에서도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금 카바이드로들이 밀폐식으로 되여있지 않아 높은 열과 유해가스가 밖으로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카바이드로들을 빨리 밀폐식으로 개조하여 로동자들을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에서 해방하며 카바이드생산을 훨씬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카바이드를 생산하는데는 전력이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카바이드 생산부문에서는 될수록 전력을 적게 쓰면서 카바이드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카바이드공업을 발전시키려면 수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석탄을 때서 전기를 얻는것보다는 건설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하는것이 낫습니다. 그러므로 수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는것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전력생산비가 수력발전소만큼 적게 드는 발전소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수력발전소를 건설할수 있는 강들이 많습니다. 압록강, 독로강에도 발전소를 더 건설할수 있고 례성강, 청천강, 대동강에도 발전소를 많이 건설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에 평안남도 순천군 백송리에 나가 종합대학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대동강과 원산을 련결하는 운하를 건설할데 대한 문제를 연구할 과업을 주었습니다. 얼마전에 종합대학 교원들과 학생들이 대동강과 원산을 련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하고 그 갑문을 리용하여 전력을 생산할데 대한 설계를 만들어왔는데 거기에는 58만키로와트의 발전능력을 조성할것이 예견되여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매우 흥미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수력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수력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조수력을 리용하여 전력을 생산할데 대한 문제도 연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원자력발전소도 건설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으로 철도운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화물수송에서 철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철도운수를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철도전기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철도를 전기화하면 철도의 수송능력을 훨씬 높일수 있습니다. 철도전기화는 하기도 헐하고 돈도 적게 들며 철도의 문화성도 보장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동을 더 많이 생산하여 철도전기화를 적극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철도를 전기화하는것과 함께 철길을 중량레루로 바꾸고 중량화차를 많이 생산하며 구내선을 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철도전기화가 제대로 은을 나타낼수 있으며 견인중량을 몇배로 높일수 있습니다.

철도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새 철도를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철도전기화와 새 철도 건설을 다그쳐 수송의 긴장성을 풀고 빨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에 대하여

얼마전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전원회의에서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내놓은것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앞날에 대한 휘황한 전망과 뚜렷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날에 대한 전망이 휘황찬란하고 투쟁목표가 뚜렷하여야 인민들이 그것을 하루빨리 앞당겨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싸울 때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내놓았습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진정한 조선인민적혁명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문제,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싸울 혁명군대를 조직할데 대한 문제, 산업국유화와 토지개혁, 8시간로동제, 남녀평등권,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비롯하여 제반 민주주의적시책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은 일제를 때려부시면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고 로동자는 공장의 주인으로, 농민은 땅의 주인으로 되며 로동자들은 8시간로동을 하고 청소년들은 무료로 민족교육을 받으며 녀자는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것을 확신하고 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우리 인민들에게 래일에 대한 휘황한 전망과 확고한 투쟁목표를 제시하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할것입니다.

우리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내놓은것은 또한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의 의견을 많이 듣고 다음번 전망계획을 바로 세우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무들이 이번 대회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4년동안에 점령할수 있다고 토론하였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다음번 전망계획을 6개년계획으로 하겠는가, 5개년계획으로 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4개년계획으로 하겠는가 하는것은 동무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앞으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토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투쟁하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짧은 기간에 능히 달성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이 강철 1,200만톤고지인데 우리는 이 고지를 능히 점령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쇠돌이 무진장하며 지금 쇠돌생산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산광산의 정광생산능력을 1,000만톤으로 늘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철광산들의 생산능력을 늘이는것과 함께 새로운 철광산들도 많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최근 함경북도 김책지구를 비롯하여 여러곳에서 쇠돌매장지들이 발견되였는데 매장량이 많고 쇠돌의 품위도 높습니다. 우리가 광산개발에 필요한 대형설비들을 자체로 만드는것만큼 철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할수 있습니다.

쇠돌만 많으면 철을 얼마든지 생산할수 있습니다. 용광로, 소결로, 해탄로 같은

것은 다 우리자체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500립방메터용광로를 건설한 경험이 있기때문에 2,000립방메터용광로도 건설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2,000립방메터용광로를 다음해부터 해마다 한기씩만 건설하여도 강철 1,200만톤고지를 1980년안으로 점령할수 있습니다.

제철공업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우리 나라의 원료를 가지고 철을 생산하는것입니다. 제철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은 콕스탄대신에 우리 나라 석탄을 쓰며 콕스탄을 쓰는 경우에도 우리 나라 석탄의 배합비률을 높여 콕스탄을 극력 절약하는 문제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의 제철공업을 안전한 토대우에서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세멘트 2,000만톤고지도 능히 점령할수 있습니다. 지금 순천지구에 500만톤 능력을 가진 현대적인 세멘트공장을 건설하고있으며 앞으로 천내지구에 500만톤 능력의 현대적인 세멘트공장을 하나 더 건설하려고 합니다. 순천세멘트공장과 천내지구의 세멘트공장 건설이 끝나면 이 두 공장에서만도 1,000만톤의 세멘트가 생산될것입니다. 이밖에 500만톤의 세멘트생산능력만 더 조성하면 지금 생산하고있는것까지 합하여 2,000만톤의 세멘트를 생산할수 있습니다.

강철 1,200만톤고지와 세멘트 2,000만톤고지뿐아니라 100만톤의 유색금속고지, 1억톤의 석탄고지, 5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 500만톤의 기계가공품고지, 500만톤의 수산물고지, 500만톤의 화학비료고지, 1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고지, 1,000만톤의 알곡고지도 다 점령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반드시 실현할수 있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면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게 될것이며 우리 나라는 더욱 강유력한 나라로 될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면 남조선혁명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더욱 앞당기게 될것입니다. 10대경제건설목표가 실현되면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지원할수 있을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사회주의건설성과에 고무되어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렬한 동경심을 가지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릴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진보적인민들을 더욱 힘있게 고무할것입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다음해까지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고 그다음부터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향하여 총진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까운 몇해안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하겠습니다.

3. 공장, 기업소 직장장들의 임무에 대하여

직장장은 공장, 기업소의 생산단위책임자입니다. 큰 공장, 기업소의 직장은

하나의 공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장들의 책임이 무거우며 직장장들의 임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장들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산조직을 잘하는것입니다.

직장장들이 생산조직을 잘하여야 직장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생산자들에게 있어서 생산과제는 곧 혁명과업입니다. 따라서 직장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생산조직을 잘하는것은 직장장들의 기본혁명과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직장장들이 생산조직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며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고 설비,자재와의 사업을 잘하며 책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중심과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라는것이며 설비와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설비들이 언제나 자기 능력을 다 낼수 있도록 설비관리를 잘하고 설비들을 더욱 현대적인것으로 개조하라는것이며 책과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근로자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여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라는것입니다.

직장장들은 사람과의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작업반장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직장장은 군대의 중대장이나 소대장과 같다고 볼수 있고 작업반장은 군대의 분대장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직장장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하려면 작업반장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잘 교양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작업반장들이 사람과의 사업, 설비, 자재와의 사업, 책과의 사업을 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장장들은 또한 로동자들이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잘 교양하여야 합니다.

로동규률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공장안에 규률이 없고 질서가 없으면 그런 공장은 사회주의적인 공장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로동규률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사업을 잘하여 모든 로동자들이 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때리고 욕설하며 해고하는것과 같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로동자들을 일시키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런 방법이 허용될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오직 로동자들의 자각성에 기초한 로동규률이 있을뿐입니다.

직장장들은 모든 로동자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그들을 잘 교양하여야 합니다. 특히 로동자들이 480분 로동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로동자들이 480분 로동시간을 1분1초도 어기지 않으며 로동시간에 다른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오직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한가지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힘과 재능을 다 바쳐 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오작품도 내지 않고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로동규률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직장장, 작업반장들이 로동조직을 잘하
여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료해하여보면 로동규률이 바로 서지 못한 주
요한 원인의 하나가 로동조직을 잘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직장장, 작업반장들은 매
로동자들에게 지식정도와 기능수준, 체질에 맞는 작업을 맡기고 작업조건을 원만
히 보장해주어야 하며 로동자들의 작업수행정형을 늘 김연하고 잘못되는것을 제때
에 바로잡아주어야 합니다.

　설비, 자재와의 사업은 직장장들이 깊은 주의를 돌리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생산설비들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며 전체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중요한
밑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제관리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설비를 귀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직장장들은 설비관리에 힘을 넣어 설비들을 제때에 점검보수하도록 하는 한편
로동자들속에서 설비를 애호할데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
민군대군인들이 무기를 자기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듯이 모든 로동자들이
설비를 적극 아끼고 사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설비관리를 잘하는것과 함께 자재를 아껴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쓰고있는 모든 자재가 다 우리 로동계급이 간고분투하여 생산
한것입니다. 모든 직장, 작업반들에서 강재를 비롯한 자재를 극력 아껴쓰며 절삭
밥 하나라도 그냥 버리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재절약투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장장들이 로동자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잘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로동자들이 한토막의 강재를 놓고도 이것을 생산하기 위하
여 야금공장로동자들이 쇠물을 녹이느라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는가, 광산로
동자들이 쇠돌을 캐느라고 얼마나 많은 힘을 들였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하도록 하
여야 합니다. 로동자들이 이런것을 생각한다면 강재를 망탕 랑비하지 않을것이며
절삭밥 같은것도 망탕 버리지 않을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장장들은 공장과 직장을 문화적으로 꾸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번 말하였지만 공장안은 궁전과 같이 꾸리고 공장주변은 공원
과 같이 꾸려야 합니다. 생산환경을 문화적으로 꾸려야 로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으며 좋은 제품을 만들수 있습니다.

　직장장들은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옳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되기전까지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
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
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을 잘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일을 잘했다고 평가하여주고
일을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일을 잘못하였다고 공정하게 평가해주어야 합니
다. 일을 잘한 사람에 대하여 일을 잘못하였다고 평가하거나 일을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일을 잘했다고 평가하면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릴수 있습니다.
　직장장들은 작업반장들의 사업정형과 작업반들의 생산활동에 대한 평가를 바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직장장들이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작업반에 내려가

보아야 합니다. 직장장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생산통계나 보아가지고는 작업반들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로 할수 없습니다. 직장장들은 늘 생산현장에 내려가 로동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작업반장들의 사업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직장장들이 자기 직장안의 모든 사업을 바로 평가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장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합니다. 직장장들은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속에서 기술전습과 기술토론회를 정상적으로 조직운영하여 직장의 모든 성원들이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장장들은 로동자들의 문화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로동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일정한 시간 휴식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육체로동을 하는 로동자들은 정력을 많이 소모하기때문에 그것을 보충할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여야 합니다. 직장장들은 로동자들의 문화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충분히 휴식할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로동자들이 휴식할 때에는 텔레비죤도 보고 소설도 읽으며 영화관람, 음악감상, 오락회 같은것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날 일부 일군들은 로동자들이 예술소조활동을 하면 생산은 하지 않고 춤만 춘다고 하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로동자들이 예술소조활동을 하는것이 생산에 지장이 된다고 하는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예술소조활동을 로동시간에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로동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로동자들이 문화생활도 하고 학습도 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로동자들이 8시간 일하고나서 학습과 문화생활을 충분히 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여있습니다. 원래 8시간 일하고 8시간 휴식하고 8시간 학습할데 대한 문제는 로동계급이 로동운동초기부터 들고나온 요구입니다. 로동자들에게 문화생활을 시키지 않고 강다짐으로 일만 시킨다면 그들이 발전할수도 없고 생활을 흥겹게 할수도 없습니다. 특히 젊은 로동자들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취야 흥이 나서 일을 더 잘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장들은 로동자들의 문화생활조직을 잘하여야 합니다.

직장장들은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직장장들은 로동자들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쓰고사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적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직장장들은 로동자들의 침실에 온도가 제대로 보장되는가, 이부자리가 다 있는가, 로동자들이 잠을 제대로 자는가 하는데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야 합니다.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 무관심한 직장장은 혁명적동지애가 없는 사람입니다. 혁명적동지애가 없는 사람은 혁명사업을 잘할수 없습니다. 직장장들은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직장장들은 직장의 모든 성원들이 정치생활을 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치생활에서 중요한것은 조직생활과 학습입니다. 근로자들속에서 조직생활과 학습을 강화하여야만 그들을 혁명화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원들은 당조직생활에, 근로단체맹원들은 근로단체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조직생활을 절대화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조직생활을 하는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장들은 자신이 조직생활에 모범적으로 참가할뿐아니라 자기 직장 사람들이 다 조직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조건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직장의 모든 성원들이 조직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하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기풍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수행에서 청년인테리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에 실습나가있는 청년인테리들은 지난 기간 적지 않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보적인 성과에 지나지 않으며 당에서 준 과업을 수행하려면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청년인테리들은 절대로 낡은 사상에 오염되지 말고 계속 높은 혁명성을 견지하여야 하며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특히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온 사회를 혁명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인테리들은 당의 명령과 지시를 홍정하거나 되는대로 집행하는 현상, 로력을 랑비하는 현상, 보수주의와 소극성, 무책임성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는 매우 높습니다. 전국의 로동계급이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투쟁에 일떠섰습니다. 문제는 로동계급의 이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부서들과 정무원을 비롯한 국가, 경제기관들에서는 로동계급이 자기의 높은 혁명적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 대회에 참가한 모든 동무들과 우리 나라의 전체 로동계급이 이번 대회의 정신에 따라 사업을 더 잘하며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당중앙위원회의 붉은편지에서 지적한대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1년 앞당겨점령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할것을 바랍니다.

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예 노보스띠》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 일 성

☆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2월 22일 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예 노보스띠》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대답 전문은 다음과 같다.

☆ ☆

물음: 유고슬라비아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노력에 대하여 잘 알고있으며 그것을 지지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관련한 현정치정세와 조선의 통일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당신도 아는바와 같이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1972년 7월에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제안들을 많이 내놓고 대화의 성과적진척을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중단상태에 빠져들어갔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커다란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였습니다.

미국의 부추김밑에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에도 그 성명에 밝혀진 원칙과는 정반대로 더욱더 외세의존정책에 매여달리면서 전쟁준비와 파쑈적폭압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에는 이른바 《특별성명》을 발표하여 민족분렬을 영구화할데 대한 《정책》을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미일반동들과 남조선당국자들은 《두개 조선》유엔동시가입안을 내놓고 그것을 통과시켜보려고 갖은 술책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동은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지지하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정당한 투쟁에 의하여 여지없이 파탄되였습니

다. 유엔총회는 남북공동성명에 지적된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미국의 침략과 내정간섭 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커다란 승리이며 조선의 영구분렬을 꾀하는자들에게는 심대한 패배로 됩니다.

제국주의세력의 부추김밑에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책동은 조국통일을 념원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분노를 자아내고있으며 인민들로 하여금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서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습니다.

오늘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은 파쑈적폭압이 그처럼 혹심한 조건에서도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획기적인 구국방안으로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5대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장애로 되는것은 오직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려면 무엇보다먼저 미일반동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과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이 종식되여야 하며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세의존정책에서 벗어나 남북공동성명의 원칙들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민주주의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그만두고 남조선의 각 당, 각 파,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표가 통일문제해결에 직접 참가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순조롭게 진척될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빠른 전진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세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우여곡절을 겪고있지만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힘을 합쳐 꾸준히 투쟁함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정부와 유고슬라비아인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물음: 우리는 조선인민이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자기 나라를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잘 알고있습니다.
이 성과의 추동력과 기본요인은 무엇입니까?

대답: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가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령도와 당과 인민대중의 확고부동한 통일, 우리 인민들의 높

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입니다.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는데서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있습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로선과 정책을 세웠으며 남에 대한 의존심을 배격하고 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 결과 우리는 거듭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 나라 혁명을 가장 빠른 길로 이끌어올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하는 과정에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인민대중을 믿고 대중과 의논하였으며 그들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부닥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나갔습니다.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고 그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킨 결과 우리 인민은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있는 힘과 지혜를 다내여 투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로동자,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은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튼튼히 뭉쳐있으며 혁명적 정열과 락관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고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있고 혁명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여기에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으며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적극 불러일으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물음: 유고슬라비아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의 내정에 대한 제국주의간섭의 후과를 청산하며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립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사이에 친선과 쌍무적인 협조도 모든 분야에 걸쳐 성과적으로 발전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신께서는 조선인민과 유고슬라비아인민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더욱 발전시킬 전망에 대하여 어떻게 보십니까?

대답: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날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에는 래왕과 접촉이 빈번해지고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련계와 협조가 강화되고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뉴대가 날로 두터워지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조선과 유고슬라비아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분야에서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하였는데 우리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련방공화국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나는 조선과 유고슬라비아사이의 친선관계가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완전한 평등,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 계속 좋게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나는 이와 아울러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의 령도밑에 나라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형제적유고슬라비아인민에게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물음: 쁠럭불가담운동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되고있는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국제문제들이 나라들의 집단이나 렬강들에 의하여 해결될수 없으며 그것들은 전체 국제공동체의 관심사로 되여야 한다는 사상과 실천이 국제관계에서 승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평화는 불가분의것이며 그것을 보장하는데는 크고작은 나라들이 평등하게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것이 제4차쁠럭불가담국가회의 결정들에 지적되여있습니다. 쁠럭불가담세계의 나라들은 중근동위기를 비롯한 절박한 국제사변들에 대하여서도 이러한 립장을 취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당신께서 쁠럭불가담국가들의 활동과 알제에서 진행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회의의 결과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말씀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쁠럭불가담국가들의 활동은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평화를 이룩하며 국제문제들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국가들의 력량이 강화되고 그 역할이 높아가고있는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오늘 제국주의가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국제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을 주장하고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국가들의 활동은 오늘의 이 시대적추세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위력합니다.

지난해에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해방과 자주권, 평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습니다.

회의는 제3세계인민들의 굳은 단결을 힘있게 시위하였으며 민족해방운동을 더욱 촉진하며 세계평화를 유지공고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조선의 내정에 대한 온갖 형태의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키며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며 조선의 유엔가입은 나라의 완전한 통일이 이룩된 다음이거나 련방제가 실시된 다음 단일국호에 의하여 이루어지야 한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힘있는 고무로 되였으며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습니다.

조선인민은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회의에서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우리의 자주적평

화통일위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시해준 모든 나라들에 충심으로 사의를 표시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천대받고 압박받던 지난날의 처지의 공통성과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새 생활 창조를 위한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제3세계인민들과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그들의 민족해방운동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공동위업에서 언제나 제3세계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나갈것입니다.

물음: 제국주의침략세력들은 아세아나라들의 내정에 공공연히 간섭하면서 이 지역의 평화를 상시적으로 위협하고있습니다.

아세아를 안전한 대륙으로 만들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며 그 전제조건은 무엇입니까?

최근 아세아대륙에서 벌어지고있는 정치적움직임의 가장 본질적특징은 무엇입니까?

대답: 최근의 아세아정세발전에서 특징적인것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는 반면에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이 전면적으로 파탄되고있는것입니다.

아세아의 절대다수인민들이 이미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으며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제국주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의 모든곳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항쟁에 부딪치고있으며 쫓겨나가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아세아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완전히 망했다거나 더는 침략적죄행을 저지르지 못하리라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 책동을 강화하면서 악명높은《닉슨주의》에 따라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침략목적을 달성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아세아에서 새 전쟁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가시며 아세아를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미제국주의자들을 아세아의 모든곳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하며 그들이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탄압과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한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부추김을 받아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의 팽창과 해외침략 야망을 저지파탄시켜야 합니다.

아세아인민들은 력사적체험을 통하여 오직 자신의 투쟁으로써만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안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아세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과 간섭 책동을 반대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반드시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할것입니다.

민족의 독립과 번영,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위대한 투쟁강령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3월 4일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 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에서 조국의 자주통일과 민족들의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위한 투쟁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연설에서 자주성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시대의 추세와 본질적내용, 제국주의의 력사적지위를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반제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3대륙인민들의 투쟁방침을 명시하시였다.

수령님의 연설은 민족자주의 길만이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튼튼히 담보하는 길이라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으로 일관되여있다.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원칙적인 립장과 투쟁방침은 그이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하고있으며 오늘의 시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은 우리 인민과 모든 혁명적인민들을 반제혁명투쟁에로 힘차게 부르는 전투적기치이며 나라의 통일독립과 세계혁명운동발전에 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밝혀준 력사적문헌이다. 연설은 민족운동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착취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의 거창한 혁명투쟁으로 전환된 오늘의 새로운 력사적환경에서 민족해방혁명에 관한 리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킨 탁월한 고전적문헌으로 된다.

참으로 수령님의 연설은 세계혁명과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위대한 전투적강령이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력사적선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은 매개 민족의 권리이며 그 어떤 민족도 남에게 예속되거나 민족적 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행복이 있고 영예가 있으며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자주성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참다운 민족적독립과 번영의 길을 명시하고 우리 시대의 특징과 그것을 규정하는 본질적내용, 시대발전의 기본요인에 대하여 과학적해명을 주는 리론실천적무기이며 강령적지침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주성은 사람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은 매개 민족의 응당한 권리이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 권리를 자기 손에 틀어쥔것을 요구하며 민족적존엄이 짓밟히는것을 참으려 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담보이다.

특히 작은 나라들과 새로 독립한 나라들, 가난하고 뒤떨어진 나라일수록 자주성은 더욱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남에게 의존하여서는 혁명도 건설도 할수 없다. 혁명과 건설은 계급적 또는 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이다. 민족이 자주성이 없이는 자유와 해방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독립과 번영을 바랄수 없다.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인 정권을 가지야 하며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외부의 압력에 눌리여 남에게

추종하거나 정치사상적으로 남에게 매여있어서는 자기 머리로 사고할수 없고 독자적으로 행동할수 없다.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은 자기 정신으로 살아야 하며 확고한 주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인민들만이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고 고수할수 있으며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수호하고 발전시킬수 있다.

자주성은 오직 자기의 힘을 믿고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 민족이 사대주의에 빠져 남을 쳐다보거나 남의 힘을 바라게 되면 민족적자주권도 보존할수 없고 혁명도 할수 없으며 나중에는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더럽히고 망국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 오직 자체의 힘을 믿고 자력갱생하여야만 창조성과 적극성을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자주사상을 구현하는것이야말로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담보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다.

이것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이룩된 가장 고귀한 경험이며 력사에 의하여 충분히 검증된 우리 시대의 진리이다.

오늘 주체사상, 자주사상은 세계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으며 거대한 영향력을 나타내고있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으며 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성스러운 해방투쟁에 용감히 일떠서 싸우고있으며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주, 자립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시대 발전을 특징짓는 중요한 력사적사변이다.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우리 시대는 제국주의가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고 어제날 온갖 착취와 압박, 천대와 멸시를 받던 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시대로 바뀌여지고 있다.

우리 시대는 주체의 시대, 자주의 시대이다. 즉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모든것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력사적시대이다.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바로 자주성에 기초한 우리 시대의 근본적전환을 반영한것으로서 현국제무대에서 제3세계가 차지한 당당한 지위와 커다란 영향력을 시위하였다.

지금 제3세계나라 인민들속에서는 정치적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략탈을 반대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더 높아가고있다.

아프리카인민들은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쓸어버리고 아프리카의 완전해방과 새 아프리카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으며 동남아세아나라들에서는 미제의 실륙전쟁과 군사기지화책동을 반대하고 일본군국주의의 경제적침략을 막기 위한 대중적투쟁이 일어나고있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미제의 간섭과 구속을 반대하고 자원과 200마일 령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고있다.

현실은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3대륙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이 시대의 주류로, 우리 시대발전의 중요요인으로 되고있으며 인민들과 민족들의 자주적발전이 시대성격을 규정하는 본질적내용을 이루고있다는것을 실증하고있다.

이제는 제국주의자들이 제3세계인민들을 제멋대로 억압하고 략탈하며 그들의 운명을 흥정하며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세계무대에서 발언권은 착취받고 압박받던 인민들에게 있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누구도 홀시할수 없게 되였다.

현대제국주의는 멸망의 길로 줄달음치고있으며 신구식민주의는 허물어져가고있다. 지금 제국주의세계는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가는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할 출로를 찾으려고 더욱더 악랄하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의 력사적시대에 제국주의의 마지막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한 투쟁방침을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 할것없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숨돌릴 여유를 주지 않고 강한 타격과 압력을 가한다면 능히 제국주의를 멸망시킬수 있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반제투쟁방침은 작은 나라,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할것없이 모든 대륙, 모든 지역, 모든 나라 인민들이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자체의 힘을 믿고 다같이 달라붙어 견결히 싸운다면 제국주의를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 투쟁의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고있으며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추호도 늦추지 말아야한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결코 달라질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력사무대에서 스스로 물러가려 하지 않으며 자기들의 옛처지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모든 인민들은 강력한 단결된 힘을 가지고 제국주의, 식민주의와 맞서야 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힘은 단결에 있다. 모든 반제반미력량이 굳게 단결한다면 능히 침략과 전쟁세력을 압도하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조국광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자주로선을 구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전진과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주체사상, 자주성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은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과 당면한 구국방도를 명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언제나 외세에 의존하려는 시도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자기의 민족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자주적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왔습니다.》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자주적립장은 조국통일문제에서 우리 당이 시종일관 확고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적립장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적자주권을 쟁취하며 국토와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인민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이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로정은 바로 민족내부문제인 통일문제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이였다. 자주적립장을 떠나서는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해결할수 없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조선문제는 구경은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나의 조선이냐 두개의 조선이냐 하는 문제에 귀결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온 민족의 절절한 념원을 반영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조선의 영구분렬을 꾀하고있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을 부추겨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의연히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미일반동들의 부추김밑에 박정희괴뢰악당이 감행하고있는 민족분렬책동과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도발책동은 요즘 더욱더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우리 나라에 조성된 사태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이 사실상 남북관계를 남북공동성명발표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어느때보다도 류례없는 파쑈악법들을 조작하고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이면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량심적인 지식인들 지어는 종교인들까지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하여 중형에 처하고있으며 남조선전역을 중세기적암흑상태에 몰아넣고있다.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은 제놈들의 이러한 범죄적책동을 가리우고 인민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기 위하여 서해에서 간첩선침입사건과 같은 군사적도발책동을 계획적으로 감행하고있으며 이를 구실삼아 《남침위협》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제반 사실은 박정희괴뢰도당이야말로 민족분렬주의자이며 호전분자이며 매국역적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박정희도당의 분렬주의적이며 매국배족적인 속심은 놈들이 이른바 《불가침조약》이라는것을 들고나온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이 들고나온 《불가침조약》이란 이미 우리가 제기한 평화협정의 체결을 반대하고 제놈들의 전쟁도발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방패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평화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괴뢰군은 식민지고용군대로서 미제의 대포밥이다. 남조선괴뢰군의 통수권은 전적으로 《유엔군사령관》의 간판을 도용하고있는 미제침략군사령관에게 있으며 온갖 전쟁수단에 대한 통제권도 미제국주의자들이 틀어쥐고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빈손만 가진 박정희도당이 감히 《불가침조약》을 운운하는것은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일이며 론의할 가치조차 없는것이다. 이것은 통일문제를 가지고 민족을 희롱하려는 수작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실로 통일을 원한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불가침조약》같은것을 들고나올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수령님께서는 남북대화과정과 오늘의 사태를 깊이 헤아리시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서 통일문제를 전민족적토의에 붙일데 대한 방안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남북조절위원회와는 별개로 남북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대민족회의나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열것을 다시한번 제의합니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방안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것으로서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현난국을 타개하고 전체 조선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적극적이며 현명한 구국대책이다.

미국역적 박정희도당은 우리의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된 대화에서 통일을 모색하는것이 아니라 분렬을 추구하며 평화가 아니라 전쟁도발을 획책하고있다. 놈들의 지연전술과 분렬책동으로 말미암아 북과 남 사이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남북조절위원회앞에 인위적인 난관이 가로놓여있는 오늘 조국통일문제를 전민족적인 토의에 붙이는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대민족회의나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연데 대한 방안은 남북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층 인사들을 조국통일문제토의에 망라시킴으로써 민족적대단결을 실현하고 어느 렬강이나 다른 나라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통일의 결정적국면을 마련할수 있게 하는 주체적이며 애국적인 발기이다.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대민족회의나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연데 대한 우리의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제안을 외면할수 없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마땅히 이 성숙된 정당한 구국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만일 남조선통치배들이 끝끝내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거부하고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매달린다면 그들은 민족앞에 영원히 씻을수 없는 치욕을 남기고 파멸과 죽음을 면치 못할것이다.

모든 사태발전은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민족분렬책동을 분쇄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릴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엄혹한 군사파쑈독재밑에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것은 결코 그 어떤 〈내정간섭〉이 아니라 민족의 내부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것을 자기의 응당한 의무라고 인정합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애국적투쟁이며 민족의 사활적리익에 직접 관련되는 정의의 투쟁이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며 언제나 책임을 같이 지는 립장에 확고히 서있을것이다.

우리가 남조선인민들의 구국투쟁을 지원하는것은 민족의 내부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것이며 한피줄을 이은 같은 민족으로서 지극히 응당한 의무이며 도리이다.

오늘 대세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의 한 고리로서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으며 우리의 통일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의 대렬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한 민족주체적력량을 더욱 강화함과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할것이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것이다.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앞으로도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3대륙인민들과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그들과의 전투적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나갈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반드시 승국적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과 당중앙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모든 힘을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 총동원하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우리 나라 혁명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될 혁명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혁명적인 방침과 조치들은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전투적강령이며 우리 당과 인민을 새로운 기적과 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혁명적기치이다.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방침과 조치들은 혁명발전과 생활이 제기하는 성숙된 요구들을 천재적으로 통찰하시고 제때에 대담하게 혁명적인 투쟁방침과 적중한 투쟁구호를 내놓으시여 전당과 인민을 끊임없는 투쟁과 전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또하나의 뚜렷한 표시이다.

지금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제들을 기한전에 넘쳐완수하며 생산과 건설의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 《모든 힘을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 총동원할데 대하여》에서 현국제국내정세를 명철하게 분석하시고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일찌기 없었던 정치, 경제적 위기에 휩싸여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는 날로 심화되는 정치, 경제적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 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하여 전례없는 비방중상을 퍼부으면서 《반공》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것은 볼꼴없이 된 제놈들의 체면을 유지해보려는 비렬한 책동이다.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들도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로부터 빠질 구멍을 찾으려고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과 파쑈적인 폭압소동을 벌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놈들은 그 어떤 광란적인 책동으로써도 멸망에 직면한 제놈들의 운명을 구원할수 없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법이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전대미문의 파쑈적 폭압밑에서도 굴함없이 싸우고있다.

오늘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는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르심과 당중앙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진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 한층 반석같이 다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1,200만톤의 강철고지, 100만톤의 유색금속고지, 1억톤의 석탄고지,

5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 2,000만톤의 세멘트고지, 500만톤의 기계가공품고지, 500만톤의 수산물고지, 500만톤의 화학비료고지, 1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고지, 1,000만톤의 알곡고지—웅대한 10대경제건설목표를 내놓으시였다.

이 얼마나 웅대하고 휘황찬란한 목표인가.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심장을 한없이 흥분시키고 격동시키는 투쟁목표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목표가 실현되면 나라의 자립적인 원료, 연료,동력기지는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고 새로운 대기념비적건설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게 된다. 또한 대기계군단이 공장과 농촌,온 강산을 뒤덮게 되며 농업은 공업화, 현대화될것이다.

또한 나라의 면모가 달라지고 경제력이 비상히 강화되여 우리 나라는 세계1등급의 사회주의공업강국으로 될것이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좋아질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 30돐까지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고 10대경제건설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닦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천리마의 총진군을 다그칠것을 호소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웅대한 혁명과업은 비상히 높은 속도로 달려나갈것을 요구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정부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할 때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새로운 위대한 앙양이 일어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86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천리마의 기세로 힘차게 전진할 때 거기에서는 위대한 앙양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달리는 천리마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비상히 빠른 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야 한다.

전당, 전체 인민이 당면하게 힘을 넣어 지원하여야 할 전선은 기본건설전선, 공업전선, 농업전선, 수송전선, 수산전선이다. 이 5개전선은 사회주의대건설의 총진군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전선이다.

우리는 5개전선에 힘을 넣어야만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웅대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할수 있다. 한편 5개전선에 힘을 넣는것은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10대경제건설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것으로 된다. 5개전선에 힘을 넣어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만 련이어 더 높은 고지, 10대경제건설목표를 점령할수 있다.

기본건설, 공업, 농업, 수송, 수산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자기앞에 맡겨진 전투임무를 책임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총진군대오의 전진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전당, 전국, 전민이 사회주의건설의 중요전선에 대한 총지원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조선, 천리마조선의 영예를 빛내인 우리 인민이 또다시 자기의 슬기와 용맹, 완강한 투지와 혁명적기개를 만천하에 떨칠 보람찬 투쟁이다. 이 투쟁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자기의 힘으로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쓸어버리면서 억세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이 원쑤들의 온갖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사회주의의 영예와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사회주의의 원쑤들에게 치명적타격을 주기 위한 치렬한 계급투쟁으로 된다. 우리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고 혁명적진군의 발구름

소리가 지축을 울릴 때 미일침략자들은 불안과 공포에 전률할것이며 매국배족의 무리들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더욱더 깊숙이 굴러떨어지게 될것이다. 이 투쟁은 또한 전대미문의 파쑈적폭압을 박차고 자유와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 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을 힘있게 고무할것이며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가며 우리 인민들에게 희망의 시선을 돌리고있는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는것으로 된다.

참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만년대계의 대기념비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장엄한 투쟁으로서 주체조선의 영웅적 기상을 온 세상에 또다시 과시하게 될 보람찬 투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영광스러운 투쟁이다.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혁명의 시대에 태여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투쟁에 몸과 마음 다 바치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찬 일은 없다.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직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일념을 안고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충성의 속도》로 총진군하여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사회주의대건설진투는 전례없이 웅대하고 거창하다. 전진도상에는 허다한 난관들이 있을수 있으며 여러가지 걸리는 문제들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를 위한 모든 담보가 확고히 마련되여있다.

우리에게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몸소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령도가 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수령님을 유일중심으로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힘이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적파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반석같은 토대가 있다.

문제는 돌격전이 벌어지는 오늘의 책임적인 이 시각에 전체 일군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그를 관철하는 투쟁에 몸바쳐나서며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이 성스러운 위업에 바치는데 있다.

사회주의대건설에서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힘의 중요한 원천은 그 어떤 물자나 객관적조건에 있는것이 아니라 수령님에 대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충성심에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수령님을 절대화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조화하며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참으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대, 결사대로 철저히 준비할 때 우리에게는 돌파하지 못할 난관이란 없으며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없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세인을 놀래운 기적과 혁신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의 집중적발현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높이 모시려는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순결한 충성심, 수령님의 교시를 한치도 어길수 없는 신조로 삼는 확고한 의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무비의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낳는 무궁무진한 원천으로 된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 모든 근로자들은 수령님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을 안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과업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과 당의 명령과 지시라면 물과 불 속에라도 뛰여들어 기어이 관철해내고야마는 불굴의 투지와 굳은 혁명적각오를 가져야 한다. 혁명의 한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

신바와 같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사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의 방침을 받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3대혁명의 위대한 생활력은 혁명실천을 통하여 이미 확증되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는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기술혁명은 낡고 침체한것을 반대하는 심각한 사상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사대주의,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철저히 뿌리뽑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도처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생산자대중과의 창조적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주체적립장에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다그쳐 3대기술혁명과 6개년계획수행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문화혁명은 사회주의대건설사업의 성과적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과업의 하나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전반적인 문화기술수준을 더욱 높여 모두다 고등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하며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학교교육사업을 개선하며, 혁명적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글소리 랑랑한곳에 미래가 약동하고 혁명적랑만이 있는곳에 혁신이 일어난다. 우리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새세대 청년인테리들을 많이 키워내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 보내야 하며, 혁명적문학예술을 더욱 풍만하게 꽃피워 대중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켜야 한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모든 승리의 기본담보이다.

사상혁명에서 기본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전당,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게 하는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밖에는 그 어떤것도 모른다는 확고한 사상과 관점을 가지게 하며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끝까지 대를 이어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이악하게 하며 온 사회에 참신하고 생기발랄한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하며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을 창조

해나가는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우리는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사상, 사대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어떤 사상요소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전당, 온 사회에 오직 주체형의 붉은 피만 흐르게 하며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혁명가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준비시켜야 한다.

모든 인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할 때라야만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할수 있으며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투쟁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직생활을 절대화하고 당중앙이 내놓은 조직생활총화체계에 따라 혁명적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혁명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실현해나가는 장엄한 전진운동에서는 그 어떤 사소한 침체나 답보, 안일해이도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벌리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박정희괴뢰도당들의 전쟁도발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화되고있는 환경속에서 진행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사회안전원들과 로농적위대원들,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은 절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언제나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원쑤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놈들이 덤벼들 때에는 맞받아나가 단매에 소멸해버려야 한다.

이미 마련해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은 자기의 영웅적투쟁과 창조적로동으로써 위력한 생산토대를 닦아놓았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이 간고분투하여 건설하여놓은 주체적인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 그리고 사회주의농촌경리는 참으로 커다란 생산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우리가 이미 마련해놓은 경제토대를 잘 정비보강하고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며 막대한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한다면 생산을 지금보다 훨씬 늘일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질도 속도도 몇배나 더 빨리 높여나갈수 있다. 문제는 일군들과 당원들이 어떻게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에서 머리를 쓰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생산공정을 빨리 완비하고 기대마다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하며 새 기술을 끊임없이 받아들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기 위한 투쟁을 도처에서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원료와 자재를 극력 아껴쓰며 있는 밑천을 가지고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에서 원료와 자재들을 1%씩만 절약해도 실로 막대한 생산 및 건설 예비를 얻어낼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버이 수령님과 당중앙위원회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키로와트시의 전력, 한키로그람의 석탄과 강재, 한키로그람의 세멘트와 연유, 한립방메터의 목재라도 극력 아껴쓰고 원단위소비기준을 끊임없이 낮추며 유휴자재들을 남김없이 회수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진군증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대진군운동의 승리적전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또한 로동행정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 로력을 효과있게 리용하며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이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가지고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한사람이 두몫, 세몫씩 맡아하는 투쟁을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로력예비를 최대한으로 얻어내야 한다.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위원회들은 해당단위에서 최고지도기관이며 모든 부문 사업의 참모부입니다. 어느 부문에서나 당정책을 옳게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위원회들의 령도적역할에 결정적으로 달려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70페지)

당은 사회의 심장이며 원동력이다. 심장이 높이 뛰여야 유기체가 혈기왕성하여 움직일수 있듯이 사회의 심장이며 혁명의 참모부인 당이 박력있고 생기발랄하게 움직여야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비약이 이룩될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어데서나 당사업이 참신하고 질속있는 창조적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패기있고 박력있게 진공적으로 벌려 근로자들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불타게 하여야 한다. 또한 정치선전을 실속있게 벌리는 한편 경제선동에 화력을 집중하여 모두가 사회주의대건설의 총진군에 힘차게 떨쳐나서 로력적위훈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속도전》, 진격전, 섬멸전의 성과여부는 지도일군들의 전투조직과 지휘에 크게 달려있다. 당은 새로운 전투에서 지도일군들이 운전대를 튼튼히 틀어쥐고 전투지휘를 혁명적으로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도일군들은 대담하게 생각하고 혁명적으로 일하며 조선인민혁명군지휘관들이 언제나 돌격전의 최선두에서 자기희생적인 투쟁으로 혈로를 열어제끼고 전투승리를 보장한것처럼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는 전투장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승리에로 이끌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도일군들은 소극성, 보수주의, 형식주의, 관료주의, 요령주의 등 온갖 그릇된 사상요소들과 일본새를 추호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혁명적립장과 일본새로 《속도전》, 전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며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들에서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하며 새로운 천리마진군의 우렁찬 발구름소리가 천지를 진감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으며 전진하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모두다 수령님께서 부르시는 성스러운 사회주의대건설의 진군길에 힘차게 떨쳐나서 로동당시대 천리마조선의 영웅적인민의 혁명적기상을 또다시 온 세상에 남김없이 시위하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력사적대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대건설의 휘황한 진군로를 따라 공업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발기하시고 지도하신 전국공업대회가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마치였다.

이번 진행된 전국공업대회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는 투쟁에로 전체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을 힘차게 불러일으킨 총동원의 대회, 충성의 대회로서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력사에 빛나는 한장을 기록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당 제5차대회가 공업부문앞에 내세운 웅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첫 3년간의 투쟁성과에 기초하시여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까지 앞당겨끝내고 사회주의의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밝혀주시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전국공업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연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는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사회주의대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휘황한 진군로를 명확히 밝혀준 위대한 전투적강령이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기기 위한 투쟁의 기치이다.

수령님의 연설은 또한 우리 당과 인민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일대 혁명적앙양에로 불러일으키게 함으로써 원쑤들의 전대미문의 파쑈적폭압을 박차고 자유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위해 피흘리며 용감히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을 더욱 힘차게 고무하며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밑에 새생활, 새사회건설을 위하여 싸우는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는 불멸의 홰불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에 접하여 지금 우리 인민은 물론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사회주의의 더 높은 고지를 향하여 비약적으로 달려나가고있는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에 커다란 기대와 희망에 찬 시선을 돌리고 있다.

실로 이번 전국공업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강령적인 연설은 우리 당과 인민이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단숨에 뛰여넘고 새로운 웅대한 10대경제건설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의 주체공업을 세계1등급의 발전수준에 올라서게 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게 하며 사회주의의 영예와 존엄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위력한 사상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오늘 심각한 정치적위기와 경제적파동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은 주체의 조선, 영웅적천리마조선에서 높이 울리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의 장엄한 북소리에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질겁하여 공포와 절망에 떨고있다.

수령님께서 이번 대회에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10대경제건설목표는 지난날 항일무장투쟁시기 조국광복회10대강령이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국이 광복된후 우리 조국 땅우에 실현될 휘황한 전망을 명확히 안겨주는 불멸의 기치로 되였던것처럼 오늘 전체

인민들에게 래일에 대한 전망과 확고한 투쟁목표를 제시하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는 위대한 전투적강령이다.

참으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의 10대경제건설목표들이 성과적으로 점령되면 우리 나라는 중요공업제품의 인구 한사람당 생산량에서 단연 세계에서 가장 앞선 대렬에 들어서게 될것이며 우리 조국은 더욱 부강하고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될것이다.

지금 전체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이번 대회에서 하신 그이의 강령적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6개년계획을 다음해 당창건 30돐까지 기어이 앞당겨완수하고 새로운 10대경제건설목표를 점령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쌓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다시금 명확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기본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기본건설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1～2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우리의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이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기본열쇠는 기본건설을 잘하는데 있다.

우리가 강철고지, 전력고지, 석탄고지, 비료고지, 세멘트고지, 천고지, 알곡고지를 비롯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기한을 앞당겨점령하는것도,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도 기본건설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무엇보다먼저 6개년계획의 강철고지를 점령하고 가까운 앞날에 1,200만톤의 높은 강철령마루에 승리의 기를 꽂기 위하여 김책제철소 확장공사, 강선제강소 확장공사, 4월13일제철소 확장공사에 큰 힘을 넣어 그 조업기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겨야 한다.

특히 김책제철소 확장공사에 화력을 집중하여 공사를 빨리 끝내야 한다.

이와 함께 무산광산의 개건확장공사를 힘있게 내밀며 덕성광산을 비롯하여 동서해지구의 유망한 철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또한 북창화력발전소와 서두수발전소의 제2계단 공사와 청천강화력발전소, 대동강발전소, 대보화력발전소 건설을 빨리 다그쳐 전력생산을 더욱 높이며 청년화학공장과 남포지구의 대화학공장들을 빨리 건설하여 그 조업기일을 앞당길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철도건설을 계속 힘있게 내밀며 특히 강계—혜산—무산사이의 철도공사를 빨리 완공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으며 순천세멘트공장건설을 빨리 다그쳐 다음해안으로 300만톤의 세멘트생산능력을 마련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기본건설전선에서는 또한 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며 특히 지금 진행중에 있는 현대적인 방직공장건설을 하루빨리 끝내고 생산을 시작하여야 한다.

오늘 기본건설전선앞에 나선 이 모든 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중요건설대상들에 력량을 집중하며 섬멸전의 방법으로 건설을 다그쳐 조업기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겨야 한다.

기본건설전선에서의 돌격전은 비단

건설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만이 담당한 전투가 아니다. 우리는 《전당, 전국, 전민이 기본건설전선을 지원하자!》라는 당의 구호밑에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건설에 대한 전군중적 지원운동을 벌려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채취공업을 앞세우는것은 경제발전에서 하나의 법칙이라는것을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전당이 채취공업에 힘을 넣어 이 부문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생산의 첫공정인 채취공업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보수주의를 없애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탄광, 광산들에서 설비들을 대형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며 갱을 현대화하고 갱건설과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며 로천채굴을 대대적으로 하고 대량락광, 대량처리하여 석탄과 여러가지 광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하여서는 공업의 심장을 이루는 기계공업부문에서 일대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기술혁명은 곧 기계혁명이다. 오늘 채취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적극 추진시키자고 하여도 기계공업부문에서 대형불도젤, 대형자동차, 고속도착정기, 고속도착암기, 대형마광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대형설비들을 많이 만들어 보내주어야 한다.

기계공업부문 로동계급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대형기계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대형기계설비제작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1959년에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리던 그때의 그 혁명정신으로 대형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려 특대형공작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인민들의 부식물문제를 더 잘 푸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것을 다시금 가르치시면서 물고기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에서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물고기잡이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고기배들을 대형화하여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3,750톤짜리 대형선미트랄선과 5,000톤, 1만톤, 2만톤짜리 대형운반선들을 대대적으로 만들어보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항건설을 다그쳐 큰 배를 붙일수 있는 항구를 더잘 꾸리며 이미 건설하여놓은 랭동공장들도 바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학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6개년계획의 화학비료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경공업발전에 필요한 여러가지 원료들을 원만히 푸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령님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 나라에 풍부한 카바이드자원을 가지고 화학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주체적인 화학공업발전방침을 다시금 명확히 밝히시였다.

우리는 화학공업발전에서 카바이드화방향을 견지할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수력발전소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카바이드생산에 요구되는 전력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카바이드로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고열로동과 힘든 로동에서 이 부문 로동자들을 해방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가 사회주의대건설에서 놀아야 할 중요한 역할을 다시금 강조하시였으며 인민경제의 긴장된 수송수요를 원만히 풀기 위한 명확한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철도부문에서는 철도전기화를 계속 힘있게 내밀며 역구내선을 늘이고 중량레루와 중량화차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현존륜전기재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

이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한다. 또한 철도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 철도를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는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다음번 전망계획기간의 10대경제건설목표도 모두 빠른 시일안에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과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수령님께서 이번 대회에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강철고지, 전력고지, 화학비료고지 등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는 설비와 자재를 비롯한 온갖 조건들이 마련되여있으며 많은 예비들이 탐구되고있다.

문제는 우리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이 어떻게 이악하게 달라붙어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혁명적으로 벌려나가는가에 달려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한분한초가 새로우며 건설을 한시간 빨리 다그치면 그만큼 6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시간을 단축하여 사회주의의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할수 있다.

우리는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고 있는 예비들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당창건 30돐까지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며 계속하여 더 빠른 속도로 달려나감으로써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10대경제건설목표를 승리적으로 점령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공장, 기업소의 직장장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들의 임무를 밝혀주시면서 직장장들은 무엇보다도 생산조직을 잘하여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사람과의 사업,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우리 당은 직장장들에게 설비를 맡기고 로력도 맡기고 생산을 직접 지휘할 임무도 맡기고있다. 직장장은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이나 소대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직장장들은 사람과의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작업반장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작업반장들이 사람과의 사업, 설비, 자재와의 사업, 책과의 사업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직장장들은 자기 직장내 전체 성원들속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꾸준히 해석선전하며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는 철저한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직장장들은 또한 로동자들이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잘 교양하여 모든 로동자들이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며 1분1초를 아껴가면서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규률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직장장, 작업반장들이 로동조직을 잘하여야 한다.

모든 직장장들은 사무실에 앉아있을것이 아니라 늘 로동자들이 일하는 생산현장에 나가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대중을 교양하며 가르쳐주어야 한다.

직장장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나라살림살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똑똑히 알고 기관본위주의, 직장본위주의를 철저히 마스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며 련관된 직장들과 공장들의 사업을 자기일처럼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정치생활,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당중앙이 새롭게 내놓은 조직생활총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누구나 다 조직생활을 절대화하며 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 사업과 생활을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직장장들은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잘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로동계급이 다루고있는 모든 기계설비들과 원료자재들은 다 국

가재산이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직장장들은 설비관리에 힘을 넣어 설비들을 제때에 점검보수하도록 하는 한편 로동자들속에서 자기가 다루는 설비와 원료자재들을 적극 애호하고 아껴쓰도록 그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직장장들은 또한 공장안을 궁전과 같이, 구내와 주변을 공원과 같이 꾸려나가야 한다.

모든 직장장들은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옳게 적용하며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힘쓰며 그들의 문화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후방공급사업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이 벌리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투쟁은 우리의 전진속도를 비상히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총돌격전이며 모든 부문에서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쓸어버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심각한 혁명투쟁이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당중앙이 내놓은 위대한 《속도전》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를 끊임없이 창조하여나가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정치선동, 경제선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전격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모든 일터와 건설장마다에 창조적열정과 혁명적기백이 차고넘치게 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며 우리의 전진속도를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함께 청년인테리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공장, 기업소에 실습나가있는 청년인테리들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수령님의 친위대, 결사대의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신비주의, 사대주의, 기관본위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는 매우 높습니다. 전국의 로동계급이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투쟁에 일떠섰습니다. 문제는 로동계급의 이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7~38페지)

모든 지도일군들은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맡겨진 임무를 높은 당적책임성을 가지고 수행하며 특히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듦으로써 영웅적우리 로동계급이 사회주의대건설투쟁에서 자기의 높은 혁명적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결정을 가지고 흥정하거나 책임을 안지려고 하는 그릇된 현상들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며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고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앞장에 서서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수령님께서 이번 전국공업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을 높이 받들고 천리마의 대진군을 더욱 세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장엄하고 보람찬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관철과 일군들의 혁명가적기풍

최 진 성

오늘 당은 모든 지도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답게 수령님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가적기풍을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혁명가적기풍을 철저히 발휘하는것은 모든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고유한 품성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국내외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 앞에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74년은 우리 인민이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투쟁해야 할 해입니다.》(《신년사》, 1974년 1월 1일, 9페지)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완수하는데 있어서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올해 전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수령님께서는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6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올해를 건설의 해로 정하시고 기본건설에 화력을 집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올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금년도 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특히 기본건설을 잘하는것은 6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에로 더 빨리, 더 높이 뛰여오르게 하기 위한 관건적고리이다.

우리는 올해에 야금기지와 전력기지, 화학공업기지와 건재공업기지를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에 힘을 집중하면서 《속도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조업기일을 적극 앞당기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수령님의 교시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인민경제계획을 월별, 지표별로 넘쳐수행하며 건설장마다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로 진격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에서 보다 높은 일대 앙양을 이룩해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관철하는 높은 혁명가적기풍을 발휘할때만이 빛나게 수행될수 있다.

지도일군들은 언제나 혁명적으로 생각하고 전투적으로 일하며 온갖 정열과 지혜를 다바쳐 사회주의대건설사업의 조직지휘자적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우리의 혁명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방향과 방도들은 이미 명확히 제시되여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충실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는데 달려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당은 우리 일군들속에서 혁명가적기풍을 철저히 확립할것을 그처럼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것이다.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일군들이 혁명가적기풍을 확립하는것, 이것은 오늘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며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의 근본척도

로 된다.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혁명가의 고유한 품성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가적기풍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곧 혁명투쟁입니다. 그러므로 혁명가는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야 하며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혁명가적기풍의 첫째가는 특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60~261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발휘되는 혁명가적기풍이란 모든 일군들이 수령님의 교시를 신념화, 신조화하고 그것을 절대화하며 물과 불 속에라도 뛰여들어가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는 품성을 말한다.

원래 혁명가란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의식적이며 자각적인 투사이다.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혁명가적기풍은 말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인 혁명적실천활동 즉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바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의하여 실현되기때문이며 우리 당정책만이 일군들의 유일한 행동의 지침으로 되기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일군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것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규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된다.

일군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자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행동의 지침이다.

간부들과 일군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비로소 혁명임무에 대한 헌신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당정책을 주인다운 태도로 이악하게 관철할수 있다.

또한 어떤 조건, 어떤 정황에서도 한치의 드팀없이 수령님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혁명투쟁을 옳게 전개해나갈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일군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혁명가적품성을 배양하는데서 기본출발점으로 된다.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은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정신을 발휘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직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만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2페지)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본질적인 징표이다.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높은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는것은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의 제일생명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수령님께 진정으로 충실하려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절대화하고 무조건 집행하며 수령님께서 가르치시는대로 사고하고 움직여야 한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혁명적인 집행대책을 세우고 그 관철에로 군중을 조직동원함이 없이 말로만 하여서는 결국 수령님께 충실치 못하고 당성이 없는것이다.

바로 수령님께 충성다한다는것은 쓰러질지언정 말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자기의 몸과 마음, 목숨까지 다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한몫 단단히 말아해내는 사람만이 진짜혁명가이고 당에 충실한 일군이다. 말로는 아무리 충실하겠다고 하지만 실지 행동에서는 사업에 투신하지 않고 자기 말은 초소에서 한몫을 담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수령님께 충실한 일군이라고 할수 없다.

혁명의 길에서는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수 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고는 기대할수 없는것이다.

지도일군들은 사업에서 항상 난관이 제기될수 있다는것을 예견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사상적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하며 어떠한 난관에 부닥치더라도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수령님과 당 앞에 완전히 책임진다는 높은 당적책임성을 가지고 그것을 용감하게 뚫고나아가는 친위대, 결사대가 되여야 한다.

혁명가는 난관앞에 주저앉을 권리가 없다.

지도일군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더 용기를 내고 충천하는 기세로 대중을 이끌고나아가는 혁명가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의 길에서 조금도 굽히지 않고 계속 용감하게 싸워나가는 사람만이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는것이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실천투쟁속에서 나타나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보람찬 실천투쟁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과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방대한 6개년계획과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완수하자면 모든 지도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는것이 중요하다.

6개년계획은 어렵고 방대하지만 지도일군들이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투쟁할 때 능히 수행할수 있다.

올해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원료와 연료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것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진군속도를 더욱 높이게 하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광산과 탄광들에서는 설비의 현대화, 대형화, 고속도화를 다그치며 탐사와 굴진을 앞세우는데 힘을 넣어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이 보람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3대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억세게 투쟁하며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수령님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을 안고 수령님의 명령지시라면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하며 수령님의 교시는 순간도 지체함이 없이 제때에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특히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서 무책임한 태도와 주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결정적으로 없애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이 책임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6개년계획의 올해과업을 무조건 수행하고야마는 혁명가적기풍을 가져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영예로운 혁명투쟁에서 꽃을 계속 피워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묻어가

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속에 들어가며 현실에 침투하는것은 우리의 모든 사업에서 철칙으로 되여야 합니다. 이것은 혁명적방법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풍의 하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67페지)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힘과 지혜를 믿고 그들에 의거하며 그들을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것, 이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며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사람은 생산활동에 직접 참가하고있는 근로대중이다. 대중은 걸린 고리를 잘 알고있을뿐만아니라 실천투쟁속에서 체험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다.

군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현실과 떨어져 사무실에만 앉아있어가지고는 군중의 힘을 알수 없고 현실에서 무엇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알수 없다. 군중의 힘과 현실을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타산할수 없고 예비를 찾아내지 못할뿐만아니라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지도 못한다. 결국 군중과 현실을 떠나서 하는 사업은 주관주의를 면할수 없다.

일군들은 현실에서 생산자대중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여야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옳은 집행방도를 찾을수 있다. 또한 주관주의, 관료주의를 없애고 그들의 요구와 아래의 구체적실정을 알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도와줄수 있다.

현실에 침투하여 군중에게 의거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며 군중을 가르치는 지도라야 위력을 나타낼수 있으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주관주의적으로, 관료주의적으로 사업하는 일군들은 군중의 의사와 현실을 모르기때문에 과오를 범하게 되며 사업에서 실패를 면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당은 모든 지도일군들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현실속으로, 대중속으로 들어갈것을 그처럼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는것이다.

현지에 나가 군중과 담화하지 않으며 현실을 연구하지 않고 유람식으로 돌아만 다니는것은 군중속에 들어가는 태도가 아니며 현실에 파고드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사람도, 기계도 료해할수 없으며 군중을 동원할수 없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풀어줄수도 없으며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한 방도도 찾아낼수 없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진실로 군중속에 들어간다는것은 모든 일을 군중과 의논하며 군중을 가르쳐주고 군중에게서 배우며 뒤떨어진 사람을 선진적인 사람의 수준에 끌어올리며 군중의 모든 힘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것을 말한다. 진실로 현실에 접근한다는것은 설비, 자재 등 모든 생산수단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동원적이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대중과 토의하여 그 수행을 위한 대책을 세우며 현장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는것을 의미한다. 실지 생산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사무실에만 앉아있거나 로동자들과는 만나지도 않고 그저 떠돌아다니기만 하는 사람은 혁명하려는 열의가 없는 사람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이라고 할수 없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늘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할뿐만아니라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은 지도일군들이 모든 일에서 늘 대중의 앞장에 서며 대중에게 모범을 보여주는데서 나타납니다.》(우와 같은 책, 269페지)

혁명부대의 지휘관들이 지녀야 할 가

장 귀중한 사업기풍은 이신작칙이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그 직접적담당자인 근로대중의 열의를 어떻게 높이며 그들의 적극성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간부들과 지도일군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중을 조직동원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실지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는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도일군들이 실지 행동을 통하여 모범을 보일 때 대중은 거기에서 구체적이고 명백한 집행방법을 보게 되며 그와 같이 행동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신심을 가지게 된다.

지도일군들이 실천활동에서 이신작칙하여야만 대중으로 하여금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하며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게 한다.

실천적경험은 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 혁명가적기풍을 가질 때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어떤 애로와 난관도 이겨내고 상하합심하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것은 백마디, 천마디의 말보다 더 위력한 감화력을 가지고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사업작풍으로 된다.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것은 실천활동의 모범을 통하여 자신의 혁명적수양을 높이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게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에 적극 참가함으로써만 자신을 혁명적으로 부단히 단련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있다.

일군들은 이신작칙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수 있으며 실천투쟁과정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도 더욱 높일수 있다.

또한 일군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과 지혜를 생동한 현실을 통하여 깊이 체득하고 혁명적군중관점을 더욱 튼튼히 세울수 있게 된다. 그리고 혁명과업수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게 됨으로써 당정책관철의 옳은 방도를 찾아내고 대중에 대한 지도능력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이처럼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것은 대중을 지도하는데서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의 앞장에 서서 혁명군대의 지휘관답게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혁명가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특히 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뛰여들어 그것을 뚫고나가는 혁명가적기백이 있어야 하며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이악한 맛이 있어야 한다.

원쑤를 치는 군사작전에서나 자연을 정복하는 생산전투에서나 지휘관이 싸움을 두려워하고 희생을 겁나하면 결코 싸움에서 이길수 없다.

우리앞에 방대한 혁명과업이 련이어 제기되는 조건에서 때로 뜻하지 않은 난관과 애로에 부닥칠수 있다.

어렵고 간고한 때일수록 대중은 지휘관의 얼굴을 쳐다보게 된다.

이럴 때 일군들이 솔선 앞장서 난관을 헤쳐나간다면 대중은 기세충천하여 내달리게 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이 언제나 돌격전의 최선두에서 자기희생적인 투쟁으로 혈로를 열었던것처럼 사회주의대건설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전투장마다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승리에로 이끌어야 한다.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을 가리지 않고 조건을 탓하지 않으며 부닥치는 난관을 용감하게 헤쳐나가면서 대중을 투쟁에로 이끄는 바로 이것이 우리 일군들의 이신작칙하는 혁명가적기풍이며 일본새

이다.

모든 일군들은 자신이 지닌 임무와 책임성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신작칙의 혁명가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 대중을 끊임없는 혁신과 대고조에로 불러일으켜야 한다.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혁명가적기풍을 발휘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이 자기 사업을 늘 검토하고 제때에 총화하며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나타난 부족점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업에 대하여 매일 돌이켜보고 총화를 짓는것은 부단히 전진하고 혁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총화짓는 일군이라야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사람으로 될수 있으며 늘 새로운 혁명정신을 가지고 일할수 있다.

혁명사업자체가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기때문에 혁명투쟁과정에는 성과가 있는 반면에 결함도 있을수 있고 부족점도 나타날수 있다. 문제는 결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하게 비판검토하고 옳은 대책을 세우며 그것을 고쳐나가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고있는 온갖 낡은 사상과 작풍을 불살라버리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로쇠한 현상 즉 전개력이 없고 긴장성이 없으며 안일해이하고 앉아뭉개는 현상 등 온갖 낡고 침체한 사상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 이것은 심각한 사상투쟁이며 계급투쟁이다.

사상투쟁을 벌려야 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쁜 독소를 풍기던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혁명사업을 부단히 전진시킬수 있다.

특히 오늘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요령주의와 형식주의, 일을 무계획적으로 망탕하는것, 안일하고 소극적이며 사업에 투신하지 않는것 등 불건전한 사상요소들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지 않고는 혁명과 건설을 더빨리 전진시켜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늘 돌이켜보고 정상적으로 총화지으며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통하여 대담하게 고치며 우점은 발전시켜나아가는 혁명가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수령님과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가져야 그 어떠한 조건, 그 어떠한 정황속에서도 대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수령님의 교시관철에로 능숙하게 이끌고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지도일군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높은 혁명가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할것이다.

* *

일군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절대성의 정신과 무조건성의 정신을 발휘하는것은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이다.

모든 일군들은 실천투쟁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혁명가적기풍을 적극 발휘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물과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것은 올해 우리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는 결정적 담보이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전격전, 섬멸전을 벌리며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충성의 속도》를 창조하여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올해 전투적 과업을 기어이 완수해나가야 할것이다.

기본건설전선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은 사회주의대건설의 승리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전투

조 근 필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혁명적방침과 전국공업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전전선에서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치렬한 돌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전당, 전국, 전민이 일떠서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으며 경제는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기본건설전선에 화력을 총집중하여 이 부문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우리는 기본건설에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넣어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기본열쇠는 올해에 기본건설을 잘하는데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올해를 건설의 해로 정하고 기본건설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신년사》, 1974년 1월 1일, 9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전선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열쇠는 올해 기본건설을 잘하는데 있다.

기본건설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한 기본방도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인 요구이다.

기본건설을 잘하여야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높일수 있으며 나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특히 기본건설에 화력을 집중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장래전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기본건설전선에서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제껴야 무엇보다먼저 우리 나라 공업생산의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인민경제를 가장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우리가 기본건설전선에 화력을 집중하여 이미 마련하여놓은 중공업기지들과 경공업기지들에 살을 붙이고 그것을 더 잘 정비보강하여야 지금 있는 원료기지, 동력기지, 화학공업기지, 건재기지들이 짧은 기간안에 더큰 은을 내며 우리 경제에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할수 있다. 특히 1차, 2차 원료가공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동력기지를 강화하여 원료, 자재, 동력에 대한 빨리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게 된다.

기본건설전선에 화력을 집중하는것은 또한 중공업부문간의 균형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올해 우리는 중공업부문의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을 많이 일떠세우게 된다. 이것들은 중공업의 부문내부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그 다면성을 더잘 보장하여 중공업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균형을 유지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놀게 된다. 올해 기본건설을 다그쳐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함으

로써 우리는 적극적인 균형에 기초하여 중공업을 더욱 빨리 발전시킬뿐아니라 경공업과 농업생산도 급속히 장성시킬수 있게 된다.

기본건설을 잘하는것은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또한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올해 기본건설에 화력을 집중하여 이미있는 원료, 동력 기지를 비롯한 중공업기지를 강화하는 한편 이 부문의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을 빨리 일떠세워 조업을 앞당김으로써 원료, 자재, 동력에 대한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요를 국내에서 더욱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자체의 튼튼한 원료, 동력 기지에 의거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경공업 제품들을 국내에서 생산보장하며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급속히 장비할수 있다.

기본건설전선에 화력을 집중하는것은 이처럼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며 인민경제를 그 어떤 파동이나 곡절이 없이 안정된 기초우에서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실로 기본건설전선에 화력을 집중하여 이 부문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는것은 현대적인 대규모의 야금기지, 원료, 동력 기지, 화학기지, 건재기지들을 튼튼히 꾸려 강철, 전력, 세멘트, 화학비료를 비롯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며 경공업, 수산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급속히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며 나아가서 나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기본건설에 화력을 집중하여 이 부문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 때 우리는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단숨에 점령하고 사회주의의 더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기 위한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웅대한 10대경제건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를 튼튼히 쌓을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기본건설에 화력을 집중할데 대한 방침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공업화가 실현되고 경제가 현대적인 기술적토대우에서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오늘의 구체적인 현실에 맞게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현명한 방침이다.

올해 우리가 힘을 넣는 기본건설대상들은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것과 직접 관련된 중공업부문으로서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확고히 보장하면서도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는 중공업부문들이다.

이러한 중공업부문의 건설에서 일대비약을 일으킬데 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방침은 맑스-레닌주의확대재생산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킨 독창적인 방침이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튼튼히 건설할데 대한 그이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이 방침은 사회주의제도의 불패의 생활력과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여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킬뿐아니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놀게 된다. 이 방침이 철저히 관철될 때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공고하고 위력한것으로 전변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생존의 권리,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일떠선 남녘의 우리 겨레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게 된다.

올해를 건설의 해로 정하고 기본건설에 화력을 집중할데 대한 방침은 수령님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심에 있어서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중심고리의 원칙을 사회주의건설에 구체화한 현명한 방침이다.

혁명과 건설의 어렵고 복잡한 투쟁에서 력량관계를 옳게 타산하고 중심고

리에 힘을 집중하여 한고리를 풂으로써 그와 련쇄된 전반적고리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수령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수령님께서는 몸소 창시하신 이러한 독창적인 사업방법을 6개년계획수행의 결정적시기에 들어선 오늘의 구체적인 현실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중심고리를 현명하게 밝혀주심으로써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 주시였다.

실로 올해를 건설의 해로 정하고 기본건설에 화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방침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천재적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깊이 헤아리시고 가장 정확한 투쟁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시며 그 성과적실현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곧바로 이끄시는 수령님의 혁명적령도방법의 또하나의 빛나는 모범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충성의 속도》로 건설에서 비약을 일으켜 올해 기본건설부문앞에 나서는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올해 기본건설부문앞에 나서는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건설의 집중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우리는 김책제철소 확장공사와 4월13일제철소 확장공사, 서두수발전소 제2계단공사와 북창화력발전소 제2계단공사, 청천강화력발전소, 대동강발전소, 청년화학공장, 남포화학공장, 순천세멘트공장을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에 힘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건설을 다그침으로써 그 조업기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겨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10페지)

기본건설에서 선후차를 가려 건설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방침이다. 이 방침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옳게 타산한 과학적인 방침으로서 기본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자금과 자재,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건설기간을 줄이고 조업개시를 앞당기며 기본건설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여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수 있다.

당의 건설집중화방침을 관철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이 대상들에 대한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세우며 여기에서부터 집중화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그래야 건설에서 선후차와 투자의 규모를 바로 정할수 있으며 매 시기 집중하여야 할 건설 목표와 대상을 옳게 선정하고 화력을 집중하여 한공정, 한개 대상씩 《속도전》, 섬멸전, 전격전의 방법으로 빨리 완공할수 있다.

건설계획을 옳게 세우는것과 함께 설계작성을 비롯한 기술준비를 시공에 철저히 앞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대상별 건설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시공준비를 빈틈없이 하며 건설을 정상화하고 자금과 로력, 자재의 랑비를 미리 막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건설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집중적으로 대주는것은 건설의 집중화방침의 본질적요구이다. 시공에 앞세워 건설자재와 기계설비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건설을 정상화하고 그 속도를 높일수 있다.

건설기관과 자재공급기관들은 자재공급계획과 기본건설계획에 빈틈없이 맞물려 자재, 대상설비, 건설기계, 수송수단들을 비롯한 모든 물질기술적조건들을 제때에 집중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협동생산에 참가하는 모든 공

장, 기업소들에서는 맡겨진 과제를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며 수송사업을 개선하여 필요한 자재와 기계설비들을 빨리 날라다주어야 한다.

기본건설부문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건설부문에서 로동을 기계화하여 로력을 절약하면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반기계화도 좋고 중소기계화도 좋고 할수 있는 모든 작업을 적극 기계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56페지)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뿐아니라 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건설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낡은 수공업적방법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당의 공업화, 현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선 기본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며 건설분야에서 우리 당이 튼튼히 견지하고있는 기본방침이다.

오늘 건설부문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충성의 속도》를 창조하여 중요대상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도 결국은 기술혁명을 어떻게 밀고나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 남아있는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뿌리빼고 당의 건설 공업화, 현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건설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건설부문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연구과제를 똑똑히 주고 그들과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을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바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그들과 로동자들사이의 창조적협조를 밀접히 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야 한다. 기술자, 숙련공들을 전문별로 고착시키고 그 대렬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계속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건설장들에서 새로운 시공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부재를 대형화, 경량화하여 조립식건설을 더욱 늘이며 건설장을 완전히 부재의 조립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도처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대형기계설비와 중소건설기계를 널리 생산도입하며 건설작업의 기계화, 종합적기계화를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점검보수하고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하여 모든 건설기계들을 만부하, 만가동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긴장된 투쟁을 전개하며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있는 로력과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더 좋게, 더 값싸게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45페지)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우리앞에 나선 기본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올해 우리가 건설하게 될 중요대상들에 드는 로력과 자재, 자금은 실로 방대하며 여기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한다면 얻을수 있는 예비는 많다.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설계에서 예비를 찾아내여 설계작성단계에서 건설비를 낮추고 기본건설투자의 지출을 절약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시공에서 오작, 반복공사 등 로력과 자재, 자금의 랑비를 없애며 설비와 자재에 대한 보관관리, 공급과 리용을 개선하여 모든

기계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그것들을 만가동시키며 강재와 세멘트, 목재를 비롯한 귀중한 자재들을 절약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모든 건설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며 재정규률을 강화하여 비생산적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며 국가재산 리용과 관리에 대한 통제를 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건설장들에서 건설물의 원가를 훨씬 낮추어야 한다.

올해 우리가 일떠세우는 기본건설대상들은 주체공업의 위용을 과시하며 조국의 륭성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우리는 건설자들속에서 사상교양,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건설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건설에 대한 건설지도기관들의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 건설의 질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올해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기본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건설에 전당, 전국가적인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전당, 전국, 전민이 기본건설전선을 지원하자!》 이것이 현시기 당의 부름이며 전투적구호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수령님께서 기본건설부문에 주신 강령적인 교시들과 올해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할데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널리 해설 침투시킴으로써 모두가 다 건설사업을 적극 도와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기계공업, 금속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기본건설에 필요한 방대한 건설자재들과 대상설비들을 비롯한 협동생산품들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며 교통운수부문에서는 그것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날라다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서는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며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신년사》, 1974년 1월 1일, 13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올해 우리앞에 나선 기본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인 담보는 이 부문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며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건설부문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그들로 하여금 수령님을 절대화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조화하며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그이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대, 결사대로 되게 하여야 한다.

건설부문 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주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고 수령님의 교시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 그이의 교시에 대한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건설부문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경제선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속도전》은 우리 혁명의 요구이며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일본새이다.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경제선동을 강화하여 당에 충직한 건설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당이 내놓은 위대한 《속도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건설의 비상히 높은 속도와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건설장들에서 올해 기본건설과제를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두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 총동원, 총궐기함으로써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을 완수하며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

전 순 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다섯해가 된다.

수령님의 로작에 담긴 심오한 사상과 리론은 세월이 갈수록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더 뚜렷이 나타내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참으로 수령님의 걸출한 과학적로작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불멸의 홰불이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강유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다.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은 수령님의 탁월한 경제사상과 리론을 심오히 체득하여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것을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 빛나게 구현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먼저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에 심오한 리론적해명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생산관계의 본질적특성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깊은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어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이 가능성은 더욱더 커집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300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할수 있는 요인을 과학적으로 밝히신 고전적명제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제도는 거대한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과잉생산공황으로 말미암아 재생산과정이 주기적으로 중단되고 많은 사회적로동이 랑비됨으로써 생산이 끊임없이 발전할수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기때문에 나라의 온갖 로력자원과 자연부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고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생산장성의 이러한 가능성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강화되고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이 높아지며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라의 경제가 더 잘 째일수록 더욱 많아진다. 또한 사회주의국가는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실현하기때문에 축적에 많은 자금을 돌리고 그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부단히 큰 규모로 진행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제도는 또한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다. 낡은 기술이 새 기술로 바뀌여

지고 새 기술이 보다 더 새로운 기술로 바뀌여지며 손로동을 기계화하고 기계화가 반자동화로 발전하며 반자동화가 자동화로 끊임없이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과정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로동생산능률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생산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는것은 명백한 진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01페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실업과 굶주림의 위협에 못이겨 마지못해 일하기때문에 생산발전과 기술발전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이 나라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있고 로동의 결과가 자기자신과 자기 인민, 자기 조국을 위하여 돌려진다는것을 깊이 깨닫고있기때문에 생산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일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가 없어지고 그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회주의적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재능과 정력을 다바쳐 일하게 된다. 그리하여 경제관리사업과 생산조직, 로동조직 그리고 기술발전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기술혁명, 이 둘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놓쳐도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없으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06페지)

생산의 끊임없는 빠른 장성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 이 객관적가능성은 오직 력사발전의 요구와 로동계급의 임무 그리고 혁명수행방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현실로 빛나게 구현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총체를 지휘하는 령도자이다. 그러므로 수령을 떠나서 사회주의제도가 공고발전할수 없으며 수령의 령도가 없이는 사회발전이 이루어질수 없다. 오직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사상, 문화 혁명과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사회주의제도의 무진장한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고 생산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우리의 실천적경험은 이것이 확고한 진리라는것을 증명하여주고있다.

지난해에 우리는 많은 협동농장들에서 농업생산을 1972년에 비하여 배 또는 배이상으로 높이는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였다. 한해동안에 농업생산을 배 또는 배이상으로 높인 전례는 아직 세계농업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다. 실로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농업생산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최고의 기록을 창조하였다. 농촌경리발전에서 이러한 위대한 승리는 오직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혁명을 앞세워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높이며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린 결과에 이룩될수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였다. 그때에 《제국주의자들과 어용나팔수들은 사회주의나라는 농사를 할줄 모른다느니, 사회주의나라는 아무리 농업을 발전시킨다고 하여도 자본주의나라농업을 따라잡을수 없다느니 하면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비방중상하였다. 또한 그때에 자본주의사상에 물젖은 우리 나라의 일부 사람들가운데는 농촌테제가 내세운 과업을 수행할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미 많은 일을 해놓았으며 우리 인민이 마련하여놓은 농촌경리의 밑천은 매우 크다. 특히 위대한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실현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와 정치사상적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지고 앞으로 1~2년안에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혁명의 기발이 있으며 그것을 튼튼히 틀어쥐고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굳은 결심이 있는 이상 우리에게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수령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전체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로 건설을 다그칠데 대하여 호소하시였다.

특히 수령님께서는 얼마전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거창한 투쟁에로 부르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또다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 뛰여오르게 할 웅대한 10대경제건설목표를 펼쳐주시였다. 지금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절절한 부르심과 휘황한 설계도에 접하여 환희와 격동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기치를 높이들고 힘차게 달려나아가고있다.

이 모든것은 수령님께서 내세우신 방침대로 정치사업을 잘하여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높이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며 기술을 끊임없이 개조하여나간다면 경제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경제를 얼마든지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의 두번째부분과 세번째부분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 대한 문제》를 명칠하게 해명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로작의 둘째부분에서 상품화폐관계의 리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두가지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명하시였다. 그 하나는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형태적작용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상품생산과 상품류통 분야에서의 가치법칙의 리용문제이다.

수령님께서는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천명하시기 위하여 먼저 그를 위한 전제로 되는 문제들, 상품의 개념과 상품생산의 조건,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생산의 필연성과 그 특성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심오한 리론과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시여 생산물에 대한 소유관계의 분화와 사회적분업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생산의 객관적조건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다음 생산수단이 상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은 경우에 따라서 상품일수도 있고 상품이 아닐수도 있으며 따라서 상품인 경우에는 가치법칙이 작용하고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가치법칙이 작용하지 않을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07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이 상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일률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은 경우에 따라 상품일수도 있고 상품이 아닐수도 있다.

수령님께서는 생산수단이 어떤 경우에 상품으로 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첫째로 국가적소유에서 생산된 생산수단이 협동적소유에로 넘어가는 경우나 반대로 협동적소유에서 생산된 생산수단이 국가적소유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다같이 상품이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치법칙도 작용하며, 둘째로 협동적소유에서 협동농장들사이나 생산협동조합들사이 또는 협동농장들과 생산협동조합들사이에 교환되는 생산수단은 다같이 상품이며 여기에서도 가치법칙이 작용하며, 셋째로 생산수단이 다른 나라에 수출될 때에는 상품이며 이런 생산수단의 거래는 국제시장가격이나 사회주의시장가격에 따라 진행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10페지)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이 상품으로 되는 경우에 대하여 밝히신 다음 그것이 국가기업소들사이에 류통되는 경우에는 상품의 형태만을 가지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치법칙도 형태적으로만 작용하게 된다는 독창적인 리론을 창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자재공급계획과 협동생산계획에 따라 국가기업소들사이에 주고받는 생산수단들은 상품이 아니라 상품적형태를 가지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치법칙도 상품생산에서처럼 내용적으로가 아니라 형태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생산수단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품이 아니라 상품의 형태만을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가치법칙의 작용을 리용하는것이 아니라 가치법칙을 형태적으로 리용하며 생산수단의 생산 및 교환에서는 가치가 아니라 가치형태를 다만 경제계산의 도구로 리용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11페지)

국가기업소들사이에 류통되는 설비와 자재, 원료들은 상품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산수단은 상품의 징표를 갖추고있지 못하기때문이다. 생산물이 류통될 때 소유권의 이전은 상품의 본질적표징이다. 그러나 국가기업소들사이에 생산수단이 거래되여 한 기업소로부터 다른 기업소로 넘어가더라도 그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자유매매는 상품의 중요한 징표이다. 그런데 국영기업소들사이에 거래되는 생산수단은 사회주의적협동생산에 기초하여 생산되고 국가의 기자재공급계획에 따라 지정된 수요자에게만 계획적으로 공급된다. 국가기업소들 호상간에 왔다갔다하는 생산수단은 상품이 아니라 상품의 형태만을 가진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치법칙도 상품생산에서처럼 내용적으로가 아니라 형태적으로만 작용한다.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형태적작용은 국영경제안에서의 생산수단의 생산과 류통과정에서 맺어지는 사회경제관계를 반영한 새로운 경제범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작에서 국가기업소들사이에 주고받는 생산수단이 상품의 형태만을 가지게 되는 사회경제적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그것은 비록 국영기업소들이 다같이 단일한 국가소유의 기업소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생산수단을 리용하고 관리하며 경리를 운영하는데서 마치도 서로 다른 소유의 기업소들과 같이 서로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기때문입니다.》(우와 같은 책, 311페지)

생산수단이 상품의 형태만을 띠게 되는 조건은 국영기업소의 경영상독자성에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기업소들은 다같이 국가소유의 기업소이기는 하지만 경리를 운영하는데서 서로 다른 소유의 기업소들처럼 경영상독자성을 가진다. 국영기업소의 이러한 경영상독자성으로 하여 그들사이의 생산수단거래는 엄격한 등가보상의 원칙에서 팔고사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리하여 상품이 아닌 생산수단이 상품인듯한 인상을 주게 된다.

국영기업소의 경영상독자성과 생산수

단류통에서의 등가성의 원칙은 과도적 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특성 즉 생산력 발전수준과 사람들의 공산주의적의식발전수준이 아직 높지 못하고 로동이 아직 사람들의 생활상 제1차적인 요구로 되지 못하고있는 사정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수령님께서는 상품생산과 그 류통령역에서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정확한 해명을 주시였다.

가치법칙을 리용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상품가격을 옳게 정하는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상품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가치법칙의 요구를 타산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먼저 가격을 정할 때에 상품에 들어있는 사회적필요로동에 정확히 의거하여야 한다. 만일 가격을 사회적필요로동지출에 기초하여 정하지 않는다면 가격호상간의 균형을 유지할수 없고 사회주의적분배를 옳게 할수 없으며 사회적생산의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 이와 동시에 상품의 가치와 가격을 능동적으로 배리시키면서 대중소비품의 값은 눅게 정하고 기호품과 사치품, 좋은 양복천을 비롯하여 아직 그 공급량이 제한되여있는 물건들은 대중소비품보다 값을 높이 정하게 하며 가격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민시장이 자본주의잔재를 많이 가지고있는 뒤떨어진 상업형태이기는 하나 사회주의하에서 협동경리가 있고 개인부업생산이 있는 이상 그것을 없앨수 없으며 또 그것이 남아있는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민시장을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국가적으로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공급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소유가 전민소유로 될 때에만 농민시장과 암거래는 없어지고 상업은 완전히 공급제로 넘어갈수 있을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23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은 나라가 공업화되고 기술이 높이 발전하여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소비품을 넉넉히 생산공급할 때에, 두개의 소유제가 단일한 전인민적소유제로 넘어갈 때 없어질수 있다. 또한 그때에 가서는 상품류통일반이 없어질것이며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소비품의 분배는 전적으로 공급제에 의하여 실시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화페관계의 리용에 관한 창조적인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실천에서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특히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형태적작용에 관한 수령님의 리론은 모든 국영기업소들에서 생산수단의 생산과 류통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들에서는 수령님의 이 리론을 받들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경제관리를 더욱 합리화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고있다.

무엇보다도 모든 기업소들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 기초우에서 가치형태를 옳게 리용하여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고 기업관리운영을 개선하고있다. 모든 기업소들에서는 과학적기업관리운영의 출발점으로 되는 계산제도가 철저히 확립되고 원료, 자재, 로력의 리용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가 강화되고있으며 물자원단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또한 생산수단의 류통분야에서도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하여 자재상사들의 역할을 더 높이고 기자재공급사업을 개선발전시키고있다. 생산

기업소들에서 원료와 자재를 사장시키고 랑비하며 그것을 되는대로 다루는 무책임한 현상들이 없어졌으며 공급계획이 바로잡아지고 기자재공급사업이 훨씬 개선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상품화페관계의 리용문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국가가 옳게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우와 같은 책, 309페지)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들에서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 기초우에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에 맞게 상품화페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리용하고 독립채산제를 더욱 널리 적용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기업소들의 물질적관심과 책임성을 높이고 경영활동을 더욱 정규화, 규범화하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류통분야에서도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원료, 자재의 공급에서 상사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상품류통의 형태를 충분히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생산기업소들에서 기계설비와 원료, 자재들을 계획적으로 공급하고 그것을 더욱 절약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며 생산부문사이, 기업소들사이의 협동생산이 성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내놓으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근본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히 하는데 탁월한 공헌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것으로서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고전이며 우리 인민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재부이다.

수령님의 로작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절실하게 그 해명을 기다리는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들과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미해결문제들에 처음으로 완전무결한 과학리론적해답을 준것이다.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발전된 우리 시대에 와서 그 해명을 절박하게 요하던 긴절한 문제였다.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상품성여부에 대한 문제,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형태, 상업적형태 그리고 가치법칙의 형태적작용문제,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의 가치법칙의 리용문제, 사회주의상업의 공급제에로의 이행문제 등은 사회주의정치경제학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었던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심오한 과학적통찰력과 정연한 론리로써 아직까지 해명을 보지 못하고있었던 이러한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새롭게 천명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또한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이 경제건설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국가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무궁무진한 우월성이 높이 발양되고 상품화페관계의 옳은 리용이 보장되며 농민시장을 리용하면서 그것을 점차 없애나갈수 있다는것을 전면적으로 론증하시였다.

수령님의 로작이 가지는 의의는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문제들을 해명하는데 있어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가장 과학적인 방법론에 철저히 의거한데 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여야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맞게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오직 주체적립장, 맑스-레닌주의혁명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심으로써 그와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가장 옳바르게 해결하실수 있었다.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에 집대성되여있는 탁월한 사상과 리론은 부르죠아반동경제리론과 온갖 기회주의경제리론에 대한 강력한 타격으로 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어용학자들은 경제발전속도를 사회제도와 관계없는 문제로 외곡하면서 사회주의제도의 론의할바 없는 거대한 우월성을 부인하려고 꾀하고있었으며 기회주의자들은 그에 추종하여 대규모경제가 빨리 발전할수 없다는 궤변을 퍼뜨리고있었다. 또한 기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상품성과 상품화페관계의 무원칙한 확대를 주장하여나서고있었다. 우리 나라의 일부 경제지도일군들과 학자들도 이 문제들에 대하여 똑똑한 인식을 가지고있지 못하였었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사회주의경제관계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을 주심으로써 온갖 반동적인 경제리론을 물리치고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천명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가장 끝바른 승리의 길을 환히 밝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리론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영웅적투쟁을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신심과 투지와 용기를 한없이 북돋아주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공산주의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깊은 확신과 거대한 고무를 주고있다. 그러기에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이 로작을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교과서》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가 경제정책수립에서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문헌》으로, 《전세계인민들에게 확고부동한 승리를 담보하여주는 강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위력한 무기이다.

모든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로작에서 천명된 위대한 경제사상과 경제리론을 지침으로 삼아 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의 5개전선에서 승리의 기발을 휘날릴것이며 웅대한 6개년계획을 훨씬 앞당겨완수 할것이다.

근 로 자 제3호(루계 383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4년 3월 7일 발 행 • 1974년 3월 11일

ㄱ—4442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4 호

평 양 근로자사 1974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4 호(384)

차 례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우리 인민의 끝없는 영예와 행복

오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 대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속도전》의 기치밑에 혁명적앙양으로 들끓고있으며 우리 혁명과 건설이 또다시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일대 비약을 이룩하고있는 장엄한 력사적환경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예순두돐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4월 15일, 이날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민족최대의 명절이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크나큰 경사이다.

이 력사적인 날을 맞이하여 우리 인민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자기들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으며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0여성상을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력사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복무의 력사이며 우리 나라와 온 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영광찬란한 투쟁력사이다.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는 인류해방투쟁사에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의 빛나는 력사이며 한없이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신 인민의 참다운 수령의 혁명력사이다.

우리 인민의 슬기로운 투쟁력사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는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성함과 직접 잇닿아있으며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과 업적들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아래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혁명의 새시대, 주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온 누리에 찬연히 빛내이고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슬기롭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의 준엄한 가시덤불길을 헤치면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게 되였으며 창조와 승리의 새 력사를 개척하여 나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가지게 되였고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빛내인 영웅적인민으로 될수 있었으며 력사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헤쳐나가면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승리적으로 진행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심으로 하여 우리 당은 세계에서 공인된 가장 권위있고 위력한 로동계급의 혁명적인 당으로, 우리 나라는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자력갱생의 나라》로 온 세상에 자랑을 떨칠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주체조선의 영웅적인민으로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만일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우리 당의 오늘의 권위와 존엄에 대해서도, 우리 조국과 인민의 영광에 대해서도 결코 생각할수 없을것이다.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심으로 하여 우리 조선은 빛나고 우리 인민은 세계에서 가장 긍지 높고 자랑스러운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자기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운명을 이끌어주시고 그 찬란한 미래를 마련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심으로써 암흑에 짓눌리고 원한에 사무쳤던 우리 조국강토에는 비로소 민족재생의 려명이 밝아오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기 운명은 자신이 개척해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11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적기치밑에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발전시켜야 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우리 인민을 일제식민지노예의 멍에에서 해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칠줄 모르는 정력을 지니시고 몸소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새로운 난국을 타개하시면서 새 조국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해방된 우리 나라의 혁명정세는 매우 복잡하였고 투쟁은 의연히 간고하였다.

인민대중은 한결같이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갈망하였으나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 조성된 난국을 맞받아나가시면서 천재적예지로 우리 인민의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그 실현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에 토대하시여 해방후 지체없이 건당, 건국, 건군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짧은 기간에 공화국북반부를 조선혁명의 튼튼한 기지로 꾸리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한 령군술과 주체적인 전략전술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영예를 빛나게 수호하시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후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전쟁의 페허를 헤치고 도시와 농촌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시여 이 땅우에 세상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였으며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위력한 방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부강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력사적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을뿐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심각한 인간개조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되게 되였다.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시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여오시는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

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시여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시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한 해외동포들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오늘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보면서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혁명의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가장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끝없이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가장 값있고 참된 삶을 누릴수 있는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1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인간의 존엄과 가치마저 빼앗겼던 우리 인민에게 영생불멸하는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들을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나라와 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키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위대한 사랑과 넓으신 포옹력, 비상한 감화력으로 우리 인민을 교양하시고 혁명의 길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신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이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있음으로 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슬기롭고 존엄있고 긍지 높은 인민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인민에게 모든것을 다바치시는 고결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하여 온갖 정력과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신다.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시는것은 수령님께서 일찌기 어린시절부터 착취받고 억압받는 인민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소중히 간직하신 철석같은 신념이시다. 이 굳은 신념을 안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반세기동안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는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더없는 행복으로 여기시였다. 그러시기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근로하는 인민대중에게 무한히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며 한없이 겸손하고 소박하신 진정한 인민적수령의 영광찬란한 력사로 수놓아져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기쁨도 슬픔도 그들과 함께 나누시며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허물없이 로동자, 농민들과 상론하시면서 우리 인민에게 보다 행복한 새 생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밤잠도 휴식도 잊으시고 온 나라 만사람에게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고계신다. 우리 나라의 그 어디를 가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미치지 않는곳이란 없으며 그 누구에게나 수령님의 높으신 은덕과 크나큰 배려가 가닿지 않는 사람이란 없다.

수령님께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시책들을 베풀어나가시는데서도 언제나 인민들의 념원과 지향을 첫 자리에 놓으시고 그 하나하나에 인민들의 리익이 철저히 구현되도록 하여주고계신다.

실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의 최고의 체현자이시며 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바라시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의 념원이며 수령님의 뜻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의 의지이다.

수령님께서는 얼마전에 또다시 우리 인민에게 세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에서 사는 첫인민으

로 되였다.

참말로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실시되고있는 선진적인 공산주의적시책의 혜택으로 먹고 입고 쓰고사는것으로부터 자녀교육과 병치료, 로동조건, 휴식조건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국가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정녕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돌려주시는 사랑과 배려는 하늘의 높이나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실뿐아니라 《세계인민의 어버이》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투쟁력사는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앞에 영생불멸의 공적을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로정인 동시에 세계의 모든 착취받고 압박받는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공적을 쌓아올리신 자랑찬 로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발전과 인류의 진보와 번영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에 관한 과학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을 내놓으심으로써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에게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세계를 창조하는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우리 혁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그 실천적경험과 모범으로써 세계혁명운동을 힘있게 고무하시며 피압박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과 민족해방투쟁,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더불어 세계혁명발전에 쌓아올리신 영생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높은 국제적권위와 절대적위신을 지니고계시며 온 세계의 혁명적인민들로부터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신다. 오늘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그이는 기적의 창조자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력사의 거인이시며 대중의 단결자이시며 인민을 벗으로 하는 위인이시며 교양자이시며 인류의 사상을 대변하는분이시며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위대한 사상의 불씨를 안겨주시는 홰불이시며 세계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널리 알려진 수령, 세계인민들속에서 높은 권위와 영향력을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라고 한결같이 높이 칭송하면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있으며 그이를 수령으로 모시고사는 우리 인민을 한없이 부러워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며 세계혁명에 불멸의 공헌을 하여오신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는 곧 우리 시대, 주체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완성하여오신 가장 걸출한 사상리론가의 빛나는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력사적시대,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력사를 개척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시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세계혁명에 관한 정연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내놓으심으로써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된 전일적인 혁명리론으로 되게 하시였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체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공산주의혁명리

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심으로써 공산주의미래에 대한 종래의 모든 예언과 가정은 과학적인 학설로 체계화되고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혁명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지도사상과 지도리론, 지도방법을 가지게 되였다.

실로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체계로서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창시, 이것은 인류사상발전에서 최고단계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지금 온 세계의 혁명하는 사람들의 심장을 힘있게 틀어잡고있으며 대륙과 대양을 건너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힘으로 퍼지나가고 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자주의 기치하에서만 민족의 행복이 있고 영예가 있으며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생활체험을 통하여 확신하고있다.

오늘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인민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리론을 따르고 신봉하며 그것을 자기들의 사상과 신념으로, 투쟁의 무기로 삼고 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여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제시하심으로써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시고 한없이 위대하고 풍부한 사상리론적재부를 마련하시여 인류사상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돌이켜볼 때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으로 하여 가슴부풀어오르는것을 금할수 없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에서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짧은 력사적기간에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과 처지를 그처럼 근본적으로 전변시키시고 세계혁명발전과 인류의 진보의 위업에 위대한 공헌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혁명업적, 그이의 혁명사상과 세련된 령도, 숭고한 덕성은 인류의 혁명운동사에 불멸의 금자탑으로 영원히 높이 솟아있을것이며 날을 따라 온 누리에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높이 모시고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우리 인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인민이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 영광, 이 행복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고 무궁토록 빛내이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더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높이높이 모시고 수령님을 유일중심으로 한 전당과 온 사회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해와 달이 다하도록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 모든것을 다바쳐 끝까지 충성다하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며 최대의 행복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우리는 수령님을 절대화하고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며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대, 결사대가 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에 대한 가장 높은 열도의 충성심을 안고 수령님께서와 당에서 맡겨주시는 혁명임무라면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무조건 끝까지 빛나게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어버이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묶어세우고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싸워나가는 충성의 혁명대오로 더욱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 행복만이 있을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보여주신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위대한 모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두돐을 가장 뜻깊은 민족적경사로 맞으면서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으며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과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비범한 정력과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력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곧바로 이끄시였으며 일생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는 이미 멀리 전진하여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지척에 바라볼수 있는 그러한 높이에 이른 자주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어떤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훌륭히 만들어내는 《사회주의 자력갱생의 나라》로 이름을 떨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안고 진정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다.

오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대건설강령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장엄한 천리마대진군운동을 힘차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대혁신, 대비약의 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으며 우리 시대의 대기념비적건설물들을 련이어 창조하고있다.

지난날 뒤떨어졌던 탓으로 일제에게 나라를 먹히우고 피눈물나는 민족수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인민을 오늘과 같이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게 한 그 위대한 변혁의 력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비할바없이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며 특히 해방후 30년을 하루와 같이 걷고걸으신 수령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가 가져다 준 고귀한 결실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현지지도방법을 창시하시고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비상한 정력으로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대중에 대한 혁명적령도를 어떻게 실현하여야 하는가 하는 산 본보기를 마련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을 현지에서 정력적으로 지도하심으로써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력사를 창조하시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20년만에 보시는 고향을 지척에 두시고도 먼저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신 그날부터 오늘까지 걷고걸으신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길은 언제나 인민대중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시여 이 땅우에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여오신 불멸의 력사적로정이다.

수령님의 현지지도는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령도의 전형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방법은 로동계급의 당의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근본요구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가장 혁명적이

며 과학적인 령도방법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는데서나 그것을 관철하는데서 출발점으로 되는것은 인민대중의 리익과 지향이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적지혜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에게 당의 의도를 알려주고 그들의 창발적의견을 종합하며 그에 기초하여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과 대중의 결합된 힘에 의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이 성과있게 관철되여나가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03페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의 진정한 대표자인 맑스-레닌주의당은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는데서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과 지향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당의 로선과 정책이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동원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이 지도를 대중과 밀접히 결합시키지 못하고 대중과 떨어진다면 주관주의를 면할수 없고 관료주의를 범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당은 생기없고 생활력없는 무력한 당으로 되며 혁명과 건설을 옳게 지도할수 없다. 인민대중과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지고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있는 당만이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인민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참신한 정책을 제시할수 있고 대중을 옳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항상 대중과 유리될수 있는 어떠한 경향도 엄격히 경계하시면서 당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대중과 함께 호흡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고계시며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일군들을 교양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방법은 지도를 인민들이 살고 일하는 현실에 최대한으로 접근시킴으로써 당의 로선과 정책 작성에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와 대중의 지향을 가장 훌륭히 반영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당의 지도와 인민대중의 결합을 높은 형태에서 가장 훌륭히 구현하게 하는 령도방법이다.

수령님의 현지지도과정은 바로 그이께서 혁명발전의 요구와 아래의 실정을 깊이 통찰하시고 그것을 일반화하시여 우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을 구상하시고 작성하시는 과정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시는 모든 정책들과 방침들이 인민대중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고 그처럼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절실한 념원과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고있는데 있다.

우리 당과 우리 혁명,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의 체현자이신 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바라시는것은 바로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념원이며 수령님의 뜻은 곧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의지이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리고 전후 사회주의건설시기에 걸쳐 언제나 대중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부닥친 난관을 뚫고나갈 방도를 찾으시였으며 아래의 구체적실정과 인민대중의 창발적의견을 분석일반화하시여 그것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반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토지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시기 위하여 몸소 대동군과 순천군을 비롯한 평안남도일대의 여러 농촌들에 나가시여 한달이상이나 농민들속에 계시면서 농촌의 형편과 농민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과정에서 우리 나라 농촌의 계급력량관계와 토지소유관계, 땅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깊이 헤아리시고 토지의 몰수대상과 몰수 및 분배 방법 그리고 소작제도를 완전히 근절할수 있는 방도 등 토지개혁의 원칙들을 하나하나 확정하시였으며 그에 기

초하시여 위대한 토지개혁법령을 완성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후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였던 시기에 지체없이 농업협동화방침을 제시하시고 몸소 전국의 여러 농촌에 나가시여 이 거창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평안남북도를 비롯한 평야지대와 중간지대 농촌들은 물론 궁벽한 산간지대농촌들까지 전국의 각이한 지대적조건을 가진 각이한 지방의 농촌들을 찾으시여 실태를 깊이 료해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시여 협동화의 발전단계와 속도, 협동경리의 형태와 규모, 생산수단의 통합방식 등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정확히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사회주의건설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는 현실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모든 전선에서 3대혁명을 더욱 깊이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끄시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온 나라의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을 찾으시여 현지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혁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을 밝혀주고계신다.

지난해에 있은 황해남도 은률광산에 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는 그 하나의 실례이다. 수령님께서는 이 광산에 대한 현지지도의 목적이 일군들에게 보수주의가 어느정도인가 하는것을 알아보시려는데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말하자면 강물이 깊은가 얕은가 하는것을 알기 위하여 강물에 돌을 던져본것과 같은것이였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실태료해에 기초하시여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시고 대담하게 밀고나가시였다.

실로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히신 모든 새로운 방침들은 아래의 구체적실정과 인민대중의 절실한 념원을 충분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언제나 우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미는 위력한 리론적 및 실천적 무기로 되고있으며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는 또한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을 대중자신의것으로 만들고 그 관철에로 대중의 힘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의 힘과 지혜는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힘과 지혜를 옳게 조직동원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대중을 믿고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을 자기 활동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있는것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령도의 기본요구는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당정책집행에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는데 있다.

수령님의 현지지도는 근로대중이 생활하고 투쟁하는 현지에서 그들을 각성시키고 고무하고 이끌어줌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령도의 근본요구를 가장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불멸의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인민대중에게 튼튼히 의거하여 그들의 힘을 옳게 조직동원하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없다.

인민대중이 가지고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은 오직 로동계급의 당이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힘을 최대한으로 옳게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때 그리고 인민대중자신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에서 혁명위업수행에 동원될 때 비로소 높이 발양된다.

수령님의 현지지도방법은 당정책을

대중자신의것으로 철저히 만들고 그 관철에로 인민대중의 힘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혁명과 건설에서 난관과 시련에 부닥쳤을 때 그것을 주동적으로 맞받아나가시였으며 인민대중을 믿으시고 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과 더불어 난관을 타개하고 혁신의 불길을 일으킨 방도를 찾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 모든것을 의탁하고 수령님을 따라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은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는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라는 충성의 일념을 안고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드높은 헌신성을 발휘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세기를 주름잡아 달리는 천리마진군운동이 세차게 벌어지고 위대한 《평양속도》, 《비날론속도》, 《강선속도》가 창조되였으며 오늘은 수령님께서 검천화장공사장에 지펴올리신 혁신의 불길을 따라 온 나라가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참으로 수령님께서는 황철, 강선, 룡성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인민대중의 힘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여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시였으며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을 지니시고 언제나 문제를 대담하게 포치하시며 대중을 한고지를 점령한 다음에는 련이어 새로운 높은 고지를 향하여 돌진하도록 이끄시는 혁명적령도예술의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오늘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상전에게 빌붙어 명줄을 유지해보려는 남조선반동들의 전쟁도발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 세계적인 경제적파동이 자본주의나라들을 휩쓸고있는 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을 찾으시여 웅대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단숨에 점령하고 더 높은 휘황한 봉우리에 뛰여오르기 위한 새로운 장엄한 전투목표를 안겨주시고 그들을 이 거창한 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조성된 혁명의 새로운 국면을 주동적으로 맞받아나아가 혁명과 건설을 획기적으로 전진시키게 하시였으며 원쑤들을 불안과 공포에 전률케 하시였다.

수령님의 현지지도방법은 또한 한 단위에 대한 구체적지도를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긴절한 문제를 푸는 본보기를 창조함으로써 일반적지도와 개별지도의 결합을 가장 훌륭히 구현할수 있게 하는 로동계급의 당의 전형적인 령도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현지지도에서 반드시 중요한 한고리를 틀고 그 한점에서 모범을 창조하였으며 거기에서 얻은 구체적인 경험과 교훈을 전반적으로 일반화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켰으며 지도에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성과적으로 극복하여왔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62페지)

수령님의 현지지도는 혁명의 전진도상에서 나서는 절박한 문제들을 푸는 실천적본보기를 창조하고 일군들을 그 모범으로 이끌어줌으로써 하나의 모범이 수천수만의 모범을 낳게 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정책이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관철될수 있게 한다.

현지지도에서 구현된 수령님의 이러한 전형적모범을 우리는 그이의 력사적인 청산리 및 강서군에 대한 현지지도, 인민경제관리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대안과 숙천에 대한 현지지도 그리고 산간지대농촌문제해결의 길을 가리켜준 창성군에 대한 체계적인 현지지도 등에서 찾아볼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한 단위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지도를 통하여 한점의 불꽃이 온 나라에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지게 하시

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거대한 비약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방법은 이처럼 당의 지도와 대중의 생활을 철저히 결합시키는만큼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현지지도방법은 그이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혁명적군중로선의 구현이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시며 인민들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우리의 수령님께서만이 지니고 계시는 고유한 사업방법이다.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혁명적군중로선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을 사회와 자연의 주인으로,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가장 힘있는 존재로 보신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며 모든것을 풀어나가시는데서 언제나 사람을 위주로 보고 생각하며 세상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계신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관점을 확립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확고히 의거하여야 할 근본지침을 마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로동계급의 당의 대중령도의 지침으로 되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창시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대중에게 튼튼히 의거하고 대중의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대중지도사상이다.

수령님의 현지지도방법은 인민대중속에서 대중과 호흡을 같이하며 대중과 함께 모든 혁명투쟁을 벌려나가는 탁월한 사업방법으로서 그자체에 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특히 현지지도방법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 인민의 참다운 행복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오시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인민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이의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의 빛나는 구현이다.

반세기에 걸치는 오랜 혁명투쟁행정에서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들과 함께 고락을 나누시며 인민들과 더불어 혁명의 가시덤불을 헤치시여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의 비결을 다른데서가 아니라 바로 인민대중에게서 찾으신다.

수령님께서는 이로부터 인민대중을 선생이라고 하시며 우리 일군들에게 기계를 보기전에 먼저 사람을 보며 대중에 의거하여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고계신다.

실로 수령님과 우리 인민은 혼연일체를 이루고있으며 주체형의 피가 맥맥히 흐르는 하나의 혈맥으로 련결되여있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들은 언제나 수령님을 우러르며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있다.

하여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마냥 우리 인민은 가장 결백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수령님만을 따르며 수령님을 절대화하고 그이의 혁명사상을 끝없이 신봉하고 신조화하며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 높은 헌신성, 충실성을 발휘하는것을 자기의 더없는 행복으로, 영예로, 숭고한 임무로 여기고있다.

정력적인 현지지도, 세기적인 변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이어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로 수백만리의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현지에서 정력적으로 지도하시는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지난 기간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 어촌, 건설장, 교육문화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수많은 인민대중을 직접 만나보았으며 그들과 함께 나라일을 의논하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전국의 방방곡곡을 찾으시여 수많은 인민대중과 나라일을 직접 의논하신 현지지도과정, 그것은 인민대중에게 창조적사색과 용맹을 안겨주시고 비약의 날개를 돋쳐주신 영광의 로정이였으며 우리 나라를 오늘과 같은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킨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로정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을 이룩하신 그날부터 오늘까지 쉬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여 인민들의 생활과 그들의 투쟁을 현지에서 깊이 료해하시고 이끌어주시였다.

해방후 복잡한 정세하에서 당과 인민정권, 인민무력을 지체없이 창건하시고 그를 공고히 하시며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는 행정에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전통적인 현지지도방법을 튼튼히 견지하시고 온 나라의 도시와 농촌, 공장과 광산, 어촌을 찾으시여 인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나라일을 상론하시였다.

수도 평양으로부터 2,000리 떨어진 나라의 북단 서수라에서 남으로 분계선마을에 이르기까지 인민들이 살고 투쟁하는 그 어디에도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미치지 않은 곳이란 없다.

수령님께서는 심지어 일신의 피로를 푸시도록 마련된 휴식의 한때마저도 편히 쉬지 않으시고 현지의 사업정형과 인민들의 생활을 료해하시고 보살펴주시는데 돌리고계신다.

인민들속에 계시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가장 훌륭한 휴식으로 된다고 하시는 수령님, 잠시의 휴식참에도 인민들을 찾으시여 그들의 사업을 알아보시며 그들과 나라일을 의논하시는 수령님, 실로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리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함이라면 일신의 피로도 잊으시고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비상한 정력으로 어제도, 오늘도 쉬임없이 모든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력적인 현지지도과정은 그이께서 지난날 락후와 빈궁, 무권리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세기적인 변혁의 력사를 창조한 빛나는 로정이다.

수령님께서는 바로 그 길에서 해방직후 선참으로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새 민주 조선의 기둥이 되라고 깨우쳐주시였고 그들을 새 사회 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으며 조국의 자연을 개조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첫걸음으로서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그 첫삽을 뜨시였다.

미제침략자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승리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전선과 후방의 모든 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가운데서도 적의 맹폭격과 포화속을 헤치시면서 멀리 최전선에까지 나가시여 전선형편을 직접 료해하시고 새로운 군사적대책들을 강구하시였으며 전호속의 전사들을 찾으시여 그들의 생활과 건강에 이르기까지 친어버이심정으로 다뜻이 보살펴주시였다.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이 뜨거운 사랑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영웅적인민군장병들은 그처럼 가렬처절한 불바다속에서도 《김일성원수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적의 화구를 맞받아나아갔으며 조국의 촌토를 지켜 영웅적으로 싸웠다.

준엄한 전쟁의 나날 수령님께서는 수많은 공장들을 찾으시여 전시생산을 위한 대책을 의논하시였으며 순안군 원화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농촌을 찾으시여서는 농민들의 일손을 도우시며 전시식량증산에로 그들을 고무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가렬하던 1952년 여름 락원기계공장 주물직장의 10명 당원들의 세포총회를 지도하시며 그들에게 전쟁승리의 확고한 신심과 용맹을 심어주시였으며 승리한 조국땅우에 벌어질 장엄한 전망을 안겨주시였다.

전후 안팎의 원쑤들의 준동이 로골화되고 혁명앞에 시련이 닥쳐왔을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다시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나라의 곤난한 형편을 털어놓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끝없는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거세찬 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대중의 힘을 백배, 천배로 불러일으키시여 일시적으로 조성된 엄중한 난관을 성과적으로 물리치시고 혁명을 힘있게 앞으로 떠미시였으며 세기를 주름잡아 질풍같이 내달리는 천리마시대가 펼쳐지게 하시였다.

세워진 사회주의제도가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을 때 수령님께서는 새 환경에 맞게 지도를 개편할것을 밝히시고 보름동안이나 청산리에 계시면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분석하시고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의 청산리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혁명적군중로선의 빛나는 구현인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태여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으로 되여있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98페지)

수령님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적군중로선의 구현인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창시로 낡은 틀, 낡은 사업방법이 산산이 부서지고 참신하고 생기발랄한 사업방법, 사업체계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되였다. 무엇보다 당 및 국가 기관들의 지도에서 주관주의, 형식주의, 관료주의가 결정적으로 극복되게 되였으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당적사업방법이 확고히 서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 기초하시여 대안과 숙천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 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 농업지도체계가 확립된 결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거대한 비약이 일어났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산간지대 경제발전과 그곳 인민들의 생활향상문제를 푸시기 위하여 여러차례 창성땅을 찾으시여 모범을 창조하시고 일반화하시여 어떤 궁벽한 산촌에서도 모든 산을 황금산, 비단산으로 만들고 어떤 두메산골도 행복의 락원으로 되게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그이께서 걸으신 현지지도의 길우에서 북청회의의 주렁진 열매가 마련되여 우리 나라는 수십만정보의 과수원으로 뒤덮인 과일동산으로 전변되였으며 이르는곳마다에 닭공장, 돼지공장들이 솟아나 고기생산, 알생산도 공장에서 공업적방법으로 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으신 전국의 모든곳에 주체공업의 위력을 시위하는 현대적공장들이 수풀처럼 일떠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지금 우리는 완전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완전히 자기 발로 걸어나갈수 있게 되였을뿐아니라 앞으로 더욱 빨리 발전할수 있는 기초를 가지게 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79페지)

수령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길우

에 웅장하고 거창한 건설사업이 벌어지고 나라의 동부와 서부, 북부에 대공업기지들이 튼튼히 꾸리지고있으며 대규모의 현대적산업시설도 마음만 먹으면 척척 만들어낼수 있는 밑천이 마련되였다. 실로 우리의 자립적공업은 그 어떤 세계적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제 힘으로 빨리 나갈수 있는 힘있는 공업으로 자라났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그 길에서 서해북쪽의 천년묵은 갈망밭에 《비단섬》이 생겨났고 룡흥벌의 쑥대밭에 세계1등급의 대비날론공장이 일떠섰다.

수령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길에서 우리의 농촌은 또 얼마나 변모하였는가. 그이께서 농촌수리화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드시고 높고 낮은 산발을 밟으신 그 모든곳에 《산중바다》—대저수지들이 들어앉고 협동벌마다에는 대지를 누비며 뻗어나간 관개수로를 따라 생명수 흘러들어 해마다 대풍을 안아오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는 지난날 하늘만 쳐다보면서 호미와 가대기로 농사를 짓던 우리 농민들을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지으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하였다. 그 길우에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오막살이초가집들이 자취를 감추었으며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줄줄이 들어서고 집집마다 수도가 들어가고 마을에까지 뻐스가 와닿는 사회주의적문화농촌들이 그 어디에나 생겨나고있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걸고걸으신 현지지도의 수백만리길은 그이께서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치시고 이 땅우에 위대한 변혁과 기적을 이룩하여오신 영광찬란한 력사적로정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정력적인 현지지도를 통하여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키워주시고 그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오시였다.

인민들에 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은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전우로 대하고 보살펴주며 그들에게 더없이 귀중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며 그들을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워주는 고귀한 사랑이며 모든 사람이 끝없이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넓고도 깊은 사랑이다.

사람에 대한 가장 고귀한 사랑과 배려, 그것은 정치적생명을 주고 끝까지 꽃피워나가도록 따뜻이 이끌어주는 그러한 참다운 사랑이며 배려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우와 같은 책, 316페지)

사람에게 있어서 정치적생명은 육체적생명보다 몇배나 더 귀중하다. 정치적생명이 있는곳에 참다운 삶의 보람이 있다. 사람이 사회에서 살면서 사람다운 가치와 존엄을 가지지 못하면 죽은 몸이나 다름것이 없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난날 천대와 멸시만을 받아오던 우리 인민을 은혜로운 한품에 안아주시여 자기 운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해주시였으며 민족의 영예와 슬기를 빛내이게 하여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으로 지난날 사회의 밑바닥에서 버림받던 로동자, 농민들과 그들의 아들딸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고 당 및 국가 기관들과 경제문화기관의 유능한 일군으로, 이름있는 과학자로, 작가로, 예술인으로 자라났다.

공산주의적덕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을 위하여 함께 싸워나가는 혁명전우로 굳게 믿어주시고 그들 한사람한사람을 따뜻이 만나주시며 동지적사

랑으로 키워주시고 이끌어주고계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범한 과오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그들이 범한 과오를 빨리 고치도록 몸소 이끌어주신다.

우리들에게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지도사상안 주체사상을 심어주시고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혁명과 인민의 리익의 견지에서 자기 머리로 사고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고계신다. 그이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휴양소에 걸려있는 한장의 유화에서도, 라지오와 무대에서 울려퍼지는 한가락의 곡조에서도 자기의것을 위주로 하고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 인민의 감정과 생활에 맞게 해야 하며 제정신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살뜰히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는 주체형의 피가 세차게 흐르게 되였으며 위대한 주체의 토양에서 혁명가의 대부대가 자라났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신조로 삼고있으며 수령님을 절대화하고 그이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닌 혁명적인간들의 대집단으로 되고있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으신 현지지도의 길은 우리 인민들에게 삶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안겨주고 우리 모두를 혁명의 보람찬 길로 이끌어주며 어엿한 혁명가로 키워주는 영광스러운 로정이였다.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자애로운 사랑을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에 나가시여 언제나 먼저 인민들의 살림집과 로동자들의 식당에 들리시여 그들이 먹고사는데 불편이 없는가 알아보시며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보살펴주신다.

모든 사색과 정력을 오직 인민을 위한 숭고한 위업에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로동자, 농민들의 가정에 들리시여 쌀두에 쌀이 얼마나 있는가, 밥은 무슨 밥을 해먹었는가, 부식물공급은 잘되는가를 하나하나 알아보시며 또 상점을 찾으시여서는 상품공급이 잘되는가를 일일이 료해하시고 로동자들의 식당에 들리시여서는 손수 국맛과 김치맛까지 보시며 그들의 생활문제를 원만히 풀어주시기 위하여 심려하시고계신다. 그이께서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현지에서 보살피신 그 가지가지 이야기는 실로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안개도 채 걷히지 않은 이른새벽에 어느 한 포구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고기비늘이 묻은 비린내풍기는 어로공의 비옷을 입어보시며 그들의 생활을 보살펴주시였고 궁벽한 림산마을과 지하수천척막장에까지 찾으시여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돌보아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한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풀도 무심히 대하지 않으시고 모든것을 인민들의 생활문제와 련결시켜 생각하시며 인민들에게 풍만한 생활을 안겨주실 구상을 무르익히신다.

우리 나라의 도처에 닭공장이 일떠서고 닭고기와 닭알 생산기지가 꾸려진 그 변혁의 력사에는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는 수령님의 뜨거운 심혈이 깃들어있다.

태양의 빛을 떠나서 아름다운 화원을 생각할수 없듯이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롭고 자애로운 사랑을 떠나서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생각할수 없다.

혁명의 영재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실로 현지지도의 길에서 우리 민족의 력사에 금문자로 영원히 아로새겨질 불멸

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참으로 수령님께서 걸으신 현지지도의 길, 그것은 이 땅우에 창조와 변혁을 가져온 력사적로정이며 그이께서 친어버이심정으로 우리 인민을 한품에 안아키워주시고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영예, 삶의 보람과 희망찬 미래를 안겨주신 빛나는 로정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다시 태여났고 그이의 자애로운 사랑속에서 오늘의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은 우리 인민은 반세기의 긴긴세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혁명과 건설의 거창한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오신 수령님의 그 거룩한 력사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서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자부심과 영예를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며 수령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오직 수령님을 위함이라면 자기의 목숨도 초개와 같이 바쳐 싸워나가는것, 이것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신조화된 철석같은 신념이다.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력사를 안아오시고 우리 인민을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앞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새로운 력사적전환을 가져오게 될 사회주의대건설의 장엄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으며 전체 인민을 위대한 투쟁에로 부르고계신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로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74년 1월 1일, 9~10페지)

수령님께 언제나 충성다하여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 대진군운동의 전진속도를 다그쳐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에서 명철하게 밝혀준 《속도전》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하루빨리 사회주의건설의 상상봉에 뛰여올라서야 하며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본때를 온 세상에 다시한번 시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대건설에서의 힘찬 전진의 열쇠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도에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을 절대화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조화하며 그이의 교시관철에서 무조건성을 견지하는것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고 사회주의대건설투쟁에서 무비의 충실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세심한 지도가 있는한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란 없으며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예순두돐을 충성의 한마음으로 맞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수령님께서 쉬임없이 밟으신 현지지도의 길, 이 위대한 령도의 길에 바쳐진 수령님의 뜨거운 심혈과 정력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그이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모든것을 다바쳐 끝까지 충성다할 결의에 가득차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지닌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위업

오늘 우리 당은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력사적시기에 들어서고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 당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당사업, 당사상사업전반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고있다.

우리 사회의 심장이며 원동력인 당의 령도적역할이 비상히 강화됨으로써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는 전례없이 참신하고 패기있고 혈기왕성한 전투적사업기풍이 차넘치고있으며 창조와 혁신의 거세찬 불길이 타번지고있다.

지금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속도전》의 기치따라 혁명의 북소리 우렁차게 울리며 날에날마다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오늘 우리 조국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수령님께 바치는 영웅적 우리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끝없는 충성의 열도로 하여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최근 당중앙위원회는 심화발전하는 우리 혁명과 건설의 벅찬 현실에 맞게 당사업, 당사상사업전반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위대한 사상과 방침을 내놓았다.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을 당사업과 당활동의 총적임무로, 기본사명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완벽한 해명을 주었다.

《온 사회를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자!》, 이것이 오늘 당중앙이 제시한 전투적구호이다.

이 구호는 현시기 우리 당의 발전과 당이 처한 모든 주객관적조건을 빛나는 예지로 심오하게 분석통찰한데 기초한것으로서 우리 당건설과 당사업발전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리정표를 이루는 위대한 방침이다.

이 방침은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당사업의 개별적부문이나 일정한 력사적기간만이 아니라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과 당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혁명위업이 종국적으로 승리하는 먼 앞날까지 튼튼히 견지해야 할 항구적인 방침이다.

이 빛나는 방침을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혈통을 가진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할것이며 우리 인민은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기치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고 주체조선의 영예를 영원히 떨치게 될것이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이 지닌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이는 우리 당의 혁명적본성과 력사적사명으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가장 책임적이고 숭고한 혁명위업이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모든 사회성원들

을 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전사로 만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당을 창건한 목적은 어디까지나 우리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묶어세워 조국을 통일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는데 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그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고 직접 창건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당이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끝없이 신봉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로 조직된 로동계급의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이다.

우리 당에 있어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적극 옹호하고 철저히 실현하는것은 당건설과 당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출발점으로 되며 모든 당사업은 철두철미 여기에 복종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 당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무기로서의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당에서 명철하게 밝히신바와 같이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으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전투적구호에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우리 당의 최종목적이 뚜렷이 밝혀져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바로 우리 당이 건설하려고 하는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세대 사람들뿐아니라 앞날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를 담고있으며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나가는 근본방향과 요구뿐아니라 공산주의하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을 밝혀주고있다.

그러므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최종목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당의 항구적인 강령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가장 성스럽고 위대한 사업으로 된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을 당의 항구적인 강령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하는것은 또한 이 구호에 우리 당의 최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가 명확히 밝혀져있기때문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처음으로 공산주의의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전일적인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공산주의건설의 혁명적로정과 그 과정에서 견지하여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을 밝히시였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실로 우리 시대 로동계급과 혁명적인민들이 편향없이 올바른 길을 따라 공산주의에로 나갈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며 전략전술이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령도하여오시는 우리 혁명위업의 계속이며 그 새로운 높은 단계를 이룬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 일색화과정은 일찌기 그이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을 령도하여오신 그때로부터 시작되였다.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신 그때로부터 우리 혁명대오안에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 일색화과정이 시작되였고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신 그때로부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당을 일색화하

는 사업이 시작되였으며 수령님께서 새 사회 건설을 령도하신 그때로부터 우리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이 시작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공산주의에로 이끌어나가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당의 최종목적을 실현할데 대한 투쟁구호를 내놓음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 일색화과정을 새로운 가장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올렸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구호는 우리 당발전의 현단계에서 완전히 성숙된 요구를 가장 빛나게 체현한 위대한 방침이다.

당중앙은 바로 우리 사회발전의 가장 성숙된 요구와 제반 주객관적조건을 천재적예지로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이 위대한 방침을 내놓았다.

당에서 밝혀준바와 같이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구호를 제기하고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먼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위대한 사상,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상의 일색화가 사회발전과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로 나서야 하며 그를 받아들일수 있는 대중의 높은 각오와 준비된 정치적력량이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은 자기 발전에서 이와 같은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갖춘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우선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수 있는 위대한 지도사상,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가진것은 우리 당으로 하여금 사상의 일색화를 자기의 전투적기치에 뚜렷이 아로새길수 있는 결정적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다.

조선혁명은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기의 앞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여왔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그때에 벌써 자기의 혁명대오를 하나의 사상,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도사상을 가지게 되였다. 수령님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매 단계의 혁명리론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누구도 걸어본적이 없는 생소한 길을 헤치고 반제민족해방혁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등 여러 단계의 복잡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우리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왔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반세기에 이르는 우리 혁명실천의 력사적경험을 분석총화하시고 우리 시대가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을 독창적으로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공산주의혁명리론에 의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아무러한 우여곡절도 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며 전면적으로 완성하여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 지도리론을 가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제국주의가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고 압박받던 인민들이 자유와 해방,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용감히 떨쳐나선 오늘의 력사적조건에서 새롭게 제기된 수많은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명한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백과전서적혁명사상이며 필승불패의 혁명적기치이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선행한 력사적시대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 주체의 시대이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력사의 시대이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또한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력사를 개척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나가는 새로운 시대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바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체계이다.

다시말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바로 여기에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실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참다운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과학적공산주의 리론발전에 불멸의 기여를 한 우리 시대의 위대한 공산주의기치이다.

공산주의혁명리론은 우리 시대에 와서 수령님에 의하여 혁명실천과 더욱 밀접히 결합되고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체계화되였으며 전일적인 과학적리론으로 되였다.

바로 그러기에 오늘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인민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에서 끝없는 고무를 받으며 그를 자기들의 사상과 신념으로, 투쟁의 무기로 따라배우고있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과학적정당성과 생활력은 우리 시대 혁명실천을 통하여 힘있게 확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이 오늘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구호를 내세우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며 혁명발전의 필연적요구이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당의 구호나 방침은 어느때나 사회경제적, 물질적 조건의 성숙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가 갖추어져야만 당의 구호는 실제로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낼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이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구호를 제시한것은 우리 사회 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하나의 사상이 전사회적규모에서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하는 문제는 오직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인민대중이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같은 사회주의적근로자로서 같은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 투쟁하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제기할수 있으며 실제로 실현할수 있다.

이미 오래전에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을뿐아니라 공업화의 실현으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은 완전히 성숙된 요구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정치적력량도 튼튼히 마련되여있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의 참모부로서 그 어느때보다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되였으며 그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하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회와 인간을 적극적으로 개조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당, 위력있는 혁명적당으로 장성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더욱 세련되고 공고발전되고있는 우리 당은 오늘 세계적으로 공인된 가장 권위있는 혁명적당이다.

참으로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날로 륭성번영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전체인민이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다.

2

오늘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내놓으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나서는 제반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서도 휘황히 밝혀주었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투쟁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지난 기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였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영광스러운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내외정세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의 방대한 과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수령님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철통같이 강화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의지의 통일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요인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10페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 오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도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싸워온 결과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실무적단합이 아니라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확고한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다. 오직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이룩된 단결만이 진정한 단결이며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단결이다.

우리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약화시키려는 사소한 현상에 대하여서도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며 당의 통일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고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기본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는것이다.

혁명을 위하여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는것은 공산주의자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다.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이다.

수령님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의 체현자이시며 수령님의 교시는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조직적의사이다. 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바라시는것은 바로 우리 당원들과 인민의 념원이며 수령님의 뜻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의 의지이다. 그러므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은 공산주의적당성의 기본이며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투사의 가장 본질적인 징표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고 수령님께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기에 우리 당이 가장 권위있고 위력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는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자력갱생의 나라》로 온 세상에 그 위용을 떨치게 되였다. 우리 당의 오늘의 권위와 존엄, 우리 조국과 인민의 오늘의 영광과 긍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그 모든것은 어느 것이나 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과 직접 잇닿아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민족과 우리 인민의 영예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가장 높이 우러러 모시며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뜨거운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일편단심 수령님을 절대화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신조화하며 수령님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을 추호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며 우리 인민의 운명을 이끌어주시고 그 찬란한 미래를 마련하여주시는 수령님께 자기의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님께서 계시는한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울줄 아는 견결한 혁명전사가 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수령님을 절대화하는 혁명가의 고결한 품성으로 대를 이어 영원히 수령님을 높이 모시며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 수령님의 권위와 존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신조화하여 그를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업과 생활에서 유일한 지침으로 삼으며 그 어떤 불건전한 사상경향으로부터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하며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받들고 그대로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수령님의 교시는 곧 법이며 지상의 명령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며 사소한 리유와 구실, 조건타발도 없이 무한한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수령님의 교시를 끝까지 철저히 집행하는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실속있고 활발하게 벌려 모든 사람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그들에게 철저히 체득시켜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전세계인민들이 무한히 흠모하고 존경하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을 사상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며 이 사업이 심화되는데 따라 그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또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절대로 형식주의를 범하지 말며 우리의 후대들도 대를 이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계승하고 영원히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함께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 주체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과정이다.

또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과정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반동적이며 비로동계급적인 사상을 반대하는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로동계급의 확고한 계급적관점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어렵고 복잡

한 환경속에서도 항상 로동계급의 립장을 고수하고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반동적사상조류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지주, 자본가들과 착취제도의 반동적본질을 똑똑히 알게 하며 특히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일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우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정주의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성을 똑똑히 인식시키며 당안에 수정주의적사상독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히 투쟁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적경각성을 높일것을 요구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절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도록 하며 늘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원쑤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간부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간부는 당의 골간력량이며 당정책을 조직집행하는 지휘성원들이며 대중의 직접적교양자들이다.

오늘 당중앙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당을 간부화할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면서 간부의 가장 중요한 표징은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있다고 가르치고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의 간부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자신의 정치적수준을 높이며 조직생활, 사상생활을 강화하여 자신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단련함으로써 모두가 수령님의 정치적신임과 깊은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리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실현하는 과정은 곧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점령을 다그쳐나가는 과정이다.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을 더욱 찬란히 꽃피워나가며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주체조국의 영예를 빛내여나가는 영광스러운 투쟁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대건설투쟁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남김없이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선전선동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것이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례없는 빠른 속도로 달리나갈것을 요구하는 일대 진공전이며 《속도전》이다.

당중앙이 새롭게 제시한 《속도전》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을 가장 빛나게 구현한 독창적인 방침이며 위대한 투쟁의 기치이다.

《속도전》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기적을 이룩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에 맞는 가장 적극적인 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의 기본요구는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의 힘, 대중의 지혜와 정열을 총집중하여 《속도전》의 요구대로 일을 가장 빠르고 가장 실속있게 하며 혁명과업을 전격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해제끼야 한다.

《속도전》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조직지도사업을 안받침하여야 한다. 여기서도 기본은 사상문제이다. 사람의 사상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기술문제도, 지도문제도 옳게 풀릴수 없다.

그러므로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속도전》은 《사상전》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상전》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포괄한다.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속도전》에서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사상전》을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은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와 활동방식,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등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언제나 온 나라를 혁명적 열정과 랑만, 전투적기백으로 차고넘치게 하며 사회주의건설장마다를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게 하는 위력한 혁명적무기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이르는곳마다에서 《사상전》을 힘있게 벌리며 특히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남김없이 검증된 경제선동을 결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결정적으로 마스고 당사업, 당사상사업전반에서 생기발랄한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오늘 당중앙은 모든 당조직과 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지칠줄 모르는 정력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대건설전투를 패기있게 밀고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중앙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사회주의대건설투쟁이 벌어지는 오늘의 격동적인 시기에 맞게 만만한 투지와 충천한 기세로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포치하고 판을 크게 벌리며 어떠한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받아나가는 강의한 혁명가의 의지로 일을 담차고 본때있게 신바람이 나게 해제껴나가야 한다.

당에서 가르치는바와 같이 사람은 생리적으로 로쇠할수 있고 육체적으로 도태될수 있으나 사상적으로 로쇠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정치적으로 도태되지 말아야 한다.

수령님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한목숨을 바치겠다는 충실성만 있으면 로쇠현상이 절대로 나타날수 없다.

우리 일군들은 모든 사업에서 로쇠현상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청춘의 약동하는 기백으로 언제나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는 전투적인 혁명가, 쉼없이 전진하는 락천적혁명가로 살며 일해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또한 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마스고 항일유격대식 사업경험을 본받아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야 하며 그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당중앙의 의도를 하부말단까지 철저히 침투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당사업, 당사상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지도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이다.

당의 의도, 당이 내놓는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모든 승리의 담보가 있다.

당의 의도는 곧 수령님의 의도이며 당이 내놓는 방침은 모두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것이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지도에 충실하여야 하며 당의 지도에 충실한것은 곧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길이다.

당의 지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것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과정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하여야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으로 되게 할수 있다.

우리는 수령님의 교시와 함께 당에서 제시하는 방침을 절대화하고 깊이 연구학습하며 당의 명령, 지시를 한치도 드팀없이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며 당의 유일적지도밑에서 모든 당사업, 당사상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하여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사상사업부문일군들이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여야 한다.

사상사업부문일군들은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밖에 모르는 강한 신념을 가지며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수령님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며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끝까지 관철하여나가는 혁명적인 진투부대, 친위대, 결사대가 되여야 한다.

사상사업부문일군들은 또한 사업작풍을 바로 세울데 대한 당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관료주의, 당세도를 반대하며 부정과의 투쟁에서는 언제나 비타협적이면서도 겸손하고 소탈하며 당적방법,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줄 알아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누구나 다 독학가, 정열가가 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환히 통달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 *

오늘 당중앙이 제시한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는 우리 당건설과 당사업발전에서, 우리 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위대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이 방침은 우리 당건설과 당사업발전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전투적기치이며 우리 당으로 하여금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할수 있게 하는 전투적강령이다.

이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우리 당은 영원히 오직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끝까지 빛나게 관철해나가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보수와 침체를 모르고 계속 전진, 계속 투쟁하는 혈기왕성한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하게 될것이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전투적구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하는 빛나는 방침이며 위력한 사상리론실천적무기이다.

이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인류의 리상사회, 미래 공산주의사회의 전모를 명확히 내다보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더욱 확신성있게 전진하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고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서 실로 불멸의 기여로 되는 위대한 방침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며 그 실현을 위하여 대를 이어가면서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을 관철해나가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미래는 양양하며 그 앞길에는 끝없는 영예와 영원무궁한 번영이 약속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세계적사조

김　영　남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계급과 피압박민족들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탁월한 업적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해방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것이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정확한 지도사상이다.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진보적인류의 사상적재부를 더욱 풍부히 하시였다.

참으로 주체사상은 세계인민들에게 혁명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투쟁과 승리에로 고무하는 불패의 혁명적기치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국제혁명운동의 실천에서 검증된 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주체사상은 그 보편적타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잡고있으며 대륙과 대양을 건너 온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1

주체사상은 인민들에게 혁명의 원리를 밝혀주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과 국제혁명운동의 실천적경험을 깊이 개괄하시고 현시대의 절박한 요구와 혁명발전의 객관적법칙을 과학적으로 반영하시여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완성하시고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에게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세계를 창조하는 백전백승의 전투적기치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페지)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무한히 신뢰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이룩하게 하는 철저한 혁명사상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 따라서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력사발전에서 혁명적군중이 노는 역할에 대한 과학적 유물론적해명에 기초하시여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으로서의 자주적립장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들이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으로서의 창조적립장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모든 혁명투쟁은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혁명과 건설은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창조적인 사업이며 그것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인 활동을 요구한다.

자주성을 떠난 혁명투쟁이란 있을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떠나서는 도대체 인류사회의 발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다른 한편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며 자기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립장을 견지하여야만 그리고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적용하여나가는 창조적인 립장을 견지하여야만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혁명사상이다. 매개 나라의 혁명은 국제로동계급혁명의 유기적이며 불가분리의 한 구성부분이다. 개별적나라들에서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에 의하여 전반적로동계급의 국제적위업이 종국적으로 완성되어나가는것은 객관적합법칙성이다.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책임지는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견지하고 혁명의 민족적임무에 충실하지 않고서는 로동계급의 국제적임무에도 충실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근본문제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는 불패의 혁명사상이다.

우리 시대에는 서로 다른 사회력사발전조건에 놓인 지구상의 수억만 피착취계급과 피압박민족이 혁명투쟁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혁명운동의 규모가 전례없이 확대되고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으며 많은 나라에서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지고 수행할수 있는 주체적력량이 꾸려졌다.

우리 시대는 선행시기에는 제기되지 않았고 기성리론과 기존공식으로는 풀수 없는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수많이 제기하였다.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선행한 시대와 구별되는 이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창시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혁명적변혁을 가져온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하여놓은것 가운데서 많은 것들은 우리 당이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를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독창적으로 해결한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맑스나 레닌의 단계에서 제기되지 않았고 또 시대적조건으로 말미암아 예견할수도 없었던것들을 우리가 자기의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여놓았습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157~158페지)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창시하시고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밝혀주심으로써 세계에서 압도적다수를 이루는 뒤떨어진 식민지, 반식민지나라 인민들이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이룩할수 있는 대로가 환히 열리졌으며 맑스-레닌주의리론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뿐아니라 각이한 발전단계에 있는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리론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특히 수령님께서 사회주의제도수립후 혁명을 계속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로동계급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하는 길에서 거치게 되는 모든 단계의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이 전일적인 체계로 집대성되였으며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에로 가는 전인미답의 력사적로정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처럼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근본초석으로 하는 사상리론체계를 내놓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의 전체계와 내용이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사상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였을뿐아니라 주체사상을 우리 시대 혁명에서의 전형의 하나인 조선혁명의 현실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이땅우에 세기적인 변혁을 가져오게 하심으로써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시였으며 실천적모범으로 세계혁명적인민들을 승리에로 고무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지난 기간 우리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둔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그것을 모든 부문에 구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의 빛나는 열매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5페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걸어온 혁명투쟁의 전로정은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자유와 해방의 길을 개척하고 보람찬 새 생활을 창조하여온 영광의 나날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립장에서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을뿐아니라 해방후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창설하시고 미제무력침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전후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리하여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공산주의운동과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민족적독립을 이룩하는 훌륭한 모범을 창조하시였으며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힘있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공업국가를 건설하는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반제반미투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일떠선 인민들은 그 어떤 힘으로도 정복할수 없으며 제국주의침략자들과는 맞받아싸워야 하며 또 용감히 일떠서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새 사회, 새 생활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은 아직 혁명이 승리하지 못한 나라 인민들이 뚜렷한 목표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며 진정한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고귀한 경험으로 된다.

특히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당이 주체를 확립한 력사적경험은 오늘 세계인민들에게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행복이 있고 영예가 있으며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기 나라의 내부적 력량을 적극 동원한다면 어떠한 난관과 애로도 이겨내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안겨주고 있다.

실로 주체사상의 빛나는 결실인 우리 혁명의 전취물은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혁명과 건설의 본보기이며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된다.

이 모든것은 주체사상이 실천을 통하여 그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위력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라는것을 말해준다.

2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주체사상의 정당성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으며 많은 사람들속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28페지)

선행한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시대의 요구를 집중적으로 반영한 위대한 사상에 의하여 지도됨으로써 발전하며 승리한다.

독점전자본주의시기의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맑스주의가 창시되고 제국주의시대의 혁명의 요구를 반영하여 레닌주의가 창시됨으로써 국제로동계급은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혁명투쟁을 벌리였다.

수령님의 주체사상은 온갖 예속과 착취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요구하는 세계인민들의 념원과 일치하며 제국주의가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고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시대의 세계적사조로 되고있다.

오늘 주체사상은 세계인민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널리 그리고 빨리 파급되고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을 《우리 시대의 기본사조》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현대인류의 가장 완벽한 진보적사상이며 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백전백승의 사상이다.》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5대륙의 많은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위대한 혁명리론에서 사회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하는 강령적지침을 찾고있다.

세계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또한 혁명과 건설의 정확한 지도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이룩한 우리 인민의 승리와 성과에서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본보기를 보고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 지도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우리는 조선에서처럼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 《조선인민이 거둔 모든 성과와 경험은 앞으로 우리가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할 때 본받아야 할 좋은 모범으로 된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프랑스의 한 벗은 《조선의 모범은 주체의 모범이며 조선의 성과는 주체의 성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오늘과 같이 이처럼 강대해진것은 바로 주체사상의 혁명적힘의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가 《주체의 조국》으로 되고 우리 인민이 주체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의 전행정에서 위대한 비약과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국제적권위는 비상히 높아졌다.

세계의 이목은 더욱더 우리 나라에로 쏠리고있으며 주체사상과 우리의 경험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벗들은 더욱 늘어나고있다. 지난해만 하여도 정부 및 친선대표단을 포함하여 800여개의 각종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오늘 아세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구라파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여러가지 형식과 수단으로 불멸의 주체사상을 적극 보급선전하고있다.

일본, 버마, 인도, 파키스탄을 비롯한 아세아의 여러 나라들과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를 비롯한 구라파의 나라들 그리고 알제리, 말리, 수단, 페루를 비롯한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그이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대대적으로 출판하며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리론, 위대한 혁명업적과 고매한 덕성에 대하여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다.

수령님의 천재적로작들은 지난해만 하여도 세계의 수십개 나라들에서 30여개의 민족어로 수천만부나 번역출판되었으며 무려 억만부를 훨씬 넘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출판물들에 게재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이 우리 시대의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문헌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널리 출판보급되고있다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수령님의 천재적로작들과 함께 《김일성전》의 출판도 세계출판계를 휩쓸며 수억만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킨 거대한 사변이였다.

수령님의 전기는 도꾜에서 출판되자마자 광범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대중들로부터 저명한 사회활동가, 학자, 교수들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과 생활의 훌륭한 교과서로 연독하고 밤을 새워가며 학습하였으며 전례와 상상을 초월하는 독자들의 수요때문에 출판사는 전기의 제1부를 판을 거듭하여 출판하였고 련이어 전기의 제2부와 제3부를 번역출판하였다.

이어 프랑스와 영국, 미국, 파키스탄, 이딸리아, 메히꼬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에서 《김일성전》을 대대적으로 출판하였다.

오늘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등 지구상의 모든 대륙의 이르는곳마다에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 《김일성동지혁명활동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애독회》 등 여러가지 학습연구조직들이 수많이 무어져 운영되고있다.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쇼 같은데는 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을 모신 《김일성도서관》까지 꾸려져있으며 사람들은 이곳에서 나라의 진정한 독립과 번영에로의 곧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열심히 배우고있다.

오늘에 와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은 이미 소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지역적인 또는 대륙적인 공동의 행동으로 확대되고 조직화되였다.

최근년간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열렸던 외국벗들의 주체사상연구토론회들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맞으면서 레바논의 수도 바이루트에서는 중근동의 여러 나라 사회과학자들과 정치활동가들,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대표들과 김일성동지로작출판일군들을 비롯한 수많은 대표들이 모여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주체사상연구토론회》를 가지였으며 일본 도꾜에서는 도꾜지방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들의 합동연구회를 가지였고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는 이 나라들에 있는 여러 나라 투쟁단체 대표부성원들이 련합모임을 가지고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위대성에 대하여 격동된 심정으로 열렬히 토론하였다.

또한 1972년 12월 시에라 레온의 수도 프리타운에서 있은 《전아프리카김일성동지주체사상토론회》에 뒤이어 지난해 11월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쇼에서는 《중근동 및 아프리카 지역 주체사상에 관한 과학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소말리아의 수도에서 열렸던 《중근동 및 아프리카 지역 주체사상에 관한 과학토론회》는 이전에 진행된 토론회들과는 달리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이 주최가 되여 정부적행사로서 전례없이 큰 규모로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중근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벌써 국가정책작성자들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생활상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와 같이 오늘 불멸의 주체사상을

다라배우며 주체사상에서 혁명의 량식을 얻고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길에서 자기들이 나아갈 앞길을 찾는것은 세계 여러 나라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으로 되고있다.

실로 수령님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잡고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전환되고있으며 새 사회, 새 생활 창조를 위한 장엄한 혁명투쟁에로 인민들을 힘차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3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자주의 대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의 내정에 간섭하며 민족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계인민들이 주체사상을 요구하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습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8～19페지)

우리 시대는 모든 피착취, 피압박인민들이 온갖 예속과 굴종, 압박과 착취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자기 운명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하여 투쟁에 일떠선 위대한 혁명의 시대이다. 바로 우리 시대의 혁명적전환은 자주적발전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있다.

반제혁명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 결의를 가진 피압박민족들의 내부력량이며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여있지 않는 조건에서는 혁명투쟁이 승리할수 없다.

다른 나라 인민들이 피압박민족들에게 독립을 가져다줄수 없을뿐아니라 더구나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인민들에게 결코 독립을 선사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간고한 투쟁을 벌리는것을 두려워하면서 외부의 지원에 의하여 손쉽게 독립을 달성해보려는 사대주의적립장을 철저히 배격하는것과 함께 제국주의가 식민지와 예속국가들에서 자기의 지위를 스스로 내주리라고 기대하는 기회주의적립장을 철저히 반대하는것은 민족해방투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며 피압박인민들은 오직 자신의 혁명투쟁에 의해서만 자기자신을 해방할수 있다.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견결한 혁명적립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일관하고있는 근본립장이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 인민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고무되면서 반제민족해방투쟁에 떨쳐나섰으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고있다.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웰남, 라오스, 캄보쟈를 비롯하여 아세아의 광대한 지역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중근동에서 미제의 사촉을 받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무모한 침략책동을 물리치고 빼앗긴 합법적권리를 도로 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투쟁이 또한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대륙에서 미제와 서방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고 완전한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미제의 《고요한 뒤동산》, 《안전한 후방》으로 간주되여오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예속과 간섭 정책을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은 이 지역들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마지막생명선을 끊어버리고있으며 자주적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시대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촉진하고있다.

반제자주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시대적추세는 이미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벗어나 정치적독립을 쟁취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 인민들의 투쟁에서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정치적독립의 달성은 결코 민족해방혁명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것은 이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독립을 달성한 이후에도 지난날의 식민지예속국가들에는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의 잔재세력이 남아있으며 제국주의는 이미 잃어버린 저들의 옛처지를 되찾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정치적독립을 달성한 이후 혁명을 계속하여 민족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철저히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사활적문제로 나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철저한 계속혁명의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민족적독립을 달성한 인민들이 나아갈 뚜렷한 방향과 민족해방혁명을 철저히 완수하기 위한 주체적인 전략적방침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시대가 일정에 올린 절박한 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들의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를 짓부시며 제국주의와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하고 소탕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63~164페지)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신생독립국가들에서는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밝혀주신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들의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를 철저히 분쇄할데 대한 정치강령,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하기 위한 토지혁명강령과 산업국유화강령, 제국주의자들의 예속적인 《원조》를 배격하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반대하고 민족문화를 건설할데 대한 경제, 문화 건설강령을 받아들이고 자주, 자립의 길로 확고히 전진하고있다.

그리하여 아세아에서 저주로운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마지막시각을 보내고있으며 어제날 《식민지대륙》으로 불리여오던 아프리카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혁명의 대륙으로 되였고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제의 지배체제도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제3세계인민들을 제멋대로 억압하고 략탈하며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우리 시대의 국제공산주의운동도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민족부대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발전하여나갈것을 요구한다.

공산주의운동이 주로 구라파의 일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벌어지고있던 산업자본주의시기나 한 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혁명이 수행되던 지난 시기에는 많은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 아직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지고 수행할만한 독자적혁명력량으로 자라지 못하였다.

우리 시대에 와서 공산주의운동은 발전된 나라와 뒤떨어진 나라,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대다수 나라에서 모든 혁명투쟁의 전위적부대로 되였다. 매개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혁명을 책임지고 수행할만한 로동계급의

당이 꾸려졌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각이한 발전단계의 혁명투쟁이 매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우리 시대 공산주의운동의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많은 나라 공산당, 로동당들이 자주적립장과 창조적태도를 견지하고 자기 나라의 민족적특성과 력사발전조건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여러가지 혁명투쟁을 령도하여나가고있으며 전반적국제공산주의운동의 강화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에스빠냐공산당 총비서 싼띠아고 까를리요동지는자기 연설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에스빠냐공산당은 주체의 원칙에 대하여 당신들과 전적으로 일치한 견해를 가지고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의 행동규범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사고하며 자기의 혁명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인정합니다.》라고 지적하였다.

큰 나라들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길로 나아가려는 기운은 심지어 제2세계에 속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까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적지 않은 자본주의나라들이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제의 모험적인 침략정책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려 하지 않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압력을 물리치고 대내외정책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려 하고있다.

실로 위대한 주체사상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세계적사조로서 5대륙에 널리 파급되고있으며 싸우는 모든 인민들의 혁명적기치로 온누리에 휘날리고있다.

*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운동에 거대한 리론실천적공헌을 하신것으로 하여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신다.

수리아신문 《알 사우라》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신로 김일성주석님은 혁명의 세찬 조류가 홍수처럼 밀려드는 폭풍우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간의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온갖 낡은것을 짓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휘황한 길을 밝혀주는 태양이시며 암운과 비운이 드리운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서광을 안겨주며 용기와 신심을 북돋아주는 등대이시다. 그 붉은 태양은 조선반도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곳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전사로 투쟁하는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높은 긍지를 가지고 그것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리론을 전투적기치로 삼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힘차게 투쟁하여나감으로써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 굳은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우리는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나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일하며 생활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당면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모든 힘을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 총동원함으로써 주체조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길것이며 나아가서 국제혁명운동의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아가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언제나 백전백승할것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로 굳게 뭉친 불패의 대오

림 춘 추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동지적으로 굳게 뭉쳐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 같이 전진하는 화목하고 우의에 넘친 붉은 대가정속에서 살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대가정속에서 혁명적 정열과 락관에 넘쳐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에서 《속도전》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하면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비약과 혁신과 앙양을 일으키고 있다.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동지적으로 튼튼히 통일단결된 힘, 바로 이 힘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오늘의 비약과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유일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동지적단결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의 빛나는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신 숭고한 동지적단결의 고귀한 전통을 귀중히 간직하고 훌륭히 꽃피워나가는것은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달성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은 모든 승리의 담보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으며 모든 승리의 담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에서 승리하려면 혁명투쟁에 많은 사람이 참가하여야 하며 그들사이에 통일과 단결이 보장되여야 합니다. 혁명사업에 참가하고있는 사람들사이의 진정한 통일과 단결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투쟁에 참가한 사람들의 통일과 단결이 보장되여야 한다.

통일과 단결은 혁명투쟁 그자체의 요구일뿐아니라 로동계급이 첫 투쟁무대에 나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혁명투쟁의 력사적교훈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혁명적단결을 떠나서는 혁명의 승리를 바랄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투쟁의 첫시기부터 단결의 기치를 들었으며 그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 투쟁하고있다.

그런데 혁명적단결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통일과 단결은 오직 혁명투쟁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사상으로 무장하고 서로 믿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만 이루어질수 있다. 다시말하여 통일과 단결은 혁명적동지애와 공산주의적인간성에 기초하여서만 이루어진다.

동지, 이것은 같은 사상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같이 투쟁하는 사람들사이에 부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동지라는 말은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사이에 불리우는 영예롭고 고귀한 칭호이며 혁명전우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표시이다.

동지들사이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과 의지, 하나의 목적과 리상이 있을뿐 서로 다른 사상과 목적이 있을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하나의 사상은 다름아닌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이며 공통된 하나의 목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 때문에 한 혁명대오안에 있으면서 수령의 혁명사상과 아무런 인연도 없는 딴 사상을 가지고 딴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벌써 동지가 아니다.

혁명적동지애는 바로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그를 실현하는 혁명의 한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가장 고결하고 진실한 공산주의적인간애인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지들의 사랑은 사상을 공고히 하고 서로 고무하고 격려하며 호상 투쟁하여 혁명적단결을 이룩하도록 함으로써 혁명투쟁을 끝까지 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고귀한 사랑인것입니다.》

혁명적동지애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과 공산주의적도덕에 기초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공산주의적인간애이며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여러가지 사랑가운데서 가장 깊고 귀중한 사랑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귀중한 사랑이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이라는것은 오랜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체험하고 언어낸 공산주의자들의 인생관이다.

혁명의 길에 나선 진정한 혁명가는 부모의 사랑, 부모의 품을 떠나서는 살수 있지만 동지들의 사랑, 동지들의 품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다.

부모의 사랑은 주로 자식들을 육체적으로 키우는데 돌려지는 사랑이라면 동지들의 사랑은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을 보존하고 꽃피워나가며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에서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다. 동지적사랑만이 사상의지를 공고히 하게 하고 서로 고무격려하며 잘못을 호상 엄격히 일깨워주어 혁명적단결을 이룩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이며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게 한다.

부모는 많은 경우에 자식들을 낳아키울뿐이지 자식들과 함께 혁명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깊다 하여도 혁명의 한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함께 싸워나가는 혁명동지들의 사랑보다 더 깊을수 없다.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의 자주성을 여지없이 짓밟는 온갖 낡은 제도를 쳐부시고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행복한 새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몸바치는것보다 더 값있고 보람찬 일은 없다. 혁명투쟁을 떠나서는 그 어떤 개인이나 가정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혁명을 위하여 맺어지는 공산주의적인간애보다 더 숭고한 사랑이란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부자간의 사랑, 모자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친우간의 사랑도 혁명에 이바지하는 동지적인 사랑과 결합될 때에만 가장 깊고 참된 사랑으로 될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이처럼 혁명을 위하여 맺어지고 혁명에 바쳐지는 사랑보다 더 값있고 귀중한 사랑은 없다. 그렇기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동지적사랑을 언제나 첫자리에 놓고 혁명동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곤난과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며 동지적의리와 혁명적지조를 굳건히 지켜나간다.

참으로 혁명적동지애는 하나의 사상과 신념을 고수하고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추호의 동요도 없이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는 굳센 공산주의적 인간성이며 도덕이다.

혁명군대는 바로 이러한 숭고한 동지애로 굳게 결합되여야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할수 있다.

동지적으로 단합된 혁명군대만이 간고한 혁명투쟁의 길에서 고난과 시련도 함께 이기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며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 동지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군대는 간고한 투쟁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며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수 없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동지적사랑으로 굳게 단결되여 싸웠기때문에 아직 력사가 모르는 그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실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동지적으로 튼튼히 뭉쳐진 여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었으며 모든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가 있었다.

숭고한 동지애로 굳게 결합된 빛나는 전형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창건하시고 이끄신 조선인민혁명군은 숭고한 동지애로 굳게 뭉친 혁명군대의 가장 빛나는 전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에는 언제나 혁명적동지애의 고상한 미풍이 지배하고있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이 류례없이 간고한 투쟁이였으나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적동지애의 공산주의적미풍을 높이 발양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하여 싸웠기때문에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은 인민군대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6페지)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을 시작하고 그 힘에 의거하여 승리한 혁명전쟁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튼튼히 단결하여 혁명적동지애의 미풍을 높이 발양함으로써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고 강도 일제와 싸워이긴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이였다.

우리는 그 어느 혁명전쟁력사에서도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과 같이 동지적단결의 힘을 발휘한 실례를 모르고있으며 조선인민혁명군처럼 동지적으로 굳게 단합된 혁명군대를 알지 못하고있다.

조선인민혁명군을 동지적으로 튼튼히 뭉친 불패의 혁명대오로 만든 힘은 바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이의 위대한 혁명적사랑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이 일대 시련을 겪고있던 엄혹한 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을 온 누리에 뿌려주심으로써 갈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던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하나의 혁명대오에 굳게 결합시키시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혁명로선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 지난 시기 정확한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이 없어 혁명투쟁에서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어오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았으며 그들을 반일성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로 나아가며 수령님의 령도를 받아야 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하나의 공통된 신념을 가지고 그이께서 추켜드신 주체의 기발아래 뭉치게 되였다.

그들은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위대한 수령으로 우러러모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이를 절대화하였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조로, 신념으로 삼고 살며 싸웠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주체사상을 자기의 유일한 사상의지로 지니고 모든 사고와 행동에서 철저히 의거하여야 할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았으며 주체사상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몰랐고

그와 어긋나는 사소한 경향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다.

그들은 수령님을 끝없이 높이 모시려는 불같은 충성심을 안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 명령과 지시들을 무조건 접수하였으며 그것을 옹호관철하는데서 높은 헌신성을 발휘하였다.

수령님을 절대화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조화하며 그이의 명령지시를 관철하는데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투쟁과 생활의 확고부동한 원칙이였다.

항일무장대오안에 주체의 사상체계가 철저히 섬으로써 인민혁명군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기초로 하고 수령님을 유일중심으로 굳게 통일단결될수 있었으며 하나의 사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전일적인 전투대오로 될수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조선인민혁명군은 무장대오를 와해시키려는 일제침략자들의 교활한 책동도, 민족배타주의자들의 암둔한 처사도,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악랄한 파괴책동도 다 물리치고 대오의 통일단결을 굳건히 지켜낼수 있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조선인민혁명군의 통일단결은 철두철미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 혁명적단결이였으며 동지적단결이였다.

실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조선인민혁명군을 하나의 혁명대오에 튼튼히 묶어세운 통일단결의 기치였으며 그들을 사상의지적으로, 동지적으로 굳게 결합시킨 유일한 사상적기초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을 동지적뉴대로 튼튼히 단합시킨 힘은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함께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적사랑에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전사들을 간고한 혁명의 한길에서 같이 싸울 혁명동지로, 혁명전우로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였다.

한홉의 미시가루에 대한 이야기와 단 한장밖에 없는 모포마저 나어린 대원들에게 돌려주시며 손수 전사의 도로기에 짚을 갈아주신 이야기를 비롯한 수많은 이야기에서 알수 있는것처럼 대원들에게 돌려주신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극진한 배려는 공산주의적인간성의 모범으로서 한없이 크고 따사로왔다.

쉰개의 가루봉지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을 놓고보더라도 혁명전사들에 대한 수령님의 지극하고 세심한 사랑은 가까이에 있는 대원들에게는 물론 멀리 떨어져 싸우는 대원들에게까지 한결같이 미치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사들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기에 수십만리 불길과 눈보라를 헤치시며 원쑤와 생사를 판가리하는 그 간고한 항일의 나날에도, 적탄이 비발치듯하는 어려운 전투마당에서도 자신의 위험보다먼저 대원들의 안전을 생각하시고 몸소 진두에서 혈로를 헤쳐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한명의 대원도 뒤떨어질세라 일상적으로 따뜻이 보살피시며 그들의 사소한 결함에 대하여서도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프게 여기시고 제때에 일깨워주시며 엄한 비판도 하시였으며 과오를 범한 대원들에게는 그가 영원히 한혁명대오에서 같이 싸워나가도록 꾸준히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였으며 혁명적의리로 대하시였다. 실로 혁명전사들에 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공산주의적인간성은 한량없이 따사로우면서도 혁명적이고 원칙적인 사랑이였다.

수령님의 이러한 뜨거운 사랑과 공산주의적인간성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가슴을 수령님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으로 끓어넘치게 하였으며 대오의 전투적위력과 단결을 보장하는 힘의 원천이였다.

그들은 수령님께 자기의 모든것을 의탁하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치였으며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무한히 경모하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이를 목숨으로,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옹호보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신념화되고 신조화된 불같은 충성심을 지닌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오직 살아도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기꺼이 바치겠다는 일념으로 살

며 싸웠다. 하기에 그들은 가렬처절한 전투와 행군시에도 사령부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였고 모진 추위와 굶주림이 엄습하는 시련속에서도 수령님의 건강을 먼저 념려하였으며 원쑤들의 칠창속에서 최후를 마치는 순간에도 그이의 혁명전사로 싸우다 죽는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생각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수령님의 두터운 신임과 따뜻한 은정을 가슴뜨거이 느끼고 그를 마음속깊이 간직하였기 때문에 사령부와 멀리 떨어져 헤여나기 어려운 모진 곤경에 빠져서도 기어이 수령님의 품으로 돌아왔으며 혁명의 전도가 암담하게 느껴지는 준엄한 시기에도 그이께서 이끄시는 혁명대오에서 한 사람도 떠나지 않았다.

이처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혁명군의 통일단결은 혁명전사들에 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수령님에 대한 신념화되고 신조화된 혁명전사들의 불타는 충성심이 하나로 결합되여 수령님과 혁명전사들이 완전히 혼연일체를 이룬 가장 고결하고 공고한 통일단결이였다.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동지애의 숨결로 살며 싸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적사랑과 공산주의적인간성의 모범을 본받아 동지적사랑과 공산주의적도덕의 미풍을 훌륭히 발휘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에서 장관과 병사들사이의 관계는 친형제들보다 더 화목하였으며 상하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결되여있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67～68페지)

지휘관들은 대원들과의 관계를 단순한 상하관계로서가 아니라 동지적관계로 보고 그들을 언제나 친형제와 같이 대하였으며 대원들은 지휘관들을 진심으로 따랐다.

그들은 서로 굳게 의지하고 존경하였으며 호상 아끼고 사랑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먼저 맡아나섰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 속에서 인민혁명군대오안에서 상하일치, 관병일치의 고상한 미풍이 확립되고 숭고한 동지적사랑이 빛나게 꽃피여갔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동지적사랑은 열렬하면서도 가장 원칙적이고 혁명적인것이였다. 그들은 동지들의 잘못에 대하여 자기 잘못처럼 가슴아프게 여기고 제때에 충고도 하고 비판도 하며 채찍도 주어 항상 대오안에 혁명적 단결을 보장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통일단결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사상적기초로 하는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 통일단결이였으며 수령님과 혁명전사들이 완전히 혼연일체를 이루고 상하가 동지적뉴대로 튼튼히 결합된 가장 숭고하고 고결한 통일단결이였다. 그것은 또한 장구하고도 간고한 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이 굳세게 다져진 강철같은 통일단결이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통일단결된 혁명군대의 전형으로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이와 같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동지적으로 굳게 결합되였기때문에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의 빛나는 전통은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단합시키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이 고귀한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수령님을 유일중심으로 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확고히 이룩되고 모든 사람들이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바로 이 힘에 의거하여 해방직후의 복잡한 환경속에서 안팎의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그처럼 짧은 기간에 거대한 사회경제적개혁들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으며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전쟁에서 놈들의 코대를 꺾어놓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그리고 전후 재더미속에서 남들이 수백년 걸려 해놓은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불과 14년동안에 자랑스럽게 수행할수 있었다.

우리는 지난 기간 간고하고도 보람찬 혁명투쟁의 길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면서 만리 앞으로 달려나왔다.

그러나 우리가 갈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

오늘 우리앞에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도발책동과 민족분렬정책을 짓부시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야 할 어렵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웅대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단숨에 점령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하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락원을 건설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조국통일의 험난한 길을 용감히 개척해나가며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적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의 유일한 사상적기초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우리의 혁명대오안에 주체형의 피만이 흘러야만 혁명적동지애가 높이 발양될수 있고 혁명적단결이 더욱 강화될수 있다.

우리의 혁명적단결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함께 그이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한 통일단결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은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실성을 척도로 하여 동지적관계를 맺어야 하며 바로 그렇게 된 때 우리의 동지적단결은 가장 힘있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로 될것이다. 우리모두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일편단심 수령님을 절대화하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야 하며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그이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영원히 충실하여야 할것이다.

동지적단결은 어디까지나 혁명적이며 원칙적인 단결로 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은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동지들속에서 나타나는 결함에 대하여 제때에 권고도 하고 비판도 주어 고쳐줌으로써 혁명동지들사이의 혁명적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혁명적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당원들과 일군들, 인민군지휘관들이 혁명적동지애의 모범을 보이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원들과 일군들, 인민군지휘관들은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동지애의 모범으로 대중과 군인들을 이끌어나감으로써 그들속에서 혁명적인 동지적사랑의 고상한 도덕적품성이 높이 발양되게 하여야 하며 온 사회에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적사랑과 생기발랄한 청춘의 활기와 기백이 언제나 차고넘치게 하여야 한다.

모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그이께서 이룩하신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의 빛나는 전통을 더욱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더 한층 강화하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자.

당의 혁명적인 문예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

리 창 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적문예사상의 빛발아래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세계최고봉》의 예술,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 《현대세계예술을 대표하는》 주체문학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혁명과 투쟁으로 들끓는 현시대의 인민들에게 혁명적인 진로를 밝혀주는 우리식의 진비 새로운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되여야 한다는 당의 결심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그토록 념원하던 참다운 문학예술, 근로인민에게 진정으로 복무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한 당의 지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한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을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온 세상에 자랑하고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당은 혁명적문학예술의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술분야에서도 자체의것을 발전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38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당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우리의 문학예술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혁명적인 문학예술, 다시 말하여 조선인민에게 복무하고 조선혁명을 촉진하며 그것으로써 세계혁명에 이바지하는 우리식의 문학예술로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았다.

이 사상은 우리 문학예술이 인민대중을 자연과 사회와 력사의 중심에 놓고 보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인 내용을 담으며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비위에 맞고 리해하기 쉬운 민족적형식을 옳게 살린 인민적이고 통속적인것으로 되게 할데 대한 사상이다. 이 사상은 또한 창작리론과 실천, 창작원칙과 지도방법, 창작수단, 예술실천방도에 이르는 문학예술사업의 모든 부문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짓부시고 주체의 원칙과 립장, 주체의 방법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사상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문학예술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주체의 조국》으로 된 우리 나라에 맞는 문학예술로,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인민에게 복무하는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만들데 대한 당의 원대한 구상이 반영되여있다. 여기에는 또한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철저히 옹호발전시키려는 당의 혁명적의지가 반영되여있다.

참으로 우리식의 문학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사상은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사상으로서 우리 문학예술사업의 강령적지침이다.

당은 우리식으로 문학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이 독창적인 사상에 확고히 의거하여 우리 문학예술사업의 전반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었다.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문학예술전통이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력사적뿌리로, 높은 사상예술성의 표본으로 되며 우리 당과 인민의 고귀한 혁명적재부로 된다는 심오한 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내놓았다.

혁명적문학예술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 발전의 근본요구이다.

당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자기의 력사적위업수행에 복무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을 건설하자면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혁명승리의 길이 개척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기의 혁명적문예전통을 똑바로 찾고 옳게 이어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혁명적문학예술의 대를 옳바로 세워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공산주의 위업에 충실히 복무할수 있다.

특히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을 똑바로 찾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을 계속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 당은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각 분야에 옮기는것을 일관한 방침으로 내놓았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본보기이며 사람들에게 혁명과 투쟁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공산주의적인간학의 전형이다. 그러므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각 분야에 옮김으로써만 우리의 문학예술을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주체적인 문학예술로 힘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옮기는데서 견지해야 할 방침을 제시한데 기초하여 원작에 무조건 충실할데 대한 문제, 매 예술종류들의 특성에 맞게 형상을 심화시킬데 대한 문제 등 구체적인 창작실천에서 제기되는 독창적인 리론들을 밝혀주었다.

혁명적문예전통을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주체적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며 혁명전통을 부정말살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분쇄하고 혁명적문예전통을 철저히 옹호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탁월한 방침이다.

문학예술에서 유일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당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의 주체적발전을 담보하는 관건적문제이다.

그것은 바로 이 문제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근로자들을 철저히 무장시키며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의 기본요구를 해결할수 있는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의 근본원리이며 문학예술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되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데 있다.

당에서는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높이는 기본고리로 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고 문학예술창작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할데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였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창작의 기초이며 창작전과정의 지침이며 창작총화의 기준이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절대화하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창작실천에서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에서 부르조아사상, 온갖 기회주의사상 등 그 어떤 사소한 이색적인 표현도 허용하지 않고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의 유일사상체계를 수립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문학예술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당의 사상은 우리의 혁명

적문학예술의 사명을 다할수 있게 하는 탁월한 사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건설과 창조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여 또한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밝힌 창작실천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우리 문학예술의 주체적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문학예술분야에 구현하여 우리 당은 우선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을 새롭게 독창적으로 해명하였다.

당에서는 문학예술이 진실로 생활과 투쟁의 교과서로 되는 인간학이 되자면 사람일반이 아니라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자주적인 인간을 중심에 놓고 그리야 하며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에 예술적으로 해답을 주는 그러한 문학예술이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공산주의 새 인간학에 관한 당의 사상에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철학의 근본요구가 반영되여있다.

공산주의 새 인간학은 문학예술의 묘사대상인 인간과 그의 사회적가치를 력사상 처음으로 가장 정당하게 주체철학에 기초하여 묘사할수 있게 하며 생활의 본질을 진실하고 심오하게 묘사할수 있는 근본원칙과 방법론을 준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자주적인 인간을 그리야 하며 그들의 모든 활동에서 사상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것을 강조해야 한다.

자연과 사회에서 인간의 힘의 위대성은 자주성으로 일관된 그들의 정신력에 있으며 인간의 고상한 사회적가치는 바로 그들의 사회정치적생명에 있다.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인간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을 그들의 정신적위대성에서 보고 력사를 창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근로대중의 역할을 사상의식의 적극성, 진보성에서 찾으며 인간을 온갖 낡은 사상의식의 구속에서 해방하며 그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적극 불러일으키는 바로 이기에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혁명적본질이 있다.

이로부터 우리의 문학예술은 우리 인민들의 가장 고상한 정신적특질인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혁명위업에 대한 높은 자각성, 혁명적락관주의 등을 보여줌으로써 거대한 사상정신적감화력을 가지고 대중을 혁명승리에로 불러일으킨다.

공산주의 새 인간학에 대한 당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우리 문학예술을 인간과 인간생활의 호상관계,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성격묘사의 제원칙들과 문학예술창작의 구체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 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리론은 문예학에서의 새로운 발견이며 우리 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과 맑스-레닌주의문예학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종자라는것은 헐하게 말해서 작품의 기본핵인데 이것은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근본문제로 제기된다. 작품에는 반드시 창작가가 개성적으로, 독창적으로 발견하고 심어놓은 자기의 종자가 있어야 하며 거기에 아름다운 형상의 꽃이 만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밝히고있는바와 같이 종자란 주제와 소재에 대한 문제이며 작품의 사상적핵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 관한 문제는 문학예술창작의 어느 개별적인 범주에 대한 문제인것이 아니라 그것은 소재의 선택으로부터 작품의 읊음새와 성격창조의 전반적과정을 하나의 유기체로 통일시키는 기본고리에 대한 문제이며 작품의 사상예술적질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을 밝혀주는 기초에 관한 문제이다.

종자에 관한 리론은 문학예술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고

있는것으로서 작가, 예술인들을 사상미학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로 힘있게 추동한다.

문학예술창작에서 종자를 바로쥐여야 작품에서 작가의 사상적의도를 명백히 전달할수 있으며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하고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킬수 있으며 작품창작에서 높은 《속도전》을 전개할수 있다.

당에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문학예술창작에서 《속도전》에 관한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의 근본원칙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작품창작에서 속도가 빨라도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것은 당이 새롭게 창조한 주체적인 창작원칙이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종자를 쥐고 작품에 대한 파악이 생긴 다음에는 높은 《속도전》을 전개하여야 하며 《속도전》을 해야 작품의 질도 높아진다. 이것은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속도전》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를 두고있으며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을 반영하고있다. 종자의 옳바른 선택과 작품에 대한 완전한 파악, 창작가들의 높은 창작적열정과 기량, 옳은 조직지도사업 등을 전제로 하고있는 《속도전》은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가장 짧은 기간안에 창작하게 한다.

《속도전》은 또한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낡은 사상을 철저히 뿌리빼고 혁명적인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화하는 중요한 실천적방도로 된다.

우리 당은 이밖에도 창작과정이 혁명화과정으로 되여야 한다는 사상, 새로운 창작체계와 창작지도원칙에 관한 사상을 비롯하여 문학예술에서 인간생활을 진실하게 그릴데 대한 문제, 규모가 대작이 아니라 내용이 대작으로 되여야 한다는 문제, 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사상과 리론들, 문학예술의 모든 종류와 형태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적창작실천론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당이 내놓은 독창적인 문예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건설과 창조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다 포괄하는 백과전서이며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있는 주체적문예학설이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주체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담보하는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밝혔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였다.

당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작가, 예술인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큰 힘을 기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품을 쓰는 사람들이 당정책을 몰라서도 안되며 혁명적원리를 몰라도 안됩니다. 사람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혁명적작품을 쓸수 있습니다.》

작가, 예술인 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발전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예술, 인민의 정서와 감정에 맞고 사상예술적수준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우리 당은 우선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당의 유일적인 지도를 철저히 실현하도록 하였다.

당에서는 당원들과 예술인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며 오직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모든 문학예술사업을 해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부문에 대한 유일적인 지도를 실현하는 사업과 함께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전면적으로 조직지도하였다.

당에서는 우선 전체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절대화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조화, 신념화하도록 하였으며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튼튼히 세우도록 교양하였다.

당에서는 작가, 예술인들에게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목숨도 기꺼이 바치며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하는것은 그것이 비록 사소한 현상일지라도 추호도 양보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일편단심 깨끗한 마음으로 수령님을 모시는것을 최대의 영광,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도록 키워주었다.

이와 함께 당은 작가, 예술인들이 예술에 대한 옳은 관점과 혁명적인 태도를 가지고 창작하도록 교양하였다.

당에서는 작품을 창작하고 형상하는 과정은 곧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척도를 검증받는 과정이라는것을 밝히고 창작가들이 당의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포착하고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 바로 창작가의 태도이며 본분이라고 가르치였다.

창작생활에서는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바치는 충성의 열정을 가지고 혁명적예술인의 량심으로 문학예술을 창작해야 한다.

당에서는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일관된 높은 창작적열정과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끝없는 사랑, 바로 여기에 예술적천재의 기초가 있다는것을 밝히고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 열정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예술에 대한 당의 이러한 혁명적인 태도와 립장은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미학적관점의 기초에 놓여지고 그들을 사상예술적수준이 높은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창작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당은 또한 작가, 예술인들을 예술에 대한 옳은 립장과 태도를 가지도록 교양하는 한편 그들의 예술적기량을 한계단 높이는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지도하였다.

작가, 예술인들이 예술적기량을 높이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이는 선결조건의 하나이다. 당에서는 수령님의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보답하자는 전투적인 구호를 제시하고 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적준비와 함께 기량을 높이는 문제를 당면한 예술활동을 통하여 관철하도록 하였다.

당이 가르친바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준비된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 창작가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생활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높은 예술적기량을 가져야 우리 혁명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문예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이로부터 당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현실에 침투하여 생활을 다방면적으로 깊이있게 체험할뿐아니라 풍부한 지식과 예술적기량을 높이는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었다.

이와 함께 당은 집체창작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면서도 개별적예술인들의 개성적특징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

당에서는 작가, 예술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조직지도하였다.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하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을 혁명화하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창작가나 배우들이 혁명가답게 생활하여야 하며 창조과정이 곧 혁명가로 되는 과정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구현하여 당에서는 작가, 예술인들에게 일생동안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하여나아가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혁명적예술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동시에 행복이며 영광이라고 가르치고 창작사업이 곧 혁명화과정으로 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었다.

창작과정은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이며 낡은 사상을 극복하는 투쟁이다.

우리 당은 창작과정에 정치적조직생활과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작가, 예술인들이 자체수양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그들속에서 리기주의, 자유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고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세우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창작과정은 단순히 예술적형상을 창조하는 과정이 아니라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의식을 높이고 자신을 혁명화하는 과정으로 되였다.

당에서는 또한 새로운 창조체계와 창작지도원칙을 세우고 그에 립각하여 창작활동을 벌리도록 이끌어주었다.

우리 당은 정치사업을 앞세워 모든 일군들과 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높은 자각적열성과 집체적지혜를 발휘하여 당이 준 창작임무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도록 하였다.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새로운 창조체계는 지난날 문학예술창조에서 몇몇 개별적지도일군들의 주관과 독단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되던 낡은 사업방법의 잔재를 철저히 없애고 당위원회가 예술창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는 정연한 사업체계이다.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문학예술사업에 철저히 구현한 새로운 창조체계를 세워주었을뿐아니라 창작지도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지도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었다. 당에서는 작품창작에서 당정책이 옳게 구현될수 있도록 당적지도와 형상적지도를 강화하며 창작가들이 대담하게 창작할수 있도록 담을 키워주며 계발식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원칙적문제를 제시하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비롯한 수많은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창작을 현명하게 지도하였다.

당에서는 영화부문에 대한 정력적인 지도를 통하여 우리 나라 문학예술부문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경험에 기초하여 만수대예술단을 우리 나라 음악무용예술의 본보기단체로,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전형적인 혁명조직으로 꾸려주고 그 모범을 창작집단전반에 일반화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의 집단으로 튼튼히 꾸려졌다.

주체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력적이고 현명한 지도는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배려와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우리 인민에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어버이사랑과 공산주의적덕성을 그대로 체현하고있는 당은 수령님께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 베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두터운 배려가 제때에 정확히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돌려주었다.

당에서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금싸라기처럼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그들의 창작활동과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늘 보살펴주었다. 당은 우리 문학예술을 세계1등급의 문학예술로,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만들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부문에서 요구되는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제때에 풀어주었다.

우리 당은 영화예술인들이 자기의 재능과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여 사상예술적수준이 높은 작품을 만들어낼수 있

도록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세계최고급의 기술장비와 문화설비를 갖춘 문화전당으로 꾸려주고 만수대예술단과 《피바다》가극단을 비롯한 전국의 예술단체, 문화기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해주었다.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우리 당의 사랑과 배려에는 끝이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탁월한 지도와 두터운 배려에 무한히 고무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작품창작에서 계속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고 있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체현한 당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그 어느 력사적시기에도 비할수 없는 위대한 비약과 찬란한 개화발전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문학과 예술은 찬란히 꽃피고있습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참말로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되였으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30페지)

당의 지도밑에 지난 기간 우리의 문학예술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의 하나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가극, 소설작품으로 옮기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한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이 여러가지 예술형태에 훌륭하게 옮겨짐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은 혁명적문예전통을 계승한 우리식의 혁명적문학예술로 더욱 빛나게 개화발전하였다. 이리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오늘 우리 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혁명의 교과서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고있다. 또한 그것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불멸의 기치로 되고있다.

당의 지도밑에 우리의 혁명적영화예술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적영화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새로운 사상과 리론을 독창적으로 밝히고 창작실천을 현명하게 지도함으로써 영화예술을 우리 문학예술전반을 발전시키는 본보기로, 세계혁명적영화예술의 기치로 되게 하였다.

당의 지도밑에 우리의 영화예술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을 수록한 우수한 력사기록영화와 현지지도영화들을 내놓았다.

당의 지도밑에 지난 기간 우리의 영화인들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영화로 만들었으며 《한 지대장의 이야기》, 《마을사람들속에서》, 《유격대의 오형제》 등 혁명전통주제의 대작들과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 《성장의 길에서》, 《사회주의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 등 조국해방전쟁과 조국통일주제의 혁명적영화들을 창작하였다.

또한 우리의 영화인들은 《꽃피는 마을》, 《로동가정》, 《압연공들》을 비롯한 현실주제의 대작들과 《사과딸 때》, 《포구의 처녀》, 《우리 렬차판매원》, 《처녀지배인》 등 여러가지 양상의 아담한 영화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이러한 영화작품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을 촉진하고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교양하며 온 사회를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당의 지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한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에서 《피바다》식혁명가극의 탄생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혁명과 투쟁으로 충만된 현시대의 요

구를 반영하여나온 《피바다》식혁명가극은 그 내용의 혁명적성격에 맞게 형식도 인민적이고 민족적이며 통속적이고 현대적이다. 절가를 가극음악의 기본형상수단으로 하였으며 방창을 새로 도입하고 활용한 《피바다》식혁명가극은 립체적인 무대미술과 우아하고 부드러운 무용 등 모든 형상수단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종합예술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가극으로 만든 혁명가극 《피바다》, 《꽃파는 처녀》를 비롯하여 《밀림아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 등 《피바다》식혁명가극은 세계혁명가극발전의 불멸의 기치로서 가극사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당의 지도밑에 우리 문학예술은 조선화를 토대로 하는 주체적인 미술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선명하고 간결하며 힘있는 조선화는 우리 인민이 사랑하는 전통적인 미술형식이다.

민족회화인 조선화에 중심을 두고 그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방침이 관철된 결과 우리의 미술은 조선화의 고유한 전통적화법에 기초하여 더욱 발전하게 되였다.

조선화 《묘소 기관총을 잡으시고》, 《적의 포화속을 뚫고 신입대원이 분실한 권총을 찾아주시는 김정숙동지》, 《남강마을의 녀성들》 등은 그의 대표적실례로 된다.

이와 함께 미술분야에서는 《만수대대기념비》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세계1등급의 기념비로 건립하였으며 평양지하철도 벽화와 같은 대서사시적화폭 등을 창조하였다.

당의 지도밑에 우리의 창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혁명가정을 소설화하는 력사적인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 소설의 특성을 잘 살려 장편소설로 옮겨졌다.

우리의 창작가들은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1932년》과 《혁명의 려명》을 비롯하여 장편소설 《만경대》, 《배움의 천리길》, 《력사의 새벽길》과 전기소설 《조선의 어머니》를 훌륭하게 창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가정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나온 이러한 작품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무기로 복무하고있다.

우리의 창작가들은 또한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을 비롯하여 《조선의 어머니》, 《충성의 노래》 등 수많은 혁명가요들과 《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 《사과풍년》 등 사상예술성이 높은 무용작품들을 창작하여 온 세계에 주체예술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오늘 세상사람들은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을 두고 《조선예술은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창조된 가장 뛰여난 미적창조물, 인류가 쌓아올린 예술탑의 정점에서 찬연히 빛나는 황금의 별이다.》, 《김일성원수님의 명합은 대양의 해발처럼 영원히 빛나고 그 해반속에 주체예술은 별처럼 반짝인다.》라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있다.

참으로 우리 나라는 인류가 아직 알지 못하는 《예술의 왕국》, 《20세기 사회주의문예부흥의 발원지》로 되였다. 그러기에 세상사람들은 우리 주체문학예술의 화원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직접적지도에 대하여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적문예사상의 빛발아래 조선의 사회주의문학예술은 활짝 꽃피어났다.》, 《조선의 문학예술을 지도하시는분은 세계가 일찌기 알지 못한 위대하고 천재적이며 가장 다방면적인 스승이시다.》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주체의 조국에서 사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지도밑에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워나갈것이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사회주의 대건설전투에서 나타나야 한다

고　승　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지금 전당, 전국,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여 치렬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5개전선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진격의 발구름소리 지축을 울리고 온 나라 방방곡곡은 말그대로 불도가니마냥 혁명적앙양으로 들끓고있다.

드높은 승리의 신심과 들끓는 전투적기백으로 돌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산이라도 떠옮기고 바다라도 메울 충천한 기세로 끊임없이 새 기적, 새 기록을 창조하면서 세월을 주름잡아 질풍같이 달려나아가고있다.

위대한 비약과 혁신으로 새날이 밝고 자랑찬 승리와 빛나는 위훈으로 또다시 새날을 맞이하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세찬 불길속에서 《사회주의자력갱생의 나라》인 천리마조선, 주체조선의 위용은 날마다, 시간마다 더욱더 웅대해지고 있다.

사회주의대건설의 장엄한 진군길에서 일어나고있는 이 위대한 변혁들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수령님에 대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끓어넘치는 충성심이 가져온 열매이다.

사회주의대건설사업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주는 영예롭고 보람찬 전투이다

공산주의자의 가장 본질적인 징표는 혁명을 위하여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것이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공산주의자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으로 된다.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에서 나타나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에 충실하다는것은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만세〉만 부르는 사람이 당에 충실한것이 아닙니다. 만세는 안불러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 자기 몸을 희생시킬지언정 당정책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그런 사람을 당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378페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진정으로 충실하려면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내야 한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말로써는 아무리 수령님께 충실하겠다고 하여도 혁명과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서는 도대체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말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의 최고체현자이시며 수령님의 교시는 우리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조직적의사이다. 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바라시는것은 바로 우리 당과 인민의 념원이며 수령님의 높은 뜻은 우리 당과 인민의 의지이다.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은 곧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옹

호하고 그 념원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훌륭히 관철함으로써만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진실로 수령님께 충실할수 있다.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실지 사업의 성과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사람만이 참말로 수령님께 충실한 사람이다.

오늘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 수령님께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며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검열받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돌격전에 용감히 떨쳐나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남김없이 나타내야 한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웅대한 설계도는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우리 혁명을 새로운 높이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투적강령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비할바없이 강화하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옴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며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와 신심을 안겨주는 위대한 투쟁의 기치이다.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대건설사업의 웅대한 설계도가 빛나게 실현될 때 우리 나라는 이르는곳마다에 대공업기지들로 숲을 이루고 그것은 억년 드놀지 않는 바위와 같이 뿌리를 박게 될것이며 세계적인 공업강국의 높이에서 주체조선의 위력을 만천하에 떨치게 될것이다. 그때에 가서 우리 나라의 공장과 협동벌, 도시와 농촌은 현대적인 기계수단들로 뒤덮이여 다시한번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될것이며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은 훨씬 문명하고 윤택하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계급없는 사회주의지상락원을 가까이 바라볼수 있는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게 될것이다.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강령, 이것은 실로 우리 조상들이 몇천년을 두고도 해내지 못한 아름찬 민족사적대업을 불과 몇해라는 짧은 기간에 해제껴 우리 나라를 기세적으로 일약 세계1등급의 나라로 되게 하는 위대한 강령이다.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무궁토록 번영할 조국의 기둥을 억세게 박고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건설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우며 비할바없이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튼튼히 다지게 될 때 우리의 후대들은 더욱 행복한 시간을 물려받게 될것이며 로동당시대에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인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불사신마냥 용감히 떨쳐나서 이룩한 영웅적위훈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길이 전하여 갈것이다.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려 우리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이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게 될 때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이 더욱 커지게 될것이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조선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은 비상히 높아지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같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게 될것이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사회주의과학생생의 나라》인 천리마조선, 주체조선의 자랑찬 모습에서 더욱 큰 신심과 용기를 얻게 될것이다.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기 위한 물질적요새를 튼튼히 쌓는 자랑찬 과정으로 될뿐아니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시키는 보람

찬 과정으로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 배양하여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되게 하는것이다.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근본요구이며 기본핵으로 된다.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정신으로 들끓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세찬 불길속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서의 정신도덕적풍모를 더욱 훌륭히 갖춤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다그쳐나가게 된다.

참으로 오늘 우리는 자기의 영웅적투쟁으로 조국청사에서 새로운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의 시대를 펼쳐놓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와 혁명적기상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격동적인 시각에 살고있으며 시대와 혁명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있다.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웅대한 강령이 실현되여 우리 조국이 더욱 웅장한 위용을 떨치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 심장의 붉은 피가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고 온 몸에서는 끊임없이 새 힘과 용기가 솟아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로동당시대에 태여나 그이의 혁명전사로 살며 일하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수령님께서 부르시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돌격전에 떨쳐나서 몸바쳐싸우는것보다 더 큰 영예와 자랑은 없다.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워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이 있는것이다.

지금 당은 당면하여 전당, 전국, 전체 인민이 단라붙어 사회주의건설의 5개진선을 힘있게 지원할것을 호소하고있다.

우리는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의 5개진신을 힘있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겨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 적극 떨쳐나서 수령님께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바쳐싸워나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검열받아야 한다.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원칙을 높이 발휘해야 한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수령님께 진정으로 충실하려면 수령님을 절대화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신조화하고 수령님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며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싸워나가야 한다. 이것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요구이며 기본척도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며 우리 인민의 운명을 이끌어주시고 그 찬란한 미래를 마련해주시는 수령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이 세상에서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워야 한다.

대를 이어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며 수령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는 절대화의 정신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추호도 어길수 없는 철칙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가장 깨끗하고 가장 뜨거운 충성심으로 수령님을 우러러 높이 모시야 하며 수령님의 교시집행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남김없이 발휘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다시말하

여 당성은 무엇보다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22페지)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것을 무조건 집행해나가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의 가장 고귀한 품성이다.

우리는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칙으로 삼고 일해나갈 때 수령님께 끝까지 충실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수령님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킨다는것은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며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 조건타발도 없이 무한한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집행해나가는것을 말한다.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 그이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교시에 대하여 그 어떤 흥정도 할수 없으며 오직 그것을 제때에 무조건 집행할 의무만 있을뿐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수령님의 명령지시라면 물과 불 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원칙으로 살며 일해야 한다.

자나깨나 오로지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며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이라는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온갖 난관과 애로, 희생을 무릅쓰고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과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내는 사람들만이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친위대, 결사대라고 말할수 있다.

수령님의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은 실로 무에서 유를 만들고 불리한것을 유리한것으로 전변시켜 위대한 비약과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게 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류례없이 어려운 조건에서 총검의 숲을 헤치고 혈로를 개척하여 조국광복의 새날을 맞이한것도,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인민군용사들이 포연탄우불비속을 뚫고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적의 화구를 막아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놓은것도 그리고 전후 온 나라가 재더미로 된 페허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거연히 일떠서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고 우리 나라를 짧은 기간에 오늘과 같은 강유력한 《사회주의자력갱생의 나라》로 전변시킨 기적을 창조한것도 다 수령님께 모든것을 의탁하고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무조건 관철해내고야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요불굴의 강의한 혁명정신이 낳은 빛나는 열매인것이다.

이렇듯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할 때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무비의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할수 있는것이다.

류례없이 거창하고 방대한 오늘의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원칙을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살며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모든 부문, 모든 초소에서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과업을 한치도 드팀없이, 한순간도 지체함이 없이 무조건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를 다그쳐나가야 한다.

수령님께서 《영웅소대》, 《공산주의소대》로 높이 평가하신 룡양광산의 금산광구 7호굴착기소대 전투원들의 혁명적

투쟁정신과 생활기풍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벌려나가는데서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모범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룡양의 영웅들처럼 수령님의 교시집행에서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칙으로 삼고 혁명적으로 일하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영웅소대》, 《공산주의소대》가 끊임없이 나오게 될 때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는 더 빨리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원칙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신조화할 때만이 높이 발휘될수 있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신조화한다는것은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업과 생활에서 유일한 지침으로 삼으며 그 어떤 불건전한 사상경향으로부터도 수령님의 사상을 견결히 옹호하며 오직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받들고 그대로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한다는것을 말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교시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모든 행동의 지침이며 그들에게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는 유일한 사상정신적량식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신념화하고 확고부동한 혁명적세계관으로 만들어야만 수령님의 사상대로 숨쉬고 수령님께서 요구하시는대로 행동할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우리의 심장이 언제나 주체사상으로 고동치게 하며 온 몸에 오직 주체형의 붉은 피만이 세차게 흐르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진심으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따르며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할수 있다.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속도전》을 요구하는 대진군운동이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우리는 남들이 한걸음 걸으면 백걸음, 천걸음으로 내달려 어제가 옛날로 되고 래일의 리상이 오늘은 현실로 되게 하는 비약을 끊임없이 일으켜야 한다. 실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하루는 천금보다 귀중하며 우리의 진군길에서는 1분1초가 새롭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속도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우리의 전진속도를 최대한으로 다그쳐야 한다.

당에서 제시한《속도전》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조직지도사업을 이에 안받침해야 한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사상문제, 다시 말하여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는 그들이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정열로 가슴불태울 때만이 높이 발휘될수 있다.

그러므로《속도전》을 어떻게 벌리는가 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께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으로 되며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대건설전투승리의 중요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하며 그것을 실천투쟁속에서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 자기 당 정책으로 전당을 무장시키고 모든 당원들을 수령과 당중앙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사업을 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성과여부는 결국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실속있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기본을 철두철미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는데 두고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영원히 충성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수령님께 충성다하기 위하여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일대 혁명운동인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 결코 낡은 사상과의 투쟁이 없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다.

우리의 전진도상에서 나타날수 있는 사대주의와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신비주의, 요령주의 그리고 안일해이하고 소극적이며 일에 적극 투신하지 않고 조건타발만 하면서 무책임하게 되는대로 망탕 일하는 현상 등은 다 낡은 사상의 표현이며 혁명투쟁에서 제동기적작용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군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사상정신적로쇠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대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다. 사상정신적로쇠현상은 정력과 전투적기백이 없으며 사업에서 일성이 없고 일을 질질끌면서 자리를 내지 못하고 앉아뭉개는데서 나타난다. 우리는 비록 생리적으로는 로쇠할수 있으나 결코 사상정신적으로 로쇠해서는 안된다. 사상정신적로쇠현상은 늙었거나 젊은데 있는것이 아니라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이 부족한데로부터 오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기꺼이 바치겠다는 혁명적각오를 굳게 가지고 언제나 패기있고 생기발랄한 혁명적기풍으로 생활하여야 사상정신적로쇠현상을 극복하고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온갖 충성을 다할수 있다.

우리는 모든 전선에서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우리의 전진운동에 방해되는 조그마한 낡은 사상의 오물도 깨끗이 쓸어버려야 하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요구에 맞게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의 전투목표는 명백하며 우리의 전도는 양양하다. 우리 인민의 사기는 왕성하며 기세도 충천하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님께 온갖 충성을 다하여 싸워나갈때 반드시 승리하고야만다는것은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박은 확고한 신념이며 철석같은 의지이다.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령도예술을 지니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는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심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력사적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적락관과 신심에 넘쳐 승리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 있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혁명적폭풍을 세차게 일으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까지 점령하고 사회주의의 더높은 고지우에 하루빨리 올라서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릴수 있으며 수령님의 충직한 친위대, 결사대의 영예를 빛내일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기적과 혁신으로 가득찬 충성의 나날로 꽃피움으로써 수령님께 승리의 보고, 충성의 보고를 올릴 영광의 그날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한다.

《속도전》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위대한 투쟁의 기치

현 준 명

지금 온 나라는 하늘을 찌를듯한 기세로 사회주의대건설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충성의 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펼쳐주신 웅대한 전투강령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속도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속도전》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대건설강령을 가장 빠른 기간안에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인류의 휘황한 미래인 공산주의락원을 하루빨리 앞당겨올수 있게 하는 위대한 전투적기치이다. 《속도전》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며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미일제국주의자들과 상전에게 빌붙어 명줄을 유지하려는 남조선반동들의 침략책동을 분쇄하고 무쇠주먹으로 놈들의 덜미를 짓눌러놓기 위한 심각한 투쟁이며 민족주체적힘으로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력사적투쟁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혁명적본질을 깊이 체득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높은 속도로 달려 웅대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단숨에 점령하고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에 뛰여올라서야 한다.

《속도전》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가장 혁명적인 전투조직형식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자면 사람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열렬한 혁명전사로 키우는것과 함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야 한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앞당겨나가는데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다음해까지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고 그다음부터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향하여 총진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까운 몇해안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하겠습니다.》(《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28페지)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대건설투쟁은 이 땅우에 또다시 천지개벽의 력사를 창조하여 주체조선, 《사회주의자력갱생의 나라》의 위력과 영예를 떨치기 위한 력사적투쟁이며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무궁한 륭성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강령이 실현되면 우리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세계 1등급의 강국으로 될것이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게 될것이다.

장엄한 대건설투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속도전》의 전투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

서 계속 천리마대진군의 세찬 불길을 일으켜야 한다.

당에서 명철하게 가르친바와 같이 사회주의대건설은 《속도전》이며 《속도전》을 벌려야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다.

《속도전》은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의 구현이며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기적을 이룩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다.

《속도전》은 지난 시기 우리 인민이 달려온 진격속도, 천리마속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속도로 빨리 달려나가 제기된 모든 일을 전격적으로 해제끼면서 속도도 높이고 질도 다같이 높일것을 요구하는 가장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전투조직형식이다.

당에서 새롭게 내놓은 《속도전》은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것을 요구한다. 즉 《속도전》은 최단기간안에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것이다.

《속도전》에서 속도와 질은 서로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빨리 나간다고 하여 질을 낮추거나 질을 높인다고 하여 속도를 늦추는것은 다 《속도전》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우리는 남보다 몇배, 몇십배의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면서도 높은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속도전》에서 질을 소홀히 하는것은 《속도전》의 요구에 배치되며 본질에서 《속도전》을 하지 않으려는것이다.

원래 《속도전》에서 속도와 질은 변증법적인 통일을 이루고있다.

《속도전》에서 속도와 질이 다같이 보장될수 있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비상히 높이고 집단의 힘과 지혜와 정열을 집중적으로 높이 발양시켜 제기되는 모든 사업을 수행한다는데 있다.

어떤 일에서나 그 속도와 질을 보장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사람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다. 속도를 높이고 질도 보장하는 기본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생산과 건설에서 모든 사람, 전체 집단이 합심하여 머리를 쓰고 지혜를 짜내며 높은 열의를 가지고 주인된 립장에서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해나갈 때 높은 진격속도와 함께 질도 보장되게 되는것이다.

《속도전》이 높은 질을 보장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함께 집단의 모든 인적, 물질기술적 력량을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동원하여 제기되는 모든 일을 수행하는데 있다. 즉 생산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정신적 및 물질기술적 력량의 집중도가 높을 때 거기에서는 기계적합산을 훨씬 초월하는 비할바없는 큰 위력과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필요한 기술적 및 물질적 조건이 집중적으로 동원되는만큼 높은 속도와 함께 높은 질이 보장되게 된다.

《속도전》에서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이면서 높은 질을 보장할수 있다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문학예술창작분야에서 그 진리성이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충성의 속도》를 창조하여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건설물들을 수많이 창조하였다. 《속도전》의 사상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옳바른 지도밑에 보통이면 하나를 만드는데도 몇년씩 걸려야 할 세계적인 4대혁명가극을 불과 1년남짓한 기간에 그것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는 기적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속도전》의 빛나는 결실들이며 《속도전》의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주는 산 증거물들이다.

당에서 명철하게 가르친바와 같이 《속도전》은 혁명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일본새이다.

본래 공산주의자들, 혁명가들은 낡은

세계를 짓부시고 새 사회를 창조하기 위하여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로서 온갖 침체와 답보를 반대하며 끊임없는 혁신과 끊임없는 전진을 위하여 투쟁한다.

주체형의 피가 심장속에 맥맥히 흐르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비상히 높은 혁명적정열과 청춘의 기백으로 남이 한걸음 걸으면 열걸음, 백걸음 나갈것을 요구하며 모든 일을 혁명적으로 해제끼는 높은 혁명적기풍을 지니고있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기백이며 일본새이다.

당중앙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속도전》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에 맞는 가장 적극적인 전투조직형식이다. 《속도전》을 벌리는 바로 여기에 경제가 끊임없이 빨리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실현하는 길이 있으며 질풍같이 내달려 남보다 빨리 공산주의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려는 우리 인민의 천리마정신, 비상한 혁명적정열을 구현하는 길이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이 가능성은 더욱더 커집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300페지)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는 생산을 끊임없이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비할바 없는 우월성,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면 될수록 이 가능성은 더 커진다는것을 처음으로 새롭게 밝히시였다.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어있고 경제가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온갖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고 기술을 계획적으로 끊임없이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특히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같은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의 창조적적극성과 혁명적열의가 생산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생산을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은 사회주의경제리론발전에서 하나의 력사적전환으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독창적인 경제리론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은 우리 나라에서 실천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확증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왔으며 보통 자본주의나라들이 옹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되였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정은 말그대로 천리마진군의 과정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당에서 밝혀준 《속도전》의 방침은 이와 같이 실생활에 의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수령님의 불멸의 천재적경제리론, 사회주의하에서의 경제의 규모와 속도에 관한 독창적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한 위대한 방침이며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그것을 전면적으로 심오히 구현하는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준 전투적기치이다.

《속도전》의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앞에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시킬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였다.

오늘 《속도전》을 벌리는것은 더 빨리 전진하려는 우리 인민의 열렬한 지향이며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며 계속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고상한 품성이며 영웅적조선인민의 혁명적기개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91페지)

우리 인민은 오직 투쟁과 전진만을 아는 혁명적인민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온 용감하고 슬기로운 인민이다.

지난날의 뼈에 사무친 민족수난의 력사를 잊지 않고있는 우리 인민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원쑤들의 온갖 파괴책동을 짓부시며 빈터우에서 달리고 또 달려 가장 짧은 기간에 오늘과 같은 자주적이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영웅적인민이 거창한 대건설전투에서 어찌 더 큰 용맹과 슬기를 떨치지 않을수 있으며 더 빨리 달려나가지 않을수 있겠는가.

《속도전》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질풍같이 달려나가는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을 찾았고 그이께 충성다하는것을 더 없는 행복으로, 영예로 간직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그들의 혁명적의지이다.

우리는 《속도전》을 적극 벌려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하루빨리 이룩할수 있고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된 정세는 《속도전》의 전투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위력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야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본때있게 짓부시고 놈들에게 철추를 안길수 있으며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하고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다.

《속도전》을 벌려 더 빨리 나아가야 우리는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자력갱생의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빛내일수 있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도 더한층 강화할수 있다.

참으로 당에서 명철하게 밝혀준 《속도전》의 방침은 사회주의대건설의 힘찬 전진과 빛나는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필승불패의 위대한 전투적기치이며 청춘의 기백과 혁명적정열로 들끓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위력한 혁명적무기이다.

《속도전》의 열쇠는 뜨거운 충성심에 있다

당에서는 위대한 《속도전》의 방침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방도를 명백히 밝혀주었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속도전》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조직지도사업을 안받침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입니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301페지)

사상혁명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수 있게 하는 가장 선차적조건으로 된다.

사상혁명에서 기본은 모든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그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을 절대화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신조화하며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며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아득바득 애쓰는 수령님께 진심으로 충직한 혁명전사로 더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불패의 혁명대오로 만들수 있으며 온 사회를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한치도 어기지 않고 철저히 끝까지 관철하는 강의한 혁명가의 대집단으로 되게 할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하여야 사회주의대건설에서 빨리 달리나가 대혁신, 대비약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이것은 지난날과 같이 오늘의 사회주의대건설에서도 높은 《충성의 속도》를 낳게 하는 무궁무진한 원천이다.

또한 《속도전》을 벌리기 위해서는 기술혁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기술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더 전진할수 없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것은 《속도전》을 적극 벌릴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근로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선진기술이 결합되여야 《속도전》의 요구가 훌륭히 구현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당중앙은 수령님의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보답할데 대한 구호를 제기하고있는것이다.

당에서는 《속도전》을 하려면 이와 함께 옳은 조직지도사업이 안받침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사회주의사회는 원래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고 모든것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있는 사회이다. 모든 사람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일하며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에서 옳은 조직지도사업이 없이는 아무 일도 잘할수 없다. 특히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모든 고리들의 련계가 복잡해지는 조건에서 조직지도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나선다.

《속도전》을 벌리기 위해서는 대중을 옳게 발동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그들이 힘껏, 마음껏 일할수 있도록 기술경제적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는 비상히 높다. 룡마는 준비되였는데 문제는 그것을 타고 달리나갈 기수들에게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어머니의 심정으로 대중을 깨우쳐주고 그들의 정치사상생활을 돌보아주며 그들의 심장마다에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깊이 심어주어 모든 사람들이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있는 힘과 지혜와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지휘관들은 대전투의 운전대를 튼튼히 틀어쥐고 전투의 조직지휘자적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조직지도사업을 강화하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적극 발동시키며 생산과 건설에 대한 기술경제적보장사업과 지휘를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장엄한 돌격전이 벌어지는 오늘의 정황에 맞게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전투를 대담하게 밀고나가야 하며 모든 사업을 더욱 정규화, 규범화하며 모든 공정들이 질서정연하게 통일적으로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지난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이 언제나 돌격전의 최선두에서 자기희생적인 투쟁으로 혈로를 열었던것처럼 치렬한 전격전이 벌어지는 전투장마다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끌고나가야 한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속도전》을

성과적으로 벌리는데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사상문제이다.

사람들의 사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기술혁명도, 지도문제도 풀릴수 없다. 사상투쟁을 강화하여야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사대주의,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 등 낡은 사상요소들을 없앨수 있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또한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화하여야 일군들의 사상관점을 똑바로 세우고 《속도전》의 요구에 맞게 지도사업을 따라세울수 있다. 구경은 모든것이 다 사상문제이다.

당에서는 이로부터 《속도전》이란 결국 《사상전》이라고 가르치었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사상전》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포괄한다. 《사상전》은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와 활동방식,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등 모든면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과정이다. 《사상전》은 새것과 낡은것, 진보와 보수, 혁신과 침체, 전진과 답보, 패기와 로쇠사이의 심각한 사상투쟁과정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주체적인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혁명적인 사업태도와 사업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과정이다.

당에서는 《사상전》은 사상분야에서의 전격전이며 섬멸전이라고 가르치였다.

우리는 전격전의 방법으로 낡은 사상잔재들에 대한 집중적인 사상공세를 취하며 섬멸전의 방법으로 주되는 사상적 잡귀신들에 사상적집중포화를 들이댐으로써 짧은 기간에 사람들의 사상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높은 전진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이와 함께 《사상전》을 일시적캄빠니야가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여 심화시켜나가며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사상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은 언제나 온 사회를 혁명적인정과 전투적기백으로 차고넘치게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변혁과 비약이 끊임없이 일어날수 있게 하는 위력한 혁명적기치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속도전》, 《사상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하며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대건설강령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와 《속도전》의 비결은 전적으로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에 있다.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만 지니면 모든것을 다 해낼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에 대한 고결한 충성심을 안고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교시를 더 잘, 더 빨리 관철하겠는가에 대하여 늘 머리를 쓰며 실천투쟁을 통하여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훌륭히 보여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속도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질풍같이 달려나가는 우리 인민은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단숨에 점령하고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뛰여오르기 위한 벅찬 투쟁에서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비판과 자기비판은 일군들을 혁명화하는 위력한 무기

오늘 우리앞에는 간부들과 당원들을 더욱 철저히 혁명화하고 수령님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그 어느때보다도 철통같이 다지며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군들속에서 혁명화의 위력한 무기이며 혁명발전의 힘있는 추동력인 비판과 자기비판에 대한 옳은 관점과 원칙적태도를 세우며 그것을 더 활발히 전개하여야 한다.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여야만 우리 당을 더욱 생기발랄하고 청춘의 기백이 약동하는 혈기왕성한 전투적인 당,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계속 전진하는 당으로 부단히 강화발전시킬수 있으며 모든 일군들을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나갈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창조와 변혁을 끊임없이 이룩하여나갈수 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의 한가지 특징은 결점과 과오들에 대하여 비타협적으로 대하며 비판과 자기비판의 정신으로 당원들과 간부들을 교양하여 공개적이고 원칙적인 비판과 솔직하고 성실한 자기비판을 생활화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당을 강화하며 생기있는 전투적당으로 만드는 중요한 조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83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투쟁의 무기이다. 혁명의 참모부인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적역할을 옳게 수행하고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자면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실현하여야 한다.

비판과 자기비판은 바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실현하며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힘있는 무기로 된다. 만일 당이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비판의 무기를 들지 못하고 사상의지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강한 사상투쟁이 마비된다면 그러한 당은 혈기왕성한 전투적인 당, 전진하는 당으로 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할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은 결국 투쟁의 날이 무디여진 무기력한 당으로 되고말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로부터 우리 당을 창건하신 첫날부터 당안에서의 비판과 자기비판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비판을 늘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오늘 우리 당이 혁명적기백이 넘치는 청춘당, 진투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는것도,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전개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것도 바로 우리 당이 비판과 자기비판의 기치를 높이 들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였으며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왔기때문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비판은 또한 혁명발전을 추동하는 힘있는 무기이다. 비판이 없이는 혁명운동을 전진시킬수 없다.

혁명은 결코 한자리에 머물러있을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새것과 낡은것과의 날카로운 투쟁을 통하여 새것

의 승리를 보장하면서 끊임없이 전진할것을 요구한다. 원래 혁명 그자체가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이다. 투쟁이 없는 혁명이란 있을수 없다.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게 된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낡은 사상은 일조일석에 다 없어질수 없으며 꾸준한 투쟁과 교양을 거쳐야 근절되는것이다.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사업은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동반한다. 투쟁을 통하여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혁명을 전진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할수 없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물질적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없다.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상투쟁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한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사회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한 비판과 자기비판은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혁명동지들사이의 내부문제로서 어디까지나 동지적립장에서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기 위한것이다.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하여 우리는 혁명의 길에서 함께 싸워나가는 동지들의 크고 작은 사상적결함과 과오들을 제때에 고쳐주고 혁명의 길에서 락오자가 되지 않도록 동지적으로 깨우쳐주고 부추겨주게 된다.

비판과 자기비판은 이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 낡은 사상요소들을 청산하기 위한 하나의 심각한 사상투쟁과정으로서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며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힘있는 무기로 된다.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는것은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계속 빛내이며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일군들을 끊임없이 혁명화할수 있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한 혁명가가 되려면 강한 비판속에서 자신을 꾸준히 단련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비판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열렬한 혁명가로 키우는 위력한 무기이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누구를 막론하고 자주 비판을 받아야 하며 비판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사는 보람이 있고 부단히 발전하게 된다.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해서 일군들은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조화하며 그이의 교시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헌신성을 다하는 참다운 조선의 공산주의자, 혁명가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여나갈수 있다.

비판을 싫어하고 사상투쟁을 꺼려하는것은 다 당성이 없고 로동계급적립장이 확고하지 못한 수정주의적표현이다.

비판도 좋아안하고 사상투쟁도 좋아안하며 자기를 혁명화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군은 자기의 결함도 고치지 못할뿐아니라 머리속에 녹이 쓸어 부패변질되며 나중에는 혁명의 길에서 떨어져나가게 된다. 매일아침 세수를 하지 않고 때가 낀대로 그냥 두어두면 때가 쌓여서 얼굴에 병이 생겨 나중에는 얼굴이 아주 못쓰게 변하고마는것처럼 일군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제때에 비판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그런 결함이 쌓이고쌓여서 마지막에는 수술하지 않으면 안되는 엄중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비판은 일군들을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이

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것은 주체의 혈통을 가진 조선로동당의 당원들에게 있어서 고유한 품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은 혁명을 하면서 살아야 사는 보람이 있지 혁명도 하지 않고 편안히 앉아서 밥이나 먹고 세월을 보내서는 사는 보람이 없다. 이러한 생활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생활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또 그렇게 사는것은 사람값에 가지도 못한다.

사람은 사회정치활동, 혁명투쟁을 하여야 사회적인간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정치적생명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는 생명이다.

일군들은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비판을 성실히 하며 또 동지들의 비판을 허심하게 접수하고 대담하게 결함을 고쳐나감으로써만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깨끗이 보존하고 그것을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다.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비판은 일군들의 정치생활과 사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사상단련의 무기이며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일군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혁명가적품성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서 높이 발현된 동지들사이의 사랑은 원칙적인 동지적비판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언제나 자기자신과 혁명동지에 대한 높은 원칙적요구성을 견지하였다. 그들은 자기 생활에 대하여 항상 비판적견지에서 돌이켜보았으며 동지들의 원칙적비판에 대하여 기꺼이 접수하고 자기의 결함을 대담하게 고쳐나가는것을 생활화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속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의 정신이 높이 발양됨으로써 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원칙적단결이 튼튼히 보장되었고 언제나 참신하고 건전한 혁명적분위기가 흘러넘치였으며 그들은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갔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그들은 그처럼 준엄하고 간고한 시련과 난관도 용감히 뚫고나갈수 있었다.

일군들은 비판과 자기비판에 대한 원칙적인 태도와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기의 당적수양을 끊임없이 쌓아나감으로써 비록 육체적으로는 늙는한이 있더라도 사상정신적으로는 로쇠를 모르고 언제나 생기발랄하며 혁명적정열과 전투적기백이 차고넘치는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서 끝까지 혁명을 하여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비판과 자기비판에 대한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그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기 위하여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는가를 보여주는 뚜렷한 표시로 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판과 자기비판의 혁명적본질과 의의를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비판과 자기비판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비판은 결코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되여서는 안되며 동지를 건져주며 동지적단결을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합니다.…우리는 결코 동지를 혁명대오에서 떼버리거나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동지를 건져주는 립장에서, 그와 혁명사업을 같이해나가기 위하여 비판하여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여 일군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비판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일군들이 비판에 대한 원칙적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진실로 혁명적이며 동지적인 비판을 벌리나갈수 있다.

비판과 자기비판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지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비판이 혁명동지를 도와주고 단결을 강화하

기 위한것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혁명동지들사이에 진행되는 비판은 동지들의 결함을 고쳐주고 동지들사이의 단결을 강화하며 일을 더 잘해나가기 위한데 목적이 있는것만큼 동지의 결함을 덮어두지 말고 제때에 진심으로 비판해야 한다.

원래 혁명동지에 대한 사랑과 의리가 깊은 사람일수록 동지의 결함을 자신의 결함으로 여기고 그가 더 잘못되기전에 제때에 진심으로 충고를 주어 올바른 길에 들어서도록 이끌어준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못하고 혁명적세련이 부족한 일군들은 일하는 과정에 잘못을 저지를수 있다. 문제는 나타난 결함과 과오를 어떻게 고쳐나가는가 하는데 있다. 그렇기때문에 비판의 무기를 높이 들고 제때에 그것을 고쳐야 사람도 교양개조할수 있고 사업도 바로잡아나갈수 있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동지를 건져주고 혁명대오에서 같이 일을 하자면 일상생활에서 늘 일깨워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제때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건전한 비판만이 동지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참된 비판으로 될수 있다.

비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일군들이 늘 비판을 받아버릇하여야 비판에 대한 접수력도 배양되고 결함이 더 커지기전에 그것을 제때에 알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모든 일군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동적이며 반당적인 사상들과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절대성과 무조건성의 정신이 부족하며 그 집행에서 충실성과 헌신성이 부족한 현상들 그리고 주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 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나타나는 결함과 인민생활에 무관심한 현상, 학습과 생활에서 나타난 결함 등 혁명화되지 못한 표현들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것이라 하더라도 덮어두지 말고 제때에 진심으로 비판하여 고쳐주어야 한다.

동지들의 잘못을 비판하는데 있어서는 결함을 지적하는데만 그칠것이 아니라 결함을 발생시킨 원인과 그것을 시정할 구체적방도까지 똑똑히 대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비판이라야 사람들을 감동시킬수 있으며 과오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똑똑히 깨닫고 올바른 길로 나갈수 있게 할수 있다.

비판과 자기비판에 대한 원칙적태도를 가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비판을 두려워할것이 아니라 참된 동지적사랑으로, 믿음의 표시로 허심하게 접수하고 대담하게 고쳐나가도록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사상투쟁을 하는것은 결함을 고쳐주기 위한것이지 결코 사람을 때기 위한것이 아닙니다.…동무들은 절대로 비판하는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과오를 허심하게 다 털어놓고 진지하게 비판하고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잘못을 고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가 사상투쟁을 하고 동지들을 비판하는것은 나타난 결함을 제때에 고치고 혁명사업을 끝까지 같이해나가기 위한데 있다.

그러므로 비판하는 사람을 자기의 은인으로, 가장 가까운 혁명전우로 여길줄 알아야 한다.

비판을 받았다하여 의기소침해가지고 쭈그리들어가도 안되며 비판을 겁나하여도 안된다. 비판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사상투쟁의 용광로속에서 단련되지 못한 비겁한 태도이다.

일군들은 동지들이 주는 비판이 비록 쓰고 아프다 하더라도 그것은 혁명의 길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전우들의 믿음의 표시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 끝까지 함께 나가자는 뜨거운 동지적사랑의 표시로 받아들일줄 알아야 한다.

동지들의 비판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에 따라 그가 사상투쟁의 용광로속에서 쇠소리 쟁쟁한 강철로 단련되어나오는가 아니면 쓸모없는 떡쇠

가 되고마는가 하는것이 규정된다.

우리는 동지들의 비판에 대하여 허심하게 접수하고 대담하게 고쳐나감으로써 자신의 온몸에 주체형의 피가 끓어넘치는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부단히 단련해나가야 한다.

남의 비판을 받기 싫어하거나 비판된 결함을 고치기 위하여 분발할 대신에 비판을 좀 받았다하여 우울해지고 맥을 놓는 일군은 사상투쟁의 용광로속에서 자신을 부단히 단련할수 없으며 혁명사업을 끝까지 해나갈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동지들의 비판을 자신을 혁명가로 단련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보약으로 여기고 용기를 내서 통이 크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단라붙이 비판된 문제를 고쳐나가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비판과 자기비판에서 중요한것은 말로서 과오와 결함을 인정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나타난 결함을 빨리 퇴치하며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데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일군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자기의 결함을 고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혁명화를 적극 다그쳐나가야 한다.

*　　　*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는것은 당발전의 필수적요구이며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더욱 심화되고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이 어렵고 복잡한수록 혁명화의 위력한 무기인 비판과 자기비판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한다.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여 일군들을 철저히 혁명화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사회주의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모든 일군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불후의 로작을 깊이 학습하여 우리 당의 유일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수령님의 교시를 유일한 자로 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와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들에 대해서도 제때에 날카로운 비판을 벌려야 한다. 특히 수령님께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와 당의 요구를 깊이 체득하여 비판에 대한 원칙적인 립장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이 비판과 자기비판에 성실히 참가하며 나타난 결함을 제때에 고치고 동지들사이에 진심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가적품성을 적극 배양해야 한다.

또한 일군들은 당중앙이 내놓은 새로운 조직생활총화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평화적분위기속에서가 아니라 날카로운 비판과 자기비판의 분위기속에서 조직생활을 진행함으로써 자신뿐만아니라 동지들속에서 나타난 결함까지도 제때에 고쳐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두다 비판과 자기비판의 무기를 높이 들고 사상투쟁을 강화하여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하며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해나아가자.

근 로 자　제4호(루계 384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4년 4월 1일　　발 행 • 1974년 4월 5일
ㄱ—4478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5~6호

평 양 근로자사 1974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5,6 호(386)

차 례

수단정부기관지《알 싸하파》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 일 성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4월 25일 수단정부기관지《알 싸하파》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대답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먼저 당신이《알 싸하파》지를 통하여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널리 소개하며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길에 나선 첫시기부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있었는가 하는데 대하여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짓밟힌 우리 인민의 비참한 처지를 목격하였으며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설음을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하였습니다.

조선을 강점한 일본제국주의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야수적이고 횡포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의 재부를 강도적으로 략탈해갔으며 우리 인민의 피땀을 악착스럽게 짜내였습니다.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인민의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류혈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일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수많은 애국적인민들이 학살당하였으며 온 나라가 피바다에 잠기였습니다.

우리는 강도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의 귀축같은 만행과 나라를 빼앗기고 천대와 멸시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겨레의 참상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어코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으며 인민들을 도탄속에서 구원하고야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섰습니다.

물론 우리는 발톱까지 무장한 간악한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쉽게 때려부실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움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반드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 굳은 신심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우리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우리의 혁명위업이 정당하기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인류력사는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피압박인민대중의 정의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침략자와 압제자들이 멸망하고 인민대중이 승리하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투쟁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따라서 조선인민은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하며 또 개척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었습니다. 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고 굳게 뭉치면 참말로 큰 힘을 낼수 있으며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침

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다는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신조였습니다.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은 말할수 없이 간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지고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종교인, 상공인 할것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튼튼히 묶어세워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마침내 일제를 때려부시고 민족적해방을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식민지적후과를 청산하고 전쟁의 페허우에서 나라의 모든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는 경제토대를 마련할수 있었는가 하는데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이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경제는 식민지적편파성을 가진 예속적이고 매우 뒤떨어진 경제였으며 그것마저 3년동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고말았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높은 창조적열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3년 남짓한동안에 전후인민경제복구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내였으며 계속 줄기찬 투쟁을 벌려 14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오늘 인민들의 생활과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갈수 있는 위력한 중공업과 현대적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이 위대한 승리는 전체 인민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당이 내놓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한 결과에 이루어진것입니다.

현대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었던 우리 나라에서 자체의 힘으로 갖출것을 다 갖추고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는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더우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있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도발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우리 인민앞에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은 오직 자신이 개척하여야 한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새 생활 창조의 어렵고 험난한 길을 용감히 개척하여나갔으며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쌓아올렸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으면 자기의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 나라의 내부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원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력갱생을 위주로 하여 투쟁하여야만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반대하고 자체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으로 부강한 조국을 건설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 관철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입니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결국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적극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위대한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혁명과 건설이 난관과 시련에 부닥쳤을 때에도 당은 인민대중을 믿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그것을 극복하여나갔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인민대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이야말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며 바로 여기에 경제건설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두개 조선》으로 유엔에 들어가는것을 반대하는 리유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당신도 아는바와 같이 미제와 그 추종자들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두개 조선》유엔동시가입안을 내놓았습니다. 《두개 조선》유엔동시가입안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이전부터 추진시켜오던 《두개 조선》정책의 산물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여 전조선을 먹어보려던 야망을 실현할수 없게 되자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남조선만이라도 계속 침략적군사기지로, 상품판매시장으로 그러쥐고있으려는 목적에서 《두개 조선》정책을 들고나왔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는 군사파쑈《정권》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기 위하여 미제의 《두개 조선》정책에 적극 추종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유엔동시가입안을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만일 나라가 분렬된 상태에서 북과 남이 따로따로 유엔에 들어간다면 우리 나라는 영원히 둘로 갈라지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의사와 념원에 전적으로 배치되는것입니다. 나라의 영구분렬은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줄것이며 우리 민족의 장래발전에도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게 될것입니다.

력사적으로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은 민족의 분렬을 바라지 않으며 오직 통일만을 원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조국의 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바라는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남조선의 몇몇 당국자들과 지주, 매판자본가들뿐입니다.

우리는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첫날부터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분렬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던 지난해에 북과 남이 따로따로 유엔에 들어가서는 안되며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기전에 유엔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련방제라도 실현된 다음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들어가야 한다는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성의있는 노력과 하나의 국가로 유엔에 들어갈데 대한 우리의 방침은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습니다. 지난해 유엔총회는 우리가 내놓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수단을 포함한 세계 많은 나라 대표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미제의 어용기구이며 내정간섭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추진하여오던 《두개 조선》유엔가입책동을 여지없이 저지파탄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종일관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이 전적으로 정당하다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실증하여주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얼마전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또하나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는 최고인민회의의 이름으로 미국국회에 보낸 편지에서 쌍방은 서로 상대

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군을 철거시키며 미군이 철거한 다음 우리 나라는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을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을 미국과 맺을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회담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북과 남사이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이 필요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지난 기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으며 남조선당국자들과 대화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가 내놓은 정당한 제안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도리여 미제를 등에 업고 전쟁준비와 분렬책동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당국자들에게는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조선정전협정조인당사자이며 평화협정을 담보할수 있는 실권자인 미국과 직접 토의하는것이 가장 적절한 조치로 된다고 인정하고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가 취한 정당한 조치는 세계 많은 나라들과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당국은 아직도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만일 미국당국이 이번에 우리의 정당한 제안을 끝내 거부하여나선다면 그들은 세계인민들앞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평화의 악독한 원쑤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게 될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을 비롯한 전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꾸준히 투쟁하여나갈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수단정부와 수단인민이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중근동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우리의 립장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중근동문제는 유태복고주의자들을 사촉하여 아랍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운동을 교살하고 이 지역을 저들의 예속밑에 넣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의하여 생겨났습니다. 중근동문제가 오늘까지 해결되지 못하고있고 이 지역에서 여러차례의 전쟁이 일어난것도 전적으로 유태복고주의자들과 그를 조종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파렴치한 침략책동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이 중근동에서의 평화를 위한 《조정자》처럼 행동하는것은 자기들의 침략의 검은 속심을 가리우며 이 지역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책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근동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려면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대한 미제와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종식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침략자들이 강점한 아랍땅에서 완전히 물러가야 하며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권리가 회복되여야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한,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땅을 계속 강점하고있고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권리가 회복되지 않는한 중근동문제는 공정하게 해결될수 없으며 이 지역에서 공고한 평화가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근동문제는 어디까지나 아랍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그리고 그들의 해방위업에 리롭게 해결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중근동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든지 그것이 아랍인민들의 요구에 맞는것이라면 적극 지지할것입니다.

오늘 아랍인민들은 이스라엘침략자들과 그들을 부추기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아랍인민들이 벌리고있는 반제, 반이스라엘 투쟁은 민족적독립과 존엄을 수호하며 강점당한 아랍땅을 되찾으며 팔레스티나인민의 해방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입니다.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은 전세계인민들의 지지와 동정을 받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유태복고주의와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는 전체 아랍인민의 용감한 투쟁을 견결히 지지할것이며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아랍인민의 친근한 전우로 남아있을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세아의 오늘의 형편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은 수세기동안 아세아에서 인민들을 착취하고 부원을 략탈하였으며 이 지역 인민들에게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아세아는 제국주의자들의 무제한한 략탈과 억압의 대상으로 되여있던 어제날의 아세아가 아닙니다.

오늘 아세아인민들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반제자주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아세아의 절대다수나라 인민들이 이미 민족적독립을 쟁취하였으며 많은 인민들이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완전한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아세아에서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력량이 날을 따라 장성강화되고있는 반면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은 전면적으로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실은 아세아의 정세가 인민들에게는 유리하게, 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는 불리하게 발전하고있으며 아세아의 주인은 아세아인민들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 대한 침략정책의 파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아세아에서 물러갈 대신 궁지에 빠진 자기들의 운명을 건져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달려 전쟁책동과 회유기만책동을 강화하면서 《닉슨주의》에 따라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침략적야망을 실현해보려 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비롯한 반동들과 괴뢰들을 부추겨 자기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며 무너져가는 식민지지배체계를 유지해보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미제에 의하여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오늘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편승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으며 미제의 아세아괴뢰들도 상전의 옷자락에 매달려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아세아에서 평화와 안전을 유린하고 이 지역 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을 저애하는 기본장애물이며 아세아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쑤입니다.

아세아의 번영하는 미래는 미제국주의자들을 아세아에서 완전히 몰아내며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저지시킴으로써만 실현될수 있습니다.

오랜 력사적체험을 통하여 오직 자신의 투쟁으로써만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과 간섭 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아세아인민들은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아세아의 모든곳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드시 쫓아내고야말것입니다.

아세아에는 혁명하는 나라, 싸우는 나라들이 많으며 아세아인민들의 반제혁명의식은 매우 높습니다. 오늘 아세아에서는 더욱더 많은 나라 인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굳게 결속되고있습니다. 아세아인민들은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정당한 투쟁으로 아세아의 모든 문제를 아세아인민들에게 리롭게 해결해나갈것이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할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선과 수단사이의 관계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조선과 수단은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으나 두 나라 인민은 매우 친선적이며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 친근한 전우이며 형제입니다.

우리 인민과 수단인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수단에서 5월혁명이 수행된 다음 더욱 강화발전되였습니다. 특히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은 반제투쟁의 공동전선에서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습니다. 이 방문을 계기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인민은 니메리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남겨놓은 좋은 인상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우리 인민과 수단인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정부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끊임없이 확대발전되고있으며 우리 당과 수단사회주의동맹사이의 련계도 강화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은 다같이 지난날 제국주의침략자들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왔고 오늘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인민이기때문에 서로 잘 리해하고있으며 긴밀히 협조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조선과 수단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여기고있으며 앞으로도 수단인민과의 단결과 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서로 배우고 지지협조하는것은 우리 정부와 인민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입니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의 온갖 파괴책동을 반대하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니메리대통령의 옳바른 령도밑에 제국주의자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용감히 짓부시고 5월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며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수단인민의 투쟁에서 더욱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됨에 따라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핵을 이루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끝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굳건히 자리잡은 숭고한 사상감정이며 주체형의 피가 끓어넘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유구한 민족력사에서 일찌기 볼수 없었던 오늘의 위대한 비약과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할수 있었다.

수령님의 높은 뜻을 대를 이어 끝까지 실현하려는 철석같은 의지와 불타는 충성심, 이것은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며 그이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충성다함으로써 자신을 수령님의 참다운 혁명전사로 준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여나갈것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고결한 품성

우리 당은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필요성을 천명하면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으로 된다는것을 밝혀주었다.

이는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항구적강령의 근본요구를 과학적으로 밝혀준 탁월한 사상이다. 그것은 또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를 이어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가는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혁명가로 만들며 우리 당이 영원히 주체형의 혈통을 가진 혁명적인 당으로 되게 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고결한 품성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은 깨끗한 량심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그이께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을 가장 높은 영예,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있다.

바로 여기에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인 조선공산주의자들만이 지닌 사상정신적풍모의 특징이 있다.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그이께 무한히 충성다하는것은 장구하고도 간고한 혁명투쟁과 생활체험을 통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굳건히 자리잡은 철석같은 신념이며 의지이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탓으로 혁명투쟁에서 수많

은 파란곡절을 면할수 없었으며 망국노의 피눈물나는 고초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나라 잃은 망국의 비운속에서 현명한 령도자를 목마르게 기다리던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숙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그 광휘로운 빛발로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 시대, 위대한 주체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수령님께서 일찌기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고 영웅적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빛나게 이룩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새 사회 건설의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승리의 한길로 걸어올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서 혁명의 장도에 오르신 그때로부터 그이를 민족의 태양으로, 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였으며 항일의 나날 수령님을 백전백승의 전설적영웅으로 우러러 흠모하였으며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이께 자신의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탁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비록 수령님의 곁을 멀리 떨어져 싸울 때에도 언제나 그이를 우러러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으며 그이의 길에서 싸우는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생각하였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혁명이 억년 드놀지 않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깊고 억센 뿌리인 불멸의 위대한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타개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세기적인 변혁과 끝없는 행복에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새형의 가장 권위있는 혁명적인 당과 존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과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을 가지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심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때려부신 영웅적인민으로 그 영예를 온누리에 떨치였으며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여 재더미로 된 빈터우에서 자본주의나라들이 수백년동안 걸러서야 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불과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였다.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혁명뿐아니라 세계혁명에 영원히 빛날 고귀한 재부로 된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인류의 태양》,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공산주의자의 귀감이시며 가장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체현하고계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것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여 우리 인민을 가장 존엄있고 긍지 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시였으며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는 복받은 인민으로

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심장속깊이에 뿌리를 내린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은 혁명과 건설의 전행정에서 철석같은 생활의 신조로 다지졌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믿고 따르며 대를 이어 영원히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이 길만이 《주체의 조국》의 무궁한 룽성과 번영의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있으며 수령님을 우러러 높이 모시고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을 그 무엇에도 비할수 없는 가장 큰 자랑으로, 영광으로 여기고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높이 모시고 그이께 충성다하려는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열렬한 마음은 오랜 기간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굳어진 드놀지 않는 혁명적 신념이며 가장 고결한 공산주의적량심이다.

본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한 가장 높은 계급적자각이며 공산주의자들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는 고결한 혁명정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적세계관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적세계관은 자연과 사회와 인간 그리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가장 옳바른 혁명적인 사상관점과 립장, 태도와 방법을 가지게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기본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끝없이 신봉하고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충성심을 가지게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바로 세워야 수령을 높이 받들고 싸워나가는 혁명적인 립장을 가질수 있으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참말로 의식적이고 자각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은 그들의 혁명적본분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투사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심장이며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유일한 중심이다.

수령은 과학적인 혁명사상과 리론,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로써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며 혁명승리에로 인민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수령의 령도를 받음으로써만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있다.

탁월한 수령을 맞이하여 그의 령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며 그것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준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비로소 참다운 혁명의 길에 들어서게 되며 영생하는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간직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을 자기의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무로, 생활의 확고한 신조로 삼는다. 바로 여기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으로 된다는데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려면 반드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2페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사상정신도덕적풍모이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한것으로서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품성이다. 그러므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으며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그런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의 체현자이시며 수령님의 교시는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조직적의사이다. 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바라시는것은 바로 당원들과 인민들의 념원이며 수령님의 뜻은 우리 당과 인민의 의지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당과 혁명의 리익에 충실하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해 성심성의로 복무하자면 무엇보다도 수령님께 충성다해야 한다.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떠나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말할수 없으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몸바쳐 복무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떠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가장 충실히 복무하는것으로 되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으로 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가장 고결한 사상정신적풍모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마음속으로부터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바로 여기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형의 맑은 피가 뜨겁게 차넘치는 수령님의 참다운 혁명전사, 공산주의혁명가로 영생할수 있게 하는 길이 있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요구, 기본척도

우리 당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이 공산주의자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으로 된다는것을 천명하면서 충실성의 기본요구, 기본척도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었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며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유일한 신념으로, 신조로 삼으며 그이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전사,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품성이며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요구, 기본척도로 된다.

수령님에 대한 이러한 충실성은 높은 계급적자각에 기초한것으로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움직일수 없는 고결한 혁명적의지이며 그들의 추호도 어길수 없는 확고한 신념이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요구, 기본척도는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이 전면에 나서고있는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만들수 있게 하는 가

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무엇보다도 그이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는데서 표현된다.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신다는것은 우리 인민이 자기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며 수령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을 위해 목숨도 초개와 같이 바쳐싸워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높이 우러러 모시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인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인민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조국의 끝없는 영예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자기의 수령을 높이 우러러 모시는것은 참다운 공산주의자들,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이며 공산주의적품성의 집중적표현이다. 이것은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자기의 수령을 끝없이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는 혁명정신이 없이는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의지적단결을 실현할수 없으며 혁명대렬의 참다운 혁명적단결을 이룩할수 없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과 교훈은 로동계급의 수령을 높이 모시는가 모시지 않는가 하는것이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탁월한 수령을 높이 모시도록 사람들을 교양하지 않을 때에는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묶어세울수 없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약화시키거나 거부하는것은 그것이 어떤 탈을 쓰고 나타나든지간에 다 반혁명적인 배신행위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언제나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르고 높이 우러러 모시는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충성심은 이미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그들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였으며 그것은 인민들에게 무비의 힘과 용기,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원천으로 되였다.

그때에 인민들속에서는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축지법을 쓰시여 산을 마음대로 주름잡아 다니신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나신 분이시기때문에 천지조화를 다 알고계시며 천기를 내다보신다.》는 등 무수한 전설적이야기들이 퍼지고있었으며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수령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만을 우러러 조국광복의 그날을 확신하면서 충성의 한마음으로 싸워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높이 모시려는 강렬한 지향과 열망은 오늘 우리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져있으며 그 어떤 세찬 바람에도 뒤흔들리지 않는 철석같은 신념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은 또한 그이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옹호보위하는데서 표현된다.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옹호보위한다는것은 대를 이어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며 수령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며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옹호보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는것을 말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옹호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지이다.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와 위신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 우리 조국의 권위와 존엄이 있으며 따라서 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옹호보위하는것은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보위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된다.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수령님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하여야 우리 당의 권위를 끊임없이 높이고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영예를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여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신념으로, 신조로 삼는데서 표현된다.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신념으로, 신조로 삼는다는것은 수령님의 교시를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업과 생활에서 유일한 지침으로 삼으며 그 어떤 불건전한 사상경향으로부터도 수령님의 사상을 견결히 옹호하며 오직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받들고 그대로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신념으로, 신조로 삼는것은 수령님께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는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튼튼히 의거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그이께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이다. 주체시대의 위대한 혁명적기치인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으로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준 백과전서적인 사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만이 참다운 혁명가,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으며 그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투쟁할 때에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는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여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철석같은 신조로 만들어야 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형의 맑고 깨끗한 피가 차넘치는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가 되여야 한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또한 그이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데서 표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다시말하여 당성은 무엇보다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22페지)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집행하는것은 그이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요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의 무조건성의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은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며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 조건타발도 없이 무한한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일단 결론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자그마한 드팀도 없이 정확히 집행하고야마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자그마한 드팀도 없이 정확히 관철할 때만이 우리는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나갈수 있으며 이 땅우에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나갈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실천투쟁경험이 가르쳐준 확고한 진리이며 우리 인민이 체득한 움직일수 없는 신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규정하는 이러한 기본요구, 기본척도들은 수령님의 참다운 혁명전사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는 고결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가져야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철저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신조로 삼을수 있으며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끝까지 관철할수 있다.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받들어나가는 충실성의 정신이 있어야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자기의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신념으로, 신조로 삼으며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혁명적립장을 견지할수 있다. 한편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신조로 삼으며 그이의 교시를 무조건 정당한것으로 접수하고 끝까지 집행해나가는 정신이 철저히 서있지 못할 때에는 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우러러 모실수 없으며 그이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혁명전사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가질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관한 사상은 수령님의 참다운 혁명전사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품성을 가져야 하며 어떤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는 탁월한 사상이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관한 사상은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만드는데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요구를 밝혀준 지도적지침이다.

우리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관한 탁월한 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영예로운 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여야 한다.

모든것을 다 바쳐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께 끝까지 충실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무이다.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모든것을 다 바쳐 끝없이 충성다하는것, 이것을 떠나서는 오늘의 세기적인 변혁과 보다 휘황한 앞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우리 조국의 권위와 영광,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오직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충성다할 때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과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이 있으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항구적강령인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의 근본요구이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키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결국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끝없이 순결한 량심을 가지고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며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견결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기본은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배양하는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충직한 참다운 혁명전사로 키울수 있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기 위해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삼아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되기 위하여 언제나 첫째가는 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온 몸에 주체형의 맑은 피가 차 넘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될수 있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주체형의 피란 수령님의 혁명사상이며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를 담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이 위대한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닌 수령님의 참다운 혁명전사로 될수 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되기 위해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것과 함께 그와 어긋나는 잡사상들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위반되는 모든 사상, 모든 경향과는 타협할수 없습니다. 당에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로선과 배치되는 사상이 우리 당내에 침습할수 없도록 하며 그것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사상생활에서 답보는 곧 후퇴를 의미한다. 사상투쟁을 멈춘다면 온갖 불건전하고 흐리터분한 잡사상들이 없어지지 않고 되살아날수 있다.

우리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들을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상투쟁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감으로써만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준비해나갈수 있다.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그를 실현해나가는 실지투쟁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만이 수령님께 진정으로 충실한 혁명가, 참다운 혁명전사로 될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면하여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대건설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지금 벌어지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사업은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남김없이 발휘할것을 요구하는 거창한 사업이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웅대한 강령을 기어이 실현하고야말 불타는 열정,

수령님의 교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관철하려는 높은 정치적자각, 이것이 사회주의대건설투쟁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끄는 추동력이며 그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사회주의대건설전투과정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정도를 총검열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모두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대건설강령을 실현하는 대전투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침으로써 수령님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속도전》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로쇠와 침체를 모르는 혁명가다운 패기와 정열로 모든 일을 부리나케 해제껴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단숨에 점령하고 위대한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한다.

수령님께 충성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유일적지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충실하여야 하며 당의 유일적지도에 충실한것은 곧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길이다.

당의 유일적지도에 충실하여야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높은 뜻을 더 잘, 더 훌륭히 구현해나갈수 있으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하여야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으로 만들수 있으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당의 유일적지도에 충실하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필수적요구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와 온 세계에서 공산주의위업의 전면적인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수령님께 충성다하여나가자.

《사상전》은 사상분야에서의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은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도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고 있다.

당중앙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할 위대한 《사상전》의 혁명적방침을 내놓았다.

우리는 《사상전》의 혁명적본질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속도전》의 기치따라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끊임없이 이룩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사상전》은 《속도전》의 원칙을 사상사업에 구현한것이며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의 위력한 방법이다.

《사상전》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혁명에 관한 방침을 빛나게 구현한것으로서 이 혁명과업을 가장 철저히 수행하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의식령역에서까지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63~464페지)

《사상전》이 사상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게 되는것은 그것이 사상혁명의 요구에 맞게 새 인간육성문제 특히 사회주의하에서 인간개조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해나간다는데 있다.

당에서 제시한 《사상전》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포괄한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은 그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는 사상투쟁과 새로운 선진사상을 넣어주는 사상교양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두 과정이 밀접한 련관속에서 통일적으로 추진되여야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개조할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사람들을 개조하는 사업은 공동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손잡고나아가는 근로자들 내부의 문제로서 그것은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사업이다.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은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 계급투쟁처럼 사람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주로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상투쟁이다.

이러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은 정권을 쥔 로동계급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진행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을 이룬다. 여기로부터 사회주의하에서 진행하는 인간개조사업은 반드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밀접히 결부하여 통일적인 과정속에서 진행할것을 요구한다.

《사상전》의 방침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일적인 과정으로 추진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와 활동방식,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등 모든면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는 위대한 인간개조방침이다. 그것은 《사상전》이 새것과 낡은것, 진보와 보수, 혁신과 침체, 전진과

담보, 패기와 로쇠와의 심각한 사상투쟁과정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주체적인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혁명적인 사업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과정으로 되기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령님과 당에 충실한 견결한 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모든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육성하는 사업은 사상분야에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낡은 사상을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사업인것만큼 그것은 적대적사상조류의 항거에 부닥치게 된다. 따라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을 반대하는 날카로운 사상투쟁속에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완강한 사상교양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주체적인 사상관점과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소유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자라나게 된다.

그러므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사상전》은 모든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된 혁명전사로 육성하는 가장 힘있는 인간개조방법으로 된다.

《사상전》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기본이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된다는 사상론에 기초하고있다.

《사상전》의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여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을 가장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더잘 키울수 있게 되었다. 혁명과 건설의 결정적력량인 사람을 자연과 사회를 성과적으로 개조하는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그리하여 《사상전》의 방침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키울수 있게 할뿐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나가는 력사적위업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사상전》은 사상분야에서의 전격전이다.

전격전의 방법으로 《사상전》을 벌릴데 대한 당의 가르침은 낡은 사상요소와의 투쟁을 가장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는 《사상전》의 투쟁대상이다. 이 낡은 사상 잔재는 수천년동안 사람들의 의식속에 뿌리깊이 박힌것으로서 매우 집요하며 보수적이다. 그러므로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은 사상분야에서 전격적인 방법을 요구한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만성적으로 굳어지있는 낡은 사상요소들을 가장 빠른 기간에 완전히 뿌리빼자면 전격적인 방법으로 《사상전》을 벌려야 한다. 《속도전》의 원리를 구현한 《사상전》은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진공적으로, 전격적으로 벌리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개조를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게 한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사상전》은 또한 사상분야에서의 집중적인 공세이다.

집중적인 사상공세는 사람들의 의식개조과정을 촉진하는 힘있는 방법이다.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는 사업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목적의식적으로, 집중적으로 당사업을 벌려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근로자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끊임없이 촉진하여나갈수 있다.

특히 당사상사업은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는 창조적인 사업인것만큼 사상사업의 모든 형식과 방법, 수단들을 총동원할 때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사상전》은 당조직들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릴수 있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가장 힘있고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집중적인 공세로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들이대는 《사상전》은 인간개조의 훌륭한 방법

으로 된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사상전》은 또한 사상분야에서의 섬멸전이다.

사람들의 사상적준비정도는 서로 각이하며 《사상전》을 통하여 극복해야 할 낡은 사상 잔재는 여러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이로부터 사상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주되는 대상에 력량을 집중하고 섬멸전의 방법으로 《사상전》을 벌려야 한다. 우리의 전진운동에 제동기를 거는 나쁜 사상적병집들을 하나하나 섬멸전의 방법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온 사회의 혁명화과정이 촉진된다. 중심과녁을 설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호소나 강조에 그치는 사상사업은 아무런 성과도 거둘수 없다.

사상사업에서의 섬멸전은 우리의 혁명대오를 사상적으로 침식하는 주되는 사상적잡귀신들이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먼저 정확히 진단한데 기초하여 거기에 사상적집중포화를 들이댐으로써 그것을 철저히 뿌리뽑아버리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

섬멸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벌려야만 낡은 사상에 명중포화를 들이대여 온갖 사상적잡귀신들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다.

《사상전》은 당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의 전진을 가로막는 주되는 사상적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의식개조과정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방법이다.

《사상전》에서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의 방법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방법을 서로 밀접히 결합시켜 통일적과정속에서 진행하여야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에서 보다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사상전》은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사업, 인간개조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혁명적방침이다. 이 방침은 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훌륭히 교양개조하는 위대한 방침으로서 사상혁명의 과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 《사상전》의 방침이 정확히 관철될 때 모든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를 성과적으로 개조하는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육성할수 있다. 따라서 《사상전》의 방침은 우리 당사업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혁명에 관한 위대한 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여 당중앙은 《사상전》의 본질적내용, 전개원칙과 함께 그 요구를 명확히 밝혀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은 그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간에 그것이 우리 당의 정책과 어긋나고 우리의 혁명사상과 어긋날 때에는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줄 알아야 합니다.》

《사상전》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사상생활에서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을 묵과하지 말고 문제를 세워서 투쟁하는것이다.

사상생활에서 사소한 편향도 스쳐지나지 말고 문제를 세워 투쟁할데 대한 《사상전》의 요구는 우리의 사상생활을 언제나 혁명적으로 건전하게 하도록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사람들이 사상생활에서 과오를 범하게 되는것은 사소한 사상적병집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처음에는 비록 사소한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점차 커지면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과오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상생활을 조금이라도 침식하는 나쁜 사상적경향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거기에 불을 걸며 대중적인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이 과정에 사람들은 나쁜 사상의 해독성을 똑똑히 깨닫게 되고 더욱 혁명적으로 단련하게 된다. 그

리하여 우리 생활에 그 어떤 나쁜 사상적병균도 침습할수 없게 한다. 사상생활에서 나타난 사소한 병집도 문제를 세워 투쟁하여야만 우리의 모든 생활을 건전하게 할수 있으며 앞으로 반생할수 있는 그릇된 사상적경향도 미리 막을수 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는것은 《사상전》의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그러므로 사상사업에서 《사상전》의 이 요구를 옳게 관철하는것은 우리 내부에 그 어떤 불건전한 사상도 침습하지 못하게 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전당과 온 사회의 강철같은 사상의지의 통일을 보장하며 우리의 혁명대렬을 주체형의 피만이 흐르는 튼튼한 대오로 만드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번 교양하여 안되면 두번 교양하고 두번 하여 안되면 세번 하고 그래도 안되면 네번, 다섯번 이렇게 참을성있게 꾸준히 교양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26페지)

《사상전》은 또한 일시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여 심화시킬것을 요구한다.

《사상전》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심화시킬데 대한 요구가 나서는것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이 매우 오랜기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원래 낡은 사상은 일조일석에 없어질수 없으며 꾸준한 투쟁과 교양을 거쳐서만 근절되는것이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뿌리깊이 박힌 낡은 사상 잔재는 《사상전》의 포화를 받고 일시 머리를 숙였다가도 다시 되살아날수 있다. 그러므로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인내성있게 반복하여 진행할것을 요구한다.

만일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조금이라도 늦춘다면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안일해이하여 점차 혁명하기를 싫어하고 투쟁하기를 싫어하게 된다. 력사적경험은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약화시킬 때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병들게 되며 나아가서는 혁명과 건설이 엄중한 난관과 위기에 부닥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전》의 무기를 잠시도 놓을수 없으며 그것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에 전당을 발동시켜야 하며 이 사업을 군중적사업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75페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것은 《사상전》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대중을 발동하여 그들이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것이다. 모든 군중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의식령역에서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없애는 심각한 사상혁명과정으로서 그것은 오직 광범한 대중이 이 사업에 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여기로부터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상전》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킬것을 요구한다. 《사상전》의 요구에 맞게 광범한 대중이 인간개조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만 대중적인 비판과 집단적사상교양을 통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훌륭히 개조할수 있다.

《사상전》에서는 수령님의 교시, 당의 의도로 대중을 무장시키는것이 첫공정으로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의 힘있는 무기이며 옳고 그른것을 가르는 기준이다. 따라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사상전》을 옳게 벌려나갈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사상전》에서 첫째가는 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사상전》의 목적은 구경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 있다. 그러므로 《사상전》에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것은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는것이다. 여기에 《사상전》의 모든 화력이 집중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 이것은 주체형의 피가 끓어넘치는 조선공산주의자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며 첫째가는 본질적징표이다.

우리는 《사상전》을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을 심장속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끝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이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일하며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전》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려야 한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사업은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할것을 요구하는 거창한 사업이다.

모든 사업에서 성과의 비결은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 있다.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가슴을 불태울 때 자기가 나아갈 방향이 명백해지고 앞이 환히 트이게 되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게 되며 모든 일을 전투적기백과 패기에 넘기번개같이 해제끼고 위대한 변혁과 비약을 창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상전》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의 불씨를 심어주어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생기발랄한 전투적기백이 약동하고 혁명적열의가 넘쳐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표현들, 요령주의,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 온갖 그릇된 경향을 극복하는데 《사상전》의 예봉을 돌려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맡은 혁명과업을 주인다운 대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책임적으로 수행하게 하며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전》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며 사상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방침이다.

우리는 《사상전》의 용광로속에 용감하게 뛰여들어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사상전》의 기치밑에 진행되는 비판은 어디까지나 과오를 범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동지를 건지주며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동지를 위하는 성실한 대도를 가지야 하며 비판을 받는 사람들은 병을 고치자면 쓴약을 먹어야 하는것처럼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옳게 받아들이며 비판속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개조해나가야 한다.

《사상전》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들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이 사소한 편향도 없이 올바로 진행될수

있도록 잘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당조직들은 《사상전》을 목적의식적으로 끌고나가야 한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사상전》은 그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사상전》을 실속있게 벌리기 위한 충분하고 빈틈없는 준비를 갖춘 기초우에서 모든 당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전격적인 방법으로 집중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야 하며 《사상전》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래야만 《사상전》이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더 큰 은을 낼수 있다.

당사업에서 재래식방법과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철저히 없애는것은 《사상전》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조직들은 모든 사업에서 낡은 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결정적으로 항일유격대식방법으로 넘어가야 하며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따라배워 그대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온갖 낡은 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모든것을 참신하게 보며 부정적인것과의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사상전》의 성과의 결정적담보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활동하며 언제나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중앙의 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리하여 당중앙이 내놓은 《사상전》의 방침이 당사업전반에 철저히 관철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당을 더욱 생기발랄한 전투적당으로 만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임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 당중앙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지도로 하여 오늘 우리 당사업, 당사상사업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고 있다.

당사업, 당사상사업이 강화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불타고 참신하고 패기있고 혈기왕성한 혁명적기백이 차넘치고있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당중앙은 우리 당과 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을 당의 전투적구호로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이 전면적으로 벌어지고있는 현실적요구를 반영한것으로서 이 위업의 성과적수행을 담보하는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여 나가야 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온 사회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만드는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견결한 공산주의자로 교양개조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 사상사업의 기본사명이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속에서 수령님의 혁명사상,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가장 혁명적인 사상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 사업은 대중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교양하는 사업과 떨어져서는 옳바로 수행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해방에 관한 사상이며 그들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을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계급적학설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계급인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주고있으며 자본의 기반으로부터의 해방의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계급적 및 민족적 억압과 착취에서 인민대중을 해방할뿐아니라 온갖 형태의 예속과 구속에서 사람들을 종국적으

로 해방하고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는 우리 시대의 혁명의 참다운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철저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울수 있으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영광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과 함께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에서는 거대한 전변이 일어났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게 되고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원쑤와 우리 편을 똑똑히 가려볼줄 알며 제국주의 특히 미일침략자들을 끝없이 미워하고 그와 타협없이 투쟁하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우리의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목숨바쳐 지키며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이 전면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그것은 우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과정이 곧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기때문이다.

온 사회를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반동적, 반혁명적 사상을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사업인것만큼 적대적사상조류의 항거에 부닥치지 않을수 없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이 진척될수록 사상분야에서의 계급투쟁은 더욱 첨예화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게 하는 과정은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 주체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과정인 동시에 온갖 적대적사상조류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 사상투쟁 과정이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과정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적잔재를 말끔히 가셔내는 하나의 심각한 변혁과정이다.

따라서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만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나가는 투쟁이 심화될수록 사상분야에서의 계급투쟁은 더욱 첨예하고 심각해진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복잡하고 첨예한 현 국제국내정세와 관련하여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여달립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마다 쓰는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평화〉의 간판밑에 큰 나라들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상태를 일시 완화시킴으로써 숨돌릴 틈을 얻으려 하는 한편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침략과 내정간섭 책동을 계속 강화하고있습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일찌기 없었던 정치적위기와 경제적침체에 휩싸여있으며 이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

정책에서 찾으려고 발악하고있다.

특히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흉악한 침략직야망을 계속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으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안으로부터 와해시켜보려고 사상문화적침투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미일침략자들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반공》소동을 벌리며 새 전쟁 도발책동의 범죄적인 길로 더욱 미친듯이 줄달음치고있다.

또한 오늘 부르조아변호론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을 미화분식함으로써 대중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있으며 사회주의의 빛을 흐리게 하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만 미일침략자들과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침략책동과 온갖 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으로부터 우리 혁명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참으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지닌 영광스러운 위업,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의 합법칙적요구로 나선다.

* *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는것은 우리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임무이다.

오늘 당중앙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혁명교양, 계급교양의 내용과 그 실현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우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을 가지도록 교양함으로써 그들을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일편단심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로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키울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를 반대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제국주의를 비롯한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계급교양에서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급교양에서 첫째로 강하게 취급해야 할 문제는 근로자들속에서 제국주의를 미워하는 사상을 키우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72페지)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적처지와 사명과 관련된 문제이다. 로동계급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때라야만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할수 있다.

특히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이른바 《량면전술》에 매달리면서 교활한 방법으로 침략과 전쟁, 략탈과 전복활동을 일삼고있는 조건에서 그리고 간고한 혁명투쟁을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새 사회 건설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는 조건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교양은 혁명교양, 계급교양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상교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우리 인민의 철천의 원쑤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배양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미제의 침략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을 통일하며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남조선의 지주, 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놈들의 썩이빠진 반인민적통치제도를 계급적으로 증오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특히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고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난 새세대들이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는 조건에서 이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을 남조선의 지주, 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놈들의 반인민적통치제도를 증오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정신으로 교양함으로써 그들이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미일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미일침략자들과 남조선의 지주, 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끝없이 미워하는 정신으로 철저히 교양할데 대한 방침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혁명의 대상을 옳게 인식하고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탁월한 방침이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정주의적사상조류를 반대하는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수정주의는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진수를 거세하려는 반혁명적기회주의사상조류이다. 사람들이 수정주의적사상조류에 물젖게 되면 계급의식이 무디게 되고 사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사상교양에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정주의의 반혁명적, 투항주의적 본질과 해독성을 똑똑히 인식시키며 그들속에서 수정주의의 사상적온상인 부르조아사상과 수정주의의 안내자인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리는것이다.

이와 함께 당에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상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동원되고 긴장된 태세에서 사업하며 생활하도록 교양할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다.

혁명적사업기풍과 혁명적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은 제국주의에 의하여 항시적으로 전쟁위험이 미돌고있는 조건에서 언제나 필요할뿐아니라 특히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도발책동이 갈수록 더욱 우심해지고있는 오늘의 우리 나라 정세에서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우리는 잠시도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혀있을수 없으며 사소한 안일과 해이, 권태증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안일해이에 빠져 사상적으로 무장해제되면 갈라진 조국을 통일할수 없을뿐아니라 이미 이루어놓은 혁명의 전취물도 지켜낼수 없게 되고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수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미일침략

자들과 박정희파쑈무리들이 분별없이 덤벼든다면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만만한 투지와 각오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우리는 전쟁공포증, 염전사상의 침습을 단호히 배격하고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전당, 전군, 전민이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 완벽한 정치사상적준비태세를 갖추고있어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사상을 받들고 그를 빛나게 관철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확고한 로동계급적자각을 가진 혁명가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교양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도 초개와 같이 바쳐싸우며 온 사회를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숭고한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이다.

이 방침은 우선 사회의 모든 성원들속에서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게 함으로써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울줄 아는 참된 혁명가로 키울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는 강령적 지침으로 된다.

이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질수 있게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 때 그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더욱 굳게 묶어세울수 있다.

또한 이 방침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모르고 왕성한 투지와 패기, 정열에 넘쳐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하며 소극과 보수를 배격하고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게 함으로써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는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전당과 전체 인민을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묶어세우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바로 여기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튼튼히 키우고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가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 사상부문일군들은 온 사회를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당중앙이 제시한 방침에 따라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업을 더욱 참신하게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영원히 충성다함으로써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이 땅우에 더욱 활짝 꽃피우며 그이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수령님에 대한 항일혁명선렬들의 끝없는 충실성의 빛나는 모범

박 희 석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본질적인 징표이다.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풍모는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부터 우러나온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은 그이를 민족의 태양으로, 위대한 수령으로 맞이한 그때로부터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마음속깊이 소중히 간직된 가장 숭고한 사상감정이며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기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있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며 우리 인민의 운명을 이끌어주시고 그 찬란한 미래를 마련해주시는 수령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을 위해 목숨도 초개와 같이 바쳐 싸워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한 세대에 간악한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세계사적공적을 이룩하고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빛내일수 있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는데서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불같은 충성심은 결코 어제오늘에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력사와 더불어 우리 인민의 심장속깊이 간직된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있다.

항일혁명선렬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암흑속에서 갈길을 몰라 헤매이던 우리 인민에게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로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언제 어디서나 티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뼈와 살로, 철석같은 신념으로 삼고 투쟁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항일혁명선렬들의 끝없는 충실성은 그 무엇으로도 움직일수 없는 확고하고도 절대적인것이였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울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모범을 따라배우고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대, 결사대의 영예를 빛내여나가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살며 싸웠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업과 생활에서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수령의 사상을 견결히 옹호하며 오직 수령의 사상을 받들고 그대로 숨쉬고 행동하는것은 혁명가들의 고귀한 풍모이다.

혁명가들은 자기들에게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안겨준 수령을 끝없이 흠모

하고 높이 모시며 수령의 혁명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져야 한다.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의지로 삼고 살며 투쟁하는 혁명가들만이 간고하고도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그 어떤 사나운 바람이 불어와도 드놀지 않고 혁명가의 지조를 굿굿이 지켜싸워나갈수 있다.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수령의 혁명사상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상도 있을수 없다. 이것은 포악한 계급적원쑤들과 각양각색의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속에서 승리의 길을 개척해온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전력사가 실증해주는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실로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의지로 삼고 살며 투쟁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수령의 혁명전사로, 열렬한 혁명가로 되는가 못되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조선의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인 항일유격대원들의 마음속깊이 간직된 유일한 신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관철하는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온갖 착취제도를 때려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이며 지구상에서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쓸어버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필승불패의 전투적기치이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그 광휘로운 빛발로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들은 조선혁명의 승리적기치였으며 이 기치를 따라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은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할수 있었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첫째가는 임무로 여기였으며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쏟아부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우리가 빨찌산투쟁을 할 때에는 책 하나 얻어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쩌다 책을 하나 얻게 되면 보풀이 일어 글자가 보이지 않고 책이 닳아떨어질 때까지 돌려보았으며 나중에 글이 정 보이지 않으면 다시 써놓기도 하고 책장이 떨어져나가면 다시 써놓아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63~64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적출판물들을 받게 되면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가며 읽고 또 읽으면서 거기에 담겨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식량이 떨어져 끼니를 넘기는 때는 있어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체득하기 위한 학습은 단 하루도 중단한 때가 없었다.

그들은 어려운 행군과정의 쉴참에도, 하루밤 묵어가는 숙영지의 우등불과 달빛 아래에서도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들을 읽으며 거기에 담겨진 심오한 혁명사상을 체득하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다하였다. 지어 그들은 적과의 판가리 싸움을 벌리는 때에도 토막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학습하였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은 이와 같이 모든 기회와 수단들을 다 리용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

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또한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에 기초한 혁명로선과 방침을 견결히 옹호하고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철저한 립장을 견지하였으며 그와 어긋나는 사소한 경향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대오를 와해시키려는 일제침략자들의 교활한 책동과 종파사대주의자, 민족배타주의자들의 악랄한 파괴책동을 반대하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을 옹호하였으며 혁명대오안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의 일색화를 실현하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웠다.

이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대오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며 주체형의 붉은 피로 끓어번지는 충성의 대오로 되였으며 수령님을 중심으로 굳게 통일단결되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길을 따라 그 어떤 사나운 폭풍과 격랑도 헤치고나가는 강철의 혁명대오로 될수 있었다.

실로 항일유격대원들은 15성상에 걸친 항일무장투쟁의 엄혹한 나날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만을 따르며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의지로 삼고 살며 싸워나감으로써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었다.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끝까지 관철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과 방침, 명령지시를 추호도 어길수 없는 법으로, 지상의 과업으로 여기고 그것을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관철하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방침, 명령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관철하는 것은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이 귀중한 혁명적규률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수령이 주는 혁명과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규률로 하여 혁명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보장하고 그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의 승리를 달성할수 있는것이다.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원칙, 수령이 주는 혁명과업을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집행하는 원칙만이 있을뿐이다. 이 원칙이 없는 사람은 수령께 진정으로 충실한 혁명가라고 말할수 없다.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인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명령지시를 관철하는것을 가장 숭고한 혁명임무로,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것을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관철하는 강의한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이것은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과 생활의 확고부동한 신조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지시에 대하여서는 어려운것과 쉬운것, 조건이 유리한것과 불리한것 등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관철하였다.

영웅적항일무장투쟁시기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지시가운데는 실로 사생결단을 각오하고 집행해야 할것도 있었고 분초를 다투는것도 있었다.

그러나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님의 명령지시에 대하여 절대로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였으며 그 관철을 위하여 물과 불 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끝까지 집행하고야마는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원칙으로 살며 투쟁하였다.

그들은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관철해

나가는 길에서 엄혹한 시련과 난관에 부닥칠 때에도 절대로 주저앉거나 실망한적이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모범을 《명령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를 비롯한 수많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에서 감명깊게 보게 된다.

수령님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을 지닌 항일유격대원들은 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강냉이 한포대를 놓고 적들과 피어린 싸움을 벌렸으며 식량포대를 부둥켜안은채 발머리에서 혁명동지들이 피흘리며 쓰러지는 가렬한 환경에서도 굴하지도, 락심하지도 않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였던것이다.

참으로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이라는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중중첩첩한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나가면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한치도, 한순간도 드팀없이 철저히 집행하였다.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지시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무조건성과 절대성의 원칙은 또한 사소한 리유와 구실, 조건타발도 없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한데서 표현되였다.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수령님께서 주신 전투임무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걸음마다 준엄한 난관이 앞을 가로막았고 어려운 조건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만약 그처럼 간고하였던 항일무장투쟁시기 항일유격대원들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지기를 앉아서 기다리거나 쉽고 헐하게 인해보자는 안일한 생각에 조금이라도 사로잡혔다면 제기된 혁명임무를 수행하기는커녕 혁명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을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오직 제기된 혁명임무에 대한 무조건성의 원칙만을 알고 그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관철해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줄 아는 사람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혁명이 요구한다면 필요한 모든것을 제때에 만들줄 알아야 한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무한히 충실한 항일유격대원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고 불리한것을 유리한것으로 전변시켜 위대한 비약과 놀라운 기적을 창조한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간고하고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도구와 자재도, 설비와 기술자도 없는 최악의 조건하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무기와 탄약, 식량과 피복, 의약품과 의료기구, 출판기자재와 학습도구에 이르기까지 혁명투쟁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과 지혜를 모아 자신의 투쟁으로 만들어내고 해결하였다.

실로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님의 명령지시와 제기된 혁명과업 수행에서 사소한 리유와 구실, 조건타발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어김없이 제때에 무조건 정확히 관철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쳤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또한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지시를 관철하는데서 형식주의와 요령주의를 부리거나 실속없이 결써하는 일이 절대로 없었으며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와 같이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관철하는 끝없는 충실성으로 하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류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 총검의 숲을 헤치고 혈로를 개척하면서 간악한 일제침략자

들과 싸워이길수 있었던것이다.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신 혁명의 사령부—이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혁명의 심장이며 참모부였다. 바로 여기에서 백전백승하는 전략전술이 작성되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한 위대한 구상이 제시되였다.

수령님께서 계신 혁명의 사령부를 떠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성과적추진도 조선혁명의 승리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었다. 수령님께서 계신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운명과 관련된 매우 심각한 문제였으며 항일유격대원들의 가장 숭고한 혁명임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수령님의 안전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였으며 수령님의 신변에 위험이 닥쳐오면 서슴없이 몸으로 막아나섰고 수령님께서 계신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였다.

15성상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전로정에는 항일유격대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한 한없이 뜨겁고 감격스러운 사실들로 차고넘치며 이것으로 하여 항일혁명투쟁력사는 더욱 빛나고 자랑스러운것이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사령부는 조선을 독립시키는 혁명의 심장이요.

우리는 그이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팔다리가 되여 그이를 받들며 철석같이 보위하여야 하오.

이 정신만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목숨을 바쳐 고수하여야 하오.》—이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의 굳은 결심이였으며 확고부동한 신조였다.

불굴의 혁명투사 오중흡동지의 생애와 활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일관되여있으며 수령님께서 계신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1938년말～1939년초 《고난의 행군》때 오중흡동지는 수령님께서 계신 혁명의 사령부를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자기의 부대를 사령부로 가장하고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허리를 치는 생눈길을 헤가르며 험산준령을 넘나들면서 적들을 유인하고 족치였다. 그는 대원들에게 《우리가 많은 적을 끌고 어려운 전투를 할수록 사령부는 안전할것이요.》라고 하면서 천고비, 만고비의 시련을 용감히 뚫고나갔으며 하루에도 10여차례씩 힘겨운 전투를 하였다. 그러다가도 적들이 추격해오지 않으면 놈들이 사령부쪽으로 뒤따르지나 않는가고 걱정되여 되돌아가 적들을 끌어내여 족치고 다시 유인하여 끌고다니였다.

참으로 오중흡동지의 용감무쌍하고 희생적인 투쟁은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시기 가장 위험한 고비에서 수령님을 보위한 빛나는 모범으로 되였으며 우리 모두의 심장을 무한히 감동시킨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또한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지시를 높이 받들고 실지 사업의 성과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였다. 그리고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와 위신을 옹호보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 수령님의 권위와 존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양보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희생하는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님을 직접 모시고있을 때에는 말할것도 없고 일시 수령님의 곁을 떠나 단독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오직 수령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의도대로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였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끓어넘치는 충성심은 그 어디에서도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가장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 *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빛나는 모범을 따라배우며 그들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는것은 오늘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항일혁명선렬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실하여야만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조선혁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아갈수 있다.

수령님께 충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자로 삼아 일하여야 하며 그와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류례없이 거창하고 방대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며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검열받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우리는 수령님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돌격전에 용감히 떨쳐나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의 충직한 친위대, 결사대로서의 영예를 빛내일수 있다.

참으로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의 영웅적투쟁으로 조국청사에 새로운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의 시대를 펼쳐놓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치게 될 격동적인 시각에 살고 있다.

위대한 주체의 시대에 태여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전사로 살며 일하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수령님께서 부르시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돌격전에 떨쳐나서 몸바쳐 싸우는것보다 더 큰 영예, 더 큰 자랑은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빛나는 모범을 따라배워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혁명적폭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단숨에 점령하고 사회주의의 더높은 고지우에 하루빨리 올라서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며 그 과정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검열받아야 한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수령님과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을 안고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뭉쳐 《속도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북소리 세차게 울리며 천리마의 우람찬 진군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빛나는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아가자.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킨 때로부터 스물네해가 지났다.

이날에 즈음하여 전체 조선인민은 우리 민족의 존엄을 유린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웠으며 오늘도 남조선에 눌러앉아 나라의 자주통일을 가로막고있는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근 30년동안이나 민족분렬의 쓰라린 력사를 체험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에 대해 침략전쟁행위를 감행하였고 또다시 새 전쟁 모험에 미쳐날뛰고있는 철천의 원쑤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며 놈들의 죄행을 영원히 잊지 않고있다.

조선전쟁은 미제의 대외침략정책의 직접적산물이며 미제는 조선전쟁의 극악한 전범자이다.

벌써 제2차세계대전행정에서부터 조선을 침략기지로 하여 아세아와 전세계를 제패할것을 꿈꾸어온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전조선을 제놈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검은 속심을 드러내놓았다.

남조선에 더러운 발을 들여놓은 미제침략자들은 전쟁준비를 계획적으로 추진시킴과 함께 1947년부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끊임없이 감행함으로써 사실상 선전포고없는 전쟁의 불을 지르고 1950년 6월에는 전면적인 무장공격을 개시하였다.

오랜기간 민족수난과 준엄한 투쟁의 길을 거쳐 조국광복과 새 생활 창조의 기쁨을 맞이한 우리 인민은 또다시 엄혹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전쟁에서 미제는 크게 오산하였다. 조선을 지도우에서 영영 없애버리려고 망상한 미제는 숱한 병력과 딸라를 탕진하였어도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할수 없었으며 력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군사전략과 주체전법으로 포악한 제국주의두목 미제를 때려눕히고 그 오만한 코대를 꺾어놓았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때로부터 20여년이 지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에서 미제는 이미 오래전에 전쟁을 도발하였다가 패배를 당하였으나 의연히 물러가지 않고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조선사람끼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는것을 가로막고있습니다.》

패전후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교훈을 찾을대신 종래의 침략야망을 한시도 버리지 않았으며 그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 나라에서 정전의 실현으로 전쟁의 불길은 멎었으나 오늘까지 20여년동안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끊임없는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공고한 평화는 이룩되지 못하고 정세는 의연히 긴장되고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저들의 아세아침략정책이 전면적으로 파탄되여감에 따라 미제는 어떻게 하나 남조선을 아세아침략의 중요지대로, 《동아세아에 있는 대륙기지》로 틀어쥐고있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남조선 《구기한》 강점을 《합법화》하는 한편 악명높

은 《닉슨주의》를 내걸고 교활하고 음흉한 량면전술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 우리 나타를 그 중요공격대상으로 삼고있다. 놈들은 《주한미군감축》이라는 기만적구호밑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매일같이 감행하고있으며 남조선괴뢰군의 《현대화》요, 《방위산업육성》이요 하면서 그들을 현대적살륙무기로 장비시키며 범죄적인 전쟁모험의 길로 내몰고있다.

최근 미제호전광들은 남조선에 있는 저들의 침략군을 《기동예비군》으로 개편하며 남조선을 영구강점할데 대하여 계속 떠벌이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에 련일 고속도고공정찰기를 침입시키며 정탐행동을 감행하면서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다.

이것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지향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수행에서 일본군국주의는 그 직접적인 공모자, 적극적인 협력자로 발벗고나서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은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또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의 파산과 말라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이미 남조선에 재침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조선을 공공연히 제놈들의 작전범위에 넣고 《자위대》침략무력을 조선전선에 출동시킬 태세를 갖추는데까지 이르렀다.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는 이와같이 민족내부의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제와 그에 협력하는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책동에 의해서 생겨난것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미일제국주의자들의 부추김이 있기때문에 상전에 명줄을 걸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이 감히 《반공체제수립》이요, 《림전대세확립》이요, 《실력배양》이요 하면서 갖은 매국배족적죄행을 거리낌없이 저지를수 있는것이다.

오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은 24년전 조선전쟁도발전야를 그대로 방불케 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오늘까지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성의있고 인내성있는 노력에 의한것이다. 우리 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인 본성과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 의해 해결하려는 확고한 립장과 떼여놓고서는 우리 나라의 평화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시종일관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분렬을 종식시키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우리 당이 내놓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우리는 또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실제적대책으로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 등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언제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깊이 헤아리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국통일5대강령에서 대결과 분렬을 막고 통일문제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도와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5대강령은 원쑤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으로 인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대구국강령으로서 여기에는 통일문제해결의 정당한 방침과 방안이 명백히 천명되고 구체화되여있다.

실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통일방안들은 모두다 민족내부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인민자신의 손으로 해

결하려는 확고한 자주사상으로 일관되고 민족의 지향과 념원,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한 제의들이 남조선반동통치배들로부터 응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고있으며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북과 남사이에 접촉은 이루어졌으나 대화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들어갔으며 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큰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남북공동성명에 도장을 찍고 돌아앉자마자 그것을 《믿을수 없는 종이장》으로 치부해버렸으며 미일제국주의자들의 개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언약하고는 우리의 진지한 통일제안을 무조건 거부하고 외세에 매달려 민족의 영구분렬을 꾀하고있다.

요즘 박정희괴뢰도당의 민족분렬책동과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도발행위는 더욱더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폭압을 전례없이 강화하고 남조선전역을 살기어린 감옥으로, 피비린내나는 학살의 마당으로 전변시키고있는 극악무도한 박정희매국역적은 저들의 범죄행위를 가리우고 인민들의 주목을 딴데로 돌리기 위하여 군사적도발을 계획적으로 감행하고있으며 《남침위협》이란 구실밑에 《반공》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리면서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고있다.

미제의 부추김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박정희역적과 같은 철저한 식민지괴뢰가 이러한 범죄적책동을 감행할 엄두도 낼수 없을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말로는 조선의 통일을 바라는척하지만 실제로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찬물을 끼얹으며 그를 악랄하게 방해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사실상 처음부터 나라를 통일할 의향이 없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 대세의 압력에 못이겨 대화에 끌려나왔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민들의 각성을 무마시키고 저들의 분렬주의책동을 가리우며 뒤흔들리는 식민지파쑈통치의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속심에서 출발한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박정희도당을 사촉하여 남북대화를 파탄지경에 몰아넣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정세를 긴장시킴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영구강점을 합리화하려 하고있으며 나아가서 조선에서 동족상쟁의 충돌을 야기시켜 제놈들의 침략야망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목적밑에 미제는 남조선괴뢰도당을 《힘의 립장》에서 우리와 대결하도록 적극 부추기고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공공연히 감행해나서고있으며 긴장상태를 더욱더 격화시키고있는것이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조선의 통일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관심이 없고 계속 대결과 분렬, 침략과 전쟁을 꾀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결코 놈들을 좋게 대할수는 없다. 우리는 분렬주의자들이 민족의 통일문제를 가지고 우롱하는것을 묵과하지 않을것이며 용서치 않을것이다.

모든 사실이 명백한바와 같이 우리 조국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새 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근원은 다름아닌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놈들의 침략정책에 있다.

미제야말로 근 30년동안이나 남조선땅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민족분렬의 비극을 강요하고있으며 남조선반동들의 매국배족행위를 비호조장하고있는 장본인이며 우리 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을 반대하는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침략자이며 철천의 원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에는 외래침략군대에 의하여 나라가 강점되고 외세의 간섭이 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독립과 통일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02페지)

조국통일위업은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투쟁이다.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은 매개 민족의 응당한 권리이며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행복과 영예가 있고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나라안에 강도적인 제국주의침략자들이 둥지를 틀고앉아있는 조건에서 민족의 자주권과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바랄수 없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오직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이 물러가고 그 식민지통치가 종식되여야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한 우리 인민은 한시도 편안히 살수 없고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될수 없으며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수 없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 더이상 머물러있을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이른바 《남침위협》으로부터의 《보호》요, 《안전보장》이요 하고 떠들고있으나 놈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저들의 남조선강점을 정당화할수 없다. 원래 《남침위협》이란 있어본적도 없고 있지도 않다. 우리는 이미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으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시종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얼마전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가 우리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사실이 또한번 그것을 명백히 실증하고있다.

새로운 평화협정체결제의로 말하면 그것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발기이며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시대적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현실적인 조치이다.

오늘 미제는 남조선에서 전쟁수단에 대한 통제권을 비롯하여 모든 실권을 틀어쥔 실제적통치자이며 박정희역도는 빈손만 가진 허수아비이다. 더우기 미제가 조선정전협정조인일방인 조건에서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에 관심이 있다면 응당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발기를 받아들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저들의 침략군대를 끌어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그 어떤 나약성으로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 눌러있었댔자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끝끝내 침략과 전쟁도발의 길로 나간다면 놈들에게는 더 큰 참패만이 차례질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쟁하면서도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덤벼들며 우리 조국의 존엄을 건드린다면 우리 인민은 단호한 보복으로 대답할것이며 침략자들을 끝까지 소탕해버릴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에서 겪은 참패에서 마땅히 교훈을 찾아야 한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에는 그 어떠한 침략자들도 단매에 때려눕힐수 있는 모든것이 다 마련되여있다. 우리 당은 오직 하나의 혈통, 주체의 혈통으로 세차게 맥박치는 더욱 전투적인 당, 세련되고 로숙한 강철의 당으로 강화되였으며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중앙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 뜨거운 충성의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더욱 생활력있고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하고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주체의 사회주의제도가 있으며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충천한 기세와 용기에 넘쳐 투쟁과 전진만을 아는 영웅적인민과 금성철벽의 자위력, 일당백, 일당천의 혁명무력이 있다.

우리는 새로운 력사적시대, 지난날 억압받고 착취받던 제3세계나라들, 혁명하는 나라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와 맞서싸우는 자주성의 시대에 살고있

다. 우리 시대는 제국주의가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고 압박받던 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고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민족적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력사의 새 시대이다. 시대는 달라지고 정세는 변하였으며 대세는 우리 혁명에 더욱더 유리하게 반전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시대의 흐름과 현실을 똑똑히 보고 분별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력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우리 조국의 자주통일을 방해하고 민족의 영구분렬을 획책하며 끝끝내 새 전쟁의 모험을 감행해나선다면 놈들은 지난 조선전쟁때보다 몇배, 몇십배 더 쓴맛을 보게 될것이며 호된 징벌을 받고 멸망하고말것이다.

민족적량심을 가진 모든 조선사람들과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자기의 민족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보다 더 신성한 임무는 없다. 우리는 나라의 절반땅이 미일제국주의의 범의 아구리에 들어가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고 평화적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것이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매국도당의 분렬주의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반미, 반일, 반괴뢰 투쟁에 더욱 용감히 떨쳐나서야 하며 놈들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의 아성을 짓부시고 침략자와 매국노들을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끌어내야 한다.

외래침략자들과 매국노들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외롭지 않다.

우리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한피줄을 이은 같은 민족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것을 응당한 의무로 여기고있으며 어느때나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치렬한 반제반미투쟁이며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인민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이다.

우리는 원쑤들의 도발책동으로 정세가 긴장하고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험이 떠돌고있는 조건에서 잠시도 안일해이할수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평화적기분을 철저히 배격하고 옳은 전쟁관점을 가져야 하며 만일 미일침략자들과 남조선반동들이 분별없이 덤벼든다면 주체조선의 명예를 걸고 영웅적으로 싸워 단연 결판을 내기 위한 정치사상적준비를 튼튼히 갖추고있어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성과는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가져오며 제국주의침략자들과 온갖 원쑤들에게 강한 철추를 내리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귀중한 밑천이며 힘의 원천이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혁명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당중앙이 내세운 《속도전》의 기치밑에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거창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조국통일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조선인민의 영웅적기개와 위훈을 남김없이 떨치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충성의 대오로 철석같이 뭉쳐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산산이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건설의 근본문제

방 연 승

혁명의 령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혁명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문학예술이 노는 역할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과 방도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으며 그 관철에로 작가, 예술인들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우리 문학예술을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시키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 독창적인 사상으로서 혁명적문예리론발전에 탁월한 기여로 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 자기 당 정책으로 전당을 무장시키고 모든 당원들을 수령과 당중앙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사업을 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도 근본문제로 나선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응당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여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되여야 한다.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근본문제로 제기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혁명적문학예술의 기본사명과 관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리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하여서도 안됩니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579페지)

혁명적문학예술은 로동계급과 그 당의 수중에 장악된 중요한 사상적무기로서 당사상사업의 일익을 담당한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의 사명은 당사상사업의 총적임무에 의하여 규정된다.

당중앙에서 현명하게 밝힌바와 같이 우리 당사업, 당활동의 총적임무는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전사로 만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해나가는것이다. 이로부터 우리의 문학예술은 철두철미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에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로 되여야 하며 근로자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사상적무기로 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문학예술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설 때라야만 당의 사상적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근본문제로 제기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적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서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 때라야만 문학예술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건설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하여 건설된 문학예술만이 참으로 혁명적인것으로 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다.

만일 수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문학예술은 혁명적문학예술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는것은 물론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이라고 말할수 없다.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문학예술을 건설하며 모든 문예작품에서 수령의 혁명사상이 꽉 들어차게 하여야만 문학예술은 진정으로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강화하고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주체적문예사상은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건설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이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 인민들뿐아니라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과 도덕을 집대성한 고귀한 사상정신적량식이며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근본방향과 요구, 공산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며 위력한 투쟁의 무기이다.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문학예술부문에 구현한 독창적인 사상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건설을 위한 유일하게 옳바른 지도사상이다.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에는 우리 문학예술의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술형상창조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적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주체적문예사상에 철저히 기초함으로써만 문학예술은 참말로 우리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이바지하는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발전할수 있다.

이것은 당과 혁명의 리익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하며 모든 작품들에서 당의 유일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야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또한 부르죠아사상과 수정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동적이며 불건전한 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혁명적기치를 고수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이 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으며 수정주의자들이 문학예술의 당성, 로동계급성을 거세하고있는 조건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로동계급적선을 날카롭게 세우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혁명적문학예술은 오직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만 온갖 반동적이고 반혁명적인 사상과 문예조류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혁명적기치를 끝까지 고수할수 있다.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예술적자질을 높이게 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서야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성도 높아지고 예술성도 높아진다고 가르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에는 작가, 예술인들의 세계관이 반영되며 따라서 창작가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은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게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문학예술이 무한히 발전할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조건과 가능성이 저절로 물질적힘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직 작가, 예술인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관철하려는 충성심으로 가슴을 불태울 때 수령님의 참된 문예전사로서의 높은 자각과 영예를 가지고 자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술적자질과 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게 되며 비상한 창작적열정을 가지고 장엄한 현실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근본문제이며 주체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킬수 있는 결정적담보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　　　*

우리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을 그려야 한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비범한 예지,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 수령님의 인민적사업작풍과 혁명적사업방법을 빛나게 형상하여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강의한 혁명적의지,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체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더욱 공고한것으로 발전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하면 할수록 인민대중은 수령님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으로 일편단심 그이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몸바쳐싸워나갈수 있다.

대중교양의 힘있는 무기인 우리 문학예술은 화폭의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인민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전당,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선차적과업이며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이와 함께 우리 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불타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우리 시대 혁명가들의 전형을 잘 그려야 한다.

혁명을 위하여 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가장 본질적인 징표이다.

우리 나라의 참다운 혁명가들과 영웅전사들은 언제나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싸워왔다. 참으로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일편단심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로삼고 그것을 무조건 옹호관철한 혁명선렬들과 우리 시대의 영웅전사들은 우리 인민이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싸워

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빛나는 모범이며 훌륭한 귀감이다.

우리 문학예술은 이런 참된 공산주의자들을 형상하여야만 그것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대, 결사대로, 수령님의 명령지시라면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인련한 혁명전사로 키울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문학예술의 직접적담당자인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선두에는 우리 당이 서 있습니다. 당의 의도를 잘 모르고서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전진운동을 정확하게 리해할수 없습니다.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덮어놓고 공장이나 농촌으로 내려만 간다고 하여 우리의 현실을 잘 알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복잡한 현실속에서 새것과 낡은것을 가려낼수 있으며 본질적인것을 정확하게 찾아낼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79페지)

작가, 예술인들은 무엇보다도먼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어야 하며 현실에 대한 혁명적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창작가들이 현실을 분석일반화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과 관점, 방법을 가져야 사회주의적문예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에게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유일하게 옳은 자료주며 현실에 대한 로동계급의 혁명적관점과 태도, 방법을 주는것은 바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이다.

당중앙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창작의 기초이며 창작전과정의 지침이며 창작총화의 기준으로 된다고 가르치였다.

당에서 밝힌 이 사상은 창작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에 튼튼히 의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을 구현한것으로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우선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종자를 똑바로 잡고 당정책을 창작의 기초로, 출발점으로 하여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오직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들이 절실히 해명을 바라는 문제를 작품의 종자로 잡아쥘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탐구에서 작품의 운명을 좌우하는 종자를 바로 쥐며 작품창작에로 고무추동하는 사상적충동을 받아안으려면 그 기초로 되며 출발점으로 되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작품창작의 기초로 될뿐아니라 또한 틀라잡은 종자를 사상예술적으로 가꾸고 꽃피우게 하는 창작전과정의 지침으로 된다.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이 창작과정의 지침으로 된다는것은 인간과 그의 생활을 전형화하는데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자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작품의 모든 요소들은 그 어느 하나도 일반화와 개성화의 통일적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전형화를 거치지 않고서는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전형화의 척도인 당의 로선과 정책에 튼튼히 의거하여야 인간과 그 생활의 본질을 개별적인것속에서 비반복적으로 구체화할수 있다. 그러므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은 일반화의 과정에서뿐아니라 개성화과정에서도 반드시 의거하여야 할 지침으로 된다.

당에서는 작가, 예술인들에게 독창성과 개성화의 원칙을 옳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적인 안목을 가지고 생활을 어디까지나 독창적으로 탐구하고 파악하여야 하며 그를 일반화하고 개성화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당정책적안목이 있어야 창작가들이 현실반영에서 생활을 독창적으로 탐구할수 있으며 작품의 모든 요소들을 사상예술성이 높게 일반화하고 개성화할수 있다.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은 창작과정의 지침으로 될뿐아니라 또한 창작된 작품의 성과를 분석일반화하는데서도 유일하게 옳은 기준으로 된다.

그것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모든 사물과 현상을 재보는 유일한 척도이며 현실탐구로부터 시작하여 문예창작의 전과정에서 유일하게 옳은 자로 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작품의 성과를 옳게 분석일반화하자면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창작의 기초로, 창작전과정의 지침으로, 창작총화의 기준으로 삼을데 대한 당의 사상은 창작실천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서 그것은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작품에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차게 하며 오직 주체형의 피만이 맥맥히 흐르게 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웅적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문학예술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이다.

당에서는 수령님께서 몸소 이룩하신 우리 문학예술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똑바로 찾고 그것을 옹호하며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이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밝혀주고 그 관철에로 작가, 예술인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인 문예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혁명투쟁에서 유격대원들을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적락관주의로 교양하였으며 인민들에게도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문학예술이 노는 거대한 인식교양적, 동원적 기능과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적문학예술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수령님의 지도밑에 항일혁명문학예술은 가장 당적이고도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서 찬란히 개화발전하였으며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투쟁과 승리에로 고무추동하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항일혁명문학예술은 우리 문학예술의 튼튼하고 풍만한 뿌리로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당의 유일사상으로 일관된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정수이며 끝없이 귀중한 고전적본보기이며 재부이다.

그러므로 항일혁명문학예술을 따라배우고 그것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며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당에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오늘의 영화화면과 가극무대, 소설 등에 옮기는 위대한 사업을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문학예술을 새로운 발전의 길에 올려세웠다.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또한 창작과정을 혁명화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새로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

치적자각과 기술로써 보답하며 실천을 통하여 일편단심 수령님과 당에 충성다하는 열렬한 혁명가로 끊임없이 준비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창작하고 생활하는 혁명적조직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특히 당중앙이 내놓은 혁명적조직생활총화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며 사상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에 따라 사상투쟁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작가, 예술인들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혁명화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실천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뿐아니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투쟁과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로 적극 불러일으킬수 있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지도를 보장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작가, 예술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들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는 결정적담보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새로운 방침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 관한 혁명적문예리론발전에 새로운 기여를 한 독창적인 사상으로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 *

우리 당은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문예사상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로 하여금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일관된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문학예술로 개화발전할수 있게 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문학예술에 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실현하는 당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고있으며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의 대렬,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찬 작가, 예술인들의 대부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나라로 온 세상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을 서사시적화폭으로 반영한 혁명적대작들이 수많이 창작되고 당보의 사설과 같은 주체적인 혁명적영화작품들과 세계가극발전의 불멸의 기치인 혁명가극, 《피바다》식혁명가극작품들이 쏟아져나오는 기적적인 사실들이 그것을 확증하여주고있다. 또한 만수대예술단이 국제무대에 진출하여 주체적인 음악무용의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친것은 그 빛나는 변혁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찬 혁명적문학예술, 이것은 참으로 당의 수중에 장악된 문학예술의 모범이며 당적문학예술의 가장 높은 발전단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그를 관철하기 위한 당의 직접적인 지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활동을 계속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을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찬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더욱 찬란히 꽃피울것이다.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과 그 빛나는 승리

최　중　삼

인테리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의 하나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이 문제는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사회주의에로 나아가고있으며 사회주의의 견인력이 증대되고있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과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우리 혁명과 우리 나라 인테리의 특성, 국제혁명운동의 력사적경험을 천재적으로 분석하시고 가장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인테리정책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시대앞에 나선 이 절박한 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으며 인테리문제해결의 가장 곧바른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인테리정책이 있었음으로하여 우리 당은 인테리문제를 그 어떤 편향도 없이 순조롭게 풀수 있었으며 짧은 기간에 정치사상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믿음직한 민족간부의 대부대를 꾸려놓을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인테리문제의 빛나는 해결,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인테리문제해결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의 위대성과 창조성,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현실로 확증하는 자랑찬 사변이며 주체사상의 위력을 뚜렷이 보여주는 힘있는 증거의 하나로 된다.

*　　　*

주권을 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인테리문제해결에서 선참으로 맞다드는것은 오랜 인테리에 대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랜 인테리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인테리문제 그자체의 해결을 위해서뿐아니라 새 사회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기술간부의 대렬을 꾸리는데서 오랜 인테리들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랜 인테리들을 새 사회의 건설에 끌어들이는가 못들이는가 하는것은 나라의 경제문화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특히 혁명의 첫시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16페지)

오랜 인테리문제의 성과적해결이 새 사회 건설에서 특히 혁명의 첫시기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로동계급이 낡은 사회에서 자기에게 복무할 새로운 인테리간부를 가질수 없었으며 과학과 기술을 가진 인테리들이 없이는 새 사회 건설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고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새 인테리들을 짧은 기간에 육성해낼수 없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오랜 인테리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것은 민족간부양성이 극도로 억제당하여 오랜 인테리마저 그 수가 많지않은 지난날의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 인테리문제해결이 가지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오랜 인테리들을 새 사회 건설에 끌어들이기 위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오랜 인테리문제, 이것은 낡은 사회에서 착취계급을 위하여 복무한 인테리들을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새 사회건설에 참가시키고 로동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테리로 개조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

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새 사회 건설에서 인테리들이 노는 중요한 역할과 우리 나라 오랜 인테리들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해방직후부터 인테리들을 혁명의 동력으로, 당의 구성성분으로 규정하심으로써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수 있는 튼튼한 전제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계급의 전위대인것만큼 어디까지나 당의 구성에서 로동계급을 첫째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당안에서 로동계급이 골간이 되고 핵심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농민과 근로인테리를 혁명의 동력으로 인정하고 당의 구성성분으로 규정한것은 우리 나라의 사회계급관계와 혁명의 성격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나온 가장 옳바른 방침입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535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테리들을 혁명의 동력으로, 당의 구성성분으로 규정하시는데서 첫째로, 오랜 인테리들이 일본제국주의의 민족적억압과 차별대우를 받았기때문에 반제혁명의식과 민주주의적혁명성을 가지고있다는것, 둘째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민족공업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계급구성에서 큰 자산계급출신은 비교적 적고 대부분이 소자산계급출신이였다는것, 셋째로, 인테리들이 사회발전법칙을 인식하고 로동계급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으며 봉건적락후성때문에 자기들이 망국노의 처지에 떨어졌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고 자기 나라를 부강하고 발전된 독립국가로 만들려는 애국주의정신이 있었다는것을 중요하게 타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그 어떤 기존 경험이나 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오랜 인테리들을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며 교양개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정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오랜 인테리들을 포섭하고 교양개조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은 인테리문제해결의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이 방침의 기본요구는 혁명을 지지해나서는 인테리들에 대해서는 계급적출신, 주위환경, 과거사회정치생활의 경위를 묻지 않고 대담하게 믿고 일을 맡기며 그들이 새 사회 건설에서 자기의 힘과 지혜, 지식과 기술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지어주는 한편 오랜 인테리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적극 벌리고 혁명실천을 통하여 꾸준히 단련함으로써 그들을 혁명의 일시적동반자로서가 아니라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인테리로 개조하는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 방침은 오랜 인테리들에게 있는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다 같이 보고 포섭과 적극적인 교양의 두 측면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것을 요구한다. 물론 오랜 인테리들은 대부분 부유한 가정의 출신이고 지난날에는 일본제국주의와 착취계급에게 복무하였기때문에 계급적출신과 주위환경, 사회정치생활의 경위 등이 복잡할수 있으며 그들에게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사상잔재도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여 인테리들의 혁명성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의심하면서 포섭을 꺼리하거나 반대하는것은 옳지 않은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 인테리들을 덮어놓고 의심하고 배척하는것을 하나의 종파주의적경향으로 그리고 인테리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것을 과학과 기술을 무시하는 해독적인 경향으로 규정하시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지지해나서는 오랜 인테리들을 새 사회 건설에 적극 끌어들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 인테리들을 계급적출신과만 련결시켜보면서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경향과 함께 포섭일면만을 강조하면서 적극적

인 교양개조의 측면을 홀시하는 그릇된 편향도 철저히 경계하도록 하시였다.

오랜 인테리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지 않을 때에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들이 되살아나고 조장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사상적으로 변질되여 혁명의 락오자로 될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요구와 사상의식개조의 합법칙성, 인테리들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신데 기초하시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오랜 인테리들에게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의 옳바른 방향과 과업을 제시하시고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꾸준히 밀고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와 함께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오랜 인테리들이 한계단 더 높은 혁명의 요구를 받아물고 새로운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감당수행할수 있는 정치사상적준비를 갖추도록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러한 현명한 방침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오랜 인테리들을 새 사회 건설에 인입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적인테리로 교양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아무런 편향도 없이 순조롭게 수행되었으며 오랜 인테리들에게 남아있던 이중성문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되게 되었다.

우리 나라 오랜 인테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깨닫고 자기의 계급적토대와 결별하였으며 자기의 운명을 혁명과 련결시키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을 걸어왔다. 그들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시기에도,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기에도, 전후 안팎의 원쑤들이 당을 공격하여나섰던 어려운 시기에도 그리고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복잡한 사상투쟁에서도 일편단심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를 옹호하고 당과 혁명을 지지하여나섰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공훈을 세웠다. 그들은 당의 꾸준한 교양과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을 통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울수 있는 훌륭한 사회주의적인테리로 자라났다.

오랜 인테리들을 사회주의적인테리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그들을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가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의 빛나는 결실이며 인테리들에 대한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의 표시이다. 그것은 또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 인테리정책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보여주는 생동한 증기로 되며 력사상 처음으로 오랜 인테리들을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만들어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가는 가장 올바른 길을 개척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체의 인테리부대를 튼튼히 꾸리고 늘어나는 민족간부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오랜 인테리들을 포섭하고 교양개조하는것과 함께 근로인민출신의 새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키우는 사업에 가장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으며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현명하고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오랜 인테리들을 개조하는것과 함께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민족간부를 키우는데 가장 큰 관심을 돌렸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17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정권을 잡은 다음 유리한 사회서조건을 리용하여 새 인테리들을 많이 길러내야 민족간부대렬의 계급적구성을 개선할수 있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직한 인테리부대를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민족간부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풀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다.

새 인테리들을 많이 키워내는것은 지난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었고 자체의 민족간부가 매우 적었던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특히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뒤떨어진 처지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민족간부양성사업과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 직접적담당자이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힘있는 존재이며 따라서 사회발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이다. 민족간부양성사업과 교육사업을 다른 사업에 앞세워 사람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울 때 혁명과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사회발전이 더욱 촉진된다는것은 혁명발전의 중요한 원리이며 실천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위대한 진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과의 사업의 중요한 한 부문인 교육사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로부터 출발하시여 민족간부양성사업과 교육사업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이 사업에 크나큰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해방직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첫의정에 연필문제를 올려주신 수령님의 높은 뜻에는 민족간부양성사업과 교육사업에 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관심과 극진한 배려가 담겨져있다.

민족간부양성사업과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경험도 없고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혁명과 건설의 전진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해방직후 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을 세우고 각급 교육망을 대대적으로 늘였으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민족간부양성사업을 계속하였고 전후에는 이 사업에 더욱 큰 힘을 돌렸다. 우리 당과 인민이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족간부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풀고 짧은 기간에 자체의 믿음직한 민족간부대렬을 꾸려놓은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이 방침의 빛나는 열매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함께 공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체계를 병행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 나라의 모든 지방에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를 꾸릴데 대한 방침,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할데 대한 방침 등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모든 독창적인 방침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방대하게 요구되는 새 인테리들을 가장 빠른 기간안에 대대적으로 육성할수 있는 원칙적방향과 과학적방도들을 새롭게 밝힌것으로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체의 힘으로 공고한 새 인테리부대를 성과적으로 꾸리기 위하여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근로인민출신의 새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할데 대한 방침의 위대성과 정당성, 그 불패의 생활력은 우리 나라에서 짧은 기간안에 튼튼한 간부양성기지가 축성되고 새 인테리의 대부대가 꾸려진데서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모든 인테리들

올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한데 대한 혁명적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새 인테리나 오랜 인테리나 할것없이 전체 인테리들을 철저히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할것이며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그들과 언제나 함께 싸워나갈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73 폐지)

인테리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인테리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들을 남김없이 뿌리빼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로동계급의 혁명적인테리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이것은 인테리들의 사상의식, 정신도덕적풍모를 완전히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개조하는것을 말하며 그들을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싸우는 열렬한 혁명투사, 공산주의자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전과정에 걸쳐 확고히 견지하여 온 인테리를 교양개조할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의 계속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된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그것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심화발전시킨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테리들이 어느 계급을 위하여 복무할것인가 하는 이중성문제가 이미 해결된 조건에서 그들앞에는 어떻게 하면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할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나서고있다.

인테리의 이중성문제가 해결되였다고 하여 인테리들을 혁명화할 필요가 더는 없다거나 인테리문제가 더는 제기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하고 낡은 사상이 새로 발생할수 있는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 근원이 없어진 다음에도 인테리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고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화를 소홀히 할 때에는 그들을 공산주의사회에까지 이끌어갈수 없다.

인테리혁명화, 이것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뗄수 없는 구성부분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인 요구이다.

온 사회의 혁명화에서 인테리혁명화가 차지하는 중요한 지위는 무엇보다 먼저 사회주의하에서 인테리들에게 부르죠아적 및 소부르죠아적 사상잔재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다는 사정에 의해서 규정된다.

인테리들은 그 생활경로의 복잡성, 생산실천과 떨어져 정신로동을 하는 직업적특성 등으로 하여 혁명적으로 단련될 기회가 적다. 이것은 사회주의하에서 인테리혁명화가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준다.

인테리혁명화의 필연성과 중요성은 또한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면 될수록 인테리앞에 더욱 중요한 임무가 나선다는 사정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인테리를 철저히 혁명화하여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다음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과업인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잘해나갈수 없으며 공산주의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도 없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인테리혁명화, 로동계급화의 필연성뿐아니라 그 옳바른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테리들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비판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 인테리들이 부단히 현실과 접촉하고 군중속에 들어가서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단련하며 로동자, 농민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담은 인테리혁명화의 성과적수행을

보하는 위력한 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사상은 사회주의하에서 인테리문제를 정확히 해결할수 있는 길을 밝혀준 사상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인테리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인테리문제해결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가장 간고한 조건에서도 인테리부대를 꾸리는 일과 같은, 보통이면 몇세기를 두고도 하기 힘든 거창한 력사적과업을 짧은 기간에 수행하였으며 민족간부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오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우리 당이 중첩되는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면서 큰 힘과 밑천을 넣어 키워낸 60여만명의 기술자, 전문가들이 일하고있으며 그들의 지혜와 힘에 의하여 국가경제기관들과 과학문화기관들,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다. 60여만에 이르는 민족간부대렬의 육성, 이것은 자체의 민족간부의 대부대를 마련할데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의 빛나는 결실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가장 큰 성과의 하나이다. 이것은 해방직후 주민의 80%가 문맹자였고 단 하나의 대학도 없었으며 민족기술간부가 극히 적었고 기관사마저 4명밖에 없었던 당시의 형편과 대비할 때 말그대로 하나의 비약이고 기적이며 우리 당 인테리정책의 정당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위대한 력사적사변이다.

오늘 우리 당은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이룩한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6개년계획기간에 100만명이상의 인테리대군을 마련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인테리혁명화에 관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테리들의 정치도덕적풍모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인테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자기의 모든 지혜와 힘을 혁명과 건설에 바치고있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거창하고 웅대한 사회주의대건설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 력사적인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의 방침을 받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인테리들의 역할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높일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으며 인테리들앞에 매우 중대하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제기하고있다.

우리의 인테리들은 무엇보다도 3대혁명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혁명과업인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중대한 임무를 맡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사람들의 의식령역에서까지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그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을 사상혁명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이 영예로운 과업은 우리 인테리들 투

히 당의 사상리론전선에서 일하는 인테리들앞에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대중속에 널리 해설선전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보위하며 온갖 낡은 사상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전격적으로, 진공적으로 벌릴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우리의 인테리들앞에는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특히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도 참으로 영예롭고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3대기술혁명은 우리 나라에 있는 수십만 인테리들의 높은 창조적활동을 더욱 높일것을 전제로 한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3대기술혁명은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3대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과학기술인테리들의 창조적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기술혁명의 과업수행과 사회주의건설의 빠른 전진을 이룩할수 없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서는 기계공학, 전자공학과 자동화공학을 빨리 발전시키고 설계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서는 모내는 기계, 벼베는 기계, 탈곡기 등 능률적인 농기계를 많이 만들어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며 화학화를 다그치고 1대잡종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는 식료가공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현대적이고 편리한 부엌세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이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인테리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우리의 인테리들은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도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다.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인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사업도 근로자들속에 과학기술지식과 사회주의문화를 보급하며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서 보급자, 교양자적 역할을 맡고있는 인테리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떠나서는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없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청년인테리들앞에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며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소유하고있으며 새것을 좋아하고 낡은것을 대담하게 버리는 혁명성이 강한 청년인테리들은 오늘 온갖 낡고 침체한 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는 3대혁명수행에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이러한 청년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은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참으로 우리의 인테리들에게 있어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 사업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바치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인테리들이 자기 맡은 초소에서 3대혁명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으로 된다.

모든 인테리들은 3대혁명의 기수가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먼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절대화하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수령님에 대한 한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으로 심장을 불태워나가야 하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에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바치 투쟁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화와 그 집수및 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정신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혁명가, 공산주의자의 사상정신적풍모를 특징짓는 기본징표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테리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

히 무장하고 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이 혁명하는 시대 우리 인테리들의 기본품성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겠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인테리들은 수령님과 당을 위한,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혁명의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싸워나가야 한다.

인테리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옳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우리 인테리들은 당중앙이 내놓은 조직생활총화체계에 따라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험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치적조직생활을 게을리하고 조직의 통제에서 벗어날 때에는 례외없이 안일해이해지고 교만해지며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여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인테리들은 당중앙이 내놓은 방침에 따라 정치적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조직의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사상전》의 용광로속에 솔선 뛰여들어 낡은 사상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자신을 생신한 당의 인테리로 준비해야 한다.

인테리들은 또한 그 누구보다도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짧은 기간안에 한계단 더 높은 자질을 소유하며 특히 자연과학수준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렇게 할 때라야만 수령님과 당의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할수 있다.

오늘 과학자, 기술자들과 교육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과도 관련된다.

우리는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양성해낼뿐아니라 그들의 과학리론적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따라세워야 하며 특히 자연과학기술교육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주체와 로동계급적선을 똑바로 세우며 과학리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주체적인 인테리정책은 우리 나라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 인테리정책의 빛나는 승리, 이것은 인테리문제해결에 관한 수령님의 위대하고 독창적인 사상의 승리이며 수령님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의 인테리들이 걸어온 자랑찬 력사,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것을 구현한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우리의 인테리들이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과 건설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온 보람찬 로정이며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온 력사이다.

우리의 모든 인테리들은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드높은 긍지와 영예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할 불같은 한마음으로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끝까지 싸워나아갈것이다.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것은 농업전선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심 유 흠

오늘 농업전선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의 혁명적방침과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농업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까지 충성다할 철석같은 신념과 드높은 혁명적열정을 안고 돌격전에 떨쳐나선 농업전사들과 농촌지원자들의 억센 투쟁에 의하여 농촌테제발표 열돐이 되는 올해에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올해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며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1,000만톤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기 위하여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는 오늘 수령님께서는 농업전선에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것을 중요하게 요구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는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신년사》, 1974년 1월 1일, 12페지)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것은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현시대 농업발전의 필수적인 요구이다.

현대농업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농업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으며 자립적민족경제와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수 있다.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것은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전기화가 이미 오래전에 완성되였으며 우리의 농업이 공업화, 현대화되여가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오늘 더욱 절실한 과업의 하나로 나선다.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다는것은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주체적인 영농방침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농작물의 특성과 토양기후적조건 그리고 현대과학기술의 리치에 맞게 농사를 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농업과학기술의 발전과 우리 나라 농업생산의 특성을 깊이 분석하시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영농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데 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영농방침에서 중요한것의 하나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우리 나라는 매개 지방과 곬짜기마다 기상기후조건이 다르고 땅의 성질이 같지 않다. 모든 농사일에는 알맞춤한 때가 있는만큼 지대적특성에 맞게 작물을 선정하고 우량품종을 적당한 시기에 심고 가꾸는것은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수령님께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한 방침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땅의 성질과 기상기후적특성, 농작물의 생물학적요구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과학적인 영농

방침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농업을 집약화하는것이다.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데 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영농방침에는 과학적인 시비체계와 토양관리체계, 합리적인 경종체계, 종자개량을 비롯하여 농촌경리의 집약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영농방법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데 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영농방침은 무엇보다먼저 기술혁명이 심화되고 농업이 공업화, 현대화되여가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적대책을 따라세워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킬수 있게 하는 선진적인 영농방침이다.

자연을 정복하고 생물체를 다루는 농업생산은 그것이 현대적기술수단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도 공업과는 달리 생물학적재생산과정으로 남아있게된다. 그러므로 농업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기 위해서는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과 비료, 농약을 충분히 보장하는것과 함께 선진적인 농업기술적대책을 따라세워 농작물의 생물학적요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과학적인 영농방침은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품종을 배치하며 과학적 토양관리체계와 시비체계를 세우고 선진재배기술을 널리 도입하며 병충해를 막기 위한 예찰 및 구제 사업을 진행하는 등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워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킬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영농방침은 또한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들과 비료, 농약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농촌경리의 집약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영농방침이다.

현대농업과학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것은 농작물의 생물학적요구에 맞게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 화학화에 리용되는 여러가지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영농방침은 농작물의 생물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농작물의 성장에 유리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더잘 보장하며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과 비료, 농약의 리용에서 그 효과성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 뿐아니라 이 방침은 농촌경리를 현대적인 기술수단들로 더욱 튼튼히 장비하게 하며 농기계, 비료, 농약의 효과성을 결정적으로 높이게 함으로써 정보당 수확고를 늘이고 토지의 자연적제한성을 극복할수 있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영농방침은 또한 현대생물학적연구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농업생산을 급속히 늘일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영농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작물의 정당수확고를 높이는 커다란 예비는 생물학적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그 성과를 농업생산에 널리 적용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51페지)

농업생산과정은 종자를 시초원료로 하는것만큼 품종개량이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런데 높은 소출을 내는 다수확품종은 그것이 단순한 경험과 뒤떨어진 기술, 락후한 영농방법에 의하여 갱신될수 없다. 오직 주체적인 농업과학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품종을 개량하여나갈 때만이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영농방침은 생물학적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소출이 낮은 품종을 다수확품종으로 만들며 식물체의 생육과정을 더욱 촉진시키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영농방침이다. 이 영농방침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는 단작농법과 알곡 대 알곡을 기본으로 하는 2모작농법 그리고 간혼작 등 선진적인 경종법을 널리 도입할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적인 영농방침의 확립, 이것은 농업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언제나 깊이 헤아리시고 그 해결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우리 농민들에 대한 수령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배려, 세심한 보살피심이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온 나라의 벌방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를 몸소 찾으시여 기후풍토를 일일이 알아보시며 손수 시험포전에서 농사를 지어보시면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영농방침을 마련해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기간 그 어느 과학자도 어느 농업지도일군도 포착하지 못하였던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몸소 해결하시고 완강한 혁명적전개력으로 그의 성과적실현에로 농업근로자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벼수확을 높이는 커다란 예비가 과학적인 벼모기르기에 있다는것을 통찰하시고 벼모기르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시였으며 종자를 적극 개량하고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뿐아니라 수령님께서는 강냉이농사에서 결주된것을 제때에 보식하는것이 소출을 높이는 큰 예비라는것을 포착하시고 강냉이발머리에 영양단지예비모를 부었다가 빠짐없이 보식하여 평당대수를 정확히 보장하고 충하를 없애도록 함으로써 강냉이생산을 훨씬 높이게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화학비료의 종류와 그 공급량이 늘어난 조건에서 그것을 과학적리치에 맞게 써서 비료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그 해결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논갈이갈이, 랭습지개량방도, 작물의 합리적인 밀식 등을 비롯하여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영농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농업근로자들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지난해와 같이 기후가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도 우리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례년에 드문 대풍을 마련할수 있었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불리한 자연조건도 극복하고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으며 농업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더빨리 올려세울수 있다.

* *

오늘 농업전선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6개년의 알곡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영농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영농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 자기 당 정책으로 전당을 무장시키고 모든 당원들을 수령과 당중앙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사업을 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수령님에 대한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충실성,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행동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영농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곧 농업생산실천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투쟁이다. 지난해 경험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영농방침을 철저히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여나갈 때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에서 례외없이 커다란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영농방침의 본질과 그 정당성, 거대한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먼저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농업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 농업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끝까지 집행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워야 한다.

농업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농업부문에 주신 교시 특히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깊이 연구하여 그 진수를 체득하고 그것을 모든 농사일에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영농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를 저애하는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과 낡은 농법을 철저히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주체적인 영농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농사일에서 선진사상과 낡은 사상간의 날카로운 투쟁이다.

우리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영농방침의 관철을 저애하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농사를 짓는 혁명적기풍이 차고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이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영농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농촌에 나간 청년인테리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촌에 나간 청년인테리들은 자신들이 먼저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농업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교양자적역할을 계속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농촌지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협동농장관리일군들과 농촌경리부문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농업을 직접 지도관리하는 지휘성원들이다.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문제도 결국 농촌지도일군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농촌지도일군들은 우선 영농사업에서 낡은 경험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오늘 지난날의 낡은 경험으로써는 공업화, 현대화되여가는 발전된 사회주의농업을 도저히 지도관리할수 없다. 특히 낡은 경험주의는 선진영농기술의 도입을 방해하는 주되는 장애물이다.

모든 농촌지도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우리 당의 주체적인 농업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선진과학기술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며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낡은 경험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농촌지도일군들은 낡은 경험주의를 없애는것과 함께 영농사업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뿌리빼고 모두가 진실로 수령님과 당중앙에 무한히 충실하려는 끝없이 깨끗하고 뜨거운 충성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주인답게 해야 한다.

농촌지도일군들은 농업전선을 맡아나선 지휘성원으로서 자기의 두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임무와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처럼 전투대오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여주며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모든 사업을 더욱 짜고들며 세밀하고 능숙하

게 사업을 밀고나가야 한다.

농촌지도일군들이 혁명적정열과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무한한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모든 일을 모가 나게 전격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해제껴야 현시기 농업전선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모든 농촌지도일군들은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높이 발휘하여 언제나 패기있고 생기발랄한 혁명적기풍으로 사업하고 생활함으로써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영농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하여서는 또한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며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잘 발동한다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을것입니다.》(《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16페지)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며 기술혁명수행에서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방침이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인 요구이다.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들에게 연구과제를 똑똑히 주는것이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연구과제를 똑똑히 주며 그것을 수행하는것이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인가를 잘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의 실험과제를 수행하는데서도 모든 정성을 쏟아부으며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과학기술발전과 기술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병충해에 견디는 힘이 강하고 바람을 잘 이겨내면서도 소출이 높은 새로운 논벼품종과 키가 낮고 소출이 많은 강냉이품종을 비롯한 농작물의 우량품종을 더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생물체의 본성과 그의 재생산과정에 미치는 유전학적 및 생리생화학적 요인들을 전면적으로 밝혀냄으로써 새로운 다수확품종을 만들어내며 식물체의 생육과정을 더욱 촉진시켜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여야 한다.

농업과학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하여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자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

《당의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보답하자!》 당중앙은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있다.

농업부문 당조직들과 과학연구단위들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교시, 당정책 학습을 강화하며 농학, 생물학, 토양학을 비롯한 기초과목과 전공부문학습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리며 시험농장과 육종장을 비롯한 실험실습단위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에서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하지 않고 농민들을 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18～19페지)

농업전선을 지켜선 농업근로자들이 현대적농업기술로 어떻게 무장되는가 하는것은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는 농촌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무엇보다먼저 농업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농업과학기술지식

선전실을 잘 꾸리고 그를 거점으로 하는 기술학습체계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농민들속에서 기술학습과 기술지식보급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농업근로자들로 하여금 토양과 생물학, 비료와 농기계, 성장촉진제에 대한 지식을 비롯한 농업기술지식을 가지며 3요소비료와 미량원소비료 쓰는 방법, 농약과 산초제 쓰는 방법, 논물을 정확히 대고 비바람과 가물을 이겨내는 방법 등을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그뿐아니라 우량품종을 얻어내고 1대잡종종자를 만들며 논세벌갈이를 도입하고 땅을 개량하는 방법,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를 다루는 방법도 알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는것과 함께 선진기술도입을 방해하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생산자대중과 과학자, 기술자들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은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발휘되는 창조적 적극성이 높은 과학기술과 옳게 결합될 때만이 진실로 커다란 힘을 나타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실현되는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우리는 농업근로자들속에서 과학과 기술을 무시하는 경향을 없애며 생산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함으로써 선진재배기술과 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이르는곳마다에서 품종을 적극 개량하여 농업생산을 빨리 늘여야 한다.

씨붙임과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를 비롯한 모든 농사일은 시각을 다투는 일이며 제철에 농사일을 하여야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다.

농업전선이야말로 당중앙이 밝혀준 위대한 《속도전》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농사일을 제철에 전격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거창한 전투장이다.

《속도전》의 방법으로 시간을 다투는 방대한 영농작업을 제철에 해제끼는 여기에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농업부문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을 《속도전》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특히 당중앙의 발기와 지도밑에 지난해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경리부문에서 힘있게 진행되여 그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휘된 전격적인 경제선동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일터마다에서 농업근로자들을 《속도전》에로 불러일으키는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모든 농촌경리부문지도일군들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그들이 힘껏 일할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농촌테제발표 열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

모두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영농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에 또다시 농업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이룩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아가자.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다

신 응 복

오늘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적폭압소동이 전례없이 엄혹한 조건에서도 구국투쟁에 용감히 일떠서 굴함없이 싸우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의 혁명투쟁발전과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촉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막아보려고 《비상계엄령》우에 《긴급조치》까지 련발하면서 류혈적인 폭압소동을 벌리고있다. 심지어 놈들은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마치도 북반부의 《선동에 의한것》처럼 터무니없는 잡꼬대를 하면서 《반공》소동을 더욱 요란하게 일으키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려고 꾀하고있다.

그러나 미제와 박정희매국도당은 그 어떠한 야수적인 폭압과 《반공》소동으로써도 남조선인민들의 불굴의 혁명적 투지를 꺾을수 없으며 진실을 가리우고 인민들을 기만할수 없다.

모든 사태발전은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반드시 혁명투쟁이 일어나고 인민의 원쑤들은 결코 멸망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류혈적인 폭압, 암흑의 땅 남조선

남조선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혁명의 불길은 남녘땅에 조성된 혁명정세가 가져온 응당한 결과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에 의하여 남조선에서는 앞으로 반드시 결정적인 혁명투쟁이 일어날것입니다.》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심오히 반영한것으로서 착취사회, 남조선사회에서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위대한 진리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통치밑에서 가혹한 착취와 압박, 모진 천대와 멸시를 다 받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억압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하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모든 혁명투쟁은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사회적존재로서 자주성을 잃은 사람은 인간의 존엄을 지닐수 없으며 삶의 보람을 느낄수 없다. 자주성을 잃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서 죽은 몸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의 자주성은 결코 저절로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짓밟는 온갖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속에서만 보장된다. 따라서 착취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이 사회적존재로서의 자주성과 존엄을 지니고 살아나가기 위하여 끊임없는 혁명투쟁을 벌리게 된다.

지난날 사람들이 봉건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투쟁한것도 오늘 로동계급이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것도 모두 근로자들이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찾기 위하여서이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도 놈들의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자주권을 가진 민족으로서 자유롭게 살아나가

기 위한것이다. 헐벗고 굶주리며 압박받고 천대받는 남조선인민들이 사람의 생명인 자주성을 위하여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용감히 일떠서 싸우는것은 필연적인것이다.

남조선에서의 혁명투쟁의 필연성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우선 남조선사회경제관계와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다.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예속밑에 있는 락후한 식민지반봉건사회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략탈 정책은 남조선사회발전을 저애하는 질곡으로 되고있으며 인민들을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 속에 몰아넣고있다.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 앞잡이 박정희도당의 매국적인 외세의존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경제는 여지없이 파탄되였다.

남조선의 공업은 외국자본의 예속경제로 전변되고 자립적발전의 길이 막혔다. 남조선은 50억딸라가 넘는 빚더미에 짓눌리여있으며 수백만의 실업군이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있다.

봉건적착취관계가 여전히 지배하고있는 남조선농촌도 극도로 황폐화되였다. 남조선농촌은 해마다 300만톤이상의 식량부족을 가져오는 만성적인 기근지대로 전락되여 200만호의 절량농가와 40만~50만명을 헤아리는 리농민들을 낳고있다.

민족문화와 조선인민의 고유한 미풍량속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온갖 패륜과 패덕이 남조선전역을 휩쓸고있다. 부정축재로 배를 불린 한줌도 못되는 반역의 무리들이 밤을 새워가며 료리집에서 진탕을 치고있을 때 수백만 근로대중은 거리에서 주림과 병마에 시달리고있다.

남조선사회는 잘사는 놈은 더욱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은 더욱더 못살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이중삼중의 착취와 압박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있으며 래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기약할수 없는 끝없는 불안속에서 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극악무도한 군사파쑈독재밑에서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빼앗기고있으며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권리상태에 있다.

박정희반역도당은 민족분렬을 로골적으로 꾀하면서 밖으로는 외세의존의 매국정책을 쓰는 한편 안으로는 이른바 《10월유신》의 간판밑에 악랄한 파쑈폭압책동에 매달리고있다.

칼부림밖에 모르는 박정희도당은 4천여가지의 파쑈적악법들을 조작하는 한편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여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고 인민들에게 무권리와 굴종만을 강요하고있다.

박정희파쑈악당은 올해에도 벽두부터 이른바 《긴급조치》라는것을 조작하고 제놈들을 반대하는 일체 행동을 금지하였으며 이 《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군법》에 의하여 처형할것이라고 공공연히 선포하였다. 놈들은 이 악랄한 《긴급조치》를 휘두르면서 제놈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세력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소동을 벌리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모든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언론, 출판기관들이 가혹한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 민족적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 떨쳐나선 애국적인민들이 닥치는대로 체포, 구금, 학살되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박정희괴뢰파쑈악당은 이른바 《간첩단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 등을 날조하여 수많은 애국적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체포구금하고 야수적인 고문과 학살만행을 감행하고있다. 지어 놈들은 신앙의 자유마저 완전히 유린하면서 종교인들을 마구 체포투옥하고있으며 해외에까지 폭압의 마수를 뻗쳐 애국적인 교포들을 랍치, 체포하여다가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있다. 《비상사태》와 《비상계엄령》에 이어 련발되는 《긴급조치》에 의해 남조선은 지금 군사불한당들이 활개치고 백색테로가 횡행하는 피비린내나는 하나의 감옥으로 전변되

였다.

오늘 박정희역적놈의 파쑈테로통치가 판을 치는 남조선사회를 가리켜 일본의 출판물들이 《지난시기 전시하의 일본보다도 자유가 없는 암흑천지》라고 폭로하고 남조선의 한 지식인이 《가난우에 자유마저 빼앗긴 기막힌 세상》이라고 통탄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미제국주의와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한편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둘사이에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격화시키고있다. 따라서 남조선인민들이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며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때려부시는 투쟁에 나서지 않을수 없다. 이 기본모순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앉아서 굶어죽고 맞아죽느냐, 아니면 일어나 싸우느냐 하는 기로에서 분연히 투쟁의 길을 택하게 되는것이다.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의 필연성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또한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의 침략적본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은 아세아에서 침략적지반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게 됨에 따라 더욱더 남조선을 아세아침략의 중요거점으로 인정하고 남조선을 〈닉슨주의의 시험장〉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하나 그를 틀어쥐고있으려고 피하고있습니다.》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 10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물러갈것을 요구하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남조선에 눌러있으려고 발악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제놈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영원히 틀어쥐고있으려는데로부터 《두개 조선》을 조작하며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흉악한 미제는 지난해말에 진행된 제28차유엔총회에서 제놈들의 어용기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해체되고 우리 당이 내놓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조선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이 일치하게 인정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조선에 눌러앉아 침략과 전쟁 정책을 일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공화국정부의 공명정대한 제의마저 받아들이지 않고있으며 계속 박정희괴뢰도당을 민족분렬의 영구화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새 전쟁 도발의 범죄행위에로 내몰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의 침략적본성이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놈들이 자기의 옛 진지에서 스스로 물러가려 하지 않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제가 군사적으로 남조선을 강점하고 남조선을 제놈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발악하고있는 조건에서 자유와 해방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불가피하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결정적인 혁명투쟁으로써만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혁명의 승리를 달성할수 있으며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할수 있다.

거세찬 투쟁의 불길

남조선에서 《비상사태》선포이후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반정부운동의 싹을 전부 뽑아버렸다》고 호통쳤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다시는 4.19와 같은 반정부투쟁이 일어나기는 어려울것》이라고 뇌까렸다.

이 얼빠진 넉두리는 매국배족행위를 일삼는 박정희도당이나 총검과 딸라만 있으면 세상을 제마음대로 좌지우지할수 있다고 믿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만이 떠벌일수 있는 망발이다.

원쑤들의 가혹한 탄압속에서도 현 군사파쑈통치제도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미일침략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반인민적이며 매국배족적인 행위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있습니다.》(《신년사》, 1974년 1월 1일, 8폐지)

오늘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종래의 투쟁과는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진 의로운 애국투쟁이며 매우 높은 정치적수준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이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어리석은 넉두리와는 관계없이 투쟁의 예봉을 박정희군사파쑈정권을 타도하는데로 돌리고있다.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박정권은 물러가라》, 《중앙정보부를 즉각 해체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등 민주본권을 확립하라》, 《새로운 민주정권 세우자》, 《대일예속을 걷어치우라》고 웨치면서 구국항전을 벌리고있다.

남녘땅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이 구국항전은 일신의 안일과 부귀영화를 위하여 미일상전에게 나라와 민족을 파는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에 대한 항거이며 원쑤들의 악정과 학정 밑에서 억압받고 천대받고있는 남조선인민대중의 가슴에 맺힌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다.

박정희파쑈악당의 죄행을 온 세상에 날날이 고발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떨쳐나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이 정의의 애국투쟁은 현 군사파쑈통치밑에서는 통일도, 민주주의도, 경제적자립도 기대할수 없고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자유와 해방, 나라의 통일을 성취할수 있다는것을 자각한 그들자신의 의식적인 투쟁이다. 이것은 다시는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이 일어날수 없다던 반동들의 부질없는 잠꼬대를 여지없이 짓부셔버리고있다.

높은 의식성과 조직성을 띠고있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광범한 인민들과 사회계를 포괄한 대중적투쟁으로 확대되고있다.

1961년 《군사정변》이후 남조선에서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청년학생들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투쟁은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 정치인 등 광범한 사회계층을 망라한 대중적인 공동투쟁으로 발전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는 해외에 살고있는 교포들도 적극 합류하고있다. 해외교포들의 반박정희투쟁은 미국, 일본, 카나다, 서부독일, 스웨리예 등 동포들이 살고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벌어지고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종래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으로서 남조선과 해외를 련결하는 광범한 공동투쟁전선을 형성하고있다.

이것은 악명높은 《10월유신》이후 억눌려있던 인민대중이 폭압망을 헤치고 반《정부》투쟁에 적극 합류하고있으며 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반파쑈민주화투쟁이 대중투쟁으로 전환됨으로써 대세는 이미 박정희괴뢰도당에게 매우 불리하게 기울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확고한 증거이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이 지펴올린 민주주의 홰불이 반《정부》, 반외세 투쟁으로 발전하고 공장과 농촌, 종교계, 사회계, 언론계, 학계, 정계로 급속히 확대되며 멀리 해외교포들속에까지 번져간것은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법이라는 움직일수 없는 혁명투쟁의 진리를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따라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높은 정치적수준에서 줄기차게 조직전개되고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혁명력량은 굳세게 자라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거족적인 구국투쟁에 의하여 박정희통치체제는 최대의 위기에 직

면하고있다.

박정희매국도당이 직면하고있는 위기는 5.16《군사정변》이후 가장 심각한것으로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군사파쑈통치체제를 반대하여 결정적인 투쟁에 나선 인민대중과 함께 지난 시기 박정희도당에게 일정한 환상과 기대를 걸어왔던 중간동요층까지도 놈들을 반대하는데로 급속히 기울어지가고있다.

만고역적 박정희도당의 정치적위기는 그 통치집단내부의 모순과 대립으로 하여 더욱 촉진되고있다. 원래 박정희역적놈의 충실한 주구로 날뛰던 세력들이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련속 청산됨으로써 사실상 남조선통치지반은 잉망진창이 되고있다.

박정희악당의 심각한 위기는 놈들의 엄중한 경제적위기와 련결되여있다. 남조선경제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있는 동력공업부문을 휩쓸면서 남조선경제기반을 마비상태에 빠뜨리고 박정희역도의 이른바 《실력배양》책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다.

미일침략자들의 개노릇을 하면서 사람잡이를 일삼고있으며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박정희파쑈악당은 세계평화애호적인 나라들과 인민들로부터 철저히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으며 고립배격당하여 사면초가의 궁지에 몰리우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박정희도당이 제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하더라도 놈들은 오늘의 위기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으며 파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승리는 인민의 편에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적극적이고도 간고한 혁명투쟁을 통하여 더욱더 각성되고 단련될것이며 마침내는 어떤 간악한 원쑤라도 능히 물리칠수 있는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자라날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단 혁명정세가 도래하면 반드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22폐지)

혁명력량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준비될수 없으며 오직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끊임없이 장성강화될수 있다. 적극적인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만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이 높아지고 조직적결속이 촉진되며 혁명의 핵심대렬이 늘어나고 혁명조직들의 전투력이 강해진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박정희매국도당의 파쑈적전횡을 짓부시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분렬을 방지하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행정에서 체득한 귀중한 교훈이다.

오늘 투쟁을 통하여 각성되고 단련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이께서 밝혀주신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싸워나아가려는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급속히 높아가고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4.15 김일성주의연구소조》, 《김일성주석님 혁명력사연구회》, 《위대한 주체사상연구회》 등 수많은 소조들을 뭇고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남조선에 더욱 깊이 침투됨으로써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 속에서는 수령님께 충성다하려는 열의가 급격히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의 한 청년은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에서 《우리 혁명가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이시여, 혁명조직의 한 성원으로 된 지는 지금 혁명의 한길에서는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라고 하신 수령님의 귀중한 말씀을 다시금 가슴깊

이 새깁니다. 저는 이 몸이 혁명의 한 길에서 천백번 쓰러진다해도 수령님께 바친 혁명적신조만은 영원히 간직할 불갈은 충성의 서약을 다지옵니다.》라고 썼다. 또한 한 로동청년은 통일혁명당에 입당하면서 《위대한 김일성주의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통일혁명위해 이 한목숨 바칠것을 피로써 맹세한다.》라는 충성의 혈서를 써서 조직에 바치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이처럼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있으며 그것은 남조선에서의 혁명투쟁과 조국통일의 결정적승리를 가져올 거대한 힘으로 전변되고있다.

혁명투쟁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급속히 자라나고있는 남조선혁명력량에 의하여 투쟁은 계속 심화될것이며 그것은 멀지 않아 원쑤들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게 될것이다.

일찌기 없었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는 박정희반역도당은 요즘 광란적인 파쑈폭압책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악랄한 《반공》소동을 일으키고있다.

교활한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러한 광란극으로써 밑뿌리채 뒤흔들리는 파쑈통치를 유지하고 날로 강화되는 남조선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을수 있으리라고 어리석게 타산하고있다.

그러나 지난 13년동안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통치밑에서 갖은 허위와 기만, 모략 책동에 의하여 속을대로 속아온 남조선인민들은 더는 속지 않을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현대 시국은 민주주의체제를 세워 국민의 자유를 찾지 않고서는 중대한 민족적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사회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자신을 희생시켜 투쟁하는것이다.》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투쟁을 준비해나아가고있다.

오직 투쟁만이 자기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준다는것을 생활상 체험을 통하여 파악한 남조선인민들은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의 기치를 결코 내리지 않을것이다.

박정희괴뢰악당은 그 무엇으로써도 남조선에서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지는 구국투쟁의 불길을 꺼버릴수 없다.

미일반동들의 부추김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파쑈적탄압과 《반공》소동에 미쳐날뛰고있지만 그것은 불붙는데 기름을 퍼붓는격으로서 결국 제놈들의 종국적멸망을 앞당기는 결과만을 가져올뿐이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의 투쟁이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애국적인 투쟁이다.

승리는 정의의 애국투쟁을 벌리고있는 남조선인민의 편에 있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이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것은 민족의 내부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응당한 의무이다. 우리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에 앞으로도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낼것이며 언제나 싸우는 남조선형제들의 편에 튼튼히 서있을것이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반드시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을 쓸어버리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제5,6 호(루계 386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4년 6월 1일 발 행 • 1974년 6월 5일

ㄱ—44182 값 50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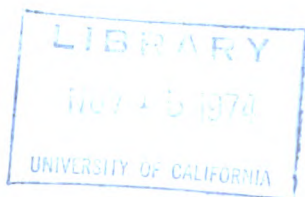
(정기간행물 번호
제13206호)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7 호

평 양 근로자사 1974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7 호(387)

차 례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자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빛나는 사변들로 가득찬 가장 보람있고 영광에 찬 력사적시기에 살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전체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중앙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사업, 이는 사람도, 사회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확고부동한 전진과 그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력사적위업이다.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인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조국통일의 대업을 하루빨리 완수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지닌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사업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몸바쳐투쟁하여야 할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이며 가장 책임적이고 숭고한 사업이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전사로 만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강령이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이 몸바쳐투쟁하여야 할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사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거기에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우리 당의 최종목적과 그 실현을 위한 근본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는데 있다.

우리 당은 공산주의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인 당이며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받들고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이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우리 당의 최종목적인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을 완전하게 해명해주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인간들의 사상 및 정신도덕적 풍모로부터 공산주의하에서 이루어지게 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에 이르는 모든 문제들을 전일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주고있다.

그러므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요구에 따라 사람과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를 건설하여야 우리 당의 최종목적인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할수 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과정은 바로 우리 당의 최종목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이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을 종국적으로 실현하는것은 곧 우리 당의 최종목적을 종국적으로 완성하는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

를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에는 우리 당의 최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공산주의건설의 혁명적로정과 그 과정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거기에는 사회주의제도가 선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할 력사적필연성과 계속혁명의 내용,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의 실현조건과 방도 등 수많은 중대한 원칙적문제들이 천재적으로 해명되여있으며 공산주의의 두 요새 점령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이 빛나게 천명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두개 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물질기술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인데 그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하며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을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생산력을 달성하는것입니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철저히 개조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요새도 점령할수 없으며 따라서 공산주의사회를 완전히 건설할수 없습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264페지)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적과업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결국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과정이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의 항구적강령은 공산주의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 사람들의 사상개조문제, 사상적요새 점령문제를 훌륭히 풀어나갈뿐아니라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하여나갈수 있는 대로를 열어주고 있다.

실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위대한 강령은 우리 당의 최종목적인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불멸의 혁명적기치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보람찬 일은 없으며 그보다 더 무거운 혁명임무는 없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며 그것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것은 주체형의 피가 차넘치는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이 지닌 숭고한 혁명적본분이다.

공산주의자들, 혁명가들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봉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전사들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것은 그들의 혁명적의무로 된다.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전사들이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그들의 보람찬 오늘과 광명한 공산주의미래를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원들과 우리 인민은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의탁하고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것을 더 없는 영예로, 행복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당원들과 인민들은 바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영광스럽고 보람찬 투쟁에서 자기의 참된 삶의 가치를 찾는다. 그들은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에서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실로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영광스러운 위업에 몸바쳐투쟁하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인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혁명적의무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과학적인 공산주의혁명리론으로서 우리 나라의 범위를 멀리 벗어나 우리 시대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한 투쟁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주체시대는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위대한 시대,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 시대이다.

주체시대의 위대한 혁명적기치인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은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에는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세계혁명이 새롭게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이 전일적으로 해명되여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모든 전략과 투쟁방침들이 전면적으로 천명되여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있는것으로 하여 언제나 실천의 참다운 지침을 주는 생명이 약동하는 창조적사상이며 대중의 심장속에 살며 대중을 끝없이 격동시키고 그들을 끊임없이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참다운 혁명적인 위대한 사상이다.

김일성동지혁명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고히 나아가는 바로 거기에 모든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끝없이 신봉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것은 우리 시대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지닌 력사적사명과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항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관철하여 나가는것은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기 위한 가장 성스럽고 보람찬 투쟁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만드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력사적인 위업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전사로 만드는것이라고 가르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사회와 인간을 개조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먼저 사람들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참된 혁명전사로 만들어야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는 물론 물질적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의한 온 사회의 일색화에서 사람들을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키우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입니다. 사회주의사회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습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18페지)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일뿐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직접적인 담당자이다. 따라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의 성과여부는 사람이 그에 어떻게 참가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사회를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의 성과여부도 그 직접적담당자인 사람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만드는가 못만드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모든 사람들이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충성다할 때 그 어떤 폭풍도 격랑도 용감히 뚫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다.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된 혁명전사로 키우는 문제는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함에 앞서 반드시 풀어야 할 가장 선결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영광스러운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사람들을 개조하여 주체사상대로만 살며 싸워나가는 견결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사회를 개조함에 앞서 사람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개조해야 한다는것은 우리 당중앙이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여 제시한 사상론에 그 리론적기초를 두고 있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된다.

사람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것은 그의 사상의식이다. 따라서 사람의 사상의식은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물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상에 의하여 평가된다. 돈이나 물질이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그들의 사상에 의하여 평가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일하는 사회이다. 자본주의사회는 기아와 몽둥이의 규률에 의거하여 사람들을 움직여나가는 사회이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사람들의 공산주의적인 높은 의식성과 자각성에 의하여 움직이고 발전해나가는 사회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공산주의사상을 지녀야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지만 사상적으로 뒤떨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정신적불구자로밖에 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공산주의적인 높은 의식성과 자각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될수록 더욱더 요구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자면 무엇보다먼저 사람들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철저히 개조하여야 한다.

사회를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의 사상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선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결국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문제, 다시말하여 사람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개조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만드는것은 주체사상에 의한 온 사회의 일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회와 인간을 개조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업에 기본중심을 두고 이 사업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만든다는것은 주체형의 피가 차넘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주체형의 피란 수령님의 혁명사상이며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그러므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인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과 경애하는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끝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바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특징이 있다.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뿐아니라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가 다 담겨져있다. 따라서 이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주체시대의 참다운 혁명가,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다.

그러므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든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들을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를 대표하는 유일하게 과학적인 혁명사상인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를 키운다는것은 사상 및 정신도덕적풍모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완성된 공산주의자를 만든다는것을 말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야말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이며 가장 숭고하고 가장 순결한 사상 및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닌 공산주의혁명투사이다.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인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되는것은 우리 시대 인민들의 가장 큰 영광이며 자랑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영광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지닌 가장 영광스러운 사업이며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이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영광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사상, 우리 당의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동요없이 당을 진심으로 받들고 견결히 옹호하도록 하며 우리의 후대들도 우리의 사상을 계승하고 우리가 내세운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는것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 때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높이 우러러모시고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는 끝없이 깨끗하고 뜨거운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있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 한순간을 살아도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초개와 같이 바치 싸워나가는 충성의 한마음으로 가슴불태우며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또한 수령님의 교시를 사업과 생활의 신조로 삼고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이처럼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준비됨으로써만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위업수행에 몸바쳐투쟁할수 있으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다.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장기간에 걸치는 간고한 투쟁을 동반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력사적위업이다.

우리는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당의 항구적인 강령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실속있게 책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야 한다.

당중앙이 제시한 《사상전》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기본이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인만큼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을 뿌리뽑고 새로운 사상, 당의 유일사상을 넣어주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원칙을 사상사업분야에 구현한 《사상전》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진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섬멸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벌릴수 있게 하는 사상혁명의 강유력한 무기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와 어긋나는 온갖 그릇된 사상을 뿌리뽑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에 모를 박고 모든 선전선동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진격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해나가야 한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 사업인 동시에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실

현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령도적역할과 그 전투적기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사회의 심장이며 원동력인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이어나가는 강철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언제나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패기와 정열에 넘쳐 투쟁하게 할수 있으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오늘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로동자, 농민의 혁명정권과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우리 인민앞에 나서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며 우리 나라에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그치는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의 혁명정권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고 그것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철옹성같이 보위하여야 하며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특히 오늘 우리 나라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이 땅우에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다.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바쳐 투쟁하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개조해나가는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는 과정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을 안고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투지, 집단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우리 시대의 위대한 기념비적창조물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조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승리하고 빛나게 구현되고있을뿐아니라 전세계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의 무기로, 우리 시대의 세계적사조로 되고있다.

오늘 전세계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우리 시대의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으로, 투쟁의 무기》로 부르고있으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세기적변혁과 우리 인민의 고귀한 경험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고있다.

우리는 언제나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의 조국》에서 혁명하는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림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불패의 생활력을 온 누리에 더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특히 당의 유일적지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적지도에 충실하고 그를 철저히 받들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뭉치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은 이 땅우에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완성하여 공산주의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투쟁이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세계에서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이다.

모두다 인류가 낳은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더욱 활짝 꽃피우기 위한 우리 시대의 영광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위대한 사상

오늘 우리 인민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앞으로 멀리 전진하였다.

새 사회 건설의 길에서 이룩한 우리 인민의 성과는 지난날 뒤떨어졌던 작은 나라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한 세대에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가장 어려운 조건하에서 가장 짧은 기간안에 두단계의 심각한 사회혁명을 수행하였으며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공업강국을 일떠세운 위대한 성과이다. 이 성과는 또한 남이 한걸음 걸을때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헤치면서 열걸음, 백걸음 내달려 전례없는 속도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여 나가며 정치와 경제, 사상과 도덕, 교육과 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인류문명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놓은 찬란한 성과이다.

지난날 식민지노예의 철쇄에 얽매여 세계지도에서 이름마저 잃었던 조선이 《주체의 조국》, 《천리마의 나라》, 《사회주의자력갱생의 나라》로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된 자랑찬 전변은 참으로 인류가 일찌기 알지 못한 기적이며 천지개벽이다.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새 사회 건설에서 이룩한 이 모든 승리와 성과는 전적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련되고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며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다.

오늘 우리 당 중앙은 반세기에 이르는 조선혁명의 력사적승리와 경험의 총화에 기초하여 그리고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지향을 반영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제시하였다.

참으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떠나서 우리 인민의 오늘의 승리와 영광,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주체시대의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으며 천리마조선의 영웅적인민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오늘 대륙과 대양을 넘어 지구우의 방방곡곡에 퍼져가고있으며 주체사상으로 살며 싸워나가는것은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거창한 흐름으로, 시대의 정신으로 되고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필승불패의 전투적무기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주체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선행한 력사적시대와는 다른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참다운 지도사상이다.

혁명의 매 력사적시대는 그 시대를 반영한 혁명사상, 지도리론을 요구한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 공산주의운동의 전력사는 시대를 대표하는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배적사조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싸워온 력사이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류력사발전, 로동계급의 혁명운동발전에서 새롭게 도래한 력사적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불멸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로운 가장 높은 단계에로 발

전시키시였다.

당에서 가르치는바와 같이 우리 시대는 선행 력사적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이다.

어느 계급, 어떤 사회세력이 시대의 중심에 서서 그 시대의 중요내용과 시대 발전의 주요방향을 결정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력사적시대를 특징짓는데서 기본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나온이래 100여년동안 세계정치무대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입니다.…

오래동안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압제밑에서 신음하던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이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한 결과에 지금 우리 시대는 제국주의가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고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여지고있습니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5페지)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력사의 새 시대이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에 있어서처럼 인민대중의 각성이 높고 력사적운동에 참가하는 대중의 범위가 확대되였으며 세계사발전에 미치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영향력이 커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

지난날 세계는 현대기술문명의 길에 번지 들어선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 의하여 찢기울대로 찢기우고 그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여왔다. 사회가 적대계급으로 나뉘여진 그때로부터 제국주의시대에 이르는 오랜기간 지구상 주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은 오직 력사밖에 서있었으며 력사의 대상으로만 되여왔다.

그러나 몇개의 렬강들이 세계를 지배하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이니 지나갔으며 지금은 정의와 진보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이 세계를 틀어쥐고나가는 시대이다.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제국주의는 치명상을 입고 사면초가에 빠지게 되였으며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칠성판에 오른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하여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으나 어떠한 힘으로도 멸망하여가는 저들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오늘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있는 모든 주요한 사변은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압제밑에서 오래동안 신음하던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중심에 서고있으며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커다란 추동력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으로 세계반제혁명력량은 비상히 강화되고 제국주의의 전반적위기는 더욱 격화되고있다. 오늘 세계무대에서 발언권은 압박받던 인민들에게•속하고있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또한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력사를 개척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시대이다.

로동계급과 피압박근로대중의 피어린 투쟁에 의하여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였으며 어제날 식민지대륙으로 불리우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자유와 광명으로 빛나는 새로운 대륙으로 전변되고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족해방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일어나고있으며 이미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부강하고 번영하는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자주, 자립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있다. 자본의 억압과 전횡을 반대하는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의 투쟁이 또한 광범히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자주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으며 많

온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의 내정에 간섭하며 민족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이 모든것은 우리 시대가 선행력사적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고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주체의 시대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제국주의가 망하고 인민들이 해방과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세계적조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바로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의 이러한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여 나온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가 력사의 일정에 새롭게 제기한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과학적해답을 준것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의 심장을 힘있게 틀어잡았으며 제국주의를 매장하고 새 세계를 창조하는 인민들의 수중에 장악된 혁명의 위력한 무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창시야말로 캄캄한 밤하늘에 홰불과도 같이 우리 시대 혁명하는 사람들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지도사상의 새로운 출현이였다.

인류가 낳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시대와 혁명이 제기한 절박한 요구,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하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인민대중은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혁명의 참다운 진리를 찾게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는 사람들이 제머리로 사고하고 제힘으로 살며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력사의 새 시대, 주체시대에 들어섰다는것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매 단계의 혁명리론을 과학적으로 제시하시였으며 반세기에 이르는 혁명실천의 풍부한 경험을 분석총화하시여 우리 시대가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세계혁명이 새롭게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우리 시대의 백과전서적인 혁명사상이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공산주의혁명리론에 의하여 우리 시대 로동계급과 인민은 처음으로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줄 유일하게 옳바른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중요내용과 특징에 관한 당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시대발전의 객관적요구와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창시의 합법칙적과정을 전면적으로 가장 정확히 밝혀준 탁월한 리론이며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과 혁명적인민들이 편향없이 곧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나갈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주는 시대의 홰불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당중앙이 밝혀준바와 같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체계이다.

다시말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체계이다.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위대한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는데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의 진수를 이루는것은 맑스-레닌주의적인 주체사상이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0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근본초석이며 핵이며 진수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전반적체계는 주체사상의 기초우에 서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하나의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모든 내용, 혁명과 건설에 관한 수령님의 모든 독창적인 리론과 령도방법은 다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모든 특징을 규정짓는 근본사상이며 그 위대성과 창조성, 혁명성과 전투성, 불패의 생활력의 원천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바로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있음으로 하여 위대하며 끝없이 생동하고 독창적이며 백전백승하는 힘을 가지고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이 제기한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근본원리를 새롭게 밝혀준 천재적사상이다. 주체사상은 기성리론의 단순한 계승이나 발전이 아니라 혁명의 새로운 원리를 밝힌 사상이며 혁명투쟁의 그 어떤 개별적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옳게 풀수 있는 방법론을 주는 과학적 학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이와 같이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있음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며 그 사상리론체계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된수 있었다.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주체사상의 창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기여하신 가장 위대한 세계사적공적으로 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에 의하여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세계관, 사회와 자연에 대한 관점과 립장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력을 마비시키던 사대주의, 교조주의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걷잡을수 없이 깨여지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 결연히 떨쳐나서게 되였다.

모든것을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의 창시는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수행하여나가기 위한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 옳바른 전략전술을 세울수 있게 함으로써 어떤 어렵고 생소한 길도 성과적으로 개척하여나갈수 있게 하였다.

참으로 주체사상은 매개 나라 인민이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새롭게 밝혀준 천재적사상이며, 인민대중이 사회와 자연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참다운 길을 밝혀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위대한 기치이다. 주체사상은 모든 문제를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풀어나가는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주체시대의 위대한 혁명적기치인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에서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리론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혁명리론은 혁명과 건설에 관한 선행리론의 시대적 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하고 이 분야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창조적리론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리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혁명과 건설의 리론과 전략전술을 세우는데서 철두철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를 변혁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과정이며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경제관계를 변혁하는것과 함께 사람들을 보다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그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야 한다는 독창적인 리론을 밝혀주었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혁명리론은 그 기초원리에서와 같이 내용에서도 독창적이다.

수령님의 혁명리론에서 기본내용을 이루는것은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이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이며 세계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시대가 새롭게 제기한 반제민족해방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을 전일적인 체계로 제시하심으로써 인류가 아무런 우여곡절없이 곧바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새로운 가장 정확한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현시대 국제혁명운동의 객관적요구와 현대제국주의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인민들의 반제혁명위업과 국제공산주의운동, 전반적세계혁명운동을 승리에로 이끄는 가장 옳바른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모든 혁명리론은 실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각이한 단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혁명리론이며 필승불패의 혁명적무기이다.

이 리론은 남의 경험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이나 교조적태도와는 인연이 없는 실천의 산 지침을 주는 창조적리론이며 주관주의와 공허한 추리에서 나온 피기없는 리론과는 달리 혁명실천의 력사적경험, 현실에 대한 과학적분석이 천재적예지와 결합된 생명이 약동하는 리론이며 폭풍과 가시덤불길을 헤치는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창조되고 검증되고 개화만발하는 끝없이 생기발랄한 혁명리론이다. 이 리론은 주체사상의 깊고도 참신한 저수지에서 거창한 샘물처럼 흘러내려 혁명운동안에서 낡은 침전물들을 말끔히 가셔내고 혁명의 전진운동이 언제나 맑고 깨끗하고 새 힘에 넘쳐 도도히 흐르게 하는 청춘의 기백이 약동하는 리론이며 인민들에게 투쟁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고 그들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끝없이 고무하는 전투적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에 불멸의 기여를 한 공산주의혁명리론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을 완전하게 해명하여주고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를 담고있으며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나가는 근본방향과 요구뿐아니라 공산주의하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을 밝혀주고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또한 공산주의건설의 혁명적로정과 그 과정에서 확고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리론이다.

공산주의혁명리론은 우리 시대에 와서 수령님에 의하여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되고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체계화되였으며 전일적인 과학적리론으로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또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령도방법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적령도방법을 새롭게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혁명적령도방법을 옳게 밝히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패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과 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옳은 리론이 있어도 대중을 그 실현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하는 령도방법이 없다면 혁명위업의 승리와 성과를 바랄수 없다.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인민대중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혁명투쟁과 새 사회 건설에서 그들이 노는 역할이 비상히 커진 우리 시대에 와서 옳은 혁명적령도방법을 창시하는것은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나서게 되였다. 선행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에서는 이 문제가 응당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전혀 개척되지 못한 분야로 남아있었다.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령도방법문제는 오직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우리 시대에 와서 비로소 해결되게 되였다.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위대한 혁명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령도방법에 관한 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에서 필수적구성부분으로, 과학적학설로 되였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적령도방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전기간 로동계급의 당이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지침이며 혁명실천의 위력한 무기이다.

이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령도원칙이 정연하게 해명되게 되였으며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대중령도방법이 밝혀지고 그를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할수 있는 생동한 모범이 창조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창시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할 대중령도의 지도사상이며 근본방법이다.

수령님의 혁명적령도방법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한 대중령도의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이다.

주체사상의 창시와 더불어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이 혁명적령도방법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령도의 예술가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걸으신 반세기의 기나긴 혁명의 길우에 별처럼 찬연히 빛나고있다.

실로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은 그 체계와 내용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며 인류사상발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불멸의 혁명사상이다.

백전백승의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실천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검증된 과학

적학설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우리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승리하고 빛나게 구현되고 있으며 전세계 로동계급과 인민들을 독립과 진보의 길,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가리키는 승리의 한길로 나아감으로써 우리 인민은 오랜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보람찬 혁명의 새 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새형의 가장 혁명적인 당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가리키는 영광의 한길을 따라 나아감으로써 우리 인민은 지난날 식민지대륙으로 알려졌던 동방의 일각에 첫 로동자, 농민의 나라,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을 온 누리에 뿌리는 사회주의 새 조선을 일떠세울수 있었으며 자기 조국을 독립되고 존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희망과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만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고 그이의 혁명사상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영광에 찬 어제와 오늘이 있는것처럼 우리 인민의 보다 휘황한 앞날이 있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가 확고하게 담보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이 땅우에 주체의 새 시대를 펼쳐주고 세기적변혁의 새 력사를 창조하여놓은 영생불멸의 혁명사상이며 우리 당과 우리 혁명, 우리 인민을 끊임없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백전백승의 혁명사상이다.

당에서 가르치는바와 같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오직 수령님의 성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완전히 독창적인 위대한 사상이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그 어느것이나 다 수령님께서 몸소 구상하시고 내놓으신것이며 그것은 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과 직접 잇닿아있다.

오늘 세계의 혁명하는 인민들과 벗들은 한결같이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끝없이 신봉하고있으며 그이의 혁명사상을 가리켜 《불멸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주의는 조선의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일뿐아니라 세계사의 전도를 환히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사상》,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백전백승의 사상》이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외국의 한 학자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세계사적의의에 대하여》라는 연구론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내가 〈위대한 주체사상의 세계사적의의에 대하여〉라는 커다란 제목을 취급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각하의 주체사상이 조선의 혁명과 건설뿐아니라 국경을 넘어 전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건설의 기본학설이며 위대한 보편적진리라는것을 확신하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된 엄연한 력사적현실이며 우리 시대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필승불패의 위력한 무기이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 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더욱 철저히 실현하여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촉진하며 세계혁명에 더잘 이바지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더욱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만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요구하는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이 땅우에 공산주의사회를 하루빨리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온 사회

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당중앙이 제시한 온 사회를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자신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더잘 준비하며 우리 사회를 주체형의 피만이 끓는 순결한 사회로 더욱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수령님의 참다운 혁명전사, 이는 온몸에 주체형의 맑은 피가 차넘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이다. 주체형의 피란 수령님의 혁명사상이며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67폐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적기치인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이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우리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지침으로, 철석같은 신조로 삼아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주체의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할수 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또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그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한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에서 나타나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요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 관철에서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과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에 대하여서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강한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그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벌리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대건설의 혁명적방침은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위대한 방침이다.

우리는 당중앙이 제시한 위대한 《속도전》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의 열정으로 웅대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패기있게 내밈으로써 천리마조선, 영웅적조선인민의 혁명적기상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자랑높이 떨치며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고지를 점령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 삼천리조국강토우에 공산주의락원을 하루속히 건설하기 위하여,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대를 이어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경제선동은 사회주의대건설에로 대중을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수단

지금 온 나라는 사회주의대건설의 거세찬 폭풍으로 휩싸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대건설의 혁명적방침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의 열정과 왕성한 전투적기백으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부리나케 다그치고있으며 모든 전선, 모든 단위에서 전례없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어나고있는 새로운 혁명적앙양, 이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이 대중속에 깊이 침투되고 광범한 군중이 혁명과업수행에 높은 열의를 가지고 자각적으로 동원된 결과 얻어진 위대한 결실이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지금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정치선전과 함께 경제선동이 힘차게 진행되고있다.

우리는 이미 실천에서 그 위대한 생활력과 정당성이 남김없이 증명된 경제선동의 위력한 무기를 억세게 틀어잡고 경제선동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의 벅찬 진투에 힘있게 떨쳐나신 우리 근로자들의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과 혁명적기세를 더한층 높이 북돋아주어야 한다.

전격적인 경제선동방침은 가장 우월한 대중동원형식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시기 당활동의 합법칙적요구 특히는 당사상사업의 본성적요구를 심오히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경제선동에 관한 위대한 혁명사상을 밝히심으로써 당사상사업과 사회주의건설위업을 발전시키는데 리론실천적으로 탁월한 기여를 하시였다.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경제선동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경제선동은 정치선전과 함께 당사상사업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룬다. 그것은 당선동사업의 한 부분이며 집권당이 수행하는 하나의 중요한 선동활동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선동사업은 군중의 기세를 돋구고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직접 발동시키는 사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05페지)

경제선동은 대중의 심금을 울려 그들의 혁명적기세를 높이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로 생산자대중을 직접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정치사업이다. 정치선전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리론적으로 전개하여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정치사업이라면 경제선동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그들을 경제과업수행에로 직접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이다. 경제선동사업의 총적내용은 모든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뜨겁게 심어주고 그들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 북돋아줌으로써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과업을 그 어떤 조건에서도 끝까지 해내고야만다는 신념을 가지도록 생산자대중을 교양하는것이다.

경제선동사업을 힘차게 벌리며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시기 당선전선동사업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중요한 요구이다.

경제건설은 집권당의 주요과업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주되는 내용이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에 상응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할수 있다. 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만 나라의 정치적자주성도, 민족적독립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국방력도 강화할수 있다. 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그런것만큼 당의 활동 특히 당의 선전선동사업은 경제건설이 잘되여나가도록 보장하는것을 자기의 중요임무로 삼아야 하며 사상정치활동의 결과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제적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시기 경제선동을 패기있게 벌려야 할 절실한 요구는 또한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특성으로부터도 흘러나온다.

사회주의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 사회주의제도는 무궁무진한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이 우월성은 저절로 발양되지 않는다.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거대한 우월성은 당사상사업,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높이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할 때에야만 남김없이 발양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의 발전은 또한 경제관리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담보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도 당사상사업,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려 생산자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경제선동을 생기발랄하게 벌리며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빨리 전진하고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온 사회를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전투적강령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로 내달려 6개년계획을 하루빨리 끝내고 나아가서 가까운 몇해동안에 웅대한 10대경제건설목표를 점령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사회경제적조건도 달라졌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내부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째여졌다. 또한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며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인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다. 우리 나라의 환경은 새로와졌으며 우리 혁명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

당중앙에서는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이러한 성숙된 요구를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여 당정치선동사업의 발전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한 새로운 독창적인 경제선동방침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온갖 선전선동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경제선동을 전격적으로 벌리는것이며 생산자대중을 격동시키고 발동시키는 여러가지 선동형식과 방법을 중요한 고리에 집중시켜 그것을 실속있게 풀어나가는 섬멸전의 방법으로 경제선동을 진행하는것이다. 이 방침의 기본특징은 경제선동이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당장 은을 나타낼수 있도록 광범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혁명적기세를 높이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모든 초소와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생산자들로 하여금 맡겨진 계획과제를 번개같이 해제끼도록 하여 생산성과를 부쩍 높이 올리세우도록 하는데 있다.

모든 선전선동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경제선동을 전격적으로, 섬멸전의 방법으로 벌리도록 하는 이 새로운 방침은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경제선동을 힘차게 벌린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사회주의대건설의 새로운 조건에서 빛나게 구현한것이다. 전격적인 경제선동방침은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선동방침으로서 당의 대중

정치선동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

경제선동을 전격적으로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은 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생산과 건설의 벅찬 현실에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선동형식이다. 당의 대중정치선동사업의 본질적요구는 모든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심어주어 그들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데 있다. 전격적인 경제선동방침은 생산현장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격식없이 생신한 대중정치선동사업을 벌리도록 함으로써 모든 생산자들속에서 커다란 감흥과 흥분을 불러일으킨다. 이 선동방침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덕성과 령도의 현명성,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을 알기 쉽고 리해하기 쉽게 그리고 생동하게 똑똑히 가르쳐주기때문에 경제사업에서 즉시에 커다란 은을 나타낼수 있게 한다.

전격적인 경제선동방침은 또한 광범한 생산자들을 교양하고 발동시키는 가장 과학적인 대중동원형식이다. 현시기 선전선동사업의 형식과 방법이 과학적인가 아닌가 하는것은 《속도전》의 요구를 반영한것인가 아닌가 하는데 달려있다. 《속도전》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대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구현한것이며 더욱 심화발전시킨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선동형식이 현실적이며 동원적인것으로 되자면 철저히 《속도전》의 요구를 구현하여야 한다. 전격적인 경제선동방침은 칠두철미 《속도전》을 기초로 삼고 활동을 벌리며 그 원칙우에서만 사업이 조직되고 전개되는 선동형식이다.

전격적인 경제선동방침은 또한 가장 혁명적인 대중동원형식이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정치사업을 벌려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광범한 대중이 발동되도록 하는것은 청산리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며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전격적인 경제선동방침은 일군들이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군중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항일유격대식으로 경제선동사업을 벌려 대중의 심장에 충성의 불을 지펴주고 그들을 경제과업수행에로 발동시키는 혁명적인 대중정치선동형식이다. 이 새로운 선동형식은 또한 당 및 국가경제 기관일군들과 예술인들을 비롯한 방대한 선동력량과 출판보도물을 비롯한 수다한 선전선동수단들 그리고 강연, 예술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선동형식과 방법들이 호상 긴밀한 련계밑에서 집중적으로 활용되게 하는 혁명적인 경제선동형식이다.

군중을 격동시키고 그들의 정치적각성을 높이며 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당의 전격적인 경제선동방침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을 사상적바탕으로 하고있다.

경제선동을 전격적으로 벌릴데 대한 당의 혁명적방침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주인이라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고있다. 그것은 사람들의 힘을 백배, 천배로 높이며 자기의 힘으로 겹쌓인 난관과 애로를 뚫고 생산의 끊임없는 비약을 이룩하며 그 거세찬 흐름속에서 자연도, 사회도, 사람도 다 개조해나가는 철저한 혁명적방침이다.

전격적인 경제선동방침은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대중정치선동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력사적뿌리를 두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늘 유격대원들과 군중 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하였으며 그들과 담화를 많이 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가렬한 혁명전쟁의 불길속에서 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을 성스러운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항일유격대

식선전선동방법의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이 선동방법의 본보기는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매 발전단계에서 인민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 힘차게 불러일으켰으며 우리 사회의 전진운동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놓았다. 전격적인 경제선동방침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우리 혁명의 매 발전단계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한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의 전통에서 피여난것이며 사회주의대건설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그것을 계승발전시킨것이다.

전격적인 경제선동방침이 낳은 위대한 결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경제선동방침은 우리 당사상사업발전에서와 경제과업수행에서 귀중한 열매를 맺었다.

수령님께서는 경제선동방침을 사회주의대건설의 실천에 구현하시기 위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경제선동사업을 힘차게 벌리는 길우에는 난관과 애로가 놓여있었다. 우리는 일부 일군들이 경제선동사업을 차요시하는 낡은 관점과 태도를 없애야만 당선동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릴수 있었으며 경제사업의 수행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었다.

당중앙에서는 경제선동사업을 홀시하는 일군들의 그릇된 태도와 립장을 극복하기 위한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선동사업을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요구에 맞게 진공적으로 패기있게 벌리도록 온갖 대책을 취하였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충성의 불을 지펴주고 생산자대중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대경제선동사업을 온 나라, 모든 전투장들에서 벌리 진행하였다. 당의 지도밑에 지난해 서해지구철광석기지를 꾸리기 위한 선동사업,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다그치기 위한 대중정치선동사업이 힘차게 벌어졌으며 특히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종합공장에서 수령님의 교시 집행을 위한 대정치선동사업이 전개되였다.

당에서는 또한 얼마전에 농촌에서 선전선동사업을 더욱 참신하게 진공적으로 벌리기 위한 전국방식상학을 숙천군에서 조직진행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전격적인 경제선동방침은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지금 전격적인 경제선동의 불길이 타오르는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초소들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 농업전선의 모든 전투장들,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서 새로운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으며 새 기록, 새 기준이 창조되고있다. 지금 조선의 룡마, 천리마는 비약의 나래를 더욱 활짝 펴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리고 또 달리고있다.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선전과 함께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경제선동을 통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무엇보다도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의 열도가 더욱 높아졌다.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단위들에서 경제선동사업이 패기있게 진행된 결과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당중앙의 의도가 하부말단에까지 더욱 철저히 침투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뜨거운 배려와 당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깊이 체득할수 있게 되였다. 지금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심려를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겠는가 하는 하나의 생각으로 가슴불태우고

있다.

또한 온 사회에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의도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가적기풍이 더욱 확고히 세워졌다. 모든 전투장들에서 맹렬히 벌어진 격조높은 선동활동을 통하여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소극성, 안일해이 등 낡은 사상관점과 생활기풍이 극복되고 주인다운 사업태도와 일본새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가르침을 관철하는 길에서는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이라는 고결한 혁명정신으로 일하며 생활하고있으며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히 뚫고나가면서 자기의 혁명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있다.

생산자대중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의 전면적인 발양은 전격적인 경제선동방침에서 피여난 또하나의 아름다운 꽃이다. 우리 로동자들과 농민들, 당 및 행정경제 일군들, 예술인들, 출판보도일군들 모든 사람들이 다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길우에서 굳게 단합하여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끌어주고있으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고있다.

당중앙이 독창적으로 제시한 경제선동방침은 당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도 커다란 전환을 가져왔다. 경제선동사업이 힘차게 전개됨으로써 당사업은 그 본래의 요구에 맞게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였으며 사람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고 그들을 발동시켜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는 창조적인 사업으로 되였다.

전격적인 경제선동사업은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는데서도 혁신을 가져오게 하였다. 모든 단위, 모든 전투장들에서 경제선동이 진공적으로 패기있게 벌어짐으로써 거리와 일터, 가정과 합숙들을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요구에 맞게 깨끗이 꾸리게 되였으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계설비와 원료, 자재들을 더욱 알뜰히 거두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당중앙이 독창적으로 제시한 전격적인 경제선동방침이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제선동을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벌리자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새로운 높은 현실적요구에 맞게 경제선동의 위력한 무기를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오늘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 앞에 나서고있는 영예롭고도 절박한 과업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당의 전격적인 경제선동방침을 높이 받들고 참신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온 나라가 앙양된 정치적분위기로 언제나 부글부글 끓게 하여야 한다.

경제선동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근로자들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충성의 열정을 높이 불러일으키며 그것이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활동에서 빛나게 구현되도록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선전선동사업은 반드시 경제사업과 밀접히 련결되여야 하며 사상사업의 결과는 경제건설에서의 구체적실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77페지)

오늘 우리가 수행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전행정은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이땅우에 꽃피워가는 보람찬 투쟁이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사회를 개조하며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켜나가는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집행하려는 높은 정치적자각, 이것은 사회주의대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요

인이다. 참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충성의 열정으로 가슴불태울 때 이 세상에 해내지 못할 일이란 없으며 점령못할 요새란 없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정치선전과 함께 경제선동을 힘차게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일이라면,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불같은 충성심을 더욱 높이 불러일으켜야 한다.

경제선동사업을 벌리는데서 기본은 당이 가르친대로 전격전, 섬멸전의 방법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것이다.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의 방법으로 경제선동을 벌려야 그것이 진실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 불러일으키는 산 정치사업으로, 힘찬 혁명의 북소리로 될수 있다.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의 방법으로 경제선동을 벌려야만 《속도전》의 방침을 구현하여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을 불사르고 패기있게 일을 해제낄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을 부리나케 다그쳐나갈수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주되는 목표에 집중시키고 공장, 기업소들의 구체적실정과 제기된 과업, 수시로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경제선동을 기동적으로, 진공적으로 들이댐으로써 생산현장을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혁명적랑만으로 차넘치게 하며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려퍼지고 전격전, 섬멸전의 불길이 계속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

전격적인 경제선동에서 중요한것은 모든 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선동공세를 벌리는것이다. 경험은 예술선동과 구두선동, 직관선동, 방송선동 등 모든 선전선동방법과 형식을 배합하여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릴 때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이 불러일으키고 생산과 건설에서 전례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당의 지도밑에 지난해 승리자동차종합공장과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창조된 경제선동의 훌륭한 경험들을 본받아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예술활동, 격동적인 구두선동, 보도활동 등을 다채롭게 벌려 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이 충천한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게 하여야 한다.

경제선동을 전격적으로 패기있게 벌리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경제선동사업에 책임적으로 참가하는것이다. 경제선동에 적극 참가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지휘성원이며 당정책의 선전자, 집행자인 우리 일군들앞에 나선 중요한 임무이다. 일군들이 경제선동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격조높은 선전선동을 벌릴 때 전투장은 더욱 흥성거리게 되고 전투원들은 보다 생기발랄하고 패기있게 움직이게 되며 사회주의건설에서는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된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경제선동사업을 패기있게 진공적으로 벌려야 하며 당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 집행자가 되여야 한다.

경제선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기본담보는 항일유격대식으로 사업하는데 있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항일유격대식으로 선전선동사업을 한다는것은 틀을 차리거나 걸치레를 함이 없이 군중속에 들어가 구체적실정에 맞게 간편하고 알기 쉬운 방법으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침투시키는것을 말한다.

우리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기대옆과 건설장, 포전과 배전에서 근로자들에게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알려주어 그들이 자기 부문 당정책을 환히 꿰들고 신심드높이 대담하게 혁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선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사상일군들이 경제부서들과의 배합작전을 잘하는것이다. 선전선동부와 경제부서들

의 배합작전이 잘되여야 해당부문의 당정책과 실정을 잘아는 일군들로써 선동력량을 더욱 보강할수 있으며 경제선동사업이 일반적호소로 되지 않고 실속있는 산 정치사업으로 될수 있다. 당사상일군들은 행정경제기관일군들과 자주 협의하고 토의하여 근로자들을 정치적으로 교양하며 당의 경제정책관철에로 그들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그 기초작업부터 면밀하게 짜고들어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제선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가기 위하여서는 이 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경제선동사업은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사람들을 대상하는 방대한 사업이다. 이 거창한 사업을 사상부문일군 몇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원만히 감당해낼수 없다. 그러므로 경제선동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책임일군들이 이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경제선동을 홀시하며 차요시하는 사소한 요소와도 강하게 투쟁하여야 하며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들을 발동하여 대담하게, 정력적으로 경제선동을 벌려나가야 한다. 또한 선동일군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며 그들의 심장속에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주체형의 피만이 약동하는 참된 혁명가, 공산주의적정치활동가로 준비시키며 언제나 지칠줄 모르는 비상한 정력으로 경제선동을 벌려나가도록 끊임없이 지도방조하여야 한다.

참으로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전격적인 경제선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정치사상사업의 위력한 무기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의 주체적인 경제선동방침을 관철함으로써 전당, 온 사회에 언제나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드높은 혁명적기상이 차넘치게 하며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로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 보람찬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은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커다란 혁신과 변혁을 일으키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김형직선생님의 탄생 여든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우리 인민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온 생애를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빛나는 혁명활동과 선생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선생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다.

김형직선생님은 조국광복의 앞길에 가로놓인 중중첩첩한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나가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신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을 이룩하신 위대한 선구자이시다.

실로 김형직선생님의 온 생애는 일편단심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신 열렬한 애국자의 빛나는 생애였으며 선생님의 혁명활동은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꺾일줄 모르는 굳센의지,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정열과 미래에 대한 굳은 확신으로 가득찬 참다운 혁명가의 불멸의 귀감으로 된다.

새 력사의 려명을 향하여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 남기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위훈과 고귀한 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자주사상과 혁명정신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여 조국의 통일독립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을 끝없이 고무하고있다.

1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전도가 암담하던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에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앞길을 밝히시였다.

1910년대말～1920년대초에 이르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1 봉기를 계기로 부르죠아 민족 운동의 시기는 종결되고 맑스-레닌주의의 기치 밑에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다.》(《김일성선집》, 제5권, 1960년판, 206페지)

3.1봉기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되였다.

당시 민족해방운동의 《지도자》로 자처해나섰던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에 질겁하여 민족해방의 《구호》마저 줴버리고 투쟁에서 물러서고말았다. 그들은 자체가 가지고있던 약점으로 하여 인민대중에게 옳은 투쟁 방향과 방도들을 제시할수 없었으며 그 취약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따라서

인민대중은 피흘리며 용감히 싸웠으나 결국 일제의 공격앞에서 각개격파당하고말았다.

3.1운동의 교훈을 통하여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이 더는 민족해방운동을 《지도》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시대와 인민대중은 민족해방의 진정한 길을 밝힐수 있는 새로운 지도사상을 요구하였으며 민족해방투쟁을 령도할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의 출현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을 전환시키시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벌써 평양감옥에서 령어생활을 하실 때에 누구보다먼저 10월의 사상에 공감하시였으며 그에 따라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하나하나 무르익혀나가시였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이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을 이룩하는데서 관전회의는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919년 여름 관전에서 혁명조직성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이 회의에는 조선국민회 각 구역장들과 련락원 그리고 여러 반일독립운동단체 대표들이 수많이 참가하였다.

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당시 조성된 국제국내정세와 선행시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 경험과 교훈을 전면적으로 총화분석하시고 이미부터 무르익혀오시던 원대한 구상에 기초하시여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을 위한 새로운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우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사조, 맑스-레닌주의기치를 따라나가야 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힘에 튼튼히 의거하여 투쟁하여야만 일제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을 때려부시고 무산계급이 행복하게 사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또한 사대망국사상을 배격하고 민족자주정신을 확고히 견지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선진사상으로 깨우쳐주고 묶어세우며 모든 반일력량과의 행동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천명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또한 3.1운동의 실패의 원인과 력사적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무장한 원쑤는 무장을 가지고 때려부셔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밝히신 이 방침은 당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유일하게 정당한것이였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묶어세우고 그 힘을 부단히 키움으로써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할것을 목적으로 한 가장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투쟁방침으로 된다.

대대로 빈곤한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일찍부터 남달리 뜨거운 애국의 정열로 가슴불태우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사랑하는 조국을 빼앗기고 가증스러운 일제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의 학정밑에서 온갖 굴욕과 무권리,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겨레의 운명을 구원해야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시고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나가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실태를 깊이 헤아려보시고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는 달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야만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할수 있다고 굳게 확신하시였다.

당시 민족주의자들은 대중을 떠나서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이 모여앉아 말공부만 하고 싸움질만 하며 실지 반일민족해방운동에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지 않고있었다. 이들은 자기 신념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을 벌릴 대신에 제가끔 뿔뿔

이 흩어져 돌아다니면서 파벌싸움만을 일삼았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안에서 벌어진 어러한 현상은 김형직선생님의 사상발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반일투쟁을 벌리시였으며 외세의존사상을 배격하시고 민족자주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조선사람은 어딜 가나 조선사람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 조선독립은 누구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력사는 외세의존이 곧 망국의 길이라는것을 가르쳐주었다.》

민족해방운동은 본래 외래침략세력에 짓눌린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민족은 사대주의에 빠져 남을 쳐다보거나 남의 힘을 바랄것이 아니라 자기 인민의 힘을 믿어야 하며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따라서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민족적독립을 위한 필수적담보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부르죠아민족운동의 주되는 총화였으며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우리 나라가 일제침략자들에게 강점된것도 당시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이 민족자주의식을 잃고 큰 나라를 섬기며 외세의존사상에 물젖이있었기때문이였다.

참으로 김형직선생님의 고결한 민족자주정신은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의 사대망국사상에 치명적타격을 주고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진정한 독립의 길을 찾아 모대기고있던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준 투쟁의 무기였으며 정신적량식으로 되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방향전환의 위대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리심으로써 애국적인민들과 진정한 혁명가들은 비로소 정확한 투쟁방향과 방도를 찾고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었다. 또한 여러 지역에 흩어졌던 독립운동자들과 독립운동단체들은 점차 김형직선생님을 중심으로 결속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선생님의 지도밑에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리하여 뜻있는 독립운동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김형직선생님을 끝없이 경모하고 우러러 따르게 되었으며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영예로 생각하였다. 지어 당시 완고한 민족주의자들도 김형직선생님의 높으신 식견과 넓으신 포용력, 능숙한 조직력과 탁월한 령도력에 탄복하면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실로 김형직선생님의 탁월한 혁명사상, 자주정신과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앞길에 무겁게 드리웠던 검은 구름은 가셔지기 시작하였고 조선혁명의 찬란한 려명은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2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신 위대한 선구자이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관전회의에서 밝히신 새로운 로선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새로운 선진사상으로 깨우쳐주고 조직에 묶어세워 민족해방운동의 주체적력량을 꾸리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몸소 군중속에 들어가시여 근로대중을 계몽시키시고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시며 로동자, 농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끊임없이 높여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압록강연안의 국

경지대는 물론 평양, 강동, 은률을 비롯한 국내깊이와 무송, 안도, 길림, 몽강, 화전을 비롯한 만주의 넓은 지역의 로동자, 농민들 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에게 10월혁명과 레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들의 민족자주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리나가시였다.

선생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은 급속히 높아지게 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광범한 대중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였다.

선생님께서는 한편 이미 조직하셨던 조선국민회의 지방조직들을 새로운 투쟁의 요구에 맞게 확대강화하시며 인민대중을 민족개량주의영향에서 떼내여 조선국민회주위에 묶어세우심으로써 혁명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려나가시였다.

그리하여 무지와 몽매 속에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버림을 받던 우리 나라 로동자, 농민들은 계급적으로 점차 눈을 뜨기 시작하였으며 혁명투쟁의 길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또한 뚜렷한 투쟁목표와 방도도 없이 국내외의 여러지역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고있던 독립운동자들과 독립운동단체들을 하나의 조직된 력량으로 묶어세우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투쟁을 벌리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빼앗긴 제 나라를 다시 찾자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한데 모두어야 한다. 어떤 일이든지 혼자서는 되는 법이 없다. 바로 조선사람에게 있어서 단결과 사상의 통일은 매우 귀중한것이다.

…분파행동은 왜놈들과의 싸움에서 생명을 절반 떼여놓고 싸우는것이나 다름없다.

조국의 광복과 나라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우리들에게는 단결과 사상의 통일 이외에 더 큰 무기는 없다. 조선사람들은 모두 힘을 합쳐 조선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떨쳐나서야 한다!》

김형직선생님의 이 가르치심은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확대발전과 그 대렬의 통일단결을 위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당시 독립운동자들은 일제를 반대하여 독립의 기치를 들기는 하였으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군자금》이나 모으는 낡은 투쟁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하여 반일력량의 통일단결에 막대한 저애를 주고있었다. 따라서 독립운동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반일의 기치밑에 결속하며 옳바른 투쟁의 길로 이끌어나가는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조건에서 독립운동자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정확히 밝히시고 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자들의 반일적요소들은 적극 지지해주시는 한편 비조직적이며 수공업적인 투쟁방법과 대중을 홀시하는 그릇된 관점들을 바로잡아주시고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서 행동통일을 이룩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탁월한 사상과 높은 정치적식견, 론리정연한 설득력 앞에서 독립운동자들은 탄복을 금하지 못하였으며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싸워나갔다.

지어 직위와 권세만을 앞세우던 독립운동단체의 《두령》들까지도 김형직선생님앞에서는 머리를 수그리고 선생님을 한없이 존경하였으며 선생님의 지도를 진심으로 바랬다.

실로 김형직선생님의 꾸준한 교양과 원칙적인 투쟁에 의하여 독립운동자들은 새로운 선진사상에 공감하고 선생님께서 내놓으신 투쟁방향과 방침들을 지지해나서게 되였으며 그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을 하게 되였다.

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이끌어올리시기 위하여 또한 무장을 갖추고 군사간부를 육성하는 등 무장투쟁준비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한다.

무기를 가진 원쑤는 오직 무기를 가지고 때려눕혀야 한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장차 대규모적으로 전개할 무장투쟁의 준비를 위하여 로동자, 농민 출신의 진보적청년들을 사회중명학교를 비롯한 무관학교들에 보내시였으며 몸소 이 학교들에 나가시여 학생들의 학습과 군사정치훈련을 돌봐주시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한편 선생님께서는 각지의 혁명조직들에서 무기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게 하시였으며 무관학교들에서 육성된 청년들을 중심으로 무기획득을 위한 투쟁을 조직지도하시였다.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각지의 혁명조직들과 무장획득을 위하여 파견된 성원들은 일제경찰을 비롯한 적기관들을 기습하고 무기를 빼앗아내며 악질주구들을 처단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사상, 새로운 방법, 새로운 투쟁의 길로 힘차게 이끌어주심으로써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을 이룩하게 하시였으며 이 행정에서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을 마련하시였다.

* *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온 생애를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바치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위훈과 고귀한 업적은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였으며 이 땅우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아버님의 혁명위업을 이어 열다섯살의 어리신 나이에 벌써 혁명의 장도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드시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김형직선생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조국광복의 대업을 빛나게 성취하시였으며 조선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되는 가장 고귀한 혁명적재부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을 온 누리에 찬란히 뿌리는 독립되고 존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세계의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희망과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에서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인민은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사회주의대건설투쟁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이 숭고한 혁명과업과 조성된 정세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고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오직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대, 결사대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갈수 있다.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으로 빛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따라배우며 그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도록 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교양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따라배우며 그를 옹호보위하는것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해나가며 우리 인민을 영원히 수령님의 혁명위업의 충실한 계승자로 키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뿌리가 내려진 터전이며 오늘 우리 나라의 륭성발전과 우리 인민의 행복과 번영의 근원이 이루어진 혁명의 요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은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전세계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그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그러기에 세계혁명적인민들은 한결같이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에 대하여 《세계력사에는 인민의 수령들이 쌓아올린 혁명적업적들이 적지 않게 수록되여있다. 그러나 김일성원수님의 가정과 같이 온 가족이 다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혁명활동에 참가한 례는 보기 드물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김일성원수님은 전체 인민들로부터 그렇게도 두터운 신임과 존경을 받고계시는것이다.》라고 높이 칭송하고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따라배우는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있다.

실로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은 우리 인민과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을 투쟁과 승리에로 고무하면서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빛날것이며 그것은 나라와 세기를 넘어 꺼질줄 모르는 혁명의 홰불로 그 찬연한 빛을 온 누리에 뿌릴것이다.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적가정을 따라배우고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그를 해와 달이 다하도록 빛내이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해나가는것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장 영예로운 임무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아가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언제나 백전백승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해방 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강 진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나라는 영웅조선으로 더욱 빛나게 되고 우리 인민은 반제반미투쟁의 앞장에 서서 나가는 영웅적인민으로, 존엄있고 힘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시고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으심으로써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준엄한 혁명전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신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공적은 인류해방투쟁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것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위대한 군사사상과 천재적전략전술을 내놓으시고 미제를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력사적승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위적군사사상의 빛나는 승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방에서 자위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한다는 말이며 군사분야에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이 구현된것입니다.》

주체사상을 군사분야에 구현한 수령님의 자위적군사사상은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할것을 요구하는 혁명적인 군사사상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도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체의 힘으로 모든것을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은 로동계급과 그 당이 군사문제해결에서 견지하여야 할 확고한 원칙이다.

자위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만 군사문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또한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지하여야만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잠재력을 남김없이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 동원할수 있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질수 있다.

조국해방전쟁은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의 련합세력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정의의 민족해방전쟁이였으며 계급해방전쟁이였다. 이 전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제힘을 믿고 주인으로서의 제구실을 똑똑히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누가 어떻게 도와주든지간에 우리의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고 전당, 전민, 전군을 자력갱생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며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총동원하심으로써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인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위의

혁명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혁명무력건설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사람과 군사기술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시고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군인들의 정치사상적우월성에 있다는것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무기도 물론 좋아야 하지만 전투의식, 사상의식이 높고 기술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특히 사상의식은 결정적의의를 가집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232페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이다. 그 어떤 현대적무기도 그것이 정의의 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인민들과 혁명투사들의 손에 쥐여질 때 위력한 수단으로 되며 기술은 인민이 소유하고 정의의 투쟁에 리용할 때 더욱 강력한것으로 된다.

수령님께서는 군사사업에서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놓으시고 무기보다 그것을 쥔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더 중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여기에 군사기술사업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튼튼히 견지하시고 전쟁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든 군사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이와 함께 인민군대의 기술적장비를 부단히 개선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몸소 교양육성하신 혁명적골간들이 인민군대오안에서 혁명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군사과학과 기술에 정통한 일당백, 일당천의 혁명무력으로, 강철의 혁명대오로 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혁명무력의 전투력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상으로서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으로 제국주의침략군대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타승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위의 군사 사상과 리론은 세계 혁명발전과 혁명전쟁, 현대전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것으로서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끈 위대한 군사사상이며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하여 로동계급과 그 당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리론을 밝히시였을뿐아니라 주체적 군사전략과 전술, 독창적인 전법들을 창조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인도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는 수령님의 자위적군사사상의 위대한 승리인 동시에 그이의 탁월한 령군술의 빛나는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군사정치정세와 제기된 군사적임무에 맞게 전쟁의 매 단계와 정황에 따르는 가장 정확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군사정치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예견성, 군사행동지대의 옳은 선정, 독창적인 전투 형식과 방법의 창조 및 그의 능숙한 결합, 지휘에서 견결성과 령활성 등은 미제를 타승하신 수령님의 령군술의 중요특징들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도 우리 당이 모든 정세를 옳게 판단하고 진공할 때는 진공하고 후퇴할 때는 후퇴하는 정확한 군사적지도를 하였기때문에 우리가 수량상으로 우세한 적의 침공을 물리치고 승리할수 있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교조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의 그릇된 주장을 물리치시고 주체적전략자전적방침과 전술을 내놓으시여 전쟁을 승리에로 인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불의의 침공에 대처한 즉시적인 반공격전과 타격전에 대한 천재적인 전략전술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을 위한 전투를 몸소 진두에서 지휘하심으로써 인민군대로 하여금 초

기부터 전쟁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침략자들에게 치명적타격을 가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원쑤놈들의 이른바 《불퇴의 선》은 물먹은 담벽과 같이 무너지고 《무적의 상승사단》은 전멸되였으며 《불의성》과 《전격전》으로 공화국북반부를 단숨에 삼키려던 놈들의 전략적기도는 완전히 파탄되고말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인 지략과 강의한 혁명적의지로 불리한 군사정치정세와 위급한 정황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키심으로써 미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와 재진격시기 그리고 진지방어전을 벌리던 시기에 취하신 모든 전략적방침과 탁월한 령군술은 어려운 전쟁의 국면을 유리하게 전변시키고 전쟁을 결정적승리에로 이끈 위대한 모범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주동적으로 전략적후퇴를 조직하시면서 재진공을 준비하시였으며 적후에 제2전선을 형성하게 하시여 군사활동의 차후발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독창적인 군사전략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전략적요충에 강력한 방어지대를 형성하고 령활한 전략과 전술, 전법으로 원쑤들의 어떠한 형태의 무력침공도 짓부셔버리는 진지방어전의 천재적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후방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을 전쟁승리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보시고 이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전쟁의 승리는 후방의 강화에 크게 달려있다.

수령님께서는 온 나라가 원쑤와의 판가리싸움을 벌리는 어려운 조건에서 무엇보다도먼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리시는 한편 로농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시고 전선과 후방을 하나로 통일시키시여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정확히 관철하시여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제압고립시키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포섭교양하도록 하심으로써 인민들의 혁명적열의를 남김없이 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상 군인들과 후방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제때에 국가적대책을 취하심으로써 전쟁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시였으며 군인들의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그리고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돌려주신 극진한 사랑과 배려는 그들의 무비의 희생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낳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한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움직일수 없는 그들의 철석같은 신념이였으며 의지였다.

그러기에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포탄이 우박치는 전선과 후방에서도, 락동강과 남강의 가렬한 포화속에서도, 엄혹한 시련이 중첩되던 전략적후퇴의 길에서도, 불타는 고지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새 힘과 용기를 얻고 불사신이 되여 싸웠다.

정녕 우리 인민은 오직 장기간의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시였으며 위대한 군사사상과 리론, 탁월한 령도력과 천재적인 군사전략, 불굴의 의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과 높은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미제를 타승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위업에 영생불멸의 공헌을 하심으로써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시는 강철의 령장이시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 인민군대를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심으로써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시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시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이 위대한 투쟁에서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령도밑에 한마음한몸이 되여 결사적으로 싸움으로써 전쟁의 어려운 시련을 영예롭게 이겨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주고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력사적승리는 우리 공화국과 인민민주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의 뚜렷한 시위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47페지)

미제침략자들은 15개추종국가군대를 포함한 막대한 침략병력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판가리싸움이였으며 준엄한 시련이였다.

세계는 조선을 주시하고 우리의 벗들도 전쟁의 결말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일제침략자를 물리치시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철의 의지로 전쟁의 승리를 하나하나 마련해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준엄한 나날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각 수상으로서,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당과 정부와 군사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위대한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을 밝히시여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원쑤격멸에로 일떠세우심으로써 미제를 타승하시고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조국과 인민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민족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게 하시였으며 승리의 신심 드높이 반제반미투쟁의 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앞장서나가는 존엄있는 나라로, 용감하고 자랑스러운 혁명적인민으로 되게 하시였다.

그러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의사를 반영하여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였다. 이것은 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표시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기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있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있으며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영광을 안겨주시고 그 찬란한 미래를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을 위해 목숨도 초개와 같이 바쳐싸울 확고한 결의 드높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미제침략자들의 무력침공을 격퇴할뿐아니라 놈들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는 남반부인민들을 해방하며 그들에게 참된 삶을 안겨주도록 하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첫시기부터 조선혁명의 전국적완성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공화국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시는 한편 조국의 자주적통일에 관한 탁월한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남반부인민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서만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될수 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더욱 확신하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해방된 남반부지역에서 미제식민지통치제도를 청산하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기 위한 제반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

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된 남반부지역에서 당 및 정권기관, 근로단체들을 복구하며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민주개혁들을 실시하시기 위한 거창한 사업을 빛나게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방침과 정력적인 지도가 있음으로 하여 남반부의 해방된 지역에서는 당시 조성된 어려운 군사정치정세속에서도 인민들이 자기 손으로 인민정권을 세우고 보람찬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몸소 화선천리 포연탄우속을 헤치시며 전선을 지휘하시는 한편 해방된 남반부인민들을 친히 찾으시여 그들의 살림살이를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으며 그들에게 혁명의 불씨를 안겨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국해방을 위한 항일의 기치를 높이 드신 그때로부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전설적영웅으로 높이 우러러 흠모하던 남반부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보람찬 새 생활을 직접 체험하였다.

그러기에 그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기반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시였으며 참된 삶의 자유와 권리를 찾아주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더욱 끝없이 존경하며 흠모하였다.

지금 남반부인민들은 수령님의 혜택으로 진정 참된 삶과 행복을 누리던 그때를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가 서울을 해방하였을 때 우리는 김일성원수님께서 령도하시는 정치의 혜택을 받았다. 진정 해방의 감격을 맛보았으며 인민주권의 고마움을 안게 된 우리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마음껏 불렀다.》, 《참된 해방의 감격으로 모두가 서로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부르고 또 불렀다.》라고 격조높이 말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반부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끝없는 충성심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뀌여짐에 따라 더욱더 높아가고있다.

오늘 남반부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매국역적들의 야만적인 군사파쑈테로통치밑에서도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해방의 구성으로 우러러 흠모하면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원쑤들의 삼엄한 파쑈폭압속에서도 통일혁명당의 지도밑에 이르는곳마다에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를 뭇고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고 신봉하고있으며 도시와 농촌에서, 지하와 산중에서, 지어 감옥과 교수대에서까지 《김일성장군 만세!》,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긍지높이 부르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인 군사전략과 탁월한 전법으로 허장성세하던 미제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고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으심으로써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그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렸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습니다.》(우와 같은 책, 147페지)

수령님께서 이끄심으로써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끝났으며 미제침략자들의 군사적모험은 참패를 당하였다. 조선전쟁을 통하여 수적, 기술적 우세와 야수성에 매여달린 미제침략자들의 부르죠아전법은 전면적으로 파산되고 제국주의의 취약성과 부패성이 날날이 드러났으며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는 산산이 깨여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심으로써 세계인민들에게 미제의 군사기술적우세가 결코 《만능》이 아니며 아무리 작은 나라 인민이라도 주체를

세우고 현명한 수령의 두리에 군제 뭉쳐 용감하게 싸우면 침략자들을 능히 짓부셔버릴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시였다.

그러기에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는 3대륙의 진보적인민들은 《조선의 모범을 따라 배워야 한다. 영명하신 김일성원수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때려눕혔다.》라고 말하면서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흉악한 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을 굴복시키고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실로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성함은 탁월한 정치활동가로서뿐아니라 위대한 군사전략가로서 더욱 빛나고있다.》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반제투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있으며 미제를 때려눕힌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만나뵙는것을 최대의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고있다.

오늘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계혁명전략과 그이의 고귀한 투쟁경험과 업적에서 승리의 신심과 고무를 받고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 기여하신 불멸의 공헌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속에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높이 추대되고계시며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을 받고계신다.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그이의 위대한 자위적군사사상, 천재적군사예술은 인류해방투쟁사에서 불멸의 금자탑으로 영원히 높이 솟아있을것이며 날을 따라 온 누리에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다.

※ ※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강국에서 사는 우리 인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인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이 있는것처럼 오직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로 나아갈 때에만 우리 인민의 보다 휘황한 앞날이 있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불타고 청춘의 기백과 혁명적정열이 약동하게 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례없는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 우리의 사회주의진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음흉한 침략적야망을 계속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새 전쟁 도발음모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미일침략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사촉 밑에 그 이중주구인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은 전례없는 파쑈적폭압과 《반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으며 새 전쟁 도발의 범죄적길로 더욱 줄달음치고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는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만일 놈들이 분별없이 덤벼든다면 우리 전체 조선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주체조선, 영웅조선의 명예를 걸고 침략자들을 단매에 짓부셔버리고야 말것이다.

전설적영웅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단결된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신다

손 진 팔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의 자기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여 가장 높이 우러러모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그이를 민족의 태양으로, 전설적영웅으로, 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모셔왔으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충성다하여왔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따르고있다.

수령님에 대한 이와 같은 고결한 감정은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도 뜨겁게 고동치고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을 내놓으시고 우리 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며 세계혁명위업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신다.

오늘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칭송하고있으며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 *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수령에 의해서만 창시된다. 위대한 수령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와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과학적으로 반영하여 가장 정확한 혁명사상을 제시한다. 국제로동계급과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이 제시한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투쟁함으로써 곧바른 승리의 길로 힘차게 싸워나갈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인류사상사에서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시대는 제국주의가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고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여지고있습니다.》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 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5페지)

우리 시대는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력사적시대이다.

주체사상은 선행시대와 구별되는 우리 시대의 이 요구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수령님의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에게 혁명의 근본원리를 가르쳐주며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견지하여야 할 근

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주는 과학적인 사상이다.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창시하시고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밝혀주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가장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올리시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하여 제시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리론과 방법들은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참으로 주체사상의 창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류사상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공헌하신 영생불멸의 세계사적업적으로 된다.

오늘 주체사상은 그 위대성과 진리성, 보편타당성으로 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으며 대륙과 대양을 건너 온 누리에 찬란히 빛나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로 칭송하면서 주체사상을 《인류력사에 새 시대를 열어놓은 불멸의 홰불》, 《세계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등대》라고 높이 평가하고있다. 그들은 《우리 시대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는것은 바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사상인 주체사상이다.》,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사상과 리론들은 맑스-레닌주의발전과 인류사상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사상리론이며 전세계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시기를 열어놓은 위대한 혁명사상이다.》라고 하면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하고있다.

일본의 한 사회과학자는 《김일성주의는 우리 시대의 유일한 라침판이다.》라고 하고 《불멸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주의는 조선의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일뿐아니라 세계사의 전도를 환히 비쳐주는 위대한 사상》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위대한 김일성주의체계는 그 깊이와 너비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있으며 완성된 사상리론체계이다. 과거에는 맑스-레닌주의를 연구하는것이 하나의 풍조로 되고있었으나 오늘은 김일성주의를 연구체득하는것이 시대의 커다란 조류로 되고있다.》라고 격조높이 말하면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오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고 체득하자!》, 이것은 우리 시대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의 확고한 신조로 되고있으며 그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전투적구호로 되고있다.

참으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국경을 넘어 지구상의 모든 대륙과 지역, 나라와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언어와 피부색을 달리 하는 모든 혁명적인민들속에서 세차게 고동치고있으며 그들을 투쟁과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하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지금 모든 피압박인민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위대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킴으로써 인류력사의 새 시대, 주체시대를 빛내여나가고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찬연한 빛발로 온 누리를 비쳐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세계혁명의 수령》으로, 《인류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는것은 자연스럽고도 응당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반만년의 우리 나라 력사에서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

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국제로동운동과 세계혁명위업에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부는 지난 기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참으로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매우 짧은 기간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21～22페지)

해방후 우리 인민이 걸어온 혁명투쟁로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매우 락후한 경제를 물려받았으며 그것마저 3년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심하게 파괴되였다. 우리 혁명의 내외환경도 참으로 복잡하고 간고하였다.

그러나 15성상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에서 일제의 백만대군을 쳐부시고 조국광복을 이룩하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홰불로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시였다. 그리하여 지난날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10여년의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력한 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위력한 사회주의나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이것은 오직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나라에서만이 이루어질수 있는 기적이다. 만일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우리 조국의 오늘과 같은 번영과 우리 인민의 행복과 영광에 대해서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오늘 제3세계인민들을 비롯한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신심,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으며 그들에게 혁명과 건설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를 힘있게 보여주는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세기적변혁에 무한히 감탄하면서 《우리는 조선에서처럼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 《조선인민이 거둔 모든 성과와 경험은 앞으로 우리가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할 때 본받아야 할 좋은 모범으로 된다.》고 말하고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세계에 둘도 없는 위대한 령도자》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탁월한 수령》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20세기의 기적을 이룩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외국의 한 벗은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조선을 가장 발전된 나라로, 가장 강력하고 억센 나라로 만드시였다.》라고 하면서 수령님께 최대의 존경을 표시하였다.

특히 오늘 제3세계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제3세계나라들이 나아갈 길을 명시하신 천재적수령》으로 높이 모시면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이룩한 눈부신 성과들은 제3세계나라들을 끝없이 고무하여준다고 말하고있다.

아프리카의 한 사회활동가는 《김일성

주석각하는 조선의 수령이실뿐아니라 전세계에 둘도 없는 전설적영웅이시며 천재적수령이시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수령이시다. 그이께서 계심으로 하여 오늘 제3세계인민들은 자기 위업의 긍지를 가지고 자주적으로 떳떳이 살아나갈수 있는것이다.》라고 힘주어말하였다. 외국의 한 벗은《김일성주석님은 위대한 설계가이시며 건설자이시며 창조자이시다. 그이의 비범하신 통찰력과 조직적수완, 령도예술은 제3세계인민들과 특히는 제3세계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반드시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되고있다.》라고 하면서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금치못해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고계실뿐아니라 우리 시대의 정확한 반제투쟁전략을 제시하시고 반제투쟁에서 실천적인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끝없이 고무하여주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시대 세계혁명의 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가장 정확한 반제반미투쟁전략과 원칙적인 투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의 모든 전략전술적방침들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성과적으로 짓부시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가장 정확한 반제반미투쟁전략을 제시하심으로써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크고작은 모든 나라 인민들이 힘을 합쳐 싸우면 제국주의를 능히 때려엎을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으며 그들을 반제반미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여주시였다.

실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반제반미투쟁전략은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투쟁의 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두 차례의 혁명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새 시대,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불멸의 업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어떻게 싸워야 하며 작은 나라들도 주체를 세우고 제국주의와 맞서 용감하게 떨쳐나서 싸운다면 아무리 강대한 적들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 진리를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하여주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탁월한 군사전략가》로,《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 그 명성을 온 세상에 떨치시고계신다.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옳바른 길로 령도하고계시는 반제투쟁의 기수이시며 탁월한 령도자》로,《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의 탁월한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면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전략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그 누구도 걸어본 일이 없는 혁명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시면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위업에 영생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심으로써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천재적인 사상과 탁월한 령도로 빛나는 로동계급의 가장 위대한 수령의 력사인 동시에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으로 찬란히 수놓아진 인민적수령의 력사이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오르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오로지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겪으시며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들고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우리 인민에게 크나큰 행복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심혈을 다바치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는 인민 대중의 리익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으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것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습니다.》(《김일성선집》, 제1권, 1963년판, 132페지)

수령님께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크고작은 모든 시책을 실시해나가시는데서 무엇보다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그 하나하나에 인민의 행복이 구현되도록 하시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모든것을 의논하시며 그들을 넓으신 한품에 포옹하여주고계신다.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이 있기에 우리 인민은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사회의 어엿한 주인으로서 언제나 희망과 신심에 넘쳐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있다.

수령님께서는 무한히 겸손하신 인품과 소박하신 성품을 지니시고 한평생을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시며 우리 인민을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은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만이 지닐수 있는 가장 높고 빛나는것이다.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수령님을 우러러 《위대한 인민의 수령》, 《한없이 너그럽고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그이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외국의 한 벗은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님을 어버이수령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하고있다. 즉 주석님과 인민이 한몸이 되여있으며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대가정이 이루어지고있다.》고 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있는 우리 인민을 한없이 부러워하였다. 외국의 한 벗은 수령님의 높으신 덕성에 감탄을 금치못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항상 인민대중을 믿으시고 그들속에서 거대한 힘과 무궁무진한 재능을 끌어내심으로써 나라의 건설사업을 인민대중자신의것으로 삼게 하고계시는 그이, 인민대중의 생활을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보살펴주시는 그이, 그분의 인민대중에 대한 보살핌과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다. 바로 그분의 이런 현명한 령도와 인민들에 대한 사랑이 있음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힘이 세상사람을 경탄시키는 천리마운동에 집결될수 있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수리아의 한 신문은 《진정 이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를 가나 김일성주석님의 정확한 령도가 미치지 않은곳이란 없으며 그이의 자애로운 보살피심이 가닿지 않은곳이란 없다. 수령님은 언제나 인민을 믿으시고 사랑하시며 인민은 항상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을 우러러 받들고있다.》고 썼다.

외국의 벗들이 한결같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것처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한평생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겸손하고 소박하신 성품을 한몸에 체현하고계시는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인민들에게 끝없는 배려와 은덕을 베풀어주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은인이시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탁월한 령도예술,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은 찬란한 빛을 뿌리면서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 더 널리 파급되고있으며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

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은 오늘 세계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된 가장 고귀한 감정으로 되고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는 절대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지금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우려는 지향과 열망이 끝없이 높아가고있다.

오늘 아세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구라파 등 모든 대륙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진보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활동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애독회》 등 여러가지 학술연구조직들을 수많이 뭇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열심히 따라배우고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은 지금 한 나라, 한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대륙적인 범위로 확대되였으며 그것은 더욱더 조직화되고있다. 최근년간 아세아와 아프리카, 구라파지역에서 련이어 열린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주체사상연구토론회》, 《주체사상에 관한 과학토론회》와 같은 대규모적인 토론회들은 그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아세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대대적으로 출판하여 보급하고있으며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그이께서 지니신 고매한 덕성에 대하여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수많은 나라의 벗들이 대륙과 대양을 건너 끊임없이 우리 나라에 찾아오고있는 자랑찬 현실은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이 얼마나 높아가고있으며 수령님에 대한 그들의 흠모와 존경의 정이 얼마나 높아가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온 세계혁명적인민들이 그처럼 흠모하여마지않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영예와 자부심은 끝이 없다.

우리는 세계인민들이 우러러 따르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조국》에서 혁명하는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을 더욱 높이 모시며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해 나가야 한다.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위대한 주체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의 더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기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 커다란 기대와 희망에 찬 시선을 돌리고있다.

우리는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일대 비약과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조선》, 《천리마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떨쳐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세계혁명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

간부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정열적인 독학가가 되자

리 재 일

오늘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을 우리 당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항구적인 강령으로 제시하였다.

당이 제시한 이 전투적강령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으로서 이것은 우리 당이 영원히 주체의 혈통을 가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되게 하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대한 방침이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영광스러운 위업은 누구보다먼저 간부들과 일군들이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정치사상리론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될것을 요구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를 개조하고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려면 먼저 간부들자신부터 자기의 사상을 개조하여야 하며 사회의 발전법칙에 관한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학습하지 않고서는, 다시말하여 지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을 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일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353페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전사로 만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자면 대중의 직접적교양자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들부터 정치사상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높여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높이 받들고 언제나 학습을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여기고 학습하고 또 학습하는 정열적인 독학가가 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된 티없이 맑은 주체형의 피만이 세차게 맥박치는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자기들에게 가장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주시고 어엿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기대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 *

전당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사상의 일색화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중요담보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그들의 머리속에서 온갖 잡탕사상을 뿌리빼고 오직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이 꽉 들어차게 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한다는것을 말한다.

사람들의 사상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이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위업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질수 없다. 이것은 끊임없는 학습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실현되고 공고화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누구나 학습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없으며 혁명사업을 계속해나갈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13폐지)

학습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귀중한 량식으로 되며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젊어지게 하는 보약과 같다.

우리가 하는 모든 학습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 그이의 모든 교시와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깊이 체득하며 혁명과 건설에 관한 과학적지식을 소유하기 위한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학습을 하지 않으면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할수 없으며 혁명을 위해 투쟁할수도 없고 살수도, 전진할수도 없다. 혁명투쟁의 길에 나선 모든 사람은 누구를 물론하고 학습을 해야 혁명의 량식을 얻을수 있고 자기가 지향하는 투쟁목표와 그 수행방도를 연구체득할수 있으며 비록 육체적으로는 로쇠하여진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언제나 젊은 청춘기를 잃지 않고 수령님께 무한히 충성을 다할수 있다.

학습은 또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참다운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 주체의 세계관을 확고히 세워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힘있게 촉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된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과 부패상을 인식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미워하는 사상을 키우는 과정을 거쳐서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때려부시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혁명적각오와 의지를 가질 때 세워진다. 혁명적세계관은 저절로 이루어질수 없다. 그것은 오직 사람들이 혁명의 근본원리를 인식하고 계급투쟁과 사회발전법칙에 관한 지식으로 무장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관한 사상과 리론,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체득하기 위한 끊임없는 학습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공고화된다.

부단한 학습과 쉼없는 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은 간고하고 험난한 혁명의 길에서 불가피하게 부닥치게 되는 난관과 곤난을 이겨내는 강한 혁명적의지를 키우게 되며 전진도상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확신성있게 풀어나갈수 있는 옳은 방도를 찾게 된다.

따라서 혁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학습을 하지 않고는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울수 없으며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공산주의자로 될수 없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주체의 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과 사회,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지켜나갈수 있는 사상과 리론, 방법을 준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은 계급적 및 민족적 억압과 착취에서 인민대중을 해방하는 투쟁의 무기로 될뿐아니라 온갖 형태의 예속과 구속에서 사람들을 종국적으로 해방하고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는 우리 시대 혁명의 참다운 지도사상과 지도리론, 지도방법으로 된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의 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주체형의 피만이 끓는 공산주의적혁명가로 되자면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혁명적학습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간부들과 일군들 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있는 오늘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중앙이

제시한 위대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날에날마다 전례없는 비약과 기적을 창조하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이 더욱 심화발전되고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이 장엄한 현실에 맞게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결정적으로 따라세우지 않고서는 전례없이 거창하고 웅대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로 광범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오늘 우리 일군들이 낡은 경험, 열성하나만을 가지고 일할 때는 지나갔다. 지금은 열성에 실력이 안받침되여야 자기앞에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누구를 물론하고 다 공부를 하며 일정한 정치리론과 경제지식을 가져야 빨리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갈수 있으며 당정책집행에서 조직자, 선전선동자가 될수 있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은 어느 부문,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지간에 언제나 학습을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내세우고 일하면서 학습하고 학습하면서 일하는 정열적인 독학가가 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일군들이 우리앞에 장엄하게 펼쳐지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과업수행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전당과 온 사회가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으로 끓어번지게 할수 있다.

특히 오늘 당중앙이 제시한 전당을 간부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은 그 어느때보다도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에서 제시한 전당의 간부화방침은 모든 간부들을 한 등급, 두 등급이상의 높은 수준을 소유하게 하며 당원들은 대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는 수준에로 이르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전당의 간부화방침을 확고히 실현하자면 모든 당원들과 간부들이 괴타는 정열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실무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하고도 간고한 기간 우리 혁명을 령도해오시면서 언제나 학습을 혁명사업의 한부분으로 여기시고 간부들과 당원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지휘성원으로, 정치활동가로 키우시기 위하여 세심한 지도와 끊임없는 배려를 다 돌려주고계신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간부들과 당원들은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참된 혁명전사로, 혁명의 믿음직한 지휘성원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우리는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떤 조건에서도 학습을 조금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 실속있게 진공적으로 하여야 할것이다.

* *

전당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이 학풍을 세우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정책을 잘 연구하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입니다. 당정책을 모르고 우리 당의 사상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학습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적기치인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매 시기 제시되는 그이의 강령적교시들과 당정책들,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심오히 연구체득하여 그것을 자

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세계관으로 만드는데 있다.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그이의 모든 교시들, 당정책들은 우리가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며 모든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다. 주체사상은 사람들에게 영생불로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주며 전당과 온 사회를 영원토록 생기발랄하고 약동하게 만드는 사상정신적량식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정치적식견과 시야를 넓힐수 있으며 영원토록 로쇠를 모르고 청춘의 기백을 가지고 살며 투쟁할수 있다. 또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야만 우리 당의 유일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잡탕사상들을 제때에 뿌리빼고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할수 있다.

만일 우리 일군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잘하지 않는다면 사업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배격할수 없으며 자본주의사상, 수정주의사상, 사대주의사상 등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에 오염될수 있다.

우리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이 곧 자신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준비해나가는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학습을 패기있게, 정열적으로 하여야 한다.

간부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학습에서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마스고 학습을 보다 실속있게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정책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수박겉을 핥는 식으로 제목이나 훑어본다든가 재담에서 나오는것처럼 밤낮 책의 제1장이나 보아서는 안됩니다. 또 현실과 떨어져서 문구나 외우는 식으로 당정책을 공부하여서는 아무것도 얻을것이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써는 당의 의도를 깊이 깨달을수 없고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찾아낼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62～263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모든 간부들과 근로자들이 학습을 실속있게 하지 않으면 혁명의 진리를 옳게 체득할수 없고 모든 사업을 창조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없으며 배운내용을 혁명적 실천에 옳게 구현할수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습에서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마스고 학습을 보다 실속있게 하자면 우선 학습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는 동시에 하나를 알아도 똑똑히 알고넘어가는 그런 습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혁명의 진리를 똑똑히 알고 혁명활동의 지침으로 삼을수 있으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근로자들은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학습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과 교시들에는 실로 깊은 뜻과 심오한 사상이 담겨져있다. 수령님의 교시와 로작을 한두번 읽는것으로는 그 속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사상과 리론을 다 파악할수 없다. 우리는 수령님의 교시와 로작의 매 구절구절을 새겨가면서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심장의 붉은 피가 동맥을 통하여 전신에 영양물질을 공급하듯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가 혈맥을 통하여 온 몸에 퍼져나가 뼈와 살로, 신념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할수 있다.

우리의 모든 학습은 또한 자신의 실천활동과 결부되고 실지 써먹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가 학습하는 중요목적은 결국 그것을 무기로 하여 자연과 사회와 인간의식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려는데 있

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자들과 일군들은 《글뒤주》가 되여서는 안되며 우리의 모든 학습이 학습을 위한 학습으로 되여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학습은 반드시 자신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혁명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실천활동과 철저히 결부되여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학습을 혁명적실천활동과 결부시켜 진행하며 수령님의 교시집행정형을 따져보고 집행하지 못한것은 그 원인을 찾아 구체적인 집행대책을 찾는 방향에서 학습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모든 학습은 자신의 당적수양을 높이고 당조직생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학습을 통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울수 있으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다.

전당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몸소 창조하시고 오늘 당중앙의 정확한 지도에 의하여 그 우월성이 더욱더 남김없이 확증된 문답식학습방법을 널리 조직하는것이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문답식학습방법은 학습에서 형식주의, 교조주의의 낡은 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학습을 보다 실속있게 조직함으로써 하나를 배워도 똑똑하게 배우게 하고 그것을 혁명적 량식으로 체득하도록 한다는데 그 우월성이 있다. 문답식학습방법은 또한 광범한 대중을 학습에 인입하고 학습을 대중자신의 사활적문제로 전환시켜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을 통하여 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남김없이 확증된 문답식학습방법은 또한 동지호상간의 학습을 서로 방조하고 제기된 학습문제에 대한 실속있는 토론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제기된 학습문제의 본질과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게 하며 학습토론을 문답의 형식으로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로 대중을 적극 조직동원할수 있게 한다는데 그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

우리는 모든 단위, 모든 조직들에서 문답식학습방법을 널리 조직하여 전당에 혁명적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전당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수립하는데서는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일군들자신이 먼저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학습에서 이신작칙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책임간부일수록 학습에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 그래야 아래일군들과 당원들이 혁명적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고 학습을 혁명적으로 하게 된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모두가 연렬한 독학가, 경연가가 되여야 하며 수령님의 모든 로작, 모든 교시들을 다 환하게 통달하고 누구보다도 몇배, 몇십배 넓고 깊이 알아야 한다. 그러자면 남들이 하루 2시간학습하면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은 4시간, 5시간이상 학습하여야 하며 남들이 책을 10페지 읽으면 일군들은 그보다 몇배, 몇십배 읽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일 2시간학습을 비롯하여 토요학습, 강연회, 강습 등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일군들이 남보다 모든 면에서 더많이 알수 있고 박식해질수 있으며 남을 지도하고 이끌어나갈수 있다.

간부들과 일군들의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당조직들의 지도와 통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책임간부들의 학습을 철저히 통제하며 그들속에서 자각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18페지)

간부들과 일군들의 학습기풍은 높은 자각성과 함께 당조직들의 강한 통제가 안받침될 때 더욱 철저히 설수 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이 계획적으로 학습하도록 과제도 제때에 제시해주고 그 집행정형을 총화하며 특히 간부들이 글을 많이 쓰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은 글쓰는 과정에 더 많은것을 학습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며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게 된다.

간부들과 일군들이 수령님의 혁명적 문풍을 따라배워 더많은 글을 쓰며 그것을 당적출판물에도 내고 군중을 교양하는데도 적극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당조직들은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이 배낭에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수령님의 략전, 혁명력사학습제강, 각종 학습자료들을 넣어 길머지고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서 학습도 지도하고, 강연회에도 출연하며 일터에서 군중과 같이 일하면서 그들에게 당정책을 해설하여주는 등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학습을 적극 도와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일군들의 학습정형을 매일매일 엄격히 총화하며 그들의 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얻은 좋은 경험들은 일반화하고 잘못된것들은 제때에 타일러주어야 한다.

또한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학습을 잘하지 않고 실속있게 하지 않으며 학습시간에 이러저러한 사업조직으로 학습에 지장을 주는 등 일체 그릇된 현상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이 학습을 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나갈수 없다는 그런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학습을 철저히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간부들과 일군들을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자기에게 부과된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참된 혁명가,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키우시려고 언제나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돌리시며 온갖 조건을 다 마련하여주고계신다.

문제는 우리 간부들과 일군들이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달려있다.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고 끊임없는 학습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자신을 주체형의 피가 세차게 맥박치는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수행에 몸바쳐나서야 한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

리 동 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적문학예술이 그 어느때보다도 찬란히 꽃피여나고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밑에 전성기에 들어선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세계최고봉의 예술》로 세상사람들을 격동시키고있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중적인 문예활동 특히 예술선동이 전격적으로 벌어짐으로써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의 붉은 기치밑에 사회주의대건설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떨쳐나서 《속도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키고있다.

우리는 현실속에서 위대한 생활력이 발휘되고있는 문학예술의 대중화방침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을 인민대중속에서 활짝 꽃피여나게 하고 온 사회를 혁명적랑만에 차넘치게 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도록 해야 한다.

* *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방침을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원칙적문제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이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이며 우리 사회에서 문학예술은 근로대중이 널리 참가하여야만 빨리 발전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62페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문학예술의 대중화방침은 문학예술을 광범한 인민대중의것으로 만들어 그들이 어디서나 마음껏 보고 즐길수 있게 하며 문학예술사업에 광범한 근로자들을 참가시켜 창조사업자체를 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가게 하는 독창적인 방침이다.

문학예술의 대중화방침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의 구현으로서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위대한 방침이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어떤 힘에 의거하여 발전시킬것인가 하는것은 과학적인 해답을 기다린 매우 절박한 문제였다. 이 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에 대하여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며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원칙적문제이다.

이 문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비로소 빛나는 해결을 보게 되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기본동력이다. 문학예술을 포함하여 세상에서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물질적 및 정신문화적 재부는 인민대중의 창조적 로동과 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문학예술이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되고 또 그들을 위한것인것만큼 그것은 인민대중의 지혜와 재능이 발동되지 않고서는 빨리 발전할수 없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철저히 의거해야 하며 그들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 한다. 다른 모든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학예술분야에서도 광범한 군중을 발동시켜야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지혜와 재능에 의하여 문학예술을 전면적으로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문학예술의 대중화방침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것으로서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문학예술을 전면적으로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탁월한 방침이다.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착취계급사회에서는 특권계급의 착취와 억압으로 말미암아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가 다 발휘될수 없다.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은 문학예술을 향유하고 창조할 권리를 가지고있지 못할뿐아니라 예술창조의 수단과 조건도 가지지 못한다.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영원히 없어진 사회주의사회에서만이 비로소 인민대중은 주권과 생산수단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으며 자기의 모든 힘과 재능을 다 발휘할수 있다.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근로인민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고 국가가 근로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며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동지적협조관계가 강화발전한다.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현실적조건과 가능성은 인민대중을 문학예술의 진정한 향유자로 되게 할뿐아니라 그들을 문예활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게 하며 따라서 문학예술을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문학예술의 대중화방침은 또한 문학예술을 현실속에서 인민대중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된 진정으로 당적이고 혁명적인것으로 되게 하는 현명한 문예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실속에서 우러나오고 대중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된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당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될수 있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579~580페지)

인간생활과 현실을 떠나서는 혁명적문학예술의 창조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예술의 생명력은 인간생활의 진실하고 생동한 반영에 있다. 생활적바탕이 없는 추상적인 예술은 진실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없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창작된 작품만이 인민대중의 심금을 울리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될수 있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처럼 커다란 감동을 주는것은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 그들의 사상감정과 지향을 그대로 반영하고있으며 현실속에서 우러나오고 대중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되여 있기때문이다.

문학예술의 대중화방침은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문학예술을 참으로 인민대중의 현실생활과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그것이 진정으로 당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되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문학예술의 대중화방침은 또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온 사회

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탁월한 문예방침이다.

수령님께서는 문학예술사업이 대중화되여 도시와 농촌을 비롯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널리 벌어지면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만들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중앙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창작과정은 곧 혁명화과정이며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이다.

혁명적문예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은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것을 자로 하여 현실을 평가하고 예술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또한 문예작품창조자들자신이 일편단심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교시를 절대화하며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주인공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과 함께 숨쉬고 충성의 열정을 꽃피워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광범한 군중속에서 혁명적문예활동이 광범히 벌어지고 문학과 예술이 더 빨리, 더 잘 보급되면 될수록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할수 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만들수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은 문학예술로 하여금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는데 이바지하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며 인민대중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 주체적문예강령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로동자와 농민의것으로 되였으며 광범한 군중속에서 더욱 찬란히 꽃피고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문학과 예술은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였으며 새 사회의 건설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89～90폐지)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아름답고 고상한 문학예술이 인민대중속에서 활짝 꽃피여나고있으며 인민대중은 그 훌륭한 문학예술의 참다운 향유자로 되고 있다.

우리 인민들이 살고있는 모든곳에 문학예술이 있고 모든 일터마다에서 예술활동이 군중적운동으로 벌어지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어린이들로부터 늙은이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문학예술을 즐기며 악기를 다루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연극을 하며 시를 읊고있다. 참으로 우리 나라는 예술의 나라이다.

어제날의 평범한 로동자, 협동농장원들이 이름난 공훈배우, 인민배우로, 재능있는 작가, 예술인으로 자라나 주체문학예술의 창작대오를 끊임없이 보충확대하고있으며 세계에 명성을 떨치는 수많은 문예작품들을 창작하여 혁명적문학예술의 재보를 더욱 풍부화시켜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누리고있는 오늘의 행복과 기쁨, 일편단심 수령님께 다진 충성심을 훌륭한 시와 노래, 소설과 가극, 영화에 담아 그이께 올리는것을 가장 큰 영예로,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 오늘 우리 인민은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주체의 조국》, 《예술의 왕국》에서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는 최고봉의 예술》, 《시대와 미래를 대표하는 불멸의 예술》을 마음껏 보고 즐기고있으며 보다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인간개조사업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구현하여 창조된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또한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우렁차게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투쟁의 무기로 되고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은 《피바다》근위대, 《꽃파는 처녀》근위대를 뭇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의 주인공들을 본받아 혁명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며 승리의 신심드높이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해나가고있다.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는곳에 노래소리 높고 생활이 약동하고 혁명적랑만이 차넘치는곳에 위대한 비약과 변혁이 일어나는 바로 이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중앙과 도의 전문예술단체들과 기동예술선전대, 문예소조들이 모든 건설장들과 공장, 기업소, 탄광의 지하막장과 협동전야에서, 풍어기휘날리는 원양어로선단에서 로동자, 농민들의 로력투쟁을 고무하고있으며 그들을 보다 큰 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는 오늘 온 나라에서 활짝 꽃피여나는 우리의 문학예술처럼 그렇게 거대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빨리 개조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그러한 문학과 예술을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참으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대중의 재능과 힘에 의하여 창조되는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우리 인민의 생활의 참된 교과서이며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마련해주신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이렇듯 활짝 피여나는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로 하여 온 세상에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따라 오늘 찬란히 꽃피여나는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온 세상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모든 대륙,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서 격동된 찬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게 하고있다.

광범한 군중속에서 문학과 예술이 꽃피여나고 우리의 예술이 오늘처럼 세계에 명성을 떨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의 빛나는 열매이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광범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유격대원들 속에서 대중적문예활동을 벌리시는 과정에 쌓으신 고귀한 업적과 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이 방침을 더욱 빛나게 실현하시기 위하여 크나큰 힘을 기울여 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사회주의적 문학과 예술이 혁명과 투쟁의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지향에 맞게 하기 위하여 인민대중이 좋아하는 내용과 형식, 인민적인 언어와 선률, 률동 등에 철저히 립각하여 창작되도록 늘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문예활동에서 전문일군본위로 나가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시면서 전문예술을 인민적인 예술로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창작사업에서 신비주의를 마스고 문학예술을 군중

적으로 널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큰 힘을 기울여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늘 작가, 예술인들과 이 부문 일군들에게 현실속에 들어가 군중과 같이 살면서 군중의 심리와 현실생활을 예술적으로 잘 그려야 좋은 작품이 된다고 타이르시였으며 로동자, 농민들을 만나시여서는 문학예술창조사업을 어렵게 여기지 말고 노래도 만들고 글도 쓰며 예술공연도 활발히 벌려 온 사회를 혁명적랑만으로 차넘치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공장과 농촌을 비롯한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문예소조를 무어주시고 많은 자금과 자재를 들여 문화회관을 세워주시였을뿐아니라 악기를 비롯한 문예활동에 필요한 가지가지의 수많은 기자재들을 보내주시였으며 해마다, 철따라 중앙과 지방, 군부대와 학교들에서 예술경연대회와 예술소조작품발표회를 열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이 예술적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장과 농촌의 예술소조원들이 준비한 소박한 예술공연을 밤늦도록 보아주시면서 잘되였다고 치하도 하시고 잘못된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며 문예소조에서 창작되는 작품들은 언제나 매 시기 당이 강조하는 문제를 제때에 잘 반영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평범한 로동자의 노래를 들으시면서도 그 속에서 번영하는 우리 문학예술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못내 기뻐하시였으며 근로자들의 소박한 예술공연을 보시면서 그 속에서 반짝이는 한점의 새싹도 무한히 귀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키워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시지 않으시였다.

수령님께서 문학예술을 대중속에 보급하여 그들이 마음껏 보고 즐길수 있게 하며 문예창조에 광범한 근로대중을 널리 참가시키기 위하여 취하신 조치들과 크나큰 배려에는 실로 끝이 없다. 그 하나하나의 조치들과 배려에는 지난날 재능은 있어도 나라 없고 돈 없는 탓으로 그 재능을 피울래야 피울수 없었던 우리 인민들의 가슴아픈 숙원을 풀어주시고 예술적재능을 활짝 꽃피워주시려는 수령님의 뜨거운 어버이사랑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당중앙은 우리의 문학예술을 우리 인민에게 복무하고 우리 혁명을 촉진하며 그것으로써 세계혁명에 이바지하는 우리 식의 문학예술로 만들기 위하여 정력적인 지도를 주었다. 당은 문학예술의 혁명적내용을 누구나 한번 보고 들으면 다 쉽게 리해할수 있는 예술형식에 담게 함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을 참말로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게 하였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창조된 《피바다》식혁명가극의 새로운 탄생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음악과 노래를 통속화, 대중화하는것은 가극예술을 《음악을 위한 음악》으로 만들고있는 온갖 부르죠아적예술의 영향으로부터 떼여내여 철저히 로동자, 농민에게 복무하는 음악으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가극예술로 되게 하는데서 결정적고리로 된다.

당에서는 인민음악의 기초이며 인민대중에게 가장 친근하고 예술적으로 비할바없이 세련된 절가형식과 민족음악의 고유한 방창, 우아하고 부드러운 민족적선률에서 가극의 인민성, 민족적특성, 통속성을 가장 훌륭히 구현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를 찾음으로써 우리 인민음악의 기본형식들이 처음으로 가극의 기본형상수단으로 될수 있었으며 《피바다》식혁명가극은 내용에서뿐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예술로 될수 있었다.

우리 당은 또한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힘있는 수단인 영화예술이 제때에 광범한 인민들속에 빠짐없이 보급되게 하기 위하여 전국에 정연한 영화보급망들을 새로 조직해주고 가극

을 비롯한 무대예술을 누구나 다 볼수 있도록 새로운 예술보급체계와 방법을 세워주었다.

당은 영화를 비롯한 문예창작에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세대들을 널리 참가시키기 위하여 예술소조원들의 창작조건을 적극 보장해주고 우수한 영화문학작품들을 제때에 영화로 실현할수 있도록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었으며 《피바다》식혁명가극 창작과정을 통하여 공장과 농촌에서 선발된 유망한 신인들을 대담하게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었다.

당은 사회주의대건설이 세차게 벌어지는데 따라 근로자들속에서 예술선전활동이 그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건설투쟁을 고무추동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훌륭히 복무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동성과 전투성을 높이도록 구체적이며 세심한 지도를 주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전문예술과 함께 군중예술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와 크나큰 배려로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활짝 꽃피여나고 있으며 인간과 사회, 자연을 개조하고 생산을 끊임없이 고무추동하는 강력한 무기로,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혁명위업에 훌륭히 이바지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 *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우리는 문학예술활동에서 전문일군본위를 반대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속에서 문예활동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훌륭한 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창작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 그들모두가 새로운 로력적위훈에로 떨쳐나서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예술선동을 강화하는것이다.

예술선동은 광범한 근로자들속에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다양한 예술형식에 담아 제때에 기동성있게 전투적으로 침투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당면한 혁명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수단이다.

당중앙이 가르치는대로 예술선동은 틀을 차리거나 겉치레를 함이 없이 항일유격대식으로 군중속에 들어가 구체적실정에 맞게 간편하고 알기 쉬운 방법으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침투시켜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대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예술선동에서는 특히 이미 창작보급된 혁명가요들과 명곡들, 춤을 더 광범한 군중속에 보급하며 중앙에서 새로 창작보급하는 노래와 춤을 일반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종자를 똑바로 잡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문예소품들을 훌륭히 창작공연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대중화함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이 참말로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을 완성하는데 철저히 복무하는 위력한 무기로, 사회주의대건설에로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수산전선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전선

리 순 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와 전국공업대회에서 수산전선을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5개전선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가까운 앞날에 500만톤의 수산물고지를 점령할데 대한 웅대한 전투적목표를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나서는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수산물 500만톤고지점령을 위한 투쟁, 이는 우리 나라 수산업에서 전례없는 비약을 일으키게 하는 장엄한 총진군운동이다. 이 목표가 실현되면 우리 나라 수산업은 새로운 높은 고지우에 올라서게 되며 우리 나라는 인구 한사람당 물고기생산량에서 단연 세계1등급의 나라로 될것이다.

이 웅대한 목표에는 우리 나라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담하게 개발하여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며 인민생활을 더빨리 향상시키시려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우리 인민에 대한 뜨거운 육친적사랑이 빛나게 구현되여있다.

우리는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수산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일으킴으로써 수산업발전에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하며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 *

우리 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이다. 우리 나라 바다에는 명태, 도루메기, 멸치, 낙지, 공치를 비롯하여 철따라 찾아오는 물고기들과 여러가지 정착성어족들이 많으며 조개, 미역, 곤포 등 수산자원이 무진장하다. 이 귀중한 재부를 적극 개발리용하는것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물고기잡이는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16~17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인민생활 특히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산업을 발전시켜야 근로자들에게 여러가지 부식물을 더많이 공급하여 그들의 식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으며 단백질에 대한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뿐만아니라 수산업을 발전시켜야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더욱 풍족하고 다양하게 하면서도 식량을 절약하여 나라살림살이를 더잘 꾸려나갈수 있다.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식생활에 대한 근로자들의 요구가 나날이 높아가고있는 오늘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에 식량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였다. 오늘 물질문화생활수준이 더욱 높아감에 따라 근로자들은 맛있고 영양가 높은 여러가지 부식물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있다.

부식물에 대한 날로 높아가는 근로자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가장 빠른 길은 물고기생산을 늘이는것이다.

물고기생산을 늘이는것은 농업, 축산업을 발전시켜 근로자들의 부식물문제를 해결하는것보다 더 빠르고 쉬운 길이다.

우리 나라에는 수산업의 일정한 력사

가 있으며 우리 인민은 물고기잡이에서 적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있다. 또한 바다에는 수산자원이 무진장하므로 물고기생산을 파동성없이 계속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농업, 축산업을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있는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리용하여 물고기를 많이 잡으며 그 가공사업을 개선하여 잡은 물고기를 인민들에게 생선으로도 공급하고 통졸임과 절임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가공품들을 만들어서도 많이 공급한다면 인민들의 부식물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산업은 점차 식료공업은 물론 경공업, 화학공업, 제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부문에 원료, 자재를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부문의 하나로 되고있다.

우리가 생산하는 여러가지 수산물들은 식료가공공업의 기본원료로 될뿐아니라 그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물고기내장과 뼈, 기름 그리고 고기비늘과 고기껍질 등은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귀중한 원료, 자재로 리용된다.

수산업발전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우리는 식료공업, 경공업, 화학공업, 제약공업을 더빨리 발전시켜 근로자들에게 여러가지 식료가공제품, 경공업제품, 화학제품과 의약품을 더많이 생산공급할수 있다.

수산업을 발전시켜야 농업생산도 더욱 장성시킬수 있으며 단백질먹이, 광물질먹이를 원만히 보장하여 가금업, 축산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그뿐아니라 대외무역을 더욱 활발히 벌려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외화를 더많이 벌수 있다.

이렇듯 수산전선은 인민생활을 높이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를 앞당기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인민경제부문으로서 현시기 우리가 힘을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쟁전선의 하나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수산업발전이 노는 커다란 역할과 그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수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사철 물고기를 잡으며 집단적으로도 잡고 분산적으로도 잡으며 먼바다에서도 잡고 가까운 바다에서도 잡으며 큰 배로도 잡고 작은 배로도 잡으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식으로 쉴새없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427페지)

먼바다 물고기잡이와 가까운 바다물고기잡이, 대형어업과 중소어업을 병진시키며 대규모의 국영수산업과 중소규모의 지방수산업을 배합하여 사철 바다를 비우지 않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는것은 수산업발전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이 방침은 우리나라 수산업발전의 필수적인 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정확히 타산한 독창적인 방침이다. 이 방침은 고기배들을 비롯한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수산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산물생산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고기배들을 대형화, 현대화, 만능화하여 물고기잡이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고기배들을 대형화, 현대화, 만능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방침은 먼바다에 적극 진출하여 전격전, 기동전, 포위섬멸전을 대담하게 통이 크게 벌려 물고기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이 방침은 가까운 바다고기잡이를 더욱 발전시켜 명태, 도루메기를 비롯하여 철따라 밀려드는 고기떼들을 놓치지 않고 더많이 잡으며 바다를 비우지 않고 늘 고기잡이를 다그치기 위한 적극적인 방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산업발전을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로 우리 인민을 곧바로 이끄심으로 하여 우리 나라 수산업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산일군대렬이 확대강화되였으며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꾸려졌다.

우리의 수산일군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였으며 날로 강화발전되는 사회주의수산업을 훌륭히 담당운영해나가는 충성의 혁명대오로 자라났다.

바다가 이르는곳마다에 수산사업소, 수산협동조합이 일떠서고 동서해안의 곳곳에 수산물가공기지, 배수리기지, 어구생산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졌다. 또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고기배들로 수산전선은 더욱 튼튼히 장비되였다.

그리하여 지난날 가랑잎같은 쪽배에 몸을 싣고 풍랑사나운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던 어부들이 오늘은 1만톤짜리이상의 대형가공모선을 비롯한 큰 고기배들로 강력한 어선대를 꾸리고 대양의 국제어장에 나가 공화국기발을 높이 휘날리며 위풍당당히 물고기잡이를 다그치고있다.

우리 나라 수산업이 오늘처럼 발전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수산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배려의 결과이다.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대지를 멀리 떠나 사나운 풍랑을 헤가르며 영웅적투쟁을 벌리고있는 수산전사들을 먼길에 나선 자식을 더 생각하는 어버이심정으로 언제나 걱정하시면서 여러가지 현대적인 어로수단들을 보내주시였으며 그들이 바다에 나가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들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수산전사들이 바다에서 돌아와 충분히 휴식할수 있도록 경치좋은 해변가에 현대적인 살림집도 마련해주도록 하시였으며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언제나 깊이 심려하시면서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고계신다.

실로 수령님의 넓고넓은 사랑의 품속에서 조국의 륭성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양을 정복해나가는 우리 수산전사들의 긍지와 보람은 한없이 크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개년계획의 수산물고지를 앞당겨점령하며 가까운 앞날에 500만톤의 수산물고지를 점령할데 대한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우리 수산전사들에게 맡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수산전선에 나서는 전투적과업들을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물고기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하여서는 수산부문에서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물고기잡이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고기배들을 대형화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17페지)

고기배들을 대형화하는 바로 여기에 물고기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기본고리가 있다. 고기배들을 대형화하는것은 현시기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우리 나라 수산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며 가까운 앞날에 500만톤의 수산물고지점령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고기배들을 대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선박공업부문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 3,750톤짜리 대형선미트랄선을 많이 만들며 5,000톤짜리, 1만톤짜리, 2만톤짜리 대형가공모선과 운반선들도 많이 무어내야 한다.

큰배를 많이 무어내자면 선박공업부문과 련관된 협동생산단위들에서 설비, 자재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계공업부문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5,000톤짜리 배와 1만톤짜리 배를 만드는데 쓰는 2,500마력중속엔진을 많이 생산하며 전동기, 랭동기, 어분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금속공업부문에서 여러가지 규격강재들을 제때에 어김없이 생산보장하며 자동화공업부문과 경공업, 화학공업, 림업부문에서는 여러가지 약전설비, 자동화계기류, 의장품들과 화학제품, 질좋은 통나무들을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

선박공업부문과 배무이에 참가하는 협동생산부문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풍랑사나운 바다에 타고 나갈 배를 만드는 주인다운 립장에서 표준조자법과 기술규정을 엄격히 지켜 배의 모든 기계설비들을 질적으로 만들며 배무이에서 조그마한 빈틈도 없게 하여야 한다.

고기배들을 대형화하는것과 함께 그것을 현대화, 만능화하여 물고기잡이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현대적인 기술수단에 의한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여러가지 어구를 널리 생산도입하여 수시로 변동되는 해양기후조건에도 끄떡하지 않고 전착, 자망, 뜨랄 등 보다 적극적인 어로방법으로 더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 이와 함께 큰 배들을 붙일수 있도록 항구를 개건확장하여야 한다.

잡은 물고기를 사철 인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자면 이미 건설하여놓은 랭동공장들을 바로 리용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원산을 비롯한 큰 항구들에 1만톤이상의 랭동능력을 가진 랭동공장들이 많이 건설되였으며 소비지들에도 수많은 랭동공장들이 건설되였다.

우리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물고기랭동공장들을 잘 정비하고 그것을 바로 리용하여 많은 물고기를 늘 저장해두고 한마리라도 허실함이 없이 사철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수산물생산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먼바다어업과 가까운 바다어업, 연안세소어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는 큰 고기배들로 먼바다어선대의 규모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늘이고 어로활동수역을 넓혀 물고기자원이 풍부한 먼바다어장으로 적극 나가야 한다.

먼바다어선대들에서는 생산조직을 혁명적으로 개편하여 먼바다에 나가 고기잡이하는 날자를 더 늘이며 먼바다어장의 실정에 맞는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매개 고기배들의 생산량을 끊임없이 늘이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고기배들을 대형화한다고 하여 세소어업발전에 관심을 적게 돌려서는 안됩니다.》(우와 같은 책, 20페지)

먼바다물고기잡이와 함께 가까운 바다물고기잡이를 적극 발전시키는것은 수산업발전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가까운 바다물고기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소규모의 지방수산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논다.

지방 당, 정권 기관들에서는 지금있는 수산협동조합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새로운 수산협동조합을 널리 조직하는 한편 바다가 협동농장들에서 수산작업반과 수산분조를 많이 무어 바다를 낀 모든곳에서 전군중적운동으로 물고기를 잡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양식사업을 힘있게 벌려 미역, 곤포를 비롯한 해초류를 더 많이 기르며 조개, 굴, 해삼, 생복 생산을 대대적으로 조직하는것이 중요하다.

물고기가공사업을 개선하는것은 현시기 수산부문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의 하나이다.

수산전선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물고기가공사업을 공업화, 현대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물고기가공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물고기가공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연군물고기생산비중을 계속 늘이고 절임과 말리기를 배합하여 더많은 물고기를 저장해두며 통졸임, 병졸임, 고기떡, 젓갈품, 간유사탕 등 여러가지 물고기가공품을 많이 만들어 인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어 수산전선을 힘있게 도와주는것은 이 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의

의를 가진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지도일군들은 수산업발전에 늘 관심을 돌리고 이 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교시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널리 해설침투시킴으로써 모두가 다 수산전선을 적극 도와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선박공업, 금속공업, 기계공업, 림업부문에서 수산전선을 계속 힘있게 지원하며 철도운수부문과 해당한 부문에서는 잡은 물고기를 빨리 실어나를수 있도록 랭동렬차, 랭장자동차들을 더많이 생산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바다는 청춘의 활무대이다. 지금 당은 용감하고 전투적이며 혈기왕성한 청년들을 수산전선에로 힘있게 부르고있다. 청년들은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하여 수산업발전에 그처럼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언제나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수산전선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이 전선의 진격로를 힘있게 개척해나가야 한다.

오늘 수산전선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의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대건설의 벅찬 현실의 요구에 맞게 조직지휘능력을 백방으로 높이고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며 정치선전과 경제선동을 밀접히 결합시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불러일으켜야 한다.

수산전선의 모든 일군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며 승선지도를 강화하고 전투지휘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가 수산전사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그들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그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일하며 생활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빈틈없이 보장해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다시말하여 당성은 무엇보다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22페지)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수산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 수산정책 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칙으로 삼고 싸워나가는것은 수산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는 결정적담보이다.

모든 수산전사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무한한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수산전선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당중앙의 요구를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오직 그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수산전사들은 위도와 경도를 넘어 대양의 그 어디에 가도, 만경창파우에서 그 어떠한 사나운 폭풍과 격랑에 부닥쳐도 오직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도 초개와 같이 바쳐 싸워나가는 수령님의 참된 근위대, 결사대가 되여야 한다.

모든 수산전사들은 보수주의와 경험주의, 기술신비주의, 요령주의, 온갖 투기사상을 비롯한 낡은 사상과 혁명가답지 못한 사업태도와 사업기풍을 뿌리빼고 모든 일을 통이 크게, 패기있게 밀고나가며 모든 단위, 모든 초소들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수산전선에서 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과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수산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6개년계획의 수산물고지를 단숨에 점령하고 가까운 앞날에 500만톤의 수산물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자.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침투와 양풍양화의 썩어빠진 풍조

홍 성 락

최근년간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반동적인 사상문화적공세를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념원을 반영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후에도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통일지향을 가로막고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범죄적인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동적인 사상문화공세에 더욱더 미쳐날뛰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공세는 인민들속에 숭미반공사상을 불어넣어 그들의 혁명의식과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것으로서 남조선사회의 발전과 나라의 자주통일위업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의 음흉한 책동을 발가놓는것은 숭미반공사상의 영향으로부터 인민들을 떼내고 그들속에 민족주체의식을 넣어주며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기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는 침략의 길잡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적침투와 함께 사상문화적침투도 신식민주의의 중요한 수법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평화군〉, 〈아프리카십자로계획〉과 같은 미명밑에 일련의 나라들에 대한 반동적인 사상문화적공세를 강화함으로써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속에 숭미반공사상을 고취하고 민족허무주의를 주입하며 썩어빠진 양키식 패륜패덕을 부식하고 〈평화〉의 간판뒤에 숨어서 파괴와해책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327~328페지)

다른 나라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는 제2차세계대전후 자본주의세계의 패권을 틀어쥐고 식민주의《제왕》으로 등장한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중요한 수법으로서 놈들의 해외침략의 길잡이로 되고있다.

미제는 음흉한 수법으로 지구상의 많은 약소국가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왔으며 그것은 오늘날 더욱더 교활하고 로골적인 형태로 계속되고있다.

미제가 이른바 《평화》의 허울좋은 간판밑에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더욱더 악랄하게 벌리고있는 반동적사상문화공세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미제는 일련의 나라들에 《평화》의 탈을 씌운 사상적머슴군들을 들이밀어 인민들속에 숭미반공사상을 고취하고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려 그 나라를 내부로부터 와해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가 오늘 해외침략정책에서 군사경제적침략과 함께 사상문화적침투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국제무대에서 놈들이 처한 심각한 위기와 관련된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반제자주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세계 수많은 나라 혁명적인민들이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고 완전한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다. 미제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반미투쟁에 부딪쳐 이전과 같은 공공연한 무력침략방법 하나만으로써는 제놈들의 침

략야망을 이룩할수 없게 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미제는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며 인민들의 반제혁명기세를 무마하기 위하여 《평화의 수호자》로, 《평화의 사도》로 자처하면서 사상문화적침투를 더욱 강화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는 그 수법과 내용에 있어서도 더욱 교활하고 음흉해졌다. 미제가 《대량보복전략》을 들고 나오면서 랭전정책의 일면에 매달릴 때에는 제놈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가리우는것과 함께 주로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퍼뜨리는데 중점을 두고있었다. 그러나 놈들의 《전쟁전략》이 파산에 직면한 오늘날에 와서는 주로 저들을 인민들의 《원조자》로, 《벗》으로 가장하여 침략자로서의 정체를 숨기는 한편 그 나라 내부에 온갖 반동사상독소를 퍼뜨려 계급의식과 민족주체의식을 마비시키는데 모를 박고있다.

오늘날 닉슨도당이 제놈들의 음흉한 사상문화적침략을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니,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이니 하면서 그토록 고아대는것도 바로 이러한 흉악한 야욕을 이룩하기 위한 방패에 지나지 않는다.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한 미제의 침략책동은 남조선을 영원히 틀어쥐고있으려는 놈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로골적으로 드러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들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 목적으로 식민지 노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을 말살시키고 퇴폐적인 양키식 문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김일성선집》, 제3권, 1954년판, 46페지)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는 경제적침투와 함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의 중요구성부분으로서 놈들이 강점초기부터 검질기게 써온 침략수법이다.

미제는 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하여 제놈들의 침략정책을 합리화하고 식민지통치의 사상적지반을 구축하며 남조선인민들을 영원히 온순한 노예로 얽매려는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미제는 이러한 범죄적목적밑에 매우 악랄하고 집요하게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에 매여달렸다.

력사는 미제의 침략적본성이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수도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미제침략자들은 벌써 지난 세기 중엽부터 우리 나라에 《자선가》, 《박애주의자》의 탈을 쓴 사상문화침략의 척후병들을 침투시켰다.

종교의 탈을 쓰고 기여든 미국 《선교사》놈들은 이른바 례배당과 병원, 고아원, 학교 등을 세우고 온갖 음흉한 방법으로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의식을 말살하고 숭미반공사상독소를 심기 위해 미쳐날뛰였다. 그러나 놈들의 그 어떠한 교활한 책동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켜싸운 용감하고 슬기로운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정신을 빼앗을수 없었으며 우리 인민의 완강한 투지를 꺾을수 없었다.

우리 민족의 이러한 불굴의 의지와 기상을 체험한 미제침략자들은 8.15후 남조선에 기여들자마자 선차적인 주목을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정신과 반제투쟁의식을 빼앗고 그들을 정신적불구로 만드는데 돌렸다.

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통적인 민족문화의 발전을 백방으로 가로막고 여러가지 구실밑에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을 무참히 파괴유린하였다.

민족의 슬기로운 기상과 재능이 담겨져있는 문화재는 우리 나라 력사의 유구성과 문화발전의 높이를 과시하며 우리 인민의 민족문화전통을 보여주는 힘있는 직관물로 된다. 그런데 미제침략자들은 병영, 군용비행장, 군용도로 등 군사시설의 확장에 미쳐날뛰면서 남조선의 수많은 사적들과 국보적유물을 닥치는대로 마사버리는 한편 《국보소개안》이니, 《문화재해외전

시안》이니, 《문화재수출허가안》이니 하는 여러가지 강도적명목을 붙여 귀중한 문화재들을 훔쳐가며 빼앗아갔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우리 민족문화의 전통을 말살하고 썩어빠진 양키식문화를 퍼뜨리기 위하여 혈안이 되여 날뛰였으며 이에 모든 정규화되고 현대화된 사상문화보급체계와 기구들을 도입하였다.

미제는 제소굴에 있는 미국무부, 《미평화봉사단》, 《미중앙공보원》, 《해외정보국》, 《남조선연구기관》, 종교와 같은 전문기구들을 통한 직접적인 침략과 함께 남조선전역에 설치한 수다한 현지지비기구들을 동원하였다. 남조선의 《주한미대사관》, 《주한미공보원》, 《주한미교육위원단》과 각종 재단들 및 종교기구와 《미평화봉사단》 등은 온 남조선땅을 거미줄과 같이 늘여놓은 각종 선전수단들을 통하여 인민들의 건전한 정신세계를 마비시키고있다.

미제는 사상문화침투에서 각종 반동적인 출판물들과 방송 및 텔레비죤, 영화, 음악 등 대중선전수단들을 《미국의 리익을 옹호하는 심리전쟁의 최선봉》이라고 떠벌이고있다. 오끼나와에 기지를 둔 《미국의 소리》방송은 조선에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여 서로 비방중상을 그만둘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후에도 《방송 〈프로〉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방송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악명높은, 《극동방송국》은 《아세아방송국》으로 간판을 바꾸어달고 제주도에 옮겨왔다. 그리고 남조선사회에 숭미반공사상을 심으며 퇴페적인 《양키문화》와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리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남조선에는 미제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함께 일본군국주의의 썩어빠진 사상문화의 침투도 강화되고있다.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편승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분별없이 날뛰면서 이미 남조선에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재침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는 《창가학회》, 《천리교》를 비롯한 일본의 종교들과 썩어빠진 영화, 소설, 잡지, 그림책들이 물밀듯이 쓸어들고있으며 양풍과 함께 왜풍이 차고넘치게 되였다.

《양키문화》와 왜색, 왜풍에 물젖은 개같은 세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일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양키문화〉와 왜색, 왜풍이 판을 치고있으며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좀먹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58페지)

남조선에 퍼지고있는 추악한 《양키문화》와 왜색, 왜풍은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인민대중을 정치적불구자로 만드는 마약들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이른바 구미문학예술의 《한국화》라는 간판을 들고 우리 민족의 문학예술을 무참히 짓밟고있다. 놈들이 부르짖는 구미반동문학예술의 《한국화》책동은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부르죠아문학예술의 내용을 《민족형식》에 담아 침투전파시킴으로써 제놈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을 은폐하고 양키식문화를 끌어들이기 위한 기만술책이다.

양키식문화의 침습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문학작품과 영화들이 모두 인간증오와 색정, 허무와 비애를 례찬하는 더러운 내용으로 차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미국식생활양식에 물젖은 살인마이며 패륜패덕아들로서 분명 조선사람이면서도 사고방식과 현실에 대한 태도에서는 미국놈과 조금도

구별할수 없게 그려져있다. 뿐만아니라 작품의 언어와 서술형식도 어느 나라의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되여있다.

미술은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을 밝은 채색으로 그릴대신에 선과 점, 색과 먹을 암호나 기호로 하여 화면을 채우는 추상파미술로 되고있다.

음악은 광증과 비애, 절망과 고뇌로 가득찬 쟈즈나 류행가따위로 일관되여있으며 민족무용도 모두 동물적인 광증을 일으키는 《맘보》, 《트위스트》와 같은 미치광이양춤으로 변화되고있다.

미제가 이른바 《정신근대화》의 명목밑에 퍼뜨리고있는 미국식생활양식은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한 황금만능주의, 살인과 강탈, 사기와 협잡, 극도의 색정과 부화방탕, 야수성과 인간증오 등을 기본내용으로 한것으로서 사람들의 건전한 리성세계를 좀먹고있으며 온갖 사회악을 낳게 하는 근원으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사회에서는 언어생활로부터 의복, 몸단장에 이르기까지 양풍과 왜풍을 그대로 본따는 현상이 걷잡을수 없이 늘어나고있으며 온갖 말세기적인 패륜패덕이 온 남조선땅을 휩쓸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조선말은 점차 민족적고유성을 잃어버리고 마구 들어온 영어와 일본말이 뒤섞인말, 주체를 잃은 잡탕말로 변하고있다. 양풍과 왜풍에 물젖은 남조선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외래어를 써야 《유식》하고 그렇지 못하면 《무식》한것으로 여기는 그릇된 생각을 하고있다. 그리하여 대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속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주민들속에서까지 서양말과 일본말을 배우고 쓰는 놀음이 부쩍 늘어나고있으며 거리의 술집들과 다방들에서는 공공연히 썩어빠진 양키노래와 일본노래를 틀어놓고있다. 지어 남조선에서는 간판까지도 서양말과 일본말로 써붙이고있다. 서울명동거리에 나붙은 680여개의 간판을 보아도 300여개가 서양말 간판이고 나머지도 거의다 일본말 간판이다. 《유네스코회관》이니, 《오리엔탈 빠》(술집이라는 뜻)니, 《미쯔비시 은행》이니 하는 따위의 서양말과 일본말로 된 간판들뿐이고 민족적인 색채를 띤 간판은 보기 힘들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침략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리는 남조선에 와서 조금도 외국에 왔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고 로골적으로 지껄여대고있는것이다.

양풍과 왜풍이 판을 치고있는 남조선사회에서는 몸차림과 옷차림을 미국놈과 일본놈들처럼 하고다니는 추잡한 놀음이 류행되고있다. 남조선녀성들중에는 엉치를 가리울 정도의 이른바 《미니스카트》라는것을 입고 젖가슴이나 겨우 가리우고 거리를 싸다니고있는 낯도깨비들도 적지 않다. 양풍과 왜풍의 돌개바람에 휘말리든 그들은 《육체로출 제일주의》라는 썩어빠진 풍조에 빠져 헤매고있으며 민족의 전통적인 미풍량속을 더럽히고있다. 심지어 남조선에서는 얼굴과 몸 생김을 미국놈들처럼 만드는 이른바 《정형수술》놀음이 퍼지고있다. 숭미사대주의사상이 골수에 맨 청년남녀들은 일부러 정형수술을 하여 눈을 괴상하게 째고 코마루에 날을 세우며 젖가슴을 돋구는 등 별의별 흉칙한 놀음을 다 벌리고있다.

남조선의 출판물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폭로하고있다. 《지금 조선사람으로 태여난것을 한탄하면서 정형수술장을 찾아가 미국사람들처럼 보이게 하려고 가짜코, 가짜눈섭, 가짜유방을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있다. 그런데 수술후 코와 유방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썩어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무려 수술자의 60%나 된다.》 적지 않은 수술자들가운데는 유방이 썩어 도려내거나 코가 썩어 아주 떼내여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들도 있다. 이것은 사람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들며 그들을 방종과 동물세계에로 이끌어가고있는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

과 왜색, 왜풍이 사회생활에 깊숙이 만연된 남조선사회에서만 볼수 있는 현상들이다.

황금만능이 지배하는 사회,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이 판을 치는 남조선에서는 사기와 협잡 행위가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장관》, 경찰, 기자, 상인 등으로 변장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등쳐먹는가 하면 가짜음식물과 가짜약품까지 생겨나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주고있다. 공업용석회를 섞어 만든 가짜두부, 염산을 넣어 만든 가짜간장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가짜식료품들과 썩은 닭알에 백반가루를 섞어서 만든 가짜약이 나돎으로써 그것을 사먹은 사람들이 커다란 재난을 겪고있다.

썩을대로 썩은 남조선사회는 살인, 강간, 강도 등 온갖 범죄의 소굴이다. 남조선에서는 돈과 귀중품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폭력단, 깡패무리들의 범죄행위가 도처에서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서울에서만도 《올빼미》, 《호랑나비》, 《왕거미》로 불리우는 별의별 이름을 가진 전문적인 《깽단》이 수없이 많으며 거기에는 남자들뿐아니라 녀자만으로 조직된것도 적지 않다. 서울거리에서 사람을 죽이며 은행과 백화점들을 습격하여 털어가고있는 《밤나비》라는 깡패단이 모두 녀자들로 조직되여있다는 사실은 그 구체적실례의 하나이다.

돈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하는 범죄행위는 특히 청소년들속에서 급속히 늘어나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금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사이에 무려 1만 9천여건의 청소년범죄행위가 발생되였으며 그들중 대부분은 직업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청소년들이거나 부화방탕한 생활을 설교하는 영화, 텔레비죤, 소설들을 보고 물젖은 불량소년들이라고 한다. 미국깡패영화를 보고 그 주인공의 흉내를 내보려는 청소년들은 자기 부모의 방에까지 들어가 돈을 내라고 협박하던 끝에 자기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버지를 권총으로 쏘아죽이며 어머니를 때려죽이는 치떨리는 행위들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썩어빠진 영화와 소설들을 마구 끌어들여 남조선사회를 썩고 병들게 만든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역적죄행이 얼마나 엄중하고 해독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양풍양화의 썩어빠진 풍조는 또한 극도로 부화타락하고 추잡한 퇴폐적인 현상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는데서도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남조선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말세기적인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에 물젖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래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되는대로 살아가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젊은 녀성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것, 청소년들이 《양춤장》과 《유흥가》들에 몰려다니면서 추태를 부리는것은 보통현상으로 되고있다.

심지어 남조선에는 대낮에 알몸뚱이로 거리를 뛰여다니는 이른바 《라체질주》까지 퍼지고있다. 남조선에 급속히 퍼지고있는 《라체질주》는 추잡한 미국식생활양식의 산물이다. 그것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서 시작되여 미국은 물론 남조선, 일본, 말레이시아, 영국 등 미제의 마수가 뻗쳐있는곳마다에 퍼져 인민들의 건전한 정신세계를 좀먹고 부화타락하게 만들고있다. 이러한 《라체질주》가 남조선에 퍼진다는것은 남녘땅에서 사회도덕이 얼마나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산 증거로 된다.

양풍과 왜풍의 말세기적풍조가 남조선전역을 휩쓸게 됨에 따라 더욱더 많은 녀성들이 양키놈들과 왜놈들의 희생물로, 롱락물로 전락되여가고있다. 서울을 포함한 남조선의 도시들에서는 대낮에 술에 취한 미국놈들과 왜놈들이 조선녀자들을 량쪽에 끼고 개싸다니듯 돌아치고있으며 외국인 려관에는 타락한 수많은 녀자들이 드나들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녀성들이 절개를 겪

구별할수 없게 그려져있다. 뿐만아니라 작품의 언어와 서술형식도 어느 나라의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되여있다.

미술은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을 밝은 채색으로 그릴대신에 선과 점, 색과 먹을 암호나 기호로 하여 화면을 채우는 추상파미술로 되고있다.

음악은 광증과 비애, 절망과 고뇌로 가득찬 쟈즈나 류행가따위로 일관되여있으며 민족무용도 모두 동물적인 광증을 일으키는 《맘보》, 《트위스트》와 같은 미치광이양춤으로 변화되고있다.

미제가 이른바 《정신근대화》의 명목밑에 퍼뜨리고있는 미국식생활양식은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한 황금만능주의, 살인과 강탈, 사기와 협잡, 극도의 색정과 부화방탕, 야수성과 인간증오 등을 기본내용으로 한것으로서 사람들의 건전한 리성세계를 좀먹고있으며 온갖 사회악을 낳게 하는 근원으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사회에서는 언어생활로부터 의복, 몸단장에 이르기까지 양풍과 왜풍을 그대로 본따는 현상이 걷잡을수 없이 늘어나고있으며 온갖 말세기적인 패륜패덕이 온 남조선땅을 휩쓸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조선말은 점차 민족적고유성을 잃어버리고 마구 들어온 영어와 일본말이 뒤섞인말, 주체를 잃은 잡탕말로 변하고있다. 양풍과 왜풍에 물젖은 남조선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외래어를 써야 《유식》하고 그렇지 못하면 《무식》한것으로 여기는 그릇된 생각을 하고있다. 그리하여 대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속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주민들속에서까지 서양말과 일본말을 배우고 쓰는 놀음이 부쩍 늘어나고있으며 거리의 술집들과 다방들에서는 공공연히 썩어빠진 양키노래와 일본노래를 틀어놓고있다. 지어 남조선에서는 간판까지도 서양말과 일본말로 써붙이고있다. 서울명동거리에 나붙은 680여개의 간판을 보아도 300여개가 서양말 간판이고 나머지도 거의다 일본말 간판이다. 《유네스코회관》이니, 《오리엔탈 빠》(술집이라는 뜻)니, 《미쯔비시은행》이니 하는 따위의 서양말과 일본말로 된 간판들뿐이고 민족적인 색채를 띤 간판은 보기 힘들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침략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리는 남조선에 와서 조금도 외국에 왔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고 로골적으로 지껄여대고있는것이다.

양풍과 왜풍이 판을 치고있는 남조선사회에서는 몸차림과 옷차림을 미국놈과 일본놈들처럼 하고다니는 추잡한 놀음이 류행되고있다. 남조선녀성들중에는 엉치를 가리울 정도의 이른바 《미니스카트》라는것을 입고 젖가슴이나 겨우 가리우고 거리를 싸다니고있는 낮도깨비들도 적지 않다. 양풍과 왜풍의 돌개바람에 휘말리든 그들은 《육체로출 제일주의》라는 썩어빠진 풍조에 빠져 헤매고있으며 민족의 전통적인 미풍량속을 더럽히고있다. 심지어 남조선에서는 얼굴과 몸 생김을 미국놈들처럼 만드는 이른바 《정형수술》놀음이 펴지고있다. 숭미사대주의사상이 골수에 꽨 청년남녀들은 일부러 정형수술을 하여 눈을 괴상하게 째고 코마루에 날을 세우며 젖가슴을 돋구는 등 별의별 흉칙한 놀음을 다 벌리고있다.

남조선의 출판물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폭로하고있다. 《지금 조선사람으로 태여난것을 한탄하면서 정형수술장을 찾아가 미국사람들처럼 보이게 하려고 가짜코, 가짜눈섭, 가짜유방을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있다. 그런데 수술후 코와 유방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썩어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무려 수술자의 60%나 된다.》 적지 않은 수술자들가운데는 유방이 썩어 도려내거나 코가 썩어 아주 떼내여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들도 있다. 이것은 사람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들며 그들을 방종과 동물세계에로 이끌어가고있는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

과 왜색, 왜풍이 사회생활에 깊숙이 만연된 남조선사회에서만 볼수 있는 현상들이다.

황금만능이 지배하는 사회,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이 판을 치는 남조선에서는 사기와 협잡 행위가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장관》, 경찰, 기자, 상인 등으로 변장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등쳐먹는가 하면 가짜음식물과 가짜약품까지 생겨나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주고있다. 공업용석회를 섞어 만든 가짜두부, 염산을 넣어 만든 가짜간장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가짜식료품들과 썩은 닭알에 백반가루를 섞어서 만든 가짜약이 나돎으로써 그것을 사먹은 사람들이 커다란 재난을 겪고있다.

썩을대로 썩은 남조선사회는 살인, 강간, 강도 등 온갖 범죄의 소굴이다. 남조선에서는 돈과 귀중품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폭력단, 깡패무리들의 범죄행위가 도처에서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서울에서만도 《올빼미》, 《호랑나비》, 《왕거미》로 불리우는 별의별 이름을 가진 전문적인 《깽단》이 수없이 많으며 거기에는 남자들뿐아니라 녀자만으로 조직된것도 적지 않다. 서울거리에서 사람을 죽이며 은행과 백화점들을 습격하여 털어가고있는 《밤나비》라는 깡패단이 모두 녀자들로 조직되여있다는 사실은 그 구체적실례의 하나이다.

돈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하는 범죄행위는 특히 청소년들속에서 급속히 늘어나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금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사이에 무려 1만 9천여건의 청소년범죄행위가 발생되였으며 그들중 대부분은 직업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청소년들이거나 부화방탕한 생활을 설교하는 영화, 텔레비죤, 소설들을 보고 물젖은 불량소년들이라고 한다. 미국깡패영화를 보고 그 주인공의 흉내를 내보려는 청소년들은 자기 부모의 방에까지 들어가 돈을 내라고 협박하던 끝에 자기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버지를 권총으로 쏘아죽이며 어머니를 때려죽이는 차마 볼수 없는 행위들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썩어빠진 영화와 소설들을 마구 끌어들여 남조선사회를 썩고 병들게 만든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역적죄행이 얼마나 엄중하고 해독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양풍양화의 썩어빠진 풍조는 또한 극도로 부화타락하고 추잡한 퇴폐적인 현상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는데서도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남조선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말세기적인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에 물젖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래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되는대로 살아가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젊은 녀성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것, 청소년들이 《양춤장》과 《유흥가》들에 몰려다니면서 추태를 부리는것은 보통현상으로 되고있다.

심지어 남조선에는 대낮에 알몸뚱이로 거리를 뛰여다니는 이른바 《라체질주》까지 퍼지고있다. 남조선에 급속히 퍼지고있는 《라체질주》는 추잡한 미국식생활양식의 산물이다. 그것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서 시작되여 미국은 물론 남조선, 일본, 말레이시아, 영국 등 미제의 마수가 뻗쳐있는곳마다에 퍼져 인민들의 건전한 정신세계를 좀먹고 부화타락하게 만들고있다. 이러한 《라체질주》가 남조선에 퍼진다는것은 남녘땅에서 사회도덕이 얼마나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산 증거로 된다.

양풍과 왜풍의 말세기적풍조가 남조선전역을 휩쓸게 됨에 따라 더욱더 많은 녀성들이 양키놈들과 왜놈들의 희생물로, 롱락물로 전락되여가고있다. 서울을 포함한 남조선의 도시들에서는 대낮에 술에 취한 미국놈들과 왜놈들이 조선녀자들을 량쪽에 끼고 개싸다니듯 돌아치고있으며 외국인 려관에는 타락한 수많은 녀자들이 드나들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녀성들이 절개를 꺾

고 부화타락의 길로 깊숙이 빠져들어가는것은 미일반동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함께 박정희괴뢰도당의 《매춘관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여있다.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기생관광은 자본도 시설도 원자재도 들지 않는 아주 수지 맞는 외화벌이방법이며 게다가 수요도 공급도 얼마든지 있는것만큼 국책기업으로 장려할 방침》이라고 공공연히 지껄여대면서 《매춘관광업》을 일삼고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자본주의나라 출판물들까지도 박정희역도놈을 《매춘부를 사고 파는 거간군》, 괴뢰정권을 《뚜쟁이정권》이라고 비웃고있다.

오늘 동방례의지국으로 이름높던 우리 나라의 남녘땅에서 민족의 미풍량속이 여지없이 사라지고 썩어빠진 패륜패덕이 휩쓸게 된것은 전적으로 미일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과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매국배족행위때문이다.

*　　　*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아내며 놈들에 의하여 남조선사회에 퍼뜨려진 온갖 반동적부르죠아사상문화의 독을 뿌리뽑는것은 민족자주의식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미제를 하루속히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한부분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이 강요하고있는 숭미반공사상의 영향으로부터 철저히 벗어나야 하며 《양키문화》와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의 침습을 반대하여 완강히 나서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을 반동적사상문화의 영향에서 떼내고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킴에 있어서 가장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그들을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된 혁명과 건설의 모든 찬란한 성과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는것이다.

오직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 때 내외원쑤들의 어떠한 반동적인 사상문화적공세도 단호히 짓부셔버릴수 있으며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굳건히 지켜낼수 있다.

미일침략자들에게 빌붙어 잔명을 부지할 목적밑에 놈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끌어들이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추악한 매국배족행위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사회의 발전과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일반동들과 그 앞잡이 박정희도당이 퍼뜨리는 반동적인 사상문화공세의 내막을 철저히 발가놓는 동시에 외세의존사상과 민족허무주의사상을 배격하고 민족주체의식을 높여야 한다. 이 길만이 원쑤들의 반동적사상문화공세를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끝장내고 통일된 조국땅우에서 북반부인민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릴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근로자 제7호(루계387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근 로 자 사　　주소•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74년 7월 1일　　발행•1974년　7월　5일

ㄱ—44239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8호

평 양 근로자사 1974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8 호(388)

차 례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밝혀주시고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심으로써 민족의 태양으로, 전설적영웅으로 그 명성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하고 높이 우러러모시게 됨으로써 수난에 찬 민족사를 끝장내고 민족재생의 새봄을 안아올수 있었으며 세기적인 변혁과 끝없는 행복이 차고넘치는 시대, 일대 륭성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할수 있게 되였다.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는 오늘 존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주체의 조국》으로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 온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20세기의 기적의 나라》로 그 위용을 떨치고 있다.

오랜 세월 망국의 치욕속에서 남에게 눌리우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은 오늘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주인으로,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떠나서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력사에서 일어난 이 위대한 전변에 대하여 결코 생각할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오르신 때로부터 그이를 민족의 태양으로, 전설적영웅으로 높이 우러러모시였으며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경모하면서 끓어넘치는 감사와 흠모의 정으로 충성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고있다.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칭송의 노래는 대륙과 대양을 넘어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세계의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은 수령님을 우러러 《조선인민의 태양이실뿐만아니라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태양》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하신 강철의 령장, 전설적영웅》으로 높이 칭송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세계혁명의 진두에 모시고있는것을 우리 시대의 더 없는 영광으로,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세계혁명적인민들이 그처럼 한결같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혁명전사로 살며 싸우는 것보다 더 높은 영예, 더 큰 행복은 없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망국의 암운이 드리웠던 일대 민족수난의 시기에 우리 인민에게 민족재생의 서광을 안겨주시고 조국광복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여주신 우리 인민의 해방의 구성이시며 위대한 태양이시다.

세상만물이 태양의 빛을 받아야 생명을 가지고 싱싱 자라나듯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의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튼튼히 지키고 빛을 낼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면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지킬수 없고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과 고귀한 민족문화유산도 빛을 낼수 없으며 민족의 슬기와 재능도 꽃피울수 없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확한 지도사상과 지도리론, 지도방법을 가질수 없으며 대중을 혁명승리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그리하여 혁명투쟁에서 갈길을 찾지 못하여 암중모색하게 되며 결국 혁명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없게 된다.

이것은 인류력사가 말해주는 움직일수 없는 확고부동한 진리이다. 수난많은 가시덤불길을 헤쳐온 우리 인민의 력사는 현명한 수령을 모실 때에만 나라와 민족이 빛을 낼수 있고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태양,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려는 피타는 갈망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인 념원이였으며 력사적인 숙원이였다.

그것은 오랜 세월 봉건의 질곡과 망국의 비운속에서 나라와 민족이 빛을 잃고 모진 고난을 겪어온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세기적인 숙망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탓으로 망국노의 피눈물나는 고초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혁명투쟁에서 수많은 파란곡절과 쓰라린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

부패하고 무력한 봉건통치배들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수세기동안 시들대로 시들어 끝내 일제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지고 인민들은 식민지노예의 철쇄에 얽매여 일제침략자들에게 여지없이 뜯기우고 짓밟혔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의 모든 재부, 모든것을 닥치는대로 략탈해갔고 우리 인민의 피땀을 악착스럽게 짜내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 지어는 우리 말과 이름마저 빼앗아냈으며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와 애국적인 사소한 싹까지도 무자비하게 총칼로 짓눌렀다.

횡포무도한 일제침략자들의 야수적인 만행과 강도적인 략탈에 의하여 수많은 애국적인민들이 무참히 학살당하고 수많은 겨레들이 산태야 살길이 없이 현해탄과 두만강 물결에 피눈물을 뿌리며 이국땅으로 흩어져갔다.

분노한 인민들은 항거의 기치를 추켜들고 간악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궐기하였다.

의병들과 독립군들은 우국충정을 화승총에 재우고 싸움터로 나섰고 뜻있는 애국지사들은 애국문화정치운동을 광범히 벌리였으며 애국적인 인민들은 《독립 만세》를 가슴터지도록 부르며 온 강토를 더운 피로 적시면서 3.1봉기에 떨쳐나섰다.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과감한 투쟁은 줄기차게 벌어졌으나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고 정확한 전략전술을 가지지 못한것으로 하여 그때마다 일제의 류혈적인 탄압에 의하여 진압되고 쓰라린 실패와 피의 교훈을 남길뿐이였다.

온 삼천리강토는 일제놈들이 휘두르는 총칼에 의하여 피바다속에 잠겨 몸부림쳤으며 혁명은 수난의 소용돌이속에서 모대기였다.

한때 반일의 구호를 요란스럽게 웨치던 의병들과 독립군들은 산지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지도자》로, 《애국자》로 자처하면서 투쟁의 앞장에 나섰던 《유지》, 《명사》들은 일제의 총칼앞에 주저앉고말았으며 소위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떠들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시정배로 전락되거나 지어는 적의 품으로 기여들어갔다.

조선혁명의 전도, 조국광복과 민족재생의 앞길은 극히 암담하였으며 나라와 민족은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이게 되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바람속의 초불마냥 가물거리던 이 준엄한 시기에 우리 인민들은 피바다에 잠긴 조국과 도탄에 빠진 민족을 건지고 재생의 광명한 빛을 비쳐줄 위대한 태양, 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줄 탁월한 령도자를 안타까이 기다리고 기다렸다.

바로 이러한 때 시대와 력사의 절박한 부름속에서 민족의 갈망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인민의 태양이시며 조선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였다.

위대한 태양, 탁월한 수령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숙원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심으로써 비로소 빛나게 실현되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자기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하고 높이 모시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망국의 비운속에서 조국광복과 민족재생의 밝은 길을 따라 힘차게 나가게 되였다.

대대로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꿋꿋이 싸워온 만경대의 위대한 혁명가정에서 태여나시여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짓밟힌 우리 인민의 비참한 처지를 목격하시고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설음을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하신 수령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리 고결한 애국의 정열과 혁명의 높은 뜻을 키우시고 일찌기 조국광복의 길, 혁명의 길에 결연히 나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강도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의 귀축같은 만행과 나라를 빼앗기고 천대와 멸시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겨레의 참상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어코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으며 인민들을 도탄속에서 구원하고야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섰습니다.》 (《수단정부기관지 〈알싸하파〉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페지)

나라를 빼앗긴 겨레의 슬픔과 고통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어리신 나이에 조국광복의 숭고한 맹세를 다지시며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고 투쟁의 길에 나서신 수령님께서는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정열적으로 지도하시며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시는 눈부신 활동, 일제를 반대하는 격렬한 투쟁과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자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탐색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천리혜안, 끝없는 탐구와 예리한 통찰력으로 선행시기의 모든 선진적사상리론들을 깊이 연구하시며 지난시기의 국내외 혁명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면서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구상하시고 완성해나가시였다.

수령님의 청년기는 선진적사상리론에 대한 열정적인 탐독과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과감한 투쟁, 창조적인 탐구와 혁명실천이 하나로 결합되여 있었으며 그속에서 그이께서는 기성리론의 주장들과 기존공식의 높은 담장을 허물어버리고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혁명의 초행길, 압박받고 천대받는 피압박인민들이 나아갈 곧바른 길을 찾아내시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령님께서는 우리 시대와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새롭고 독창적인 위대한 혁명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홰불로 우리 인민이 나아갈 광활한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1930년 6월 카륜에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비롯한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거쳐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적극적인 무장투쟁의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되찾으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고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조국광복과 민족재생의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참으로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출현은 혁명의 새시대, 력사의 새시대를 도래케 한 가장 위대한 사변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이 일

대 시련을 겪고있던 엄혹한 시기에 주체의 홰불로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해주심으로써 쓰라린 실패와 우여곡절을 거듭하던 조선혁명은 승리하며 전진하는 보람찬 혁명의 새시대에 들어서게 되였다.

수령님에 의하여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위대한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전략전술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혁명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정확한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가지고 옳바른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망국의 검은 구름이 뒤덮여 캄캄하던 이 강산에 태양으로 솟아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을 뿌려주심으로써 향방을 잃고 갈팡질팡하던 조선혁명의 앞길에 승리의 서광이 비치게 되고 빛을 잃었던 우리 민족앞에 재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였다.

수령님께서 비쳐주신 주체의 해살을 받은 우리 민족은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마냥 생기에 넘쳐 머리를 쳐들었다. 일제의 총칼앞에 애국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저앉고말았던 애국지사들, 갈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던 조선의 공산주의자들, 산지사방으로 흩어져갔던 겨레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수령님을 우러러 조선의 밝은 앞날을 내다보며 승리의 신심과 무한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수령님께서 추켜드신 주체의 기발아래 굳게 뭉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맞이한 그때로부터 벌써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였으며 수령님께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였다.

그러기에 조선인민은 수령님을 맞이한 첫시기에 그이를 어둠속에서 이나라의 앞길을 밝히는 새별이 되여 주시기를 간절히 념원하여 한별동지라는 존귀하신 성함으로 높이 모시였으며 그래도 그처럼 위대하신 민족의 령도자를 어찌 새별에다만 비기랴 하여 조선의 밝은 태양이 되여 주시기를 열망하여 김일성동지라는 존귀하신 성함으로 더욱 높이 우러러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의 홰불을 온 누리에 뿌려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물론 압박받고 천대받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식민지나라인민들은 오직 종주국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승리하고 그의 지원에 의거해서만 민족해방을 이룩할수 있다고 하던 시기에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혁명적기치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심으로써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하기에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강철의 령장》, 《전설적영웅》이시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수령님을 조선인민의 태양이실뿐만아니라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민족의 태양》, 《인류의 태양》, 이것은 우리 인민들과 압박받던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우리 시대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신뢰하고 흠모하여 부르는 불멸의 송가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탁월한 령군술로써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빛나게 성취하신 백전백승의 강

철의 령장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다.

민족수난의 암담한 시기에 인민의 대양으로 출현하시여 민족재생의 광명한 앞길을 밝혀주신 수령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인민이 그토록 념원하던 조국광복의 대업을 이룩하시려 항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2년 4월 안도에서 우리 인민의 첫 혁명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실 항일대전을 선포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안도의 밀림에서 울린 항일무장투쟁의 첫 총성, 그것은 새 조선의 탄생을 알리는 서곡이였고 일제식민지통치체계의 붕괴를 고하는 장엄한 선언이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항일무장투쟁은 우리 인민을 일제식민지노예의 멍에에서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반제민족해방전쟁이였을뿐만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혁명전쟁이였으며 강도 일제와의 피어린 대결이였다.

우리의 혁명군과 맞선 일제는 그 발생초기부터 군사봉건적포악성과 잔인성으로 특징지어진 가장 흉악한 침략자였으며 침략과 략탈로 비대해진 날강도였으며 온 아세아를 단숨에 삼키려고 발톱까지 무장한 수백만 대군을 가진 강대한 침략자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나라가 이미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여 인민의 지지이외에는 그 어떤 지원도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무장투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수적으로나 기술장비에서 비할바없이 강대한 적을 상대로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또한 하루이틀도 아닌 장기간에 걸쳐 비바람치는 광야와 천고의 밀림에서 풍찬로숙하며 수십만리 눈길과 눈보라를 헤치면서 원쑤와 생사를 가름하는 혈전을 하여야 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은 아직 력사가 모르는 미증유의 간고성을 띤 민족해방전쟁이였으며 지금까지 인류가 당해보지 못한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군사적과제들을 모두 새롭게 풀어나가야 할 혁명전쟁이였다.

선행시기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리론에는 당시까지만 하여도 식민지나라 인민들이 자체의 무장력량으로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민족해방의 과업을 수행할수 있다는 전략사상이 없었으며 또 그러한 투쟁을 진행한 전례도 없었다.

더구나 식민지약소국가인민이, 그것도 나라를 빼앗긴 울분에 찢기고 찢기운 맨가슴과 두주먹밖에 없는 참담한 처지에서 《무적황군》을 뽐내는 강적을 상대로 하여 무장투쟁을 선포하고 정면으로 대결한다는것은 그 누구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러기에 당시 《공산주의운동의 지도자》로 자처하던 사람들은 교조주의와 사대주의에 물젖어 자체의 힘으로 무장투쟁을 벌릴 엄두도 내지 못하였으며 한때 망국의 통분으로 반일의 총검을 들고 일어섰던 의병과 독립군의 이른바 《영웅호걸》들도 일제놈들이 휘두르는 총칼에 위압되여 하루아침에 흩어지거나 주저앉고말았다.

우리 인민의 항일무장투쟁과 같이 그처럼 간고하고 위대한 혁명전쟁은 수많은 전설에 나오는 영웅들과 실재한 영웅들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천재적인 지략과 비범한 예지, 탁월한 령군술과 비상한 전개력, 무적의 용맹과 담력, 높은 덕망과 넓은 도량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조직하고 령도하실수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도되는 최초의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며 그 누구도 체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혁명전쟁인 항일무장투쟁의 매 단계마다에서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 천재적인 전략과 전술을 독창적으로 창조하시여 투쟁앞에 제기되는

새로운 정치군사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해나가시였으며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리론과 실천, 정치와 군사를 완벽하게 겸비하신 수령님께서는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정확히 보장하시는 한편 력사상 처음으로 유격전에 관한 탁월한 전략전술과 주체적인 전법들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적들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 우세로 타승하시는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무장대오의 진두에 서시여 그 어느 병서에서나 전쟁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령활무쌍한 전법과 천변만화하는 전술들을 능숙하게 활용하심으로써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항상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시고 《무적》을 자랑하는 일제대군을 마음대로 족치고 쓸어눕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한두번의 전투로 끝날것도 아니고 한두달에 끝날것도 아니다. 오로지 수천수만번의 전투를 거듭하는 장기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승리할수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장기전에서 종국적인 승리를 달성하자면 전투에서 아군의 력량을 보존, 강화하면서 적을 부단히 소모, 약화시킬수 있는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자체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면서 보다 많은 적을 소멸하는 유격전술의 기본원칙을 창조하시고 그에 립각하시여 집중, 분산, 이동하는 령활한 전술로써 적들을 이르는곳마다에서 때려부시였다.

1933년 겨울 일제는 아직 청소한 인민혁명군과 갓 탄생한 혁명근거지를 단숨에 없애버리려고 수천명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소왕청근거지에 대한 전면적인 《토벌》을 감행하여나섰다. 놈들은 《금년겨울에는 공산군을 전멸시킨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놈들의 《위공작전》앞에서 한자리에 머물러 방어만 하신것이 아니라 일부부대를 거느리시고 적의 포위진을 뚫고 나가시여 적의 후방을 들이쳐 놈들을 대혼란에 빠뜨려놓으셨다.

불의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적들은 《유격대는 포위속에 있을터인데 뒤에서 불길이 이는것은 무슨 연고인가?》라고 아연실색하면서 공포에 떨었으며 악착하게 조이던 포위망을 풀고 황급히 패주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수령님의 탁월한 유격전술은 이처럼 불리한 전투정황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시였다.

일거에 요정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일제《토벌대》놈들을 혼비백산시킨 자랑찬 전투소식은 유격근거지안은 물론 국내각지에 급속히 퍼져 우리 인민을 무한히 감동시켰으며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더욱 두터이 하였다.

승리의 소식에 접한 인민들은 어디서나 경사가 난듯 흥성거렸고 서로 만나면 《김일성장군님은 조선군대를 거느리시고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는 명장군이시다.》, 《김일성장군님은 하늘이 낸 명장이시다.》라고 높이 칭송하며 수령님의 천재적인 지략과 탁월한 령군술에 대한 이야기들로 꽃을 피웠다.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백두산근거지창설과 조선인민혁명군의 력사적인 조국진군을 두고도 수많이 생겨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를 친솔하시고 백두산일대에 진출하시여 새로운 형태의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급속히 확대발전시키시며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켜나가심으로써 조선혁명은 일대 앙양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에 질겁한 일제는 1936년 이후시기부터 백두산 앞뒤주변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을 더욱 미친듯이 감행하면서 인민혁명군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참빗전술》을 썼다.

수령님께서는 놈들의 이러한 전술에

대처하시여 대부대활동과 소부대활동을 능숙하게 배합하는 령활한 전술로써 적들의 《토벌》기도를 파탄시키고 주동적으로 놈들을 족쳐나가시였다.

수령님의 탁월한 전술적방침에 의하여 소부대들은 여기저기에 나타나서 적들을 타격하고 혼란에 빠뜨렸으며 대부대는 은밀하게 활동하다가 적들의 요충지와 큰부대를 불의에 습격하여 섬멸적인 타격을 주군하였다. 이리하여 놈들은 이르는곳마다에서 불벼락을 얻어맞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그 암담하던 시기 수령님께서 백두산일대에 진출하시여 령활무쌍한 전술로 일제대군을 한줌에 걷어쥐시고 쥐락펴락하시며 쳐부셔대는 통쾌한 소식에 접한 인민들은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신묘한 힘과 재주를 가지시고 같은 시각에 앞산에서도, 뒤산에서도 적을 치고 동에서도 치고 서에서도 치면서 원쑤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신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축지법을 쓰시여 산을 마음대로 주름잡아다니신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나신분이시기때문에 천지조화를 다 알고계시며 천기를 내다보신다.》라고 칭송하면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으로 가슴불태웠다.

이리하여 조종의 성산,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전설적이야기는 우리 인민들의 가슴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산동북부일대에서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벌리시여 대륙침략에 광분하는 일제침략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시였으며 놈들의 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대륙침략을 위한 저들의 침략적야망실현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로, 《동양통치의 암》으로 간주한 일제는 인민혁명군을 《완전격멸》하는데로 백만관동군을 내몰았다.

놈들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활동하고있는 백두산동북부일대의 산골짜기마다 샅샅이 뒤지면서 《봉쇄작전》과 《포위작전》을 발악적으로 벌리였다. 《토벌》에 나선 놈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창해의 일속》과 같다고 떠벌이면서 이번에는 《유격대를 완전히 소멸》하겠다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활무쌍한 주체전법에 의하여 또다시 쓰디쓴 참패를 맛보지 않으면 안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책동을 제때에 간파하시고 일정한 기간 고정된 지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전개하시던 종래의 전술을 바꾸시여 부대를 미리 지정된 비밀로정을 따라 민활하게 이동시키시면서 적들을 타격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대부대선회작전을 벌리시였다.

수령님의 새로운 전술적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는 백두산동북부의 넓은 지역에서 민활하게 기동하면서 적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곳에 불의에 나타나 놈들에게 타격을 주고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며 또 그곳에 적들이 따라오면 유리한 지점에서 놈들을 족쳐버리고 다른곳으로 옮겨가면서 적의 대규모적인 《토벌》공세를 짓부셔버렸다.

수령님의 신출귀몰한 전술앞에서는 침략전쟁에서 이골이난 악명높은 일제의 살인《장군》들도 《공산군의 전략전술은 참말 귀신이 곡할 일이다. 어느 병서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군법〉으로 전쟁을 한다.》고 개탄하면서 비명을 지르지 않을수 없었다.

실로 수령님의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앞에서는 일제의 그 어떤 기묘한 책략이나 전술도 맥을 출수 없었으며 소위 《정예》를 자랑하던 관동군도 추풍락엽처럼 쓰러졌다.

수령님의 탁월한 전술과 주체전법은 참말로 전설에서 나오는것과 같이 《천문지리를 통달한 신통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생각할수 없는 령활무쌍하고 천변만화하는 독창적인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능란한 집중, 분산, 이동으로 적들이 도사리고있는곳마다에 임의의 시각에 나타나시여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며 서쪽도 타격하고 동쪽도 치며 한

지점의 적을 고립시켜 소멸하기도 하며 소수의 력량으로 적을 유인하여 대적을 불의에 타격하며 적들의 한가운데 끼여들었다가 재빨리 빠지여 적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며 멀리 이동하는척 하다가 적의 코밑에 돌아앉기도 하고 단숨에 천리를 내달려 적을 혼란시키기도 하는 천태만변의 전술을 능숙하게 활용하시여 적들을 언제나 수세와 피동에 빠지게 하시였다.

산을 주름잡고 강을 날아건느시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어졌다가도 번개처럼 나타나 적을 족치군하시는 수령님의 령활한 전술은 강자를 약자로 만들고 장백의 험준한 산발과 압록강, 두만강의 수많은 계곡들을 원쑤들의 무리죽음터로, 헤여날길 없는 무서운 함정으로 만들군하였다.

이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인민들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났으며 그것은 백두산에서부터 남해의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대륙과 대양을 넘어 온 누리에 널리 퍼져갔다.

우리 인민은 일제침략자들에게 모든것을 빼앗겼어도 수령님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며 거기에서 새힘을 얻으면서 조국광복의 앞날을 그려보았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지방에 나오시더니 깊은 밤 삼경에 은하수짬에 새별이 유난히 반짝입니다. …왜놈들의 세상도 이제 얼마 못갈것입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축지법을 쓰시며 왜놈들을 삼대같이 쓸어눕히고계시니 조선은 오래지 않아 독립된다.》

일제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온것과 때를 같이하여 수령님에 대한 전설적이야기들이 더욱더 널리 퍼진것은 인민들이 한결같이 수령님께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께서 하루빨리 조국광복을 실현해주실것을 절절하게 바라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는것이였다.

실로 한줄기의 빛마저 그립던 캄캄한 어둠속에서 고역에 신음하면서도 우리 인민은 해빛처럼 퍼지는 수령님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그이의 존귀하신 성함을 한번 불러보는것만으로도 온갖 고통과 시름을 가셔버리고 새 힘과 용기를 얻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을 비쳐주시는 민족의 태양으로, 전설적영웅으로, 우리 인민의 희망의 등대로 되시였다.

수령님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끝없는 흠모의 감정,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바로 이것을 가지고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일제의 모진 압제밑에서도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웠으며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반일성전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었다.

참으로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며 위대한 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탁월한 령도가 있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마침내 조국광복의 휘황찬란한 새 아침을 맞이할수 있었다.

* *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서 일찌기 민족의 태양으로, 전설적영웅으로 온 세상에 명성을 떨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리심으로써 그이의 명성은 오늘 온 누리에 더욱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의 그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안팎의 계급적원쑤들과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매우 짧은 기간에 거대한 사회경제적개혁들을 수행하시고 공화국북반부를 조선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꾸려놓으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인민을 세기적인 변혁과

끝없는 행복에로 이끄시여 이 땅우에 일대 륭성과 번영의 시대를 펼쳐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또다시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영웅적으로 물리치시고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빛나게 수호하시였으며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세대에 가장 흉악한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두 차례의 혁명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시였으며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시대,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그러기에 세상사람들은 수령님을 우러러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물리치신 전설적영웅,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군사전략가》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기적으로 뒤떨어지고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였던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나라들이 수백년동안 걸려서 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불과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시였으며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독창적으로 수행하시여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이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새로운 길,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가장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하기에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는 모든 인류의 수령》, 《김일성원수님은 혁명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주석님은 세계가 다 함께 경모하는 우리 시대의 전설적영웅》으로 한결같이 우러러모시고있으며 수령님에 대한 칭송의 노래를 심장으로 높이높이 부르고있다.

온 누리에 위대한 태양으로, 전설적영웅으로 더욱 빛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오늘 세상사람들이 조선의 현실을 보고 경탄하여 말하는 《인민의 왕국》, 《지상천국》에서 마음껏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으며 주체조국의 자랑스러운 인민으로,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끝없는 영예와 영광을 지닐수 있게 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자기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있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있으며 수령님께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이 있는것처럼 오직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로 나아갈 때에만 조국의 통일도,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도,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도 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는것은 우리 인민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전당과 온 사회의 철석같은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해와 달이 다하도록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언제 어디서나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며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대, 결사대가 되여야 한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하여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만이 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사업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고귀한 풍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새로운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날에날마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고있으며 온 나라에는 드높은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되고있는 이러한 위대한 전환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 당중앙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신조로 삼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준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주체시대에 태여나 경애하는 수령님의 넓은 품속에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유일한 신념으로, 신조로 삼고 살며 투쟁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더없는 영예이며 자랑이며 행복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시대의 위대한 혁명적기치인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로 튼튼히 무장하여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야만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으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만들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로 삼는다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세계관으로,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모든 사업과 생활을 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정책의 본질과 그 정당성을 똑똑히 알게 하며 당정책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68페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로 삼는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원래 혁명의 길에 몸바쳐나선 사람들은 로동계급의 선진적인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무장하여 옳은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야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혁명가, 공산주의자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되는것은 아니다. 본래부터 타고난 혁명가, 공산주의자란 있을수 없다.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신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옳은 혁명적세계관, 공산주의적세계관을 가지야 한다. 이것은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로서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추는데서 근본문제로 된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수령께 충성을 다하며 혁명을 위하여 목숨도 초개와 같이 바치려는 굳은 각오와 강

의한 혁명적의지는 오직 혁명적세계관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인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신념으로, 확고부동한 세계관으로 삼아야 할 사상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바로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 풍모를 담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떠나서 조선혁명의 성과적수행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올바르게 이끄는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투쟁으로부터 구체적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고와 활동에서 확고히 의거하여야 할 유일한 지침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만이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모든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지침으로, 철석같은 신조로 삼아야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의 최고체현자이시며 수령님의 교시는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조직적의사이다. 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 당원들과 인민의 념원이며 수령님의 뜻은 우리 당과 인민의 의지이다. 수령님의 교시를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철석같은 신조로 삼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해 가장 충실히 복무하는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할수 있게 하는 필수적요구로 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직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신념으로, 신조로 삼아야만 수령님의 충직한 혁명전사로서의 본질적징표를 갖출수 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일색화된 사회, 공산주의사회를 하루속히 건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신념으로, 신조로 삼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고 수령님의 교시를 자로 하여 모든 것을 재여보며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온갖 잡귀신들을 말끔히 가셔내고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하여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신념으로, 신조로 삼아야만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가장 훌륭히 빛내여나갈수 있다.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위업에 몸바쳐나선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육체적생명보다 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 혁명가들은 그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비록 육체적생명은 죽는다 하여도 정치적생명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확고한 혁명적신조만 가진다면 그 어떤 곤난도 이겨낼수 있다. 혁명가들의 이러한 신조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때 이루어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사람들에게 혁명가, 공산주의자로서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안겨주는 정치사상적량식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떠나서 자기의 정치적생명, 정치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유일한 신념으로, 신조로 삼고 살며 일해야만 자기의 일생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바칠수 있으며 혁명가의 고귀한 칭호를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다.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이 수령님의 품속에서 견결한 혁명가로, 불굴의 공산주의투사로 자라난 과정은 바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고 수령님의 명령,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지침으로, 칠석같은 신조로 삼아 투쟁하여온 과정이였다. 그들은 혁명의 길에서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빛내이기 위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정력적으로 벌렸다.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가렬한 전투의 나날에도, 끝없는 밀림과 설령을 넘나드는 수백수천리의 강행군길에서도, 때로는 식량이 다 떨어져 수십일씩 낟알구경을 못하는 곤난한 환경속에서도 꺼질줄 모르는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로 그들의 가슴을 불타게 한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이의 간곡한 교시였다.

그렇기때문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그처럼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교시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첫째가는 임무로 제기하고 걸으면서도 공부하였고 우등불과 달빛 아래서도 수령님의 로작을 읽고 또 읽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훌륭히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신념으로, 신조로 삼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옳바른 전략과 전술이며 우리의 모든 활동의 지침입니다.》(우와 같은 책, 46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교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나아갈 가장 과학적인 앞길을 밝혀주는 투쟁의 지침이다.

우리 인민이 벌리고있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와 자연, 인간을 철저히 개조함으로써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공산주의건설의 력사적로정과 그 과정에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교시에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리론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져있을뿐아니라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제시되여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에는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전략전술로부터 시작하여 사상사업을 하는 방법, 군중과의 사업방법, 반혁명과의 투쟁방법 그리고 공업정책, 농업정책, 문예정책, 교육정책, 대외정책 등 해명되여있지 않는것이 하나도 없다.

실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혁명투쟁의 각이한 단계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고있는 백과전서적인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우리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유일한 신념으로, 신조로 삼을 때만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간고한 시련과 영웅적사변으로 가득찬 우리 혁명의 전로정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유일한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로 삼는것이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것을 이미 힘있게 증명하였다.

우리 인민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가리키는 승리의 한길로 나아감으로써 한세대에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두 차례의 혁명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뒤떨어졌던 자기 조국을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수령님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가리키는 승리의 한길로 달려나감으로써 우리는 자본주의나라들이 수백년 걸려서 한 공업화의 위업을 10여년이란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하는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여 천리마조선의 혁명적기개와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위력을 온 세상에 떨칠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로 나아갔기에 우리 인민은 현대화되고 간부화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을 건설하고 온 나라를 금성철벽의 요새로 전변시킬수 있었으며 짧은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하고 발전하는 교육의 나라를,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민족문화가 찬란히 꽃피는 세계 1등급의 예술의 나라를 건설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신심도 드높이 더욱 힘차게 내달리고있으며 위대한 전변의 새 력사를 끊임없이 창조하여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신념으로, 신조로 삼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것처럼 앞으로도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투쟁의 기치로,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억세게 투쟁함으로써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두가 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일하며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68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교시를 유일한 신념으로, 신조로 삼는것은 우리 시대 공산주의혁명가들의 활동원칙으로, 생활규범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대로만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신념으로, 신조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천재적로작들과 교시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로작들과 교시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사업을 떠나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할수 없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하신 연설과 보고, 론문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대외활동 등 혁명과 건설의 각 부문에 제시하신 교시와 당정책을 전면적으로 깊이 학습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 가정과 그이의 초기혁명활동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에 걸치는 빛나는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인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을 통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자신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깊이 학습하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혁명가적품성을 따라 배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신념으로, 신조로 삼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학습회, 강연회를 비롯한 집체학습에 빠짐없이 성실히 참가하며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밑에 모두가 학습하고있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정치적신임이며 배려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모두가 독학가, 정열가가 되여 더욱 정력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학습을 게을리 하거나 방해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며 특히 학습에서 간부들이 모범이 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수령님의 교시침투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제때에 정확히 전달침투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보고와 토론, 강연을 하거나 출판물에 실릴 글을 쓸 때에도 언제나 수령님의 교시를 지침으로 하여 내용을 깊이있게 전개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를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모두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신조로 삼고 온 사회를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더욱 다그침으로써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아가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 문풍을 따라배우자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이다.

이 기본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문제는 모든 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어떻게 철저히 무장시키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이며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집행자인 우리 일군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선 글을 많이 쓸데 대하여 늘 가르치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의 임무는 동무들자신이 당정책으로 무장할뿐만아니라 전체 당원들을 우리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당정책을 리론적으로 전개하는 글을 많이 쓰는것입니다.》

간부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리론적으로 해설전개하는 글을 많이 쓰는것은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뿐아니라 자신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 기간 우리 일군들은 수령님의 육친적인 사랑과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선 글을 많이 써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오늘 우리 혁명발전과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은 일군들이 글의 내용에서뿐아니라 문풍을 세우는데서까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선 글을 더 많이 쓸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전당과 온 사회에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차고 넘치게 하여야 한다.

이 사업은 일군들이 혁명적문풍이 선 글을 많이 쓰는것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글은 대중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교양하며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사상적무기의 하나이다.

우리 일군들이 글을 쓰는데서 혁명적 문풍을 세운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문풍을 그대로 따라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시여 조선혁명에 철저히 복무하며 인민대중이 리해하기 쉽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수령님의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활동의 전로정은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과 불면불휴의 혁명적문필활동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혁명적문풍이 선 글을 쓰자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여주신 혁명적문필활동의 빛나는 모범을 따라배워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우리 일군들이 글을 쓰는데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관점과 립장을 가질데 대하여 가르치고계신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이 요구하고 우리 인민이 요구할 때에는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명제에도 구애되심이 없이 모든 문제를 조선혁명의 리익에 맞게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시였다. 그리하여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모

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는 조선혁명의 요구,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이 가장 철저히 반영되여있으며 우리 혁명이 나아갈 유일하게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우리 일군들은 글을 쓰는데서 무엇보다먼저 수령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범을 따라배워야 한다.

우리는 그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는 모든 글은 례외없이 조선혁명에 철저히 복무하는 글로 되여야 하며 인민대중이 보고 알기 쉬운 글로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하여 남이 리해하기 힘든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남이 리해하기 어려운 글을 써야 유식하고 고상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며 또 그런 글은 고상하다고 볼수도 없는것입니다. 누구나 다 리해할수 있게 쓴 글이라야 잘된 글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될수록 인민들이 리해하기 헐한 글을 많이 쓸것을 늘 강조하고있습니다.》(《일본전국혁신시장회대표단과 한 담화》, 18페지)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은 대중을 교양하여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키우며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잘하자는데 있다. 그런것만큼 모든 글은 언제나 대중이 보고 리해할수 있게 씌워지야 한다. 인민대중이 보고 리해할수 있는 글이라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과업수행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무기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인민대중이 보고 리해하기 쉽게 글을 쓴다는것은 글의 정치사상적수준을 더 높이면서도 인민대중이 한번 보고 인차 리해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마치 창문을 열면 푸른산과 들이 보이고 큰 길과 작은 길, 흐르는 강물이 한눈에 안겨오듯이 아무 사람이나 한번 읽어보면 중심사상이 명백히 안겨오게 써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글을 쉽게 쓰는 문제는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쓰지 않으며 힘든 말을 헐하게 풀어쓰는것과 함께 모든 글에서 중심사상을 명백히 하고 글의 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론리가 순탄하고 선명하게 전개해나가야 해결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글을 짧게 쓰고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야 한다는것을 늘 가르치고계시며 우리들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고계신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글한자, 문장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담으시고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여 표현력이 풍부하고 사상이 함축되여있는 간결하고 다듬어진 우리 말로 글을 쓰신 그 빛나는 모범을 따라배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전투성과 호소성이 강하게 글을 써야 한다고 하시였다. 우리가 쓰는 모든 글들이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전투적인 무기로, 계급적원쑤들에게는 죽음을 선고하는 론고장으로, 원쑤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로 되게 하자면 바로 로동계급의 계급적지향을 충분히 반영한 전투적인 글, 호소성이 강한 글이 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수령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보여주신 전투성과 호소성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문풍을 세우는데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을뿐아니라 우리 일군들이 혁명적문풍이 선 글을 잘 쓸수 있도록 하나하나 배워주시고 이끌어주고계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력사상 류례없이 간고하였던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친히 혁명적출판물들을 창간하시고 그 발간사업을 지도하시였으며 항일유격대원들이 쓴 글의 내용과 문장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보아주시고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을 위한 그 바쁘신가운데서도 우리 당기관지들을 비롯한 당적출판물들을 창간하여주시였으며 우리 일군들이 새 조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전투적인 글을 더많이 쓰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일군들이 쓰는 글의 제목과 내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으며 우리 일군들이 쓴 미숙한 글을 밤을 지새우시면서 보아주시고 손수 고쳐까지 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일군들이 쓴 글들은 당원들과 대중을 각성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로서의 자기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인 사랑과 끊임없는 지도와 배려 속에서 혁명적인 글을 쓰는 우리 일군들의 긍지와 행복은 비길데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문풍을 따라배우는것은 그이의 혁명전사인 우리 일군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더없는 영예이다.

모든 일군들은 수령님의 혁명적문풍을 따라배울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무엇보다먼저 수령님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상관점과 립장을 철저히 가져야 한다.

글을 대중이 보고 리해하기 쉽게 쓰는 문제는 물론 글쓰는 사람의 자질에도 관계되지만 그보다 중요하게는 누구를 위하여 글을 쓰는가 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태도에 관계된다.

일군들이 인민대중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무장시켜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복무하는 글을 쓴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져야 조선혁명에 복무하는 글, 정치사상적내용이 풍부하면서도 인민대중이 알기쉬운 통속적인 글을 쓸수 있다.

일군들이 혁명적문풍이 선 글을 쓰기 위하여서는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원문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며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글을 쓰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수령님의 혁명적문풍을 따라배우는데서 근본문제이다.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원문은 우리 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혁명적문풍의 빛나는 본보기이다.

우리들은 매 시기 제시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불후의 로작학습을 강화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뿐아니라 수령님께서 로작원문에서 보여주신 혁명적문풍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글의 제목과 문제제기로부터 내용전개, 서술방식, 문장표현에 이르기까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일군들은 글을 쓸 때 당중앙이 제시한 원칙 즉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종자》를 바로 쥔다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기본핵을 틀어잡는다는것이며 《속도전》을 벌린다는것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 최단기간내에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한다는것을 말한다.

경험은 당에서 가르친대로 우리 일군들이 글을 쓸 때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야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한 무게있는 글, 혁명적문풍이 철저히 선 글을 더 빨리, 더 많이 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은 글을 볼줄도 알고 쓸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꾸준히 학습하고 노력하면 누구든지 글쓰는 방법을 배울수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내가 늘 말하지만 글 쓰는것을 신비화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열성이 있고 자꾸 써버릇하면 누구든지 다 좋은 글을 쓸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적문풍이 선 글을 쓴다는것은 물론 쉬운일이 아니지만 결코 신비한 일도 아니라고 가르치시였다.

모든 일군들이 글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다 훌륭한 글을 쓸수 있다.

문제는 결심하고 달라붙어 이악하게 노력하는가 안하는가에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해설선전하는 글을 쓰는것이 바로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의 중요한 의무의 하나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글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정력을 다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모든 일군들은 처음에는 일기를 써보고 다음에는 기행문 같은것도 써보며 그다음에는 간단한 보고문 같은것을 써보는식으로 글쓰는 훈련을 하면 누구나 다 좋은 글을 쓸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책임일군일수록 글을 더 많이 쓰는데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선전하는 글을 쓰기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이야말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고 충성의 열도를 검열받는 과정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더 좋은 글을 더 많이, 더 잘 쓰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과 재능을 다바쳐야 한다.

일군들이 혁명적문풍이 선 글을 쓰는데서 항일유격대식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중요하다.

항일유격대식으로 글을 써야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글, 대중의 환영을 받는 좋은 글로 될수 있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명투사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군중의 요구와 수준에 맞게 전투적이고 호소적이며 참신하고 다양하게 통속적으로 글을 썼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도 대중이 요구하는 글을 쓰자면 항일유격대식방법으로 군중속으로,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현실속으로, 대중속으로 들어가야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모습을 직접 체험할수 있다. 또한 현실속에 들어가야 대중이 알고싶어하는 문제를 제때에 정확히 찾아내고 대중이 리해할수 있는 글을 쓸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불타는 충성심을 가지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한치도 어기지 않고 순간도 지체함이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데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훌륭한 글을 많이 써야 한다.

또한 일군들은 현실속에 들어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의 붉은 기치밑에 사회주의대건설강령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련일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우리의 혁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 당핵심들과 청년인테리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소개하는 글을 더 많이 써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문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혁명적문풍이 철저히 선 글을 많이 씀으로써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다그치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강령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렴　태　준

오늘 온 나라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속도전》의 진공나팔을 우렁차게 울리면서 천리마의 대진군운동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천리마의 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대중적대진군속에서 우리 조국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기적과 영웅적위훈으로 자랑스럽게 수놓아지고 우리 인민의 사상관점과 일본새도 몰라보게 달라지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대번영의 새 시대에 들어섰으며 온 사회에는 혁명적정열과 전투적기백,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고있다.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더욱 세차게 다그칠것을 요구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천리마운동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있는 《속도전》은 오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위대한 방침으로서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 사회주의대건설시기의 천리마운동의 요구를 빛나게 구현하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켜나가는 혁명적방침이다.

우리는 《속도전》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며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하루빨리 올라서야 한다.

1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는 위대한 방침이다.

사회주의대건설투쟁은 그 규모와 폭에 있어서 우리의 건설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웅대하고 거창한 투쟁이다.

이 거창한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창조하여주신 대중적대진군운동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됩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더 광범히, 더욱 전면적으로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 대하여》, 103페지)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이며 인민경제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를 천리마운동에서 찾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있게 벌려왔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는 위대한 력사적운동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있게 벌려오는 과정에 우리 인민은 세기적으로 뒤떨어지고 모든것이 파괴되였던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나라들이 수백년동안 걸려서 한 공업화의 위업을 10여년의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하는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온 세상 사람들은 놀래우는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였다.

실로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

에서 이룩한 성과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이끄시는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과 떼여놓고 결코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가르치심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천리마의 정신, 천리마의 기세로 살며 싸워나가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행복으로 여기고있다. 그리고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나라를 《천리마조선》이라고 부르면서 천리마시대에 사는 우리 인민을 매우 부러워하고 있다.

우리 인민의 실천적경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대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위력을 다시금 만천하에 시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대건설은 우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 혁명적 정열을 높이 불러일으킬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웅대한 강령을 기어이 실현하고야말 불타는 정열, 수령님의 교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관철하려는 높은 정치적 자각, 이것이 사회주의대건설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결정적요인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 불러일으키도록 그들을 교양하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는데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모든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 공산주의 교양운동이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근로자들을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공정으로 삼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간다. 여기에서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작업반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훌륭히 교양개조한다.

오늘 우리의 모든 천리마기수들과 천리마운동참가자들은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힘과 지혜와 정열을 다바치고있으며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싸워나가고있다. 이것은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인민이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대건설에서 놀라운 기적을 낳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교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대건설은 또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세차게 벌려 생산과 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추진시킬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인민경제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사람들의 혁명적열의를 비상히 높인데 기초하여 모든 성원들이 공동으로 생각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며 집단적창발성을 발휘하여 생산과 기술 발전에서 집단적혁신을 이룩한다. 천리마기수들은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여 집단의 힘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함으로써 계획화사업과 생산조직, 로동조직과 기술발전, 자재보장사업과 후방사업 등 경제관리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높은 속도를 보장하게 된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사회주의대건설투쟁은 어제가 옛날로 되고 래일의 리상이 오늘의 현실로 되게 하는 비상

히 빠른 속도, 지난날의 속도를 훨씬 릉가하는 가장 높은 속도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간것을 요구하는 벅찬 투쟁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세차게 벌려 집단적기술혁신을 더한층 강화하고 경제관리를 더잘 째이게 하여야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충성의 속도》를 창조할수 있다. 그리하여 경제규모가 전례없이 방대해진 조건에서 높은 속도로 달려나가야 할 사회주의대건설투쟁을 승리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모든 분야에서 낡은것을 짓부시고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험은 당에서 새 로선이 나올 때마다 그 관철을 방해하는 동요분자, 소극분자, 보수분자들이 생긴다는것을 보여줍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86페지)

혁명과 건설에서의 새로운 전진과 혁신은 언제나 락후하고 침체하며 보수적인것과의 투쟁속에서만 이룩된다. 그렇기때문에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투쟁을 통하여 온갖 낡은것을 철저히 짓부셔야 한다.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침체하고 로쇠한 현상을 비롯하여 전투적기백이 없는 현상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모든 분야에서 낡고 뒤떨어진것을 철저히 짓부시고 새것, 공산주의적인것의 승리를 보장하는 력사적운동이다. 천리마운동참가자들과 천리마기수들은 뒤떨어진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것을 참신하게 보고 전투적으로 일하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언제나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혁명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한다.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이 이러한 일본새로 맡은 일을 해제껴야 우리앞에 나서는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우리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것을 철저히 짓부시고 온 사회를 혁명적정열과 전투적기백으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박차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방대한 사회주의대건설과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당창건 서른돐까지 6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며 나아가서 웅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해 나가야 한다.

2

위대한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심화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리마운동에 관한 위대한 사상과 리론을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구현하고 심화발전시켜 당중앙은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내놓았다.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은 천리마운동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은 많은 사람들을 계속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 사회주의건설의 적극분자로 만드는 하나의 공산주의교양운동이며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영웅주의를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는 공산주의적전진운동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0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천리마운동은 공산주의교양운동, 공산주의적전진운동으로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 위대한 혁명운동이다.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정신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속도전》은 모든 일을 전격적으로, 비상히 빠른 속도로 힘있게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다. 모든 사업을 전격전의 방법으로 벌리는 《속도전》에서는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최상의 성과를 가장 빨리 이룩하게 한다. 그리하여 《속도전》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과정을 비상히 촉진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잘, 더빨리 건설하기 위한 천리마운동을 힘있게 떠밀어나가게 한다.

《속도전》은 무엇보다도 공산주의교양운동으로서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본질을 빛나게 구현하고있으며 이 운동의 교양자적역할을 비상히 높여준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비상히 커지며 혁명과 건설이 진척되면 될수록 더욱더 높아진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의 시기인 오늘,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교양자적역할을 더욱 높여 사람들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빨리 개조하여나가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생산실천을 통하여 사람들을 새형의 인간으로 교양개조하는 훌륭한 공산주의교양의 학교이다. 《속도전》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고있는 《속도전》은 모든 일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기본열쇠를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빨리 개조하는데서 찾고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인것만큼 혁명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만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려는 혁명적정열과 그 최고표현인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높이 발휘하게 된다. 《속도전》이 그처럼 최단기간안에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것은 바로 사상혁명을 앞세워 사람들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빨리 개조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사상혁명, 사람과의 사업을 떠나서 《속도전》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혁명적열의를 높이기 위한 사상혁명, 사상사업은 《속도전》을 벌리는데서 가장 선차적과업으로 된다.

《속도전》은 사상혁명, 인간개조사업에서 《사상전》으로 구현되고있다. 《속도전》의 원리를 구현한 《사상전》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가장 빨리 성과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위대한 방침이다. 인간개조사업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 《사상전》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 그것을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벌리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의식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최단기간안에 뿌리빼고 사람들을 선진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가장 빨리, 실속있게 무장시킨다.

특히 《사상전》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을 반대하는 날카로운 사상투쟁속에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완강한 사상교양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을 주체적인 사상관점과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소유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훌륭히 육성할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사상분야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 《사상전》은 사람들의 높은 사상의식수준과 혁명적정열 특히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그 어느때보다도 높여야 하는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모든 사람들을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훌륭히 교양개조함으로써 공산주의교양운동으로서의 천리마운동의 위력을 더욱 높여나가게 되는 것이다.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벅찬 생산실천과정에 사람

들의 사상개조를 비상히 촉진함으로써 인간개조와 생산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킨데 대한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요구를 더욱 철저히, 더 훌륭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속도전》은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벌리는 고도로 조직화된 전투형식이기때문에 사람들은 벅찬 실천투쟁을 통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하게 되고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확고히 지니게 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잘 세워나가게 된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된 태도로 자기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깐지게, 실속있게 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더욱 튼튼히 세우게 하며 온갖 낡은 사상, 침체와 답보, 보수와 소극, 안일과 해이, 로쇠를 반대하는 투쟁정신을 높이고 참신하고 패기있고 생기발랄한 혁명적정열로 들끓게 한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첫공정이며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사업인 인간개조사업을 가장 빨리, 가장 실속있게 추진하는 바로 여기에 《속도전》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도록 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속도전》은 공산주의적진군운동으로서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요구도 빛나게 구현하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생산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밀고나가는것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본질적요구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이 요구는 《속도전》에서 가장 훌륭히 구현되여 빛나게 해결되고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인 《속도전》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사람들의 정치적자각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사람들과 집단들이 가지고있는 정신적 및 물질적 힘을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제기된 일, 일단 시작한 일을 부리나케 전격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최단기간안에 속도와 질에 있어서 최상의 성과를 거두게 한다.

사람들의 혁명적열정과 집단의 모든 힘을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에 총집중하여 번개같이 해제끼며 한가지 과업을 수행하고는 련이어 다음과업을 수행하는데 달라붙어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푹푹 내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며 끊임없이 전진하고 끊임없이 혁신해나가는데서 결정적인 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어떠한 일에서나 력량을 분산시키고 하나의 과업을 끝내지 못한채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다쳐보는 식으로 전투조직을 한다면 어느 한 과업도 똑바로 해결할수 없으며 전진속도도 질도 높일수 없다.

《속도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일할뿐아니라 제기된 전투과업을 수행하는데 모든 인적 및 물질적 력량을 집중하여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며 섬멸전을 벌리게 된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힘이 분산되거나 시간적으로 동강나는 일이 없이 집중되고 집체적힘이 훌륭히 발휘되며 련쇄된 모든 고리들이 더잘 맞물리고 서로 도와주게 되여 집단주의가 남김없이 발휘되며 따라서 최단기간안에 최상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속도전》은 인민경제의 규모가 커지는데 따라 늘어나는 생산장성의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게 함으로써 언제나 끊임없는 높은 속도와 질을 확고히 담보한다. 이 전투형식에서는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정과 집체적인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데 기초하여 모든 사업이 전격적이며 섬멸전의 방법으로 벌어지기때문에 생산조직과 로동조직, 계획화사업과 기술발전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관리사업을 더잘 째이게 함으로써 인민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산장성의 더 많은 예비를 동원할수 있게 하며 따라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와 가장 높은 질을 보장하게 된다.

《속도전》은 결국 인간개조와 생산과 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을 다같이 힘있게 추진시켜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케 함으로써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속도전》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 천리마적대진군운동을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세월을 앞당기고 로정을 주름잡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속도전》의 방침은 오늘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를 전례없는 대비약과 혁신의 불길로 거세차게 타번지게 하고있으며 질풍처럼 내달리는 천리마의 억센 날개에 더욱 커다란 힘을 주고있다.

이렇듯 당중앙에서 내놓은 《속도전》의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전반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가는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방침이다.

3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오늘 우리의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과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객관적요구이며 이 세가지 혁명을 잘하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는것은 천리마기수들과 모든 근로자들의 가장 영예로운 임무입니다.》(우와 같은 책, 53페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중심과업으로서 사회주의대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사회주의대건설에서 나서는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우리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속도전》의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사상혁명을 《속도전》의 원리를 구현한 《사상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오늘 사상혁명, 사상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 혁명교양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인 주체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켜 주체형의 피로 끓어번지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튼튼히 키우는것이다.

주체형의 혈통을 가진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되는것은 우리 천리마기수들과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임무이며 더없는 영예이다.

우리는 천리마기수들과 로동계급속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더욱 깊이 해설선전하는데 모든 선전선동수단들, 사상사업의 모든 형식과 방법들을 총동원하며 그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뼈와 살로, 철석같은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모두가 수령님을 심장속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끝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일하며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령님에 대한 우리 천리마기수들과 로동계급의 충실성은 오늘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당과 로동계급, 인민에 대한 충실성이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낳게 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우리는 사상사업의 모든 힘을 수령님

에 대한 충성심으로 교양하는데 돌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천리마기수들과 로동계급들이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자기 맡은 혁명과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깐지고 알뜰하게 책임적으로 수행하게 하며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며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과 혁명적세계관을 가지고 원쑤들의 침략과 파괴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철저히 보위하며 이 제도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는것은 사상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사상전》의 투쟁대상인 낡은 사상 잔재는 매우 보수적이며 집요하다. 따라서 이것을 짧은 기간에 뿌리뽑자면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의 방법으로 《사상전》을 벌려야 한다.

우리는 천리마기수들과 로동계급 속에서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개인주의, 리기주의, 자유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혁명대오를 사상적으로 침식하고 우리의 전진운동에 제동기를 거는 사상적잡귀신들이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전격전을 벌리고 집중포화를 들이대여 그것들을 하나씩하나씩 섬멸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로동계급의 대오를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에서 일하며 생활하는 혁명적집단으로, 오직 주체형의 피만이 끓어번지는 충성의 대오로 만들어야 한다.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온갖 잡사상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우리의 대오를 충성의 대오로 튼튼히 다지며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천리마기수들과 로동계급은 당중앙이 제시한 조직생활체계에 따라 정치적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여보고 그와 어긋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강한 투쟁을 벌리며 사상투쟁의 용광로속에서 자신들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혁명화하여야 한다.

사상혁명과 함께 기술혁명 수행에서도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기술을 혁명적으로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승리할수 없다.

천리마기수들과 로동계급들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속도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하루빨리 해방할데 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빛나게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해당단위의 기술발전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고리에 모든 기술력량과 힘을 집중하여 제기된 기술적문제들을 빨리 풀며 점차 모든 설비와 기대들을 더욱 능률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훌륭히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부문에서 대담한 발기로 기술을 혁신하고 생산공정의 종합적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철저히 짓부시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대담하게 생각하고 통이 크게 일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대중과의 창조적협조를 더욱 강화하여 3대기술혁명과 6개년계획수행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천리마기수들과 로동계급은 수령님

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잘하여 한대의 설비라도 놀리지 말고 모든 설비들에 만부하를 걸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자재를 절약하면서 적은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한다.

사상혁명,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은 우선 다른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도 혁명적으로 하며 누구나 다 고등중학교졸업정도의 일반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질데 대한 당의 요구를 그 누구보다도 더 빨리, 더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특히 모두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우리 로동계급속에서 더 많은 기수, 기사, 전문가들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생활문화를 확립하며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는것은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공장안을 궁전과 같이 꾸리고 공장구내와 주변을 공원과 같이 꾸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보람찬 일터로, 생활처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로동계급속에서 뒤떨어진 생활풍습을 반대하고 새로운 생활문화와 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천리마기수들과 로동계급이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는 모든곳이 혁명적정열로 들끓고 혁명적랑만으로 가득차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지도밑에 직맹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에 대한 지도는 당으로부터 받은 직업동맹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직맹조직들은 천리마운동에 대한 지도를 옳게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이 운동에 관한 수령님의 사상과 《속도전》에 관한 당의 방침을 더욱 똑똑히 알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벌려나가야 한다.

직맹조직들은 모든 분야에서 재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오늘의 현실에 맞게 천리마운동에 대한 지도를 혁명적으로 개선하며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벌려나가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속도전》의 방침을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는 천리마기수들의 좋은 사업경험을 찾아내여 그것을 적극 일반화하여야 한다. 또한 천리마기수들과 천리마운동참가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 투쟁을 통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속도전》의 기수가 되여 모든 근로자들을 생산과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천리마적대진군을 더욱 다그쳐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고 계속하여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단숨에 치달아오름으로써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숨쉬고 일하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굳게 단결된 조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치자.

군당은 당정책관철에서 집행단위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류 명 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군당이 차지하는 위치로부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당중앙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사상을 당 및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구체화하여 군당이 지도단위가 아니라 집행단위로, 남을 시키는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단위로 된다고 가르쳤다.

당중앙의 이 가르침은 로동계급의 당건설과 당사업의 근본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당사업을 보다 주동적으로, 진공적으로 조직진행할수 있게 하며 당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언제나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하여나감에 있어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의주군당위원회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모든 일군들이 배낭을 지고 약동하는 생산현장에 내려가 자신들이 직접 군중들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생동하고 패기있게 전개하여 대중의 혁명적열정을 비상히 높임으로써 군안에 있는 모든 부문, 모든 초소들에서는 전례없는 혁신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당이 차지하고있는 위치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조직집행자로서의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당위원회는 농촌에서의 당사업과 정치사상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농촌당조직들과 사업하며 농촌간부들과 사업하며 농촌당원들과 사업하며 농민군중과 사업하여야 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69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군당이 모든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데 대하여 가르쳐준것이다.

군당이 당정책관철에서 지도단위가 아니라 집행단위로 되는것은 우리 당의 조직체계에서 군당이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된다.

군당은 당원들을 소속시키고 그들의 당생활을 조직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현하는 초급당조직들과 직접 련결된 우리 당의 말단집행단위이다.

군당밑에는 초급당조직과 세포만이 있고 중간다리가 없다. 더우기 리당이 생산단위의 초급당의 성격을 띠고 있기때문에 군당은 모든 사업을 리에 맡기고 지도기능이나 수행하는것으로는 될수 없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군당은 전투단위이며 전략적, 작전적 단위이다.

이것은 군당을 통하여 당정책이 집행되며 군당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당단체와 당원들과 대중을 직접 조직동원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때문에 군당이 초급당에 지시하고 결정서나 내려보내며 통계나 받는 단위로서가 아니라 당원대중을 조직동원하여 당정책을 직접 군중속에서 집행할 의무를 가진 단위로 된다.

또한 군당은 군안의 초급당조직들에 대한 당조직정치사업을 직접 조직집행할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크나큰 배려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오늘 군당은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기구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였으며 일군들의 준비정도가 높아지고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릴수 있는 모든 수단과 력량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군당은 조직사업이나 사상사업에서 지도기관이 될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 손으로 포치하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집행단위로 되여야 한다.

수령님과 당중앙이 제시한 군당이 지도단위가 아니라 집행단위로 된다는 독창적인 사상은 당건설과 당사업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당건설에서 당의 조직체계를 개선확립하는것은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과 령도적기능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당이 일정하게 제도화된 정연한 사업체계를 확립함으로써만 자기의 활동을 적극화하여 그 전투력과 기동성을 확고히 보장하게 되기때문이다.

당중앙은 우리 당의 조직체계에서 군당의 위치를 명백히 밝혀줌으로써 군당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더 잘 수행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군당으로 하여금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등 낡은 사업작풍과 지시하고 통계나 받아오던 낡은 사업방법을 대담하게 마스고 당이 대중속에 더욱 깊이 뿌리박을수 있게 하였다. 또한 당이 언제나 지칠줄 모르는 힘과 창조적정열로 움직이는 당으로,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생기발랄하게 약동하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하고 사회의 심장으로서, 원동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활히 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군당이 집행단위로서의 역할을 높여야 당사업에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당중앙의 의도가 하부말단까지 거침없이 신속정확하게 침투될수 있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직접 들어가 조직정치사업을 벌리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제때에 철저히 침투시키며 그들모두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키울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아래에 직접 내려가 군중속에서 당조직정치사업을 벌리는것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가 거침없이 제때에 직접 군중속에 침투되여 모든 사람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더욱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일군들이 또한 아래에 침투하여 집행자적역할을 높임으로써 대중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와 구체적인 실정을 정확히 알고 군중의 사상의식정도에 맞게 정치사업을 벌릴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당사업에서 주관주의, 형식주의를 없애고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그리고 변화되는 환경, 제기되는 임무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의 현실성과 기동성을 보장할수 있게 한다.

당사업의 환경과 조건은 각이하며 정황은 수시로 변한다. 그러므로 당사업을 이에 맞게 해야 사업을 신속히 조직전개할수 있으며 진공적으로 패기있게 내밀수 있다.

일군들이 대중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만 사업에서 현실성과 기동성을 보장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그것은 또한 준비된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사업함으로써 걸린 문제를 제때에 포착하고 상하합심하여 그를 풀기위한 해결대책을 세우며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의 사업수준과 능력을 부단히 높일수 있게 되며 전반적인 당사업을 심화시켜나가게 된다.

이처럼 당사업체계를 확립하고 대중속에 직접 들어가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기능을 높이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신속정확하게 대중속에 침투시켜 군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참으로 군당이 집행단위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당정책을 관철하는것은 당사업을 심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당중앙은 군당이 집행단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명백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었다.

군당이 집행단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자면 일군들속에서 군당이 차지하고있는 위치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군당이 지도단위라는 종래 관점을 없애고 집행단위라는 옳은 립장을 가지지 않고서는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다.

일군들이 군당이 집행단위라는 옳은 관점을 가져야 주인다운 립장과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해나갈수 있다.

의주군당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일군들의 관점과 태도를 바로잡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렸다.

지난 시기 군당위원회는 군당이 집행단위라는 옳은 관점이 잘 서있지 못한데로부터 아래일군들을 군에 불러올려다가 강습을 주어 내려보내는 일반적인 포치사업에 머물고 리나 공장, 기업소에 내려가는 경우에도 사업에 대한 강조나 하고 강연회와 학습회 회수, 통계자료나 알아가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다.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낡은 사업관습과 관점을 바로잡기 위한 사상투쟁을 벌리였다.

한편 군당위원회는 군당이 집행단위라는 당중앙의 방침에 대한 집체학습과 연구토론회 등을 통하여 당중앙의 의도와 요구를 일군들속에 철저히 해설침투시켰다. 그리고 지난 시기 하부지도사업에서 나타났던 형식주의적편향들과 군당이 집행단위로 되여야 한다는 방침의 정당성, 그 의의를 그들속에 명확히 인식시키는데 힘을 넣었다.

군당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직사업을 통하여 일군들속에서 군당이 집행단위로서의 역할을 높여야 당이 더욱 전투적이고 생기발랄한 당으로 될수 있으며 당의 목소리가 대중속에 거침없이 들어가고 군중이 당의 숨결을 따라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가지게 하였다.

군당이 집행단위로서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군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 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항일유격대식방법으로 사업하도록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속에 들어가며 현실에 침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업에서 철칙으로 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67페지)

당사업, 당사상사업에서 남아있는 낡은 틀을 전면적으로 마스고 혁명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군당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지도기능이나 수행하며 아래의 리나 기업소의 당일군들만이 대중들속에서 사상사업을 하게 한다면 당정책을 아래에 빨리 침투시킬수 없다. 보다 준비된 일군들이 직접 아래에 내려가서 도와주어야 리나 기업소의 당일군들과 모든 선전일군들의 수준을 높여주고 그들과 합심하여 아래실정에 맞는 정치사상사업을 활기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특히 나라의 200분의 1을 맡고있는 군당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수령님의 교시

와 당의 의도를 깊이 침투시키고 그것을 관철하는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릴 때 당의 목소리가 온 군에 힘차게 울려퍼지게 되고 광범한 대중들이 늘 당의 숨결로 숨쉬고 살며 일하게 된다.

그러므로 군당일군들이 현실속으로, 아래에 내려가는 사업체계를 세우는 것은 당의 의도를 대중속에 깊이 침투시켜 당정책관철에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군당위원회는 당중앙이 가르친대로 5일간 아래에 내려가 정치사업을 하고 2일간 군에 올라와 재무장, 재작전하는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정치사업방향을 명백히 주었다. 그리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함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대중정치선동사업을 벌리는것을 제도화, 습성화하였으며 높은 책임성과 열의를 가지고 대중정치사업에 참가하게 되였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대중정치사업을 벌리는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것은 그들의 수준을 높여주는것이였다.

일군들의 정치리론수준이 높아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본질을 옳게 파악하고 그것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능숙하게 해설선전하며 당정책관철에로 광범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또한 일군들의 실무수준이 높아야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마스고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갈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 아래에 내려간 일군들은 농장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정치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데 머믊으로써 정치사업이 활기를 띠지 못하였다. 이것은 군당일군들이 정치선전과 선동을 정황에 맞게 능란하게 벌릴만한 수준을 가지고있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었다.

경험은 일군들이 대중과의 사업에서 결코 열성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되며 반드시 열성과 자질이 겸비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그들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조직진행하였다.

군당위원회는 당에서 제시한 모든 일군들이 독학가가 되라는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들에게 매일 학습해야 할 내용을 주고 그것을 정독발취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에 영농기술과제까지 포함시켜 전반적인 당사업과 경제사업 등 모든 부문에 대한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지식을 가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학습을 실속있게 하기 위하여 총화제도를 정상화하는 한편 사업을 절도있고 패기있게 조직진행하여 많은 시간을 짜내여 하루 5시간이상의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며 부득이 그날 학습과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밤을 새워서라도 혁명적으로 학습하는 기풍을 세웠다.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데서 그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도록 하는 한편 일군들이 어떤 정황에서도 정치사상사업을 들이댈수 있게 자질을 갖추는 여러가지 조직사업을 벌리였다.

군당위원회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선동을 벌릴수 있게 항일유격대식 선전선동방법을 따라배울데 대한 연구토론회와 농촌작업의 여러가지 정황에 맞게 사상사업을 들이대는 방식상학도 조직하였다.

이러한 연구토론회와 방식상학을 통하여 지도원들은 농촌실정에 맞는 선전선동방법과 형식에 대하여 일정한 파악을 가지게 되였으며 군중정치사업에 대한 자신심을 가지고 달라붙게 되였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 체계를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책임일군들이 지도원들을 데리고 직접 아래에 내려가 정치선동과 경제선동을 조직진행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로 되여야 하며 그의 적극

적인 선전자, 철저한 집행자로 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2페지)

책임일군들이 직접 군중속에 들어가 조직정치사업을 벌리는것은 대중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며 그들을 고무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한다. 또한 아래 일군들은 책임일군들의 실천적모범에서 배우고 사업수준과 능력을 빨리 높일수 있게 된다.

의주군당책임일군들은 군에서 멀리 떨어져있고 군의 력량이 덜 미치며 또한 리급간부들의 준비정도가 높지 못한 아래단위에 나가 실정을 료해하고 일거리를 찾아 정치사업을 벌리였다.

중단리에서 군당책임일군들이 거름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벌린 대중정치사업은 그 실례의 하나로 된다.

군당의 책임일군들은 거름생산이 뒤지고있는 이곳 농장에 나가 농장원들과 같이 일하면서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비롯하여 특히 의주군에 주신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들을 구체적으로 해설선전하였다. 그리고 거름더미는 쌀더미며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야 알곡 정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다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알기쉽게 이야기해주고 농장원들과 함께 거름생산방도들도 의논했다. 농장원들은 거름생산에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명심하고 자각적으로 동원되여 짬시간마다 여러가지 퇴비를 모아 호당 2톤이상의 질좋은 거름을 확보해냈다.

책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벌린 이와 같은 정치선동사업은 군당지도원들이 아래에 내려가 리의 실정에 맞게 정치선동사업을 활발히 벌리나갈수 있게 하였으며 대중을 영농작업에 적극 불러일으킬수 있게 하였다.

오늘 군당의 모든 일군들은 일터마다에서 강사가 되고 선전원이 되여 대중속에 당정책을 해설선전하며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것을 더 없는 궁지와 영광으로, 보람으로 여기고있다.

군당이 집행단위로서 아래에 내려가 항일유격대식방법으로 조직정치사업을 하는것은 결국 광범한 대중을 수령님의 교시로 더 잘 무장시켜 그 관철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혁명임무에 대한 헌신성과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당정책을 주인다운 태도로 끝까지 관철할수 있다. 또한 어떤 조건, 어떤 정황에서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수령님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혁명과업을 옳게 집행해나갈수 있다.

그런데 군당의 책임일군들이 현지에서 군중과 담화하는 과정에 그들이 당정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고는 있으나 그 본질을 똑똑히 리해하고있지 못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리당조직들의 실정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구체적실정에 맞게 간편하고 알기쉬운 방법으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의도를 침투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말해주었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당사업, 당사상사업은 다양한 대상을 가진 창조적인 사업이다. 사상사업의 대상들인 사람들은 그 준비정도가 서로 다르며 맡은바 혁명과업도 서로 다르다.

그렇기때문에 정치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자면 여러가지 대상과 환경, 조건에 맞게 사상사업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벌리나가야 한다.

더우기 농번기와 같은 때에는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사업을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항일유격대원들의 대중정치사업방법에 대한 연구토론회, 방식상학 등을 통하여 그 경험들을 일반화하는 동시에 항일유격대정치일군들이

로동자, 농민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수준과 준비정도에 맞게 해설하고 교양한 경험, 현실적조건과 정황에 맞게 격식과 틀이 없이 소박하게 해설과 교양사업을 한 경험들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군당위원회는 일터로 오가는 길가에서, 작업의 휴식참에, 가정을 찾아가서 대중과 접촉하는 모든곳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선전선동사업을 벌릴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과 가능성을 다 동원함으로써 일군들이 언제 어디서나 대상의 수준과 준비정도, 정황에 맞게 선전선동활동을 능숙하게 벌릴수 있게 하였다.

군당의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도, 휴식도 같이하며 대중속에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침투시키고 정치사업, 선전선동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림으로써 대중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깊이 체득하게 되었으며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모든 분야에서 전례없는 혁신적인 성과들을 올리게 되었다.

오늘 의주군의 대화리, 연하리를 비롯한 많은 리내 농장원들이 수령님의 신년사에서 농촌경리부문에 제시된 과업, 전국농업대회교시, 의주군에 주신 교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농촌경리부문앞에 제시된 과업들을 환히 꿰뚫고있다. 이것은 군당일군들이 일터로 나가면서 알려주고 쉴참에는 문답식방법으로 공고히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서 그 리해정도를 료해하였으며 또한 5호담당선전원들을 발동하여, 매 가정의 학생들을 통하여 부단히 심화하는 방법으로 공고화시킨 결과에 이룩된 성과이다.

의주군당위원회의 경험은 군당이 지도단위가 아니라 집행단위로 되여야 한다는 당중앙의 방침의 정당성과 이 방침이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당정책의 집행자로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림으로써 수령님과 당중앙의 의도를 대중속에 제때에 정확히 침투할수 있은것은 물론 당사업에서 낡은 사업방법을 극복하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었다.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현실속에서 더욱 단련되게 되였으며 자체의 혁명화를 다그치고 정치실무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게 되였다.

군당일군들이 일상적으로 군중과 접촉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더욱 두터워지고 아래실정을 더 잘 알고 상하합심하여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당사업이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을 더 잘 알게 됨으로써 그들의 혁명적열의는 비상히 높아지고 사고방식과 일본새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군당일군들이 모든 농촌리들에 떨쳐나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영농작업이 제때에 보장되고 모내기는 보름동안에 도내에서 선참으로 끝내게 되였다.

지방공업생산도 지난해 상반년의 실적에 비하여 훨씬 높아졌다.

제반 사실은 당중앙에서 제시한 군당이 집행단위로서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방침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때 당사업에서 보다 큰 전환이 일어나고 경제과업도 더 잘 해나갈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군당이 집행단위로 된다는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대중정치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감으로써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일층 높이며 3대혁명의 붉은 기치밑에 사회주의대건설사업의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것이다.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우리 당 문예방침의 정당성

강 능 수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과업을 실현하는데서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루고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뿐아니라 문학예술활동을 통하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해야 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관한 사상을 문학예술사업에 구현하여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더욱 힘있게 촉진되고 문예작품창작에서는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고있다.

우리는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당중앙의 독창적인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작가, 예술인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더욱 힘있게 전격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 *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사람들을 혁명화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문학예술사업에 빛나게 구현하여 당중앙은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단련되며 혁명가로 자라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68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단련되고 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방침은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관한 수령님의 사상을 창작실천에 빛나게 구현한것으로서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에 있어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이 방침은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전격적으로 힘있게 다그치며 혁명적문학예술창조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다.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은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할 필연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창작과정을 통하여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그들이 지니고있는 영예로운 사명과 관련되여 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을 통하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을 지니고있다.

작가, 예술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이 전투적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먼저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열렬한 애국자가 아닌 작가가 애국주의적인 작품을 창작할수 없는것처럼 작가, 예술인들이 혁명화되지 않고서는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창작과정을 통하여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이다.

작가, 예술인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지 않고서는 문학예술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하는 문학예술을 건설해나갈수 없다.

창작실천과정을 통하여 작가, 예술인들을 철저히 혁명화함으로써만 그들의 재능과 지혜에 의하여 창조된 혁명적문학예술이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은 또한 사회주의하에서 혁명적작품창작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제시된 독창적인 방침이다. 이 방침은 창작과정과 사상의식개조과정의 호상관계를 천재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은 그들의 창작실천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창작 및 공연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이며 그들의 사회적실천에서 기본으로 된다.

창작 및 공연 활동, 그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는 혁명활동과정이며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도를 검열받는 과정이다.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 창작실천은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이며 뜨거운 배려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영예롭게 완수하기 위하여,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며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재능과 충성의 열정을 쏟아붓게 된다. 이렇게 작가, 예술인들이 자기의 혁명임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참다운 혁명가답게 일함으로써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할뿐아니라 이 행정에 그들이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사상을 개조하여나가게 된다.

작가, 예술인들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창작실천과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구현인 주체적문예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과업수행과정이며 그것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혁명위업수행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이 보람찬 혁명위업수행을 떠난 혁명투쟁이란 있을수 없으며 따라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는 창작실천을 떠나서 그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없다.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방침은 사상의식개조와 혁명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화과정을 전격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현실연구, 종자선택과 구상, 형상작업 등 창작의 전과정은 작가, 예술인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예사상, 그 구현인 당의 문예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자라나는 과정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우선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문예방침을 연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현실연구에 들어가게 된다. 그들은 현실속에 들어가 종자를 선택하고 구상하는 과정에 실지 생활에 구현되고있는 불멸의 주체사상과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체득하게 되며 수령님에 대한 근로대중의 열화같은 충성심을 본받게 된다. 그들은 또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투쟁하는가를 배우게 되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하게 된다.

이리하여 작가, 예술인들은 현실속에서 종자를 선택하고 구상하는 과정에 주체적인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와 활동방식, 혁명적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세우게 된다.

작가, 예술인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주체적문예사상과 당의 문예정책으로 무장하고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배양하는 과정은 현실속에서 종자를 선택하고 파악한 다음 작품을 완성하는 전과정을 통하여 더욱 심화되여간다.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은 사람일반이 아니라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할것을 기본요구로 내세운다.

작가, 예술인들은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는 과정에 자기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여가는가를 더욱 깊이 파악하게 된다.

문학예술에서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되는 행정을 반영하는 창작과정은 혁명적주인공들인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를 어느 한 측면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재현하는 과정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공산주의자로 자라나는 혁명적주인공의 성격을 창조하는 과정에 기쁨도 슬픔도 함께 체험하면서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는 자기 주인공의 사상과 행동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험하는 과정으로 되며 우리 시대 공산주의자들의 품성과 생활태도에서 배우고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투쟁정신을 높여가는 과정으로 된다.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과정의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작가, 예술인들은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 자신의 정신세계에서 혁명적인것과 비혁명적인것, 새것과 낡은것, 진보와 보수, 혁신과 침체, 전진과 답보, 패기와 로쇠사이의 심각한 사상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날카로운 사상투쟁과정, 창작실천과정을 통하여 창작가들은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투쟁정신과 확고한 혁명적원칙성, 불요불굴의 혁명적의지와 필승의 신념,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등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추게 된다.

이리하여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실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적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혁명적문학예술의 창작과정은 또한 작가, 예술인들이 조직적으로 단련되고 세련된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표징의 하나는 강한 혁명적조직성에 있습니다.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과 함께 강한 혁명적조직성을 가져야만 참다운 공산주의자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의 혁명적조직성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강화됩니다.》(우와 같은 책, 468폐지)

당중앙은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이후시기 문학예술발전의 합법칙성과 창작활동을 깊이 헤아린데 기초하여 창작 및 창조 과정이란 곧 혁명화과정이고 조직생활과정이라고 밝혀주었다.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 및 창조 과정은 바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혁명활동이며 정치생활, 조직생활과정이다.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창작과정과 조직생활은 한순간도 떨어져서 존재할수 없는 하나의 생활과정에 속하는 두 전선이다.

창작실천은 창작가들로 하여금 고도의 조직성과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며 조직생활은 그들의 혁명임무에 대한 자각성과 책임성을 높여주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의 열정과 창조적적극성, 지칠줄 모르는 활력을 넣어주는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실천과 조직생활이 결합된 하나의 흐름속에서 모든 지혜와 정력, 재능과 사색을 하나의 목적달성에로 집중시키게 되며 개인주의, 리기주의, 자유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잔재와 관습을 극복하고 당과 혁명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의 전과정은 이와같이 창작실천과 혁명적조직생활이 결합됨으로써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화를 촉진시켜 그들을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과 함께 강한 혁명적조직성을 가진 견결한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게 한다.

참으로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당중앙의 독창적인 방침은 작가, 예술인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가장 곧바른 길을 밝혀준 현명한 문예방침이다. 이 방침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한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그들모두를 열렬한 혁명가로 키우시여 공산주의사회에로 이끌어가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자애로운 공산주의적덕성을 구현한 탁월한 방침이다.

*　　　　　*

우리 당은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옳게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이 독창적인 방침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뚜렷이 검증되고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듦으로써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대오는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찬,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집단으로 튼튼히 자라나고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라배우며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 살며 일하고있다. 그들은 또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지상의 명령으로, 법으로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해나가며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고있다.

항상 새것에 민감하고 생기있고 전투적인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로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철저히 반대하고 혁명적랑만에 차넘쳐 패기있고 통이 크게 문예활동을 벌리고있다. 그들은 약동하는 현실에 뛰여들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기초하여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속도전》을 벌려 더 좋은 작품을 더 많이, 더 잘 창작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정력과 재능을 다바치고있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이나 공연만 하면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현실속에 뛰여들어 전격적인 문예활동으로써 걸린 고리를 이악하게 풀어나가는 사상전선의 초병들로 되고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사업과 조직생활을 밀접히 결합하고 새로운 공산주의적창작체계와 생활규범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조직생활을 정상화, 습성화

하고있으며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창작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창작실천에서 당의 《속도전》방침을 빛나게 관철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영광스러운 근위대, 결사대, 돌격대로 자라난 우리의 작가, 예술인 대오,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문예활동을 통하여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에 자기 일생을 몸바쳐싸워나가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작가, 예술인으로 자라난 대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문학예술의 가장 귀중한 밑천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이 밝힌 창작과정을 혁명화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이룩한 가장 빛나는 성과이다.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의 위대한 생활력은 또한 문예창작에서 일어난 새로운 혁명적앙양과 그 훌륭한 창조물들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하고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당중앙의 현명한 지도밑에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신 영웅적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분야에 빛나게 옮겨놓음으로써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킬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문학예술을 혁명화하는데서 참다운 본보기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최근년간 영화, 가극, 음악, 문학, 미술, 무용, 교예, 연극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창작적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모든 창작적성과들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혁신과 비약을 일으키게 하고있다.

이러한 창작적성과와 혁명적앙양으로 하여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세계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격동적인 찬사를 받고있으며 《세계혁명적문학예술의 기치》로 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창조과정을 혁명화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의 빛나는 결실이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서 이룩한 귀중한 열매이다.

우리는 생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문예전사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품을 쓰는 사람들이 당정책을 몰라서도 안되며 혁명적원리를 몰라도 안됩니다. 사람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혁명적작품을 쓸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절대화하는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며 혁명적작품창작의 성과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주체적문예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작가, 예술인들은 당이 가르친대로 수령님의 교시를 창작의 기초로, 창작전과정의 지침으로, 창작총화의 기준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는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여야

한다.

당의 유일적지도에 충실하는것은 작가, 예술인들을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며 우리 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작가, 예술인들은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제시된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모든 문학예술사업을 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작가, 예술인들은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요소와 그 잔습을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며 혁명적문학예술의 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당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한 창작사업을 혁명적조직생활과 더욱 밀접히 결부시켜야 한다.

당중앙이 제시한 새로운 당 및 동맹생활총화체계는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수단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새로운 조직생활총화에 자각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로 하여 창작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족점들에 대하여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고쳐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당중앙이 마련하여준 새로운 창조체계와 창작지도체계, 혁명적인 생활규범을 지키며 공산주의적인 창조기풍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문학예술지도사업과 창작활동에 구현한 새로운 창조체계와 창작지도체계는 모든 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무조건 빛나게 수행하게 하는 공산주의적이며 혁명적인 체계이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새로운 체계를 공고히 하고 문학예술사업에서 자유주의적산만성, 개인의 독단과 소총명을 배격하고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창작적앙양을 일으킬뿐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욱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속도전》은 혁명적인 창조기풍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속도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로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고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창작하여 작품의 량과 질을 다 같이 높일뿐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가야 한다.

현실체험은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사업과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작가, 예술인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구현되고있는 벅찬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뜨거운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생활을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현실체험과정이 그대로 자신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가 되게 하여야 한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작가, 예술인들은 이 모든 과업들을 돌격식으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창작하든지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심화시켜 모든 창작과정을 참으로 자신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영원히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도록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며 우리 문학예술을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더 잘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로 더욱 찬란히 꽃피우게 하는 가장 튼튼한 담보가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잘 관철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리 명 설

오늘 우리 인민은 자기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의 시기에 살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힘차게 돌진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의 혁명적방침과 전국공업대회와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강령적교시 관철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억센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5개전선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기적이 창조되고있으며 경제는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수령님께서는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와 그 장래전망에 관한 깊은 분석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예비가 조직, 지도, 관리 사업을 더잘하는데 있다는것을 다시금 밝혀주시면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를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원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강화함으로써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10대경제건설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과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를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훌륭한 경제관리체계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41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경제관리사업을 진행하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집체적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며 전반적기업관리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생산에 필요한 모든것을 우가 책임지고 아래에 내려다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이다.

이 체계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히 구현하고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경제관리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게 하는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이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에 기초하여 동지적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생활할수 있게 하는 사업체계이다.

대안체계는 또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새로운 계획화체계, 생산지도체계, 우로부터 내려다주는 공급체계 그리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방법에 의하여 경제관리에서 나서

는 모든 문제들을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올바르게 풀어나가는 독창적인 경제관리체계이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는 이미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대안의 사업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였으며 날을 따라 그 거대한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위대한 대안체계가 관철됨에 따라 경제관리에서는 집체성이 확고히 보장되고있으며 기업관리의 모든 사업에 생산자대중이 적극 참가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또한 경제관리의 모든 부문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협조정신이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경제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되고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가 확고히 견지되고있다.

수령님께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세워주심으로써 우리는 대규모의 사회주의경제를 올바르게 관리운영하여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10여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으며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승리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은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나갈 때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며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더잘 관철하여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하기때문이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전당, 전국, 전체 인민이 일떠서 힘있게 벌리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확고히 가지고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끝까지 싸우려는 높은 혁명적열의와 적극성을 발휘하며 생산과 기술,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이와 함께 기업소와 기업소사이, 기업소안의 여러 고리들사이에 사소한 본위주의적현상도 없애고 모두가 다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에 기초한 동지적 협조와 단결을 강화할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의 주인, 기술의 주인, 관리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일을 책임적으로 알뜰하게 깐지게 하며 동지적협조를 강화하여야 경제를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며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속도전》의 방법으로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다.

그러므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잘 관철하여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며 모든 경제관리사업에 생산자대중을 광범히 참가시킨다면 그들속에서 주인다운 적극성과 창발성, 공산주의적 협조정신을 더 높이 발양시킬수 있고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하여 생산과 관리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수 있다.

오늘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잘 관철하는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또한 기업관리의 모든 단위들과 고리들, 계획, 생산, 기술을 비롯한 전반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며 종합적으로 움직이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는것과 관련된다.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련관된 모든 단위들과 고리들사이의 련계를 밀접히 하고 경제관리의 전반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며 종합적으로 움직여나가야 전반적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3대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실현됨에 따라 생산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인민경제부문간, 부문내부간, 지역들간의 생산적련계는 더욱 복잡해지고있다. 또한 인민경제의 기술장비가 더욱 강화되고 생산공정의 종합적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고있다. 특히 수령님의 발기와 지도 밑에, 그이께서 취하신 조치에 따라 우리 나라 공업분야에 여러개의 련합기업소가 조직됨으로써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부문의 기업소들이 생산기술면에서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여나가고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이러한 구체적현실은 경제관리의 전반사업에서 확고한 통일성과 일치성, 집체적지도를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 생산을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관리하는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지도관리사업을 강화하고 과학적인 타산과 빈틈없는 조직사업, 전투지휘를 능숙히 벌려나간다면 생산에 대한 통일적장악과 지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다.

오늘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의 벅찬 현실이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설비들을 철저히 아래에 내려다주며 우가 아래를 더잘 도와줄것을 요구하는것과도 관련된다.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고있는 전투장에 포탄과 탄약, 식량을 날라다주는 심정으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를 책임적으로 날라다주며 생산자대중을 더잘 도와주어야 그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오늘 사회주의대건설의 구체적현실은 전투장마다에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보장하고 생산자대중을 더잘 도와준다면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지금보다 몇배의 능률을 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설비들을 아래에 책임적으로 내려다주며 생산자들을 더잘 도와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원료, 자재, 부속품 구입과 같은 잡다한 업무에서 벗어나 자기의 본래의 사명에 맞게 생산에 모든 정력을 다바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나갈 때 우에서 아래에 자재를 날라다 주고 생산자들을 더잘 도와주는것도, 생산자들이 여러가지 부담에서 벗어나 기본혁명과업인 생산에 모든 힘을 집중하는 문제도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

실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 *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당창건 30돐안으로 점령하며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10대경제건설목표의 성과적실현을 위하여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잘 관철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지도일군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 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칙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집행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직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만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로 되여야 하며 그의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집행자로 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2페지)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잘 관철하며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독창적인 경제관리사상을 옹호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는 문제는 결국 모든 당원들과 지도일군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관철하는 확고한 사상관점과 립장, 태도를 가지며 무한한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데 달려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과 지도일군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수령님의 주체적인 경제관리사상을 구현한 대안체계의 본질과 우월성, 그 거대한 생활력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바쳐 그를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 잘 관철할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대중속에 깊이 해설침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경제관리의 주인이라는 높은 책임성을 깊이 간직하고 기업관리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대중속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철저한 관철을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진행하는 한편 그를 저애하는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과 낡은 경제관리방법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칙으로 삼고 대안체계를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가자면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진 다음에는 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달려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광범한 대중을 이 사업에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지도일군들은 경제관리운영을 맡아나선 지휘성원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자신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대중을 적극 발동하며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해야 한다. 일군들은 언제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고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전투대오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주관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과 혁명의 주인답지 못한 사업작풍과 사업태도들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형식주의를 철저히 없애는것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일을 거칠게 되는대로 하거나 사업을 치밀하게 조직하지 않으며 내용이 없고 겉치레만 하는 등 일을 형식적으로 하여서는 결코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할수 없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높은 열도의 충성심과 혁명적책임감을 높이 발휘하여 안일, 해이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과 로쇠현상을 없애고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언제나 사업을 전격적으로 대담하게 통이 크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잘 관철하며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관리의 모든 사업에 대한 과학적이며 통일적인 지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대로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고 공업을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주인다운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양시키고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찾아내여 《속도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발전의 비상히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를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특히 생산계획과 함께 기술발전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공정의 종합적 기계화와 반자동화, 자동화를 적극 실현하며 새 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것과 함께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를 더욱 강화하는것은 대안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현대적인 대규모사회주의적생산에서는 생산과정자체가 기술공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계획화사업, 생산지도, 기술지도가 밀접히 련관되여있는것만큼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하고 생산을 종합적으로 지도하지 않고서는 경제를 잘 관리운영할수 없다.

그러므로 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대건설의 벅찬 전투장에 나가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그들의 정신상태와 기술수준, 기술준비정형과 자재 및 후방공급물자 공급정형 등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걸린 고리를 풀며 생산의 진행정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과학기술적으로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계획, 생산, 기술을 비롯한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지도관리하는데서 절실한 요구로 나서는것은 모든 일군들이 대안체계에서 세워진 사업 규범과 규정, 제도와 질서대로 더욱 철저히 사업하는것이다.

대안체계에서 세워진 사업 규범과 규정,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지켜야 낡은 경제관리의 잔재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이 체계의 참다운 우월성과 위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지도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에 더욱 튼튼히 의거하고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사업을 조직집행하며 대안체계에 밝혀진 사업규정과 직능대로 사업하고 그를 어기는 현상과는 강하게 투쟁하여 이 체계의 요구를 더잘 관철해야 한다.

특히 일군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지도일군들이 책임지고 생산에 필요한 모든 원료와 자재, 설비들을 보장해줌으로써 아래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생산에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치도록 하는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아래일군들의 사업을 빈틈없이 맞물려주며 원료, 자재, 설비, 부속품의 공급과 수송사업 등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집행하며 필요한것을 아래에 책임적으로 내려다주어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공장, 기업소 자재보장부서들과의 사업, 공무동력부문들과의 사업, 창고, 운수부문과의 사업 등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높은 혁명적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이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지도일군들이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것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점검보수하여 거기에 만부하를 걸고 그것들을 만가동하며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도록 공무동력부문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제정된 질서에 따라 설비를 정상적으로 점검보수하며 공작기계들을 공무동력직장에 집중하여 계획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세워진 자재공

급체계에 따라 우로부터 직장, 작업반, 기대앞에 필요한 원료, 자재, 설비, 부속품들을 제때에 정확히 공급하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자재공급일군들과 해당부문일군들은 대안체계에 밝혀진 규정과 직능대로 모든 창고와 자동차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직장, 작업반, 기대앞에까지 모든 자재를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책임적으로 내리공급하여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세워진 후방공급체계에 따라 후방공급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책임적으로 집행하는것은 지도일군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지도일군들은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생산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책임적으로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잘 관철하며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운 사업체계에서는 공장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으로서 공장을 관리운영하며 모든 당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공장관리에 참가하고있습니다. 생산에 대하여 어느 개인이 책임지는것이 아니라 모든 당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책임지며 무엇보다도 먼저 집체적령도기관인 공장당위원회가 책임집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25페지)

당위원회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요구이며 이 체계의 거대한 위력과 생활력의 담보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장에서 주인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며 당위원회이다. 그러므로 공장에서 당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공장의 최고지도기관인 당위원회의 역할에 달려있다.

공장당위원회는 무엇보다먼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키잡이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대안체계의 근본요구를 정확히 관철하여야 한다.

모든 공장당조직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유일한 자로 하여 공장앞에 나선 전투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관철에로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정형을 수시로 검열하고 총화하는 사업을 제도화하며 그것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모든 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행정사업을 대행하거나 행정실무에 매달리지 말고 철저히 당내부사업과 생산을 틀어쥐여야 하며 모든 일군들이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특히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모두가 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칙으로 삼고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잘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일군들의 경제관리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사회주의경제관리사상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본질과 요구를 깊이 연구체득하며 자신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오늘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는 날을 따라 그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당조직과 지도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아가자.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수송전선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자

김 봉 섭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와 전국공업대회에서 수송전선을 전당과 전체 인민이 힘을 넣어야 할 사회주의대건설의 5개전선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이 전선의 진격로를 힘있게 열어제끼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명확히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최근에 주신 여러차례의 강령적교시들에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를 더욱 앞당기기 위하여 수송전선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성과적실현을 위한 투쟁방향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수송전선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노는 교통운수의 거대한 역할, 우리 나라 교통운수발전과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현실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반영한 현명한 방침으로서 현시기 교통운수부문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수송전선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송사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조국의 륭성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사회주의대건설사업의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

사회주의교통운수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부문내부간 그리고 나라의 전반적지역들 사이의 생산적련계를 비롯한 다양하고 복잡한 련계를 실현하며 수송사업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교통운수를 인민경제 다른 모든 부문에 앞세워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것은 현시기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빨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교통운수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52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교통운수를 발전시켜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것은 전반적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절실한 문제이며 여기에 힘을 넣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철도를 비롯한 교통운수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야 인민경제부문간, 기업소들간, 지역들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생산적련계를 계획적으로 실현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련계를 더잘 보장하고 상품류통과 려객수송 등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더우기 사회주의건설이 전례없는 빠른 속도로 전진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우리 나라 현실은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를 비롯한 교통운수의 모든 부문을 보다 급속히 발전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중앙에서 제시한 《속도전》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면서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남에 따라 수송수요가 비할바없이 늘어나고있으며 여러가지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날라다주면 줄수록 그만큼 전반적인 생산과 건설의 속도를 높이게 된다.

수송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한다면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는데서 기본열쇠로 되는 기본건설전선을 비롯하여 공업전선, 농업전선, 수산전선에서 진군속도를 훨씬 높여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마치 유기체의 동맥이 높뛰면서 혈액순환이 잘되여야 온 몸이 혈기왕성하듯이 나라의 동맥인 수송전선이 세차게 끓어야 모든 전선,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혁명의 북소리를 세차게 울리며 천리마의 대진군운동을 더욱 다그칠수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10대경제건설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있게 밀고나가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기 위한 10대경제건설목표를 수행하자면 가까운 몇해사이에 수송능력을 지금보다 몇배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짧은 기간안에 수송능력을 몇배이상으로 높인다는것은 전례없이 높은 목표이며 긴장하고 어려운 투쟁을 요구하는 혁명과업이다. 수송전선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 이 보람찬 과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야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투쟁도, 10대경제건설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도 다같이 승리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참으로 수송전선은 우리 인민이 벌리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의 진군속도를 더욱 다그쳐나가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투쟁전선이다.

수송전선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는 바로 여기에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며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기 위한 빠른 길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수송전선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곧바로 이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며 한없이 넓고 뜨거운 어버이사랑으로 수송전사들을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우리에게는 전기기관차, 내연기관차를 비롯한 철도운수기재들과 여러가지 자동차, 선박들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낼수 있는 현대적인 운수기계제작공업기지가 튼튼히 꾸려져있으며 수송전선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설비들과 자재들을 충분히 생산보장하여주고있는 강력한 주체공업이 있다.

수송전선을 지켜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되고 사회주의교통운수를 훌륭히 담당운영해나가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충성의 혁명대오로 자라났다. 실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의 교통운수는 모든 면에서 비할바없이 강화발전되였다.

수송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는 문제는 결국 수송전선을 맡아나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이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끝까지 관철하고야말 드높은 혁명적열정을 안고 무한한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며 광범한 대중을 수령님의 교시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 달려있다.

수송전선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송전선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앞에 지닌 자신들의 숭고한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수송전선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는데서 현시기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철도운수의 수송조직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는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철도운수발전의 현실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다량화물에 대한 집중수송체계와 방법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수송체계는 철도가 생산을 책임지는 립장에서 짐을 집중적으로 더많이, 더빨리 실어나르기 위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수송조직체계이다. 이 체계를 널리 받아들여야 렬차운행시간을 많이 줄일수 있으며 짐을 싣고부리는 일을 전문화하고 그 기계화수준을 높여 상하차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일수 있다. 그래야 또한 륜전기재의 리용률을 훨씬 높이고 화차회귀일수를 극력 줄여 지금있는 운수수단을 가지고도 종전보다 더많은 짐을 더빨리 실어나를수 있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해당부문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중요지점들에 전문화물역들을 빨리 만들며 전문화물렬차운행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한편 전문화물역들에 여러가지 시설들과 기중기를 비롯한 상하차기계설비들을 설치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세워야 한다.

수송전선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철도운수의 수송조직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철도운수의 기술장비를 강화하고 그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철도를 전기화하는것과 함께 철길을 중량레루로 바꾸며 중량화차를 많이 생산하는것을 비롯하여 철도의 기술개건사업을 함께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와 같은 책, 257페지)

철도운수부문의 기술장비를 강화하여 운수수단의 현대화, 중량화, 대형화, 고속도화를 실현하는것은 철도운수발전의 필수적요구이며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데서 나서는 절박한 문제이다.

현시기 철도운수를 강화하고 그 수송능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화차생산에 힘을 집중하여 중량화차를 많이 만들어내는것이다.

철도의 기본운수수단의 하나인 화차를 많이 만들어내며 그 회귀일수를 계속 줄여야만 빨리 늘어나는 화물수송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전반적수송의 긴장성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우선 화차생산계획을 통이 크게 세우며 모든 기대와 설비마다에 만부하를 걸고 그것들을 만가동시켜 든든하고 쓸모있는 60톤짜리 이상의 중량화차를 많이 만들어야 하며 유조차를 비롯하여 석탄, 쇠돌 수송용 하개식화차와 비료, 쌀, 세멘트, 통나무 수송차 등 전용화차를 많이 생산하는것이 중요하다.

화차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화차수리전투를 힘있게 벌리는것은 화차의 회귀일수를 줄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철도공장들과 객화차대들에서는 화차수리능력을 더 늘이며 철도운수부문일군들속에서 화차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더욱 널리 벌려 더많은 화차들을 더빨리 수리하여야 한다.

수송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철도의 전기화를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철도전기화는 철도운수발전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기본방침이다. 철도전기화를 적극 실현하는 여기에 짧은 기간안에 철도의 통과능력과 수송능력을 훨씬 높이고 수송의 경제적효과성을 크게 나타내며 철도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더욱 높일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있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철도전기화공사를 다그쳐나감으로써 서부지대의 중요간선들을 비롯

한 일련의 구간들에서 철도전기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철도전기화를 적극 실현하는것과 함께 이미 전기화된 구간들에서 철도전기화의 은을 더욱 나타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새 철도건설을 적극 다그쳐야 한다.

자동차운수를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수송혁명을 일으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동차운수를 잘 조직하여 자동차들을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철도의 부담을 덜어주며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와 같은 책, 270~271페지)

빨리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철도 하나만으로는 원만히 보장할수 없으며 자동차운수가 커다란 역할을 놀아야 한다.

자동차운수를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자동차에 의한 화물수송량을 훨씬 늘여 철도의 부담을 덜어줄수 있으며 전반적 운수사업을 크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자동차운수를 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자동차수송조직을 개선하여 자동차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특히 전문화물역으로부터 소비지까지의 수송조직을 짜고드는것이다.

수령님의 가르치신대로 자동차수송체계를 개선강화하고 다량화물을 실을 자동차를 전문화하며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수송을 옳게 배합하여 자동차에 의한 화물수송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자동차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자동차길을 닦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짧은 기간안에 중요간선들을 다 포장하며 새로운 도로를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

수송혁명을 일으키자면 철도, 자동차운수와 함께 수상운수를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수상운수를 발전시키는것은 철도운수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더잘 보장하며 대외무역을 더빨리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인 요구이다.

수상운수부문에서는 철도와 자동차운수와의 련대수송을 잘 조직하여 동해 및 서해 지구 화물수송의 많은 몫을 담당하여야 하며 강하천에 부두를 더많이 건설하여 다량화물을 배로 실어나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항들에 상하선시설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중계상고와 적재장들을 많이 건설하여 짐을 제때에 싣고부림으로써 배의 부두통과능력을 훨씬 높이고 머무름시간을 더욱 줄여야 한다.

또한 배건조기지를 대담하게 크게 늘이고 더많은 배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현시기 수송전선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집함에 의한 화물수송을 강화하는것이다.

집함에 의한 화물수송을 강화하여야만 수송과정에서 짐이 류실, 변질, 파손되는 일을 막을수 있으며 짐을 싣고부리는 일의 기계화수준을 훨씬 제고하여 운수수단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다. 집함에 의한 화물수송을 강화하는 바로 여기에 운수사업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킬수 있는 커다란 예비가 있다.

교통운수부문과 해당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화물수송에 필요한 집함을 만드는 사업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며 짐을 싣고부리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충분히 갖추는것이 중요하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송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삭도수송, 관수송, 벨트콘베아수송을 널리 발전시켜 운반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벨트콘베아를 놓아야 할데는 벨트콘베아를 놓고 삭도를 놓아야 할데는 삭도를 놓으며 전차를 놓을데는 전차를 놓도록 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12페지)

삭도수송을 비롯한 3화수송체계를 널리 받아들여 수송을 다양화하는것은 전반적수송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절실한 문제이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송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인 요구이다. 삭도수송, 관수송, 벨트콘베아수송은 다른 운수수단에 비하여 그 건설기간이 매우 짧고 건설비와 경영비가 훨씬 적게 들뿐아니라 계절과 기후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기때문에 화물수송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교통운수부문과 광업, 석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삭도수송, 관수송, 벨트콘베아수송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운반의 삭도화를 적극 실현하는것이다.

광산, 탄광 지구들에서는 삭도를 놓을데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설계를 앞세우며 필요한 여러가지 설비들을 갖추어 빠른 시일안에 가능한 모든곳에서 운반의 삭도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관수송, 벨트콘베아수송을 적극 다그쳐야 한다.

수출품수송을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수송전선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의 하나이다. 수출품수송을 잘하는것은 대외무역을 발전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륭성발전하는 우리 나라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높이는 책임적인 사업이다.

교통운수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출품수송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명심하고 이 사업을 선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수송전선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는 문제는 교통운수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이 강화될 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은 교통운수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근로자들속에 널리 해설침투함으로써 모두가 수송전선에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문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는 여러가지 규격강재들과 기계설비, 건설자재들과 통나무들을 우선적으로 대주며 협동생산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주는 한편 철도전문화물역을 꾸리는 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직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만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로 되여야 하며 그의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집행자로 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2페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칙으로 삼고 싸워나가는것은 수송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인 담보이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송혁명을 일으키는 문제도 결국은 수송전선을 지켜선 이 부문의 지도일군들과 매개 전투원들이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 투쟁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

수송전선의 모든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교통운수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교시를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그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특히 교통운수부문의 지도일군들은 수송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 주신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

기 위한 대책을 정확히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수령님의 교시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수령님의 교시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또한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하여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와 사업작풍, 사업태도들을 결정적으로 극복하여야 한다.

교통운수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사상교양,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철도운수를 비롯한 수송전선의 모든 단위들에서 무규률적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강철같은 규률과 혁명적인 질서를 세워야 한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또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주체적립장에 철저히 서서 모든 기술규정과 규칙, 교과서들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고치며 모든 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한다.

질풍같이 내달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하루빨리 올라서려는 우리 인민의 천리마정신을 구현한 《속도전》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수송혁명을 승리적으로 벌리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수송전선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방법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바로세우고 《속도전》의 요구대로 전격전, 섬멸전을 들이대여 교통운수부문앞에 나선 모든 과업을 제때에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수송전선을 책임진 지도일군들은 진군대오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며 모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포치하고 사업을 능숙하게 조직지도하여야 하며 내부예비를 찾아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또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모든 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수송전선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수송전사들을 위대한 《속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경제선동을 전격적으로 벌려 수송전선에서의 진군속도를 비상히 다그치야 한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은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수송전선의 모든 일군들은 이르는곳마다에서 운수수단을 현대화, 중량화, 대형화, 고속도화하며 수송의 다양화를 실현하는 등 현시기 교통운수부문앞에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모두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송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은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리 재 운

남조선에서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가 조직되고 당의 선언과 강령이 세상에 공포된 때로부터 다섯해가 된다.

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원쑤들의 가혹한 군사파쑈적폭압속에서도 굴함없이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 사를 보내고있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오랜 투쟁속에서 1969년 8월 마침내 남조선에서 통일적인 혁명적당, 로동계급의 당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이 나오게 되였다.

남조선에서 통일혁명당의 출현과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는 혁명투쟁과정은 원쑤들의 총검의 수풀속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을 끝까지 옹호관철해나가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일찌기 전조선혁명의 떼수 없는 구성부분인 남조선혁명에 관한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밝히시면서 남조선에서 혁명적당을 건설한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이 반제반봉건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혁명적 당을 가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41～14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에서 혁명적당을 건설한데 대한 방침은 혁명운동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과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방침이다.

로동계급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기의 혁명적당을 가져야 한다. 혁명적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명확한 투쟁강령을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에 맞게 정확한 투쟁방침과 방도를 세우고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끈다.

남조선인민들이 자기의 전위부대인 혁명적당을 가지는것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특수한 력사적조건에 처하여있는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남조선혁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되는 통일적인 조선혁명의 구성부분이다. 그런데 공화국북반부에서와는 달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당면목적으로 하고있는 남조선에서의 혁명은 자기의 상대적독자성을 띠지 않을수 없게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남조선에 강력한 혁명적당이 있어야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이 혁명적당의 지도밑에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정확히 구현될수 있으며 철저히 옹호관철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또한 자기의 불패의 혁명적당을 가져야만 남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혁명적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사회자체내의 모순에 의하여 산생된것이며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압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조선인민자신의 투쟁이다. 따라서 남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자면 남조선인민들자신이 혁명적당을 자체로 꾸리고 그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혁명투쟁을 주동적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남조선에 혁명적당을 건설할데 대한 방침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남조선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와 당건설분야에 빛나게 구현한 위대한 사상으로서 남조선혁명을 남조선인민이 주동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탁월한 방침이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위대한 방침이 남조선에서 그대로 정확히 구현되였더라면 남조선혁명은 혁명적당의 지도밑에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발전하였을것이며 조국의 통일독립은 이미 오래전에 실현되였을것이다.

그러나 통일혁명당이 창건되기전까지 남조선인민들은 자기의 혁명적당을 가질수 없었다.

8.15직후 남로당지도부에 기여든 박헌영간첩종파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 말미암아 당조직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탄압앞에서 전면적으로 파괴되고 말았다.

전후 첫시기 남조선혁명가들에 의하여 지하에서 당건설사업이 벌어졌으나 아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못한 그들의 활동은 일련의 편향을 산생시켰으며 당건설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8.15직후부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그러나 혁명적당이 없었기때문에 그들의 영웅적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전략전술적방침에 의하여 정확히 지도될수 없었으며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4.19인민봉기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조성된 유리한 정세를 그때마다 놓치고말았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지난날 남조선혁명운동이 가지고있던 약점,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남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남조선현지에서 정확히 옹호관철할 혁명적당을 가지지 못한 본질적결함을 극복하고 혁명운동을 결정적승리에로 이끌기 위한 관건적고리를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통일혁명당건설에서 찾았다.

2

남조선에서 혁명적당을 건설하기 위한 로정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통일적맑스-레닌주의당, 로동계급의 당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혁명투쟁속에서 나오게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85페지)

남조선에서 혁명적당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총칼과 감옥과 교수대가 앞을 가로막아나서는 준엄한 시련을 헤치나가야 하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과학적인 전략전

술적방침,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속에서 혁명가들의 대렬을 늘이고 조직을 하나씩 꾸리면서 당을 창건하는데로 확신성있게 나아갔다.

1961년에 지하혁명조직을 뭇고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서 혁명활동을 벌린 혁명가들, 같은 해에 지하혁명조직인 해방전략당을 뭇고 활동한 수많은 혁명가들, 1962년 12월부터 경상북도에서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하고 활동한 여러 동지들, 원쑤들의 파쑈적폭압에 의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된 그밖에 수많은 혁명가들의 혁명활동은 이 시기 남조선도처에서 활발히 벌어진 혁명적당건설을 위한 남조선혁명가들의 불굴의 투쟁의 일단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불굴의 혁명투사 김종태, 최영도동지들을 비롯한 남조선혁명가들에 의하여 1964년 3월 15일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혁명적당건설을 위한 투쟁은 한층 더 적극적으로 벌어지게 되였다.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에서의 혁명적당건설방침에 철저히 립각하여 전일적인 당조직을 내오기에 앞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투쟁을 통하여 검열되고 단련된 혁명핵심들로써 서울시당위원회, 전라남도당위원회, 경상북도당위원회를 비롯한 지방당지도부들을 먼저 꾸리고 그를 통하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갖추어나갔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마련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으로 지도성원들과 당원들을 무장시키는데로부터 출발하였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의로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혁명적구호밑에 지도성원들과 당원들 속에서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들과 그이의 빛나는 혁명력사가 담겨져있는 전기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 대한 연구학습을 체계적으로 조직진행하였으며 수령님께서 몸소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는데 모든 힘을 다하였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또한 당기관지로서 비합법적인 신문 《혁명전선》을 발간하고 그것을 통하여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체계적으로 해설하였으며 원쑤들의 반동적본질을 예리하게 폭로하고 매 시기 당조직앞에 나선 투쟁과업을 제때에 제시하였다.

통일혁명당지도성원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혁명은 인민대중을 각성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를 깊이 체득하고 대중을 계급적 및 민족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한 정치선전사업에 전력하였다.

합법적출판물로 발간된 당기관지 《청맥》과 당조직들이 조직진행한 여러가지 학술토론회, 강연회, 보고회 등은 인민대중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을 반대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청맥》은 1964년 8월 창간호를 낸후 1967년 4월까지의 기간에 무려 4만 4천부를 발간하였으며 급속히 자기의 독자대렬을 늘이면서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 광범히 애독되였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남조선에서 대중투쟁을 적극 벌림으로써 투쟁의 시련속에서 혁명력량을 장성시켰네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였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매국적《한일회담》을 반대하는 1964년의 3.24투쟁과 6.3봉기, 《한일협정》을 배격하는 1965년 8월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1966년 8월에는 미제의 전부통령 험프리란 놈과 일본군국주의두목 사또란놈의 전

쟁모의를 위한 남조선행각을 반대하는 시위투쟁을 적극 벌리였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또한 1967년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꾸미낸 괴뢰대통령 및 괴뢰국회의원《선거》그리고 괴뢰대통령《취임식》놀음을 반대하는 시위투쟁을 면밀히 조직지도하였다.

당시 남조선통신보도들이 전한 극히 축소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투쟁은 30개 지역에서 무려 20여일간이나 계속되였으며 여기에는 145개의 대학 및 중고등학교 학생 20만 4천여명이 참가하고 3만 2천여명의 각계각층 인민들도 이에 합세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으로 번져갔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또한 1969년 박정희괴뢰도당의 장기집권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3선개헌》반대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였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대중속에 깊이 침투시키며 그들을 투쟁의 시련속에서 각성시키고 단련시키는 이러한 행정을 통하여 수많은 선진분자들을 찾아낼수 있었으며 그들을 제때에 교양훈련하여 당조직에 받아들였다. 당조직들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적기준으로 삼아 혁명동지들을 판별하였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혁명핵심들로써 당조직들을 질적으로 꾸리면서 당대렬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속에 확대하기에 모든 힘을 다하였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와 전라남도위원회, 경상북도위원회만 하여도 이 시기에 당대렬의 확대를 위한 비상히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였으며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당력량을 크게 확대하여나갔다.

서울시당위원회는 중요한 공장과 농촌들, 교육, 문화, 언론, 출판 부문들 그리고 괴뢰군중하층장교들속에 수백명의 당원들을 포치하였으며 전라남도당위원회는 호남지방의 농민, 교원, 정계인사들 속에 당력량을 수많이 포치하였다.

경상북도당위원회는 기본계급이 많은 도내의 중요 도시들과 공장들, 농어촌, 학교 등에 많은 당력량을 포치하였고 부산, 대전 등 곳곳에 당조직을 확대해나갔다. 도당위원회는 특히 1966년 6월 서울에 당핵심들을 파견하여 전화도매상《동명사》와 부동산업 《수진사》, 토건업 《삼진건설》 등을 운영하면서 당력량을 수많이 꾸려나갔으며 부산에서는 부두로조와 철도로조 및 해원양성소와 외항선원들속에 그리고 전주에서는 대학교수들과 학생들 및 농민들 속에 당조직을 꾸리였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당조직들을 성과적으로 꾸리나가는 한편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을 대중조직에 묶어세우며 당주위에 집결시켜나갔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것만 하여도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산하에는 합법적대중단체로서 《60년대학사회》, 《새문화연구회》, 《청년문학가협회》, 《불교청년회》, 《동학회》, 《청맥회》, 《민주주의연구회》, 《기독교청년복지회》, 《경우회》 및《학사주점》 등과 비합법적인 대중단체로서 《민족해방전선》과 《조국해방전선》 그리고 비밀독서회 등 수많은 민주주의적대중단체들이 조직되였다.

또한 경상북도위원회산하에는 로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아생회》, 농민들로 조직된 《위친계》, 《농사개량구락부》, 《국군》 현역 및 예비역 장교들로 무어진 《65장교동지회》 등 수많은 대중단체들을 결성하였다.

이렇듯 통일혁명당 지도성원들과 당조직들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여나갔다.

세상에 통일혁명당《사건》으로 알려진 1968년 7월의 원쑤들의 탄압선풍은 성장과정에 있던 통일혁명당에 있어서 하나의 시련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원쑤들은 통일혁명당의 몇몇 성원들을 학살할수는 있었으나 통일혁명당자체를 말살할수는 없었다.

통일혁명당은 말살되지 않았을뿐아

니라 오히려 남조선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전위부대로서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하였다.

통일혁명당은 남조선각지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혁명조직들은 통일혁명당의 기치밑에 묶어세워 각급 지방지도부들은 꾸리고 도처에 기층조직을 형성하였으며 이에 토대하여 1969년 8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로써 당중앙위원회를 조직하고 당의 선언과 강령을 선포하였다.

통일혁명당은 오늘 정연한 당조직체계와 비합법적정치신문인 당기관지 《혁명전선》, 《통일혁명당목소리》 방송을 비롯한 강력한 선전선동수단을 가진 불패의 전투적대오로, 혁명의 전위대로 장성하였으며 과학적인 강령과 백전백승의 전략전술을 소유한 남조선혁명의 정치적참모부로 더욱 강화발전하였다.

3

통일혁명당의 출현으로 억압받고 착취받는 남조선인민들은 자기의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의 진정한 옹호자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그들의 혁명투쟁은 자기의 믿음직한 정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다.

통일혁명당이 남조선인민들의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의 진정한 옹호자이며 믿음직한 정치적참모부라는것은 이 당의 선언과 강령에서 밝혀진 그의 정치적립장과 투쟁목표에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통일혁명당선언에서는 당의 지도리념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라고 강조하고있다.

남조선혁명의 정치적참모부인 통일혁명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것은 남조선혁명이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진행되는 조선혁명의 뗄수 없는 구성부분일뿐아니라 그이의 혁명사상이 또한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그이께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서 주체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과학적인 공산주의혁명리론이며 우리 나라와 세계혁명운동의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검증된 백전백승의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였으며 탁월한 전략전술적원칙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이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앞길을 휘황하게 밝혀주는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이며 그 승리를 확고하게 담보하는 필승불패의 혁명적기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남조선혁명의 정치적참모부인 통일혁명당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의 지도리념으로 선포한것은 조선혁명의 최고뇌수이시며 당의 통일단결의 중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아갈 남조선혁명가들의 견결한 혁명적립장과 확고한 결의를 표명한것이다.

통일혁명당은 또한 자기의 선언과 강령에서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것을 당의 최고목적으로 규정하고 당면목적으로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와 파쑈독재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 부패한 식민지반봉건적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그 무덤우에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통일혁명당이 제기한 투쟁목적과 투쟁과업은 남조선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착취받고 압박받는 각계각층 남조선인민들의 절실한 념원과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자유와 해방을 위한 결

정적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공동의 전투적기치로 된다.

통일혁명당의 정치적립장과 투쟁목표는 통일혁명당이야말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남조선에서 구현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이며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적당이며 남조선에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승리에로 향도하는 정치적참모부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의 출현은 남조선혁명운동발전에서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이때로부터 남조선혁명운동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자체의 본질적약점을 극복하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을 따라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지도적역할을 하고있습니다. 투쟁과정에서 당은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단련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그 영향력과 신임이 더욱 높아졌습니다.》(우와 같은 책, 486페지)

남조선혁명의 통일적인 참모부로서의 통일혁명당은 원쑤들과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더욱더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지도적역할을 하고있다.

오랜 투쟁과정에서 자기의 혁명적당을 가지게 된 남조선인민들은 통일혁명당을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전투적선봉대》,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변하는 참다운 옹호자》,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하는 정치적참모부》로, 신뢰하면서 그의 영향아래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각성되고 단련되고있다.

통일혁명당이 창건된후 남조선인민들의 사상의식과 대중운동은 새로운 특징을 띠면서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사상의식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더욱더 광범한 대중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배우려는 지향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으며 그것을 자기들의 유일한 정신적량식으로, 투쟁의 지침으로 삼고있는것이다. 원쑤들의 삼엄한 파쑈폭압속에서도 남조선의 도처에 《김일성주의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회》, 《주체사상연구회》 등 여러가지 명칭을 띤 연구소조, 연구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출현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연구학습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강렬한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대중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수령님에 대한 그들의 존경과 흠모의 정이 더욱더 대하를 이루면서 도도히 흐르고있으며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속에 하루빨리 안기려는 지향이 날을 따라 더욱 절절한것으로 되여가고 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운동발전에서의 중요한 특징은 대중투쟁이 량적으로 급속히 장성하고있을뿐만아니라 목적의식성과 조직성이 현저히 강화된것이다.

남조선에서의 대중투쟁은 통일혁명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기전인 1962년부터 이 당중앙위원회가 조직된 이후인 1971년에 이르는 10년동안에만 하여도 건수에서 2배, 참가인원수에서 9배나 장성하였다. 특히 같은 기간에 로동자, 농민 등 기본계급의 투쟁이 그 어떤 계층보다도 빨리 장성하였는바 로동자들의 투쟁은 건수에서 1.5배, 참가인원수에서 15배 그리고 농민들의 투쟁은 건수에서 2.5배, 참가인원수에서 7배나 각각 장성하였다.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은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언론인, 교수, 문화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 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와 정계인사들을 망라하고 지구성을 띤 대중투쟁으로 발전하면서 평화적조국통일운동과 밀접히 결합되여가고있다.

광범한 반파쑈민주화투쟁세력의 통일

전선련합을 더욱 강화하고 군사독재정권의 타도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어느때보다도 높인 1971년 4월에 있은 괴뢰대통령《선거》반대투쟁,《민주수호국민협의회》같은 통일전선조직을 뭇고 광범한 계층을 망라한 1971～1972년의 대중적반파쑈민주화투쟁,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평화적조국통일구호를 밀접히 결합시킨 청년학생들의 지난해 10월투쟁 그리고 원쑤들의 전례없는 야만적폭압밑에서 전남조선적인 청년학생조직을 뭇고 민주주의적자유, 외세배격, 조국통일을 주장하여 대중적으로 진출한 금년 4월의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의 투쟁 등이 그러한 례로 된다.

최근년간 일련의 대중정치투쟁에서 자주 제기되였던《박정희정권타도》,《새로운 민주정권을 세우자》등의 투쟁구호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오늘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박정희파쑈집단의 매국배족적죄행의 어느한 측면이 아니라 놈들의 군사파쑈독재정권자체를 반대배격하는데로 빨리 발전하고있다.

특히 청년학생들은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줄기차게 벌리면서 자기들의 투쟁을 로동자, 농민들의 계급적운동과 결합시켜나아가고있다.

1971년 6월 《한영섬유공업주식회사》의 한 로동청년이 원쑤들에게 살해된것을 계기로 9개의 청년학생단체대표 200여명이 이《회사》로동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항의시위를 벌리고 공동투쟁조직을 결성한 사실 등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이 자기들의 운명을 로동자, 농민과 련결시키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도 량적으로 급속히 장성하였을뿐아니라 1,000여명의 《한진상사》로동자들의 폭동적진출, 부산시 거제동농민들의 폭력투쟁, 평택군 500여명녀성들의 반미시위, 《광주단지》내 5만명의 가난한 주민들의 폭력투쟁, 실미도 군인폭동 등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성격은 전례없이 격렬해지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대한 반감이 날로 억제할수 없는 힘으로 자라나고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며 또한 그들의 투쟁이 일정한 시기, 일정한 조건에서는 더욱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 발전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말하여준다.

남조선에서의 대중운동과 투쟁의 발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확증하는것이며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통일혁명당의 지도적역할과 영향력이 날로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면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의 지도와 그 영향아래 혁명이 날과 더불어 성숙되여가고있으며 조국통일의 그날은 더욱 빨리 다가오고있다.

이러한 정세는 공화국북반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긴장한 투쟁을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남조선혁명동지들을 돕는 뜨거운 마음으로, 짓밟힌 남조선인민들을 구원하는 혈육의 정으로 모든 분야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여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모두다 영웅적투쟁을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있게 전진하는 남북조선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멀지 않아 통일될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전국적판도에서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제3세계인민들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

손 필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인민들의 반제자주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세계의 력량관계는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있다.

제국주의는 걷잡을수 없이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어제날 제국주의예속밑에서 압박받던 제3세계인민들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다.

제3세계의 형성과 세계무대에로의 그의 등장은 인류력사와 세계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대의 기본추세와 국제관계발전에서 일어난 세계사적변화과정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오늘 국제무대에서 제3세계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제3세계나라 인민들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으로서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커다란 추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

제3세계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일떠선 자유롭고 자주적인 민족들의 새로운 세계이며 생기발랄한 신흥세력이다.

제2차세계대전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제국주의기반에서 벗어나 정치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적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아세아에서는 지난날 제국주의식민지예속밑에 있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으며 아프리카에서는 40개의 나라들이 정치적독립을 쟁취하였다.

세계인구의 압도적다수와 광활한 령토,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는 3대륙의 광대한 지역이 제국주의의 지배체계에서 떨어져나와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세계정치무대에서의 력량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였다.

제3세계가 출현함으로써 반제혁명력량, 평화와 민주주의 력량이 세계적범위에서 크게 확대강화되였으며 반면에 제국주의의 지배령역은 현저히 좁아지고 제국주의의 전반적위기는 한층 더 심각화되였다.

제3세계의 출현은 세계인민들의 혁명운동에 더욱더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여주며 우리 시대의 근본추세인 인민들의 자주적발전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된다.

제국주의식민지기반에서 벗어난 제3세계인민들은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우리 시대의 력사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는 위력한 력량이다.

제3세계나라인민들은 지난날 식민지노예의 처지로부터 오늘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지난날 력사의 대상으로부터 오늘은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지난날에는 제국주의자들이 자신을 력사의 《개척자》로 자처하면서 지구상에서 주인행세를 하고 수억만 인민대중의 운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였다.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은 오래동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이 지역 나라들의 민족적자주권을 유린하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압박하고 착취하여왔다.

그러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자기들에게 강요된 노예적운명을 어느때까지나 참으려 하지 않

았다. 그 어떤 민족이나 인민을 물론하고 남에게 예속되거나 민족적존엄이 짓밟히는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반항이 있으며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인간으로서, 민족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결연히 일떠서 무장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투쟁으로 포악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굳함없이 싸워왔다.

인민들의 용감한 해방투쟁의 결과 3대륙에서는 제국주의식민주의의 지배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하였으며 민족들과 나라들은 자유와 독립과 민족적자주권을 쟁취하게 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수많은 민족적독립국가들이 일떠섰으며 이 지역의 많은 나라 인민들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잡고 새 력사를 창조하는 보람찬 길에 들어섰다.

혁명발전의 이 필연적결과로 만미암아 오늘 력사무대에서는 그 주역이 바뀌여지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피압박인민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가고 인민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우리 시대의 력사는 제국주의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세계혁명적인민들, 제3세계인민들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있다.

오늘 제3세계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방면에 걸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으며 자주적인 발전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유엔총회 제6차특별회의, 유엔총회 제28차총회 과정은 제3세계나라들이 세계정치무대에서 위대한 력량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지난해 가을 80여개 나라 국가 및 정부 수반들 그리고 그들의 대표들을 비롯하여 100여개 대표단들의 참가밑에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제3세계인민들의 굳은 단결을 힘있게 시위하였으며 제국주의패권을 반대하며 모든 형태의 예속과 종속, 모든 간섭과 압력을 물리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할데 대한 일련의 대책들을 취하였다. 미제의 사촉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일으킨 제4차중동전쟁과 관련하여 아랍나라들이 단합하여 지난해 제국주의자들에게 석유수출을 금지 및 제한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서방자본주의세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놈들을 수습할수 없는 위기에 빠뜨려놓았다.

유엔무대에서도 력량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여가고있다. 얼마전에 알제리의 발기에 의하여 열렸던 원료 및 개발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의에서는 제3세계나라들이 회의주도권을 틀어쥐고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략과 략탈을 낱낱이 폭로하였으며 이때까지 제3세계나라 인민들의 리익을 희생시켜온 여러가지 형태의 정치적 및 경제적 지배와 예속, 불평등의 관계를 청산할데 대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에 앞서있은 유엔총회 제28차총회에서는 제3세계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처음으로 조선문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의 참가밑에 토의하였으며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내정 간섭의 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고 남북공동성명을 환영하였으며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들고나온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켰다. 이것은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유엔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수 없게 되였으며 유엔에서 제3세계나라들의 영향력이 크게 행사되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모든 사실은 오늘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이 제3세계나라인민들에게 있으며 정세의 흐름은 제국주의자들의 기도와는 달리 혁명적인민들, 제3세계인민들이 지향하는대로 발전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오늘 제3세계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며 놈들의 마지막생명선

을 굶어버리는 강력한 력량으로 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력사무대에 등장하게 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오랜 세기에 걸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의 대상으로 되여왔다. 제국주의자들은 이 지역에서 인민들의 고혈을 빨아내고 부원을 긁어내면서 성장해왔으며 살쪄왔다. 그리하여 3대륙은 오래동안 제국주의식민주의의 생명선으로 되여왔다.

오늘 3대륙을 휩쓸고있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제국주의의 이 생명선을 끊어버림으로써 놈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로 깊이 몰아넣고있다.

제3세계인민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은 3대륙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있으며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식민지지배체계는 걷잡을수 없이 무너지고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자들에게 이제 더는 《안전한 후방》도, 《고요한 뒤동산》도 존재하지 않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신구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되면 제국주의적서구라파도, 제국주의적북미주도 존재할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이 3대륙에서 완전히 쫓겨날 때 놈들은 종국적으로 망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이렇듯 제3세계인민들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으로서 력사발전과 세계혁명운동의 승리를 촉진시키는 커다란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오늘 제3세계인민들은 이미 쟁취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성스러운 해방투쟁에 용감히 궐기하여 싸우고있으며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주, 자립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있습니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5페지)

제3세계인민들은 제국주의식민주의노예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새 사회,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서고있으며 이 투쟁속에서 이 나라들의 면모는 달라지고 있다.

제3세계인민들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정치적독립은 제3세계인민들이 피로써 쟁취한 가장 고귀한 전취물이다. 민족적독립을 고수하고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옹호해나가는것은 제3세계나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행복이 있고 영예가 있으며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제3세계인민들은 지난시기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압박과 착취, 천대와 멸시를 받아온 쓰라린 력사를 통하여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있다. 정치적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제3세계인민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그들의 독립과 진보를 위한 투쟁을 추동하는 힘으로 되고있다.

오늘 제3세계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적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하게 투쟁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민족국가들이 낡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를 짓부셔버리고 인민들자신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여 국가정책을 자기 민족의 리익과 지향에 맞게 결정하며 국가 및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립해나가고있다. 알제리, 소말리아를 비롯한 3대륙의 많은 민족국가들에서 자체의 민족간부들에 의하여 국가가 운영되고 일련의 진보적

인 사회정치적개혁들이 실시되고있으며 이 나라들에 《고문》, 《선교사》, 《외교관》의 탈을 쓰고 기여들었던 제국주의 특무놈들이 쫓겨나고있는 사실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온갖 형태의 제국주의의 예속과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며 정치적자주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민족국가들이 더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을 허용하지 않고있으며 자주적발전의 길로 나아갈 굳은 결의를 안고 용감히 투쟁하고 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수도 까라까스에서 열리고있는 제3차유엔해양법회의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200마일령해권을 지키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쳐 견결히 싸우고있는것은 제3세계나라들의 민족적자주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투쟁이 얼마나 힘차게 벌어지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오늘 자주성에 기초한 평등한 국제관계를 수립하는것은 민족적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제3세계나라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지난날 제3세계나라들과 제국주의자들간에는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관계로 읽혀져있었다. 이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제3세계나라인민들을 마음대로 압박착취하고 이 나라들에서 재부를 략탈하여갔다. 이 낡은 국가관계를 철저히 짓부시지 않고서는 진정한 정치적독립을 고수해나갈수 없다.

제3세계나라들은 세계의 대소국가들과 동등한 국가 및 기타 관계를 맺고 국제정치무대에 진출하여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제3세계나라들은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평화를 이룩하며 국제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놓았던 국제관계의 낡은 질서는 통하지 않게 되였다.

제3세계인민들은 정치적자주성을 수호할뿐아니라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나라의 자주성을 확고히 지켜나가자면 정치적자주성과 함께 경제에서의 자립성을 가져야 한다. 경제적자립성이 없이는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할수 없으며 자립적인 경제력이 없이는 나라의 진보와 민족적번영도 이룩해나갈수 없다. 만일 정치적자주성을 가졌다해도 경제의 자립성이 없으면 자기 나라의 리익과 권리를 지켜낼수 없고 다시 제국주의자들에게 얽매이게 된다.

제3세계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을 종식시키고 그들이 발붙이고있는 경제적지반을 박탈하며 하루속히 제국주의의 악독한 식민지정책의 후과를 가시고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적인 《원조》정책을 단호히 배격하고있으며 남의 나라에 기여들어와 착취와 략탈을 일삼고있는 제국주의독점체들을 내쫓거나 그 재산을 국유화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경제에서의 자립성을 지키고있다.

나라의 《아프리카화》와 《아랍화》의 구호밑에 거의 모든 아프리카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리권을 박탈하고 자기 나라 경제를 자기 손에 틀어쥐기 위한 국유화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였으며 뻬루, 꼬스따 리까, 빠나마 등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독점회사들의 광산, 은행 등을 몰수하여 국유화하였다.

이와 함께 제3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부원을 자체의 힘으로

개발하여 민족경제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자립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있다.

알제리인민들은 공업혁명, 토지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오늘 선철, 강철, 철관 등 중공업제품에 대한 국내수요를 자체로 보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농업생산이 새롭게 발전되고있다. 세네갈인민은 식민주의자들이 통치하고 있던 도로, 철도, 항구 등을 국유화하여 민족공업발전에 돌리고있으며 자체의 방직, 식료, 건재 공업기지들을 창설하고 농업, 목축업, 어업을 발전시키고있다. 지난날 자체의 아무런 경제력도 가지고있지 못했던 알제리, 세네갈이 이처럼 큰 성과를 이룩한것은 이 나라 인민들이 자립경제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한 결과이다. 이것은 이 나라 인민들의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며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소말리아에서도 《자력갱생》의 구호밑에 자체의 설계, 자체의 기술, 자체의 힘으로 민족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눈부신 성과를 달성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서 민족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짐으로써 이 나라들의 경제적자립성은 날로 강화되고있으며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은 허물어지고있다.

제3세계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이 부식하여놓은 퇴페적인 반동문화와 그 보급을 반대하며 자기의 민족문화를 건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취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이 새 사회,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빛나는 성과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으며 놈들을 커다란 불안에 떨게 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제3세계나라인민들이 새 사회, 새 생활 창조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말살하고 이 나라들에서 제놈들의 옛지위를 회복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제3세계나라들을 반혁명적폭력으로써 다시금 저들에게 굴복시켜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면서 이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 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곳에서 진보적인 민족국가들을 반대하여 무장간섭과 군사정변, 전복음모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교활한 《닉슨주의》교리에 따라 아세아에서는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라틴아메리카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 하고있다. 캄보쟈에 대한 무장간섭과 이스라엘을 사촉하여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도발 책동을 감행하게 하고있는것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한편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의 간판밑에 저들의 음흉한 침략목적을 달성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놈들은 작고 발전도상에 있는 제3세계나라들에 대해서 《벗》으로, 《원조자》로 가장하여 이 나라들에 기여들리 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은 제3세계나라인민들의 반제혁명의식을 무마시키고 이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략탈을 계속하며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분렬시켜보려고 꾀하고있다.

제3세계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가짜평화에 속지 말고 그것을 철저히 폭로분쇄하며 《평화》의 막뒤에서 감행하는 온갖 모략책동에 대하여 더욱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자기의 정의로운 력사적위업수행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제3세계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인구의 압도적다수와 광활한 령토와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는 제3세계인민들의 전투적단결과 긴밀한 뉴대는 세계의 반제혁명력량을 비상히 강화하고 제국주의의 전반적위기를 격화시키며 그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짓부셔버리는 불패의 힘으로 됩니다.》

제3세계인민들의 단결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는 가장 힘있는 무기이다. 제3세계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나갈 때 그 힘은 몇배, 몇십배로 강화되며 제국주의의 그 어떤 악랄한 책동도 성과적으로 짓부셔버릴수 있다.

지난날의 혁명투쟁경험은 비록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서로 굳게 단결하여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간다면 그 어떤 반혁명세력도 능히 타승할수 있으며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3세계나라인민들은 다 같이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받아왔으며 오늘은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공통된 처지와 공통된 지향과 목적을 가지고있다. 바로 이것은 제3세계나라들의 단결과 협조를 발전시키고 그들을 하나의 허물수 없는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단합시키는 튼튼한 기초로 된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은 더욱더 강화되고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과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들의 친선협조관계와 련대성은 날로 높아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제3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을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것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천대받고 압박받던 지난날의 처지의 공통성과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새 생활 창조를 위한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제3세계인민들과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그들의 민족해방운동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에 노보스띠〉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2~13페지)

자유와 독립과 민족자주적발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3대륙인민들이 진행하고있는 반제혁명투쟁은 우리 인민의 반제반미혁명위업, 우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 대한 커다란 지지와 고무로 된다.

우리 인민은 제3세계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고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인 제3세계인민들과 단결하여 전진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완전한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며 그들과 굳게 손잡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며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것이다.

제3세계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을 강화하고 완강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없고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반드시 건설할것이다.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신흥세력인 제3세계인민들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이 승리하는것은 우리 시대 력사발전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근 로 자 제8호 (루계 388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외성구역 여전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4년 8월 1일 발행 • 1974년 8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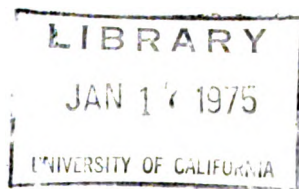
ㄱ--44294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호

평 양 근로자사 1974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9 호(389)

차 례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자—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비약을 일으키자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드높은 혁명적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매일과 같이 이르는곳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고있으며 대를 두고 자랑할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건설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일어나고있는 이 위대한 변혁들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맺은 빛나는 열매이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주체형의 피로 맥박치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혁명적기풍이며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기를 주름잡는 높은 전진속도를 창조하는 열쇠가 있다.

우리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더욱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야 하며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겨나가야 한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장 성스러운 혁명적의무이며 우리 조국과 인민의 무궁한 번영과 룡성을 이룩하는 참된 길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무조건성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는것은 무엇보다도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요구이며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행동준칙이다.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킨다는것은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며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 조건타발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절대적인 권위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려는 숭고한 립장과 태도에서 그리고 그이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끝없이 신봉하고 그것을 무조건 집행하는데서 표현된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무조건성은 그 실현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표현되는 충실성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오직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만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로 되여야 하며 그의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집행자로 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2페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수령님의 교시를 집행하여나가는 실천행동에서 나타나야 한다.

혁명적실천을 떠난 충실성이란 있을수 없다.

오직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끝없이 신봉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할 때만이 수령님께 충성다할수 있다. 그러므로 수령님께 충직한 참다운 혁명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이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확고한 신념으로, 신조로 만드는것과 함께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이것은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무조건 집행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오직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적으로 집행해나가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참된 혁명전사라고 말할수 있다.

이와 같이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의 무조건성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요구로 되며 혁명전사의 충실성을 재는 척도로 된다.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또한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맑스-레닌주의일반적원리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발전시킨것입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옳바른 전략과 전술이며 우리의 모든 활동의 지침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67페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교시에는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일적으로, 체계적으로 심오히 밝혀져있다. 거기에는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문제들로부터 시작하여 혁명과 건설의 매개 분야, 구체적부문의 정책적문제에 이르기까지 해명되여있지 않은것이란 하나도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확고히 의거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철저히 관철하는가 못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 불같은 충성심을 안고 무비의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근본담보로 되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이라는 혁명적의지와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이악하게 싸워나감으로써 온갖 난관과 애로를 대담하게 뚫고 힘있게 전진하여나갈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비약과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내고야말려는 충성심만 있으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어떤 불리한 조건하에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이룩하여나갈수 있다. 바로 여기에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서의 무조건성의 원칙은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

본분으로 된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의 체현자이시며 수령님의 교시는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조직적의사이다. 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바라시는것은 바로 당원들과 인민들의 념원이며 수령님의 뜻은 우리 당과 인민의 의지이다.

진심로 당과 혁명의 리익에 충실하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자면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그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적으로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떠나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말할수 없으며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복무할수 없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진행하는 혁명투쟁은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실현하며 그이의 높으신 뜻과 원대한 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을 떠나서는 그 어떤 혁명활동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집행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기본혁명임무로 된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 무조건 집행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근본문제이며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보존하고 영원히 빛내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오직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바로 여기에 수령님의 두터운 정치적신임과 육친적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길이 있으며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오늘 거창한 사회주의대건설의 력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긴절하게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기도 하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건설력사에서 전례없이 웅대하고 거창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주체조선, 천리마조선의 영예를 빛내인 우리 인민의 슬기와 용맹, 왕성한 투지와 혁명적기개를 다시금 만천하에 떨치며 우리 나라를 세계1등급의 공업강국으로 전변시키고 이 땅우에 공산주의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비상히 방대한 규모로 늘어난 우리의 경제력을 불과 몇해사이에 일약 몇배로 끌어올리게 하는 총진군운동인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 모든 인군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확고한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견지할것을 요구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원칙을 튼튼히 견지하고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집행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과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투쟁할 때 사회주의대건설에서는 더욱 빠른 속도가 창조될수 있으며 위대한 승리가 이룩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시는대로 하면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은 간고하고 시련에 찬 우리 혁명의 기나긴 력사적로정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박은 확고한 신념이며 철석같은 의지이다.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혁명정신이 온 대오를 확고히 지배하고있었기에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처럼 간고한 조건에서도 모든 곤난을 이겨내고 그때마다 전투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승리하였다.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영웅적인민군대와 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어려운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놈들을 때려부시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충성의 열정이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서 뜨겁게 불타고있었기에 모든것이 파괴되여 재더미밖에 남지 않았던 전후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인민은 드높은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랑만에 넘쳐 모든것을 새로 일떠세우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력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할수 있었다.

실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무조건성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는것은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숭고한 정치사상적풍모이며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무조건성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줄기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우리의 민족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대번영과 륭성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달려온 영웅적사변으로 가득찬 력사적로정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무조건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승리와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번영을 이룩하는 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태도를 튼튼히 견지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무조건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자그마한 드팀도 없이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며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을 최상의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의 본질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는 확고한 태도와 립장이 서있고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을 최상의 영예,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는 높은 충실성만 있으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과업이라고 하여도 성과적으로 완수해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모두가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으로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서는 어떠한 리유와 구실도 허용될수 없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언제나 물과 불 속에라도 뛰여들어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고야마는 높은 혁명정신과 태도를 가져야 하며 수령님의 교시 관철을 위하여 항상 머리를 쓰고 아득바득 애를 쓰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들은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 그 가능성여부를 먼저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잘 집행하겠는가에 대하여 생각하며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 결코 어려운것과 쉬운것, 조건이 유리한것과 불리한것을 가리지 않으

며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앞세우지 않는다.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완수하여나가는 길에는 여러가지 난관들도 있을수 있고 또한 혁명투쟁과정에는 필요에 따라 다른 위치에서 각이한 혁명과업을 수행할수 있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집행하는데서 난관을 두려워하거나 사업의 경중을 가리고 개인의 공명과 리해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오직 수령님과 당중앙을 위하여, 혁명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숭고한 혁명적 품성과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지난날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절대화하고 무조건 집행하는것을 생활의 확고한 신조로, 철칙으로 삼았다. 하기에 그들은 그처럼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랑만을 가지고 생활하였으며 어려운 고비들을 용감히 뚫고 제기되는 전투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나갔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시는 모든 혁명과업을 무조건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높은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창발적의견들을 충분히 제기하며 일단 수령님께서 결론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자그마한 드팀도 없이 정확히 집행하는것은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적으로 집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고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대중이 동원되여 창발적의견들을 충분히 제기하는것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일군들과 당원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가장 정확히,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창발적의견을 충분히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창발적의견은 어디까지나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더 잘 구현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만 그 의견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 도움을 줄수 있다.

수령님께서 일단 결론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사소한 양보나 흥정이 있을수 없다.

우리는 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서 당적인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고 제시된 혁명과업을 어김없이 제때에 무조건 훌륭히 집행하여야 하며 사소한 자유주의적이고 무규률적인 현상도 발로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제때에 정확히,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 옳은 집행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혁명적령도의 기본요구는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당정책집행에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61페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여 창조적적극성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며 대중의 동원된 힘에 의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나가야 한다.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충성의 불길을 지펴올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 생동하고 활발하게 진공적으로 벌어지면 질

수록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약동하는 청춘의 기백과 패기가 더욱 차넘치고 이르는곳마다에서 생산과 건설을 위한 백열전이 더욱 세차게 벌어지게 되는것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기상이 나래치고 모든 전선에서 대중적혁신운동이 힘차게 번어지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활발하게 전개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야 한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 최단기간안에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로 질풍같이 달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의 위대한 전투적과업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하며 이 땅우에 공산주의락원을 일떠세울데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또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집행정형을 늘 검열하고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실속있게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대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수령님의 교시를 형식적으로 접수하고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 요령주의, 형식주의, 보신주의 등 사상적잡귀신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이다. 이것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무조건성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일은 실속없이 하는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들을 철저히 없애지 않고서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없으며 혁명을 전진시킬수 없다.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은 사업에 투신하지 않고 일을 대강대강하는 현상, 일이 잘 안되는것을 보고도 가슴아파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는 현상, 요령주의, 형식주의, 보신주의를 비롯한 잡귀신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며 언제나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무조건성의 정신은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비약과 변혁을 일으키게 하는 힘의 원천이며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생활의 지침이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철저히 견지하고 혁명적 기백과 랑만에 넘쳐 힘차게 전진할 때 우리앞에는 극복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으며 언제나 승리가 확고히 약속되여있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며 끊임없이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하자.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자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길에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가장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간직하고 그것을 끝없이 빛내여나가고있다.

지난날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만 되여있던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사회와 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사회정치활동을 하고있으며 자기의 재능과 정력을 조국의 부강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바치고 있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이 보람차고 값높은 삶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시고 키워주신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에게 영생하는 생명,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드높은 영예와 자부심에 휩싸여있으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보람찬 혁명투쟁에서 자기들의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갈 결의에 가득차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는것은 수령님의 충직한 혁명전사들인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장 숭고한 혁명임무이며 바로 여기에 보람차고 값높은 생활을 창조해나가며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는 참된 길이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자기의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굳함없이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빛내이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의 가장 높은 영예

정치적생명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완성하여나가는 투쟁에서 혁명전사들이 간직하게 되는 고귀한 생명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활동가, 열렬한 혁명가로 되게 하는 생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동물과 다름없습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16페지)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이 정치적생명을 가져야 참다운 사회적인간으로 될수 있고 보람차게 살수 있다는것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사회적존재로서 자주성을 잃은 사람은 인간의 존엄을 지닐수 없으며 삶의 보람을 느낄수 없다. 근로대중의 참다운 자주성은 그것을 유린하는 온갖 착취제도와 그 잔재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통해서만 보장된다. 따라서 온갖 계

급적 및 민족적 예속을 반대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도 본질에 있어서 사람들의 참다운 자주성을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며 근로대중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기 위한 투쟁이다.

정치적생명은 바로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이러한 투쟁속에서 간직하게 되는 생명이다.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은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이 준다.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은 근로대중에게 계급의식을 넣어주고 그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써 대중의 계급적자각, 자주성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킨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은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을 키우는 혁명적량식이다. 근로대중은 수령의 사상을 지침으로 사회정치활동, 혁명투쟁을 벌리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량식으로 하여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키워간다.

로동계급의 수령과 당은 근로대중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고 그들의 정치활동, 혁명투쟁을 직접 조직하고 령도한다.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서 육체적생명을 생각할수 없는것처럼 수령을 떠나서 정치적생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치적생명은 육체적생명보다 비할바없이 귀중하다.

정치적생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값있게 살아나갈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은 혁명을 하면서 살아야 사는 보람이 있지 혁명도 하지 않고 편안히 밥이나 먹고 세월을 보내서는 사는 보람이 없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사회적존재로서의 자주성과 존엄을 지니고 사회정치활동과 혁명투쟁을 벌려야만 사람답게 살수 있다.

사람은 사회정치활동, 혁명투쟁을 하여야 사회적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으며 삶의 참다운 보람을 느낄수 있다. 자기 수령과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바로 여기에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참다운 가치가 있으며 영예가 있다.

사람이 자기 한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과 량심을 팔며 혁명적지조를 지키지 못한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는 한푼의 가치도 없으며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것이다.

사람이 사회적존재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자면 수령과 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한몸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며 싸워나가야 한다.

정치적생명은 사람들에게 영생할수 있는 삶을 주는 생명이다.

사람의 육체적생명에는 끝이 있지만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하여 값있게 바쳐진 혁명가들의 정치적생명은 길이 빛나는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 남긴 혁명가들의 고귀한 업적과 혁명정신, 그들의 정치적생명은 사람들의 심장에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

이처럼 정치적생명은 사람들에게 가장 값있고 보람있는 삶을 주며 그것을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육체적생명보다 비할바없이 귀중한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있으며 그것을 끝없이 빛내여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의 정치적생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시고 그이의 품속에서 억세게 자라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정치적생명이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정치적생명은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생명으로 된다.

우리 인민의 정치적생명이 그처럼 가장 존엄있고 영광스러운것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사상정신적량

식으로 삼고 생활하는가에 따라 그들이 지니고있는 정치적생명의 가치가 규정된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현시대와 공산주의 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유일하게 과학적인 사상이다. 그것은 현단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뿐만아니라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를 담고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또한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나가는 근본방향과 요구뿐만아니라 공산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을 밝혀주고있다.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인민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을 주며 그들의 모든 활동에서 언제나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립장과 방법을 가르쳐준다.

특히 주체사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을 안겨준다. 즉 주체사상은 사람들이 자주성에 대한 높은 자각을 가지고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정치적생명을 간직하며 키워나갈수 있게 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우리 인민의 정치적생명은 바로 이 위대한 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사상정신적량식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처럼 고귀하고 영광스러운것으로 되는것이다.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정치적생명이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것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또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혁명조직에서 유지되고 키워진다는데 있다.

사람들이 어떤 혁명조직에서 정치생활을 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지닌 정치적생명의 가치를 규정짓는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조선로동당과 근로단체조직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그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가장 권위있는 혁명조직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조직이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조직에서 정치활동을 진행하며 혁명투쟁을 벌려나감으로써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신을 단련해나가며 정치적생명을 유지해나가고있다. 따라서 우리 인민은 이 존엄있고 영광스러운 혁명조직에서 생활함으로써 정치적생명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빛내여나가게 되는것이다.

우리 인민이 간직하고있는 정치적생명이 가장 힘있고 영예로운것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간고한 혁명의 불길속에서 키워지고 혁명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생명이기때문이다.

정치적생명은 혁명의 준엄한 투쟁속에서 굳세게 보존되고 키워지며 자랑스럽게 빛을 낸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길을 헤치면서 세계사적인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를 창조하여왔으며 민족의 슬기와 영예를 빛내여왔다. 우리 인민은 이 장엄한 혁명투쟁에서 수령님에 의하여 세상에 다시 태여났고 자기의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굳세게 키워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따라 우리 인민이 걸어온 반세기의 투쟁로정은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품속에서 그 무엇에도 비할수 없이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가진 참다운 사회적인간으로 세상에 다시 태여나 준엄한 혁명투쟁속에서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자랑스럽게 빛내여온 영광의 로정이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장구한 기간 중중첩첩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이 보람찬 혁명투쟁에서 자기의 고귀한 정치적생

명을 키워왔으며 빛내여왔다.

실로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정치적생명은 준엄한 시련과 영웅적사변들로 가득찬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투쟁속에서 키워진 힘있고 값있는 생명이며 그 어떤 세찬 풍파속에서도 드놀지 않고 영원히 빛을 뿌리는 정치적생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귀중한 정치적생명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담보로 된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영광스러운 위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있는 혁명위업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지닌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에 몸바쳐투쟁함으로써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다그쳐나가게 된다.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빛나게 수행하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보다 더 숭고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여기에 이바지하는 정치적생명보다 더 값높은 정치적생명은 없다.

참으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은 우리 인민들에게 영생하는 삶과 생활의 참된 보람을 안겨주는 그 무엇에도 비할수 없이 귀중한 생명이며 우리 조국과 인민의 빛나는 승리와 무궁한 번영을 담보하는 가장 힘있는 생명이다.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영원히 빛내여나가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영원히 빛내여나가는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의 본분이며 신성한 의무이다.

우리가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가야만 참다운 삶의 보람을 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높은 은덕에 보답할수 있으며 혁명의 길에서 수령님과 당중앙에 충성다할수 있다.

당중앙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영원히 빛내여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신념과 혁명적지조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정치적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히 간직하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의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며 혁명가로서 영생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구이다.

정치적신념과 혁명적지조를 굳건히 지키는것은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를 고수하는것으로 된다.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자기의 정치적신념과 혁명적지조를 굳게 지킴으로써만 수령님의 혁명전사의 고귀한 칭호와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정치적신념과 혁명적지조를 끝까지 지키며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을 계속하며 혁명이 종국적으로 승리할때까지 싸우려면 누구나 다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워야 한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대로 살며 싸워나가는것이 바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길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회정치활동, 혁명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떠난 정치생활, 혁명투쟁이란 있을수 없으며 따라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떠난 정치적생명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야 어떤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혁명적 원칙성과 지조를 튼튼히 지키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에서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끝까지 몸바쳐투쟁할수 있다.

우리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수령님의 명령을 관철하는 길에서 물불을 헤아리지 않으며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높은 혁명적각오와 혁명적지조를 소유하여야 한다.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해서는 또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은 혁명적인 조직생활을 통하여 유지되고 키워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육체적생명을 유지할수 있는것과 같이 당원은 당생활을 해야 정치적생명을 유지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65페지)

혁명적조직생활은 사람들이 정치적생명을 이어나가는 정치활동, 혁명활동이다. 혁명적조직생활과정에서 사람들은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기 위한 사상정신적량식을 받게 되며 조직생활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끊임없이 단련해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적조직은 정치적생명을 키우는 터전으로 되며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정치적생명을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혁명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개인의 리익을 조직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는것이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혁명조직과 집단은 매우 귀중하다. 혁명조직과 집단이 없이는 혁명을 할수 없으며 정치적생명을 보존하고 빛내여나갈수 없다. 따라서 자기 개인을 희생시킬지언정 혁명조직의 리익, 집단의 리익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만이 혁명가로서의 정치적생명을 훌륭히 이어나갈수 있는것이다.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한 모든 사람들이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는 동시에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조직의 통제밑에 조직에서 주는 위임분공을 집행하는 행정에서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 조직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는 혁명정신을 체득할수 있으며 강한 사상투쟁과정에서 낡은 사상을 뿌리뽑고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 공산주의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울수 있다.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은 조직생활에 정상적으로 참가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사람들의 조직생활을 보다 계획적으로, 준비있게 할수 있으며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제정된 질서에 따라 규률있게 움직일수 있으며 그들의 조직성을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다.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는것은 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은 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것이며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이 곧 혁명투쟁과정, 정치활동과정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발휘하게 되며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 자신을 더욱 단련해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제때에 성실히 수행해나갈 때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특히 당중앙이 새롭게 독창적으로 제시한 조직생활총화체계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되며 그들을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키우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이 새롭게 제시한 조직생활총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함으로써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끊임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당중앙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튼튼히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실천투쟁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혁명적실천활동을 떠난 정치적생명이란 있을수 없으며 사회와 인민, 조국과 혁명에 이바지하지 않는 정치적생명이란 생각할수 없다.

오직 혁명적실천투쟁속에서 자기의 모든 정열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며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수령님께 충실하고 당과 혁명에 충실한 혁명가이며 이렇게 할 때만이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데 대한 당중앙의 원칙적요구들을 철저히 관철하여나감으로써 자신을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더욱 훌륭히 준비하며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가야 한다.

* *

오늘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고귀한 정치적생명,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안겨주시고 키워주신 가장 값높은 정치적생명이다.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이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지님으로써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긍지 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살며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혁명하는 영예와 긍지를 더욱 뜨겁게 느끼고있으며 그이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충성다할 결의에 가득차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투쟁하는 혁명전사답게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대건설장마다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 일대 전환으로 되는 사회주의대건설의 승리를 위한 투쟁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더욱 억세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되게 하는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고 완성하자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의 길을 따라 멀리 전진하여왔다.

우리 인민은 오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눈앞에 내다보면서 혁명적신심과 랑만에 넘쳐 공산주의미래를 힘있게 앞당겨나가고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눈부신 창조와 혁신, 륭성의 한길로 질풍같이 달려옴으로써 우리 나라는 지난날의 빈궁과 락후를 영원히 청산하고 세계에 그 이름 떨치는 《주체의 조국》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자부심과 드높은 민족적긍지를 지닌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실로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일어난 이 세기적변혁들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혁명의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결과이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실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 그이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심장으로 느끼고있으며 오직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그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하여나갈 때만이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이것은 모든 당원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철석같은 혁명적신조이며 드놀지 않는 혁명적의지이다.

우리는 수령님과 당중앙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감으로써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 하루빨리 이 땅우에 인류의 휘황한 미래인 공산주의사회를 일떠세워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혁명승리를 위한 근본요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는것은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근본요구이다.

원래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고수하고 완성해나가는 것은 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이며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것을 고수하고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창시하여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며 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끈다.

로동계급은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간다.

오직 로동계급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완성해나가야만 자기의 력사적사명,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수령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 이것은 공산주의사회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며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방대하고 어려운 투쟁이다.

그러므로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장기간에 걸치는 간고한 투쟁이며 그것은 한세대에 끝나는것

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력사적위업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은 자기의 력사적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혁명을 계속하여야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수 있으며 우리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수할수 있습니다.》(《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5페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후대들이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혁명전통을 고수하지 않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지 않을 때에는 혁명의 대가 끊어지고 공산주의위업은 중단되게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완성해나가야만 성스러운 자기의 력사적위업, 공산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조선혁명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고 완성해나갈 때만이 종국적으로 승리할수 있다.

조선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것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고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우리 시대와 우리 혁명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 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여주시였다.

조선혁명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도사상을 가지게 되였다.

수령님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매 단계의 혁명리론을 과학적으로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누구도 걸어본적이 없는 생소한 길을 헤치고 반제민족해방혁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등 여러단계의 복잡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우리 혁명을 끊임없이 빛나는 승리에로 전진시켜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자주적인 로선과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 올수 있었습니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8페지)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영웅적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인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창시하시고 조국광복의 대업을 이룩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오랜 기간에 걸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새 사회 건설의 보람찬 투쟁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타개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세기적인 변혁과 끝없는 행복에로 이끄시여 이 땅우에 일대 륭성과 번영의 시대를 펼쳐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독립되고 번영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나가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한세대에 일본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 강적을 때려부신 영웅

적인민으로 그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였으며 세기적으로 뒤떨어지고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였던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나라들이 수백년동안 걸려서야 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불과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는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 혁명은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고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이 있는것처럼 오직 그이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나아갈 때에만 우리 인민의 보다 휘황한 앞날이 있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있다.

이것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굳건히 자리잡은 철석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며 오랜 기간의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통하여 확증된 진리이며 반세기에 이르는 조선혁명의 빛나는 승리와 력사적경험의 주되는 총화이다.

오직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로 나아갈 때에만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에 편향없이 빨리 도달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실천의 력사적경험을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시여 우리 시대가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을 독창적으로 휘황히 밝혀주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확신성있게 이끌어주고계신다.

공산주의혁명리론은 우리 시대에 와서 수령님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체계화되였으며 전일적인 과학적리론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으로부터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게 해명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사상, 정신도덕적풍모와 공산주의하에서 이루어지게 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 등 모든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공산주의에로 가는 혁명적로정과 그 과정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공산주의의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적과업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실로 수령님의 공산주의혁명리론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과 혁명적인민들이 올바른 길을 따라 공산주의에로 나갈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기치이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위대한 혁명사상인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공산주의혁명리론에 의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아무러한 우여곡절도 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며 전면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 지도리론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오늘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앞당겨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당중앙은 공산주의건설에서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더 훌륭히 실현하기 위하여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사업은 사람도, 사회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빛나게 이룩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력사적위업이다.

그리므로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은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

설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것은 곧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다.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보다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위업은 하루이틀에 실현되는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력사적인 위업이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영광스러운 위업을 대를 이어 수행하여야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

오직 수령님과 당중앙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고 완성해나아갈 때에만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있으며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할수 있다.

이렇듯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근본요구로, 조선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 그것은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보람찬 투쟁이다. 그러므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영원한 륭성과 번영을 가져오는 참된 길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고 완성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우리 당정책으로 무장하는것은 혁명을 계속하며 혁명을 완수할 때까지 싸우자는것이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고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혁명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고 완성해나가기 위하여 항구적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이 수령님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뭉쳐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이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만 모든 사람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끝없이 신봉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되게 할수 있으며 현세대뿐아니라 후대들도 영원히 변함없이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사업을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근본문제로 확고히 틀어쥐고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는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결국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끝없이 순결한 량심을 가지고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열렬한 혁명가로 만들자는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과 당중앙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 당중앙의 방침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신조로 만들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높은 충실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할수 있으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언제나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 당중앙의 가르침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와 함께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자그마한 표현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말고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중앙의 가르침대로만 숨쉬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이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영원히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선렬들의 항일 투쟁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영광이며 승리의 담보입니다.》(《김일성선집》, 제5권, 506페지)

혁명전통에 대한 태도는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위업에 대한 태도로 되며 혁명에 대한 근본립장과 관련되는 원칙적문제이다. 따라서 그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재는 근본척도의 하나로, 진정한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을 갈라놓는 시금석으로 된다.

로동계급과 그 전위적당은 탁월한 수령이 창시한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영원히 계승발전시켜야만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수령이 내세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근본요구로 된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조국의 광복을 위한 장기간의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이며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고귀한 밑천이다.

우리는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영원히 계승발전시켜나가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원을 열어놓으신 우리 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를 고수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빛내일수 있으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조선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면서 그이의 혁명사상을 완전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또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야만 혁명의 길에서 부닥치는 모든 난관과 시련들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지난날 승리한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할수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모든 근로자들과 자라나는 새세대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힘있게 벌려 그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철저히 준비되게 하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혁명적

가정과 반세기에 걸치는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덕성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헐뜯거나 말살하려는 자그마한 표현에 대해서도 제때에 불을 걸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고 완성해나가기 위한 근본조건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을 통하여 당사업전반을 령도하시며 당중앙의 지도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 그이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충실하여야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지고 우리 당을 영원히 변함없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당으로 되게 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 전당, 전국, 전군이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받들고 한결같이 움직이는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수 있으며 그이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함께 당중앙의 가르침을 끝없이 신봉하며 그것을 한치도 어길수 없는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는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며 당중앙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사소한 표현과 요소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허하지 말고 그를 반대하는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학교교육사업을 강화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열렬한 혁명전사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이것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는 또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당과 우리의 혁명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 그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 그 진리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더욱 빛나게 증시할수 있으며 그이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닌 더 없이 큰 영예이며 행복이다.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어버이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깊이 간직하고 영원히 빛내여나가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융성과 번영을 이룩하는 참다운 길이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고 완성해나감으로써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영광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로동자, 농민의 혁명 정권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임무

리 춘 식

오늘 우리 인민은 인류가 낳은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기치따라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보람찬 혁명위업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고있으며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충성의 열정으로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국의 륭성발전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실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수령님께서 우리 공화국을 세워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을 온 누리에 뿌리는 영광스러운 주체의 조국을 가지게 되였으며 주권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자기의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하여나아가는 떳떳한 자주독립국가의 슬기로운 인민으로,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되였다.

수령님께서 이끄심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독립되고 존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세계의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희망과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 《사회주의자력갱생의 나라》로 되였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에서 오늘처럼 우리 조국이 륭성번영하며 전체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혁명적랑만에 넘쳐 생기발랄하게 일하며 살아온 때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력사에서 일어난 이 세기적인 전변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우러러모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만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보람찬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수령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로동자, 농민의 혁명정권을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고있는 공화국정권은 참다운 로동자, 농민의 혁명정권

공화국정권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깊고 억센 뿌리에서 자라난 혁명정권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우리 혁명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참다운 로동자, 농민의 정권이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과정에 언제나 주권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며 혁명의 승패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혁명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계급적 및 민족적인 억압과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주권을 가져야만 자기 운명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힘있게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근본요구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려는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하여 우리 나라에서 로동자, 농민의 자주적인 정권을 세우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혁명정권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빛나게 구현하시여 인민정권건설의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으심으로써 공화국정권의 억센 뿌리를 마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마련하신 인민정권건설의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계급적원쑤들의 파괴책동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정권건설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에 로동자, 농민의 참다운 혁명정권을 세워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오랜 세월 나라와 주권을 가지지 못한 탓으로 온갖 민족적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피눈물나는 망국노의 생활을 강요당하여오던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보람찬 혁명의 새 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공화국의 기치밑에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공화국정권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나가는 참다운 로동자, 농민의 혁명정권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활동의 지도적지침입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04페지)

우리 당의 유일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온갖 착취와 압박, 예속과 빈궁에서 해방하고 그들을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사회주의국가가 참말로 자주적인 국가로 되자면 자기의 확고한 지도사상을 가져야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우리의 국가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튼튼히 옹호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며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실로 공화국정권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를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리익을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는 진정한 로동자, 농민의 혁명정권이다.

공화국정권은 또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근로대중이 자기 손으로 세운 정권이며 그들자신이 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혁명정권이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인민은 누구나 다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를 관리하며 나라의 정치에 직접 참가하고있다. 국가주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정치적자주성은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였으며 그들의 인격과 권리는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가장 존엄있는것으로 되였다.

우리의 국가는 근로대중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주고 그것을 확고히 보장하여주고있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자면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향유할 권리가 보장되여야 한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우리의 국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의식주문제로부터 교육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베풀어주시는 뜨거운 배려가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지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께서 이끌어주시는 공화국정권만이 자기들을 자연과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되게 하며 진정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참다운 로동자, 농민의 혁명정권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해와 달이 다하도록 어버이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혁명정권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는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가장 숭고한 의무로 여기고있는것이다.

우리의 혁명정권은 당의 령도밑에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강유력한 무기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로동자, 농민의 혁명정권을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담보이다.

오늘 당중앙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였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전사로 만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은 당의 령도밑에 공화국정권이 수행하여야 할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정권의 혁명적본성과 력사적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책임적이고 숭고한 혁명임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정권은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사회주의건설의 강유력한 무기이며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보위자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72페지)

공화국정권은 당의 령도밑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투쟁의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이다.

공화국정권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날을 날카롭게 세워 우리의 혁명력량을 와해시키려고 밖으로부터 기어드는 적대분자들과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의 반항을 진압할뿐아니라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계급투쟁의 진선에서 그 승리를 확고히 담보한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사회의 모든 령역, 모든 단위에서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조류들과 요소들을 전면적으로 뿌리빼고 사람도, 자연도, 사회도 모두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런것만큼 이 투쟁은 불피코 낡은것, 반동적인것의 반항에 부닥치게 되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이 촉진되면 될수록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들의 항거는 더욱 집요한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보람찬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계급투쟁의 예리한 무기인 우리의 로동자, 농민의 혁명정권을 더욱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또한 우리 당의 령도밑에 공화국정권의 문화교양자적기능,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역할을 높일 때 더욱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문화교양자적기능은 주권이 근로대중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인민정권의 기본기능의 하나이다.

공화국정권은 당의 령도밑에 근로자들에 대한 문화교양자적역할을 강화하여 그들을 높은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을 가진 혁명화된 인간으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움으로써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한다. 또한 공화국정권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높은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움으로써 그들의 창조적 열성과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나라의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한다.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더욱 높아질 때 보다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사회주의국가는 정권기관들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열어놓은 생산력발전의 광활한 길을 따라 기술을 발전시키고 로동생산능률을 부단히 높여 생산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나갈수 있게 하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 사업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추진시키어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한다.

이처럼 우리의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람과 자연, 사회를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로동자, 농민의 혁명정권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을 앞당기는 중요담보로 된다.

우리의 로동자, 농민의 혁명정권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따라 영광으로 빛나는 승리의 로정을 걸어온 공화국정권앞에는 오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주체사상의 위대한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정권기관들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49페지)

정권기관앞에 나선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와 당의 지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수령님과 당의 령도에 충실하여야 우리의 혁명정권을 더욱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국가정권기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에는 공화국정권이 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들이 다 명시되여있다.

국가정권기관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수령님과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국가정권기관들은 또한 당의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대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각급 정권기관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로서의 기능을 더욱 높이는 한편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문화교양자적기능을 높여 관할지역안의 문화기관들과 교육기관들이 모든 사람들의 사상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돌려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정권기관들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대건설의 혁명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정권기관들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이에 행정실무사업과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중앙이 제시한 위대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모든 근로자들이 비상한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전격적으로, 섬멸전의 방법으로 부리나케 해제끼도록 하여야 한다.

정권기관들은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법규범의 요구에 맞게 일하며 생활하도록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동시에 법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에 맞게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것은 사상혁명을 수행하고 우리 혁명위업을 추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법규범과 준칙에 따라 일하며 생활하여야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할수 있으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우리의 혁명적법규는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제시하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규범과 준칙들을 밝혀줌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수령님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집행하는데서 자기가 할 임무가 무엇이고 그를 주인다운 립장에서 어떻게 끝까지 옹호관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준다.

각급 정권기관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공화국사회주의헌법 그리고 모든 법규들을 잘지킬데 대하여 주신 수령님의 교시를 깊이 학습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도록 하여야 하며 법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지도통제하는것이 중요하다.

각급 정권기관들은 인민들의 생활과 국가 및 사회 재산을 보호관리하며 모든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책임을 직접 맡고있는 호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원래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이다. 나라살림살이와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것은 인민정권의 성격과 활동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며 그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로동자, 농민의 정권은 근로대중에게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할뿐아니라 그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대하여서도 책임적으로 돌보아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우리의 혁명정권이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피지 않는다면 인민생활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

각급 인민위원회들은 해당 지역의 호주로서 주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로부터 교육과 직업, 건강과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돌보는것은 물론 땅과 자원, 모든 설비들과 시설물들을 알뜰히 보호관리하고 그것이 인민생활과 나라의 부강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되도록 전반적인 나라살림살이를 빈틈없이 깐지게 꾸려나가야 한다.

수령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혁명정권이 진정으로 혁명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로동자, 농민의 정권으로 되게 하자면 정권기관 일군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소유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혁명가로 되여야 하며 인민대중으로부터 두터운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된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4페지)

우리의 모든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은 다 인민이 선출한 일군들이며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심부름군이다.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복무하는 일군이라는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바쳐야 한다.

우리 일군들이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하고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려면 무엇보다먼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우리 인민이 자기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며 우리 인민의 운명을 이끌어주시고 그 찬란한 미래를 마련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초개와 같이 바쳐 싸워나가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뜨거운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또한 대를 이어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언제나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대로만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또한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며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조건타발도 없이 무한한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여

야 한다.

정권기관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워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는것은 정권기관일군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정권기관일군들은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여야 하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알뜰하고 깐지게 하며 로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고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하며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본위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없애고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모든 정권기관일군들은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철저한 집행자로, 인민의 충실한 심부름군으로 훌륭히 복무함으로써 수령님과 당의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로동자, 농민의 혁명정권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그 불패의 위력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가장 큰 자랑이며 숭고한 혁명임무이다.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과 행복의 기치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유력한 무기인 로동자, 농민의 혁명정권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으로 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로동자, 농민의 혁명정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찬란히 빛내여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서의 사로청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자

리 영 복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다.

당중앙의 현명한 방침에 따라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여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그 어느때보다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기 위한 투쟁에서 날에날마다 위대한 비약과 기적을 이룩하고있다.

우리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는 오늘 당중앙은 혈기왕성한 혁명의 새세대들인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이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모든 정열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근위대, 결사대의 영예를 힘있게 떨칠것을 요구하고있다.

로동당시대, 주체시대에 태여나서 오직 주체사상으로 살며 일하는 우리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이 수령님과 당이 부르는 혁명의 한길에서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은 최대의 영예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오늘 사로청앞에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전동맹을 철저히 일색화하여 모든 사로청원들과 청소년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전사로 키우며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그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사로청은 지난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성다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수령님과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에서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사로청활동의 기본원칙

사로청활동의 기본원칙에 관한 문제는 청년조직의 전투력과 그의 계급적성격을 규정하는 근본문제이다.

혁명의 미래를 대표하며 민족의 장래를 걸머진 청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력사적임무를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어떤 사상과 리론, 방법에 의하여 교양되고 훈련되며 어떤 사상을 투쟁의 지침으로 삼는가에 달려있다.

특히 사회주의하에서 청년운동을 어떻게 보며 청년조직을 어떻게 강화발전시키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혁명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중도에서 줴버리느냐 하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로청과 청년들의 활동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생각할수 없으며 청년운동의 발전도 청년들의 더 훌륭한 앞날도 바랄수 없습니다.

우리 조선청년들은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일하든지 언제나 로동당의 령도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 이것은 우리 나라 청년조직들과 모든 청년들의 활동에서 기본으로 되여야 합니다.》(《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제2권, 206페지)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은 사로청활동의 기본원칙이다.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청년들은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자기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으로서의 모든 훌륭한 자질을 전면적으로 발양할수 있으며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일군으로 자라날수 있다.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생각할수 없으며 청년운동의 발전도, 청년들의 휘황한 미래도 바랄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당, 국가, 근로단체 등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총체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시며 사로청의 창건자, 령도자이시다.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그 광휘로운 빛발로 조선청년운동의 앞길을 밝혀주심으로써 비로소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불패의 대오로 혁명승리의 곧바른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초시기에 벌써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청년운동의 위대한 령도자로서 우리 혁명이 나아갈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길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시원을 열어주시고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청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대중적인 청년단체인 민주청년동맹을 창건하시고 그를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청년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것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고계신다.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이 계심으로 하여 우리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은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참된 역군으로 될수 있었다.

참으로 사로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건하시고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기에 오늘 그처럼 권위있고 강유력한 대중적인 공산주의적청년조직으로, 세계청년운동의 본보기로 강화될수 있었으며 우리 청년들은 《주체의 조국》의 청년된 영예를 빛내이며 세상에서 부럼없는 행복과 영광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그러기에 우리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은 어버이수령님을 끝없이 높이 우러러 모시고 그이께 영원히 충성다하는것을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자랑으로, 영광으로 여기고있으며 사로청활동의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있다.

지난 기간 사로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수령님께서 부르시는 길에서 충성다하여옴으로써 사로청사업에서는 실로 획기적인 전변과 빛나는 성과들을 이룩

하였다.

사로청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함으로써 동맹안에 그 어느때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웠으며 청년들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의 돌격대로 키웠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속에서는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과 교시,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사업이 생활화되였으며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수령님의 친위대, 결사대로서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며 죽어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치려는 혁명가적기풍이 철저히 확립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청년들은 혁명하는 시대의 청년답게 투쟁하기 좋아하고 일하기 좋아하며 자기 조직생활에 충실하고 언제나 검박하게 생활하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희생시키는것을 서슴지 않는 높은 공산주의적미풍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청년들의 정치도덕적풍모가 획기적으로 달라졌을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에서 그들의 역할도 더욱 높아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진하여 맡아나섰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202페지)

사로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새것에 민감하고 혈기왕성하며 현대과학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모든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을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총동원시켰다.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내놓으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을 맡아나서 200여리의 청년이천선 부설공사를 불과 1년남짓한 기간에 해제낀것을 비롯하여 조국땅 방방곡곡에 수많은 청년발전소, 청년탄광, 청년철도, 청춘과원 등 충성의 대기념비들을 일떠세움으로써 나날이 번영하는 조국의 지도를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여 수령님의 근위대, 결사대의 영예를 만천하에 떨쳤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을 위한 투쟁에서도 앞장에 서고있다.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과 손을 잡고 온갖 낡고 부패한 사상과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불사르면서 기술혁신과 기술개조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또한 사회적으로 유익한 여러가지 좋은 일하기 운동을 힘있게 벌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근 10만정보의 《사로청림》, 《소년단림》을 조성하여 조국의 산과 들에 갖가지 경제림이 설레이게 하였으며 수많은 토끼를 길러내고 여러가지 유휴자재들을 모아 나라에 바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향상과 나라의 살림살이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실로 우리의 귀중한 혁명적전취물들과 사회주의지상락원에 웅장하고도 아름답게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에는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수백만 남녀청년들의 충성과 영웅적위훈이 깃들어있다.

또한 당의 후비대로서의 사로청의 전투력도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사로청원들의 동맹조직생활이 더욱 강화되고 청년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이 획기적으로 개변되였으며 모든 사업이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생기발랄하게 적극화되였다.

실생활을 통하여 사로청원들은 자기의 조직을 끝없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였으며 그들속에서 조직을 통하여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가기 위한 아름다운 풍모가 발휘되고있다.

지금 사로청은 수령님께서 그 어떤 어려운 전투명령을 내리신다 하여도 그를 무조건 해제낄 청춘의 기백이 약동하는 충성의 대부대로, 수령님의 근위대, 결사대로 믿음직하게 자라났다.

수령님의 근위대, 결사대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자

오늘 사로청앞에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전동맹을 철저히 일색화하며 보람찬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근위대, 결사대로서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야 할 가장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사로청을 일색화하는것은 모든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을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사로청대오안에 오직 주체형의 피만이 끓어번지게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우리앞에 나선 이 무겁고도 보람찬 혁명과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청년들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키우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는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끝없는 영예와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모든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며 수령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바쳐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모든 사로청조직들은 사로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철저히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배양하는데 기본을 두고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그들이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되게 하여야 한다.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만이 높이 발휘된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우리의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주체형의 피가 끓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해와 달이 다하도록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대를 이어 충성다할수 있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들속에서 혁명적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수령님의 천재적로작들과 청소년사업부문에 주신 교시들을 깊이 연구학습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고 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가장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로청조직들은 청년들속에서 수령님의 교시를 자기의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으며 그 어떤 불건전한 사상경향으로부터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청년들이 수령님의 교시는 곧 법이며 지상의 명령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의한 의지로 그 어떤 사소한 리유와 조건

타발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의 영예를 빛내일수 있으며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이 땅우에 더욱 활짝 꽃피워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우는것은 사로청원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사로청조직들은 지난날에도 그러하였던것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따라배우자!》라는 충성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사로청원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꾸준히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혁명전통연구발표모임을 비롯한 배움의 천리길행군, 사적지답사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새세대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을 가지고 착취제도와 미일침략자들을 비롯한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하게 해야 한다.

사로청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에 맞게 청년들의 혁명적조직성과 규률성을 배양하며 그들을 혁명화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사로청원들의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조하신 조직생활규범을 전동맹안에 일반화하는것이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의 조직생활규범은 사로청원들로 하여금 정치사상생활과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빛내여나가는데서 귀중한 본보기로 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더욱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당에서 가르친대로 새로운 조직생활총화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모든 사로청원들이 동맹생활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자기의 정치생활, 조직생활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 적극 진출하여 결사대, 돌격대의 영예를 빛내이는것은 오늘 청년들앞에 나선 영예로운 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로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야 하며 공업,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자기들의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일하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책, 214페지)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에서 언제나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온 우리 청년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대건설투쟁은 주체조선의 위력을 강화하고 천리마조선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이다.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때 우리 조국은 더욱 륭성번영할것이며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더욱더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근위대, 결사대들인 사로청원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가장 어렵고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김 덕 현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광에 찬 혁명의 길을 달려온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오늘 가장 보람찬 시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처하여있다.

당중앙에서는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이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적출판보도물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그의 성격과 기본사명, 근본원칙과 기본임무를 새롭게 정식화하고 출판보도사업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위대한 방침을 내놓았다.

당에서 제시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전투적기능을 더욱 높일데 대한 사상과 방침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과 함께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숭고한 위업수행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그것은 또한 출판보도사업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획기적리정표로 되며 출판보도일군들의 행동강령을 전면적으로 밝혀준 끝없이 귀중한 혁명의 교과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을 더욱 심화시켜 내놓은 당의 출판보도 사상과 리론은 참으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더욱 풍부히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불멸의 의의를 가지는 끝없이 귀중한 투쟁의 무기이며 영생불멸할 사상리론적재부이다.

모든 출판보도일군들은 당에서 내놓은 주체적출판보도 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를 사업에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우리 당 출판보도물로 하여금 명실공히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간지도하시는 새형의 주체의 출판보도물이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영광스러운 혁명적출판보도물이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혁명적출판물의 고귀한 혁명전통을 이어받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면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새형의 주체적출판보도물을 창간하시고 그것을 조선혁명수행에 이바지하는 강력한 사상적무기로 되게 하심으로써 혁명적출판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전개된 세계최초의 민족해방혁명전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주체시대앞에 제기된 새로운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가는 행정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가장 위대하고 혁명적이며 다방면적이고 심오하며 가장 억센 생활력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우리 당 출판보도물을 창간하시고 그를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보도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간하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형의 주체의 혁명적출판보도물이다.

출판보도물은 시대의 산물이며 시대와 밀접한 련관속에서 끊임없이 발생발전한다. 출판보도물이 시대의 선구자로, 예리한 촉각으로, 사회의 참다운 이목으로,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되려면 시대의 본질적요구와 그를 대표한 선진사상의 적극적인 전파자, 옹호자, 관철자로 되여야 한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시여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그를 전파하고 옹호하고 관철하여야 할 새형의 출판물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은 주체시대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고있으며 그를 대표한 출판보도물로 창간되였다.

우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새형의 주체의 출판보도물의 출현,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물의 발전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로 되며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새형의 주체의 출판보도물이 출현함으로써 우리는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며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출판보도물을 가지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강력한 사상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목적으로 하고있는 가장 혁명적인 출판보도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공화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3페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출판보도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수령님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다.

출판보도물의 지도사상은 그 방향과 활동을 규정하는 근본문제로서 옳바른 지도적지침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혁명적출판보도물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문제이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지도사상인 수령님의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은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물건설의 유일하게 옳은 지도사상이다. 그것은 당적출판보도물건설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혁명적출판보도물앞에 나서는 사명과 임무, 그 기능과 역할에 관한 문제, 혁명이 먼저 승리한 혁명기지에서 전국적인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출판보도물이 놀아야 할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매개 출판물의 특성을 살릴데 대한 문제, 글을 알기쉽고 간결하게 통속적으로 쓰며 편집에서 다양성, 생동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혁명적출판보도사업에 대중을 참가시킬데 대한 문제, 기자, 편집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용감하게 돌진해나가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자랑스러운 일은 없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주체형의 피로 끓는 혁명의 새세대들인 우리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은 오늘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모든 전선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며 중요한 모통이를 맡아 통이 크게 판을 벌리고 청춘의 기백으로 대담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중앙이 제시한 위대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승리에로 이끄는 기본전투형식이며 청춘의 정열에 넘쳐 새롭고 보다큰 승리를 향하여 돌진하는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가장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다.

우리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은 위대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전격전, 섬멸전을 벌려 또다시 위대한 비약과 크나큰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수령님의 근위대, 결사대로서의 조선청년들의 본때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거창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각급 사로청조직들은 당의 조치에 호응하여 새것에 민감하고 정열에 불타는 사로청원들을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는 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함으로써 그들이 3대혁명수행에서 근위대, 선봉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우리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은 3대혁명수행의 선봉에서 근위대, 결사대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사상혁명을 앞세워 사로청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약동하는 청춘의 기백으로 청년돌격대와 청년기업소, 청년직장, 청년작업반, 《사로청호》운동을 힘있게 벌려 청년들을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실천투쟁속에서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기술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생산도, 건설도 성과적으로 할수 없다.

수령님에 대한 청년들의 충성의 열정과 창조적적극성이 최신과학기술과 밀접히 결합될 때에만 비로소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할수 있다.

청년들은 현대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깊이 자각하고 현대과학기술과 지식을 소유하기 위한 대중적행군운동에 적극 참가하며 모두가 자기 맡은 부문의 기술에 정통하고 새로운 선진과학기술을 보급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사회주의교육학으로 교양받은 우리 청년들은 도처에서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보수주의와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불사르고 설비의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를 왕성히 다그치며 청년들의 힘과 지혜로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과 능률적인 기계들을 창안도입하며 생산공정을 전부 기계화, 자동화하여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앞장서나갈 때 사회주의대건설에서는 위대한 전진이 이룩되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은 더욱더 앞당겨질것이다.

청년들은 또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끌고나감으로써 자기가 일하며 생활하는 공장안을 궁전과 같이 꾸리고 공장밖을

공원과 같이 아름답게 꾸리며 낡고 뒤떨어진 생활양식과 인습을 불사르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는것은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모든 청년들은 100여년의 피맺힌 원쑤 미일제국주의자들을 끝없이 미워하고 그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살피며 놈들이 감히 우리에게 덤벼든다면 그때에는 단매에 원쑤를 족쳐버릴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사로청앞에 나서고있는 이 모든 중요한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로청조직들이 자기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여 그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사로청일군들은 모든 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사로청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청년군중속에 들어가 기대옆에서와 발머리에서, 배우에서와 건설장들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관철에로 청년들을 적극 조직동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 경제선동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사로청일군들은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령감티를 내지 말고 로쇠와 침체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청춘의 기백이 약동하는 패기있고 생기발랄한 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위대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섬멸전의 방법으로 해제끼며 온 나라 청년들을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로 와짝 불러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전진하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수령님과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근위대, 결사대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만대에 꽃피워나가는 당의 전투적후비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여나갈것이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김 덕 현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광에 찬 혁명의 길을 달려온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오늘 가장 보람찬 시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처하여있다.

당중앙에서는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이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적출판보도물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그의 성격과 기본사명, 근본원칙과 기본임무를 새롭게 정식화하고 출판보도사업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위대한 방침을 내놓았다.

당에서 제시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전투적기능을 더욱 높일데 대한 사상과 방침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과 함께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숭고한 위업수행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그것은 또한 출판보도사업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획기적리정표로 되며 출판보도일군들의 행동강령을 전면적으로 밝혀준 끝없이 귀중한 혁명의 교과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을 더욱 심화시켜 내놓은 당의 출판보도 사상과 리론은 참으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더욱 풍부히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불멸의 의의를 가지는 끝없이 귀중한 투쟁의 무기이며 영생불멸할 사상리론적재부이다.

모든 출판보도일군들은 당에서 내놓은 주체적출판보도 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를 사업에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우리 당 출판보도물로 하여금 명실공히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간지도하시는 새형의 주체의 출판보도물이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영광스러운 혁명적출판보도물이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혁명적출판물의 고귀한 혁명전통을 이어받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면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새형의 주체적출판보도물을 창간하시고 그것을 조선혁명수행에 이바지하는 강력한 사상적무기로 되게 하심으로써 혁명적출판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전개된 세계최초의 민족해방혁명전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주체시대앞에 제기된 새로운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가는 행정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가장 위대하고 혁명적이며 다방면적이고 심오하며 가장 억센 생활력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우리 당 출판보도물을 창간하시고 그를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보도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간하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형의 주체의 혁명적출판보도물이다.

출판보도물은 시대의 산물이며 시대와 밀접한 련관속에서 끊임없이 발생발전한다. 출판보도물이 시대의 선구자로, 예리한 촉각으로, 사회의 참다운 이목으로,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되려면 시대의 본질적요구와 그를 대표한 선진사상의 적극적인 전파자, 옹호자, 관철자로 되여야 한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시여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그를 전파하고 옹호하고 관철하여야 할 새형의 출판물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은 주체시대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고있으며 그를 대표한 출판보도물로 창간되였다.

우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새형의 주체의 출판보도물의 출현,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물의 발전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로 되며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새형의 주체의 출판보도물이 출현함으로써 우리는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며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출판보도물을 가지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강력한 사상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목적으로 하고있는 가장 혁명적인 출판보도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공화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3페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출판보도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수령님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다.

출판보도물의 지도사상은 그 방향과 활동을 규정하는 근본문제로서 옳바른 지도적지침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혁명적출판보도물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문제이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지도사상인 수령님의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은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물건설의 유일하게 옳은 지도사상이다. 그것은 당적출판보도물건설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혁명적출판보도물앞에 나서는 사명과 임무, 그 기능과 역할에 관한 문제, 혁명이 먼저 승리한 혁명기지에서 전국적인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출판보도물이 놀아야 할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매개 출판물의 특성을 살릴데 대한 문제, 글을 알기쉽고 간결하게 통속적으로 쓰며 편집에서 다양성, 생동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혁명적출판보도사업에 대중을 참가시킬데 대한 문제, 기자, 편집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

히 선 공산주의적문필전사로 키울데 대한 문제,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 등 출판보도실천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해명이 주어진 탁월한 사상이다.

참으로 수령님의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은 각이한 혁명단계에 있는 모든 혁명적출판물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며 혁명적출판보도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백과전서적인 사상이다. 이것은 우리 당 출판보도활동의 실천투쟁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가장 보편적인 진리로서 로동계급의 혁명적출판보도물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유일하게 옳은 지도사상이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수령님의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을뿐아니라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

출판보도물의 기본사명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그 혁명성과 전투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투쟁목적과 사명이 가장 혁명적으로 정확하게 설정되여야 그를 실현하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출판보도물의 성격이 혁명적인것으로 될수 있으며 대를 이어 자기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당중앙은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개조하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데 그 기본임무가 있다는것을 새롭게 밝혀주었다.

당에서 새롭게 밝힌 이 탁월한 사상은 우리 당적출판물의 성격과 기본사명과 임무를 명백히 하고 그 전투적기능을 백방으로 높일수 있게 한 위대한 사상이며 우리 당 출판보도물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우리 당의 가장 예리하고 전투적인 사상적무기로 되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다.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은 그처럼 위대한 혁명사상, 수령님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으며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혁명적출판보도물의 선두대렬에서 당당하게 앞서나가고있으며 새형의 주체의 출판보도물로서의 그 위용을 자랑차게 떨치고있는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의 력사적뿌리에서 태여났고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가장 혁명적인 출판보도물이며 수령님의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백전백승의 당적출판보도물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것을 숭고한 목적으로,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는 영광스러운 혁명적출판보도물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혁명적본질이 있으며 그의 가치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표징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작가, 예술인들과 출판보도부문일군들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예선전활동으로, 직접적인 로력투쟁으로 3대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신년사》, 1974년 1월 1일, 7페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가는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언제나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여왔으며 자기의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배려 밑에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우리 혁명발전의 전기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교양하는 강유력한 사상적무기로 적극 이바지하였다. 또한 그것은 수령님께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제시하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으며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온갖 잡탕사상들에 사상적포화를 퍼붓는 강력한 사상적무기로 적극 이바지하였다.

오늘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당중앙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지도밑에 자기 발전의 새로운 개화기에 들어서고있으며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기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에서 앞장서나가는 사상적기수로, 돌격의 나팔수로서 무궁무진한 견인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 *

오늘 우리 당 출판보도물앞에는 당중앙이 내세운 전투적강령인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무겁고도 숭고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입니다.》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79페지)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대중을 무장시키고 그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당이 내세운 혁명과업실천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것은 당적출판보도물의 기본기능이다.

당중앙에서는 오늘 우리의 당적출판물과 통신, 방송 앞에 나서고있는 기본사명이 모든 사회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사회를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 있다고 가르치였다.

우리 출판보도물의 기본사명에 대한 당중앙의 이 사상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과업이 전면에 나서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출판보도사업의 총적방향과 목표를 명시하여준 위대한 사상이며 우리 당적출판보도물이 자기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할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준 전투적기치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것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 출판보도사업에서 가장 선차적과업으로 된다.

사회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만드는것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가장 근본문제이다. 사상개조, 인간개조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사회의 공산주의적개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그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사람들부터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것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수령님의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로 만들면서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라야만 우리의 출판보도물은 모든 사람들을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끝없이 깨끗하고 뜨거운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교양하는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될수 있다.

당적출판보도물은 또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당정책을 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설선전하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폭넓고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주체의 혁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함께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하는 기사와 편집물들을 생동하고 다양하게 그리고 예리하고 전투적으로 더많이 만들어내보냄으로써 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똑바로 서고 제국주의와 착취제도 그리고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정신과 옳바른 전쟁관점을 가진 주체형의 혁명투사로 키우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놀아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이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교양개조하는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근로자들의 믿음직한 벗으로 될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앞당겨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 될수 있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또한 경제와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추동하는 선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정치선전과 경제선전을 밀접히 결합하며 특히 경제선동을 전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섬멸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중앙의 이 방침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정치적과업과 경제적과업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특히 당면한 사회주의대건설을 추동하는데 당적출판보도물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방침이다.

정치선전과 경제선전을 밀접히 결합시키지 못하고 어느 일면에만 치우친다면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정치선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여기에 경제선전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특히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경제선동을 맹렬하게 벌리며 혁명의 북소리,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가 모든 일터마다에 세차게 울려퍼지게 함으로써 온 나라를 새로운 기적과 혁신으로 끓어번지게 하며 사상혁명과 함께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당중앙의 현명한 지도밑에 지난해말 기양과 덕천에서 벌린 대경제선동 경험을 적극 살려 사회주의대건설의 중요전선, 중요한 돌파구들에 직접 나가 들끓는 현장에서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과 신문, 방송을 통한 경제선동을 전격적으로 패기있고 통이 크게 벌림으로써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며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족최대의 과업인 조국통일의 위업을 실현하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드는것은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자기의 기본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나서는 또하나의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조국통일방침을 더욱 진공적으로 선전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침략과 매국배족을 일삼는 미제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을 비롯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천추에 용납못할 죄행을 준엄히 폭로규탄하며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자유와 독립,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자주, 자립의 길로 나가는것이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는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의 주체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적투쟁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들에게 련속타

격을 가하고 집중포화를 들이댐으로써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이 원쑤들의 온갖 죄행을 날날이 폭로단죄하는 예리한 론고장으로, 놈들에게 멸망과 죽음을 선고하는 력사의 심판대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력사적사명과 기본임무는 매우 어렵고 중대하며 보람차고 영예로운것이다.

이 보람찬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무엇보다도 당중앙이 밝힌 당적출판보도활동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을 조금도 드팀없이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당에서는 주체의 원칙을 자기활동의 기본초석으로 삼는 문제, 당의 유일적지도를 성실히 받들어나가는 문제, 《종자》를 바로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 문제를 출판보도활동에서 지켜야 할 근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주체의 원칙은 우리 당 출판보도활동의 근본초석이다. 주체의 원칙을 근본초석으로 삼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불패의 위력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의 원천이 있으며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출판보도활동에서 주체의 원칙을 근본초석으로 삼는다는것은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그에 기초하여 출판보도물을 편집발간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출판보도활동에서 주체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만 우리의 출판보도물이 그 어떤 잡탕사상에도 오염되지 않고 주체의 혈통을 빛나게 이어나가면서 사람들의 심장속에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깊이 심어줄수 있고 충성의 뜨거운 불씨를 안겨줄수 있으며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숭고한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또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당의 유일적지도에 충실해야 한다. 당의 지도를 떠난 출판보도활동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다.

출판보도사업에서 당의 유일적지도를 충실히 받들어나간다는것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해나가며 당의 의도와 당이 내놓은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한다는것을 말한다.

모든 출판보도일군들이 당의 유일적지도를 충실히 받들어나가야만 수령님께서와 당중앙이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출판보도선전을 벌려나갈수 있으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출판보도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이 땅우에 훌륭히 꽃피워나가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종자》를 바로잡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우리 당 출판보도활동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다.

《종자》를 바로잡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 여기에 수령님의 의도와 구상이 현실에서 활짝 꽃피여나게 하는데 실지로 이바지하는 열쇠가 있으며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보도성과 정론성, 과학성과 진실성, 기동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종자》를 바로쥔다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기본핵을 틀어잡는것이며 《속도전》을 벌린다는것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 최단기간안에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한다는것을 말한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종자》를 바로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매시기 제시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즉시에 출판물, 방송, 통신을 통하여 광범한 대중속에 침투되도록 하며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는 좋은 글을 더 많이, 더 빨리 내보내여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자기앞에 맡겨진 중대한 과업을 성과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출판보도사업에서 고질적인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결정적으로 마스고 신문, 보도, 방송, 출판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는것이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서 출판보도선전에서 그 이전시기의 낡은 관점, 기성관례에서 완전히 벗어나 모든것을 새로 시작할것을 요구한다.

출판보도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방도는 항일유격대식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것이다.

우리 출판보도부문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방법을 출판보도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혁명적출판일군들이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혁명적출판물을 만들어낸 고귀한 경험과 혁명적사업기풍을 꾸준히 따라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당 출판보도물을 전투적이고 호소적이며 참신하고 다양하게 통속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출판보도선전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담보는 그의 직접적담당자인 기자, 편집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준비시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이 당정책을 해설하고 군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동원할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하려면 동무들자신이 누구보다도 당정책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68페지)

우리 기자, 편집원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되여야 한다.

당에서는 우리 기자, 편집원들에게 당중앙의 가장 가까이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리론적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친위대, 결사대, 당사상선전의 주공을 담당한 영광스러운 주력부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널리 해석선전하며 그 철저한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정치활동가, 혁명의 필봉으로 계급적원쑤들과 무자비하게 견결히 투쟁하는 투사들이라는 가장 고귀하고 영예로운 칭호를 주었다. 이것은 우리 출판보도일군들에 대한 한량없이 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이며 높은 기대의 표시이다.

기자, 편집원들을 비롯한 우리 당 출판보도일군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영예로운 임무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기본품성을 완전히 갖춘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정수분자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며 모두가 독학가, 정열가가 되여 누구보다도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소유하며 혁명적조직생활과 출판보도실천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언제나 로쇠를 모르고 혁명적정열과 청춘의 기백에 넘쳐 살며 일하는 주체형의 피가 끓어넘치는 우리 당의 참된 문필전사로 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은 력사와 시대가 우리 당 출판보도물앞에 제기한 가장 숭고한 사명이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그 어떤 출판보도물도 지닐수 없는 최대의 영광,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있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이 숭고하고 책임적인 사명을 다함으로써 새형의 주체의 출판보도물의 참다운 면모를 더욱더 완성해나갈것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의 유일적지도를 받들어나가는 끝없는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갈것이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민족적바탕우에서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

한 중 모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에서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민족적바탕우에서 발전시킬데 대한 사상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적인것을 문학예술발전의 바탕으로 삼을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을 조선사람들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고 조선인민과 조선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되게 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당에서는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과 세심한 지도로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이 민족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 찬란히 개화발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은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인 혁명적문학예술로 더욱 찬란히 꽃피여나고있다.

문학예술을 민족적바탕우에서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을 힘있고 찬란하게 개화발전시켜나가게 하는 가장 올바른 길을 환히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문학예술을 민족적바탕우에서 발전시키는것을 조선인민과 조선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주체적인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창조하고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음악은 반드시 조선적인것이 바탕으로 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아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52페지)

《우리의 미술은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되여야 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 미술로 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미술이 철저하게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훌륭한 민족적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것입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392~393페지)

조선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문학예술에서 주체란 조선사람들의 비위와 정서에 맞게 하는것을 의미한다.

문학예술이 민족적바탕우에서 조선사

람들의 비위와 정서에 맞게 되여야 우리 인민에게 쉽게 리해되고 그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따라서 조선인민을 위하여 훌륭히 복무할수 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민족적인것을 문학예술발전의 바탕으로 삼는것은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 인민대중과 혁명위업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문학예술이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되려면 무엇보다도먼저 사회주의적내용을 가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내용이란 혁명적인 내용, 계급적인 내용 다시말하면 낡은것은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내용, 근로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내용,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내용, 모든 사람들을 다 잘살게 하자는 내용 등이다.

사회주의적내용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혁명적본질과 당적, 로동계급적, 인민적 성격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이며 결정적조건으로 된다.

문학예술이 사회주의적내용을 가져야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혁명위업수행에 몸바쳐나서도록 고무하는 혁명의 참다운 교과서로서, 로동계급의 당의 수중에 장악된 힘있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다할수 있다.

우리 문학예술에서 사회주의적내용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를 빛나게 그려야 한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과 그것을 계승한 현시기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모습과 약동하는 현실을 정당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작품에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차고 위대한 수령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대를 이어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충성심을 형상하며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뚜렷이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예술이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며 근로하는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되려면 사회주의적내용을 옳게 구현하는것과 함께 민족적형식을 가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민족적형식은 조선사람이 좋아하고 조선사람의 구미에 맞는 그런 형식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에 민족적형식을 부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인민들의 창조적지혜와 예술적재능에 의하여 오랜 력사적기간에 걸쳐 이룩되였으며 조선사람들의 생활감정과 미학적기호가 깃들어있는 예술적형식들을 적극 살려 써야 한다.

민족적형식, 조선사람이 좋아하고 조선사람의 구미에 맞는 예술적형식을 살려써야 문학예술이 우리 인민의 심금을 울리며 그들에게서 사랑을 받을수 있다.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는것은 조선인민과 조선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주체적인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발전시켜나가는 가장 옳은 길이다.

당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혁명적인 문학예술 즉 조선인민에게 복무하고 조선혁명을 촉진하며 그것으로써 세계혁명에 이바지하는 전혀 새로운 우리 식의 문학예술로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았다.

당중앙이 밝힌 우리 식의 문학예술, 이것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

일적인 체제이며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반영한 내용과 조선사람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고 그들이 좋아하는 민족적형식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주체시대의 새형의 문학예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은 민족적인것을 바탕으로 하는것이 문예작품에 민족적특성을 풍부하게 구현하여 문학예술을 인민들의 정서와 구미에 맞게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는것을 밝혀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곡가, 극작가, 음악가, 무용가 및 연기자들은 반드시 인민들의 생활을 깊이 연구하여야 하며 창작 사업에서 인민들이 창조하고 인민들의 감정과 숙망을 정당하게 반영한 민족 고전과 인민가요들을 널리 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공연들에서 연기자들은 인민의 감정을 체현하여야 하며 인민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인민적 선률을 선명하게 표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의 예술이 우리 인민의 민족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우리 혁명에서의 문학예술의 임무》, 12～13페지)

문학예술창작에서 인민들의 생활을 민족적형식으로 반영하는것은 작품에 민족적특성을 구현하는 기본방도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이 민족적특성을 풍부히 표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성격과 근로대중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민족적특성은 민족적 성격과 생활속에 깃들어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진실하게 그려내야 문학예술작품에 민족적특성을 옳게 나타낼수 있다.

문학예술작품에 민족적특성을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민족적형식을 옳게 살려야 한다.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인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민족적인 예술형식, 민족적 표현수단들과 묘사수법들에는 우리 인민에게 고유한 우수한 특성들이 재현되여있으므로 그것들을 옳게 살려쓰는것은 문학예술작품에 민족적특성을 나타내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문학예술을 만들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바탕으로 삼아야 할 민족적인 예술형식들과 그 우수한 특성에 대하여 심오하게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음악과 무용은 그 선률과 률동이 우아하고 점잖으며 유순하고 부드러운것으로 특징적이다.

우리 인민은 미술분야에서도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한것이 특징으로 되여있는 고유한 미술형식인 조선화를 발전시켜왔다. 그 화법은 간결하고 선명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예술적재능에 의하여 이루어진 민족예술의 우수한 특성을 심오하게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을 민족적바탕우에서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은 민족적인것을 바탕으로 하는 주체적인 사회주의적문학예술, 조선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조선혁명의 성과적수행에 이바지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민족적형식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혁신하여야 한다는것을 심오하게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요, 음악, 무용 등 각 부면에서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 우수한 특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새 생활이 요구하는 새로운 리듬, 새로운 선률, 새로운 률동을 창조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이 가지고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형식에 새로운 내용을 담올줄 알아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29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

이 문학예술을 우리 인민들의 리익에, 인민들의 생활에, 인민들의 사회활동에, 인민들의 모든 정치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민족적형식을 고정불변하게 할 것이 아니라 현대적미감에 맞게 개조하고 혁신하여야 한다.

민족적형식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혁신하는것은 인민대중과 혁명위업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근본사명과 기본임무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민족적인것을 문학예술발전의 바탕으로 삼으며 창작에서 민족적형식을 살리는것은 어디까지나 오늘의 우리 근로하는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한것이다.

민족적바탕에 의거한다고 하여 지난날의 사회력사적조건에서 오는 제한성을 가지고있는 예술형식을 그대로 되풀이하거나 옮겨놓아가지고서는 혁명과 투쟁으로 충만되고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우리의 약동하는 현실생활을 옳게 반영할수 없으며 문학예술이 오늘의 우리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을수 없다. 창작에서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며 문학예술을 오늘의 우리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지향과 정서와 미감에 맞게 발전시키려면 민족적형식을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혁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여 당에서는 혁명적문학예술은 내용에서만 혁명적이여서는 안되며 형식에서도 혁명적인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았다.

당의 이 사상은 문학예술의 민족적형식을 새로운 현실의 요구에 맞게 대담하게 혁신함으로써 그것을 혁명적내용과 완벽하게 통일시켜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하며 문학예술을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사람들의 생활감정과 정서는 시대와 사회적조건의 변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을 현대인들의 정서와 비위에 맞게 만들려면 민족적형식을 변천하는 시대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혁신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족적형식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하여 그것이 가지고있는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까지 제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편향은 문학예술에서 민족적형식을 옳게 살릴수 없게 하며 작품의 민족적특성을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민족적형식에서 그에 고유한 우수한 특성을 보존하면서 그것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혁신하여야만 혁명적내용을 옳게 표현할수 있으며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고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창조하고 발전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당중앙은 민족적바탕우에서 문학예술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복고주의는 시대의 요구와 계급적원칙을 떠나서 지난날의것을 덮어놓고 되살리며 찬미하는 반맑스주의적사상조류이다.

지난날의 낡은 예술형식을 그대로 본따거나 되풀이해가지고는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건전하고 참신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없을뿐아니라 오히려 그 발전을 가로막는 해독적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문학예술분야에서 복고주의가 허용되면 지난날의 낡고 불건전한 문학예술이 머리를 쳐들고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흐리게 하며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반동적인 사상이 자라나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좀먹게 된다.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배격하고 지난날에 이루어진 민족적인 예술적형식을 현대적미감,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에 맞게 혁신하여야 사회주의적내용과 민족적형식의 옳은 결합을 실현하며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힘있고 찬란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당중앙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민족적바탕우에서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관철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방도와 원칙을 뚜렷이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을 근로하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문학예술로,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하게 하시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활동과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은 모든 종류와 형태에서 민족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문예분야에서 주체를 세운 결과 우리의 문학예술은 민족적바탕을 가지고 빨리 개화발전하게 되였으며 근로대중의 생활과 로동을 즐겁고 흥겹게 하는데 복무하게 되였습니다.》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22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의 빛발아래 당의 지도를 따라 우리의 주체적인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종래 예술의 온갖 낡은 틀을 철저히 마스고 민족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 인류문학예술의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경지를 대담하게 개척하면서 찬란히 꽃피여나고있다.

우리의 음악과 무용은 민족적인 선률과 률동에 토대하여 더욱 아름답고 우아하게 발전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미학적교양에 더잘 이바지하고있다.

조선적인것을 토대로 하여 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또한 오랜 발전력사를 가지고있는 민족악기를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리용하는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의 미술은 조선화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키며 그 선명하고 간결한 전통적화법을 새로운 현실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보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우리 식의 주체미술로 활짝 꽃피여났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가극예술의 불멸의 기치로서 현대혁명가극발전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중에서 혁명가극 《피바다》의 탄생을 시발점으로 하여 계속 찬란히 꽃피여나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피바다》식 가극예술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민족적바탕우에서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그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집중적으로 나타내고있다.

《피바다》식 혁명가극은 내용에서 혁명적일뿐아니라 그 형식에서 종래 가극의 낡은 틀을 마스고 완전히 우리 식으로 새롭게 만든것으로 하여 특출하다. 《피바다》식 가극형식의 혁신적특성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워 민족적인 예술형식을 현대적요구에 맞게 혁신하여 발전시킨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피바다》식 혁명가극에서는 가극의 기본형상수단으로 되는 음악과 노래로부터 무용, 무대미술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선적인것, 민족적인것을 바탕으로 하고있다.

가극의 기초로 되는 노래를 절가화하고 그에 토대하여 가극음악을 창조한것은 인민들의 구미에 맞지 않고 리해하기 어려운 종래 가극의 낡은 음악형식을 깨뜨리고 우리 시대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미학적기호에 맞는 새로운 가극형식인 《피바다》식 가극의 탄생을 가져오게 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가극의 노래를 절가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 가사들을

절가로 만들고 그에 맞게 아름답고 유순한 민족적선률로 곡을 만듦으로써 가극의 음악을 인민적이며 통속적이며 민족적인것으로 일관시키게 하였다.

《피바다》식 가극에서는 또한 방창을 새로 도입하고 그것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가극예술의 인민성과 민족적특성을 구현하고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가극력사발전에서 독창적인 기여를 하였다.

《피바다》식 가극에서는 관현악도 절가에 맞추어 민족관현악의 특성을 잘 살림으로써 가극의 인민성과 민족적특성을 두드러지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가극의 기본형상수단인 음악과 잘 배합하여 우아하고 부드러운 민족적률동을 바탕으로 한 무용을 적절하게 도입한것은 주인공들의 성격을 부각시키고 작품의 주제사상을 해명하는데서뿐아니라 가극의 민족적색채를 진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피바다》식 가극에서는 무대미술도 조선화의 화법에 고유한 선명성, 간결성, 섬세성을 잘 살림으로써 사실주의적진실성과 민족적특성으로 일관된 주체미술의 위력을 남김없이 나타내고있다.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우리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민족적바탕우에서 발전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있다.

문학예술을 민족적바탕우에서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당의 현명한 방침은 우리 민족문학예술을 가장 건전하고 찬란하게 개화발전시켜나가게 하는 유일하게 옳은 길을 환히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와 박정희파쑈도당의 반동적문예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문학예술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미국식부르죠아문학예술과 왜색문화가 판을 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의 빛발아래 민족적바탕우에서 찬란히 개화발전한 우리의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주체문학예술은 바로 우리의 문학예술이 나가는 길만이 민족문학예술을 참으로 아름답고 건실하게 꽃피워나가는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과 진보적인 작가, 예술인들에게 커다란 민족적자부심과 긍지를 안겨주며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오늘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민족적바탕우에서 전면적인 개화발전을 이룩하고있는 우리의 주체적인 사회주의적문학예술에 대하여 《세계혁명적문학예술의 찬란한 기치》, 《동방예술뿐아니라 현대세계예술을 대표하는 예술》로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20세기 사회주의문예부흥은 동방의 조선, 영웅도시 평양에서 시작》되였으며 《온 세계에 밝은 빛을 뿌리며 솟아오른 조선의 주체예술은 인류예술의 진로를 밝혀》준다고 한결같이 인정하고있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이러한 폭풍같은 반향과 아낌없는 찬사는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이 우리 시대의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로, 빛나는 모범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말하여주고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예전사된 높은 영예와 크나큰 긍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워나감으로써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남조선괴뢰도당은 극악무도한 파쑈교형리이며 천추에 용서못할 매국배족의 무리이다

김 창 형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나라와 민족 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우리 인민의 극악한 원쑤이다.

극악무도한 인간백정이며 사대매국노인 박정희괴뢰도당은 장기집권과 민족의 영구분렬을 위해 온갖 범죄적책동을 다하고있으며 제놈들의 반인민적, 매국배족적 본성을 완전히 드러내놓고있다.

박정희도당은 남조선의 력대괴뢰통치배들가운데서도 가장 악독한 매국배족의 무리로서 초보적인 인권과 민주주의마저 교살하고 나라와 민족을 미일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고있으며 남조선땅을 피비린내나는 인간도살장으로, 생지옥으로 만들어놓았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민족의 념원과 시대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조국통일을 한사코 반대해나섬으로써 조국과 민족앞에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매국역적이다. 이 역적놈은 장기집권을 위해 온갖 분렬주의책동을 감행하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과 전쟁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민족분렬의 비극적인 력사가 오늘까지 지속되고 남북대화가 중단상태에 빠지게 된것도 전적으로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사촉밑에 있는 남조선괴뢰도당의 분렬주의책동때문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이야말로 남조선땅을 파쑈폭압과 살인만행이 횡행하는 무법천지로 만들어놓은 세상에 둘도 없는 군사불한당이며 미일제국주의자들에게 조국과 민족의 리익을 통채로 떠맡긴 2중의 매국노이며 조국통일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아나서는 인민의 극악한 원쑤이며 인간쓰레기이다.

《집권》13년동안 박정희괴뢰악당이 해온 모든 짓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으며 오늘의 남조선현실이 그것을 충분히 증명하고있다.

《최대의 감옥간수》, 중세기적인 암흑통치

박정희괴뢰도당은 극악한 파쑈교형리로서 남조선에서 제놈들의 파쑈독재를 유지하며 민족분렬을 영구화하고 조국통일의 길을 가로막기 위하여 《집권》첫날부터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진보적세력과 애국력량을 류례없는 폭압속에 몰아넣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위정자들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전례없이 강화하고 있으며 평화통일을 요구한다고 하여 남조선청년학생들과, 량심적인 지식인들 지어는 종교계인사들까지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하고있으며 남조선전역을 살기어린 감옥으로 전변시키고있습니다.》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 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10페지)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와 박정희괴뢰악당이 실시하고있는 군사파쑈통치는 전례없는 횡포성과 야만성을 띠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가장 악랄한 식민지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은 인간의 존엄과 모든 리성이 무참히 유린되고있는 중세기적인 암흑천지이며 사람못살 세상이다. 남조선땅은 말그대로 《흡혈귀들의 광대놀음》이 판을 치는 살인감옥으로, 교형장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참혹한 현실은 인간백정 박정희도당이 감행한 온갖 반인민적인 범죄적책동의 필연적결과이다.

무지막지한 박정희살인악당은 미제의 비호밑에 총칼을 휘둘러 괴뢰정권에 들어앉은 첫날부터 민주주의의 횡포한 교

살자로,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악독한 교형리로 등장하여 야만적인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온 남조선땅을 인민의 피로 물들여왔다.

이 역적놈은 파쑈독재를 지탱해나가기 위해 직업적특무집단인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파쑈적폭압기구를 조작하고 첩보, 특무, 경찰 등 폭압력량을 대량 증가하여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탄압하는데로 내몰았다. 한편 박정희괴뢰악당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특수범죄처벌법》을 비롯한 4,500여건의 파쑈악법을 만들어내여 남조선땅을 삼기어린 폭압망으로 뒤덮었다. 바로 그러기에 오늘 세상사람들은 《남조선중앙정보부는 게스타포와 같다.》라고 하고있으며 박정희놈을 가리켜 《가장 가혹하고 가장 철저한 감옥간수》라고 부르고있는것이다.

남조선땅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이 감행하고있는 악랄한 파쑈독재와 살륙만행은 력사적으로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충실히 복무해온 매국역적으로서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원래 박정희일당은 지난날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피흘려싸울 때 일제에게 혈서로써 충복을 다짐한 친일주구이며 일제가 패망한후에는 미제의 특무로 변신하여 남조선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밀고하여 학살케 한 철저한 《반공》분자이며 매국역적이다.

사실상 이러한 살인주구가 아니고서는 감히 오늘과 같은 악행을 거리낌없이 저지를수가 없는것이다.

최근년간 박정희도당의 횡포성은 《비상사태》와 《비상계엄령》, 《위수령》을 련이어 선포하고 《10월유신》과 《긴급조치》 소동을 벌려 파쑈적전횡을 미친듯이 감행하는데서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감행한 《10월유신》소동은 바로 남북대화의 막뒤에서 1인독재체계를 확립하고 조국의 현 분렬상태를 영원히 고정화함으로써 제놈의 영구집권을 실현할것을 추구하고있는 악랄한 폭압책동이며 이른바 《긴급조치》는 그에 따르는 극악한 군사포고령인것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긴급조치》를 휘둘러대면서 더욱더 많은 《사건》을 날조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싸워온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체포구금하며 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고있다. 놈들은 올해 4월에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을 조작하여 4,000여명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종교계인사들까지 검거투옥하고 야수적인 고문을 가하던 끝에 력사상 류례없는 살인적인 《군사재판》놀음을 벌려놓고 《내란죄》, 《국가변란기도》 등 극단적인 죄명을 들씌워 50여명을 무데기로 극형과 중형에 처형하였다.

박정희파쑈악당들의 폭압이 얼마나 횡포하고 파렴치한가 하는것은 야당인사, 《국회의원》, 종교인, 언론인 할것없이 마구 체포구금하고 학살하며 일체 반대파세력을 모조리 제거말살하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는데서도 잘 알수 있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놈들은 50만딸라의 자금에 30여명의 특무를 동원하여 이른바 《안개작전》이란 이름밑에 해외에 망명하고있던 민주인사까지 랍치해오는 야만적인 국제깡패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였으며 끝끝내 그에게 터무니없는 죄명을 씌워 중형에 처형하려 하고있다.

박정희악당이 감행하고있는 살인귀적만행은 초보적인 인권과 민족적지향에 대한 가장 악랄한 도전이며 인민들의 버림을 받고 죽어가는 놈들의 마지막발광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살인만행은 우리 인민과 사회주의나라 및 제3세계나라 인민들뿐아니라 일본, 미국, 서독을 비롯한 수많은 자본주의나라 정치계, 사회계와 언론계로부터도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오늘 세계인민들은 동서고금에 류례없는 가장 횡포하고 가장 잔인하며 가장 규모가 큰 이 야수적인 인간도살행위를 가리켜 《중세기적인 암흑재판》, 《정권유지를 위한 극단적인 정치재판》이라고 한결같이 저주하며 규탄하고있는것이다.

력사에는 파쑈교형리들이 적지 않았지만 박정희파쑈도당과 같이 악착스럽기 그지없는 그러한 인간백정은 일찌기 없었다.

박정희도당이야말로 그 포악성과 잔인성에 있어서 세상에 둘도 없는 군사깡패이며 제놈의 영구집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범죄도 서슴없이 감행하는 악랄한 파쑈교형리이다.

미일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추악한 사대매국노

박정희괴뢰도당은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쑤인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상전으로 섬기면서 남조선에 대한 놈들의 침략책동을 적극 받아들이는 매국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의 매국세력은 나라와 민족을 분렬시켜 외래침략자들에게 팔아먹는 대가로 자기의 권세욕을 충족시키며 일신의 부귀영화를 누려보려 하고있습니다.》(《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6페지)

사대망국사상이 골수에 밴 박정희역도는 미일침략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송두리채 내맡긴 매국노이며 력대괴뢰들중 가장 흉악한 만고역적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괴뢰정권에 들어앉기바쁘게 미제상전에게 《미국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으며 《성조기와 더불어 언제나 함께 행동하겠다.》고 맹세함으로써 처음부터 매국노라는것을 자처해나섰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고 그의 침략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선행한 력대괴뢰들이 조작한 《한미호상방위조약》, 《한미경제및기술협정》 등 온갖 예속적이며 매국적인 조약과 협정들을 더욱 개악하고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군사기지로 더욱 철저히 전변시켰다.

놈들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자위적행동》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을 전조선과 아세아 침략을 위한 미제의 완전한 군사기지로 내맡겼을뿐아니라 남조선의 경제명맥을 미제독점자본의 제물로 서슴없이 바치고 그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고있다. 지어 박정희괴뢰도당은 상전의 지시에 따라 30여만명의 남조선청장년들을 미제의 남부웰남침략전쟁터에 내몰아 수많은 청장년들을 놈들의 총알받이로 개죽음을 당하게 하는 치욕스러운 범죄까지 저질렀다. 박정희역적은 또한 《이민》이란 간판밑에 10만명의 남조선의 가난한 주민들을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의 악착한 착취배들에게 팔아먹는 《노예매매》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팔아먹는것으로도 부족하여 철천의 원쑤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매국역적 박정희도당은 미제의 조종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범죄적인 《한일조약》을 맺음으로써 놈들에게 재침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그것을 《합법화》하였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공공연히 결탁하는 길에 들어섰다. 《대동아공영권》의 옛망상에 사로잡힌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예속적인 《한일조약》체결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면에 걸쳐 남조선에 물밀듯이 쓸어들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군사기지일뿐아니라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들씌운 일본군국주의자들의 2중의 식민지로 되고있다.

박정희매국도당은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공업소유권협정》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리권과 바다밑자원까지 탐욕스러운 일본《경제동물》에게 내맡겼으며 공해산업을 마구 끌어들여 남조선천지를 산업오물의 배설장으로 만들어놓았다.

민족적량심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박정희매국도당은 이른바 《매춘관광》을

벌려놓고 그것을 《해볼만한 기업》이라고 떠벌이면서 남조선녀성들을 상전에게 성의 노리개로 섬겨바치고있다. 그러므로 오늘 자본주의나라 출판물들까지도 박정희괴뢰도당을 가리켜 《매춘부를 사고 파는 거간군》, 《뚜쟁이정권》이라고 비웃는것이 우연하지 않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외세의존, 사대매국책동은 남조선에서 더욱더 엄중한 경제적파국과 온갖 사회악을 빚어내고있다.

오늘 남조선경제는 더욱 파탄몰락되고 원료와 자재를 미일독점자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있는 철저한 식민지예속경제로,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적부속물로 되고있다.

박정희도당이 《근대화》요, 《부흥》이요 하면서 외자를 무데기로 끌어들인 결과 남조선은 50억딸라가 넘는 빚더미에 짓눌린 《외자망국》으로, 《국제채무노예》로 전락되였다.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렇게 외국독점자본을 적극 끌어들이고 궁극에 가서는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리권보호》를 구실로 무력침입까지 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줌으로써 외세에 매달려 제놈의 권세욕을 채우며 일신의 안일과 향락을 누리려는것이다. 그것은 박정희도당이 《대재벌이 거액의 투자를 하면 그것은 한개 보병사단을 주둔시킨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떠벌이고있는데서도 잘 알수 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의 반인민적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은 미일제국주의 침략과 략탈의 희생물로 되고있으며 가난과 실업, 굶주림으로 그들의 생존의 위협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여기에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왜풍, 온갖 말세기적풍조가 만연되여 남조선땅은 말그대로 썩고 병든 사회, 《범죄의 소굴》로 되였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괴뢰도당의 반인민적책동의 직접적산물로서 박정희도당이야말로 한쪼각의 민족적량심과 자주권의 흔적조차 없는 철저한 식민지괴뢰이며 사대매국노라는것을 말해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하는 인민의 극악한 원쑤

조국과 민족 앞에 저지른 남조선괴뢰악당의 죄악가운데서도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민족반역행위는 가장 큰 범죄이다.

우리 나라에서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문제이다. 분렬을 막고 통일을 이룩하여야만 우리 인민은 전국적판도에서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을 실현하고 빛나게 수호할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언제나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민족최대의 임무로 내세우고 매 시기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을 주동적으로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매국역적 박정희도당은 전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한 우리의 정당한 제안들을 매번 반대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아나섰다.

우리 나라에서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전과정은 통일로선과 분렬로선의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있다.

미제와 그 충실한 개 박정희도당의 분렬주의책동으로 말미암아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지 2년이 넘는 오늘까지 공동의 합의사항은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통일의 밝은 전망은 다시 흐려졌으며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는 의연히 해소되지 않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오늘 민족의 영구분렬이냐, 통일이냐 하는 엄중한 난국에 부딪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조종밑에 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에 도장을 찍은 이튿날로 그것을 믿을수 없는 종이장에 불과한것이라고 하면서 찢어버렸습니다.》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2폐지)

박정희도당은 남북공동성명에 서명하

고 돌아앉자마자 《이 몇장의 성명에 우리의 운명을 접칠수 없다.》고 하면서 공동성명에 명시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로골적으로 유린하며 배신하는 길에 들어섰다.

우리는 원쑤들의 분렬주의책동을 참을성있게 견제하면서 어떻게 하나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대화를 성공에로 이끌며 통일위업을 촉진하려는 립장으로부터 여러가지 합리적인 제안들을 거듭 천명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성의를 다하였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시기 위한 5개항목의 제안, 북과 남사이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제안, 광범한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제안 등 우리가 내놓은 모든 제안들은 어디까지나 대결을 피하고 단결을 도모하며 분렬을 막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구국방안들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의 제안들중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모조리 반대해나섰으며 합의된 원칙을 공공연히 배반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에 합의하고서도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을 외세가 아니라고 하면서 놈들의 장기주둔을 애걸해나섰다. 이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나라의 자주통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외세의존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는것을 말해줄뿐이다.

우리 나라에서 남북간에 긴장상태를 가시고 호상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그러나 박정희괴뢰도당은 《대결》과 《경쟁》, 《공존》을 부르짖으며 《실력배양》과 《총력안보》의 구호밑에 군비확장과 전쟁준비에 광분하여왔다.

《승공통일》의 야망에 사로잡힌 남조선괴뢰도당은 《실력배양》을 위해서는 《반공정신확립》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반공궐기대회》와 《반공웅변대회》, 《반공전시회》, 《반공무장강행군》 등 온갖 《반공》소동을 매일같이 벌리고 민족적 단결과 화해가 아니라 대결과 반목감을 고취하고있다. 놈들은 요즘 《정신적인 반공》, 《관념적인 반공》에서 《실질적인 반공》, 《행동적인 반공》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반공》체제를 강화하는데 더욱 미쳐날뛰고있다.

제반사실은 박정희일당이 입으로는 《평화》요, 《통일》이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동족상쟁을 일으켜 《승공통일》의 야망을 이루어보려고 어리석게 날뛰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애당초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의 영구분렬을 위하여 남북대화에 기여나왔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놈들은 량면전술, 지연전술에 매달리면서 분렬을 추구하던나머지 지난해 6월에는 민족분렬을 고정화, 영구화할데 대한 《정책》을 공공연히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세계의 면전에서 제놈들의 《두개 조선 유엔동시가입안》이 파산되자 올해에는 그 무슨 《불가침조약》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요즘 놈들은 유엔총회 제29차회의를 앞두고 《유엔단독가입》을 운운하면서 사방으로 돌아치고있다.

이것은 모두다 본질에 있어서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분렬을 공인된 분렬로 만들고 영원히 《두개조선》으로 갈라지자는것이다.

분렬주의책동을 일삼는 남조선괴뢰도당은 요즘 미일침략자들에게 더욱 매달리면서 놈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따라 모험적인 새 전쟁 도발에 광분하고있다.

놈들은 미일상전으로부터 더욱더 많은 군사《원조》를 끌어들이면서 괴뢰군장비의 《현대화》를 다그치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매일같이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대화의 그늘밑에서 분렬을 영구화하고 장기집권을 노리는 남조선괴뢰악당들의 발악적책동이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말해준다.

박정희괴뢰도당이야말로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의거하여 나라의 분렬을 끝없이 지속시킴으로써 여명을 부지해나가려는 미일제국주의자들의 더러운 주구이며 인민의 극악한 원쑤이다.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도, 조국통일도 이룩할수 없다.

현정세는 매국자들과 외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오직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성취할수 있다.

* *

오늘 박정희괴뢰도당이 벌리고있는 온갖 매국배족적책동은 멸망의 위기에 처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며 놈들의 취약성의 표시이다.

매국역적 박정희도당은 남조선인민들로부터 극도로 고립배격당하고있으며 놈들의 통치층 내부모순도 더욱 격화되고있다. 박정희악당이 파쑈의 몽둥이를 휘둘러 연명해가고있으나 놈들의 멸망은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극악한 파쑈폭압에 매달리는것은 사실상 놈들이 광범한 반대파세력의 포위속에서 더는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있다는것을 의미할뿐이다.

현실적으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책동으로써도 정의의 민족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게 되였다.

지금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상전이 바뀌고 인민들의 분노와 항거가 날로 드높아가는 가운데 극도로 공포에 휩싸여있다. 놈들이 인민들을 탄압하고 처형하는것으로 막다른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무리 발악하여도 그것은 헛된 망상이다. 력사발전의 대세는 오직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파쑈폭압과 사대매국행위, 분렬책동으로 온 민족의 념원을 짓밟고 더러운 장기집권야욕을 채우려는 박정희매국역적놈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인민의 심판대에 끌어내고야말것이다.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고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다. 원쑤들이 탄압하고 발악하면 할수록 그들의 처지는 더욱 어렵게 되고 놈들은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의 치솟는 분노와 반항에 부딪치기마련이다.

지금 놈들의 류례없는 파쑈폭압속에서도 남조선의 혁명력량은 더욱 장성강화되고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은 하나의 대오에 결속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청년학생들 속에서는 항거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반파쑈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심화발전하고있다. 파쑈폭압의 얼음장밑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투쟁기운이 도도한 기세로 굽이치고있는것이다.

해내외의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전세계인민들도 박정희괴뢰악당의 살인귀적만행과 민족분렬책동을 한결같이 저주하며 견결히 규탄하고있다.

남조선괴뢰악당들이 오늘은 비록 총칼로 애국적인민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들씌우며 통일의 길을 방해하고있으나 놈들은 반드시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행위에 대하여 비싼 대가를 치르고 선행한 압제자, 반역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결코 면할수 없을것이며 저들의 상전 닉슨놈의 전철을 밟고 멸망하리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통일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자본주의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김 수 영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 변호론자들은 마치 자본주의사회가 《만민복지》의 사회인듯이 묘사하면서 자본주의사회의 《번영》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성을 가리워보려는 어리석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변호론자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썩을대로 썩은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성을 가리울수 없다.

자본주의사회는 어떤 한면만 보면 마치 호화롭고 번영하는것 같다. 거리에는 여러가지 색갈의 불빛이 번쩍거리며 상점에는 사치한 상품들이 차있어서 모든것이 흥성거리는것같이 보인다. 그런데 이 화려한것들은 그 모두가 다 한줌도 못되는 자본가들을 위한것이지 광범한 근로대중을 위한것이 아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성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자본주의사회야말로 빈부의 차이가 가장 심한 반동적인 사회라는것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사이의 빈부의 차이가 날로 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이며 근로대중을 기아와 빈궁에로 몰아넣는 암담한 생지옥입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28페지)

극소수의 착취계급이 날로 부유해지고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은 더욱 못살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성과 부패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부익부, 빈익빈》은 자본주의제도의 필연적산물

《부익부, 빈익빈》은 자본주의사회발전의 전과정에서 하나의 법칙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제도의 본질과 관련되는 항구적인 현상이다.

자본주의사회는 바로 자본에 의하여 지배되는 반동적인 사회이다.

원래 자본은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그 본성으로 하고있으며 그것은 근로자들의 피땀을 더 많이 짜냄으로써 자본가놈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흡혈귀적존재이다.

자본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이 임금로동자들을 착취하여 부단히 잉여가치를 생산하는것으로써 자체를 증식해나간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생산관계는 곧 자본에 의한 착취관계이며 자본주의적생산과정은 소수자본가들에 의한 자본의 축적과정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을 가진자들은 더욱더 부유해지며 광범한 근로자들은 자본의 착취에 의하여 더욱더 빈궁해진다.

자본의 증식과 착취적본성으로부터 오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강화되고있는 현대자본주의하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대독점들은 그들의 높은 리윤을 유지하기 위하여 로동 계급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더욱더 광범한 계층들의 리익을 침범하고 있습니다.》(《김일성선집》, 제5권, 223페지)

독점자본가들의 탐욕과 착취적야망은 끝이 없다. 독점자본가들은 치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 비대해질수록 한푼의 돈이라도 더 그러모으려 하는것은 자본가들의 고유한 본성이다. 놈들은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생산과 류통을 비롯한 경제명맥전반을 틀어쥐고 더 많은 리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피눈이 되고있다.

독점자본가들은 우선 생산과정에서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여 끓임

없이 비대해진다.

독점자본가들은 근로자들의 로동시간을 연장하여 절대적잉여가치를 생산하는것과 함께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들을 리용하여 주로 상대적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높은 리윤을 추구하고있다. 놈들은 매 생산공정들에서의 작업소요시간을 초시계와 고속도촬영에 의하여 제정한 《예정시간표준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살인적인 《규정》들에 로동자들을 강제로 얽어매놓음으로써 그들을 기계의 단순한 부속물로 전락시키고있으며 그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의 최고한계점까지 깡그리 짜내고있다. 또한 독점자본가들은 경영의 《합리화》란 이름밑에 수많은 로동자들을 내쫓고 적은 인원의 로동자들을 채용하여 더 많은 리윤을 긁어모으고있다.

독점자본가들이 근로대중의 피땀을 얼마나 혹독하게 짜내고있는가 하는것은 오늘 미국의 독점자본가들이 로동자들의 로동력재생산과정에 드는 필요로동시간을 1시간 6분으로 줄임으로써 많은 시간을 모두 제놈들의 잉여가치를 짜내는데 돌리고있는 사실에서도 똑똑히 알수있다.

독점자본가들은 생산과정에서뿐아니라 류통체계를 통하여 크게 치부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류통체계는 다름아닌 독점자본가들이 광범한 근로대중에 대한 추가적수탈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며 근로자들을 빈궁에로 몰아넣는 요인의 하나로 된다.

독점자본가들은 무엇보다도 시장을 독차지하고 여러가지 형태의 착취방법들을 악랄하게 적용하고있다. 놈들은 대중소비품에 대하여 독점가격을 설정하고 판매함으로써 사실상 근로자들이 받고있는 몇푼안되는 임금의 대부분을 도로 빼앗아낸다. 일본에서의 독점가격수준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오늘 일본에서의 독점가격은 생산비에 비하여 텔레비죤은 5배, 비타민약은 10배, 소형승용차는 3배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설정되여있다.

한편 독점자본가들은 팔리지 않는 《과잉》상품들을 《월부판매》, 《외상판매》 등의 형태로 독점가격에 리자까지 붙여 실현함으로써 근로자들을 무거운 빚에 짓눌리게 하고있다.

오늘 독점자본가들은 또한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그 비호밑에 더욱 넓은 범위에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함으로써 끊임없이 살쪄가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국가권력은 독점자본가들이 광범한 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는 도구로 될뿐아니라 놈들에게 리윤추구를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된다.

독점자본가들은 부르죠아국가기구를 통하여 근로대중을 각종 악법들에 얽어매놓고있으며 가렴잡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근로자들로부터 수많은 돈을 긁어내여 제놈들의 배를 불린다. 특히 국가를 리용하여 감행되는 침략과 전쟁은 독점자본가들의 치부와 횡재의 중요한 계기로 된다.

독점자본가들은 침략전쟁의 기회를 리용하여 국가로부터 국가예산에 의한 거액의 대부금, 보조금 등을 제공받으며 가장 유리한 군수품 생산조건과 판매조건을 보장받는다. 놈들은 침략전쟁을 구실로 국가권력의 비호밑에 전시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무제한으로 연장시키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점자본가들은 전쟁기간을 통하여 보통때보다 몇배나 많은 리윤을 얻고있다.

식민지나라들과 뒤떨어진 나라들에 대한 상품수출과 자본수출로 얻는 식민지초과리윤은 독점자본가들의 치부의 중요한 원천으로 된다. 놈들은 이른바 《원조》의 간판밑에 후진국가들에 뚫고들어가 이 나라들을 제놈들의 상품수출과 자본투하지로 만들며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많은 재부를 략탈함으로써 커다란 리윤을 얻고있다.

이처럼 독점자본가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를 악랄하게 감행함으로써 극소수독점자본가들의 손아귀에 막대한 사회적재부를

집중시키고있는 반면에 광범한 근로대중을 빈궁과 령락 상태에로 몰아넣고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자본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의 필연적산물이며 자본에 의한 착취관계의 집중적인 반영으로 된다.

자본가들에게는 《천당》, 근로대중에게는 생지옥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나타나고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바로 자본주의사회가 극소수의 착취자와 압박자들에게는 《천당》으로 되지만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에게는 죽음의 생지옥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빈부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생산물에 대한 분배에서 나타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한줌도 못되는 자본가들은 국민소득의 대부분을 독차지함으로써 백만장자, 억만장자로 되고있으나 광범한 근로대중은 자기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물질적부를 차지하지 못하고있다. 오늘 미국에서는 인구의 2백만분의 1도 못되는 《8대재벌》놈들이 국민소득의 60~70%를 독차지하고있으며 일본에서는 미쯔비시, 미쯔이, 스미도모 등 몇놈안되는 대재벌들이 국민소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수백만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여 막대한 재부를 거머쥔 독점지배층은 온 사회를 좌지우지하면서 향락과 사치, 부화와 방탕한 생활로 더러운 나날을 보내고있다.

한줌도 못되는 자본가들은 막대한 사회적재부를 탕진하면서 호의호식하고있지만 절대다수 근로대중은 무서운 기아와 빈궁 상태에 빠지고있는 바로 이것이 오늘 《만민복지》를 자랑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숨길수 없는 현실이다.

오늘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날로 심화되고있는 독점자본가들과 근로자들사이의 빈부의 차이는 그것을 잘 말해준다.

미국의 대독점재벌인 록펠러란놈은 75개이상의 궁궐같은 집을 가지고 정원관리를 위해서만도 1천여명의 로무자를 고용하고있다. 또한 미국재벌 유퐁이란놈은 호화로운 고급주택 수십채와 24개의 별장을 미국각지에 지어놓고 500여대의 자가용차와 30여척의 유람용배를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있다. 이놈이 살고있는 집안담벽들에 꾸며진 수정과 금강석으로 된 수족관에는 수만딸라를 주고 사온 금붕어들이 들어있으며 우유와 닭알을 푼 목욕탕에서는 보석목걸이를 한 악어들이 목욕을 한다고 한다. 포드라는 재벌놈은 자기 양딸을 사교계에 소개하기 위한 하루저녁의 연회에 100만딸라라는 큰돈을 쓰고있다. 놈들은 돈쓰는것을 하나의 도락으로 삼으면서 인간으로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추잡한 놀음까지 벌리고있다.

미국의 독점자본가놈들은 개, 원숭이, 고양이와 같은 짐승들을 금이발, 금목걸이, 값비싼옷 등 별의별 사치품으로 장식시키고있으며 그것들을 위한 《려관》, 《병원》, 《백화점》들을 만들어놓고 귀중한 재부를 망탕 써버리고있다. 지어 미국의 한 자본가놈은 죽으면서 자기의 재산을 제놈이 기르던 개에게 물려줌으로써 개들이 《백만장자》로 되여 활개치게 하는 추태까지 벌리였다.

미국에서 한해에 자본가놈들이 순전히 동물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장하는데 쓰는 돈만 해도 무려 40억딸라에 달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사회에서 독점자본가놈들은 저들이 기르는 《애완용동물》을 근로하는 《하층사회의 인간》보다도 더 《우대》하고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야말로 동물들이 독점자본가놈들과 한짝이 되여 판을 치는 《개같은 세상》이라는것을 말해준다.

한줌도 못되는 억만장자들이 사회적부를 탕진하면서 향락과 사치, 변태적

인 생활을 하고있을 때 자본주의사회의 다른 한쪽에서는 수백수천만의 근로자들이 기아와 빈궁으로 하여 생존을 기약할수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허덕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가들은 사람의 권리에 대하여 말하지만 사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일할 권리도 없으며 먹고 살 권리도 없으며 병치료를 받을 권리도 공부할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82페지)

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은 현대문명에서 멀리 떨어져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생활조건도 보장받지 못하고있으며 자본가놈들에게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고있다.

실업과 빈궁, 굶주림과 질병,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나라 근로자들의 처지이며 생활이다.

대중적실업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하나의 만성적인 사회현상이며 근로자들의 빈궁과 고통의 주되는 내용이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고있으며 설사 직업을 가진 근로자들도 그것이 공고한것으로 되지 못하여 항시적인 불안상태에 놓여있다.

미제가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에서 완전실업자수는 470만명이나 되며 여기에 반실업자까지 합하면 실로 1천 500만명에 이르고있다. 대중적실업은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에서는 실업자가 160여만명을 헤아리고있으며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룩했다는 일본에서는 완전실업자만 하여도 70만명에 달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날로 늘어나고있는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끊임없이 헤매고있다.

실업과 빈궁 속에서 시달리고있는 자본주의나라 근로자들은 주택난으로 하여 그 처지가 더욱 악화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온전한 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있으며 빈민굴에서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고있다.

미국에서는 한줌도 못되는 대재벌들이 값비싼 호화주택을 독차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있는가 하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7천 70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더러운 빈민굴에서 생활하고있다. 미국 뉴욕 한개 도시에서만도 78만세대가 주택난으로 고통을 겪고있으며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는 100만명의 주민들이 구역질나는 주택조건에서 살고 20만세대가 집이 없어 한지에 나앉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자들의 치료조건은 더욱 한심한 형편에 있다.

사람보다 돈을 더 귀중히 여기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없는 근로자들의 생명은 사실상 헌신짝과 같이 버림받고있다.

병원이 자본가들의 돈벌이를 위한 장소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높은 치료비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은 병이 나도 치료를 받을수 없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간단한 맹장수술을 한번 하는데 250딸라, 해산방조를 한번 받는데도 300~500딸라를 내야 한다. 한달에 평균 150~250딸라의 임금을 받아 여러가지 세금으로 뜯기우고 가족들을 먹여살려야 하는 미국로동자들의 처지에서 병원치료란 생각조차 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미국에서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각종 질병에 신음하고있으며 해마다 52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치료한번 받아보지 못한채 병마의 희생물로 되여 쓰러져가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조건은 날로 심해지는 공해현상으로 말미암아 더욱 혹심하게 파괴되고있다. 공해에 의한 유해로운 오염물질로 수많은 근로자들이 여러가지 질병에 걸려 고통을 겪다가 불구자가 되거나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있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절대

다수의 근로자들은 돈이 없는 탓으로 하여 완전히 문화령역밖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무지와 몽매를 강요당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교육형편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자녀들에게 보통교육을 시키자고 해도 막대한 학비가 요구된다. 그리하여 근로대중의 자녀들은 초보적인 교육마저 받지 못하고있다. 미국에 있는 전문학교들에서 학생 1명의 학비는 년평균 2천~3천딸라, 대학들에서는 2천 600~6천 500딸라에 달하고있다. 이것은 실로 미국의 보통로동자의 년수입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다. 일본에서도 자녀 한명을 소학교나 중학교에 보내려면 적어도 2만원 이상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자본주의사회의 근로자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있으며 설사 학교에 보내는 경우에도 막대한 학비부담때문에 중도에서 학교를 그만두지 않을수 없게 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자들은 독점자본가놈들이 들씌우는 무거운 세금부담, 끊임없이 올라가는 생계비로 하여 더욱 기막힌 처지에 빠지고있다.

출판물들에 의하면 지금 미국근로자들의 어깨우에는 무려 100여종의 각종 세금이 들씌워지고있는데 최근 23년동안 그들이 부담하는 세금액은 4배이상으로 늘어났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또한 여러가지 물건값이 시시각각으로 뛰여오르고있다. 세금과 생계비가 계속 오르고있는 반면에 근로자들의 임금은 사실상 동결상태에 있기때문에 그들의 실질소득은 갈수록 줄어들고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하는 수많은 세대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빚더미에 짓눌려 헤매다가 결국 파산몰락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이렇듯 자본주의사회는 자본가놈들에게는 잘먹고 잘사는 사회로 되지만 근로자들은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장 반동적이며 부패한 사회이다.

빈부의 차이는 남조선에서도 극심하다

남조선사회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사이의 빈부의 차이가 극심한 가장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회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얼마 안되는 지주, 자본가놈들은 잘 먹고 잘살지만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은 판자집과 오막살이에서 숨막히는 생활을 하고있으며 수백만의 실업자들이 일자리와 먹을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남조선사람들은 남조선사회에 대하여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사회주의사회에서의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에 대하여》, 13~14페지)

남조선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미제와 박정희괴뢰악당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책이 빚어낸 결과이다.

남조선의 한줌도 못되는 매판자본가, 지주, 반동관료배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략탈, 더러운 부정부패를 일삼아 막대한 돈을 거머쥐고 온 사회를 쥐락펴락하면서 극도의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있다.

남조선에서 빈부의 차이가 얼마나 심한가 하는것은 몇놈의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수중에 있는 재산이 남조선화폐발행고의 50%를 넘고있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다.

남조선에서 매판자본가, 지주, 반동관료배들은 나라를 팔고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여 긁어모은 돈으로 극도로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고있다. 이놈들은 서울의 동빙고동일대에 보통사람들의 살림집 100채나 지을수 있는 부지면적에 한채에 2억~3억원이나 들여지은 고급주택을 차지하고있다. 이 호화로운 주택들에는 매방의 벽마다에 수정으로 수족관을 만들고 거기에 값비싼 열대지방의 어족을 수백마리나 기르고있으며 정원에는 한그루에 100만원이 넘는 나무

를 심고 1천만원이 넘는 새장을 갖추어 놓고있다. 놈들의 부화방탕한 생활은 매판자본가 한놈의 집에서 한달에 순전히 먹는데 탕진하는 돈이 로동자 100명의 한달로임과 맞먹고있는데서도 똑똑히 알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이놈들이 살고있는곳을 가리켜 《도적촌》, 《강도촌》이라고 부르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몇놈의 매판자본가, 지주, 반동관료배들은 이처럼 향락을 누리고있지만 남조선의 절대다수 근로대중은 일자리가 없고 집이 없고 먹을것이 없어 혹심한 기아와 빈궁에 시달리면서 류랑걸식하고있다.

남조선의 로동자들은 기업주들의 채찍밑에서 12~18시간이상 피땀을 짜내지만 차례지는것이란 오직 기아와 빈궁뿐이다.

남조선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은 등뼈가 휘도록 일해도 입에 풀칠조차 못하고있다. 남조선 총농가호수의 80~90%가 만성적인 기근상태에 빠져있으며 160만호가 완전히 절량농가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의 거리는 일자리를 잃고 헤매는 로동자들과 살길을 찾아 모여든 리농민들로 욱실거리고있으며 남조선은 말그대로 《실업의 왕국》으로 되고있다.

한창 배워야 할 나이에 깡통을 차고 끼니를 구걸하는 걸식아동들만 해도 무려 120만명을 헤아리고있으며 179만세대의 근로자들이 판자집과 천막집 그리고 다리밑이나 하수도구멍과 같은 《집아닌 집》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것이 바로 남조선사회의 현실이다.

지주, 자본가놈들에게 뜯기우고 찢기우는 남조선의 근로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절망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의 《이민정책》에 못이겨 많은 사람들이 수륙만리 대륙과 대양을 건너 브라질과 서독 등 낯설은 이국땅에 노예로 팔려가고있다.

이와 같이 남조선사회야말로 잘사는 놈과 못사는 사람들사이의 차이가 가장 심한 썩고 병든 사회이다.

* *

자본주의사회에서 독점자본가놈들은 권력과 재부의 힘을 믿고 부패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활개치고있지만 그것은 결국 제놈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것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남을 착취하고 압박하여 제놈들의 배를 불리며 살쪄가는 자본가놈들이 결코 자유로울수 없으며 편안할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필연적으로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간의 계급적대립과 모순을 격화시키게 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드시 반항이 있는법이다. 지금 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은 독점자본의 착취와 압박, 썩어빠진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을 날이 갈수록 더욱 광범히 벌리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없애자면 부패한 자본주의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지주, 자본가들에게 빼앗긴 자주권을 되찾고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온갖 물질문화적부의 진정한 향유자로 될수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대동아공영권》의 옛망상은 실현될수 없다

현 준 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고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공공연히 뻗치고있으며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의 옛망상을 실현하여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97폐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새 아세아정책》에 편승하여 아세아에 대한 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연히 침략의 길에 나서고있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지난날 저들이 저지른 죄악의 력사를 《영광스러운것》으로, 악명높은 《대동아공영권》의 침략계획을 《인류애의 표현》으로 찬양하면서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아세아에서 옛 《식민지세력권》을 회복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이 더욱더 커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놈들의 재침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그것을 꺾어버리기 위한 더욱 단호한 투쟁을 벌릴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 *

근대일본군국주의발전력사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 전률할 인간살륙과 전대미문의 야수적략탈로 일관된 치욕스러운 범죄의 력사이다.

일본군국주의는 《명치유신》이후 태평양전쟁시기까지 4분의 3세기도 못되는 기간에 무려 10여차례의 강도적침략전쟁을 도발하였고 11개 나라와 지역을 식민지 및 반식민지화하고 강점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침략과 전쟁은 《최고의 리상》이였다. 일제놈들은 공식적으로 침략전쟁을 《창조의 아버지, 문명의 어머니》라고 떠벌이였던것이다.

일본은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선 첫시기에 벌써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아세아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였으며 조선침략과 청일전쟁(1894~1895), 로일전쟁(1904~1905)을 비롯한 거듭되는 침략전쟁을 통하여 빨리 자라났고 1931년 중국대륙을 침공하여 만주를 강점함으로써 조선, 대만, 남부싸할린, 만주를 포함하는 광대한 식민지를 소유한 렬강으로 등장하였다.

아세아를 완전히 삼키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에 불타고있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강도적인 구실을 날조하여가지고 1937년 7월에는 드디여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하여 중국본토의 광대한 지역을 강점하였으며 하싼호와 할힌골 지역 등에서 련이어 새로운 반쏘침공을 시도하였다.

조선과 만주, 중국본토의 넓은 지역을 강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전지역과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할 목적밑에 이미 작성한 침략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극히 모험적인 침략교리를 만들어냈다.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아세아전지역을 삼키기 위한 이른바 《대동아신질서》를 들고나왔으며 그후 《대동아공영권건설안》이라는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미친듯이 날뛰였다.

일제침략자들은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후 강점한 나라들에서 식민지통치제도를 영구화할 목적으로 1942년 11월에는 《대동아성》이라는 행정기구까지 설치했

으며 1943년 11월에는 강점지역의 괴뢰들로써 《대동아회의》를 소집하고 소위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대동아공동선언》을 조작해냈다. 《대동아공영권》은 《공존공영》이라는 간판밑에 아세아의 모든 나라들을 식민지화하고 아세아인민들을 《야마도민족》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일제의 간악한 팽창주의적야망을 그대로 반영한것이였다.

일제놈들은 《대동아공영권건설》을 《중핵지대》, 《소공영권》, 《대공영권》 창설단계로 나누고 거기에 조선과 만주, 중국대륙, 쏘련의 연해주를 포함한 동부씨비리지방은 물론 인도지나, 버마, 타이,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세아의 전지역과 지어는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까지를 포함시켰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를 제패하고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등에 업고온 미영제국주의대신에 새로운 동맹자를 찾고 그와 결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력사적으로 큰놈을 등에 업고 〈횡재〉하는데 습관되여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그 비호하에 조선을 병탄하고 아세아대륙에 침략의 마수를 뻗쳤으며 파쑈독일 및 이딸리아와 동맹을 맺고 아세아의 〈맹주〉가 되려고 발광하였으나 결국은 패망하고말았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02페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제까지 조선과 만주를 강점하고 중국대륙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과 쏘련을 반대하는 침공을 감행하는데서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극동 《뮨헨정책》을 리용할대로 리용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저들의 야심적인 《대동아공영권》의 침략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세아대륙 특히 동남아세아일대에 커다란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던 미영제국주의세력을 몰아내야 하였으며 따라서 그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영제국주의세력대신에 구라파에서 새로운 침략세력으로 등장한 파쑈독일과 이딸리아와 재빨리 결탁하는데로 나갔다. 놈들은 1936년과 1937년에 파쑈독일 및 이딸리아와 《반공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1940년에는 세계를 재분할하기 위한 3개국 군사동맹을 맺었다.

인류의 극악한 원쑤로 등장한 이 세 파쑈군국주의세력들은 세계령토를 재분할하기 위한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벌려놓았으며 전대미문의 학살과 략탈, 파괴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대동아공영권》의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1941년 12월에 드디여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는 새로운 군사적모험을 감행하여나섰다. 이 전쟁은 식민지소유렬강간의 세력권쟁탈을 위한 전쟁으로서 일제가 미영제국주의의 세력권을 빼앗고 아세아에서 경쟁자없는 《식민지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즉 아세아인민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노예화하기 위한 전쟁이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전쟁을 도발한 초기에 벌써 웰남, 라오스, 캄보쟈, 말라이,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많은 나라들을 강점하였으며 인도,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에까지 침략의 위협을 미치였다. 놈들은 모든 강점지역들을 저들의 령토로 선포하였고 현지주민들에 대한 종족멸종정책을 서슴없이 실시하였다.

일제강도들은 저들의 식민지들과 강점지역들에서 침략전쟁의 확대를 위한 군수물자를 징발하기에 미쳐날뛰였으며 발길이 닿는 모든곳을 문자그대로 황폐화시켰다. 이르는곳마다에서 몸서리치는 집단적학살과 야수적만행이 벌어졌다.

《대동아공영권건설》의 침략교리를 내걸고 식민지들과 강점지역들에서 일제가 감행한 살륙만행과 무제한한 략탈은 실로 사람들의 상상의 한계를 훨씬 벗어나는것이였다.

대륙침략 특히 태평양전쟁시기에 조선인민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군사적파쑈폭압과 략탈은 절정에 이르렀다. 일제는 소위 《사상범예방구금령》, 《국가보안법》, 《치안유지법》 등 각종 파쑈적악법들을 내걸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조선사람들을 《사상범》 또는 《정치범》이라는 딱지를 붙여 마구 잡아다가 투옥학살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의 전지역은 일제의 총칼이 살판치는 하나의 감옥으로 전변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전쟁의 확대를 위하여 1938년부터 《국가총동원령》을 선포하고 조선의 모든 인적 및 물적자원을 깡그리 징발하였다. 일제는 《지원병제도》, 《징병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조선청년들을 침략전쟁마당에 강제로 끌어갔으며 중일전쟁이후 조선청장년들이 강제로동과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끌려가 혹사당하였거나 희생된 수는 무려 수백만명에 이르렀다. 뿐만아니라 일제놈들은 《대동아공영권건설》의 간판밑에 조선의 민족경제를 완전히 파괴하고 식량과 모든 전략자원을 모조리 략탈하여갔다.

민족배타주의사상과 인간증오사상이 골수에 사무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중일전쟁시기 중국에서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략탈하는 범죄적인 극악한 《삼광정책》을 실시하였다. 놈들은 중국대륙에 대한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실로 1천 200만명이 넘는 무고한 주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고 1만개가 넘는 도시와 농촌을 불살라버렸다.

일제놈들은 바로 이와 꼭같은 수법으로 전쟁기간 동남아세아의 모든 강점지역들을 페허로 만들었다. 놈들은 강점지역들을 《일본제국》의 령토로 선포하였고 이르는곳마다에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고 략탈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이 그처럼 고아대던 《대동아신질서건설》, 《공존공영》, 《동양의 평화》의 진상은 바로 이러한것이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를 제패하기 위한 《대동아공영권건설》을 부르짖으며 《일본제국》의 《번영》에 대하여 고아댔으나 결국 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우리 인민의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비롯하여 아세아인민들의 반일투쟁에 의하여 일본침략자들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드디여 패망하고야말았다.

아세아에서 일제가 감행하여온 침략과 전쟁의 전행정은 인민들에게 일본군국주의가 미제국주의와 함께 아세아인민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으며 오직 견결한 반제투쟁을 벌림으로써만 참다운 민족적독립과 자유, 평화를 이룩할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었다. 그것은 또한 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기승을 부리며 침략에 날뛴다 하여도 인민들을 영원히 굴복시킬수는 없으며 각성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조만간에 멸망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을 받아 지금 아세아에서는 일본군국주의가 또다시 머리를 쳐들고 일어났으며 세계평화와 아세아나라들의 독립과 안전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위협은 날로 커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97폐지)

아세아인민들을 마음대로 살해하고 략탈하던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미제의 비호밑에 또다시 되살아났으며 지난날 저들이 저지른 범죄적인 죄악의 력사를 되풀이하는 길로 나가고있다.

팽창할대로 팽창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저들이 처한 파국적인 정치, 경제적 혼란과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더욱더 침략과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고있으며 아세아에서 《식민지세력권》을 회복할데 대한 침략적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날뛰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이른바 《방위선》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거기에

북쪽의 알라스카이남으로부터 남조선, 대만, 남부웰남을 거쳐 마라카해협에 이르는 아세아의 거의 전역을 포함시키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지어 《〈아세아는 하나다〉라는 명치때의 선배의 말이 지금처럼 통절히 상기될 때는 없다.》고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지난날의 《대동아공영권건설》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군국주의적팽창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고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으며 국내체제의 파쑈화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정규무력인 《자위대》는 오늘 《최강시의 황군》을 장비면에서 릉가하는 침략무력으로 자라났으며 일단 필요할 때는 수백만의 병력을 편성할수 있는 골간부대로 꾸려져있다.

일본반동들은 《국력에 상응한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고 떠들면서 침략무력증강에 그 어느때보다 미쳐날뛰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내놓은 《자주방위구상》에 의하면 놈들은 재무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극동과 아세아에서 《제해제공권》을 확보하며 《국부전쟁》과 《전면전쟁》을 다같이 수행할수 있는 기동력과 화력과 병력을 갖출것을 노리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자주방위구상》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계획의 하나로서 제4차《방위력정비계획》(1972~1976)을 세우고 공격용무기의 국산화와 핵무기의 장비를 기본으로 하는 《자위대》의 무력증강을 미친듯이 다그치고 있다. 놈들은 특히 해군과 공군력의 현대화, 그 장비의 국산화에 우선권을 부여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는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느니, 《방어적인 목적이라면 핵무기를 보유하는것이 헌법적으로 금지되여있지 않다.》느니 하면서 핵전쟁준비를 각방으로 합리화하고있다.

또한 《향토예비군》이라는 이름밑에 100만군대를 무장시킬것을 계획하고있으며 700여만에 이르는 징병대상자명단까지 다 만들어놓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에서 침략전쟁에 따르는 파쑈화를 더욱 다그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준비책동이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침략을 위한 흉악한 목적에서 출발하고있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팽창주의적야망을 실현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조선에 대한 침략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조선을 첫번째 공격대상으로 삼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남조선에 깊이 침투하여 침략적지반을 닦고있다.

해외침략에 광분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침략적인 《한일조약》을 통하여 남조선지배층들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고있으며 《일한운명공동체》론과 《일한안전일체》론까지 부르짖으면서 저들의 《자위대》무력을 남조선에 들이밀리고 로골적으로 획책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침략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조선에서 옛지위를 회복해보려는 어리석은 망상을 품고 박정희괴뢰도당을 《두개 조선》조작책동에로 부추겨주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영구분렬을 적극 조장하기 위한 《별동대》의 역할을 놀고있다. 놈들은 조선의 영구분렬을 찬미하면서 《분렬의 비극보다 오히려 통일의 비극이 더 크다.》는 넉두리까지 아무 거리낌없이 늘어놓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경제문화적침투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남조선에 물밀듯이 쓸어들어 남조선의 중요경제명맥을 틀어잡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있다. 놈들은 박정희매국도당과 결탁하여 이른바 《자유수출지역》이란 이름밑에 마산일대를 치외법권적인 식민지적《조계지》로 만들고 남조선경제를 저들에게 예속시

키기 위한 《분업》경제로, 하나의 《지역경제》로 전환시키고있다. 놈들은 일본에서 《오물단지》로 배척당하고있는 공해산업을 들이밀어 남조선땅을 일본오물의 적치장으로 만들고있다.

이미 《공업소유권》마저 장악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최근에는 《대륙붕》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할데 대하여 박정희괴뢰도당과 《합의》를 봄으로써 바다밑자원까지 저들의 손아귀에 거머쥐였다. 놈들은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통하여 《리권보호》라는 구실밑에 앞으로 저들의 무력을 투입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 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외자의 투자는 군대의 주둔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떠벌인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여준다.

일본반동들은 침략의 주요한 수단으로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급격히 강화하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전역에는 왜색왜풍이 범람하여 사람들의 머리를 어지럽히고있으며 고유한 민족문화를 침식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뿐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에 각종 교활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해외팽창의 더러운 야망밑에 〈평화〉의 탈, 〈원조자〉의 탈을 쓰고 아무런 제재도 받음이 없이 세계의 모든곳을 마음대로 싸다니고있으며 동남아세아와 중근동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경제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498페지)

경제문화적침투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며 제놈들의 《식민지세력권》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되는 수법의 하나이다. 일본독점자본가들은 오늘 아세아와 전세계적범위에서 혁명력량이 비할바없이 장성하고 인민들의 각성이 급격히 높아지고있는 조건에서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각종 위선적인 수법에 매달리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원조자》, 《협력자》의 탈을 쓰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침투하여 침략의 지반을 확대하고있으며 막대한 리윤을 짜내여 배를 불리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이러한 경제적침투는 그 나라 인민들속에서 친일사상을 부식시키고 그들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사람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들기 위한 사상문화적침투와 밀접히 결합되여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경제문화적침투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다른 나라들에 군사적으로 침투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가 아세아와 세계 인민들의 리익을 엄중히 위협하고있으며 지난날의 《식민지제국》의 지위를 되찾아보려고 더욱더 모험적인 침략의 길로 나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지 않고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킬수 없으며 아세아와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룩할수 없다.

일본군국주의는 원래 생겨날 때부터 자본주의발전의 후진성과 군사봉건적특성으로 하여 강도적이며 야수적인 침략성과 잔인성 그리고 비길데 없는 량면주의적교활성을 가지고있다.

거기에다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어제날의 패망을 앙갚음하려는 복수심 그리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광신적인 침략적야망을 품고있다. 더구나 일본군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와 한짝이 되여있음으로 하여 그 침략성과 위험성이 2중으로 커지고있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와 결탁하여 아세아인민들을 또다시 노예화하고 아세아를 삼키려고 미쳐날뛰고 있으나 그것은 결코 실현될수 없는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의 아세아는 지난날 일본군국주

의자들이 다른 나라를 마음대로 침략하고 략탈하며 주인행세를 하던 그러한 아세아가 아니다. 어제날 식민지대륙이였던 아세아는 오늘 국제혁명전선의 전초지로,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전변되고있다. 아세아에서 력량관계는 혁명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침략도 제때에 단호히 물리치고 달려드는 원쑤들을 철저히 소멸할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있다.

또한 아세아에는 싸우는 나라, 혁명하는 나라들이 많다. 아세아의 혁명적인 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굳게 결합되여있다. 오늘 동남아세아인민들은 《일본놈은 나가라!》, 《너희들은 살인자들임을 기억하라!》, 《2차대전때의 일본점령군의 만행을 되새겨보게 된다.》고 하면서 일본독점자본의 침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침략을 반대하는 광범한 일본인민들의 투쟁 역시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각성된 일본인민들은 군국주의세력이 미제의 사촉밑에 일본을 또다시 침략전쟁에로 끌고가며 자기들을 전쟁의 참화속에 밀어넣는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만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오늘의 변천된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고 미제와 한작이 되여 계속 무모한 침략과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더욱 만회할수 없는 참패를 당할것이며 영영 매장되고야말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대동아공영권》의 옛망상은 결코 실현될수 없으며 놈들의 침략책동은 파탄을 면할수 없다.

근로자 제 9 호 (루계389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근 로 자 사 주소•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74년 9월 1일 발행•1974년 9월 5일

ㄱ—44310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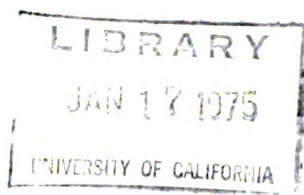
평 양 근로자사 1974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0 호(330)

차 례

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김 일 성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9월 24일 재일본조선청년예술체육대표조국방문단, 제2차재일본조선교육일군조국방문단, 재일본조선고급학교학생조국방문단을 접견하시고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연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오늘 일본에서 조국을 위하여,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재일본조선 청년대표동무들과 학생대표동무들, 교육일군대표동무들을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만나게 된것은 여러 동무들이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결과입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그리고 조국의 전체 인민들과 교육일군들,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여러 동무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동무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양에서 다른 나라 대표단들도 자주 만나고 우리 나라의 여러 부문 일군들도 늘 만나지마는 일본에서 조국을 찾아온 동포들을 만나는것이 제일 기쁩니다. 나에게는 지난날 조국에 왔던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축구소조와 요꼬하마 조선초급학교 음악무용소조 학생들을 만나던 기쁨과 조선대학교 음악체육소조 학생들을 만나던 감격이 아직도 인상깊이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사이의 혈육의 정이라는것은 매우 깊은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동포, 형제, 자매들이 조국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특히 조국에 온 동포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설레이며 감개무량해지군합니다.

오늘 조국을 찾아온 재일본조선 청년학생들과 교육일군들을 만나니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이러한 심정은 나뿐아니라 여러 동무들도 마찬가지일것이며 나아가서 우리 나라 전체 인민들의 심정도 역시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국을 통일하고 남조선에 있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더욱 클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이 상봉은 동무들의 기억속에도 나의 마음속에도 영원히 남아있을 뜻깊은 상봉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상봉이 너무 기뻐서 동무들은 흥분되였고 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동무들이 그러니 나도 목이 메여 연설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무들, 진정하십시오.

앞으로 우리는 혁명투쟁을 같이하여나가는 과정에 또 만나게 될것입니다. 우리모두 혁명의 한길을 걸으며 만났다 헤어지고 헤여졌다 만나면서 끝까지 잘 투쟁하여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념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완성합시다.

나는 오늘 동무들에게 우리 나라가 처하고있는 정세에 대하여서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1. 우리 나라의 정세에 대하여

조국에 왔던 동무들이 우리 나라가 처하고있는 정세를 똑똑히 알고가는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좋습니다. 남조선반동들과 미일반동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반동들이 우리 공화국을 헐뜯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지마는 전반적정세는 우리 혁명에 더욱더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가장 중요한 투쟁목표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념원이며 숙망인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세가지 과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째과업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입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혁명의 근거지를 튼튼히 꾸릴수 있고 혁명의 근거지를 튼튼히 꾸려야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기본밑천입니다.

둘째과업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입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는것만으로는 조국의 통일을 이룩할수 없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이 발전하여야 남조선의 민주주의력량과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이룩할수 있습니다.

셋째과업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우리가 맞서고있는 적은 남조선반동들과 함께 미국의 반동들과 일본의 반동들입니다. 미일반동들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반동의 원흉들입니다. 우리 인민이 세계반동의 원흉들과 싸워 이기려면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과 단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제3세계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싸우는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혁명의 근거지를 튼튼히 꾸리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지원하여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함으로써만 세계반동의 원흉들과 싸워이길수 있으며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지금 조국에서 우리 당이 내놓은 조국통일을 위한 3대과업이 어떻게 실현되여 가고있는가 하는것을 말하면 우리 나라가 처하고있는 정세를 똑똑히 알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형편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은 우리 나라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다음부터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방침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세가지 혁명 다시말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기회에 말하였지만 그저 공장이나 많이 짓고 공장굴뚝에서 연기나 잘 나가게 한다고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건설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력사적경험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인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으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사상혁명에서 기본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입니다.

조선혁명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자신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조선사람이 우리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지 않고 다른 나라 당의 사상을 가진다면 조선혁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그런 사람은 조선혁명을 잘할수 없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당의 사상밖에는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사상, 사대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은 낡은 사상을 가진 사람자체를 반대하는 투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는 사상투쟁입니다. 사상투쟁은 절대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낡은 사상을 없애기 위한 기본방도는 학습과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우리는 교육하는 방법과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지금 조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학습하는 규률을 철저히 세우고있으며 사로청원들은 사로청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직맹원들은 직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농근맹원들은 농근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

고 녀맹원들은 녀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당원들은 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으로 숨쉬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행동하게 하면 사회주의건설에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온몸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되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 청년학생들이 다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될것이며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단합되면 사회주의건설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고 혁명투쟁에서 부닥치는 난관도 성과적으로 뚫고나갈수 있을것입니다.

사상혁명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하기를 좋아하도록 교양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고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을수 없습니다.

로동에는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이 있는데 정신로동을 하든지 육체로동을 하든지 누구나 다 로동을 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모든 사람이 다 로동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사상혁명의 기본목적입니다.

지금 조국에서는 사상혁명이 잘되여가고있습니다. 사상혁명이 잘되니 기술혁명도 잘되고 당이 내놓는 모든 혁명과업들이 다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당중앙에서 직접 3대혁명소조를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내려보내여 아래일군들을 도와주도록 한 결과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과 함께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기술혁명을 하여 인민들의 정치사상적준비에 물질적력량을 안받침하여야 우리의 혁명력량이 강대해질수 있습니다.

기술혁명은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기술혁명을 물질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과업으로만 일면적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반드시 정치적인 과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술혁명이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력을 발전시켜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함으로써 잘 먹고 잘 입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하는데만 목적이 있는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술혁명의 목적은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술혁명의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모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데 있습니다.

기술을 발전시켜 한편으로 물건을 많이 생산한다고 하여도 다른편으로 근로자들이 힘들고 유해로운 일을 하며 건강에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례를 들어 일본에서 기술이 발전되였다고 하지만 심한 공해현상을 빚어내여 인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있는데 그러한 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기술혁명의 목적에 맞는다고 볼수 없습니다.

기술혁명은 주로 모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말이 길어서 그저 간단히 기술혁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근로자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 혁명이라고 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물론 근로자들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낡은 착취제도를 때려부신다음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까지 해방하여야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의 압박에서 해방한 다음에는 그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이와 같이 기술혁명은 정치적인 성격을 띤 과업이지 결코 소비품이나 설비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기술실무적인 과업이 아닙니다.

소비품이나 설비를 많이 생산할뿐아니라 헐하게 만들수 있게 되여야 그것을 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편합니다. 쌀을 헐하게 생산하게 되여야 그것을 먹는 사람의 마음도 편하지 힘들게 생산하면 쌀을 먹는 사람의 마음도 편안치 않고 밥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어떻게 힘들여 쌀을 생산했는가 하는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 잘 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량심이 없는 사람이며 그렇게 생각하는것은 지주, 자본가와 같은 착취계급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아직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지 못하였으며 중로동과 경로동사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사이,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사이의 차이를 없애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나아가서는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도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이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많은 물건을 생산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을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목표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업을 짧은 시일안에 해결할수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 제5차대회보고에는 6개년계획기간에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인다고 지적되여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기술혁명과업이 잘 수행되여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나무를 찍고 석탄과 광석을 캐며 지질탐사를 하는것과 같은 채취공업부문의 로동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채취공업의 기술혁명에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도 잘 진척되고있습니다.

아직 농업로동은 공업로동보다 힘듭니다. 우리는 빠른 기간에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려고 합니다. 물론 농촌기술혁명에서 아직 할 일이 많지만 이 분야에서 이미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수리화가 완성되였으며 전기화도 실현되였습니다. 농촌테제에서 내놓은 화학화의 목표도 명년쯤에 가서는 달성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아직 기계화가 완성되지 못하였습니다. 농촌경리를 완전히 기계화하려면 끝이 없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넣어 다음해까지는 농촌경리의 기계화에서 기본적인것을 해놓자고 합니다.

농촌테제에는 농촌에 7만～8만대의 뜨락또르를 보내주기로 되여있는데 이미 농촌에 그만한 뜨락또르가 나가있습니다. 그러나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완성하려면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가 6～8대는 있어야 합니다. 이미 뜨락또르가 많이 들어가있는 지대들도 있지만 뜨락또르가 적게 들어가있는 지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든 지역에 뜨락또르를 고르롭게 더 많이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나라 농업에서는 더큰 비약이 일어날것입니다.

올해는 농촌테제발표 10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농촌테제발표 10돐을 계기로 농업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농민들이 높은 열성을 내여 일하고 온 나라가 힘있게 농촌을 지원한 결과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얼마전에 올해 농사형편을 총화하여보았는데 매우 놀라운 성과가 이룩될것이 예견되고있습니다. 올해에 알곡을 15만톤 내는 군이 10개, 10만톤 내는 군이 24개, 8만톤 내는 군이 31개로서 8만톤이상 내는 군이 모두 65개나 될것이 예견됩니다. 올해에 군적으로 지난해보다 알곡생산이 2배로 늘어날것이 예견되는 군들이 많습니다. 사과풍년, 쌀풍년, 모두다 풍년이라는 노래대로 올해에 우리 나라에는 대풍이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대풍이 든 곡식을 제때에 걷어들이기 위하여 지금 생산하고있는 자동차를 다 농촌에 보낼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옛날부터 쌀뒤주가 가득차고 쌀독이 넘쳐나야 부자라고 하였는데 우리 나라의 가는곳마다에 쌀뒤주가 차고넘치게 되었으니 우리 나라는 부자가 되였으며 인민들은 더 잘살게 되였습니다.

올해에 많은 군들에서 알곡생산을 배이상 높인것은 군이 커졌기때문이 아니라 농업생산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기때문입니다. 다시말하여 이것은 다 농촌기술혁명이 가져온 성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농업을 공업화하기 위한 투쟁,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이 아주 잘되여가고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과업도 잘 수행되여가고있습니다.

녀성들을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사회에 진출시켜야 합니다.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집안에 들어앉아있어서는 로동계급화될수 없습니다.

또한 녀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그들의 사회적해방이 실질적으로 실현될수 있습니다.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는것만으로 녀성들의 해방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 정신로동을 할 사람은 정신로동을 하고 육체로동을 할 사람은 육체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녀성들이 할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녀성들은 의사와 교원으로도 일할수 있고 경공업공장들에서도 일할수 있으며 상점판매원으로도 일할수 있고 편의봉사부문에서도 일할수 있습니다.

녀성들이 사회에 널리 진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지금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2중적인 로동의 부담을 걸머지게 됩니다. 다시말하여 녀성들은 사회에 나가서 남자들과 똑같이 일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밥을 짓고 아이들을 거두며 가족들의 옷을 손질하는것과 같은 가정일을 하여야 합니다. 남자들보다 육체적으로 약한 녀성들이 2중적인 로동의 부담을 감당한다는것은 매우 힘겨운 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문제를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을 널리 발전시키는것입니다. 당과 국가에

서는 이르는곳마다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건설하고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350만에 이르는 어린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자라고있습니다.

엥겔스는 어머니의 곁을 떠난 모든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을 중요한 공산주의적시책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러한 공산주의적시책이 우리 나라에서 제일 먼저 실현되고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또한 경공업을 발전시키는데도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옷도 공장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며 녀성들이 시간을 적게 들이고 부엌일과 가정일을 할수 있도록 식료가공품과 세탁기, 전기밥가마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엌세간도 많이 생산하여 공급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봉사망을 늘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더잘 도모하여주도록 하고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우리가 또하나 중요한 문제로 내놓은것은 농촌수도화를 실현하여 농촌녀성들이 물동이를 이고다니지 않게 하는것입니다.

아직도 농촌에 가보면 녀성들이 물동이를 이고다니는데가 많습니다. 물동이를 이고다니는것은 몇천년동안 내려오면서 우리 녀성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되여있었습니다. 특히 우물과 멀리 떨어져있는 농촌집녀성들에게 있어서 물을 길러다니는 일은 매우 큰 부담으로 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빨리 농촌수도화를 실현하여 녀성들이 물동이를 이고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농촌에 나가 어떤 할머니를 만나보았는데 그는 일생동안 물길러다니느라고 허리가 다 굽었는데 오늘 로동당시대에 와서 녀성들이 물동이를 이지 않게 되였으니 참으로 좋은 세상이라고 하면서 이 좋은 세상에서 허리가 다시 펴질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문화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습니다.

문화혁명에 대하여서는 동무들이 이번에 조국에 와서 강의도 들었고 학교들도 많이 참관하였기때문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문화혁명에서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내세우고있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지식수준을 가지도록 하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는 조건에서 새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해방후에 자라난 사람들도 거의 다 중학교를 나왔기때문에 그들이 중학교졸업정도의 지식을 가지는것은 문제로 된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해방전에 공부를 하지 못한 40대이상의 사람들의 일반지식수준을 높이는것입니다. 해방직후에는 그들의 문맹을 퇴치하는 운동을 하였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수준을 인민학교졸업정도이상으로 올리는 운동을 하였으며 지금은 중학교졸업정도이상으로 올리는 투쟁을 벌리고있는데 이 투쟁이 좀 완만하게 진행되고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는 다 늙었는데 배워서 무엇하겠는가고 하면서 열성을 내지 않는데 하나의 원인이 있고 그들이 배우기 위하여 힘쓰도록 조직적으로 강하게 내밀지 못한데도 일정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당이 잘 투쟁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문명한 나라의 하나로 될것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다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것이 문화혁명에서 첫째과업입니다.

문화혁명의 둘째과업은 모든 근로자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하는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자연과학지식과 사회과학지식을 가지는외에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배울것을 강조하고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질데 대한 우리 당의 구호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여가고있습니다.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습니다. 해방직후에 우리나라에는 인테리라고 말할수 있는 기술자, 전문가가 몇1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에는 60만명의 기술자, 전문가가 있으며 가까운 앞날에 그 대오가 100만명이상으로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100만의 인테리대군을 키워낼뿐아니라 앞으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한 조건에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려고 합니다.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되지 못한 조건에서 인테리화의 구호를 내놓으면 좀 어폐가 있을수 있으나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된 조건에서 인테리화의 구호를 내놓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적인 인테리로 만들자는것이기때문에 조금도 나쁠것이 없습니다. 인테리화한다고 하면 마치도 소자산계급화하는것처럼 생각할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것은 잘못입니다. 지난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테리들이 하나의 사회계층으로서 자본가를 위하여서도 복무하고 또 다른 계급을 위하여서도 복무하기때문에 인테리를 소부르죠아계층으로, 동요하는 계층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여있었으나 사회주의사회의 인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는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로동계급입니다. 물론 정신로동이 육체로동보다 좀 헐한것은 사실이지마는 정신로동도 결코 쉬운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은 민족간부양성에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공장대학, 공장고등기술학교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는 모든 간부들이 매일 2시간씩 학습하고 토요일에는 한나절씩 학습하며 1년에 한달씩 정규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제도가 서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밑에 말그대로 전체 인민이 학습하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되고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특히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인민대중속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일하며 생활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주의사회의 대단결을 의미하는것이며 조국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의 결정적력량인 우리 인민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여가고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전체 인민이 정치적이며 혁명적인 하나의 화목한 집단으로 단결되여 힘차게 나아가는것이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적대풍모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방력도 철벽으로 다지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세상에 둘도 없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의 독창적인 군사로선을 빛나게 실현하여나가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어느때 원쑤들이 덤벼들어도 단매에 쳐부실 만단의 대세를 갖추고있습니다. 그렇기때

문에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동무들이 다 아는바와 같이 미제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군사적도발을 감행하고 그때마다 우리 인민의 강한 징벌을 받고서도 감히 우리 나라에 접어들지 못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의 구현인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부강하고 위력한 나라로 전변되였으며 세계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칭송을 받으면서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힘있게 내달리고있습니다. 동무들이 돌아가면 일본에 있는 동포들에게 사회주의조국의 이러한 자랑찬 현실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당국자들의 파쑈통치를 반대하며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혁명투쟁이 앙양되는것이 마치도 우리가 혁명을 수출하기때문인듯이 떠들어대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질없는 소동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혁명은 수출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수출하지 않으며 또 수출할수도 없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이 혁명투쟁에 일떠서는것은 그들자체가 진리를 깨닫고 혁명적으로 각성되기때문입니다.

오늘 남조선당국자들은 인민들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빼앗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을 더 빨리 각성시키고있으며 그들을 강력한 반항에로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탄압이 있으면 반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탄압이 있는곳에는 반드시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른바 《10월유신》이라는것을 날조한 다음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들은 《비상계엄령》이요, 《긴급조치》요, 《갑호경계령》이요 하고 이루 셀수 없이 많은 폭압조치들을 련발하면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남조선청년학생들이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대대적으로 떨쳐나서자 남조선당국자들은 미친듯한 탄압소동을 벌렸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대학생들과 인민들을 수천명이나 잡아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시인 김지하를 비롯한 지식인들과 각계층 인사들 지어는 지난날 《대통령》을 한 사람과 천주교 주교 지학순을 비롯한 종교인들까지 잡아가두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조선에서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고는 그들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당치 않은 구실을 붙여 박해를 가하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조선에서 자기들을 반대하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매번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듯이 날조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넘겨씌워보려고 책동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상투적수법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지난 8월 15일에 있은 《저격사건》에 대한 책임도 우리와 총련에 넘겨씌워보려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허황하기 짝이없는 책동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 총련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남조선반동들자신이나 그 상전들이 꾸민 음모가 틀림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지금과 같은 폭압통치를 계속하면 남조선인민들의 반항이 더욱 높아지고 세계인민들의 여론도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조성되겠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주의를 딴데로 돌리기 위하여 조작한 음모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본래부터 개인테로를 반대합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이 반동통치자 한사람을 없애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파쑈제도자체를 반대하며 착취없고 압박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기때문입니다. 파쑈제도를 그냥두고 테로행위를 하여 《박》가를 《최》가로 바꾸고 《최》가를 《장》가나 《리》가로 바꾼다고 하여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어떤 통치자 개인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파쑈제도자체에 있는것입니다.

적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고 하는것자체가 우둔한 짓입니다. 사물을 가려볼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것을 곧이듣지 않을것입니다. 남조선반동들이 서툰 음모를 꾸며가지고 소동을 피워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조선반동들은 그 어떤 술책으로써도 진실을 가리울수 없으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지금 남조선의 현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동안 남조선에서 사람들의 주의가 《저격사건》에 쏠린듯하였으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남조선에서는 청년학생들의 반《정부》투쟁이 또다시 벌어지고있습니다.

며칠전에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구속학생들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들고 투쟁에 일떠섰습니다. 어제는 리화녀자대학교 학생들이 구속된 학생들을 즉시 석방하며 학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것을 요구하여 투쟁에 나섰습니다.

청년학생들뿐아니라 남조선의 로동자들도 투쟁에 용감히 일떠서고있습니다. 며칠전에 울산조선소로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질겁한 괴뢰경찰들은 투쟁에 나선 로동자들에게 야수적인 폭행을 가하였으며 860여명이나 잡아가두었습니다.

이 모든것은 압박이 있고 탄압이 있는곳에는 반드시 반항이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다시금 뚜렷이 증명하여주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이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을 한결같이 증오하며 그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특히 남조선당국자들이 조국통일을 방해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를 하기때문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2년전에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서 우리와의 협상에 처음 응하였을 때에는 남조선인민들 가운데 행여나 하고 그들의 민족적량심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와의 협상에서 지연전술을 쓰면서 대화의 진전을 방해하였으며 나아가서는 로골적으로 《두개 조선》유엔가입에 대한 주장을 내놓고 민족의 영구분렬을 획책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과 온 세상 사람들앞에서 자기들의 정체를 날날이 드러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앞잡이라는것을 처음부터 알고있었으나 그들이 앞으로는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므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념원으로부터 과거를 묻지 않고 그들과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의 약속을 배반하였으며 그후 외세에 더욱더 매여달리면서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감행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음으로써 저들의 운명을 더 연장해보려는것이며 남조선을 미제의 군사기지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상품시장으로 영원히 내여맡기려는것입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매국배족행위는 남조선인민들의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지 않을수 없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이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을 증오하며 그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또한 남조선당국자들이 부정부패행위를 혹심하게 하기때문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의 부정부패행위는 매우 심합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을 착취하고 나라와 민족을 팔아 얻은 돈을 부정축재하였으며 그것으로 회사와 호텔 같은것을 경영하면서 일신의 향락과 부귀영화를 누리고있습니다.

남조선의 사회여론에 의하면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과 일본에서 받는 이른바 《원조》에서도 많은 돈을 떼먹고있다고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해마다 남조선에 몇억딸라씩 《원조》를 준다고 하지만 그 돈은 《원조》를 주는 놈들이 몇10% 떼여먹고 남조선의 고위당국자들이 몇10% 떼여먹고 그 아래 졸개들이 또 얼마씩 떼여먹고나면 마지막에 남는것은 몇푼 되지 않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과 미제국주의자들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서로의 리해관계로 하여 더욱 가까이 얽혀있습니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은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악독한 파쑈분자들이며 조국통일을 방해하고 외세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며 부정부패의 우두머리들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지금과 같이 반동의 길로, 민족반역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그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조건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인테리, 량심있는 종교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이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더욱 용감히 떨쳐나서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북반부 전체 인민들이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애국적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은 남조선에 대한 내정간섭도 아니고 남조선에서의 혁명을 고취하기 위한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것을 숭고한 민족적의무로 내세우고있습니다.

남조선반동들의 가혹한 파쑈적탄압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이 우여곡절을 겪고있지만 그것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것이며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제3세계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는것을 대외활동의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우고있

습니다. 우리는 특히 제3세계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대부분 제2차세계대전이후에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며 이 나라들은 지난날 다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압박과 착취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제3세계나라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제3세계는 현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3세계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당의 올바른 대외정책에 의하여 지금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이 매우 잘되여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련대성이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특히 제3세계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가 강화되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 인민들은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우리의 조국통일 5대방침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습니다.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가 토의될 때 쁠럭불가담국가수반들에게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결의대로 조선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도록 계속 투쟁할것을 호소하는 전문을 보냈으며 올해에 또다시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가 토의되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을 호소하는 전문을 쁠럭불가담국가수반들에게 보냈습니다.

올해 7월에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3세계청년대회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립장과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서지를 우리에게 보내여왔습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가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정을 받고있다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몇개의 반동적인 나라를 내놓고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고있으며 또 맺으려 하고있습니다. 동무들도 아는바와 같이 스웨리에와 단마르크를 비롯한 많은 자본주의나라들이 이미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국가관계를 좋게 발전시키고있습니다.

지어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를 반대하여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오스트랄리아가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최근에는 에티오피아도 우리 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지려 하고있습니다.

지난날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추종하여 조선전쟁에 참가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황제는 황제로서 남조선을 방문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인민은 이것을 큰 수치로 여기고 지금까지 참아온것 같습니다. 최근에 에티오피아에서 청년들이 황제제도를 뒤집어엎었는데 에티오피아의 한 간부가 우리 사람들을 찾아와서 지난날 황제가 저지른 잘못을 사죄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1950년에 자기 나라가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잘못 참가한 오점을 씻기 위해서도 조선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 대하여 좋지 못하게 나오던 많은 나라들이 돌아서서 지금은 우리 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있으며 또 가지려 하고있습니다.

지난날 사회주의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멀리하던 동남아세아의 일부 나라들도 지금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좋게 발전시키고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좋게 발전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제적으로 많은 혁명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그러면 제3세계나라들과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이 우리를 적극 지지하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체사상을 내세우고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고있기때문입니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입니다. 지금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다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으며 자주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습니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여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은 물론 자본주의나라들까지도 자주의 길을 걸으려 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이 살고있는 일본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습니다. 일본의 절대다수 인민들과 진보적인사들이 자주성을 강조하고있는것도 그들이 남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고있기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오늘 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세계적조류로 되고있습니다.

제3세계의 많은 나라 인민들은 우리 나라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견결하고 자주, 자립의 길로 나가고있기때문에 우리 나라와의 단결을 중요시하며 우리와 서로 지지협조하고있는것입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달라붙어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에서 동맹대회때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청년대표들을 초청하여 회의에 참가시켰다고 하는데 아주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체사상의 기치,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차게 나간다면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사람들을 쟁취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쟁취하고 세계인민들과의 혁명적단결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 그리고 남조선반동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것입니다. 」

2.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나라의 완전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기본로선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적극 지원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의 이러한 기본로선으로부터 총련앞에는 첫째로 전체 재일동포들이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적극 옹호하도록 하며, 둘째로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며, 셋째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넷째로 일본의 민주세력과 일본인민을 비

롯한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지금 총련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나라의 완전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기본로선에 기초한 네가지 기본과업을 훌륭하게 실행하고있습니다.

총련의 지도밑에 활동하고있는 재일본조선청년동맹과 재일본조선교육일군들은 총련의 기본과업에 따라 자기 사업을 조직하고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은 무엇보다도 자기 조직들을 혁명적인 조직으로 만들며 청년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재일조선청년들이 처하여있는 환경과 조국의 청년들이 처하여있는 환경은 같지 않습니다. 비유하여 말해서 조국에 있는 청년들은 파도가 없는 잔잔한 강에서 헤염치고있다고 한다면 재일조선청년들은 풍랑이 심한 바다에서 헤염을 치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조국의 청년들은 순탄한 조건에서 사업하고있지마는 재일조선청년들은 매우 복잡하고 힘난한 환경에서 투쟁하고있습니다.

지금 재일조선청년들은 적진속에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하여 적대시정책을 쓰고있기때문에 그렇게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적대시정책을 쓰지 않지마는 일본정부가 우리를 적대시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수 없습니다. 또한 재일조선청년들은 독점자본이 지배하고 돈과 권세가 판을 치며 생활이 극도로 부패타락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살고있습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이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 사회주의조국을 옹호하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수호하며 남조선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사업과 일본의 민주세력을 비롯한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하려면 청년조직을 혁명적인 조직으로 만들고 청년들을 혁명화하여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은 부패와 타락, 돈과 권세가 판을 치고 반동통치가 지배하는 조건에서 사업하는것만큼 동맹조직들을 조국에 있는 사로청조직들보다 더 혁명적인 조직으로 만들며 모든 청년들을 조국에 있는 사로청원들보다 더 혁명성이 강한 청년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이 어떤 모진 풍파도 이겨낼수 있고 자기앞에 맡겨진 무거운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동무들이 지금 사업하는데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어렸을 때 적들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청년사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있을 때 나는 길림지방에 있는 조선청년들속에서 사업하였는데 어려운 일이 매우 많았으며 걸음마다 난관에 부닥치군하였습니다. 지금 동무들의 형편도 그러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청년사업을 할 때의 조건과 오늘 동무들이 사업하고있는 조건이 다른 점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나라를 빼앗긴 망국노였으나 동무들은 지금 자기의 사회주의조국을 가지고있습니다. 사회주의조국을 가지고있는것은 동무들이 투쟁하는데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점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에서 사업하는것만큼 길이 험난하고 애로와 난관이 많을것입니다.

험난한 혁명의 길에서 부닥치는 난관들을 이겨낼수 있는 방도는 사람들을 혁명화하는것 다시말하여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은 청년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자기의 첫째가는 임무로 내세워야 합니다.

재일조선청년들이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사회의 조건에서 혁명시지조를 지킬수 없고 부닥치는 시련을 이기낼수 없습니다.

지금 동무들이 살고있는 사회에는 자본주의벌레, 봉건주의벌레, 수정주의벌레, 사대주의벌레를 비롯한 온갖 해로운 벌레들이 욱실거리고있습니다. 그러한 벌레들을 물리칠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되지 못하면 그것들한테 물릴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벌레들한테 물리면 몸에 병균이 들어와 병에 걸릴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벌레한테 물리면 자본주의병균이 들어오고 수정주의벌레한테 물리면 수정주의병균이 들어오며 사대주의벌레한테 물리면 사대주의병균이 들어옵니다.

혁명에 해로운 오가잡탕의 벌레들이 물지 못하게 하고 나쁜 병균이 몸에 들어와 병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예방약은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입니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데서 여러번 말하였기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입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기본무기입니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온갖 잡균들이 몸에 침습하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은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들의 조직인것만큼 동맹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합니다.

청년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으로 교양하는것과 함께 과거를 잊지 않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청년들이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한다는것은 지난날 조선인민이 일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얼마나 천대를 받으며 억울하게 살았고 부모들이 사랑하는 조국과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일본땅에 가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거리에서 고생하던 그 피눈물나는 생활과 같은 민족적 모욕과 차별을 받으며 살아온 지난날의 쓰라린 생활을 잊지 않도록 한다는것을 말합니다.

동무들은 자기의 계급적처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무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지난날 보따리를 하나 들고 현해탄을 건넜습니다. 그때 우리 동포들가운데 황금덩이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상공인이요 무엇이요 하지마는 지난날에는 다 어렵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있는 우리 상공인들을 민족적혁명성이 있는 애국적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재일조선청년들이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쓰라린 과거를 잊지 말아야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미워하게 되며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잘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사상과 신념이 확고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또한 과거를 잊지 말아야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내쫓고 조국의 절반땅을 되찾을 각오도 더욱 굳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지난날 우리 인민들이 겪은 망국노의 설움과 고통스러운 생활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며 나라없는 사람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는 말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청년들은 자본가가 없고 착취와 압박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무료로 치료받으며 다같이 잘사는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여야 합니다. 재일조선청년들을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도록 교양하는것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의 조국은 사회주의조국이며 우리가 말하는 애국주의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입니다. 오늘의 남조선은 재일조선동포들의 조국이 아니라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입니다. 조선인민의 유일한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므로 재일조선청년들은 자기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랑하여야 하며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무조건 옹호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조국이 없으면 재일동포들이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서의 당당한 민족적권리를 가질수 없으며 오늘과 같이 존엄있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릴수 없습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은 재일조선청년들을 자기의 유일한 사회주의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열렬히 사랑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총련교육사업도 후대들을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것으로 그 내용이 일관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싸울 굳은 각오를 가진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튼튼히 지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재일조선동포들의 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문제는 조선사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리며 조선사람이 일본사람으로 동화되지 않도록 하는것입니다.

조국에 왔던 총련동무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민단》계통의 동포들가운데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엄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징표의 하나입니다.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 조선말을 모르면 조선민족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일본사람이 되여버릴수 있습니다. 재일조선청년들은 민족동화정책으로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들을 하나하나 없애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음흉한 책동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동무들은 일본반동들의 민족동화정책을 견결히 반대하며 조선사람들을 다 찾아내고 한명의 조선사람도 일본사람으로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민족적권리를 철저히 지킬수 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조선사람들이 동화되여도 그들에게 일본사람과 같은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본반동들이 다른 민족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을 버리지 않고있기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민족성을 버리고 살아서야 무슨 사는 보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정치적권리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때에만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낄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재일본조선청년동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일본에 있는 조선청년들이 조선말을 열심히 배우고 우리 인민의 혁명전통을 깊이 체득하며 조선력사를 잘 알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조선민족의 영예를 지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재일조선청년들에게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문제는 크게 제기될것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가운데는 독점자본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일본조선청년동맹앞에는 독점자본가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은 당면과업은 나서지 않습니다. 동무들은 일본에서 조선민족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여 투쟁하면 됩니다.

동무들에게 있어서는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고 사회주의조국을 옹호하는것이 곧 혁명투쟁이며 일본반동들이 조선민족을 모욕하고 멸시하는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 곧 계급투쟁입니다. 조선혁명을 끝까지 해나가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그 완성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이 바로 계급투쟁을 잘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에 있는 조선청년들을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는 쓸모있는 일군으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재일조선청년들을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쓸모있는 일군으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선진과학과 기술을 잘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국에는 과학자, 기술자가 많이 요구됩니다. 재일조선청년들이 과학과 기술을 배워야 앞으로 조국에 돌아와서 경제문화건설과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할수 있습니다. 또한 재일조선청년들이 과학과 기술을 널리 소유하여야 일본에 있으면서도 많은 발명을 하여 조국의 영예를 더욱 빛낼수 있고 조국의 륭성발전에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지금 조국에서는 모든 청년학생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배우는 운동을 벌리고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청년들도 기술을 한가지이상씩 소유하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좋겠습니다. 일본반동들이 민족적차별대우를 하면서 조선사람에게 기술을 잘 배워주지 않는 조건에서 애로가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재일조선청년들속에서 기술을 배우는 운동을 널리 벌려 여러 부문의 기술자들을 많이 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계각층 청년들과 단결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이 자기 조직에 로동계급성분을 가진 청년들만 받으려 해서는 청년들을 많이 묶어세울수 없습니다. 재일동포자녀들가운데는 중소상공인의 아들딸들이 많은데 그들을 다 청년동맹대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큰 공장에 조선사람들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들이 살아나가기 위하여서는 중소상공업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중소상업이라고 해야 자그마한 료리점을 차려놓고 음식이나 해 파는 정도이며 그것도 자신이 로동을 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본가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중소상공업을 하는것을 반대하지 말아야 하며 중소상공인의 아들딸들을 다 청년동맹대렬에 묶어세워 그들이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은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서 조선청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단결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이 우리 인민의 최대의 념원이며 민족지상의 과업이라는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조선민족은 하나의 피줄을 이은 단일한 민족이며 우리 나라는 오래동안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여왔습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은 결코 둘로 갈라질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조선,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되여야 합니다.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청년들이나 일본에 있는 《민단》청년들이나 할것없이 조선의 모든 새세대들이 한데 뭉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재일조선청년들은 남조선청년들 그리고 《민단》청년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그들이 7.4남북공동성명에 밝혀진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과 우리가 지난해에 내놓은 조국통일 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청년들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고있습니다. 남조선혁명의 주인은 남조선인민들자신입니다. 남조선혁명에서는 남조선청년

들이 기둥이 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본청년들과 단결하는 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재일조선청년들이 일본로동계급청년들과 단결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일제놈들의 민족차별정책으로 말미암아 일본에 있는 조선청년들가운데 로동계급의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많지 못합니다. 그런 조건에서 일본로동계급청년들과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무들은 일본의 진보적인 각계각층 청년들과의 단결도 강화하여 그들과의 통일전선을 잘 지어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반동들과 일본반동들 그리고 미제국주의자들이 총련을 탄압하기 위한 음모책동을 꾸미고있는 조건에서 일본의 광범한 청년들을 많이 쟁취하여 그들이 재일조선동포들을 지지성원하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총련에 대한 놈들의 파괴음모책동을 짓부셔버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말하여 일본청년들과의 단결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일본청년들과 일본인민들의 동정과 지지를 더 많이 쟁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본청년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 청년들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이 지난해에 다른 나라 청년들과의 사업을 아주 잘하였는데 그 경험을 살려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무들은 다른 나라 청년들에게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널리 해석선전해야 합니다. 도꾜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큰 국제적도시의 하나입니다. 동무들이 그 무대를 잘 리용하면 우리 혁명위업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이 거기에서 여러 나라 청년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무들은 조국의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일군들과 함께 조선청년대표로서 국제무대에 적극 나가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국제적으로 더 많은 지지자, 동정자를 쟁취하여 총련조직에 대한 일본반동들과 남조선반동들의 탄압과 파괴음모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릴수 있으며 원쑤들이 감히 총련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일조선청년들은 조국에 자유로이 다닐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동무들이 조국에 와서 이렇게 한달동안 조국청년들과 같이 지내면서 많은것을 보고가는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동무들이 조국에 와서 보고 듣고 배우는것은 혁명적세계관을 더욱 튼튼히 하는데 매우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재일조선청년들은 조국에 자주 래왕하여 조국청년들과의 련계를 더 긴밀하게 하며 조국의 청년운동과 청년들의 발전상태를 잘 알고 그에 비추어 자기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전에 많이 말했기때문에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나는 동무들이 우리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나는 재일조선동포들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온갖 음모책동을 물리치면서 일본인민들과 단결하는 사업과 조국통일위업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동무들이 전체 재일 60만 동포들에게 나의 뜨거운 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 일 성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6월 13일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대답 전문은 다음과 같다.

물음: 주석각하, 당신께서는 조선혁명의 현단계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서와 그리고 조선혁명, 구체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귀 정부, 귀 당과 귀 인민이 지난 기간에 이룩한것과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페루와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에게 말씀하여주실수 있겠습니까?

대답: 조선혁명의 현단계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이며 지상의 혁명과업입니다.

력사적으로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한강토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은 해방후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둘로 갈라지게 되였습니다.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로 우리 나라 남반부인민들은 해방후에도 의연히 식민지노예의 처지에 있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였습니다.

민족분렬의 비극적사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해방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전국적승리도 이룩할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해방후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을 통일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여왔습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은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로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둘째로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셋째로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방침을 견지하고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은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우리 당은 해방후 나라가 분렬된 조건에서 공화국북반부를 조선혁명의 튼튼한 기지로 전변시킬데 대한 로선을 내세우고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

게 추진시켜왔습니다.

지난 기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튼튼히 다져놓았으며 북반부를 조선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사회주의적근거지로 전변시켰습니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착취와 빈궁의 근원을 영원히 청산하였습니다.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결되여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심하게 파괴된 인민경제를 짧은 기간에 복구하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놓았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거의 모든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키고있으며 전세계를 휩쓸고있는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체의 원료와 기술에 의거하여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문화건설분야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교육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60만명이상의 기술자, 전문가를 비롯하여 민족간부의 대부대가 양성되였으며 지금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성과적으로 실시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전면적으로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튼튼한 방위력을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둔 성과는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자만하지 않고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3대혁명 다시말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고있습니다.

사상혁명의 기본과업은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 주체교양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시키고있습니다. 우리는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 특히 인테리들과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우리는 문화혁명을 적극 다그쳐 모든 근로자들이 고등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새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문화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를 들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기술혁명에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기본을 두고있습니다. 3대기술혁명의 기본과업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지금 3대기술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여가고있습니다.

우리는 다음해 10월에 맞이하게 될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계기로 3대기술혁명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6개년계획의 고지들을 다 점령하고 새로운 더 높은 고지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려고 합니다.

6개년계획을 수행한 다음 우리가 점령하려고 하는 중요고지는 1,200만톤의 강철고지, 100만톤의 유색금속고지, 1억톤의 석탄고지, 5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 2,000만톤의 세멘트고지, 500만톤의 기계가공품고지, 500만톤의 수산물고지, 500만톤의 화학비료고지, 1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고지, 1,000만톤의 알곡고지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새로운 웅대한 10대경제건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엄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가 힘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우리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의 앙양된 투쟁기세와 혁명적열의로 보아 당이 내놓은 투쟁목표들이 빠른 시일안에 성과적으로 점령되리라고 굳게 믿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이 진행하고있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면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더욱 튼튼히 다져질것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입니다.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앞에 나서는 절박한 과업입니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남조선혁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들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자체의 결정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의 길을 열어놓을수 있으며 온갖 착취와 예속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36년동안이나 신음하여온 남조선인민들은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거의 30년동안이나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고있습니다. 오늘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 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처지는 매우 비참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노예적굴종을

강요당하고있을뿐아니라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에게는 자그마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도 없으며 고역과 가난만이 그림자처럼 뒤따르고있습니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며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기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습니다.

지난 기간 남조선인민들은 혁명투쟁과정에 일시적인 실패도 여러번 하였고 간고한 시련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남조선인민들은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으며 더욱 단련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적들의 파쑈적폭압이 그처럼 가혹한 조건에서도 투쟁대오를 더욱 굳게 결속하면서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 앞잡이들의 파쑈테로통치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의 이 투쟁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애국적투쟁이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정의의 투쟁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고 남조선에 민주주의적정권이 수립되면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민주주의력량이 단합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을 자기의 응당한 의무로 여기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난 기간 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우리의 꾸준하고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로 몇해전에 북과 남사이에 통일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였으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며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는 조건에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난해에 새로운 조국통일5대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5대방침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침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이 방침을 열렬히 지지하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조국통일5대방침은 세계인민들속에서도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의 한 고리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며 그와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더우기 우리는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과 맞서있는 조건에서 국제혁명

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며 그와의 련대성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제3세계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는것을 대외활동의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우고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고있는 신흥세력인 제3세계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제3세계는 현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입니다. 오늘 제3세계인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제3세계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줄수 있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석유를 비롯한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원료의 거의 전부를 제3세계나라들에 의존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3세계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에게 강한 타격과 압력을 가한다면 그들을 꼼짝못하게 할수 있으며 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을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아랍나라들이 단결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지원하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석유수출을 금지함으로써 서방세계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위기를 겪게 한 사실과 얼마전에 있은 원료 및 개발 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의과정이 그것을 잘 말하여줍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렬강들이 국제문제들을 일방적으로 자기들에게만 리롭게 결정하고 처리하던 낡은 질서를 깨여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제3세계인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해나갈수 있습니다.

제3세계인민들은 자기의 앞길을 자신이 개척하며 자기의 손으로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단결하여 서로 아는것은 알려주고 모르는것은 배우며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협조하여나간다면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진보와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제3세계인민들의 단결된 힘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온갖 술책을 다하여 제3세계인민들이 단결하는것을 방해하고있으며 반제력량을 하나하나 말살하는 전략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제3세계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고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단결은 제3세계인민들의 불패의 힘의 원천입니다.

조선인민은 지난날의 처지와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제3세계인민들과 친선의 뉴대로 련결되여있으며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깨겯고 싸우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을 비롯한 제3세계인민들과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며 그들과의 전투적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나갈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단합된 힘

으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조국통일의 실현은 남조선인민들을 식민지노예의 불행한 처지에서 구원하고 우리 조국과 민족 앞에 무궁한 번영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 력사적사변으로 될것이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될것입니다.

물음: 뻬루는 전반적외교관계설정의 길에서의 진일보로서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무역관계를 맺었는바 뻬루에서도 혁명이 진행되고있습니다.

주석각하, 당신께서는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현 관계에 대하여서와 또 앞으로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뻬루공화국 대통령 후안 벨라스꼬 알바라도장군이 지도하는 뻬루혁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조선인민과 뻬루인민은 대양을 사이에 두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으나 지난날 다같이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온 인민으로서 공통한 지향과 목적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두 나라 인민은 서로 잘 리해하고있으며 매우 친선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1968년 10월 후안 벨라스꼬 알바라도장군이 친미반동정권을 전복하고 새 정권을 세운 다음부터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왔습니다. 뻬루에서 새 정권이 선 다음부터 조선과 뻬루사이에는 래왕과 접촉이 빈번해졌으며 오늘 우리 두 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서로 지지하며 협조하고있습니다.

지난 5월에 조선과 뻬루사이에 정식으로 무역관계가 맺어졌는데 이것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으로 됩니다. 이것은 또한 앞으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입니다.

뻬루공화국 정부는 지난 기간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동정을 표시하여주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에 대하여 감사하게 여기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지지하고 동정하여준 뻬루공화국 정부와 뻬루인민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조선과 뻬루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날을 따라 더욱 좋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뻬루공화국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우리는 조선과 뻬루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두 나라 인민의 공통한 지향과 리익에 맞게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더욱 좋게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후안 벨라스꼬 알바라도대통령이 지도하는 뻬루혁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는데 우리는 뻬루공화국 정부가 뻬루인민의 리익에 맞는 진보적이며 민주주의적이며 혁명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감탄하고있습니다.

뻬루공화국 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석유회사와 광산을 비롯하여 외래독점자본가들과 국내자본가들의 공장, 기업소, 은행, 철도, 선박들을 국유화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국내 대농장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토지개혁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뻬루공화국 정부는 또한 미제의 내정간섭도구인 미국 《군사사절단》을 뻬루에서 내쫓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령해를

200마일로 선포하고 령해를 침범하는 미제해적선들에 단호한 징벌을 가하고있습니다.

뻬루공화국 정부가 취한 이 모든 조치들은 미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로 됩니다.

뻬루공화국 정부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의 코앞에서 이와 같이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한것은 아주 용감하고 대담한 행동이며 온 세계가 본받을만한 일입니다. 뻬루공화국 정부와 뻬루인민의 용감한 투쟁과 뻬루혁명의 승리적전진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고있습니다.

우리는 뻬루공화국 정부가 미제국주의자들의 간섭을 종식시키고 나라의 자연부원을 보호하며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취한 모든 혁명적조치들과 뻬루인민의 용감한 정의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또한 뻬루공화국 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뻬루공화국 정부가 반제반식민주의의 기치밑에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완전한 독립과 쁠럭불가담국가들의 공동전선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뻬루인민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물음: 오는 12월 9일은 에스빠냐제국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라틴아메리카가 독립을 이룩한 아야꾸쵸전투 150돐이 되는 날입니다.

모든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기의 민족적해방을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어려운 투쟁을 벌리고있는 시기에 볼리바르(당시 해방운동의 지도자)가 해방한 나라들인 뻬루, 에꽈도르, 꼴롬비아, 베네수엘라 및 볼리비아는 대륙의 기타 형제나라들과 함께 이날을 기쁘게 기념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주석각하, 당신께서는 이 기념일과 오늘 라틴아메리카에서 진행되고있는 투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지난날 에스빠냐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이 벌린 용감한 투쟁은 우리 인민에게 잘 알려져있습니다. 용감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에스빠냐침략자들이 라틴아메리카에 침략의 발길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손에 무장을 들고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렸으며 마침내 에스빠냐침략자들을 라틴아메리카에서 몰아내고 독립을 이룩하였습니다. 볼리바르의 지도밑에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이 1824년 12월 9일에 진행한 아야꾸쵸전투는 남아메리카에 대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300년동안의 지배를 종식시키는 력사적인 전투였습니다. 아야꾸쵸전투의 승리는 라틴아메리카인민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인민들이 단결하여 투쟁에 일떠서면 어떠한 침략자라도 능히 때려부실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아야꾸쵸전투승리 150돐을 기쁘게 기념할 준비를 하고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응당한 일이며 좋은 일입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미제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위한 투쟁을 용감하

게 벌리고있는 시기에 아야꾸쵸전투승리 150돐을 성대히 기념하는것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반미투쟁을 강화하며 이 지역 인민들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명절을 자신의 명절과 같이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는 아야꾸쵸전투승리 150돐을 성대히 맞이하는 뻬루인민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오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위한 투쟁이 여러가지 형태로 폭넓고 깊이있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지난날 미제의 《세습령지》로, 《고요한 뒤동산》으로 불리우던 라틴아메리카에 오늘은 반제자주의 기발이 높이 휘날리고있습니다.

오늘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미제의 지배와 통제를 반대하고 정치적자주권과 자연부원, 령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을 제마음대로 억압하고 략탈하던 시기는 영원히 지나가고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이 라틴아메리카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오늘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벌리고있는 투쟁은 민족적 독립과 존엄, 민족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며 제3세계인민들의 위대한 혁명투쟁의 일환입니다. 그것은 또한 미제의 지반을 밑뿌리채 헐어버리는 용감한 투쟁입니다.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이 용감한 투쟁은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미제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적리익과 존엄을 수호하며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며 견결히 지지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친근한 전우로 남아있을것이며 그들의 정당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줄것입니다.

우리는 외래침략자들과 략탈자들을 반대하는 오랜 투쟁전통을 가지고있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미제의 지배와 간섭 책동을 반대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반드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없는 라틴아메리카,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라틴아메리카를 건설할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물음: 주석각하, 당신께서는 혁명적국제주의를 고려하면서 맑스-레닌주의를 매개 나라 현실에 적용하는 길에서 주체사상과 조선혁명 그리고 당신께서 친히 하고계시는 사업이 우선 조선과 나아가서 전반적인 세계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어떠한 창조적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당신이 주체사상과 조선혁명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조선과 세계적범위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고 물었는데 우리 당의 주체사상이 어떤것인가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에 대한 대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주체라는 말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을 표현하는 술어입니다. 혁명은 수출할수도 없고 수입할수도 없으며 다른 나라 사람이 대신해줄수도 없습니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 인민은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 조선혁명을 잘하려면 조선인민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을 절실히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는 혁명투쟁과정에 얻은 이러한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주체사상을 내놓았으며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습니다. 조선혁명이 걸어온 길은 주체사상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이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공화국정부의 모든 활동의 지도적지침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을 구현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입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완전히 부합되는것입니다. 주체사상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며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함으로써 세계혁명도 잘하도록 하는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매개 나라에서 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이룩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를 세우고 조선혁명을 옳바로 령도하여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면 그것은 우리의 민족적임무를 다하는 동시에 세계혁명발전에도 직접 이바지하는것으로 될것입니다.

오늘 주체사상은 조선에서 전면적으로 승리하고있을뿐아니라 세계인민들속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그것은 주체사상이 조선혁명의 요구로부터 우리가 처음으로 내놓은것이지마는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도 부합되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주체적으로 살것을 요구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을 걸으려 하고있습니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여살기를 바라지 않으며 자기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봅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특히 제3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고있으며 제2세계의 나라들까지도 자주의 길을 걸으려 하고있습니다. 오늘 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세계적조류로 되고있습니다. 현시대는 지난날 큰 나라의 지배와 예속 밑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이 현시대의 요구와 추세를 정확히 반영하고있기때문에 날이 갈수록 세계인민들속에서 더욱 큰 지지와 환영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힘도 자주성을 요구하는 세계인민들의 지향을 가로막지 못할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일군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조선인민과 뻬루인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당신의 앞으로의 활동에서 더욱 큰 성과가 있을것을 바랍니다.

세네갈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 일 성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8월 21일 세네갈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대답 전문은 다음과 같다.

물음: 당신께서는 쎈고르대통령을 그가 쓴 글을 통하여 알고계시다가 지난 5월에 그를 만나보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세네갈과 조선사이의 협조와 그리고 조선과 아프리카나라들사이의 협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나는 먼저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당신들이 옳게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는 쎈고르대통령의 저작을 통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그에 대하여 잘 알고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난 5월에 그와 처음 만났지만 오랜 구면친우를 만나는 심정으로 만났으며 며칠사이에 매우 친숙하여졌습니다.

쎈고르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맺어진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습니다. 쎈고르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을 계기로 조선과 세네갈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조선인민과 세네갈인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좋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다같이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받아온 인민이기때문에 서로 잘 리해하고있으며 긴밀히 협조하고있습니다.

세네갈공화국 정부와 세네갈인민은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습니다. 특히 쎈고르대통령과 세네갈공화국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지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조선과 세네갈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지만 우리 인민은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세네갈인민의 투쟁을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파괴책동을 반대하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세네갈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또한 세네갈인민이 이룩한 좋은 경험을 배우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정부와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서로 자주 래왕하며 유익한 경험을 나누는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이 서로 지지성원하며 경험을 나누는것은 호상간의 리해를 두텁게 하고 단결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으로 될것입니다.

우리는 조선인민과 세네갈인민사이의 단결과 친선협조관계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단결과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조선과 세네갈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단결과 친선협조관계는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개화발전될것이며 더욱더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게 될것입니다.

조선과 아프리카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것을 강화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조선인민과 아프리카인민들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우리 인민과 아프리카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될뿐아니라 제3세계인민들,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위업에도 리로운것입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서로 지지협조하는것은 우리 정부와 인민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입니다.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 인민들, 제3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아프리카인민들을 비롯한 제3세계인민들은 자기의 앞길을 자신이 개척하여나갈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서로 아는것은 알려주고 모르는것은 배우며 유무상통하면서 협조하여나간다면 강대국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도 빨리 발전할수 있으며 진보와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조선인민과 아프리카인민들은 다같이 반제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전우로서 언제나 서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어깨겯고 싸워나갈것입니다.

물음: 청년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되고있습니다. 당신께서는 귀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였습니까?

대답: 청년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며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년들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위대한 혁명력량입니다. 생기발랄하고 혈기왕성하며 용감한 청년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위대한 사회적변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또한 혁명의 계승자들이며 앞날의 주인공들입니다. 청년들이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혁명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민족의 휘황한 장래가 있을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청년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으며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청년문제를 옳게 풀어나간다는것은 광범한 청년들을 혁명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여 새 사회 건설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며 민족의 장래운명을 책임질 혁명의 계승자로 잘 준비시킨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혁명투쟁에 나선 첫날부터 청년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우리의 혁명투쟁은 사실상 청년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청년들과의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각계각층의 애국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반제민족해방의 기치밑에 튼튼히 묶어세웠으며 그들로 항일유격대를 조직하고 조국해방을 위한 영광스러운 무장투쟁을 벌렸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청년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과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청년조직을 내오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온 나라의 애국적민주력량을 총동원하여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던 해방직후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우리 나라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대중적청년조직인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하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청년들을 거기에 묶어세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청년운동의 분렬을 막고 그처럼 복잡한 정세에서도 각계각층의 광범한 청년들을 새 조국 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었습니다.

청년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우리는 또한 청년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중요시하고 거기에 언제나 큰 힘을 넣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에서 우리가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는것은 그들속에서 주체교양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청년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이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인 담당자, 앞날의 주인공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참가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언제나 주체교양을 첫자리에 놓고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모든 청년들을 자기 당의 사상,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이 자기 힘을 믿고 높은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몸바쳐싸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계급교양입니다.

오늘 혁명은 한 나라의 범위에서나 세계적인 범위에서나 장기성을 띠고있으며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지고있습니다. 자라나는 새세대들, 청년들에 대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만 그들이 억압받고 착취받던 지난날을 잊지 않고 혁명의 원쑤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자는 구호밑에 지난날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자들에게 착취받고 억압받던것을 잊지 않도록 청년들을 교양하는데 힘을 넣고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둘로 갈라져있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와 직접 맞서있는 조건에서 청년들에 대한 계급교양에 언제나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청년들을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고상한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고있습니다.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열정을 가질수 없으며 그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싸울수 없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정신으로 무장시키고있으며 모든 청년들이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시키고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청년들이 로동을 사랑하며 건전한 도덕품성을 가지도록 교양하는것입니다.

로동을 떠나서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 로동을 사랑하는것은 청년들의 가장 고상한 품성의 하나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을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알고 언제 어디서나 힘든 일에 앞장서며

혁명과 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맡아나서도록 교양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철저히 반대하고 언제나 검박하게 생활하며 례절이 바르게 행동하도록 교양하고있습니다. 검박하게 전투적으로 생활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것은 우리 나라 청년들의 일상적인 생활기풍으로 되고있습니다.

청년들이 혁명적인 사상으로 무장하는것과 함께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만 모든 사회생활에 참말로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청년들이 선진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며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할데 대한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실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와 해방후 민주건설시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리고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 조국과 인민 앞에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으며 불멸의 공적을 세웠습니다. 행복한 새 사회, 새 생활을 더 빨리, 더잘 건설하려는 우리 나라 청년들의 확고부동한 결의와 높은 혁명적열정은 오늘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남김없이 발휘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와 도덕적풍모는 매우 좋으며 모든 청년들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습니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혁명적인 청년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조국의 미래는 휘황찬란합니다.

우리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위업을 이어나갈 믿음직한 새세대들, 혁명의 계승자들을 훌륭히 키워놓았다는것을 높은 긍지를 가지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커다란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물음: 조선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서의 농업과 공업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당신들도 잘 아는바와 같이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공업발전이 미약한 뒤떨어진 농업국가들입니다. 이 나라들에 공업이 있다면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이 풍부한 자원을 략탈할 목적으로 건설한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공업이 좀 있을뿐입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서의 공업의 락후성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완전히 청산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민족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공업과 농업은 인민경제의 2대부문이며 그 가운데서 공업은 경제의 주도적부문입니다. 민족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인민경제부문들을 발전시킬수 없으며 농업을 발전시키고 현대화할수도 없습니다.

공업 특히 중공업은 나라의 경제적독립의 물질적기초입니다. 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자체의 민족공업을 창설함이 없이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갈수 있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마련할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예속과 략탈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없습니다. 튼튼한 자립적민족공업이 없이는 이미 쟁취한 정치적독립도 공고히 할수 없습니다.

물론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자립적민족공업을 창설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들에는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도 모자라며 기술인재도 적습니다. 그러나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 인민들이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

과 자기 나라의 자원으로 자기 조국의 부강발전과 자기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투쟁한다면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능히 해낼수 있습니다.

발전도상나라들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으며 무궁무진한 생산잠재력이 있습니다.

또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은 비상히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는 무궁무진하며 세상에서 인민대중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지난날 착취받고 압박받던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은 오직 자신이 개척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자각을 가지고 새 생활 창조의 길을 용감히 개척해나간다면 모든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갈수 있으며 공업화의 요새를 반드시 점령할수 있습니다.

더우기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강화한다면 강대국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자립적민족공업창설의 과업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물음: 분렬된 조선을 외세의 영향이 없이 통일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분렬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것은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수천년의 오랜 력사를 통하여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온 단일민족입니다.

우리 나라는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외세에 의하여 남북으로 갈라졌으며 외세의 간섭때문에 오늘까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외세는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장본인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로서 조선인민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족내부의 문제는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야만 자기 민족의 리익과 자기 인민의 의사에 맞게 해결할수 있습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해결할수 없으며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외세의 간섭만 종식되면 우리 인민은 능히 자신의 손으로 분렬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습니다. 외세의 간섭이 종식되면 지금 북과 남사이에 진행되고있는 대화도 성과적으로 빨리 진척될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는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분렬시켰을뿐아니라 거의 30년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거기에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습니다. 남조선에는 지금도 수만명의 미제침략군대가 주둔하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북반부에는 그 어떤 외세도 없으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절대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엔군》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는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으며 1972년에 발표한 남북공동성명에도 나라의 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하여야 한다는것을 조국통일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의 결과로 지난해 유엔총회에서는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자주적평화통일원칙을

지지하며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내정간섭 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는데 이것은 우리의 커다란 승리이며 조선의 통일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키는데서는 아직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으며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여전히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하여 남조선당국자들을 민족분렬행동에로 끊임없이 부추기고있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의 전쟁소동과 파쑈화정책을 적극 비호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도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내정간섭책동과 분렬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집요하게 방해하고있습니다.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남조선당국자들은 무너져가는 군사파쑈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세에 더욱더 매여달리고있으며 통일이 아니라 분렬을 영구화하는 길로 나가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적평화통일원칙을 배반하고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고있으며 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습니다.

현 조건에서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 주되는 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야 하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온갖 장애를 물리치고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자신의 손으로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간섭 책동을 그만두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하며 남조선당국자들을 부추기거나 비호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있으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의 민족분렬책동과 파쑈화정책을 비호한다면 그로부터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수치스러운 참패만이 차례질것입니다.

우리는 유엔이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내정간섭 책동에 응당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은 마땅히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를 철거시켜야 하며 조선인민이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신의 손으로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귀중히 여기고 진리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분렬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갈라진 조국을 자신의 손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는 세네갈공화국 정부와 세네갈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물음: 아프리카대륙에서의 비식민지화문제에 대한 당신의 립장은 어떠합니까?

대답: 아프리카인민들은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으며 이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아프리

카대륙에서는 이미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고 새 생활을 창조하는 보람찬 투쟁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지난날 《식민지대륙》, 《암흑의 대륙》으로 불리우던 아프리카대륙이 오늘은 자유와 해방의 광명으로 빛나는 새로운 대륙으로 전변되여가고있습니다. 아프리카대륙에서 식민주의는 마지막시각을 보내고있습니다.

오늘 아프리카인민들은 아프리카대륙에서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아프리카대륙에서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가장 정의로운 투쟁으로 인정하고있으며 그것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식민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모잠비끄, 앙골라, 기네―비싸우, 짐바브웨, 나미비아, 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언제나 그들의 편에 확고히 서있을것입니다.

아프리카대륙에서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은 쫓겨나지 않는 한 식민지예속국가들에 대한 자기의 지배를 버리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략탈하는것은 제국주의의 본성입니다.

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외래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식민주의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여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민족적독립을 이룩할수 있으며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민들이 비식민지화투쟁에서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들사이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사이의 단결은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견결히 투쟁한다면 조만간에 아프리카의 모든 지역에서 제국주의자들을 완전히 내쫓고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할수 있으며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프리카, 아프리카 인민들을 위한 아프리카를 건설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인민들이 비식민지화투쟁에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물음: **우리는 쎈고르대통령이 답례로 세네갈을 방문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였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언제 우리 나라를 방문하실수 있겠습니까?**

대답: 나는 쎈고르대통령의 초청을 매우 감사히 접수하였으며 세네갈을 방문할것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앞으로 적당한 때에 세네갈을 방문하여 세네갈인민이 새 생활을 창조하는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를 직접 보고 거기에서 좋은 경험을 배우려고 합니다.

나는 이 기회를 리용하여 용감하고 근면한 세네갈인민이 쎈고르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세네갈공화국 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위대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가는 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자

오늘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세차게 울리며 날에날마다 새로운 비약과 기적이 창조되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우리 당창건 29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우러러모시고있는 위대한 수령님께 일화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인류가 낳은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를 실현하심으로써 우리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여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새형의 혁명적인 당을 가지게 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당은 어떠한 풍파와 시련도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불패의 당으로, 로쇠와 침체를 모르며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혁명적기백에 넘쳐 투쟁하며 전진하는 가장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기치, 영생불멸의 주체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달려온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해와 달이 다하도록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우리 당을 영원히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오직 전진만을 아는 주체의 혁명적인 당으로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불같은 충성의 결의로 가득차있다.

위대한 주체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불패의 혁명적인 당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깊은 뿌리에서 태여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나가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신 영광스러운 당이며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생기발랄한 위대한 주체의 혁명적인 당이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강화되였으며 당의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진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04페지)

사상의지의 통일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요인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생기발랄한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수령이 내놓은 혁명위업을 수행하자면 하나의 사상에 의하여 굳게 통일단결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된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있다.

우리 당안에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주체형의 피만이 맥박치고있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류가 낳은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며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초개와 같이 바쳐 싸워나가고있다. 또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무한한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참으로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그이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에 확고히 기초하여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의 통일단결이 완전히 실현된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우리 당은 또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당의 대중적지반이 강화되고 인민대중속에서 권위와 위신이 매우 높아진 혁명의 참된 전위부대로 되었다.

확고한 대중적지반과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혁명의 참된 전위부대,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확고한 대중적지반을 가지야 하며 대중속에서 권위와 위신이 높아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오늘 우리 당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로 튼튼히 꾸려진 불패의 혁명대오로 자라났으며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준엄한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각성되고 단련된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혁명적인 당으로, 대중속에서 권위와 위신이 매우 높아진 필승불패의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절대화하며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신념화하고 수령님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며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혁명실천과 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깊이 간직된 확고한 혁명적의지이다. 수령님에 대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절대적인 신뢰,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우리 인민들의 끝없는 충실성, 여기에 바로 우리 당의 필승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우리 당은 또한 전당에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사업방법이 세워진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 사업작풍을 확립하는 문제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이는 중요한 담보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적조직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을 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당사업에 대한 정연한 체계와 사업방법, 사업작풍이 세워져야 자체의 전투력을 높이고 대중에 대한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안에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세워졌다. 전당에 간부들과의 사업체계와 당원들의 당생활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서게 되었으며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튼튼히 세워졌다.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혁명적인 사

업방법과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는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확립되였다. 특히 당안에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의하여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확고한 지도체계와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확립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은 대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숭고한 위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참말로 움직이는 당, 전진하는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또한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위대한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이끌어나가는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커다란 우월성을 나타내고있습니다. 나라의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높이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원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으며 우리의 군사적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류례없는 번영기에 처하여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28페지)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과 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사회와 자연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나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켰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로동당은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오랜 세월 우리 인민이 그처럼 념원하였으며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위하여 피흘려싸운 바로 그러한 사회, 착취와 억압이 영원히 청산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구현하여 위력한 사회주의강국, 《사회주의자력갱생의 나라》를 일떠세웠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지금 우리 당은 혈기왕성한 전투적기백으로 그 발전속도에 있어서 세계혁명운동력사에서 찾아보기 드문 위대하고 거창한 사회주의대건설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오늘 우리 당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당은 생기발랄한 혁명적인 당으로, 투쟁하는 당, 혁명하는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그리하여 수령님의 유일적령도가 튼튼히 옹호보위되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전당에 제때에 관철되고있으며 당사업이 생신하고 패기있게 전투적으로 전개되고있다. 또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는 《속도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으며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불멸의 주체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로동당은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고 변혁하여 이 땅우에 민족적대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은 가장 힘있는 혁명적당일뿐만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선두대렬에서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고 힘차게 나가는 가장 존엄있는 당이다.

그러기에 오늘 세계 수많은 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을 가리켜 《세계혁명의 선봉에 서있는 당》, 《가장 위력한 승리의 상징》이라고 높이 칭송하고 있는것이다.

참으로 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강력하고 세련된 불패의 혁명적당,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조선로동당이 있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가 있기에 영원히 주체형의 혈통을 가진 생기발랄한 당으로 되는것이며 우리 인민의 보람찬 행복과 미래가 있는것이다.

우리 당을 영원히 생기발랄한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자

오늘 당중앙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을 우리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강령으로 제시하였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위업은 우리 당을 그 어느때보다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백방으로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모든 사회성원들을 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며 수령님의 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는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들어선 오늘 전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당건설에서 근본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전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모든 당원들을 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 혁명의 정수분자로 만들며 당건설, 당활동을 철저히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하여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전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기본연쇠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움직이는 사회의 심장이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추진력이다.

사회의 심장이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추진력인 당을 철저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야 당을 통하여 주체의 피와 영양소를 온 사회에 힘있게 뿜어줄수 있으며 사회와 인간을 수령님의 사상의 요구에 맞게 더 잘, 더 빨리 개조할수 있다. 그러므로 전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전당을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하여서는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확고히 보장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10폐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혈통을 가진 생기발랄한 혁명적당으로 되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진공적으로 벌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우리 당안에 주체의 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당의 통일과 단결에 지장을 주는것이라면 사소한 표현도 묵과하지 말고 제때에 강한 타격을 주고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충실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전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당중앙의 지도에 충실해야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실현할수 있으며 수령님의 의도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충실히 받들어나가야만 또한 전당의 사

상의지 및 행동의 무조건적인 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철두철미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당을 발전시킬수 있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해서는 또한 전당을 간부화하고 정예화하여야 한다.

전당을 간부화하고 정예화한다는것은 모든 간부들을 한급 높은 간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모든 당원들을 간부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것을 의미한다.

전당의 간부화는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신봉자로 만들자면 먼저 사회의 선진분자, 군중의 교양자들인 간부들과 당원들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전당의 간부화는 우리 당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만듦으로써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과정을 비상히 촉진시킨다.

당대렬을 강화하고 전당을 간부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의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기관들과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간부들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간부들을 잘 료해하며 간부들을 늘 꾸준히 교양하여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11페지)

간부들은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간부대렬이 튼튼하여야 우리 당 대렬이 튼튼할수 있으며 간부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우리 당의 모든 사업이 잘되여나갈수 있다.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간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로 간부대렬을 꾸리며 그들을 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키워야 한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당 간부의 기본표징이다. 간부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과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보위하며 로동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이 확고하고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썩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히 수령님과 당중앙에 충실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하며 당이 맡겨주는 그 어떤 혁명과업도 능히 감당해낼수 있게 준비된 일군들로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모든 간부들이 조금도 변질되지 않고 순결한 혁명사상과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 투지와 열정을 가지고 혁명사업에 끝까지 충실하도록 그들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 동시에 그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전당을 간부화하고 당대렬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한 모든 당원들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튼튼히 키워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은 당원들이 모인 정치적조직인것만큼 당이 강력한 정치적조직으로 되려면 당을 이루고있는 매개 당원들이 건전하고 견결하여야 하며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여야 한다.

당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당원에게 있어서 당조직생활은 정치적생명이다. 당원들속에서 당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만 그들을 혁명화할수 있으며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준비시킬수 있다.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중앙이 내놓은 당생활총화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당생활을 보다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이다. 이것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을 수령님의 혁명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늘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하여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사회의 심장이며 원동력인 당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생기발랄한 전투적조직으로 되게 하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당을 강화하고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자면 당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마스고 당사상교양사업이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돌려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정연한 당사상교양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전당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수립함으로써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사상리론수준과 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그들이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더잘 복무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당을 강화하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당조직들은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우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그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어버이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과 당중앙이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언제나 당적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 당대렬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이땅우에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만들어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특히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라서고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모든 일군들의 정치리론수준과 경제기술수준을 높여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의 전투적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 일군들은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으로 일하며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일체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배격하고 모든 일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조직집행하며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깨끗한 혁명적량심을 가지고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혁명을 위하여 성실히 일해야 한다.

우리는 참신한 혁명적기풍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의 전투적강령을 당창건 30돐전으로 기어이 앞당겨실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촉진시킬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영광의 시대, 주체시대에 태여나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산미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에게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모두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보람찬 혁명위업수행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치 싸워나가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생기발랄한 혁명적당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자.

혁명전통교양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위력한 수단

김 신 숙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일찌기 없었던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당중앙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온 사회를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당의 전투적강령으로 제시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할것을 제기하고있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혁명전통교양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혁명의 길을 개척해오시는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사상체계와 투쟁정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을 따라배워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옳게 구현해나가도록 함으로써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는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당중앙의 요구를 깊이 파악하고 이 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키우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위력한 수단

혁명전통교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며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위력한 수단이다.

혁명전통교양은 무엇보다 먼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철저히 세우게 함으로써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 커다란 작용을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은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더욱 똑똑히 알게 하여 그들속에서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사회주의전취물을 끝까지 지키는 투쟁정신을 기르는데 커다란 도움으로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80～181페지)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대중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워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은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그들을 튼튼히 무장시킨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

하시고 그를 혁명실천과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된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인 주체의 세계관이 밝혀져있으며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높은 사상정신적 및 도덕적 풍모들이 담겨져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만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체계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체득시킬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구현하여오신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업적을 깊이있게 알게 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전면적으로 체득하게 된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 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주체의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게 되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나갈수 있게 한다.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사상체계로 튼튼히 무장시킬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전면적으로 따라배우게 함으로써 그들을 수령님의 높으신 풍모를 그대로 받아안은 혁명가로 자라나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걸어오신 항일혁명투쟁의 전력사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숭고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이 구현된 영광찬란한 력사인 동시에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으로 아로새겨진 진정한 인민적수령의 투쟁력사이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때 그들을 언제나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한 혁명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소유한 능숙한 정치활동가로 키울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의 빛나는 모범으로 훌륭히 교양함으로써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한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이며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끝없는 영예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항일유격대오안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며 수령님의 명령,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수령님을 위해서는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싸우는 확고한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서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국광복의 서광을 비쳐주시는 민족의 태양으로, 전설적영웅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존경하였으며 오직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길만이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것을 굳게 믿고 15성상을 하루와 같이 엄혹한 시련을 박차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바쳐 견결히 투쟁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련이어 계속되는 가렬한 전투환경속에서도 언제나 수령님의 신변의 안전을 제일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웠으며 어디서 어떤 임무를 수

행하든지 지어 절해고도에 홀로 남았을때에도 언제나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러 거기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모든 난관과 애로를 뚫고 억세게 싸워나아갔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는것을 첫째가는 의무로, 생활의 철칙으로 삼고 행군길에서도,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기 위하여 이악하게 학습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있어서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기준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이였다. 그러기에 그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대한 철저한 옹호자였으며 적극적인 선전자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에 대하여서도 비타협적으로 견결히 싸웠으며 단두대의 이슬이 되는 순간에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르는 자기들의 정치적신념과 혁명적신조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혁명적절개를 지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님의 명령과 지시를 집행하는데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님의 명령, 지시라면 어려운것과 쉬운것, 복잡한것과 간단한것, 조건이 유리한것과 불리한것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명령, 지시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나 자의적으로 변경시키는 현상에 대해서는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님의 명령을 수행하기전에는 죽을 권리조차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으로 비록 자기의 한몸은 희생될지언정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과업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바로 여기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였다. 이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이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귀중한 본보기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날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이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것은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불러일으킴으로써 자연과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힘있는 원천으로 되고있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근로자들은 항일빨찌산들의 혁명위업을 계승하는 커다란 긍지와 책임감을 간직하고 난관과 애로에 부닥칠때마다 그들의 영웅적투쟁업적에 고무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비상한 애국적헌신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180페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자면 사람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것과 함께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게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높은 자각적열성과 무궁무진한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킨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과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높으신 덕성을

깊이 연구하고 따라배우는것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더욱 두텁게 하여주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보다 높이 하여준다. 이러한 자부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의 가슴마다에는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정신이 더욱 차고넘치게 되며 혁명과 건설에서 무궁무진한 창조적적극성과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낳게 된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혁명위업을 계승한다는 커다란 긍지와 높은 책임감을 간직하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나아가면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위대한 전변과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현실은 이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혁명전통교양은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계승발전시켜나가게 함으로써 대를 이어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라나는 세대들을 혁명전통으로 교양하여야만 그들을 우리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키울수 있으며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67페지)

혁명전통교양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혁명투쟁의 시련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을 위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온 사회를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력사적위업이다.

혁명의 장래운명은 전적으로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계속해나가는가에 달려있다. 후대들이 당의 창건자이며 혁명투쟁의 개척자인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가지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게 하는데서 근본문제이다.

혁명의 세대가 바뀌여졌다고 하여 당을 창건하고 혁명의 길을 개척한 수령을 무조건 높이 우러러모시지 않고 그의 사상을 이어받지 않는다면 당은 벌써 수령의 당이 아니며 혁명은 대가 끊어졌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후손만대에 넘겨줄 혁명의 귀중한 밑천이며 우리 혁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유일한 동맥이며 새세대들을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키우는 생명선이다.

새세대들을 오직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여야만 그들이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가 어떻게 마련되였고 그것을 옹호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이 얼마나 숭고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계승자이라는 높은 자각과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일편단심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 준비될수 있다.

이 모든것은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오직 주체형의 피만이 맥박치는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게 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선 오늘 우리앞에는 당중앙이 가르치는대로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의 구호에 맞게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실속있고 활발하게 벌려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하고 따라배우게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이땅우에 활짝 꽃피워오신 빛나는 력사이며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찬란히 수놓아오신 가장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하여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대를 이어가면서 혁명의 붉은 기치를 끝까지 지켜 투쟁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과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을 전일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것은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깊이있게 체득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혁명적가정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움터나고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시작되는 력사적터전이며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력사와 항일무장투쟁력사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조선혁명발전에 구현되여 우리 당과 혁명의 억년 드놀지 않는 력사적뿌리인 혁명전통이 창시되는 위대한 행정이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투쟁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여야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심오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깊이있게 파악할수 있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한없이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심장깊이 체득할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명령, 지시를 끝까지 옹호관철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이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결국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진심으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며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하는 견결한 혁명전사로 만들자는데 있다.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참된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이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 참된 공산주의혁명가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그것을 떠나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전통교양은 명실공히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혁명전통교양을 통하여 수령님에 대한 항일혁명선렬들의 무한한 충실성을 본받아 자신을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하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께 모든것을 다 바치는 끝없이 깨끗하고 뜨거운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보위하며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도록 하는것이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온 사회를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해서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영원히 계승발전시키며 혁명전통을 헐뜯거나 말살하려는 반당적인 책동에 대하여서는 자그마한 표현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고수해나가도록 교양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이다.

우리는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보위하며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조선혁명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을 실속있고 활발하게 벌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해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혁명전통자료에 대한 전면적이며 체계적인 학습을 진행하여야 하며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는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있은 혁명적사실을 단지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혁명전통에 담겨지있는 혁명사상과 정신을 체득하여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한데 있다. 따라서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된 혁명가로 키우는 혁명화의 과정으로 되도록 보다 체계적이며 깊이있게 진행되여야 하며 실생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에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이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전통에 관한 많은 글을 써서 강연도 하고 신문이나 잡지에도 내고 소책자도 내야 하며 대중들이 리해하기 쉽게 통속적으로, 옛말식으로 만들어 알려주거나 노래를 지어서 보급하기도 하여야 한다. 특히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혁명소설과 혁명가극,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서 대중을 교양하는것은 혁명전통교양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와 사적지,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과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을 정중히 꾸리고 이를 거점으로 하여 혁명전통교양을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할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키울수 있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혁명전통교양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당중앙의 유일적인 지도밑에 옳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당중앙의 의도는 곧 수령님의 의도이며 당중앙에 충실하는것은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사상사업을 보다 진공적으로 책임성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위대한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며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가야 한다.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

김 우 선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주체적인 사회주의적민족미술건설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진실로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의 주체미술은 찬란히 꽃피여나고있다. 그것은 대중교양의 훌륭한 수단의 하나로서 우리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문예사상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의 미술을 참말로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철저히 복무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미술로 되게 하여야 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미술건설사상을 내놓으시고 여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미술은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되여야 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 미술로 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미술이 철저하게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훌륭한 민족적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것입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392~393페지)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은 사회주의적민족미술건설에서 우리 당이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태도를 밝혀주고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적민족미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술분야에서도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술에서 주체란 바로 우리의 미술을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고 당과 혁명의 리익에 복무하게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지향에 맞으며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복무하는 참말로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미술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미술을 조선화를 바탕으로 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조선화는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인

민들의 생활과정에서 형성발전되고 그들에게 가장 친근감을 주는 민족미술형식으로서 우리의 미술유산들가운데서 전통적인 가치를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다. 그것은 우리 인민들의 비위와 정서에 맞고 그들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인민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다른 미술형식들보다 비할바없이 큰 감화력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발전시켜야 그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투쟁과 보람찬 생활모습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술이 참말로 근로대중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며 그들의 혁명적의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미술로 될수 있다.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을 구현하여 당중앙은 우리의 미술을 조선화에 중심을 두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당중앙의 이 방침은 조선화를 미술의 다른 형태들에 비하여 비례상으로 압도적우세를 차지할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적민족미술건설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울수 있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침이다.

조선화를 결정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미술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기본고리로 된다. 조선화를 적극 내세우고 장려하며 그것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미술창작전반에서 조선적인것을 토대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발전시키는 근본문제를 옳게 해결할수 없다. 조선화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킬 때만이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회화뿐아니라 영화미술, 무대미술, 산업미술, 조각, 수예, 공예와 같은 미술들을 다 조선적인것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수 있으며 조선화를 본보기로 하여 우리의 주체미술을 전면적으로 꽃피워나갈수 있다.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미술형식인 조선화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부르죠아사상과 수정주의,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복고주의 등 온갖 반동적인 사상조류들을 극복하고 우리의 미술을 조선혁명에 철저히 복무하는 진정으로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미술로 건설해나갈수 있으며 세계혁명적미술발전에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우리 미술의 이러한 주체적성격은 바로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을것을 요구한다.

미술이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아야 하는것은 사회주의적민족미술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오늘날 혁명과 건설은 자연지리적환경과 혁명발전단계가 각이한 민족국가를 단위로 진행되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매개 나라 인민들의 생활은 꼭같지 않으며 그들의 정치, 경제 및 문화 생활은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적민족미술은 민족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야 성과적으로 발전할수 있으며 미술이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게 되는것이다.

조선화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미술의 민족적형식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사회주의적내용을 더잘 나타내고 부각시켜주며 정확히 전달하게 한다. 미술의 형식이 인민들의 눈에 거슬리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내용도 제대로 표현할수 없다. 미술을 민족적형식으로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그의 인민성과 통속성을 높일수 없으며 미술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킬수 없다.

우리 미술이 조선화를 바탕으로 한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아야 사회주의적민족미술건설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울수 있으며 추상주의미술을 비롯한 제국주의문화적침투로부터 주체미

술의 순결성을 튼튼히 고수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술의 민족적 형식을 옳게 구현하기 위한 방도로서 조선화의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한 특징과 선명하고 간결한 전통적인 화법을 살리고 그것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아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화를 우리 나라 미술발전의 바탕으로 삼으라는것은 결코 복고주의적으로 옛날것을 그대로 본따라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선화의 선명하고 간결한 전통적화법을 연구하여 그것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94페지)

지난날의 조선화가 가지고있는 우수한 특징을 살리고 부족점을 극복하며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와 현대사람들의 미학적기호에 맞게 미술형식을 혁신할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우리의 미술을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더잘 복무할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당중앙은 미술형식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구현하여 우리의 미술이 내용에서만아니라 형식에서도 전혀 새로운 우리식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당중앙의 이 방침은 미술의 형식을 위대한 비약과 력사적사변들로 가득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우리 인민들의 미학적기호에 맞게 대담하게 혁신함으로써 그것을 혁명적내용과 완전무결하게 통일시켜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하며 참말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미술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방침이다.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면 사람들의 사상도덕적풍모와 미학적기호도 변화발전한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데 따라 미술의 혁명적내용이 발전하여야 하며 미술형식도 그 내용에 맞게 혁신되여야 한다. 미술에서 복고주의를 엄격히 경계하고 사회주의적이며 혁명적인 내용에 맞게 미술형식을 끊임없이 혁신하여야 그것이 혁명과 건설에 훌륭히 이바지하는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문예사상을 내놓으시고 미술창작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미술의 민족적형식을 더욱 발전시키고 완성하기 위하여 힘쓸뿐아니라 우리 미술을 사회주의적내용을 가진 철저하게 혁명적인 미술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미술작품의 주제를 옳게 설정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94페지)

주제를 옳게 설정하는것은 미술창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제를 옳게 설정해야 미술작품의 내용을 혁명적이고 전투적인것으로 만들수 있으며 고상한 사상성과 함께 높은 예술성을 보장할수 있다.

당중앙은 주제설정문제에 관한 수령님의 사상을 구현하여 주제를 혁명적이며 전투적인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주제를 전투적이며 혁명적인것으로 설정해야 우리 시대와 로동계급의 지향을 가장 철저하게 반영한 혁명적인 미술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주제를 전투적이며 혁명적인것으로 되게 하는데서 기본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화폭의 중심에 충성담아 모심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현명한 령도,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폭넓게 반영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적 가정을 훌륭히 형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화폭의 중심에 충성담아 모시는것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우리 인민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의 미술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받들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모습과 약동하는 우리 나라의 혁명적현실을 잘 반영할뿐아니라 조국해방전쟁,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들을 창작하여야 한다.

당에서는 현실적의의가 있는 주제를 대담하게 잡고 그것을 잘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인간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며 그들의 교감관계를 잘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미술의 전투적기능을 높일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

당에서는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는 경우에도 시대적높이에 튼튼히 서서 화폭에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기상과 약동하는 패기와 정열이 넘쳐나도록 형상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당에서 종자를 잡아주고 그를 빛나게 형상해낼수 있도록 이끌어준 조선화 《강선의 저녁노을》과 《내금강의 아침》은 풍경화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적계기를 열어놓았다.

이 작품들은 모두 조선화창작에서 현실적의의를 가지는 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형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생동한 본보기로 되고 있다.

조선화창작에서 주제를 전투적이며 혁명적인것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방침은 우리 미술의 근본사명을 옳게 수행하도록 하며 조선화를 더욱 높은 수준에로 이끌어올릴수 있게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당중앙은 또한 채색화를 발전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기 위하여 조선화의 색채를 우리 인민의 요구에 맞게 완성하며 조선화의 재료를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방침은 조선화를 우리 인민의 현대적미감에 맞게 채색화로 발전시키며 그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게 함으로써 주체미술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할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방침이다.

우리 당이 내놓은 혁명적인 문예방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적인 미술건설사상을 더욱 풍부히 하고 그 빛나는 실현을 확고히 담보하여주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문예사상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적민족미술건설의 전과정에서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더욱 발전한 우리의 미술은 미술력사에서 전례없는 개화기에 들어섰으며 민족적색채와 혁명적기백이 흘러넘치는 주체미술의 본보기로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술가들이 우리 당이 걸어온 간고하고 줄기찬 혁명의 길과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모습들을 미술작품에서 훌륭히 형상해낸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미술작품의 내용에서뿐만아니라 표현수법과 기교에서도 커다란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우와 같은 책, 39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주체적인 미술건설사상을 높이 받들고 당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미술분야에서 이룩된 가장 자랑찬 성과는 무엇보다도먼저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불면의

대기념비적미술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한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불멸의 대기념비적미술작품들에는 조선화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발전시킨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당중앙의 현명한 문예방침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우리의 혁명적미술은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만수대대기념비》와 같은 금자탑을 쌓아올리였으며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빛나는 화폭들을 충성담아 수많이 창작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탁월한 군사전략가로서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대기념비적화폭에 모신 조선화《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원수님》, 《승리의 열병광장》 등 대서사시적화폭들을 비롯하여 《조국개선》, 《몸소 기관총을 잡으시고》, 《조선의 예술은 살아있소》, 《통일의 광장》, 《김덕균에 오신 수령님》, 《예술인들속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 《초소에 오신 수령님》, 《전사들속에 계시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 등 충성담아 창조된 화폭들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조선화의 특성들과 우수한 화법에 의하여 창조된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이 수많은 화폭들에는 한결같이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를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폭넓게 보여주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과 그 로정에서 이룩하신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업적을 력사적현실과 같이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다.

우리 미술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그들에게 가장 자애로운 어버이 수령님으로,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고 인민들의 진두에 서시여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이끄시는 위대한 인민의 수령님으로서 정중히 모시였다.

우리의 미술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작품들과 함께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형상한 《향토적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하시는 김형직선생》,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된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한 대원들을 만나시여 고무격려하시는 강반석녀사》, 《백두산근거지인민들을 반일사상으로 교양하시는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 등 우수한 작품들을 수많이 내놓았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빛나는 화폭들과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형상한 훌륭한 작품들은 다같이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충성심을 더욱 불타게 하며 온 사회를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주체적인 미술건설사상을 높이 받들고 당의 지도밑에 우리 미술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또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다양한 주제의 조선화작품들을 창작하는데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난것이다.

조선화 《진격의 나루터》, 《로혹산의 용사들》, 《락동강도하전투》, 《영흥만대공전투》, 《강선의 저녁노을》, 《유치원어린이들의 건강진단》, 《내금강의 아침》 등 작품들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미술가들이 조선화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며 미술의 다른 모든 형식들도 조선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창작투쟁을 줄기차게 벌린 결과 조선화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민족미술로, 우리 미술의 주도적형식으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튼튼히 차지할수 있게 되였을뿐아니라 그를 본보기로 하여 다른 형태의 회화나 영화미술, 무대

미술, 산업미술, 수예와 공예, 조각 등에서도 조선적인 바탕이 구현된 우수한 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당의 지도밑에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오늘의 가극무대에 옮긴 혁명가극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비롯하여 《밀림아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 등 《피바다》식 가극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거둔 무대미술의 성과는 우리 미술이 이룩한 가장 큰 성과의 하나로 된다.

혁명가극 《피바다》의 탄생과 함께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이 세상에 새로 나와 계속 훌륭히 꽃피여나고있는 《피바다》식 무대미술은 현실에서 보는듯한 사실주의적진실성과 립체성,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에 맞는 조선적인 형상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종래 무대미술의 제약성을 완전히 극복하고 무대미술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였다. 참으로 《피바다》식 무대미술은 아름답고 황홀하고 깊은 정서적감흥을 주며 혁명적주인공의 정신세계를 힘있게 부각하는데 철저히 복무하고 무대미술의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린 우리식의 무대미술이다.

당의 지도밑에 우리의 미술은 기념비적벽화작품창작에서도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반전시키는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한 주체시대의 자랑찬 력사를 만대에 길이 전하게 될 평양지하철도벽화는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이 벽화작품들은 벽화의 장식성만 강조함으로써 친근감을 주지 못하던 종래의 벽화형식을 대담하게 마스고 벽화장식용소재로부터 형상에 이르는 전과정을 우리 인민의 비위와 구미에 맞게 함으로써 아름답고 우아하며 선명한 조선화의 특성을 훌륭히 구현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발전시킨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그를 빛나게 구현한 당의 방침은 유화, 출판화 등 회화들과 산업미술, 공예를 비롯한 미술의 모든 분야에서 조선적인 특성이 구현된 훌륭한 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할수 있게 하였다.

최근시기에만 하여도 우리의 미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위적군사사상과 탁월한 령도예술, 작전적방침의 빛나는 승리를 보여주는 인민상계관작품인 대형전경화 《대전해방전투》와 같이 미술력사에서 류례없는 기념비적대작을 창조하였다.

유화인 대형전경화 《대전해방전투》는 그 립체성과 공간구성, 전투정황과 전투진경의 묘사에서 힘있고 선명한 조선화의 특성을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유화작품도 우리식으로 창작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오늘 우리의 산업미술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적인 틀에서 벗어나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발전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정서와 비위에 맞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철저히 부합되고있으며 사회주의적민족공예와 수예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미술분야에서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우리의 미술을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발전시킨데 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주체적인 사회주의적민족미술건설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을 위한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과 정력적인 지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우리 미술가들앞에는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미술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미술가들은 수령님의 주체적인 미술건설사상과 당의 문예방침으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고 창작실천을 통하여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주체형의 공산주의미술가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 것이다.

기술혁명은 낡은것과의 투쟁속에서만 전진한다

김　　　응　　　삼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의 기치높이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면서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단숨에 점령하고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기 위한 우리 인민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다그치기 위하여 오늘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와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구체적실정에 대한 깊은 분석에 기초하시여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3대기술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과업들을 밝혀주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기술혁명을 저애하는 온갖 낡은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기술혁명의 필수적요구와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기술혁명수행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기술혁명을 저애하는 온갖 낡은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도처에서 새 기술, 새 기록을 창조함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의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낡은것과의 투쟁은 기술혁명의 필수적요구

기술혁명은 근로자들을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한 다음 우리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가장 영예롭고 신성한 임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 이것은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고되고 힘겨운 로동에서 해방하여 일은 헐하게 하면서 더 많은 재부를 생산할수 있게 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고 문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혁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544페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마련하여주며 도시와 농촌사이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기술혁명은 낡은 기술을 개조, 개량, 혁신하는데 그치는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온갖 낡은 때를 벗기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조하며 현대과학의 성과들을 생산에 받아들이고 보급하는 투쟁과정이다.

기술혁명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근로자들을 온갖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위대한 혁명사업이다.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현대과학의 성과를 생산에 받아들이고 보급하는 기술혁명은 오직 사회주의사회에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 약육강식의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할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술개조는 한줌도 못되는 착취자들의 돈벌이수단으로 되고있으며 기술이 개선될수록 자본가를 비롯한 착취계급은 더욱더 부유해지는 반면에 절대다수의 수백만 근로자들은 더욱 착취당하고 그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악을 격증시키는 기술발전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으며 자본가들의 새 기술 도입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사회와는 정반대이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근로대중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근로자들의 로동은 헐하고 능률적인것으로 되며 사람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자들은 기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모든 힘과 지혜를 다바쳐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 기술혁명을 끊임없이 촉진할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는것은 결코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술적진보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진행하는 혁명은 곧 온갖 낡은것을 때려부시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입니다.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 진보와 보수와의 투쟁, 적극과 소극과의 투쟁,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와의 투쟁, 총체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투쟁, 이것이 우리가 하는 혁명투쟁의 내용입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위업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고 썩은것을 쓸어버리는 과정에서만 승리할수 있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57페지)

원래 혁명은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며 그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심각한 투쟁이다. 혁신이 일어날 때에는 뒤떨어진것이 반드시 방해한다. 혁신 그자체가 벌써 뒤떨어진것과의 투쟁을 동반하며 낡고 침체한것과 투쟁하지 않고서는 혁신이 일어날수 없다. 이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혁명에서나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혁명, 문화혁명에서나 마찬가지이다. 혁명을 통하여 새것이 창조되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혁명적으로 개조되고 기술과 문화도 발전하게 된다.

기술혁명도 하나의 혁명인것만큼 반드시 낡은것과의 투쟁을 동반하며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성과적으로 극복하는 기초우에서만 힘있게 추진될수 있다.

기술혁명은 낡은 기술과 기계를 새로운것으로 혁신하는 투쟁으로서 기계와 기술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자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룩되는 창조적과정이다. 그러므로 낡은 기계와 기술을 새것으로 바꾸는 투쟁은 그것을 직접 담당수행하는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사람들이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 등 낡은 사상에 물젖으면 자기것을 믿지 않고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을 우상화하며 과학과 기술을 신비화하거나 낡은 경험에 매달려 과학기술발전을 저애하게 된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절실히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라도 대담하게 달라붙어 그것을 연구하지 않을뿐아니라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운운하면서 자체의 힘을 믿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의 성과들도 적극 받아들일수 없게 된다.

낡은 사상에 물젖으면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할수 없게 되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도 높이 발양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기술혁명은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 적극과 소극과의 투쟁, 혁신과 침체와의 투쟁,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와의 심각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이 투쟁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고 기술혁명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높아감에 따라 더욱더 심각하게 벌어지게 된다.

오늘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수행하고있는 3대기술혁명은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고 침체한것과의 투쟁을 적극 벌릴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3대기술혁명과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영예로운 과업이며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우리앞에 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과업이다. 3대기술혁명은 무엇보다 공업분야에서 기계공학, 전자공학, 자동화공학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능률이 높은 새로운 기계들을 널리 도입하고 전자 및 자동화요소와 장치들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생산공정의 종합적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현하고 점차 원격조종에로 넘어갈것을 제기하고있다. 또한 농업부문에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생물학적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새로운 품종을 많이 길러내며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 과정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영예로운 과업을 내세우고있다. 그뿐아니라 녀성들을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식료가공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현대적인 부엌세간들을 더많이, 더빨리 만들어낼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이 모든 기술혁명과업은 우리 나라에 축성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방대한 생산규모와 발전된 현대적기술에 기초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기술혁명과업이다.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자면 당중앙에서 밝혀준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관철하여 남이 한걸음 걸을 때 백걸음, 천걸음 내달려 과학기술분야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야 한다. 이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방법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고치고 모든 사업을 진격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밀고나갈 때 훌륭히 실현될수 있다. 사람들의 사고와 실천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문제는 결국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속에서 주체사상과 인연이 없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와 사업방법, 사업태도를 반대하는 끊임없는 투쟁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경험은 이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 있다. 강선의 영웅적로동계급이 공칭능력 6만톤의 분괴압연기에 살을 붙이고 기술적으로 개조하여 오늘 수십만톤의 강재를 뽑는것도, 지난날 간단한 농기구조차 변변히 만들지 못하던 우리 나라에서 지금 뜨락또르와 자동차, 여러가지 대형기계들을 척척 만드는것도, 남들이 100년 지어 수백년동안 수행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빛나게 실현한것도 그 모두가 다 기술혁명을 저애하는 온갖 낡고 침체한것과의 심각한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실로 기술혁명을 저애하는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는 것은 기술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이며 사회주의대건설진투를 다그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밀고나가야 할 절실한 문제의 하나이다.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없애고 기술혁명을 다그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인민이 힘있게 벌리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진투는 수많은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의 해결을 제기하고있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위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의 비상한 로력과 투쟁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는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적립장에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다그쳐 3대기술혁명과 6개년계획수행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풀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것입니다.》(《신년사》, 1974년 1월 1일, 12페지)

수령님께서는 3대기술혁명과업과 6개년계획수행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을 비상히 다그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맡겨주시였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이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무엇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려는 높은 열도의 충성심을 가지고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며 소극과 보수, 침체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높이 발양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칙으로 삼고 억세게 싸워나갈 때 기술혁명을 저애하는 온갖 낡은것을 뿌리빼고 과학연구와 그 성과를 보급일반화하는 투쟁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교시들 특히 기술혁명을 다그칠데 대하여 주신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깊이 연구학습하여 그를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두가 다 오직 우리 당의 혁명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기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몸바쳐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혁명을 저애하는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자면 또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그의 직접적인 담당자인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로 어떻게 무장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는 중요하게 과학과 기술을 모르고 신비화하는데서 나온다. 과학과 기술을 모르면 신비해보이지만 알고보면 결코 신비한것이란 없으며 그것을 생산에 널리 받아들일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면 새로운 기술과 뒤떨어진 기술을 분간하며 새 기술을 창조하고 그를 제때에 받아들이며 보급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연구학습하며 전공부문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속도전》의 방법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 공업부문에서 종합적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현하고 원격조종에로 넘어가며 이미 마련된 경제적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에서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도록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현시기 채취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부문에서 설비의 현대화, 대형화, 고속도화를 실현하며 수송혁명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풀어 사회주의대건설을 비상히 다그쳐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학기술리론수준을 높이고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근로자들속에서 기술학습과 기술전습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그들의 전반적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높여야 한다.

특히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들의 역할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부들은 무엇보다먼저 기술혁명에 대한 옳은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겠는가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간부들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혁명과업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언제나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하여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극복하고 기술혁명을 적극 다그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학습을 강화하여 현대과학기술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맡은 사업에 정통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기술지식수준을 높이고 그들을 기술혁명수행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기술혁명을 저애하는 낡고 침체한것을 쓸어버리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생산자대중과 과학자, 기술자들사이의 창조적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도처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과학기술적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과학기술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종자》를 바로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감으로써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앞에 나서는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며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3페지)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등 온갖 낡은것을 뿌리빼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며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사업을 짜고들며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에게 연구과제를 정확히 주고 그들이 과학기술발전에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바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와 요령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요소와 로쇠현상을 없애고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기술혁명을 위한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통이 크게 벌려나가며 전격적인 경제선동을 벌려 모든 근로자들을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여기에 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당창건 30돐안으로 점령하며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돌진해나가자.

수령님께서 밝히신 투쟁을 통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의 정당성

남 근 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 10월 28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에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하여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투쟁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투쟁방침에 의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 엄숙한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더욱 치렬히 전개되고 분렬주의자들의 범죄적정체는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놈들의 《두개 조선》조작음모는 파산당하고있다.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하여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단호한 방침은 날이 갈수록 그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하고있으며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에서 우리 인민의 일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이 이룩되지 못하고있는 원인과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의 흉악한 목적을 폭로하시고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인 투쟁방침을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으며 분렬주의자들과는 어떠한 타협도 할수 없습니다.》(《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9페지)

수령님께서 밝히신 이 방침은 혁명투쟁의 원칙과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 그 발전의 주객관적요인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것으로서 거기에는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관을 타개하고 기어코 통일위업을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은 나라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이룩될수 없으며 오직 인민들은 투쟁을 통해서만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이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명백한 진리이다.

우리 조국의 통일은 그 누가 선사할수 없으며 우리 인민자신이 단합된 민족주체적힘으로 성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절반땅을 근 30년동안이나 강점하고 침략과 전쟁, 억압과 략탈을 일삼아온 미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이 오늘에 와서 달라질수는 없다.

더우기 미제는 제놈들의 아세아침략정책이 전면적으로 파산되고있는 조건에서 어떻게 하나 남조선을 아세아에서 저들의 마지막지탱점으로 끝까지 틀어쥐려고 발광하면서 박정희괴뢰도당을

우리와의 대결에로 추겨대고있다.

력사적으로 단일민족으로서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온 우리 민족의 분렬은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생긴것이며 이 비극적인 력사가 오늘까지 지속되고있는것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분렬주의책동때문이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민족분렬책동과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이미 커다란 민족적재난을 겪었으며 분렬로 인한 고통을 체험할대로 체험하였다. 조국통일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반제민족해방투쟁이며 계급투쟁이다. 이 투쟁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민족분렬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제로 한다.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놈들의 침략과 간섭을 결정적으로 종식시키며 미제의 철저한 식민지괴뢰인 박정희도당의 매국배족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놈들의 비호밑에 만고역적 박정희괴뢰악당의 범죄적책동이 계속되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우리 인민은 통일된 조국에서 편안히 살수 없다.

사람들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길은 오직 침략자, 압제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길뿐이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조국통일을 성취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인민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주체적이며 애국적인 투쟁의 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투쟁을 통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은 또한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 특히 북과 남사이의 대화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통일의 앞길에 있을수 있는 모든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평화적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지난해에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정책으로 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민족의 영구분렬이냐 아니면 통일이냐 하는 엄중한 난국에 부딪치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4～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북협상방침에 따라 지난기간 북과 남사이에 진행하여온 대화과정은 자주로선과 외세의존로선, 평화로선과 전쟁로선, 단결로선과 대결로선간의 투쟁이였으며 결국 통일로선과 분렬로선간의 투쟁과정이였다.

우리는 수령님의 남북협상방침에 의하여 마련된 대화를 성공에로 이끌기 위하여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우리는 대화에서 남북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을 망라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공명정대한 방안들을 거듭 제기하였다.

대화과정에서 우리가 제기한 모든 방안들은 민족자결의 신성한 원칙에서 자기 운명을 자기자신이 개척해야 한다는 근본립장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으며 남북에 조성된 각이한 정세를 충분히 고려하여 내놓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였다.

그러나 박정희괴뢰도당은 대화를 제

놈들의 분렬주의적목적에 악용하여 량면전술과 지연전술에 매달리면서 통일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그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았으며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마저 덮어놓고 반대하였다.

놈들은 남북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할데 대한 문제의 절박성을 말로는 시인하면서도 문제의 해결을 반대하였으며 북과 남이 서로 합작하는데는 동의하고서도 구체적조치를 취하는것은 반대하였다. 이놈들은 대화의 폭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애당초 론의하는것조차 반대하였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장기집권과 영구분렬의 방패로 삼으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은 회담장안에서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을뿐아니라 회담장밖에서도 배신적이며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우심하게 감행하였다.

놈들은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원칙에 동의하고서도 돌아가서는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제침략군이 외세가 아니라느니,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수해서는 안된다》느니 하면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였으며 지어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옷자락에 매달려 《한국은 일본만을 믿는다》느니 뭐니하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남조선을 미일침략세력의 2중적예속하에 더욱 깊이 밀어넣었다.

뿐만아니라 박정희괴뢰악당은 악랄한 《비상사태》우에 《비상계엄령》, 《위수령》까지 선포한 가운데 강권으로 분렬체제이며 전쟁체제인 《유신》파쑈독재체제를 꾸며내였다.

처음부터 민족의 영구분렬을 획책해온 박정희괴뢰도당은 지난해 6월 이른바 《특별성명》이라는것을 통하여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제놈들의 《정책》으로 공공연히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평화통일념원에 대한 악랄한 배신행위이며 남북대화를 파탄시키고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공공연한 분렬선언이였다.

박정희괴뢰악당의 매국배족적이며 반인민적인 분렬선언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북과 남의 대화는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지고 민족의 머리우에는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게 되였다.

온 민족의 평화통일념원에 역행하여 끝끝내 나라를 영구분렬의 위험속에 밀어넣은 박정희괴뢰도당은 지금 더욱더 민족분렬책동을 심화시키고 분렬을 고정화시키는데로 줄달음치고있다.

민족의 영구분렬에 미쳐날뛰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은 무엇보다도 무력증강과 군비확장에 열을 올리면서 수많은 신형무기와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는 한편 미제침략자들과 함께 륙지와 바다와 하늘에서 우리를 적으로 《가상》한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리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계획적으로 감행하여왔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임의의 시간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정도로 남북관계를 격화시키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또한 가장 야만적파쑈악법인 《긴급조치》를 휘두르면서 남조선의 민주력량과 평화통일세력에 대한 류혈적인 탄압을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다. 악명높은 《유신》독재밑에 감행되는 파쑈폭압소동은 박정희괴뢰악당의 뒤흔들리는 권력을 유지하고 남조선인민대중의 높아가는 통일지향을 꺾으며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장기집권의 야망을 충족시키려는 용납할수 없는 흉악한 범죄적책동의 일환이다.

철저히 미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있는 박정희괴뢰악당은 안으로는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세력들을 총칼로 억누르면서 밖으로는 이미 지난해 유엔에 메고갔다가 파산당한 남북조선 《유엔동시가입안》의 변종인 이른바 《유엔단독가입안》이라는것까지 꾸며가지고 사방으로 돌고다니는 추악한 분렬책동을 일삼고있다.

나라와 민족은 안중에 없고 오직 분렬만을 추구하는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이러한 범죄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은 민족의 영구분렬이냐 아니면 통일이냐 하는 엄중한 난국에 부딪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오늘 매국자들과 외

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 원쑤들의 분렬책동을 파탄시키는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나라의 통일은 오직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앞잡이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따라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을 민족최대의 임무로,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인민이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응당한 요구이며 권리이다.

우리 인민은 당의 투쟁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만이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나라의 자주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나갈수 있으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존엄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투쟁을 통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은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으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외세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우여곡절을 겪고있지만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힘을 합쳐 꾸준히 투쟁함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에 노보스띠〉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5페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원칙적인 투쟁방침은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에서 민족자주의 기치따라 날로 확대발전하고있는 반파쑈민주화투쟁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치명적타격을 주고 놈들을 더욱더 위기에 몰아넣고있다.

지난해 10월 남조선의 수십개 대학과 10만여명의 청년학생들, 종교계, 언론계를 비롯한 광범한 사회계층을 망라한 대중적공동투쟁과 《100만명서명운동》에 뒤이어 올해 4월 남조선에서 청년학생들은 대중적시위투쟁으로써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를 폭발시켰다. 이것은 현군사파쑈통치밑에서는 아무것도 바랄수 없고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자신의 의식적인 애국투쟁이다.

남조선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은 모든 해외동포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고있으며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기세는 해외에 더욱 널리 퍼져가고있다.

그리하여 미국, 일본, 카나다, 서부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 있는 해외교포들속에서 반미, 반박정희운동이 거세차게 벌어지고있다. 또한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 국제민주단체들과 많은 나라 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들이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박정희괴뢰악당의 파쑈독재를 저주하고 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이미 지난해 유엔총회를 계기로 세계 많은 나라 대표들은 적극적인 노력과 투쟁으로 우리의 통일방안과 원칙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유엔동시가입》을 시도하던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켰다.

이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방침의 정당성과 그에 대한 열렬한 국제적지지성원을 뚜렷이 실증한것으로 된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대세는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다. 남조선과 해외, 조선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 사이에는 침략자,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전선이 이루어지고있다.

오늘 안팎으로부터 고립배격당하고 국제고아의 신세에 굴러떨어진 매국역적 박정희도당은 최대의 위기를 겪고있다. 놈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는 미일상전들의 위기와 겹쳐 군사파쑈독재의 운명을 결정지을 심각한것으로 급속히 전환되여가고있다.

지금 세계여론이 안팎으로 배격당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처지에 대하여 《국제무대에서 소리를 내면서 허물어지고있다》, 《말라죽어가는 나무와 같다》고 조소하는것이 우연하지 않다.

모든 사태발전은 우리 인민이 내외반동들과 견결한 투쟁을 벌릴 때만이 놈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투쟁을 통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은 정세발전을 주동적으로 촉진시키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실수 있게 하는 힘찬 투쟁의 기치이다.

지금 박정희괴뢰도당은 파멸적인 운명을 예감하고 마지막발악을 다하고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은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련일 감행하고 《반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며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청년학생, 각계층 민주인사들에 대한 살인폭압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공산주의자들과 더불어 살수 없다》느니, 《싸워서 이겨야 한다》느니 하면서 《정신적인 반공》을 《실질적인 반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광기어린 소동을 벌리고있다.

이것은 박정희도당이 《반공》의 구호밑에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파쑈독재를 강화하는데 얼마나 미쳐날뛰고있는가를 보여주고있다.

박정희악당의 매국배족적본성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긴급조치》를 휘둘러대면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에 대한 살인폭압만행을 악랄하게 감행하는데서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요구하는 애국력량에 대한 놈들의 폭압선풍은 혁명가들에 대한 살인공판놀음을 벌린것과 함께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과 관련시켜 체포구금한 애국적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집단적으로 학살처형하는데서 그 절정에 이르고있다.

박정희파쑈악당들은 애국적청년학생들과 그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지원한 전《대통령》, 종교계의 인사들과 목사, 문화인, 언론인들을 《내란죄》, 《대역죄》로 몰아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며 놈들의 《법정》에서 청년학생들을 변호한 변호사까지 체포구금하는 파렴치한 책동을 감행하고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청년학생들, 민주인사들에 대한 박정희파쑈악당들의 잔인무도한 폭압만행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민주주의와 초보적인 인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조선의 통일을 지향하는 온 민족과 인류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과연 어느때 어느 나라 력사에 민주주의를 요구한다하여 한꺼번에 4,000여명의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체포구금한 일이 있었으며 무데기로 극형과 중형을 들씌운 실례가 있었던가. 이것은 이미 력사의 오물로 처박힌 악명높은 도죠나 히틀러, 무쏠리니 같은 파쑈교형리를 뛰여넘는 횡포한 만행이며 죽어가는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류력사는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피압박인민대중의 정의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침략자와 압제자들이 멸망하고 인민대중이 승리하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입니다.》(《수단정부기관지 〈알 싸하파〉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페지)

남조선괴뢰악당들이 《반공》의 구호밑에 애국자들을 탄압하고있으나 《반공》이란 사실상 파쑈독재와 매국배족의 구호이며 민족분렬과 동족상쟁의 구호이라는것을 누구나 다 알고있다.

박정희도당은 어떠한 허위날조로써도

혁명가들과 애국적청년학생들, 민주인사들에 대한 야수적탄압을 정당화할수 없으며 어떠한 파쑈폭압으로써도 제놈들의 위기를 수습할수 없고 죽음을 면할수 없다.

력사발전의 대세는 인민들의 투쟁에 의해 결정되기마련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압제자, 매국노들을 용서치 않을것이며 놈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것이다.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범죄적인 매국배족행위와 파쑈폭압만행이 남조선인민들의 세찬 반항에 부딪치고 날로 높아가는 세계여론의 규탄을 받게 되자 《저격사건》과 같은 추악한 정치적모략극까지 꾸며내여 우리 공화국과 재일총련을 반대하는 일대 광란적인 소동을 벌려놓음으로써 위기에 빠진 제놈들의 신세를 건져보려고 꾀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멸망하여가는자들의 가소로운 망동에 지나지 않으며 박정희괴뢰악당은 이로부터 아무것도 얻을것이 없을것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이야말로 매국배족적 책동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없이 감행하는 만고역적이며 인민의 극악한 원쑤이다.

현실은 민족적량심을 가진 모든 조선사람들이 투쟁을 통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튼튼히 견지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미일침략자들의 2중의 주구 박정희 매국역적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도 조국의 통일도 이룩할수 없다. 오직 놈들의 분렬주의책동을 철저히 짓부심으로써만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룩할수 있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할수 있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강령을 실현하며 당면하여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대민족회의를 소집하여 남북협상과 대화를 전민족적범위로 확대함으로써만 원쑤들의 분렬주의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나갈수 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극악무도한 파쑈폭압만행과 추악한 《반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두개 조선》조작을 획책하려는 부질없는 짓을 그만두어야 한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감행하고있는 민족분렬책동과 파쑈독재는 분렬을 고착시키고 남조선을 영원히 식민지화하려는 미일반동들의 비호와 조종에 의한것이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버리고 박정희파쑈악당을 부추기대는 범죄행위를 그만두어야 하며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은 당장 물러가야 한다.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독재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촉진하는데서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애국세력에 대한 살륙만행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박정희괴뢰악당의 《유신》독재를 짓부시기 위한 반파쑈민주화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놈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안겨야 한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통일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자신의 힘과 투쟁으로 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제10호(루계 390호)

편 집 위 원 회

발 행 소•근 로 자 사 주소•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 쇄 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74년 10월 1일 발행•1974년 10월 5일

ㄱ—44322 값 50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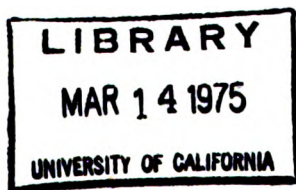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1호

평 양 근로자사 1974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1 호(391)

차 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가야한다

김 일 성

(수리아아랍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4년 10월 1일)

존경하는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각하!

존경하는 수리아의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평양시의 각계층 인민들은 조선인민에 대한 뜨거운 우정을 안고 온 수리아인민의 친선의 사절들과 상봉하게 되는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아랍사회부흥당 총비서이며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인 하페즈 알 아싸드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아랍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당신들을 통하여 형제적수리아인민에게 보내는 조선인민의 뜨거운 친선의 인사를 전합니다.

조선과 수리아는 다같이 아세아대륙에 있으며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밑에서 압박받고 천대받던 지난날의 처지와 새생활창조를 위한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굳은 전투적친선의 뉴대로 련결되여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당신들과의 상봉을 통하여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있으나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싸우는 전우로서 또한 형제로서 매우 가까이 잇닿아있다는것을 생동하게 느끼였습니다.

두 나라 인민들을 련결시키고있는 이 친선의 뉴대는 바로 반제반식민주의공동투쟁속에서 이루어진것입니다.

우리는 수리아인민이 새 사회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과 특히는 지난해 10월해방전쟁에서 수리아인민이 발휘한 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에 대하여 매우 감탄하고있습니다.

수리아인민이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지난해 10월전쟁과 골란고지에서 계속된 치렬한 전투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한것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코대를 꺾어놓은것으로 되였으며 아랍땅을 영원히 강점하고 지배하려는 그들의 야심적인 침략계획에 파렬구를 뚫어놓은것으로 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아랍인민들에게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정의의 위업에 일떠서면 그 어떠한 원쑤도 타승할수 있다는 신심을 북돋아주었으며 중근동문제해결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수리아인민이 이룩한 력사적승리를 자기의 승리와 같이 기뻐하며 그것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모든 사실은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령토완정을 위한 투쟁에서 수리아인민은 비록 일시적난관을 겪고있지만 확고하게 승리하며 전진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지난해 10월전쟁시기에 아랍나라들은 군사적으로 공동작전을 진행하고 경제적으로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석유수출을 금지하는 통일행동을 취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유태복고주의자들에게 일찌기 없었던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아랍나라들이 일치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능히 제국주의자들의 숨통을 틀어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유태복고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과 군사적도발 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중근동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과 유태복고주의자들이 아무리 날뛴다 하더라도 그것은 멸망의 운명을 지닌자들의 발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중근동문제가 의연히 해결되지 못하고있고 이 지역에서 전쟁이 여러차례 반복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제와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기인되고있습니다.

중근동문제가 옳게 해결되려면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종식되고 이스라엘침략자들이 강점한 모든 아랍땅에서 물러가야 하며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권리가 완전히 회복되여야 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빼앗긴 땅을 해방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있는 모든 수단을 다 리용할데 대한 확고부동한 혁명적립장을 견지하고있으며 중근동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수리아인민은 전쟁피해를 가시고 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며 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며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형제적수리아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있을것이며 그들의 정당한 립장을 적극 지지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또한 자기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합법적권리회복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투쟁과 강점당한 아랍땅을 되찾으며 민족적존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아랍인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오늘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는 아랍인민들의 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전세계 인민들의 공동투쟁속에서 발전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오만무례하게 허장성세하고있지만 그들은 죽어가는 제국주의세력에 자기 운명을 의탁하고있음으로 하여 반드시 패망할것입니다.

아랍인민들은 광활한 령토와 방대한 물적, 인적 자원을 가지고있으며 신흥세력으로서 승승장구하는 제3세계에 속하고있음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미제국주의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아랍인민들

이 이룩하는 승리는 곧 우리 인민의 승리로 되며 우리 인민의 승리는 또한 아랍인민들의 승리로 됩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조선의 현 통치배들은 이른바 《이스라엘전법》을 도입하여 우리 공화국을 치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결탁하고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여왔으나 그 《이스라엘전법》이라는것이 수리아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박산나게 됨으로써 남조선당국자들의 타산도 깨여지고말았습니다.

조선인민과 수리아인민의 투쟁은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으며 이 관계는 날을 따라 더욱 공고발전되고있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은 분렬된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것입니다.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가지 과업을 중요하게 내세우고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이며 둘째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이며 셋째로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며 다음전망계획년도의 웅대한 건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대건설에 총동원되고있으며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일대 혁명적고조를 일으키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전망은 휘황찬란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우리가 내세운 사회주의건설의 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할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성과에 고무되여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운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습니다.

요즘 남조선에서는 그처럼 혹심한 파쑈폭압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요구하며 현 군사파쑈통치제도의 철페를 주장하는 로동자들과 청년학생들,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을 포함한 각계층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이 새로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떠한 파쑈적폭압으로써도 인민들의 반항을 결코 꺾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들을 반대하여 남조선인민들이 용감히 벌리고있는 투쟁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적인 투쟁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어느때나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원할것이며 그들과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나갈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완전히 철거시키는것입니다.

《유엔군》의 간판을 가지고있는 외국군대를 남조선에서 철거시켜야 한다는것은 오늘 막을수 없는 시대적요구로 되고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는 수리아를 포함한 35개 유엔성원국들의 공동발기에 의하여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기로 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형세가 저들에게 불리하게 되자 요즘에는 황당무게한 궤변으로 세계여론을 우롱하며 군대철거를 회피해보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에 있는 미군이 《유엔군》이 아니라 이른바 《한미호상방위조약》에 의하여 남조선에 머물러있는 군대라느니 《유엔군》이 철거하면 전쟁이 다시 일어날 위험이 있다느니 하고 떠들고있습니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유엔의 이름을 리용하는것이 유리하다고 볼 때에는 《유엔군》이라고 떠들고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있는것이 불리하다고 볼 때에는 《유엔군》이 아니라고 하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언제나 쓰는 강도적론법 그대로입니다.

《한미호상방위조약》이라는것이 조작되기전에 이미 미군이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에 기여들었다는것은 엄연한 력사적사실이며 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지워버릴수 없습니다.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유엔군》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합법화할수 없게 되였는데 하물며 미제와 남조선의 매국도당사이에 꾸며진 그 무슨 《조약》이란것을 가지고 합법화하려 한다는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정전협정의 리행과 관련한 그 어떤 담보조건없이 《유엔군》이 남조선에서 나간다면 전쟁위험을 증대시키게 된다는 미제의 론조도 전혀 리치에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조선에서의 정전의 유지는 미국군대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의하여 담보되고있습니다.

《유엔군》의 간판밑에 조선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조선에서 상시적인 전쟁위험을 낳고있던 외국군대가 유엔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물러가게 된다면 그자체가 조선에서의 평화유지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는것으로 되는것이며 여기에서 그 어떤 다른 담보문제란 제기될수도 없습니다.

외국군대가 철거한후에 그 어떤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것은 벌써 제3자가 개입할 문제인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자체의 내부문제로서 남북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여 해결할 성격의 문제입니다. 남북공동성명은 이러한 협의의 확고한 기초로 됩니다.

만일 외국군대의 철거과정에 제기되는 그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 문제와 관련한 직접적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처리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당국에 평화협정체결문제를 제기한것만큼 여기에서도 별로 문제될것은 없을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당국자들이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이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철거와 관련한 그 어떤 담보에 대하여서만 떠드는것은 어떻게 하나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지 않으려는것이며 조선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남조선만이라도 계속 틀어쥐고있으려는것입니다.

사실상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머물러있다면 도리여 그것은 전쟁의 위험을 상시적으로 조성하게 되며 일단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쉽게 전면전쟁으로 번지게 될것입니다.

미국이 조선과 아세아에서 더 큰 참패를 당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조선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야 하며 인민들의 세찬 반항과 불신을 받아 허우적거리고있는 남조선의 현 통치배들을 되살려보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지금과 같이 외세의존정책과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계속하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면서 매국의 길, 민족반역의 길로 나가는 조건에서 현 남조선당국자들과만 협상을 하여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과 남에 있는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광범히 참가하는 대민족회의를 열고 사상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민족적 대단결의 정신에서 협상을 실현하여 조선에서 분렬과 대결을 해소하며 단결과 합작의 원칙에서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하여야 합니다.

조선은 하나이며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므로 결코 둘로 갈라질수 없으며 또한 두개 나라로 영원히 분렬될수 없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원칙을 고수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엔군》의 간판을 가진 외국군대가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외국군대가 물러가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넓은 길이 열릴것입니다.

오늘 전반적정세는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날로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세계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배격당하고있으며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련대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기회에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대통령각하와 수리아 정부와 인민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 나라들과 인민들이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제국주의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더욱더 얻어맞고 쫓겨나고있으며 지난날 압박받고 천대받던 제3세계인민들이 력사무대에 등장하여 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있습니다.

국제적력량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이제는 세계무대에서 발언권이 착취받고 압박받던 인민들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아세아에는 혁명하는 나라, 싸우는 나라들이 많으며 조선으로부터 중국, 인도지나, 중근동에 이르는 아세아의 넓은 지역이 반제혁명투쟁의 무대로 되고있습니다.

캄보쟈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나라의 완전한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용감히 싸우고있으며 남부웰남인민은 북부웰남인민과 함께 빠리협정

의 엄격한 리행을 보장하고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으며 라오스인민은 통일되고 번영하는 새 라오스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지나인민들의 투쟁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리의 령토인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중국인민의 투쟁,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아세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아세아와 함께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지키며 자기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높아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쓸어버리고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한 전체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미국의 지배와 통제를 반대하고 민족적자주권과 자연부원, 령해권을 지키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제국주의가 망하고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승리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입니다.

지난해 있은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그후에 진행된 원료및개발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제6차특별회의, 제3차유엔해양법회의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들은 현 국제관계발전에 미치는 제3세계나라들의 커다란 영향력과 단결된 위력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사실은 제3세계인민들이 더욱 굳게 단결하여 일치한 보조로 싸운다면 제국주의의 어떠한 침략책동도 짓부시고 그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킬수 있으며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빨리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제3세계나라 인민들,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견결히 싸워나갈것이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혁명적련대성과 친선의 뉴대로 련결된 조선인민과 수리아인민은 한대륙인 아세아에서 함께 투쟁하며 함께 전진하고있습니다.

대통령각하를 비롯한 수리아당및정부대표단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두 당, 두 국가, 두 인민들 사이의 친선단결이 가장 공고하고 높은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힘있게 시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여기며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앞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언제나 형제적수리아인민과 굳게 손잡고 싸워나갈것입니다.

조선인민과 수리아인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 만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 만세!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며 령토완정과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각하와 수리아인민에게 위대한 승리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다오메정부기관지《다오멕스 프레스》사장과 한 담화

김 일 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9월 19일 다오메정부기관지《다오멕스 프레스》사장을 접견하시고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담화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당신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주고 우리 공화국창건 기념행사에 참가하여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국경절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우리의 명절을 더욱 빛나게 하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지난해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가서 우리 나라에 대하여 소개하고 선전하는 사업을 널리 하였습니다. 당신은 이번에 또다시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당신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이 여러가지 문제를 질문하였는데 이제부터 그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먼저 조선과 다오메사이의 관계발전문제와 제3세계나라들의 단결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조선인민과 다오메인민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협조하여왔으며 친선관계를 맺었습니다.

특히 1973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다오메군사혁명정부 사이의 외교관계설정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습니다.

조선과 다오메사이에 외교관계가 맺어진 다음부터 다오메 정부와 인민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하여주고있습니다. 다오메는 이번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에 대한 우리 측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돌아가면 당신네 나라의 국가수반과 외교부장을 비롯한 정부지도간부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감사의 정을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당신이 말한바와 같이 조선과 다오메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선인민과 다오메인민이 서로 정치적으로 더욱 긴밀히 지지하고 협조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은 다같이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받아온 인민이며 오늘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인민입니다. 지난날의 처지의 공통성과 오늘의 투쟁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진실로 평등하고 호혜적인 원칙에서 서로 지지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갈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서로 래왕도 자주하고 호상 유익한 경험도 많이 나누며 정의의 위업을 서로 적극 지지하고 고무해주어야 할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이 하면 서로 리해를 두텁게 하고 친선을 더욱 강화할수 있을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다오메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조선인민과 다오메인민사이의 친선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적으로 서로 지지성원하는것과 함께 경제기술적으로도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은 나라들사이의 친선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 다오메공화국과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지난날 억압받고 착취받던 제3세계나라들이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교류와 기술적협조를 강화하여나가는것은 강대국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정치적으로 단결할뿐아니라 경제,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이 인민들의 압력과 투쟁에 굴복하여 많은 나라들의 민족적독립을 승인하였지만 그들의 야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식민주의정책을 통하여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다시 예속시키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당신들도 체험한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은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다시 예속시키기 위한 전복활동을 빈번히 감행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3세계나라들은 전투적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빨리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빨리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이 나라들사이에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서로 교류할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을 몇가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뻬루기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말하였지만 뻬루에서 물고기가공기술이 발전하였는데 우리는 뻬루에서 물고기가공기술을 배워올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오메에서도 좋은 경험과 기술을 배워올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나라에도 다른 나라에 넘겨줄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이 있습니다. 례를 들면 수리화경험 같은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농촌경리의 수리화가 잘되여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는 수리화경험을 제3세계나라들에 넘겨줄수 있습니다.

지금 제3세계에 속하는 나라가 100여개 있는데 이 나라들이 좋은 경험과 기술을 한가지씩만 내놓아도 100여가지의 좋은 경험과 기술이 나옵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이것만 서로 교환하여도 큰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지금 강

대국들에 의존하는것은 주로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강대국에서 자금을 빌려오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술을 빌려오는것입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서로 모르는것은 배워주고 없는것은 도와주면서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한다면 강대국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나라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험은 인민들이 단결하고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전후 우리 나라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것이 재더미로 되였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인민들이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살아갈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공업화가 되지 못하였지만 농촌에서 협동화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조합은 어렵게 살던 빈농민들로 먼저 조직되였습니다. 현대적기계가 없는 조건에서도 농민들이 한데 뭉치니 큰 힘이 생겼으며 협동경리의 우월성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농촌경리의 수리화도 농민들의 힘을 합쳐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한 나라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힘을 합치면 큰 힘을 낼수 있고 큰 일을 할수 있다는것은 세계적범위에서도 적용할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단결하고 서로 힘을 합치면 큰 일을 할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자원을 보호하는 투쟁을 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여 하루빨리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난날에는 몇몇 강대국들이 세계에서 주인행세를 하였지만 이제는 제3세계인민들이 세계의 주인노릇을 하여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제3세계나라들과 단결하며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3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다음으로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아프리카인민들에 대한 우리의 립장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오늘 아프리카대륙에서는 자주의 기치밑에 식민주의의 온갖 잔재를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억압밑에서 신음하던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이미 독립을 쟁취하고 자주적발전의 길에 들어섰으며 국제무대에 등장하여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프리카대륙에서는 식민주의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해방투쟁이 진례없이 앙양되고있습니다. 기네—비싸우, 모잠비끄, 앙골라 인민들은 오랜 기간의 무장투쟁을 통하여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에게 결정적타격을 주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아프리카인민들의 거세찬 민족해방투쟁에 의하여 아프리카대륙에서 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체제는 종국적으로 무너져가고있습니다. 이 투쟁속에서 아프리카인민들은 날을 따라 더욱 각성되고있으며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자라나고있습니다.

아프리카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은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며 제국주의, 식민주의

의 마지막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아프리카인민들이 벌리고있는 정의의 해방투쟁은 오늘 세계반제혁명위업수행에 크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인민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반드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없는 아프리카,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아프리카를 건설할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있으며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고있습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민족적독립을 쟁취하며 식민주의잔재를 쓸어버리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며 그들에게 굳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합니다.

당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한 요인인 주체사상에 대하여 말해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우리가 쓴 글이 이미 많이 나갔기때문에 그에 대하여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당신이 옳게 지적한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이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입니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투쟁함으로써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와 세기적락후를 없애고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주체사상이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투쟁에 의하여서만 침략자와 억압자들을 때려부시고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으며 유족하고 문명한 새 생활을 마련할수 있습니다.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물질적부를 창조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며 낡은 사회를 때려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입니다. 세상에 근로인민대중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이며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때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시킬수 있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이 새 생활 창조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떠미는 추동력으로,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당신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사상이 어떻게 구현되고있는가 하는것을 물었는

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는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규정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는 문제 다시말하여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근로인민대중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왔으며 또 돌리고있습니다.

매개 나라 인민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인 정권을 가져야 하며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당신네 나라의 국가수반이 정치적자주성에 대하여 강조하는것은 매우 정당하다고 봅니다. 매개 나라 인민은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모든 로선과 정책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남의 압력이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는 정권은 자기 나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있는 정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정치에서 자주성이 없는 나라는 사실상 자주독립국가라고 볼수 없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정치적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주견에 따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경험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는것만 골라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원칙을 견지하고있습니다. 다시말하여 우리는 무엇이든지 씹어보고 자기 비위에 맞으면 삼키고 자기 비위에 맞지 않으면 뱉아버리는 원칙을 견지하고있습니다.

정치적자주성과 함께 경제에서의 자립성을 보장하는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입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한 자주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하며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려면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체의 자원과 기술, 자기 인민의 로동에 의거하여 나라와 인민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리나갈수 있는 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자립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매우 짧은 기간에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국방에서 자위를 보장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의 필수적요구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수 있는 자위적인 방위력을 가지지 못한 국가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방에서 자위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인민군대의 간부화와 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조국의 안전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철벽의 방위력을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식민지예속에서 해방된 나라들이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될수 있습니다.

둘로 갈라져서 서로 다른 길을 걷고있는 우리 나라 남북반부의 현실이 그것

을 잘 말하여주고있습니다.

자주의 길이 아니라 외세의존의 길을 걸어온 남조선은 미일제국주의자들에게 완전히 예속되고말았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에게서 많은 《원조》를 받고있는 남조선은 지금 다른 나라들의 빚을 60억~70억딸라나 지고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있으니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돈을 대주지 않으면 당장 군대도 유지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군대가 남조선에 장기주둔하여줄것을 애걸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남조선을 어떻게 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명색이 《나라》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나라가 아닙니다. 남조선은 외국의 군사기지이고 상품시장이며 신식민주의의 올가미에 걸린 예속《국가》입니다.

남조선에 자립적민족경제가 없으니 인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실업자수가 수백만을 헤아리고있으며 절대다수 인민들이 헐벗고 굶주리고있습니다. 남조선사람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남조선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입니다. 이것은 몇몇 잘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잘살게 되고 절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민들을 도탄속에 몰아넣고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을 어떻게 민족적량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남조선과는 달리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완전한 정치적자주성과 자립적인 민족경제와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진 떳떳한 독립국가입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는 남에게 빚을 진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 나라에 두번씩이나 와보아서 잘 알겠지만 우리 나라에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고르롭게 잘살고있으며 누구나 다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대한 근심걱정없이 마음껏 일하며 무료로 공부하고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남북반부의 판이한 현실은 남북이 서로 다른 정책을 실시하는데로부터 초래된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외세의존의 길을 걸으면 또다시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될수 있으며 반대로 자주의 길을 걸으면 독립을 고수하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 인민들이 신식민주의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혁명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벌려온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의 력사는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이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은 이미 우리 인민의 혁명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날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한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입니다. 우리 나라 남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은 나라의 통일을 한결같이 열망하고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립장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정부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립장입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조선에 대한 온갖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다음 오늘까지 거의 30년동안이나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며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입니다.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미제와 함께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있는 외세는 일본군국주의자들입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저들의 상품시장으로, 식민지로 만들려는 목적밑에 미제의 《두개 조선》정책에 적극 추종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는것과 함께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키려면 남조선반동들이 외세에 의존하지 말아야 하며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조선반동들이 외세에 매여달리지 않고 매국배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남북조선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미제는 벌써 남조선에서 쫓겨났을것이며 우리 나라에 대한 외세의 간섭은 종식된지 오랬을것입니다.

분렬된 조국을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여야 하며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이 정치활동을 자유로이 할수 있게 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한다는것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적인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세우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 지금과 같이 가혹한 파쑈통치가 실시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조건에서 어떻게 남조선인민들이 자기 의사를 마음대로 표시할수 있으며 어떻게 민주주의적인 남북총선거를 실시할수 있겠습니까.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분렬된 조국을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며 남조선인민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꾸준히 투쟁하여왔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꾸준하고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였으며 1972년 7월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근본립장이 밝혀진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과 남사이에 협상이 마련된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물론 전세계인민들이 이에 대하여 매우 기뻐하였으며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남북협상을 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반동들의 매국배족행위와 민족분렬영구화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새로운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습니다. 남조선반동들은 대세의 압력과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통일기운에 못이겨 우리와의 협상마당에 끌려나오기는 하였으나 협상에서 전혀 성실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우리가 내놓은 합리적인 제안들을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여 협상의 막뒤에서 민족분렬영구화책동과 매국배족행위를 일삼았으며 파쑈화정책과 전쟁도발책동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북과 남사이의 협상은 시작된지 3년이 되도록 이렇다할 전진을 보지 못하고있습니다.

당신이 북과 남사이의 협상에서 이룩된 결과가 무엇인가고 물었는데 남조선반동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북과 남사이의 협상이 조국통일을 위한 근본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아직 전진을 이룩하지 못하고있고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여있지만 우리는 협상과정에서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립장과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남조선반동들의 모략책동이 온 세상에 더욱 명백히 알려지게 되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은 조선에서 누가 진심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누가 분렬을 추구하는가, 누가 진정한 애국자이고 누가 매국자인가 하는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은 혁명적으로 더욱 각성되였으며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남조선반동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서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세계의 더욱더 많은 인민들로부터 지지와 동정을 받게 되였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앞에는 의연히 커다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남북조선 인민들이 굳게 단합하여 꾸준히 투쟁한다면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말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과 우리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가지 혁명과업 다시말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과업을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과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력사적경험은 물질적토대를 쌓는 투쟁만 하여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오래전부터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구호를 내놓고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습니다.

우리가 하고있는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근로자들을 조직생활을 통하여 교양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일정한 조직에 망라되여 조직생활을 하고 있으며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상적으로 단련하고있습니다. 청년들은 사로청조직생활을 하고 녀성들은 녀맹조직생활을 하며 학교어린이들은 소년단조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은 당조직생활을 하며 로동자들은 직맹조직생활을 하고 협동농민들은 농근맹조직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조직생활에서 기본은 학습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열심히 학습하고있습니다.

학습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입니다. 조선혁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인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 당안에 우리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지 않고 다른 당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우리 당의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을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여있으며 우리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있습니다.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로동을 사랑하며 로동의 열매를 귀중히 여기도록 하는것입니다. 로동은 사회의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매우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로동하기를 좋아하고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로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전취물을 열렬히 사랑하고 적극 보호하도록 교양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상혁명과 함께 기술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습니다.

로동계급의 정권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는것입니다.

우리 당 제5차대회는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과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당이 내놓은 3대기술혁명과업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우리는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로동이 가장 많은 부문인 채굴공업과 수산업, 림업 부문에서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가 널리 실시되여 로동자들이 중로동에서 많이 해방되였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도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수리화가 실현되였으며 농촌전기화도 빛나게 완성되였습니다. 지금은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탈곡, 제분, 정미 작업은 이미 오래전에 다 기계화되였습니다. 올해 봄에는 많은 면적의 논에 기계로 모를 냈으며 지금은 기계로 가을걷이를 할 준비를 적극 다그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농촌에는 뜨락또르가 경지면적 100정보당 벌방지대에는 4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는 3대씩 차례지고 있습니다.

농촌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농사가 잘되고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것이 예견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식량을 자급자족하고있으며 알곡의 일부는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업에 돌리고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습니다. 녀성들에게 남자와 같은 정치적권리를 주는것만으로는 녀성해방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같은 권리를 줄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할수 있는온갖 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녀성들의 참다운 해방을

실현할수 있으며 그들을 로동계급화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들이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이르는곳마다에 탁아소, 유치원을 많이 건설하여 350만의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고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녀성들에게서 아이를 기르는 부담을 덜어주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수도화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데 농촌수도화가 완성되면 우리 나라 녀성들은 물동이를 이는 일에서 영원히 해방될것입니다.

문화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과 10년동안의 학교의무교육을 주는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습니다. 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자라나는 새세대들은 모두다 국가의 혜택으로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받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을 중학교졸업정도이상으로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공부하지 못한 40대이상의 사람들도 다 근로자중학교에 다니게 하여 중학교졸업정도의 지식을 가지도록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배우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날 기술문명에서 뒤떨어졌던 우리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빨리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민족간부를 키우는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이미 60만명이상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놓았으며 가까운 앞날에 그 대렬을 100만명으로 늘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140여개의 각종 대학이 있는것만큼 기술자, 전문가의 대렬을 100만명으로 늘일데 대한 목표는 멀지 않아 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데 앞으로 그들을 다 인테리화하려고 합니다. 다시말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높은 문화기술지식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체 인민이 공부하도록 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문화혁명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사실상 전체 인민이 학습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투쟁하고있으며 간부들이 학습에서 앞장서고있습니다. 당, 국가경제기관 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관리일군들은 매일 일하고난 다음 2시간이상씩 학습하며 매주 수요일에는 강연회를 하고 토요일에는 한나절씩 집체학습을 하고있습니다. 그뿐아니라 모든 간부들이 사상, 기술, 문화 수준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 한해에 한달씩 직장에 직을 두고 학교에 가서 의무적으로 공부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체계를 철저히 세워놓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이처럼 잘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기때문입니다.

당과 정부가 옳은 혁명로선을 내세워 인민들이 전도를 똑똑히 내다볼수 있게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민들은 모두다 우리 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통하여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내다보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청년학생, 녀성할것없이 전체 인민이 혁명의 전도와 자기들이 할바를 다 잘 알고있으며 휘황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가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있는 또하나의 주요한 요인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며 근로인민대중을 반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며 인민들과 단결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우고있습니다. 인민들속에 들어가면 그들에게서 좋은것을 많이 배우며 또 용기도 얻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속에 들어가 인민들에게서 배울뿐아니라 인민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조직동원합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이 제3세계나라들의 진보적인 정권을 전복하려고 파괴음모책동을 로골화하고있는 조건에서 당과 정부가 인민대중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파괴음모책동을 물리치기 위하여서는 원쑤들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는것과 함께 인민들을 튼튼히 묶어세워야 합니다. 국가가 인민들을 통치하려고만 하여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통치라는 술어자체가 인민의 정권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국가가 인민들을 통치할것이 아니라 인민들과 단결하여야 합니다.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우리가 내놓은 주체사상의 기초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느님》이나 그 어떤 영웅호걸이 결정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이 결정합니다. 근로인민대중에 의거하고 근로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발동하여야만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으며 모든 애로와 난관을 뚫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당신이 질문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앞으로 조선과 다오메사이의 친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주기 바랍니다.

당신이 두번에 걸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기때문에 이제는 우리와 구면친구가 되였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좋은 친구를 다오메에 가지고있는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조선에 대한 선전자로 되였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다오메에 대한 선전자로 되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면서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적극 투쟁합시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오메국가수반을 평양에서 만날것을 희망합니다. 당신네 나라의 국가수반이 조선을 방문하면 우리 인민은 그를 진심으로 열렬히 환영할것입니다.

얼마전에 또고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는데 우리 인민은 그를 매우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나와 또고대통령이 만난 기간은 짧았으나 그사이에 우리는 서로 리해를 두텁게 하였으며 가까운 친구가 되였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 국가수반들을 친구로 가지고있습니다.

나는 다오메국가수반과도 친구로 될것을 희망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희망을 다오메국가수반에게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빠나마기자대표단과 한 담화

김 일 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9월 1일 빠나마신문들인 《마뚜떠노》 주필과 《엘 빠나마 아메리카》 주필을 접견하시고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담화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조선인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당신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당신들은 빠나마기자로서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 오신 손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을 정부대표단과 같이 매우 귀중한 손님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인민과 빠나마인민사이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계기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관계가 더욱 좋게 발전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고무하여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당신들이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에 대하여 그리고 나자신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히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빠나마인민의 사절인 당신들을 만나 좋은 친우로 사귀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여러가지 문제를 질문하였는데 이제부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교육정책을 말하기전에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질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도 아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지리적으로 큰 나라들사이에 끼여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 력사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대주의에 물젖은 봉건통치배들은 나라를 발전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당파로 갈라져 제가끔 큰 나라를 등에 업고 당과싸움을 일삼았습니다. 어떤 당파는 이쪽 큰 나라를 등에 업고 또 어떤 당파는 저쪽 큰 나라를 등에 업고 서로 권력다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 인민들은 정치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고 나라를 발전시킬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이 당파싸움을 일삼은 결과 우리 나라는 1910년에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고말았으며 우리 인민은 일본제국주의통치밑에서 36년동안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게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영용하게 벌리였으며 드디여 1945년에 일제를 패망시키고 민족적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거의 반세기에 이르는 식민지노예생활의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다시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되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 반드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여 후대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후대들이 제국주의의 압박과 착취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나라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키워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는 민족간부가 매우 적었습니다.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면 자기 인민과 자기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족간부가 있어야 합니다. 간부가 모든 문제를 결정합니다. 자체의 민족간부를 키우지 않고서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수 없습니다.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전체 인민의 정치, 문화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작은 나라가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며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려면 전체 인민이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높은 과학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해방후 첫날부터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새 사회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거기에 큰 힘을 넣어왔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살림살이형편이 아직 그리 넉넉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있지만 청소년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것을 미래를 위하여 바치고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식민지통치밑에서 배움의 권리를 빼앗기고 갖은 고통을 다 겪었지만 자라나는 새세대들은 그러한 고통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으며 후대들을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후대교육에서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을 결합시키는 방침을 견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후대교육에서 학교교육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에서 첫째로 중요한것은 학교교육입니다. 그러나 학교교육만으로는 후대교육을 원만히 할수 없습니다. 학교교육과 함께 사회교육, 가정교육이 옳게 결합되여야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육할수 있고 훌륭한 민족간부로 키울수 있습니다.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을 하는데서 우리 당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가지도록 교양하는데 기본을 두고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교육로선입니다.

사회주의교육학에서 중요한 문제는 후대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교양하는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며 자기 민족의 문화유산과 전통 가운데서 낡고 썩어빠진것은 버리고 좋은것은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살리도록 교육교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주의교육학은 새세대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로동하기 좋아하고 인민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재부를 아끼고 사랑할줄 알며 훌륭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과학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교육교양할것을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적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정신을 가지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자로,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육교양하는것입니다.

우에서 말한것이 우리가 청소년교육에서 견지하고있는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청소년교육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당신들이 우리가 쓴 다른

책들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당의 교육정책을 관철하여 청소년교육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해방직후 우리에게는 민족기술간부가 얼마 없었으나 오늘 우리는 60만명에 이르는 대학졸업생들과 고등기술학교졸업생들을 가지고있습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사람들에게 아무런 기술도 배워주지 않았습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몇십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기 우리 나라에는 대학이 서울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대학마저도 거기에는 문과나 법과 같은것만 있었지 기술학과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날 우리 나라에는 변호사와 의사가 좀 있었을뿐 민족과학기술인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얼마 안되는 인테리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 아끼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유한 가정의 출신들이지만 일제의 민족적차별을 받으며 공부를 하였기때문에 반제의식과 민족적혁명성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널리 포섭하여 자기 민족과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교양하였습니다.

우리의 교양을 받은 인테리들은 새 조국 건설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특히 민족기술간부를 키우는 사업에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민족간부의 대부대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의 민족간부를 가지고 교육사업을 하고있고 공장, 기업소들을 운영하고있으며 국가와 사회를 훌륭히 관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하여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가 거둔 이러한 성과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올바른 교육정책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당의 교육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습니다. 11년제의무교육은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과 10년동안의 학교의무교육을 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교육입니다.

우리는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지식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훌륭히 키워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에 대한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과 함께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절대다수의 성인들은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과학과 기술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근로자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지금은 공장, 기업소들에 있는 근로자중학교에서 공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다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지식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배우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빨리 높이려고 합니다.

근로자들과 일군들의 과학기술수준이 높지 못하면 사대주의가 생깁니다. 남보다 과학기술이 뒤떨어지면 자연히 남을 쳐다보게 되고 발전된 나라를 숭배하게 되는것입니다.

또 민족문화예술이 발전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끌어들이게 되고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막을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온갖 썩어빠진 부르죠아 반동문화와 생활양식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막으려면 주체적인 민족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

켜야 합니다. 주체적인 민족문화예술은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아야 하며 인민대중의 정치문화생활에 훌륭히 이바지하는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사회의 전반적정치문화수준을 높이는데서 간부들을 교육교양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간부들의 정치사상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이 높아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문제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어제 인민경제대학을 참관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는 그런 대학이 여러개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관리일군들을 양성하며 재교육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또한 당일군들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고급당학교가 있으며 지방들에는 공산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단체간부들을 양성하는 학교와 국제관계대학, 군사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이와 같이 일반대학들을 내놓고도 여러 부문 간부들을 양성하며 재교육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학들에서 간부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의 정책으로 무장시키고있으며 국가, 경제기관, 공장, 기업소들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또한 전체 인민이 다 학습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학습을 하나의 혁명사업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는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이다.》라는 구호밑에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는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모든 일군들이 매일 일하고난 다음 두시간이상씩 학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강연회를 하고 토요일에는 한나절씩 집체학습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모든 간부들이 한해에 한달씩 직장에 적을 두고 학교에 가서 재교육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온 나라와 전체 인민이 다 학습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은 빨리 높아지고있습니다.

우리는 학교교육사업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체계를 철저히 세워 가까운 앞날에 우리의 인테리대렬을 100만명으로 늘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체 인민을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데 앞으로는 그들을 다 인테리화하려고 합니다. 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한다고 하면 소부르죠아화한다는 말처럼 들리기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테리는 낡은 사회의 계층으로서의 소부르죠아적인테리인것이 아니라 로동계급의 혁명적인테리인것만큼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화하는 조건에서는 인테리화한다는 말을 써도 일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공부시키는 교육정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국가와 사회의 혜택으로 탁아소, 유치원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350만명이나 되며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급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450만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내놓고도 인구의 절반이상이 국가의 부담으로 교육을 받고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인구의 절반이상을 국가부담으로 교육하자니 교육사업을 위한 재정지출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랑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지금은 좀 아름차지만 장래의 전망은 매우 좋습니다.

우리 당에 의하여 교육교양된 우리 인민들은 다시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되지 않을것이며 착취와 압박이 있는 사회로 되돌아가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민은 사대주의도 하지 않을것이며 모두다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것입니다. 우리 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더욱 부강한 사회주의국가로 될것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반드시 이룩되고야말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이밖에도 많은것을 더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하면 당신들의 물음에 기본적으로 대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30년동안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여왔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은 애국자와 매국자사이의 투쟁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으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나라의 절반땅을 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 내여맡기고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책동하고있습니다. 통일은 곧 애국이고 분렬은 곧 매국입니다.

나는 당신들앞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을 비방하거나 그들의 과거를 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말한다면 남조선당국자들의 매국행위는 벌써 해방전에 시작되였습니다. 우리가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할 때 남조선당국자들은 민족을 배반하고 일본제국주의군대에 들어가 장교노릇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남조선당국자들이 조국통일을 방해하고 남조선을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는것을 허용할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분렬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립장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립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기간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많이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방안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것은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조국통일 5대방침입니다. 우리의 조국통일 5대방침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 5대방침은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념원을 정확히 반영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나라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침입니다. 그러므로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물론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이 우리의 방침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 그리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조국통일방침을 한사코 반대하고있습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 우리 나라의 북과 남을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놓으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여야 남조선을 영원히 제놈들의 군사기지로, 상품시장으로 만들수 있기때문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1972년에 남북공동성명을 통하여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서약하였으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부추김밑에 그 서약을 짓밟아버리고 민족분렬책동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가고있습니다. 그들은 미제의 《두개 조선》정책에 추종하여 조선의 북과 남이 따로따로 유엔에 들어갈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분렬을 고정화하고 영구화하자는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한편으로는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적극 추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무너져가는 저들의 통치체제를 조금이라도 더 유지해보려 하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의 이러한 책동은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과 남조선반동들의 파쑈화책동에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에 용감히 일떠섰습니다.

올해 봄에 남조선에서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이라는것이 있었는데 그것만 놓고보더라도 남조선인민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투쟁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에 겁을 먹은 남조선반동들은 《반공》의 간판밑에 그것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올해 4월부터 석달남짓한 기간에만도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을 2,800여명이나 체포투옥하였으며 그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부당한 구실을 붙여 사형을 선고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학생, 지식인, 종교인 할것없이 남조선의 현 집권자들을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탄압의 대상으로, 《반공》의 희생물로 되고있습니다. 당신들도 알겠지만 남조선반동들은 자기들을 반대하는 시를 썼다고 하여 시인 김지하를 군사재판에 넘겨 그에게 무기징역을 들씌웠습니다. 그들은 1971년 《대통령선거》때 신민당의 《대통령후보》였던 김대중도 저들의 매국정책을 반대하였다는 리유로 백주에 일본에서 랍치하여다가 재판에 걸어 탄압하고있습니다. 최근에 남조선반동들은 천주교 주교인 지학순이라는 사람도 잡아가두었습니다.

지금 남조선반동들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가혹하게 처형하고있는데 그들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며 공산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조국의 통일과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애국자들이며 남조선의 평범한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들입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인사들이 남조선반동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결코 우리가 시켜서 그러는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반공》의 간판밑에 인민들을 가혹하게 억누르고 탄압하는 조건에서 혁명투쟁이 일어나는것은 합법칙적입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벌리고있는 투쟁은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애국적투쟁이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입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남조선반동들의 파쑈적폭압소동을 규탄하며 체포투옥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사들을 구원하기 위한 운동이 널리 벌어지고있습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 출판물들과 지어는 자본주의나라 총리들까지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남조선반동들의 파쑈화책동에 대하여 항의규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민족적의무로 여기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이 승리하고 민주인사가 정권에 올라앉게 되면 우리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민주력량이 힘을 합쳐 전조선적인 통일정부를 세우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빨리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들은 주체사상이 제3세계인민들의 독립과 사회경제적발전을 이

룩하기 위한 투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는가고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체사상이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세계인민들속에서 특히 제3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

오늘 주체사상이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이 자주성을 요구하는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되기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시대는 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은 물론 자본주의나라 인민들도 자주의 길을 걸으려 하고있으며 특히 오래동안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온 제3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조선혁명의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가 처음으로 내놓은 사상이지만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이 제3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은 또한 그것이 제3세계인민들에게 새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의 가장 옳바른 길을 가리켜주기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3세계인민들앞에는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문제로 되는것은 자본주의의 길로 나갈것인가 사회주의의 길로 나갈것인가 하는것입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자본주의의 길로 나가면 제국주의자들에게 다시 예속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려면 사회주의나라들의 경험을 배우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나라들의 경험이 제3세계나라들에 그대로 꼭 맞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3세계나라들이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려면 사회주의나라들의 경험을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주체적립장이 요구됩니다.

주체사상이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입니다. 매개 나라 인민은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사회주의건설에서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채로 받아들이는것은 매우 해롭습니다. 이것은 마치도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어먹어야 소화가 잘되지 씹지 않고 통채로 삼키면 소화불량증에 걸리는것과 같다고볼수 있습니다. 음식을 씹어보고 속에서 받으면 넘기고 받지 않으면 뱉아버려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경험도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것은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경험을 말해달라고 할 때에도 우리의 경험은 다른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을수 있으니 그것을 참고나 하고 자체로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경험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해주군합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며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옳은 로선과 옳은 정책을 세운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

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새생활창조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데서 이 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3세계나라들이 정치적으로 단결할뿐아니라 경제기술적으로 협조할것을 주장합니다.

지금 제3세계나라들은 자원보호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있은 원료및개발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의에서는 제3세계나라들이 단결하여 자원보호를 위한 투쟁을 벌렸으며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제3차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200마일 령해권문제와 경제수역권문제를 토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3세계인민들이 자기 나라의 령토와 령해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제3세계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로부터 나라의 자원을 지켜낼뿐아니라 풍부한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3세계나라들이 서로 좋은 경험과 기술을 교류하며 경제적으로 호상 협조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서로 교류할수 있는 경험과 기술도 적지 않게 가지고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뻬루기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말하였지만 뻬루에서는 물고기가공기술이 발전하였는데 우리는 뻬루에서 물고기가공기술을 배워올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랍나라들에서 원유가공기술도 배워올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다른 나라들에 넘겨줄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이 있습니다. 례를 들어 우리는 수리화경험같은것을 제3세계나라들에 넘겨줄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경리의 수리화가 이미 완성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비록 발전도상에 있기는 하지만 좋은 기술을 몇가지씩은 다 가지고있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발전도상에 있는 제3세계나라가 100여개 있는데 매개 나라가 좋은 경험과 기술을 한가지씩만 서로 교류하여도 100가지의 좋은 경험과 기술을 가질수 있으며 10가지씩만 교류한다면 1,000가지의 좋은 경험과 기술을 가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세계나라들이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한다면 큰 일을 할수 있으며 강대국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짧은 기간에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여 정치적자주성과 함께 하루빨리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난날에는 몇몇 강대국들이 세계에서 주인행세를 하였지만 이제는 세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제3세계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되여야 합니다.

끝으로 빠나마 운하와 운하지대에서의 완전하고도 실제적인 자주권과 합법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빠나마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립장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빠나마 운하와 운하지대에 대한 미제의 강점을 끝장내고 완전하고도 실제적인 자주권과 합법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빠나마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빠나마인민은 빠나마 운하와 운하지대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빠나마인민은 빠나마 운하와 운하지대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 지배와 략탈을 끝장내고 합법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대중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빠나마 운하와 운하지대에서의 자주권과 합법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빠나마인민들의 투쟁은 령토완정을 이룩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투쟁입니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빠나마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냅니다.

조선과 빠나마는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으나 조선인민은 언제나 빠나마인민의 투쟁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여왔습니다.

1968년에 오마르 또르리호스 에르레라장군이 정권을 잡은 다음 빠나마공화국 정부는 빠나마인민의 리익에 맞는 진보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빠나마공화국 정부는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교육체계의 민주화, 전기부문의 국유화, 농업협동조합의 조직, 미제독점체들과 국내대자본가들의 리윤획득의 제한과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빠나마공화국 정부가 취한 이 모든 조치들은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지키며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매우 진보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빠나마인민들이 자주성을 주장하고있는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사상과 립장에서 공통점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빠나마공화국 정부가 200마일해양권을 주장하고있는데 이것도 우리의 립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빠나마공화국 정부가 취한 모든 혁명적인 조치들과 빠나마인민의 용감한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또한 오마르 또르리호스 에르레라장군의 자주적인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인민은 빠나마인민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와 같이 여기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용감한 빠나마인민이 오마르 또르리호스 에르레라장군의 두리에 굳게 뭉쳐 빠른 시일안에 완전한 민족적 독립과 자주성을 쟁취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빠나마인민의 독립과 자주권을 침해하고있을뿐아니라 조선인민의 독립과 자주권도 침해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과 빠나마인민은 공동의 적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으며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싸우는 빠나마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있을것이며 빠나마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줄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이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어깨겯고나갈것을 희망합니다.

당신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말을 주의깊게 들어주어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조선인민과 빠나마인민사이에 친선의 무지개다리를 놓은 사절입니다. 나는 다시한번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이 서로 래왕을 더 자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나는 당신들이 앞으로 우리 나라를 또다시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올해 계획을 앞당겨완수하고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자

지금 온 나라는 사회주의대건설의 거세찬 폭풍에 휩싸여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넘쳐완수하기 위한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질풍같이 달려나가고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충성의 속도》로 온 나라 방방곡곡에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 있다.

《속도전》의 불바람은 기본건설전선에서뿐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폭풍같이 일어나고있다. 그리하여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서 새 기록, 새 기준이 창조되고있으며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올해계획을 넘쳐끝내고 계속 앞으로 달려나가는 공장, 기업소와 직장, 작업반들의 대렬이 속속 늘어나고있다.

공업전선에서와 함께 농업전선에서도 일대 비약이 이룩되고있다. 올해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농촌테제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력사에 없는 대풍작이 이룩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참으로 크며 자랑차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이룩된 눈부신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의 빛나는 열매이다.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당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당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고있다.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구호밑에 당사업이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의 전반적 당 및 국가, 경제사업이 더욱 활기있게 추진되고있으며 사람들의 사상도덕적풍모에서도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질풍같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기세는 매우 좋으며 전망은 더욱 휘황하다.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을 안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올해 계획을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올해 전투를 잘 결속하는것은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완수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74년은 우리 인민이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투쟁해야 할 해입니다. 우리가 당 제5차대회에서 내세운 6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앞당겨완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올해 전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신년사》, 1974년 1월 1일, 9페지)

올해는 6개년계획수행의 결정적해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웅대한 사회주의대건설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대진군에 들어선 영광스러운 해이다.

지금 우리들은 6개년계획을 수행하고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웅대한 목표를 빛나게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올해 전투의 마감고비에 들어서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빛나게 점령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의 거창한 전투에서 혁명적앙양을 더욱 거세차게 일으킬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은 지금 벌리고있는 이 전투를 어떻게 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고비에 들어선 올해 전투를 잘 결속지을 때 금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모든 분야에서 넘쳐수행하고 명년도 생산준비를 더 잘 갖추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당창건 30돐까지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앞당겨점령하고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웅대한 10대경제건설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게 된다.

이렇듯 올해 계획수행에서 더욱 큰 승리를 가지오기 위한 총돌격전은 금년도 계획을 빛나게 총화하고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거창한 전투이다.

이 투쟁은 사회주의대건설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키며 인민들을 더욱 넉넉하고 문화적으로 잘살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활짝 꽃피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이 투쟁은 또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조선》, 《천리마조선》의 영예를 온누리에 더욱 찬연히 빛내일 영광스러운 투쟁이며 사회주의의 영예와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원쑤들에게 치명적타격을 주기 위한 혁명투쟁이다.

이 투쟁은 전대미문의 파쑈적폭압을 박차고 자유와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을 고무할것이며 우리 나라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기치밑에 새 사회 건설에 힘있게 떨쳐나선 제3세계나라인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더큰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게 될것이다.

참으로 올해 계획을 잘 결속짓기 위한 총돌격전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승승장구하여 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우리 나라의 비상히 빠른 천리마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자력갱생의 나라》의 위력을 만천하에 다시 한번 과시하게 될 영광스럽고도 보람찬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이 땅우에 실현해나가는것을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금년도계획의 성과적수행과 전망계획년도의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올해 전투의 마지막 결속을 잘짓기 위한 총돌격전에 몸과 마음 다바치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찬 일은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 언제나 충직하여왔으며 수령님의 심려와 로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것을 최상의 영예로, 의무로 여기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과감히 일떠서서 충성의 위훈을 떨칠 때가 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충성의 열정으로 가슴의 피가 끓고있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용약 떨쳐나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영웅적기상을 다시한번 과시하여야 한다.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하기 위한 총돌격전에서 첫째로 중요하게 나서는 대상은 채취공업이다. 당은 무엇보다도 채취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데 전당, 전국이 달라붙을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채취공업을 발전시켜 원료와 연료, 동력 생산을 앞세우는것은 공업에서 하나의 법칙이다. 생산의 첫공정인 채취공업부문이 앞서나가야 다른 모든 부문들도 빨리 발전할수 있다. 더우기 올해 계획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이 벌어지고 6개년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완수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기 위한 투쟁을 전례없이 높은 속도로 다그쳐나가야 할 오늘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채취공업부문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탄광, 광산들에서는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굴진과 채굴을 5대5로 보장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엄격히 지키며 공무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 있는 채굴설비들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선광장에 대한 기술관리를 개선하여 선광실수률과 정광품위를 결정적으로 높여

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탄광, 광산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채취공업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채취공업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강재, 동발, 세멘트, 전선, 시약을 비롯하여 석탄과 광물 생산에 필요한 자재들을 탄광, 광산들에 매달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대주며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대형자동차, 대형불도젤, 굴착기, 착암기, 공기압축기, 적재기, 광차 등을 더 많이 만들어보냄으로써 채취공업에서 설비의 대형화, 고속도화와 운반의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혁명, 설비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제철, 제강소들에서 철광석을 비롯한 원료, 부원료들을 제때에 대주어 철강재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며 여러가지 합금강재와 2차가공품을 더많이 생산하며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수송문제를 혁명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은 올해 마지막 돌격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수송전선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수송혁명방침을 신장으로 받들고 빨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혁명적으로 풀기 위한 투쟁을 전격적으로 벌려야 한다.

철도수송전사들은 철도운수에서 군대와 같은 규률과 질서를 세우고 수송조직을 개선하며 전문수송, 집중수송 등 새로운 수송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기관차와 화차를 비롯한 운수기재생산을 늘이는 한편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을 적극 기계화하여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줄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수송과 수상운수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항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여야 한다.

올해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총돌격전은 채취공업과 수송부문에서와 함께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사회주의대건설의 전전선에 걸쳐 힘있게 벌어져야 한다.

공업전선에서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면서 농업은 농업대로 힘있게 밀고나가 대풍작을 이룬 올해 농사일을 빠른 시일안에 말끔히 결속짓고 명년도 영농준비를 잘 갖추어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올해 전투과제를 넘쳐수행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이며 추호도 어길수 없는 혁명의 요구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각기 자기 맡은 혁명초소에서 올해 전투계획을 빛나게 초과완수하며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여 협동생산품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전전선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전투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하다. 이 전투적과업을 수행하는 행정에는 난관이 있을수 있으며 여러가지 걸린 문제들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에게는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시며 몸소 진두에 서시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가 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수령님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의 단결된 불패의 힘이 있으며 자립적민족경제의 반석같은 토대가 있다.

문제는 총돌격전이 벌어지는 책임적인 이 시각에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자기앞에 나선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충성의 열도를 더욱 높이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이 일하느라면 난관에 부닥칠 때도 많을것이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에 부딪칠 때도 있을것이며 동요하는 때도 있을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을 믿고 확고한 혁명적신조를 가져야

함니다. 다시말하여 우리에게는 당중앙이 있다, 나는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이며 혁명을 위하여 몸바칠 결심을 한 사람이다, 언제나 당과 인민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할것이다, 나 개인이 하나 죽는것은 아까울것 없다, 비록 육체적생명은 죽는다고 하여도 정치적생명만은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혁명정신조만 가지면 어떤 곤난도 이겨낼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20～421페지)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갈 때 우리앞에는 점령하지 못할 요새,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는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수령님과 당중앙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싸우려는 높은 정치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6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올해 전투를 마감하는 총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대안체계의 거대한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하는것은 올해 계획을 넘쳐수행하기 위한 총돌격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지도일군들은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휘하며 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여 생산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전투과제를 잘 알고 그것을 일별, 순별, 월별로 넘쳐수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련관된 고리들을 빈틈없이 맞물려주어야 한다.

대중을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서 천리마작업반운동과 《속도전》을 계속 힘있게 틀어쥐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속도전》의 방법으로, 천리마의 기세로 최고의 마력을 내여 최고의 속도로 달려나가는 여기에 이제 남은 올해 계획을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근로자들을 《속도전》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생산자대중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조직지도사업을 안받침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있는 설비, 있는 로력, 있는 자재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는것은 올해 계획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이다.

당원들과 지도일군들은 모든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강의한 투쟁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있는 설비, 있는 로력, 있는 자재로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특히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는 로력랑비를 없애고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며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지도일군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며 조직지도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중요초소를 맡은 지도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 서서 전투를 혁명적으로 조직지휘하며 높은 당적책임성을 발휘하여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섬멸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밀고나간다면 우리는 올해 전투승리를 더욱 앞당길수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당의 전투명령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 승리의 보고, 충성의 보고를 올리겠다는 불타는 충성심과 비상한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총돌격전의 운전대를 튼튼히 틀어쥐고 조직지휘자적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적극 진행하며 능숙한 조직수완을 가지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집행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해야 한다.

특히 모든 지도일군들은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치렬한 돌격전의 앞장에 서서 언제나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올해 인민경제계획의 승리적결속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대건설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당조직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시키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신년사》, 1974년 1월 1일, 13페지)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생산에서 가장 큰 예비가 결국 사상문제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하기 위한 총돌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당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지도일군들은 선전원이 되고 선동원이 되여 군중들속에 들어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계속 해설침투시키며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완수 및 초과완수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동원하여 사상동원사업을 진공적으로 들이댐으로써 모든 단위들에서 새 기적, 새 기록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세차게 벌려야 한다.

경제선동은 군중을 당경제정책집행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대중정치사업방법이다. 당조직들은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새로운 앙양과 기적이 련이어 일어나고 온 나라가 혁명적기백으로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승리적으로 마감하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 치달아 오르기 위한 투쟁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들과 사업방법, 사업태도들을 반대하는 《사상전》을 힘있게 벌릴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극복하여야 할 대상의 하나는 본위주의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본위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제때에 철저히 극복함으로써 국가계획규률을 엄격히 지키며 협동생산을 제때에 보장함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여 올해계획을 넘쳐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보수주의, 소극성 등 온갖 《잡귀신》들을 쓸어버리며 사소한 리유와 구실, 조건타발도 없이 당정책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성과는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조직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대중속에 깊이 침투시키며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그 집행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옳게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과업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검열통제하고 철저히 장악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의 경제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틀어쥐고 밀고나가면서 특히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에 언제나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며 만사를 제쳐놓고 그것을 무조건관철하는데 온갖 심혈을 쏟아부어야 한다.

오늘 전당과 전체 인민이 일떠서 힘있게 벌리는 총돌격전투는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는데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보람찬 투쟁이다. 이 투쟁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충실성, 당성을 검열받는 숭고한 돌격전투이다.

모두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높이 《속도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하고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올리자.

위대한 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이룩된 세기적변혁

오늘 온 나라 농민들과 전체 인민들은 농촌테제발표 열돐이 된 올해를 만풍년의 위대한 성과로써 맞이한 끝없는 기쁨과 흥분에 휩싸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해에 뒤이어 올해에 또다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대풍작이 들었다. 평지대뿐만아니라 중간지대와 산간지대 할것없이 그 어디를 가나 곡식이 썩 잘되여 많은 협동농장들에서 지난해에 비하여 벼는 정보당 2톤이상, 강냉이는 곱절이나 더내는 일대 전환을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 농업생산에서 최고의 기록을 창조하였던 지난해의 수준을 훨씬 릉가하는 만풍년을 이룩하였으니 이 얼마나 사람들을 흥분케 하는 희한한 일인가! 이것이야말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하나의 력사적사변이며 농업생산에서의 기적적인 대변혁이다.

알곡생산뿐아니라 과일과 남새도 보기드물게 잘되였으며 축산에서도 큰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앞당겨점령하고 보다 높은 고지인 1,000만톤 알곡고지에로 치달아오를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을수 있게 되였다.

올해 농업전선에서 거둔 이 찬란한 성과는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인 농촌테제를 마련하여주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몸소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만풍년을 맞이한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올해 농업생산의 비약적인 발전과 우리 인민의 더욱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돌리신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와 심려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살며 일하는 끝없는 긍지와 영예, 다함없는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이께 충성다할 결의를 굳게 다지고 있다.

* *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생산의 빠른 장성 특히 올해 농사에서의 기적적인 비약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테제가 가져온 위대한 승리이며 그 빛나는 결실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농업이 나아가야 할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위대한 농촌테제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농민문제, 농업문제의 종국적해결의 길, 무계급사회의 실현을 위한 길을 밝혀준 위대한 혁명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테제에서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본질적내용과 특성,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을 위하여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과업 및 수행방도 등을 전면적으로 심오히 밝히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과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아무런 편향도 없이 곧바로 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첫째로,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둘째로,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야 하며,

셋째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4페지)

수령님의 이 고전적명제에는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본질적요구와 내용이 심오하고도 명백하게 집약화되여있으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전기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되는 목표와 과업이 천재적으로 명시되여있다.

사회주의농촌문제는 농민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없는 사회를 실현하는것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 농촌문제는 지난날 본받을만한 경험이 창조된것도 없고 체계화된 리론이 제시된것도 없는 새로운 문제이다.

이로부터 사회주의농촌문제는 우리 시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해결의 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과학적방법론에 확고히 의거하시여 기존공식과 낡은 명제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시대가 새롭게 제기하는 이 근본문제에 대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립장에서 해명을 주심으로써 농촌문제해결에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농촌테제를 발표하심으로써 무계급사회에로 가는 길,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이 력사상 처음으로 밝혀지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무계급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표상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로정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천재적으로 밝히신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방침들은 농촌문제해결의 합법칙적로정과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이행의 합법칙성에 기초한 과학적해명으로서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무계급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확고히 의거하여야 할 가장 정확한 지도리론이며 지도방법이다.

실로 농촌테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강력한 무기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히 하고 농업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영원히 해방하는 위대한 강령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테제에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혁명적원칙과 과학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심오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촌문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농촌사업에 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농촌사업에 대한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도록 하시면서 모든 농민들이 다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정치사상적지도를 확고히 앞세우도록 하시면서 농촌을 물질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로력적으로 강력히 지원하는 일관한 혁명적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으로 하여 나라의 정세가 긴장한 조건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돌려 현대적인 대규모의 뜨락또르공장과 자동차공장, 화학비료공장 등 농촌경리부문에 복무하는 공장, 기업소들을 전국도처에 수많이 일떠세우고 그것을 확장, 개건하도록 하시였으며 그 생산

을 대대적으로 늘이여 농촌에 더 많은 뜨락또르와 자동차,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영농자재 등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수많은 당핵심들과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한 청년인테리들을 농촌에 파견하시여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농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도와주도록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원대한 구상에 따라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농민들에게도 로동자, 사무원들과 꼭같이 국가부담으로 문화주택을 지어주며 국가자금으로 농촌기본건설을 진행하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고 그 기업관리수준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군을 기업적지도의 단위로, 거점으로 선정하시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농업지도체계를 창설하심으로써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적지도와 물질기술적방조를 효과있게 실현하고 농업관리를 선진적인 공업관리수준에 접근시킬수 있게 하시였으며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여 두 소유가 유기적으로 밀접히 결합할수 있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 조치들을 취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쉬임없이 전국의 모든 농촌들을 몸소 찾으시여 농촌사업을 깊이 료해하시고 현지에서 농촌건설방향과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피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수천수만리의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며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기계와 전기, 화학의 힘으로 농업을 공업화하며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생산은 몇곱절 더 낼수 있는 주체농법을 밝혀주시였으며 벌방지대는 물론 산간지대에서 생산을 높이고 농민들의 생활을 푸는 방도, 중간지대농업을 발전시켜 힘있는 농업생산기지로 전변시킬데 대한 과학적인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농촌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함으로써 농촌건설에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10년전에 농업을 공업화하고 농민을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리상적인 강령을 내놓았는데 오늘은 그것을 짧은 시일안에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닦아놓았습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11페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위대한 농촌테제가 힘있게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이 공업을, 농촌이 도시를 닮아가고 농민이 로동계급으로 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에 들어서게 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룩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이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장성하고 특히 올해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만풍년이 이룩된것은 지난기간 위대한 농촌테제를 관철하는 투쟁에서 이룩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성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결실이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농민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그들의 혁명화, 로동

계급화 과정이 비상히 촉진되였다.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하는 당의 참된 농업전사로 자라났으며 우리 농촌은 혁명의 믿음직한 기지로 튼튼히 꾸려졌다.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이것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기본핵을 이루고있으며 심장속에서 주체형의 피만이 끓어번지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은 농업전선에서 높이 나래치고있다.

이와 함께 농민들속에서는 여러 세기에 걸쳐 내려오던 소소유자적근성과 리기주의가 극복되고있으며 모든 일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깐지고 알뜰하게 이악하게 하는 혁명적인 일본새와 생활기풍이 서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미풍이 철저히 확립되여가고있다.

농촌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경험주의, 요령주의 등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이 극복되고 항일유격대식으로 농민대중들속에 들어가 이신작칙하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 있다.

농촌일군들과 농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사회주의농촌테제관철에서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이다. 농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의 변화, 그들의 혁명의 주인다운 일솜씨와 높은 혁명적열의는 우리 나라 농촌에서 해마다 풍작을 이룩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이며 올해의 만풍년도 바로 농민들속에서 일어난 사상의식의 변화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사상혁명과 함께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농업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위력한 주체공업과 영웅적로동계급의 힘있는 지원밑에 농촌기술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된 결과이다.

농촌에서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지난날 현대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에 오늘은 농민들을 수천년래의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영원히 해방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닦아지고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공산주의농법의 새 시대가 도래하였다.

우리 농촌에서 수리화와 전기화의 과업은 이미 오래전에 성과적으로 실현되였다. 우리 나라는 완비된 관개체계와 배수체계를 가진 세계1등급의 관개의 나라로 되고 농촌전기화분야에서도 선진국가수준에 당당히 올라섰다. 만일 우리가 수리화를 앞세우지 않았더라면 해마다 풍작을 이룩할수 없었을것이며 올해 같은 심한 가물을 이겨내고 최고기록의 대풍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오늘 우리 농촌에서는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의 과업이 전면적으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마지막봉우리를 점령할수 있는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동안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참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는 수많은 뜨락또르와 뜨락또르운전수들이 있으며 농민들이 기계로 농사를 짓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페지)

우리 나라에서는 뜨락또르공장과 자동차공장을 비롯하여 화학비료공장, 련결농기계공장, 뜨락또르부속품공장 등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공장, 기업소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더욱더 개건확장됨으로써 농촌에 강력한 기계화수단들과 효능높은 화학비료, 농약을 넉넉히 공급할수 있는 기지가 마련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10년전에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가 1대수준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것이 벌방지대에는 4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는 3대씩 차례

지고있다. 농촌테제발표 열돐을 맞이한 올해 《농촌기술혁명지원의 날》에 즈음하여 우리는 테제에서 제시된 7만~8만대의 뜨락또르생산공급목표를 빛나게 실현하였다.

농촌에 수많은 뜨락또르와 자동차, 여러가지 련결농기계들이 공급됨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논갈이는 물론 거름생산과 거름운반, 토지개량과 토지정리 등 많은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몇배로 능률적으로 해제끼고있다.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는 모내는기계가 대량 공급되여 우리 농민들은 농사일에서 품이 많이 드는 모내기와 김매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말끔히 해내고있다.

기계화와 함께 화학화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여러가지 효능이 높은 화학비료, 살초제와 농약이 제철에 충분히 공급되여 토양과 농작물의 특성에 따라 비료를 구색에 맞게 치고있으며 약으로 김을 잡고 병충해를 미리 막아내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농민들은 해마다 농사를 안전하고 헐하게 과학적으로 짓고있으며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높은 수확을 거두고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가 힘있게 추진된 결과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원시적농기구로 고역에 시달리던 우리 농민들이 오늘은 밭갈이, 씨뿌리기, 영양단지모옮기기, 거름주기, 김매기, 가을걷이 등 모든 농사일을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홍겹고 문화적으로 하고있다. 이리하여 힘든 일에서 영영 벗어날것을 그처럼 바라던 우리 농민들의 력사적숙망이 이땅우에 빛나게 실현되여가고있다.

테제의 빛발아래 농촌의 문화적면모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을 발전된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키며 농민들을 지식있고 문명한 사회주의농업근로자로 키울데 대한 수령님의 구상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농민들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이 높아지고 기술일군대렬이 급속히 늘어났으며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이 확립되여감에 따라 우리 나라 농촌의 모습은 더욱더 새로와졌다.

농촌문화건설분야에서 이룩된 커다란 성과는 무엇보다도 지난날 현대문명에서 몹시 뒤떨어지있던 우리 농민들이 오늘은 높은 기술문화지식을 가지고 기술공정으로 전변된 사회주의농촌경리를 훌륭히 감당하고있는것이다.

농민들이 중등학교졸업이상의 일반지식수준을 소유하고 모두가 토양학, 생물학, 비료학, 농기계학 등 농사일에 필요한 기초과학기술지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사를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해나갈수 있는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방마다 종합적간부양성기지가 꾸려지 새로운 청년인테리들이 수많이 농촌에 들어가 핵심적역할을 수행하고있다. 또한 농촌에서도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추진되여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문명한 새세대들로 로력자대렬이 끊임없이 보충되고 성인교육체계와 기술간부양성체계가 정비확장되여 농민들의 전반적인 문화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농민들이 기사, 기수의 수준에 오르고 다 인테리화되며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 나아가서는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마저 없어질 그날을 내다볼수 있게 되였다.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령역에서도 우리 농촌은 크게 발전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두터운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농촌뻐스화, 농촌수도화, 농촌리진료소의 병원화가 실현되고 모든 농촌들에 탁아소, 유치원이 설치되여 농민들은 도시에 못지 않게 문화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있다.

위대한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농업에 대한 지도관리가 더욱 개선강화되고 일군들의 지도수준도 높아졌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된 결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는 그 어느때보다 공고화되였고 도시

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훨씬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우리앞에는 힘든 로동에서 영원히 해방된 농민들이 더욱 부유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공산주의농촌이 리상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로 눈앞에 펼쳐지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농촌테제관철에서 얼마나 멀리 전진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얼마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섰는가를 보여준다.

올해 우리 나라 농업생산에서 일어난 비약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농촌테제관철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토대하고있는것이다.

실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농촌건설에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 힘을 돌림으로써 남들에 비하여 인구 한사람당 경지면적이 비교적 적고 거기에 땅이 척박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우리 농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해마다 농업생산에서 대풍작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과 그 생활력을 훌륭히 보여줄수 있었다.

*　　　　*

참으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는 어제날에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 위대한 전변의 력사가 펼쳐지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고 농업생산에서 보다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테제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겨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올해 농업생산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비약을 일으켜 새로운 더욱 높은 알곡고지에 빨리 치달아올라야 한다.

전체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에 걸쳐 비약에 비약을 거듭함으로써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우리의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 강령을 높이 받들고 자신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전사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모든 사업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이 땅우에 공산주의문화농촌을 건설할데 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을 더욱 훌륭히 실현하여야 한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번영하는 오늘의 농촌도 좋지만 래일의 농촌은 더욱 찬란하고 휘황하다.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하여 온 전체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우리 농촌을 하루빨리 공산주의적 농촌으로 전변시키고 모든 농민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화적인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심려하시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자.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중간지대 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김 필 주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열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우리 나라 농업생산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대풍을 맞이하여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흥성거리고있다.

올해 우리 나라는 벌방지대는 말할것도 없고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도 만풍년이 들었다.

특히 중간지대와 산간지대 농사에서 이룩된 눈부신 성과로 하여 나라의 쌀독은 더욱 풍만하게 되였고 전반적농업생산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중간지대의 산골군으로 하여 지금까지 알곡생산에서 빛을 내지 못하고있던 우리 녕변군이 올해에 지난해에 비하여 거의 2배에 달하는 알곡을 생산하여 전례없는 대풍을 이룩하게 된것은 결코 날씨가 좋아서도 아니며 자연의 그 어떤 혜택으로 이루어진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나라 농업생산을 새로운 높이에로 끌어올리며 중간지대와 산간지대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시기 위하여 밤잠도 휴식도 잊으시고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더불어 녕변군안의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대풍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조국의 농업전사된 영예와 긍지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있다.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중간지대의 자연경제적조건들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중간지대농업을 발전시키시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산이 많고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중간지대의 농업생산을 적극 추켜세우는것은 알곡생산을 비롯한 농업생산전반을 빨리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업생산에서 벌방지대에 계속 힘을 넣으면서 중간지대를 적극 개척하여 알곡생산의 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야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나아가서 1천만톤의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수 있다. 또한 중간지대농업을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알곡과 함께 과수, 축산업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을 빨리 추켜세워 농촌경리의 다각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중간지대의 농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쌀독을 더욱 풍만하게 할뿐아니라 중간지대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켜 모든 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다같이 고르롭게 발전시키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예로부터 산간지대와 중간지대 농민들은 메마른 땅과 자연지리적조건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벌방지대농민들보다 생활수준이 높지 못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배려에 의하여 최근년간 중간지대와 산간지대 농민들의 생활에서는 커다란 전변을 가져왔다. 그러나 아직 중간지대농민들의 생활수준은 벌방지대농민들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이에서 발전하고있는 오늘 중간지대농업을 발전시키고 중간지대농민들의 생활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는것은 모든 지역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다같이 고르롭게 향상시키며 나아가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앞당겨나가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중간지대농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나라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전기화가 완성되고 이제는 기계화,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있으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되였다.

산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 벌방지대뿐 아니라 중간지대, 산간지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의 농촌경리를 기계화, 화학화하여 모든 농사일을 기계의 힘으로, 화학적방법으로 하여야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중간지대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중간지대농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시였다.

오늘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농업생산을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전된 조건에서 중간지대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은 성숙된 문제로 나서고있다.

천재적예지와 과학적통찰력, 탁월한 령도예술을 지니고계시는 수령님께서는 중간지대에 알곡생산의 예비가 많다는것을 밝히시고 벌방지대와 함께 중간지대를 튼튼한 알곡생산기지로 꾸릴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 농업부문앞에 나선 전투과업을 제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중간지대들에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적농기계들과 화학비료, 농약을 더 많이 공급함으로써 중간지대농업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73년 1월 1일, 10페지)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중간지대농사를 어떤 방법으로 추켜세워야 하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수령님께서는 중간지대의 자연지리적조건과 농사형편을 깊이 료해하시고 중간지대에서도 포전정리를 잘하여 기계화수준을 높이고 땅을 개량하고 관수체계를 정비완성하며 화학비료와 퇴비를 더 많이 주고 2모작체계를 도입하면 벌방지대에 못지 않게 알곡생산을 높일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 중간지대농업을 발전시키시기 위한 명백한 방도를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나라 중간지대농업에서는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녕변군이 중간지대농사의 본보기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체계적인 현지지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으며 우리 군을 중간지대농업의 시범군으로 꾸리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마다 여러차례에 걸쳐 녕변땅을 찾으시여 농민들과 농사일을 의논하시며 농업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수많은 뜨락또르와 자

동차를 비롯한 농기계들을 보내주시고 여러가지 성분의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보내주시여 벌방지대와 같이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짓게 하여주시였으며 우리 지대의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좋은 종자를 보내주시고 농사일의 매 공정에 따르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가르쳐주시면서 우리들을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의 높은 배려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비롯한 농기계들이 벌방지대에 못지 않게 늘어나고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비상히 강화되였다. 화학비료의 시비량이 증대되였으며 과학적인 영농방법이 전면적으로 도입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올해에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 군을 찾으시여 녕변사람들이 강냉이농사를 잘하여 강냉이농사에 대한 《미신》을 타파하고 중간지대농사에 대한 보수주의와 신비주의를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고무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참으로 우리 군을 중간지대농사의 본보기로 추켜세우시고 우리 군에 올해의 대풍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수령님께서는 깊은 밤,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군의 그 어느 마을과 포전, 비탈진 오솔길과 골짜기들에도 수령님의 거룩한 발길이 미치지 않은곳이 없으며 녕변땅의 그 누구에게도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람이란 없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손길은 우리들에게 비약의 나래를 돋혀주고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는 힘을 안겨주었으며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치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소한의 맵짠 추위에 얼어붙은 농장길과 비탈진 언덕을 사랑의 정으로 녹이시며 비바람사나운 궂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심으로써 녕변땅에서는 해마다 대풍을 이룩하여 중간지대농사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군에 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와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과 배려에는 우리 중간지대농민들의 생활을 빨리 향상시키시려는 수령님의 높은 뜻이 깃들어있다.

인민을 위하여 탄생하시고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 그 누구나 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언제나 깊이 심려하고계신다.

찬이슬, 진창길을 헤치시고 수령님께서 걸으신 거룩한 현지지도의 로정에는 중간지대농민들도 벌방지대농민들 부럽지 않게 잘살게 하시려는 위대한 사랑이 가득차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군 농민들의 생활이 아직 벌방지대에 비하여 높지 못한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녕변군에서는 알곡뿐아니라 과수업과 축산업을 잘 배합하여 다각경리를 하여야 현금수입을 높일수 있으며 이밥에 고기국을 먹게 된다고 가르치시면서 농장원들의 생활을 추켜세우시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배려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 강냉이 뒤그루에 무우를 심는 2모작체계가 도입되고 고추생산이 늘어났으며 버림받던 비탈산도 과일나무로 뒤덮이게 되였다. 수령님께서 몸소 보내주신 양떼가 구름처럼 골짜기에 흘러들고 멍에에서 해방된 소들이 들판을

뒤덮고있다.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해빛아래 모든것이 번성하고 해마다 대풍이 들어 농장원들의 생활이 나날이 향상되고있으며 이밥에 고기국을 먹고 살아보려던 우리 농민들의 평생소원이 이곳 녕변땅에서도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녕변군을 《꽃피는 녕변》, 공산주의지상락원으로 전변시키시기 위하여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덕은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바로 수령님의 높은 뜻과 위대한 사랑,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우리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지난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었고 수백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피땀으로 땅을 걸구고 손끝으로 곡식을 가꾸던 이곳 녕변땅에서 농업이 공업을 닮아가고 농촌이 도시를 닮아가며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는 보람찬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우리 군이 중간지대농사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중간지대농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현실로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영광의 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해나가는 보람찬 길에서 우리 군에서는 사람도 산천도 몰라보게 변하였으며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에서는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중간지대인 우리 군에서 올해에 지난해보다 벼는 정당 평균 1톤, 최고 2톤이상을 더 생산하게 되였고 강냉이는 지난해보다 정당 평균 4톤, 최고 7.4톤이상을 더내는 높은 수확을 거두게 되였다. 특히 룡화리와 연화리, 팔원리를 비롯한 많은 농장들에서는 농장적으로 강냉이 정당 평균 9톤이라는 높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올해 강냉이농사에서 거둔 이 자랑찬 성과는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최고기록이였던 지난해에 비하여 평균 2배이상 장성한것으로 된다.

알곡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과수업과 축산업이 장성함에 따라 농민들의 분배몫이 늘어나고 현금수입이 더욱 높아졌다.

올해에 우리 군의 농장들에서는 지난해에 비하여 알곡은 호당 평균 4.7톤, 최고 6톤이상 더 받게 되였고 현금은 지난해보다 호당 평균 1천원, 최고 3천원이상 더 받게 되였다.

참으로 이땅에 녕변군이 생기고 여기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려온 기나긴 력사에서 올해처럼 이렇듯 풍만한 열매를 맺은 때는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밑에 지난날 알곡생산에서 이름없던 우리 군이 지금은 튼튼한 알곡기지로 전변되였으며 《꽃피는 녕변》은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과 높은 은덕을 온 세상에 자랑하면서 조국과 함께 날이 갈수록 더욱 번영하고있다.

우리 군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변혁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나아갈 때 우리 나라의 그 어떤 산간지대나 중간지대의 비탈진 자갈밭도 능히 기름진 옥토로 전변시킬수 있으며 벌방지대에 못지 않는 높고 안전한 수확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행정에서 우리는 실로 위대한 진리와 귀중한 경험을 체득하였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할 때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훌륭히 해낼수 있다는것을 심

장으로 체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다시말하여 당성은 무엇보다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22페지)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정열에 넘쳐있으며 불리한 조건도 유리하게 전변시키면서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낸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휘황한 전망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무엇보다도 군안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농업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심장이 언제나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불타게 하기 위하여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군당위원회는 모든 일군들과 농장원들 속에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정상적으로 깊이 해설침투시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불씨를 튼튼히 심어줌으로써 그들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한편 군당위원회는 정치선동과 경제선동을 배합하여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정상적으로 해설침투하였고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창조적지혜와 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올해 알곡생산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긴장된 시기였던 모내기와 김매기 전투때에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근로단체들을 발동하여 로동자기동선동대, 보건기동선동대, 학생기동선동대를 무어 포전마다에서 집중적인 선동공세를 들이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청춘의 기백과 혁명적정열을 가지고 수령님의 교시 관철에 떨쳐나서게 하였다.

우리 군을 중간지대농사의 시범군으로 꾸리시기 위하여 온갖 배려를 다 돌리시면서 그토록 심려하고계시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꽃피워나가는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한 군안의 모든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불타는 결의를 가지고 교시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몸과 마음 다바쳐 한사람같이 싸워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뜨거운 충성심은 참으로 무서운 힘을 낳았으며 자연을 정복하는 벅찬 투쟁에서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다.

투쟁과 승리로 빛나는 충성의 나날속에서 군안의 모든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500정보의 습지와 4천여정보의 땅을 정리하여 기계화할수 있게 하였고 1만 4천정보의 면적을 더욱 비옥하게 개량하는 벅찬 과업을 해제꼈다.

올해 강냉이농사에서 우리 군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도 바로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이 가져온 빛나는 열매이다.

지난해에 비하여 2배이상이나 되는 강냉이수확을 이룩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드높은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충성의 씨앗을 뿌리고 정성들여 가꾸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군안의 책임일군들과 농장관리일군들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평당 강냉이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고 빈 포기가 없게 함으로써 여기에서만 하여도 지난해에 비하여 사실상 많은 알곡 수확예비를 얻게 되였다. 또한 온 군이 떨쳐나서 거름을 모아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강냉이 매 포기에 많은 덧거름을 주었고 홰불을 추켜들고

낮에 밤을 이어 제때에 김매기를 하였으며 장마철에는 비바람의 피해를 막아내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줄기찬 투쟁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는 올해에 강냉이농사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강냉이생산에서 《미신》을 타파하라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책임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할 때만이 모든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혁명의 지휘성원인 간부들이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습니다. 경험은 지도일군들이 군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고 용감하게 투쟁하는 부문에서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며 그렇지 못한곳에서는 사업이 답보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신년사》, 1973년 1월 1일, 12폐지)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이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라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책임일군들로부터 시작하여 농촌지도일군들과 농장초급일군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농사일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로 이끌어나갔다. 책임일군들이 작업복을 입고 직접 작업반과 분조에 내려가 농장원들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진행하며 그들에게 충성의 불씨를 안겨줌으로써 농장원들속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킬수 있게 되였다.

군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힘든 일의 앞장에서 모범을 보였으며 군당위원회는 그들의 이신작칙정형을 당생활과 결부하여 정상적으로 총화하도록 함으로써 일군들의 선봉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였다.

경험은 모든 일군들이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모든 사람들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정열로 들끓게 할 때 언제 어디서나 놀라운 기적과 위대한 비약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가 달성한 자랑찬 성과와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길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신심을 안겨주고있으며 새로운 높은 고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올해의 대풍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은 새로운 토대우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나라살림은 더욱 부유해지게 되였다.

해마다 대풍이 들어 흥성거리는 우리 나라 농촌의 자랑찬 현실은 수령님께서 밝히신 농촌테제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여주고있다.

지금 녕변군안의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대풍이 든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지으며 새해에 더욱 큰 풍작을 이룩하기 위하여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면서 충성의 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우리는 나라의 쌀독이 차고 쌀뒤주가 넘어나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인민생활이 높아진다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명심하고 새해에 더 높은 알곡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며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할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고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요새도 능히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아래 우리 녕변군이 걸어온 자랑찬 력사가 말해주는 진리이며 우리들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된 확고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휘황한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 작풍을 따라배우자

김 성 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야 할 보람차고도 영광스러운 전투적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앞에 나선 이 성스러운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신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개조하여나가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근에 또다시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그것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만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의 전진운동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는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의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개조할뿐아니라 그들의 풍모와 방법, 작풍에 이르기까지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야 한다.

당중앙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요구로부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그이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까지도 몸에 받아안은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키울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였다.

당의 가르침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에 살며 혁명하는 사람들의 면모가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며 어떠한 높이에 이르러야 하는가를 전면적으로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함께 고매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소유하는것은 원래 공산주의자로 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근로대중을 온갖 예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력사적사명을 지닌 사람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러기에 언제나 자기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겪으면서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나간다. 따라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는 사상에서뿐만 아니라 정신도덕적풍모에서도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르러야 한다.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 이는 오늘 공산주의자의 면모를 완성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 공산주의자의 본보기이다.

그것은 그들의 온몸에 티없이 맑은 주체형의 피가 넘쳐흐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이 그대로 체현되여있기때문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의하여 밝혀진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체계인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와 공산주의미래를 대표하는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우리의 전진운동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이다.

이 위대한 혁명사상에는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기본품성, 사상정신 및 도덕적 풍모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지있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계를 보며 변혁해나가는 사상과 관점,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수행하여나가는것은 수령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군중관점이며 풍모이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불멸의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밝히시고 혁명의 길에 오르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그것을 대중령도에 빛나게 구현하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시대의 혁명가, 공산주의자의 위대한 귀감이시며 그이께서 지니신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은 주체시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풍모와 사업방법, 사업작풍의 본보기이며 전형이다.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은 현단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가장 높은 수준의 정신도덕적풍모를 담고있다. 이와 함께 그것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고결한 혁명정신과 관점,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과 태도를 집대성하고있으며 혁명가들의 정신적풍모와 생활준칙, 활동규범을 가르쳐주고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울 때에만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수령님의 혁명전사의 가장 영예로운 사명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수하는 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령님을 따라배워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함께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몸땅 받아안아야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을 능숙하게 해나갈수 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기치밑에 진행

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고 침체한것, 반동적인것을 쓸어버리고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가장 폭넓고 심각한 혁명적변혁과정이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과 함께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견결한 혁명가적기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것은 오직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때에만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몽땅 받아안아야 수령님과 당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진 다음에는 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달려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광범한 대중을 이 사업에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1페지)

당의 로선과 정책이 세워진 다음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군들이 어떠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가지고 일하며 광범한 대중을 이 사업에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은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담보이다.

수령님의 혁명적사업방법은 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을 가르치고 대중에게서 배우며 그들과 합심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다.

그러므로 일군들과 당원들이 수령님의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움으로써만 온갖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극복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는것은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불패의것으로 강화함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나가게 한다.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려 강력한 정치적력량을 마련하는것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그대로 몽땅 받아안고 자기의것으로 만들 때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철저히 서게 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함께 그이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이 전일적으로 더욱 확고히 지배하게 될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당은 하나의 맥박, 주체형의 맥박만이 세차게 뛰는 영원히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될것이며 온 사회가 동지적으로, 정신도덕적으로 더욱 굳게 단합된 대가정으로 될수 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한 필연적요구로 된다.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닌 가장 영예로운 임무이다.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들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자신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개조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을 더 빨리 다그쳐나가야 한다.

수령님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려면 반드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552페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인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헌신성과 책임성, 성실성을 남김없이 발휘한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기본품성이며 그들의 정신도덕적풍모의 사상리론적기초를 이룬다. 따라서 일군들과 당원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여야만 수령님과 당의 혁명전사로, 로동계급의 선봉대로, 인민의 충복으로 될수 있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이는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이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의 최고체현자이시다. 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바라시는것은 바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념원이며 수령님의 높은 뜻은 우리 인민의 의지이다. 따라서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는 끝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은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해 가장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정신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신념으로 받아안고 그것을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끝까지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과 혁명정신을 소유하는것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과 확고한 혁명적원칙성,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굳게 간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는데서 중요한것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것이다.

모든 일을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것은 오늘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 지닌 고유한 일본새이며 사업방식이다.

원래 참된 공산주의자는 누구의 강요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한 투쟁에 몸바쳐나선 자각적인 투사이며 세계를 혁명적으로

변혁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이다.

그러므로 혁명에서 주인다운 립장을 견지하고 모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사업방식이다.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일본새는 모든 일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높여 모든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풀어나가며 일을 책임적으로 알뜰하고 깐지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로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 소극과 보수를 철저히 배격하고 언제나 왕성한 투지와 패기에 넘쳐 전투적으로 일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러한 전투적 기백으로 일해나갈 때 온 사회에는 참신하고 생기발랄한 혁명적기풍이 더욱 꽉 들어차게 될것이다.

수령님의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기 위하여서는 일군들과 당원들이 모든 일에서 이신작칙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검박하고 겸손하며 소탈한 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업에서는 인민의 앞장에 서서 희생적으로 일하는 혁명 투사의 모범을 보여야 하며 생활에서는 검박하고 겸손하고 서로 위하고 도와 주는 참된 인간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김일성선집》, 제6권, 273페지)

모든 일에서 이신작칙하며 생활에서 검박하고 겸손하며 소탈한 품성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지녀야 할 고귀한 품성이며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일군들이 언제나 대중의 앞장에 서서 실지 행동으로써 모범을 보이며 생활에서 항상 검박하고 소탈할 때에만 대중의 두터운 신임과 존경을 받을수 있으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로 광범한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적극 조직동원할수 있다.

경험은 일군들이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며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지니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간 때에는 언제나 기적과 혁신이 일어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의 앞장에 서서 실지 행동으로써 혁명투사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며 생동한 창조적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이 생활하는대로 검박하게 생활하고 군중의 진실하고 소박한 생활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리해할줄 아는 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또한 사업에서 원칙성과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겸손성은 원칙성과 요구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강한 원칙성과 높은 요구성을 떠나서 겸손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겸손하다고 하면서 원칙에서 물러나거나 요구성을 낮추는것과 같은 현상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수령님의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기 위하여서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등 온갖 낡은 사업방법을 배격하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본위주의 등은 모두 자본주의사상에 근원을 두고 있는 반인민적인 사업방법으로서 우리 당의 사업방법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일군들이 관료주의를 부리고 주관주의, 형식주의, 본위주의를 한다면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게 되고 대중의 창발성과 자각성을 불러일으킬수 없으며 결국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할수 없다.

우리 일군들이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본위주의 등 온갖 낡은 사업방법과 결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고 관철해나가야 한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새로운 혁명적사업방법이며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전반적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면서 언제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생활하시였으며 이 과정에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적사업방법의 산 교범으로 되는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창조하시였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틀과 격식이 없이 생동하고 실속있게 조직정치사업을 벌려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이것은 착취계급의 반동사상과 반인민적인 관점에 사상적근원을 두고있는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재래식사업방법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야말로 대중에 의거하며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여나가는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사업방법으로 된다.

바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도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있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워야 한다.

이것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하부말단까지 제때에 침투시키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게끔 하는 참으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이다.

일군들과 당원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선전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릴 때 대중은 혁명적자각과 창조적열의에 넘쳐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된다.

또한 일군들과 당원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형식주의와 주관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격식과 틀이 없이 조직정치사업을 벌려야 한다.

사상사업, 정치사업은 다양한 대상을 가진 창조적인 사업이다. 사람들의 성격과 취미, 심리는 저마다 다르고 사상의식수준과 사업능력, 맡은 임무와 사업조건도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대상과 조건에 맞게 사람들과의 사업을 창조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틀과 격식이 없이 간편하고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진행할 때 그것은 현실성과 기동성을 띠게 되며 광범한 군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할수 있게 된다.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은 혁명적령도방법, 사업방법의 참된 모범으로 되는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사업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온몸에 티없이 순결한 주체형의 피가 흐르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가로 개조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수령님과 당의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당면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속도전》의 혁명적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일으키야 할것이다.

문학예술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

김　　하　　명

오늘 우리 인민과 전체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발표 10돐을 크나큰 기쁨과 자랑 속에서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고전적로작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우리 시대의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사상미학적문제들에 전면적해명을 준 강령적문헌이다.

수령님께서는 철저히 주체적립장에서 이미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공화국북반부에서 문학예술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것인가, 북반부의 혁명과 남반부의 혁명의 성격과 과업이 서로 같지 않은 조건에서 우리 문학예술의 기본임무를 어떻게 규정할것인가 하는 것과 같은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에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에 관통하고있는 중요한 사상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밀접히 결합되고 남북조선인민을 혁명사상으로 교양함으로써 철저히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로작을 관통하고있는 또하나의 중요한 사상은 문학예술창작의 모든 문제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리해관계와 미학적요구에 맞게 해결되여야 하며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지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주제와 혁명투쟁에 관한 주제를 옳게 배합할데 대한 문제, 조선혁명의 발전과 함께 자라나는 혁명투사의 성격장성과정을 위대한 력사적사건을 배경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그려내여 혁명투쟁의 진리를 밝혀주는 대작을 쓰는 문제, 소설과 영화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으며 특히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어내는 문제, 조선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 시대의 정신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감정에 맞게 음악을 발전시키는 문제 등의 창조적해명이 모두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높일데 대한 혁명적요구를 반영하고있다.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것은 혁명적문학예술의 본성적요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독창적인 문예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가장 혁명적일뿐아니라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예술로 되여야 하며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한 혁명적예술로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새로운 민주주의적 예술은 반드시 깊은 사상성을 가져야 하며 인민에게 투쟁의 무기로서 복무하여야 합니다. 높은 예술성과 결합된 고상한 사상성, 이것은 예술 작품의 가치를 규정함에 있어서 유일하고 정당한 기준입니다.》(《우리 혁명에서의 문학예술의 임무》, 1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학예술사업을 령도하시는 전과정에 일관하여 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작가, 예술인들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의 옳은 결합을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임

무와 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합법칙적요구이다.

문학예술의 사상미학적교양의 힘은 결국 그의 사상예술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혁명적문학예술은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의 옳은 결합을 원만히 실현할 때에라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상성의 우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여기에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사상성과 예술성과의 관계에서 어느것을 선차적인것으로 보는가 하는것은 문학예술분야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과 기회주의적립장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그 누구에게도 복무하지 않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는것은 반동적부르죠아문학예술의 추악한 반혁명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궤변이다. 수정주의자들은 《예술성》을 높인다는 구실밑에 반동적부르죠아문학예술의 온갖 형식주의사조들을 끌어들이면서 예술에서 로동계급의 당성, 계급성을 거세하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기본사명이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고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줌으로써 그들이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학예술이 자기의 교양적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고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할데 대한 인류의 최고리상을 반영하고있는 공산주의적 사상성을 가지야 한다. 공산주의적사상성, 이것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적표징이다.

그런데 문학예술에서 공산주의적사상성은 인간과 인간생활을 진실하게 묘사한 예술적형상을 통해서만 구현된다. 생활그대로의 진실성과 구체성을 가진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구현되지 않을 때에 사상성은 교양적기능을 수행할수 없으며 사람들에게 예술적감흥을 줄수 없다. 문학예술에서는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도 풍부한 예술적형상으로 구현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예술창작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예술에서 추상성은 죽음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예술성의 높이는 결국 인간생활을 생활그대로의 형상적형식으로 생동하고 진실하게 보여주는 정도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상성과 떨어져있는 예술성은 무의미하지만 예술성과 결합되지 않고서는 사상성은 자체를 나타낼수 없다.

이와 같이 예술성은 문학예술을 다른 사회적의식형태와 구별하는 개념이면서 또한 작품의 질을 식별하며 평가하는 기준을 주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런것만큼 예술성이 없이는 예술 그자체가 존재할수 없다.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은 시대의 사회력사적조건과 계급들의 미학적요구에 따라 력사적구체성을 가지고 각이하게 표현된다.

가장 혁명적이며 진보적인 로동계급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에서 고상한 사상성과 높은 예술성의 옳은 결합은 필수적요구로 나서며 사상예술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인식교양자적기능도 높아진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하며 시대의 발전과 함께 사상예술성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창조적사상은 또한 우리 문학예술이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현실의 새로운 내용과 우리 인민들의 높은 사상미학적요구를 반영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생활은 빨리 전진하고있으며

인민들은 더욱 아름답고 힘있는 예술을 요구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571페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청산되고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으로 들끓는 우리의 사회주의현실과 생산수단과 주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인민들의 높은 사상미학적요구는 우리 혁명적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끊임없이 높일것을 필수적과업으로 제기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을 담보하는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으로 규정하시고 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실현하는 미학적방도를 창조적으로 새롭게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의 옳은 결합을 실현하는 미학적방도에서 가장 선차적이며 가장 중요한 요구는 당의 유일사상을 구현하며 공산주의적사상성의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리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하여서도 안됩니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79페지)

철저히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하여야 할 임무를 지니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반드시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야 하며 다른 어떤 사상의 침습도 절대로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사상성과 예술성의 호상관계에서 사상성이 주도적이고 규정적의의를 가지는것만큼 공산주의적사상의 순결성이 철저히 보장되지 않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란 있을수 없다. 오직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거할 때에만 현실속에서 본질적인것과 비본질적인것을 가려낼수 있고 생활묘사에서 정확한 사상정치적평가를 줄수 있으며 그만큼 예술성도 진실한것으로 될수 있다.

문학예술창작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며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동적이며 불건전한 사상의 침습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것은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결정적조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학예술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의 옳은 결합을 실현하며 그의 사상예술성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주제를 옳게 설정하며 생활과 투쟁의 모범으로 되는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공들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주제의 옳은 설정과 해결은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당정책적요구를 제때에 반영하여 그 선도적역할을 높이며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선결조건으로 된다. 문학예술창작에서는 현실에 가까운것을 그릴수록 작품이 더욱 가치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인민들이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사회정치적문제들을 주제로 설정하고 우리 당의 정책적요구의 견지에서 예술적으로 옳은 해답을 주어야만 작품은 사상미학적교양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설정된 주제의 옳은 해결은 등장인물들의 호상관계에 의하여 벌어지는 사건의 전개와 형상의 전형화를 통하여 실현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결국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

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데서 문학예술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혁명과 새생활건설의 참된 주인공들을 형상화하여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당과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할 무거운 사명이 작가, 예술인들에게 지워져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29페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는만큼 우리 혁명과 새생활창조의 참된 주인공들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은 생활의 진실을 옳게 반영하며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실현하는 기본고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진행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 해방후 민주개혁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전과정에 걸쳐 조국의 자주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수많이 자라났다.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앞장서나가는 시대의 영웅,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을 창조하여 구체적이고도 생동한 모범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참된 삶의 길을 보여줌으로써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고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기본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혁명적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 미학적방도의 다른 하나는 진실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생활의 본질과 혁명의 진리를 밝혀내는 동시에 그 예술적형상을 우리 시대 인민들의 미학정서적요구에 맞게 창조하는것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은 문학예술의 진정한 창조자일뿐아니라 가장 총명한 평론가이다. 그것은 인민대중이 계급적처지로 말미암아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고 발전시키는데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다시말하면 인민대중의 리해관계는 사회의 발전법칙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인민대중은 바로 이러한 계급적립장으로부터 언제나 생활을 발전속에서 진실하게 반영할데 대한 혁명적인 요구를 제기하게 되며 따라서 인민들의 미학정서적요구는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예술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된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은 혁명적이고 락천적인것을 좋아하며 힘차고 아름다운 작품을 요구한다. 시대의 생활과 기상을 담은 혁명적이고 아름다운 예술, 사상적내용이 깊고 풍부하며 예술적으로 세련되고 높은 형상성을 지닌 작품이라야 오늘의 우리 인민들을 즐겁게 하고 교양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정서와 감정에 맞게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적내용과 민족적형식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적내용과 민족적형식의 옳은 결합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징표이며 창작에서 높은 사상예술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미학적요인이다. 주체사상으로 일관되고 사회주의적내용을 가진 우리 혁명적문학예술의 형식은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민족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정확하고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표현하는데 알맞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내용이 현실의 발전과 함께 변하는것만큼 민족적형식도 그에 알맞게 개작하고 혁신하며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제도에서 사는 우리 인민들의 미학정서적요구에 맞게 민

족적형식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사상적 내용에 알맞는 형상적형식을 창조하지 못할 때에는 내용과 형식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예술적 감흥을 줄수 없게 되며 결국 문학예술이 사상미학적교양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게 된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키기 위한 투쟁은 결국 작품의 사상미학적교양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혁명적이며 문화적이며 더욱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데 이바지하기 위한것이다.

문학예술의 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하게 건설해나가야 할 혁명적문학예술의 풍모를 밝혀주고있는 창조적사상이며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문학예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가장 옳은 길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다.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의 빛나는 구현

지난 10년동안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를 강령적지침으로 하여 당중앙의 현명한 지도밑에 우리 문학예술이 걸어온 빛나는 력사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사상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증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와 육친적배려속에서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을 이룩하였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우리 시대 혁명적문학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로서 근로자들의 혁명적교양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전세계인민들속에서 열화같은 사랑과 높은 찬양을 받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여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생활력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습니다.**》(《신년사》, 1974년 1월 1일, 6~7페지)

당중앙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명철한 과학적해명을 주는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끊임없이 새롭게 내놓으면서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지도를 주었다.

당중앙이 제시한 공산주의 새 인간학에 관한 리론, 창작에서 종자를 바로 잡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종자리론과 《속도전》리론,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형리론 등은 우리 시대의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의 옳은 결합을 실현하며 우리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빨리 높여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당중앙은 불멸의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에 예술적으로 해답을 주는 공산주의 새 인간학에 관한 독창적리론을 내놓음으로써 문학예술이 사상성과 예술성이 옳게 결합된, 진실로 생활과 투쟁의 교과서로 될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수령님께서 안기주신 정치적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알고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자주적인 인간을 화폭의 중심에 세우고 그 생활을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 제기하는 물음에 예술적으로 옳은 해답을 주는것은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기본요구이다. 그리하여 공산주

의 새 인간학에 관한 리론은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공들의 생활과 투쟁의 모범을 가지고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본성을 밝혀주며 공산주의적사상성과 높은 예술성의 옳은 결합을 실현하는 기본원리를 준다.

당중앙이 내놓은 독창적인 종자리론과 《속도전》리론은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서 끊임없는 창조적앙양을 이룩하며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였다.

당에서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먼저 종자를 바로잡아야 창작에서 사상미학적의도를 정확히 전달할수 있고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사상성과 예술성의 옳은 결합을 실현할수 있다.

종자리론의 독창성은 창작가들로 하여금 주제, 사상을 현실속에서 생활적으로 파악하며 창작의 첫공정으로부터 목적의식적으로 사상성과 예술성의 옳은 결합을 실현하는 기본고리를 찾아 모든 형상적요소들을 하나의 예술적화폭으로 조직해나가도록 추동한다는데 있다.

당에서는 종자를 쥐고 작품에 대한 파악이 생긴 다음에는 높은 《속도전》을 벌려야 작품의 질도 높아진다는 《속도전》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고 문학예술창작에서 이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지도하였다.

《속도전》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을 구현한것으로서 창작을 담당한 사람—작가, 예술인들의 창조적열의를 고도로 높이여 창작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그 속도와 사상예술적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하는 창작원칙이라는데 그 독창성이 있다.

당중앙은 또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전형창조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체계화함으로써 사상성과 예술성의 옳은 결합을 실현하는 또 하나의 위력한 무기를 주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형리론의 기본요구는 창작에서 사회적현상을 그리며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는 형상작업의 모든 공정을 확고히 정치적견지, 당정책적요구의 견지에서 생활의 론리에 맞게 처리하는것이다.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예술성은 결국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며 우리 시대의 인간문제를 예술적으로 옳게 해결하는 정도에 따라 규정된다. 창작에서 생활의 풍부하고도 진실한 묘사는 인민의 리해관계에 맞는 정치적평가와 밀접히 결합되여야 그 예술적형상이 사상미학적교양의 기능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이처럼 전형성에 관한 문제는 예술성에 관한 문제로 될뿐만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치성에 관한 문제로 되는것이다.

당중앙은 창작에서 본질과 합법칙성을 띤 전형적인 생활을 그릴데 대한 문제, 당정책적견지에서 본질과 현상을 옳게 가려보고 선을 명확히 갈라서 형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문제, 모든 현상을 정치적으로 의의있고 교양적가치가 있게 형상할데 대한 문제, 자그마한 현상도 주의를 돌려 심사숙고하며 세부묘사의 진실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 전형창조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제기하고 해명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이를 구현한 당중앙의 독창적인 문예리론에 의하여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공산주의적사상성과 높은 예술성의 결합을 실현하는 가장 옳은 길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끊임없는 창조적앙양속에서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철저히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활짝 꽃피여나게 되였다.

당의 지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등을 영화와 가극 및 소설로 옮기는 력사적 위업을 빛나게 실현한것은 혁명적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였다. 특히 《피바다》식 가극의 출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현대혁명가극의 새 기원을 열어놓았다.

당의 현명한 지도밑에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본보기로 하여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이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영화와 소설, 음악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그 사상예술성이 전면적으로 급격히 높아졌다.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사상예술적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빛나게 형상한 기념비적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한것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1932년》과 《혁명의 려명》을 비롯하여 문학, 영화, 연극, 미술 등 문학예술의 여러가지 형태로 형상된 훌륭한 작품들이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서는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주제와 혁명투쟁에 관한 주제를 옳게 배합할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이 확고히 견지되고 빛나게 실현되였다.

우리의 혁명적작품들은 예술영화 《마을사람들속에서》, 《한 지대장의 이야기》, 《유격대의 오형제》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평범한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이 혁명투사로 자라나는 과정을 진실한 예술적형상으로 재현하였으며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혁명의 한길에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투사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었다.

우리의 혁명적작품들은 또한 예술영화 《로동가정》, 《압연공들》, 《처녀지배인》, 《꽃피는 마을》, 《사과 딸 때》 등과 같이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주도적성격으로 하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새로운 공산주의적풍모를 화폭의 중심에서 형상하면서 모든 뒤떨어진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하는 과정을 진실하게 그리내고있으며 창조적혁신과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고있는 사회주의현실을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종자의 탐구에 의한 심오한 사상성과 형상의 생동성, 주체사상으로 일관되고 풍부하고 진실한 생활묘사에 의한 높은 전형화의 실현, 사회주의적내용과 민족적형식의 옳은 결합은 오늘 우리 문학예술의 주요한 특성으로 되여있다.

무엇보다먼저 대중교양의 가장 힘있는 수단의 하나인 영화예술이 빨리 발전하였으며 그 사상예술적질이 훨씬 높아졌다. 종합예술인 영화예술의 발전은 문학, 음악, 미술 기타 모든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전면적으로 높여주는 새로운 지표로, 생동한 본보기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그이의 혁명적가정을 진실하게 재현한 기념비적인 력사기록영화와 현지지도영화들이 수많이 창작되였다. 인형영화, 그림영화를 비롯한 어린이영화들과 백과전서적인 영화 《새 조선》, 산림산이영화 등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영화종류들이 개척되였다. 영화음악과 영화미술, 연출 및 연기, 촬영 등 영화의 형상적기량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조선영화예술의 고유한 민족적풍격이 더욱 뚜렷하게 구현되였다.

당의 지도밑에 소설을 비롯한 문학의 모든 형태들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을 형상화하는 력사적인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비

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주제를 끊임없이 개척하였으며 조국의 자유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을 폭넓게 재현한 장편소설과 서사시의 창작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음악은 조선적인것을 바탕으로 한 우리 시대의 아름답고 약동적이며 힘있는 선률로 오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정서를 더 잘 표현하게 되였다. 《빌립아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와 같이 《피바다》식가극형식으로 형상된 현대적주제의 혁명가극이 많이 창작되였으며 음악의 모든 형태에서 민족적형식의 현대화과정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인민들이 어데서나 정황에 따라 흥겹게 부를수 있는 통속적인 가요들 특히 당정책을 해설하는 혁명적군중가요들과 노래이야기, 노래재담과 같은 새 형식들이 발전하였다.

미술분야에서는 《만수대대기념비》,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과 같은 대기념비조각들과 우리 나라의 고유한 채색화의 기법을 우리 시대 인민들의 미학적요구와 기호에 맞게 계승발전시켜 장엄한 오늘의 우리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 조선화작품들이 활발히 창작되고 새로운 예술적경지가 개척되였다. 유화를 비롯하여 판화, 아동미술, 무대미술, 영화미술, 산업미술 등 모든 형태의 미술창작에서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에 맞게 밝고 간결하고 섬세하며 힘있고도 아름다운 조선화의 전통적인 특성을 더 훌륭하게 구현하게 되였다.

참으로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관되고 민족적바탕에 깊이 뿌리박은 아름다운 예술적형상의 꽃으로 피여난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으며 그 찬연한 빛발로 인류에게 참다운 삶의 기쁨과 영광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대진군을 다그치고있으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는 오늘의 장엄한 현실은 우리 문학예술창작에서 혁명적앙양을 계속 견지하며 그 사상예술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앞으로도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당의 독창적인 문예리론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여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혁명적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성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대민족회의방침은 반드시 실현되여야 한다

전 금 진

건설적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와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들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대민족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대민족회의방침은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외세에 의존하려는 시도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자기의 민족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구현한 탁월한 방침이다.

대민족회의방침은 그 심오한 사상과 혁명적본질로 하여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으며 내외의 광범한 지지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강령적인 대민족회의방침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를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겨나아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1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대민족회의방침은 내외정세를 심오히 분석한데 기초한것으로서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현난국을 타개하고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준 현실적이고도 과학적인 방침이다.

대민족회의방침은 무엇보다도 조국통일문제가 가지는 거족적성격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그것은 현단계에서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다.

조국통일, 이것은 어느 특정계급이나 소수 개별적사람들의 리익에만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분렬되였던 령토를 다시 잇고 갈라진 민족을 재통합하는 문제로서 전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며 그들의 리해관계를 반영하는 민족중대사이며 거족적위업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위업에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이며 그 기본동력, 추동력도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며 전체 조선인민이다.

대민족회의방침은 바로 전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문제를 전민족적애국력량을 광범히 조직동원하여 민족주체적힘으로 해결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대민족회의방침은 조국통일위업에 직접 참여하려는 인민들의 념원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는 현실에 비추어보아도 매우 절박한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공화국북반부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 사회단체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련합회의를 소집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적위업에 직접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것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호응하여나설것을 남조선의 제정당, 단체들에 거듭 호소하였다.

남조선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층 인민

들은 남북대화에서 현파쑈통치배들이 《독주》하고있는 부당한 처사를 반대배격하면서 대화를 위한 《범국민적인 협의체》를 구성할것을 주장하여나서고있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대민족회의방침은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꺾을수 없는 의사를 철저히 반영하고있는 매우 현실적이고도 실현성있는 방침이다. 통일에 대한 대중의 일화같은 지향,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주인된 립장에서 직접 참여하려는 그들의 강렬한 요구, 이것은 대민족회의방침을 지체없이 그리고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현실적가능성을 지어준다.

오늘 대민족회의방침은 특히 남북협상에 림하는 남조선의 현파쑈통치배들의 매국배족적립장, 놈들의 로골화된 민족분렬주의적립장으로 하여 더는 미룰수 없는 긴절한 투쟁과업으로 나선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분렬책동을 계속하는것으로 보아 그들이 진실로 통일을 위하여 대화의 길에 나섰다고 믿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남북당국자들사이에서만 론의할것이 아니라 전민족적인 토의에 붙여야 한다고 언정합니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12페지)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추호의 관심도 없는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남북의 현상태를 고착시키고 민족의 영구분렬만을 추구하고있다. 놈들은 내외의 압력과 시대의 추세에 못이겨 북과 남의 대화에 끌려나오기는 하였으나 대화를 통일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그것을 제놈들의 범죄적인 분렬주의로선을 추구하는데 리용하고있다.

놈들은 대화에서 량면전술에 매달리면서 우리 측이 제의한 정당한 방안들을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반공》과 쑈정책과 《대결》정책을 추구하여왔으며 드디여는 저들의 분렬주의로선을 정책화하여 발표한 이른바 《6. 23특별성명》을 내놓는데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남조선의 현 파쑈통치배들이 우리와 손잡고 《통일하겠다》고 하고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가 안되겠다》고 나온이상 그들의 과거죄행은 불문에 붙이고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매국노, 파쑈교형리, 호전광으로서의 놈들의 정체가 날날이 드러난 오늘에 와서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사를 이들만을 대상하여 계속 협상해나간다는것은 시간만 헛되이 랑비하는것으로 되며 조국통일의 민족적위업을 탁상우에 놓고 희롱하는것으로 될것이다.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이 통일을 방해하고 《두개 조선》조작음모에 매달리고있는 조건에서 조국의 운명에 대하여 가슴아파하는 우리 인민은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구국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며 통일문제를 전민족적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대민족회의방침은 이상과 같은 제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가장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방안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며 각계각층 인민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사업에 직접 참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민족회의를 내와야 한다는 원대한 구상을 내놓으시면서 그 구성과 임무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북반부의 로동자, 근로농민, 근로인테리, 청년학생, 병사들과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과 같은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며 여기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광범히 협의하여 해결할것을 제의합니다.》(《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10페지)

수령님께서는 이 명제에서 대민족회의 구성과 임무 즉 대민족회의성격에 대한 고전적징식화를 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대민족회의에는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로동자, 농민 등 기본군중은 물론 청년학생,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대표들과 정당, 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여야 하며 민족자본가들과 군인들도 참가할수 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데 당면한 투쟁목적을 둔다. 따라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견결한 혁명가인 동시에 또한 열렬한 애국자로 된다.

오늘 북반부의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은 우리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웠으며 이에 의거하여 남조선에서 미제를 내몰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등 기본군중은 민족분렬의 가장 큰 희생자들이며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들도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민족분렬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있다. 그러므로 이들모두가 나라를 통일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할것을 바라고있다.

각이한 계급계층의 리익을 대변하며 옹호하는 정치조직인 북과 남의 정당, 단체들이 구국협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마디로 대민족회의에는 나라의 통일문제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는 북과 남의 광범한 애국력량이 망라되여야 한다.

조국의 통일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려면 그 기본동력을 외세가 아니라 민족주체적력량에서 찾아야 하며 소수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체 인민의 의사에 의거해야 한다.

조국통일이라는 이 거족적위업을 인민의 리익에 맞게 옳게 해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는 통일문제 해결에 인민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하며 그들이 문제해결에서 주인으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다하는가에 달려있다.

대민족회의는 전민족의 의사를 직접 대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거대한 사명을 다할수 있으며 또 다해야 한다.

수령님께서 명백히 하신바와 같이 대민족회의의 주되는 사명, 그 임무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협의해결하는것이다.

회의는 민족의 지상과업인 조국통일을 촉진시키며 그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들을 상정시키고 협의결정하며 그를 끝까지 해결하게 된것이다.

이 기구는 단순한 토론무대나 문제를 다만 조종하는 중개자의 역할이 아니라 전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문제를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권위있고 위엄있는 전민족적협상기구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대민족회의방침은 그 혁명적본질로 하여 불패의 견인력을 갖는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대민족회의방침의 혁명적본질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의 모든 민족주체적애국력량을 집결시키고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게 하는데 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언제나 나라를 북과 남으로 갈라놓고 지역적으로 대립시키며 민족대립감정을 고취시키려 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놈들은

저들의 《반공》파쑈정책과 매국배족행위를 가리우며 인민들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대민족회의에 관한 사상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이러한 민족분렬주의정책에 타격을 주고 전민족적단합을 이룩하게 함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결정적으로 앞당겨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무기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사상, 리념,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7.4남북공동성명에 지적된 조국통일 3대원칙의 하나이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강령의 하나이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대민족회의방침은 그이께서 제시하신 이 기본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방침이며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방도로 된다.

이 방침의 기본내용을 이루는것은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의 모든 계급, 계층, 정당, 사회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는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북과 남의 지역적개념이나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가 단결에 저애를 주는 요인으로 되지 않으며 또 될수도 없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은 무원칙한 단합, 대동단결을 의미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에서는 외세에 대한 태도와 립장 그리고 조국통일에 대한 태도와 립장이 단결의 기준으로 된다.

이런 의미에서 대민족회의는 북과 남을 포괄하는 민족주체적인 애국력량의 정치적련합체이며 반제구국협의체로 된다.

이로부터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며 그를 통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은 북과 남의 대립이 아니라 애국과 매국간의 대립, 전체 조선인민과 소수민족반역자들간의 대립, 통일세력과 분렬세력간의 대립과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대민족회의방침의 정당성과 그 혁명적본질은 또한 남북련방제와 함께 현 단계에서 나라의 통일을 촉진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되는데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성된 조건에서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민족적단결을 이룩한데 기초하여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합니다.》

(우와 같은 책, 10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나라의 완전통일을 실현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도가 있다. 언제 어떤 방도로 통일을 실현하는가 하는것은 주객관적정세와 인민들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가 있으며 서로 격페되여있는 현상태에서 직접 완전한 통일에로 접근하기 어렵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더우기 남조선괴뢰도당이 남북협상을 제놈들의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하며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데 리용하려 하고있는 형편에서 이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기대하여서는 안되며 그렇게 될수도 없다.

현 정세하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어차피 과도적인 길을 걸어야 하며 또 이렇게 하는것이 실지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그러한 과도적인 방도중에서 가장 합리적인것이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민족적단결을 이룩하는 기초우에서 두 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면서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이다.

대민족회의가 마련되면 북과 남의 각

계각층 인민들과 정당, 단체들 사이에 광범한 접촉과 래왕이 실현되여 호상 정치적견해와 사상의 차이를 좁히고 상대방 제도를 직접 목격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서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두터이 할것이며 민족적단합을 도모하게 될것이다.

대민족회의방침이 실현되면 남북련방제를 실시하기 위한 대전제가 마련되게 될것이며 조국의 완전통일을 앞당기는데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하게 될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대민족회의에 관한 방침은 오늘 내외인민들속에서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받고있다.

대민족회의에 관한 제의가 전체 조선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자 박정희괴뢰도당은 이 제의가 《적화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이니 뭐니 하면서 이를 헐뜯어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전민족의 총의를 담아 나라의 통일문제를 협의해결할 사명을 지닌 대민족회의가 결코 《적화》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어떤 기만선전으로써도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적위업을 실현하는데 직접 참여하려는 인민들의 지향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저들의 추악한 민족분렬정책과 매국배족행위를 가리울수 없다.

3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대민족회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전국혁명의 기지인 나라의 북반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는것이다.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밑천이며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북반부혁명력량이 강화되면 될수록 대민족회의를 위한 방침이 그만큼 성과적으로 실현될것이며 대민족회의가 나온다음에는 그것이 그 어떤 원쑤들의 방해책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권위있고 위력있는 기구로 되게 할것이다.

북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온 사회를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선 붉은 대가정으로 꾸리는것이며 전체 인민들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단결시키는것이다.

이와 함께 당중앙이 제기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줄기찬 로력적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북반부를 강유력한 경제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켜야 한다.

동시에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원쑤들의 그 어떤 침략도 일격에 격파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준비를 갖추어놓아야 한다.

북반부혁명력량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활동을 적극 벌려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위업에 대한 국제적지지를 더욱 광범히 전취하며 미제의 침략정책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 매국배족행위를 철저히 폭로배격함으로써 놈들을 세계적범위에서 더욱 철저히 고립시켜야 한다.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대민족회의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남조선인민들이 이를 위한 투쟁을 얼마나 완강하게 벌리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무엇보다 미일침략자들을 견결히 반대배격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여야 한다.

외세의 침략과 간섭이 있는한 우리 인민의 리익과 관련되는 그 어떤 조치도 효과적으로 실현할수 없으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은 우리 강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구국

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하며 날로 확대강화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정치, 경제적 및 군사적 침투를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이와 함께 소수 매국노들을 고립배격하고 광범한 애국력량을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반공》과 《대화》의 구호하에 매국배족행위와 민족분렬책동에 매달리고있는 박정희역도를 두목으로 하는 현 괴뢰집단을 철저히 폭로배격하며 《두개 조선》을 정책화한 이른바 《6.23특별성명》을 단호히 분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매국노집단과 애국세력을 똑똑히 갈라놓고 한줌도 못되는 친미, 친일 매국세력을 인민들로부터 고립시키며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광범한 애국력량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야 한다.

대민족회의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결국 하나의 거족적정치운동이며 따라서 그것은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완전히 보장될 때만이 빛나는 결실을 맺을수 있다.

극악한 남조선의 현 파쑈통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주되는 장애물이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종교인 등 각계각층 인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전률할 파쑈독재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야 한다.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조선의 로동계급과 농민은 자기 권리와 리익의 진정한 옹호자이며 단결의 무기인 합법적인 정치조직을 가져야 하며 누구나 다 자기의 주의주장을 자유롭게 표명할수 있고 정당, 단체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전개할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은 파쑈악법들과 각종 반동적, 반인민적 파쑈조치들을 단호히 반대배격해야 하며 체포투옥된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 종교인들을 석방하기 위한 투쟁을 견결히 전개하여야 한다.

인민들의 온갖 진보적운동과 애국투쟁은 파쑈교형리들과 매국노집단을 그대로 두고서는 승리할수 없다.

대민족회의방침을 실현하여 나라의 통일을 앞당겨나가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대결》이 아니라 단결을 추구하고 파쑈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매국이 아니라 애국을 지향하고 분렬이 아니라 통일을 념원하는 민주인사들이 정권을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애국력량이 결속되여야 한다.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우리 나라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구국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대민족회의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적극 호응해나서야 한다.

오직 전민족적애국투쟁을 통해서만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강령적인 대민족회의방침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나아갈수 있다.

근 로 자 제11호(루계391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4년 11월 1일 발행 • 1974년 11월 5일

ㄱ—44364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2호

평 양 근로자사 1974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12호 (392)

차 례

뻬루《엑쓰쁘레쏘》신문주필 부부와 한 담화

김 일 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6월 2일 뻬루 《엑쓰쁘레쏘》 신문주필 부부를 접견하시고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담화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오늘 먼 뻬루에서 온 손님들을 만나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당신들이 참관을 통하여 느꼈겠지만 우리 나라는 지금 한창 건설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설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건설하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가 하는감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나는것을 보고 가장 큰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돈을 많이 쓰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예산의 많은 부분을 어린이들을 키우며 공부시키는데 돌리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탁아소, 유치원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350만명이나 되며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450만명이상이나 됩니다. 탁아소, 유치원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각급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다 합하면 800만명이상입니다.

우리 나라 북반부의 인구가 약 1,500만명인데 탁아소, 유치원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800만명이상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국가비용으로 키우며 공부시키다보니 부담이 좀 많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같이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린이들을 국가비용으로 키우며 공부시키는것이 지금은 좀 부담으로 되지만 장래를 위하여서는 좋은 일입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만 앞으로는 행복할것입니다. 학생들을 공부시키면 장차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을 높이 평가하여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들뿐아니라 아프리카와 중근동 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당대표단들도 우리 나라에 와서 제일 많이 느끼는것이 우리의 교육정책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나라인 일본에서 오는 사회당이나 자민당 사람들도 우리의 교육정책을 지지합니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성원들도 우리 나라에 와서 우리가

탁아소,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고등전문학교, 대학을 비롯한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국가비용으로 키우며 공부시키는것을 보고 감탄을 금치못해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학생들뿐아니라 정무원 부장들을 비롯하여 간부들도 다 학습합니다. 간부들까지 합치면 우리 나라에서 공부하는 사람의 수는 학생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몇해전에 우리 나라에 왔던 일본혁신시장들이 우리 나라에서의 전민교육제도에 대하여 말해달라고 하기에 내가 직접 몇시간동안 이야기하여주었습니다.

당신들이 혁명을 하는데서 간부가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간부가 모든 문제를 결정합니다. 좋은 간부가 있어야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합니다.

당신네 나라의 대학들에는 인문학계통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인문학을 제한합니다. 우리 나라의 대학들에서는 문학, 법학을 비롯하여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학생수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사람들에게는 다만 법학이나 의학공부를 좀 시켜 일부 사람들이 변호사나 의사, 교원 같은것이나 하게 하였지 기술은 하나도 배워주지 않았습니다. 해방후에 조사하여보았는데 조선사람으로서 일본의 기술대학을 나온 사람은 몇십명밖에 안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사람에게 기관차를 모는 기술마저 배워주지 않았습니다. 일제놈들은 기관차는 자기들이 몰고 조선사람에게는 불때는 심부름이나 시켰습니다. 역장도 일본사람들이 하였습니다. 조선사람가운데 기관사는 몇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나쁜놈들인가 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민족간부가 없었습니다. 기관사마저 없어 몇달동안 기차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실습생을 보내여 배워오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와 뻬루사이에는 아직 외교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뻬루인민들의 투쟁을 언제나 주시하고있습니다.

뻬루의 벨라스꼬대통령각하는 용감한분입니다. 그는 뻬루인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있습니다. 벨라스꼬대통령각하는 200마일령해권을 주장하고있습니다. 몇해전까지는 200마일령해권을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만 주장하였는데 이제는 세계적범위에서 그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나라들도 다 200마일령해권 또는 경제수역권을 주장합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로선 즉 벨라스꼬대통령이 들고나온 200마일령해권에 대한 주장은 오늘 세계적범위에서 지지를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지금은 제3세계가 단결되였기때문에 제3세계인민들이 들고일어나면 강대국들도 어찌할수 없습니다. 통신을 보니 일본도 200마일경제수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고립될가봐 그것을 인정하려 하는것같습니다. 일본은 해양업에서 많은 리익을 얻고있는데 이제는 하는수 없이 경제수역을 200마일로 하자는 주장에 굴복하였습니다. 아직 미국을 비롯한 몇개 나라가 경제수역을 200마일로 하자는 문제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고있는데 세계의 대다수나라들이 200마일경제수역을 주장하는 조건에서 그들도 거기에 응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을것입니다. 이번에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에서 열리

는 국제해양법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아마 그 회의는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게 될것입니다.

200마일령해권에 대한 주장은 당신들이 먼저 내놓은것이며 자주의 기발을 든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당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자기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며 자기 민족의 독립을 수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제3세계가 다 당신들의 이 모범을 따르고있습니다.

당신들은 미국배가 해안가까이와서 고기를 잡으면 나포하여 벌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용감하고 대담한 행동이며 전세계가 다 본받을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립장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있으며 높이 평가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이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있는데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제2세계나라들도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제2세계라는것은 프랑스, 카나다 같은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도 다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리예, 단마르크, 핀란드 같은 북구라파나라들과 라틴아메리카나라들도 자주성의 원칙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오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페루도 자주적으로 나가고있고 아르헨띠나도 자주적으로 나가고있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도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은 인민들이 자주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것이지 남에게 매워살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맑스는 《공산당선언》에서 억압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라고 하였는데 인민들이 억압의 쇠사슬을 끊어버린 다음 또 다른 형태의 쇠사슬, 대국의 통제속에 들어갈바에야 무엇때문에 혁명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한 자주성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네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있습니다. 그 네가지 원칙이란 사회주의나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의 민족해방운동과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계속하며 내정불간섭, 호상 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것입니다. 우리는 내정불간섭원칙을 주장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다른 나라에서 어떤 로선을 취하든 거기에 간섭하지 말아야합니다. 한가정안에서도 누구든지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싶으면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싶으면 차를 마시고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여야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 구속하면 가정이 화목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절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반혁명의 길로 나가지 않는한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을 욕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회주의나라들도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있으며 설사 간섭하려고 하여도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호상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때문에 서로 좋게 지내고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가고있기때문에 우리는 현시대를 자주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이 거의다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있습니다.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가려는것은 오늘 하나의 사상조류로 되고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본보기의 나라라고 하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주성이 제일 강한 나라라고 하였으며 우리가 반미사상도 매우 강하고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정책이 실시되는 조건에서 자주성을 시종일관 견지하여왔는데 물론 한때는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디여냈을뿐아니라 훨씬 강대하여졌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봉쇄정책을 쓸수록 우리 인민의 자각성과 투쟁열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형편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대외무역 한가지만 놓고보더라도 지난 시기에는 우리가 오직 사회주의나라들과만 무역을 하였으나 지금은 다른 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자꾸 올라가니 우리와 무역을 하자는 나라도 점점 많아지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도 우리를 경제적으로 봉쇄해보려고 책동하고있으나 그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최근 우리 나라와 일본과의 경제거래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범위에서가 아니라 개인회사들과의 거래가 진행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강철공업에서 현대적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일본에 2,000립방메터용광로 2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조선에서 용광로설비를 사가지 못하게 해달라는 남조선반동들의 말을 듣고 미제국주의자들이 일본에 압력을 가하여 우리와의 약속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본회사에서는 미국의 압력을 받고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기때문에 우리에게 용광로설비를 못팔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술자들에게 자체로 연구하여 용광로를 건설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우리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이 자체로 용광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1,500립방메터용광로를 건설하고있기때문에 2,000립방메터용광로를 건설하는것이 그리 큰 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올해 9.9절에는 지금 하고있는 용광로건설이 완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전에 기술자들과의 협의회에서 그들에게 당신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용광로를 건설하니 기술수준도 높아지고 외화도 적게 들고 얼마나 좋은가고 하였습니다.

적들의 봉쇄정책을 이겨나가려면 반드시 자체의 민족간부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민족간부만 있으면 능히 적들의 봉쇄정책을 짓부시고 자체의 힘으로 모든것을 해결해나갈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화를 복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정책과 압력은 여러가지 난관을 조성하여 전진을 방해하는 불리한 점도 있지만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분발시킴으로써 민족적자부심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이 잘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어려운 고비는 다 넘겼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가 견지하여온 로선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이였습니다.

우리는 중공업을 건설하는데서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

을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더 잘 복무할수 있는 중공업을 건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례를 들어 비료공장을 많이 건설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하게 하고 기계공장을 많이 건설하여 경공업과 농업에 복무하게 하였으며 화학섬유공장같은것을 건설하여 경공업에 많은 원료를 대주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업은 지난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천리마의 속도에 더욱 힘찬 속도를 가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려고 합니다. 올해초에 우리 당 중앙위원회에서는 10대경제건설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강철은 1,200만톤을 생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2,000립방메터용광로를 건설하면 한개 로에서 선철 150만톤을 생산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6개년계획기간에 강철생산에서 400만톤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150만톤의 선철을 생산할수 있는 용광로를 매해 한기씩 건설하면 앞으로 몇해안에 강철 1,200만톤고지를 점령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용광로를 해마다 한기씩 건설할수 있습니다.

강철과 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업에서 전력은 선행관이며 강철은 전력다음으로 중요한것입니다 강철이 있어야 기계도 만들수 있고 배도 만들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위력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기계공업은 중공업의 심장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부 발전된 나라들은 후진국가들에서 기계공업이 발전하는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때 어떤 나라 사람들은 우리보고 당신네같은 자그마한 나라에서 뜨락또르공장을 건설하여 무엇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뜨락또르를 자체로 만들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하는데 어떻게 많은 뜨락또르를 다 사오겠습니까. 우리가 자체로 뜨락또르공장을 건설하였기때문에 이제는 뜨락또르를 농촌에 많이 공급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농업을 더욱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기초를 닦아놓았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경지면적이 많지 못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지면적은 약 200만정보인데 그 가운데서 과수원같은것을 내놓으면 170만정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면적을 가지고도 집약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잘 지으면 알곡을 한 1,000만톤 생산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에 많은 힘을 넣고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료와 농기계만 많으면 알곡생산을 더 높일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리화가 이미 완성되였습니다.

수리화를 하는것은 농촌기술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수리화를 하는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물짜기를 막고 물을 채운것도 있고 물을 높은데 끌어올려다 저장한것도 있으며 굴을 뚫고 큰 강의 물을 끌어서 호수를 만든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후 한 20년동안에 수십만정보의 경지면적에 물을 댈수 있는 관개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인민들이 다 동원되면 수리화를 빨리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저수지를 건설할 때에는 기계도 없고 자동차도 얼마 없기때문에 사람들이 등짐으로 흙을 져날라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기계도 있고 큰 자동차도 많기때문에 저수지를 건설하는 일을 더 쉽게, 더 빨리할수 있습니다.

농사라는것은 물이 있고 비료가 있고 기계가 있고 전기가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농촌기술혁명에서 주체적인 네가지 구호를 들고있습니다. 그것은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입니다. 이 네가지 구호는 이미 거의 실현되였습니다. 아직 기계화를 위한 과업이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오래동안 고심한 끝에 모내는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가 좋습니다. 우리는 모내는기계를 만들려고 한 20년동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모내는기계들을 사다 써보았지만 그것은 다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모내는기계를 자체로 연구하여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한 50%의 논에 기계로 모를 내게 됩니다. 다음해에는 모든 논에 다 기계로 모를 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자력갱생하여 제발로 걸어나가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습니다. 지금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강재와 세멘트를 요구합니다. 그들이 다 민족적이며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하려고 하니 강재와 세멘트가 필요한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들과의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강재와 세멘트 같은것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합니다.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흔히 경제관계를 맺는것으로부터 시작되며 경제관계를 통하여 더욱 공고화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서 야금공장을 어느때부터 수출하겠는가고 물었는데 우리는 아직 야금공장같은것은 일식으로 수출할수 없습니다. 야금공장 일식을 수출하려면 그것이 다른 나라의것보다 더 현대화된것이여야 하겠는데 아직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 공장들은 일식으로 수출할수 있습니다. 례를 들면 비날론공장같은것은 우리 나라가 특허를 가지고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우리의 기술로 건설한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수출해줄것을 여러 나라들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있는 5만톤 생산능력의 비날론공장외에 남포지구에 새로 5만톤 생산능력을 가진 비날론공장을 하나 더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비날론공장건설을 한번 더해보는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날론공장 일식을 자신있게 다른 나라에 줄수 있습니다.

뻬루에서도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뻬루에서 미국회사들이 가지고있던 광산들을 국유화한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뻬루정부가 취한 국유화조치에 의하여 미국놈들이 틀어쥐고있던 회사들이 전민소유로 되였습니다. 이것은 뻬루에 사회주의적경제형태가 새로 생겨났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국유화된 경제를 잘 운영하면 나라의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네 나라에 대하여 몇해전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여왔습니다. 지금 뻬루인민들이 매우 용감하게 잘 투쟁하고있으며 크게 떠들지 않으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다고 봅니다.

뻬루에서 사회주의혁명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비

못한 여러가지 개혁들을 실시한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개혁을 점차적방법으로 기초를 닦으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을 굉장하게 붙이고 떠들다가 얼마 못가서 주저앉는것보다는 일을 천천히 하면서도 실속있게 해나가는것이 더 좋습니다.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것이 중요하지 간판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해방후 토지개혁을 한 다음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친일파들이 가지고있던 재산을 국유화할 때 사회주의라는 말은 한마디도 쓰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간판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하기때문이였습니다.

당신들이 뻬루청년들속에 사대주의사상이 적지 않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하는데서 사대주의를 철저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사대주의를 반대한다는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조선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내놓고 말하였습니다.

해방직후에 있은 일을 한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에 개선하였을 때 나라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해방후 북조선에 대학은 하나도 없었고 매 도에 중학교가 몇개씩 있었는데 그 중학교 학생들이 적지 않게 말썽을 부렸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극좌적으로 나오는가 하면 일부 학생들은 우경적으로 나왔습니다. 해방된지 불과 몇달되지 않은 어느날 우리는 한 운동장에 모인 청년군중들앞에서 조선이 지금 어느 길로 나가고있는가라는 청년들의 질문에 대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청년들에게 우리가 나가는 길은 미국식 《민주주의》도 아니고 쏘련식사회주의도 아닌 새형의 민주주의이며 이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민주주의범주에 속하는 민주주의인것이 아니라 조선인민의 리익을 위한 조선식민주주의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설을 극좌파, 극우파 학생들이 다 조용히 듣고있었습니다. 그때 군중속에서 누군가가 불쑥 《장군님도 공산주의자입니까?》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자신이 공산주의자라는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가장 훌륭한 애국자이며 참다운 애국주의사상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만일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다운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어떤 다른 나라를 쳐다보는 공산주의자인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고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을 위하여 싸우는 공산주의자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전체 군중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 한가지 사실에서도 우리는 인민들은 다 자주의 길로 나가려 하며 남에게 예속되는 길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뻬루정부가 뻬루인민들의 리익에 완전히 맞는 진보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는데 대하여 감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뻬루대통령각하가 실시하고있는 모든 정책들이 매우 정당하며 뻬루인민의 지지를 받을수 있는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이며 혁명적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뻬루에서는 모든 일을 뻬루식으로 하여야지 다른 나라식으로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뻬루인민이 지금 뻬루식혁명을 하고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뻬루인민이 뻬루식혁명의 길을 택한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맑스의 책도 많이 보았고 레닌의 책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혁명에 통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실정이 다른것만큼 맑스-레닌주의도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지난날에는 우리 나라 사람들가운데도 다른 나라를 숭배하는 사대주의가 많았습니다. 문화예술부문일군들만 놓고보더라도 그들은 지난날 서양음악만 좋다고 하였으며 그림을 그려도 다른 나라식으로만 그렸습니다. 우리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인민군대의 어느 병원에 갔던 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흰눈이 덮인 씨비리수림속으로 곰이 기여가는것을 그린 그림이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갔던 인민군총정치국일군에게 우리 나라에는 금강산, 묘향산을 비롯하여 유명한 산들이 많은데 왜 조선의 아름다운 강산을 그린 그림을 붙이지 않고 저런 그림을 붙였는가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전직후에 당선전선동일군들을 모여놓고 사대주의적경향에 대하여 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다음부터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를 뿌리빼기 위한 운동이 널리 벌어졌습니다. 결과 우리 사람들속에서 사대주의사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람들가운데 사대주의사상을 가진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특히 새로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는 사대주의사상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교양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당신들은 사상사업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인것만큼 뻬루청년들에게 이런 교양을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교양을 똑똑히 주어 사대주의사상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체사상을 뻬루에서 널리 선전하겠다고 하는데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도 뻬루의 실정에 맞게 뻬루식으로 하여야 할것입니다.

☆ ☆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류례없는 대풍이 이룩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붉은 기치높이 비약과 혁신의 한길로 달려온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지난해 농업생산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데 뒤이어 올해에 우리 나라 농업생산력사에서 처음 보는 대풍작을 이룩하였다.

서해안의 곡창 열두삼천리벌, 재령나무리벌을 비롯한 벌방지대는 물론 중간지대, 산간지대 그 어디에나 만풍년이 들어 지금 모든 농촌, 전국이 흥성거리고 전체 인민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으며 혁명의 북소리는 더욱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올해 농업생산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는 전적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고 그토록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농촌테제의 위대한 생활력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한해 농사의 풍만한 결실을 자랑스럽게 총화짓는 우리의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은 올해 농업생산력사에 전례없는 기적적인 성과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해마다 이 땅우에 만풍년을 이룩할수 있도록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높이 칭송하면서 수령님의 한없이 넓고 깊은 사랑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할 굳은 결의에 차넘치고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는 농촌테제발표 10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농촌테제발표 10돐을 계기로 농업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농민들이 높은 열성을 내여 일하고 온 나라가 힘있게 농촌을 지원한 결과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12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촌테제발표 1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일떠서 농업전선에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농업생산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우리는 올해에 700만톤이 넘는 알곡을 생산함으로써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점령하는 자랑찬 승리를 달성하였다.

공업과는 달리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생물체를 자래우는 농업생산에서 그것도 자연기후적조건이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2년 앞당겨점령한것은 놀라운 혁신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웅대한 6개년계획수행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이다.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고지의 하나인 알곡고지를 선참으로 점령한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특별히 자랑찬 승리로 된다.

올해 많은 군들에서는 한개 군이 지난 기간 중간지대 한개 도가 생산하던것만한 알곡을 생산하였으며 많은 협동농장들에서는 한개 농장

이 지난 기간 중요한 알곡지대 한개 군이 생산하던것만한 알곡을 생산하였다.

올해 우리 나라 알곡생산량은 1963년에 비하여 약 2배, 1946년에 비하여 3.5배로 장성하였으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한 지난해에 비하여 131%로 장성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매해 흉작이 들어 아우성치는 이때 농업생산을 지난 10년간에 200%로 장성시켰으며 1973년부터는 매해 30%이상씩 높이는 혁신을 일으킨 이 자랑찬 성과는 세계농업력사가 아직 모르는 발전속도이며 농촌테제의 나라 조선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새로운 천리마속도이다.

농촌테제가 관철되여 집약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우리 나라에서 정당수확고는 획기적으로 장성하였다.

올해 우리는 논벼에서 전국적으로 평균 5톤 900키로그람, 평안남도에서는 도적으로 정당 평균 6톤 800키로그람이라는 높은 수확을 거두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벼 정당수확고에서 세계최고수준에 오르게 되였다.

올해 군적으로 벼정당 8톤을 넘어 거의 9톤까지 낸 군들이 적지 않으며 농장적으로 정당 평균 10톤이상을 낸 협동농장들이 또한 많다.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에서는 농장적으로 벼정당 10톤 513키로그람내였으며 많은 협동농장들에서는 개별적포전들에서 정당 15톤으로부터 최고 20톤까지 내였으며 지어 최고 정당 23톤 800키로그람까지 내였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벼농사력사에 없는 기록적인 다수확이며 농촌테제가 밝혀준 휘황한 길을 따라 전진하는 《천리마조선》에서 일어난 또하나의 위대한 기적이다.

올해 농업생산에서 달성한 가장 큰 성과의 하나는 또한 우리 나라 밭농사의 기본작물인 강냉이농사에서 새로운 전변을 이룩한것이다.

올해 우리 나라 강냉이 총수확고는 대풍작을 거둔 지난해에 비하여 1.7배로 장성하였으며 특히 정당수확고에서 획기적인 장성이 이룩되였다.

우리는 올해 강냉이농사에서 전국적으로 평균 정당 5톤을 내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강냉이 정당수확고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들의 수준에 올라섰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많은 협동농장들에서 강냉이 정당 10톤을 내였으며 평안남도 개천군 외서협동농장에서는 개별적포전들에서 정당 최고 19톤, 산간지대인 회창군 더련, 가운 협동농장에서는 최고 21톤, 평양시 사동구역 덕동협동농장에서는 최고 22톤까지 내였다. 의주군 서호협동농장에서는 최고 정당 25톤까지 내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올해의 성과를 통하여 우리 농민들은 강냉이농사에서 계속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는 우리 나라 밭농사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으며 끊임없는 상승의 길을 걷게 되였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올해 알곡생산에서뿐아니라 남새, 과수, 축산, 누에고치 생산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남새도 올해에 이때까지 있어보지 못한 대풍이 들었다.

올해 남새생산은 10년전에 비하여 거의 2배로 늘어났으며 지난해보다도 1.2배로 장성하였다.

평양시 오류, 리현, 장천, 금천 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많은 협동농장들에서 가을배추를 정당 500~700톤씩 생산하는 기적적인 혁신을 일으켰으며 백무고원, 부전고원과 같은 고산지대 협동농장들에서도 140톤, 150톤의 가을배추를 생산하였다.

올해는 과일도 1963년보다 3배나 생산하였다.

알곡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축산업도 급속히 발전하였다. 올해에 우리는 1963

년에 비하여 2.5배나 되는 고기를 생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금업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였다. 올해 닭고기와 오리고기 생산은 1963년에 비하여 4.3배로 늘어났으며 닭알생산은 7.4배로 장성하였다.

언제나 인민들의 식생활을 풍족하게 하시려고 끝없이 심려하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뜨거운 배려와 쉬임없는 지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가금업은 발전된 현대적인 가금업으로 전변되였다.

누에고치생산도 같은 기간에 2.4배로 늘어났다.

참으로 올해 우리는 알곡과 함께 과일, 남새, 고기, 누에고치 등 농업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옛날부터 쌀뒤주가 가득차고 쌀독이 넘쳐나야 부자라고 하였는데 우리 나라의 가는곳마다에 쌀뒤주가 차고넘치게 되였으니 우리 나라는 부자가 되였으며 인민들은 더 잘살게 되였습니다.》
(우와 같은 책, 12~13페지)

올해 농업생산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그리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견인력과 영향력을 높이 발양하는데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빛나는 성과이다.

이 성과는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빛나는 승리로서 우리 나라에 축성된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과 그 불패의 생활력의 힘있는 시위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의 뚜렷한 발현이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올해 농업생산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는 농업생산물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켜 전반적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며 인민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하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오늘 남조선을 비롯한 세계도처에서는 큰물과 가물, 랭해로 인한 대흉작으로 《식량위기는 제2차세계대전이래 가장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있다》고 아우성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에서 이룩된 기적적인 성과는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에게 들씌우는 무서운 폭탄으로 된다. 또한 이 성과는 남조선 농민들과 인민들을 미일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며 그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 용기를 안겨주는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세계를 휩쓰는 흉년에도 끄떡함이 없이 튼튼한 알곡생산토대에 의거하여 매해 만풍년을 이룩하는 이 자랑찬 성과는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의 멍에에서 벗어나 새 사회 건설에 일떠선 제3세계인민들과 투쟁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을 끝없이 고무하고있으며 그들을 자주, 자립의 길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올해 우리가 거둔 빛나는 성과는 또한 부르죠아반동리론과 온갖 낡은 개념을 뒤집어엎고 농업발전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그를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풍부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가 거둔 성과는 부르죠아어용나팔수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 자본주의적토지소유제도의 반동성을 은페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온갖 《리론》들에 대한 타격으로 된다.

우리의 현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를 실현하려는 지도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충성의 열도가 높을 때 생산장성의 예비가 많아지며 당이 제시한 그 어떤 높은 농업생산목표도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실로 올해 농업생산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과시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빛나는 성과이다.

*　　*

올해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이룩된 대풍작,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의 위대한 승리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유일하게 옳은 독창적인 길을 밝히시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농촌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수 있는 정치사상적 및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5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원대한 구상에 기초하시여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우리 나라 실정에 꼭맞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유일하게 옳은 로선과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하여 모든 정력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가장 옳은 사상리론적해명을 주시고 그 관철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농업생산에서 세세년년 대풍을 이룩하며 공산주의의 두 요새,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다 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전기화가 완성되였으며 농촌경리를 기계화하고 화학화할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였다. 또한 농촌기술혁명의 초병인 뜨락또르운전수대렬도 수만명으로 준비되였다.

이리하여 지난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었고 공업이라는 말조차 모르던 우리 인민이 이제 와서는 농업을 전면적으로 공업화, 현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농민들은 점차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면서도 농업생산을 더욱더 늘일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지난 기간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또한 사상혁명, 문화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그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여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다그치는 한편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은 훨씬 높아졌으며 그들속에서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이 더욱 확립되였다.

특히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능력있는 간부들을 많이 키워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심으로써 이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시였다. 이 위대한 성과는 실천에서 그 생활력이 힘있게 발휘되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 농촌과 농업과학연구기관들에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혁명적인테리들이 많이 들어가 일하고있다. 그들은 농민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교양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으며

농촌테제가 내세운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핵심적역할을 놀고있다. 혁명적청년인테리들과 농촌청년일군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농업기술도 빨리 발전하고 농사도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 길에서 쌓아올린 정치사상적 및 물질기술적 토대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튼튼한 기초이며 올해 농업생산에서 대풍작을 마련할수 있게 한 확고한 담보였다. 수령님의 령도밑에 지난 기간 농촌테제를 관철하는 행정에서 쌓은 밑천이 은을 내고 꽃을 피웠다.

농업생산에서의 빛나는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서 올해 만풍년을 안아오시기 위하여 기울이신 정력적인 지도의 고귀한 결실이며 농민들에 대한 어버이사랑이 낳은 빛나는 열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당중앙에서는 올해 농사에서 대풍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지도를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올해 신년연에 농민대표들을 부르시여 자리를 같이 하시고 금년농사를 본때있게 지어보자고 하시면서 축배를 들어주시였으며 뒤이어 올해의 첫대회로서 전국농업대회를 마련하시고 농업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전투적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사를 추켜세워야 사회주의대건설도 다그치고 인민생활문제도 더욱 유족하게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온 나라의 벌방지대와 중간지대, 산간지대 농촌을 찾으시여 이른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휴식도 미루시고 끼니도 넘기시면서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올해 농사일을 의논해주시며 지도해주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대풍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주신 교시는 200여차례이며 걸고걸으신 현지지도의 빛나는 로정은 수천수만리를 헤아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농사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리는 주체적인 과학농법을 실시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고 그 실현에로 농민들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올해 대풍은 위대한 수령님의 과학적인 령도, 주체농법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농사를 기계의 힘으로, 화학적방법으로 짓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촌들에 뜨락또르와 자동차, 각종 련결농기계, 모내는기계 등 여러가지 농기계를 많이 보내주심으로써 농사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능률적으로 해제낄수 있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농약들을 많이 보내주심으로써 약으로 김을 매고 병충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면서 곡식을 튼튼히 자래우고 충실히 여물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온 나라가 떨쳐나서 농촌을 지원하도록 하시였으며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민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로부터 정치생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보살피시는 뜨거운 육친의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올해 농사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는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라면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 수령님에 대한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충성심이 높이 발양됨으로써 이룩되였다.

당중앙의 지도밑에 우리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잘짓는것이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하는 길이며 사회주의농업근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것임을 깊이 자각하고 수령님의 심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는 충성의 열정으로 가슴불태우면서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왔다. 수령님의 가르치신대로만 하면 대풍이

든다는것을 깊이 체험한 농민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왔다.

지도일군들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강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전진을 방해하는 소극과 보수, 기술신비주의를 대담하게 마사버리고 대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사업을 혁신해나갔다.

올해 농업생산에서의 대풍작은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농촌테제발표 열돐이 되는 뜻깊은 이해를 새로운 위대한 성과로 빛나게 장식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승리의 보고, 충성의 보고를 올리기 위한 농업근로자들의 장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된것이며 로쇠와 침체, 소극과 보수, 기술신비주의를 짓부시고 패기와 정열에 넘쳐 대담하게 혁신하고 전진하기 위한 심각한《사상전》의 불길속에서 마련된것이다.

올해 대풍작은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당조직들과 합심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시킨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올해 농업에서의 위대한 승리는 우리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됨으로써 마련되였다.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우리 당사업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온 사회를 위대한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구호밑에 당사업이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우리 당은 생기발랄한 혁명적인 당으로,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으로 강화발진되였다.

당사업에서 낡은 재래식방법이 극복되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과 작풍이 철저히 서게 되였으며 당사업이 참말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더욱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이 비상히 높아졌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이 전당에 제때에 정확히 관철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났으며 이 불바람속에서 농업생산이 류례없이 발전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주체농법,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무한한 충실성으로 하여 이 나라 방방곡곡은 알곡풍년, 남새풍년, 과일풍년, 고기, 알 풍년으로 흥성거리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농촌은 사회주의지상락원, 《무릉도원》으로 전변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올해 대풍으로 하여 우리 나라 농업생산은 더욱 튼튼한 토대우에 올라서게 되고 우리의 전망은 휘황하다.

우리의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어버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올해 농사일을 하루빨리 말끔히 결속짓고 명년도 영농준비를 잘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올해 농업생산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공고히 하며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고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의 하나인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빠른 시일안에 점령하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닦으며 농업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바로 올해 만풍년을 마련해주시고 우리들에게 크나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길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농업생산에서 또다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아가자.

전당을 유일사상화하는것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선결조건

혁명의 위대한 전략가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는 새로운 비약이 일어나고있으며 당자체의 발전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고있다.

당중앙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전당을 유일사상화할데 대한 위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전당을 유일사상화하는것, 이것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선결조건으로, 기본열쇠로 된다.

전당을 유일사상화하는것은 당앞에 나선 새로운 임무에 맞게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전투력과 령도적 역할을 높임으로써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여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는 전당을 유일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깊이 파악하고 이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백전백승의 불패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한다.

*　　　*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이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전당을 유일사상화하는것은 완전히 합법칙적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가장 영예롭고 숭고한 혁명위업인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영광스러운 사업을 수행하고있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대한 혁명과업이며 우리 당 사업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전략목표이다.

지금 우리 당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우리 당의 이 투쟁은 곧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이다.

조국통일위업도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쳐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사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튼튼히 다져야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우리 당이 진행하고있는 투쟁의 성과여부는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달려있으며 따라서 우리 당은 이 사업을 자기 활동의 총적임무로 튼튼히 틀어쥐고 여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강령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위대한 공산주의강령이다.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출현한 때로부터 오랜 력사가 흘러갔다. 이 기간 수많은 로동계급의 당이 태여나고 투쟁강령을 제기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을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아직 력사는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강령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을 총비서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함으로 하여 이 위대한 강령을 받아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이러

하여 우리 당은 인류의 앞장에 서서 공산주의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선봉부대로 되였다.

따라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무기인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일 때에만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이 영예롭고도 책임적인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갈수 있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그자체가 정치사업이며 계급투쟁이며 창조적인 사업이라는 특성으로부터 당을 강화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게 된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무엇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여 우리 사회를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 위대한 정치사업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하고 그들의 자각성과 헌신성을 높이 불러일으켜야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사업도 성과있게 추진시킬수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을 본신임무로 하는 정치적령도기관인 당을 패기있고 생기발랄한 전투적조직으로 강화할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또한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사업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나가는 우리 사업은 지금 세계반동의 원흉들인 미일반동들과 그 앞잡이인 박정희괴뢰도당의 음으로 양으로 되는 악랄한 침략책동을 물리치는 투쟁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머리속에 깊이 뿌리박혀있는 낡은 사상을 가시기 위한 사상투쟁속에서 진행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당을 강화하여 계급투쟁의 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여야만 빛나게 추진되여나갈수 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은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전혀 생소한 사업이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더욱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의 길이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전위부대인 당의 향도적역할과 창조적활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높여나가야만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따라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험난한 길을 성과적으로 헤쳐나갈수 있다.

참으로 당앞에 나선 새로운 임무에 맞게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이는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당중앙은 발전하는 현실의 이러한 요구로부터 무엇보다먼저 혁명의 참모부이며 기관차인 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전당을 유일사상화하는것이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선결조건으로 되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본질과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나온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은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의 앞장에 서서 모든 근로계급을 령도하며 이끌고 나아가는 자기의 선봉적인 부대를 절실히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속에서 혁명성이 강하고 투쟁경험이 풍부하며 리론수준이 높은 우수한 사람들이 계급투쟁을 령도하며 그 투쟁을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조직한 전투부대가 곧 당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91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하자면 반드시 자기의 리익을 옹호하며 로동계급의 앞장에 서서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계급의 전위대인 당을 가지여야 한다. 그래야만 간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오직 수령에 의해서만 창건될수 있으며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강화발전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란 본질에 있어서 그 당을 창건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그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고 창건하신 영광스러운 당이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는 우리 혁명의 전위대이다.

수령님께서는 당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며 당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그것에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간다.

당이 내세우는 어느 한 방침도, 어느 한 결정도 그것은 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엄격히 기초하고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전당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계승하며 그것을 영원히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싸워나갈 때 자기의 력사적사명인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종국적으로 이룩할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의 심장이며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추진력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드팀없이 실현해나가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모든 조직들과 기구들이 정연하게 마련되여있으며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 그것들이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를 담당수행하고있다. 여기에서 당은 핵심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당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모든 조직들과 기구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마치 유기체에서 심장을 떠나 혈관을 생각할수 없듯이 수령님의 령도를 받는 당을 떠나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와 그 기구들을 생각할수 없다.

사회에서 심장인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넣어주어 그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추진력으로 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심장이 쉬임없이 혈관을 통하여 유기체내에 피를 뿜어주듯이 당은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수령의 혁명사상을 끊임없이 뿜어주며 사회의 신진대사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 당은 바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넣어주며 과학적인 지식과 혁명적사업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리하여 온갖 낡고 부패한 현상들을 가셔내고 온 사회에 수령님의 혁명사상만이 차넘치게 한다. 당은 매 시기, 매 단계에서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이 나아갈 투쟁방향을 밝혀주고 정권기관을 비롯하여 로동계급의 모든 조직들에 투쟁목표와 방도를 제시해줌으로써 그들이 모두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향도한다. 그리고 또한 당원들과 당조직들을 통하여, 정권기관과 근로단체 등 당의 지도밑에 있는 모든 조직들을 발동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을 진행한다.

이처럼 우리 당은 사회의 심장으로서 인간과 자연과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거대한 혁명적추진력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전당을 철저히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 때 우리 당을 통하여 맑은 주체형의 피,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온 사회에 더욱 힘있게 뿜어줄수 있고 사회와 사람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요구에 맞게 더 잘, 더 빨리 개조해나갈수 있다.

참으로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앞당기는 문제는 혁명의 무기, 창조의 무기인 당을 어떻게 강화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는것이다.

※ ※

으로 전당을 일색화하는것은 당의 조직, 사상, 리론적 기초를 공고발전시켜 로동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역할과 그의 조직된 부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하도록하는 근본문제이다.

당의 조직, 사상, 리론적 기초를 공고발전시키는 과정은 곧 전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과정이다.

전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모든 당원들을 수령님의 주체사상대로만 살며 싸워나가는 참된 혁명전사로 만들며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주체의 사상과 리론,방법대로 진행한다는것을 말한다. 오늘 우리 당은 이 구호를 전면에 제기하고있다.

전당을 유일사상화하는것이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일수 있게 하는 근본문제로 되는것은 그것이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전당을 유일사상화하는것은 무엇보다 모든 당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움으로써 당을 강력한 전투적조직으로 만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적조직입니다. 당이 힘있고 생기있는 전투적조직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당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건전해야 하며 당원들이 다 당의 조직원칙에 따라 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15폐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은 당원들이 뭉친 정치적조직이다. 그러므로 당이 불패의 전투적조직으로 되려면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당원들이 건전하고 견실하여야 하며 자기의 선봉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한다.

원래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계급의 선봉대이며 여기에는 오직 로동계급의 선각자들, 근로인민의 가장 우수한 핵심분자들만이 들어갈수 있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모든 당원들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만들데 대한 당건설의 이러한 원칙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야만 빛나게 실현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를 전면적으로 담고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당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유일한 혁명적량식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란 공산주의운동력사가 알고있는 모든 공산주의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고귀한 풍모와 높은 자질을 가진 공산주의자이다. 다시 말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의 최고단계를 이루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하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인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고있는 공산주의자이다. 당원들은 오직 온몸에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차넘칠 때 참다운 혁명가의 모든 풍모와 자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완전하게 체현한 최고형의 공산주의자로 된다.

전당을 유일사상화하는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당원들의 정신사상적수준을 이러한 높이에 끌어올리기 위한것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이 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될 때 우리 당은 불패의 위력을 가진 강철의 당으로, 언제나 청춘의 기백이 약동하고 활기에 넘치며 로숙하고 세련된 백전백승의 당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질것이며 혁명과 건설을 더한층 기운차게 떠밀고나가는 위력한 무기로 될것이다.

전당을 유일사상화하는것은 또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통일과 단결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요인이다.

당이 로동계급의 선봉대, 조직된 부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반드시 계급의 선진분자들로 조직될뿐

아니라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정연한 조직체계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적규률을 확립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당안에 수령의 혁명사상과 대치되는 사상조류나 분파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사상의지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이다.

만일 당안에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딴사상이 조금이라도 허용되거나 행동상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다. 유일한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지 못한 당에는 언제나 분파가 생기는 법이며 따라서 이러한 당은 대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울수도 없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통일적인 령도를 보장할수 없을뿐아니라 자기의 존재자체도 제대로 유지할수 없다.

당을 유일사상화하여야만 전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통일단결될수 있으며 전체당원들이 수령의 혁명사상대로만 사고하고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과 정연한 조직체계를 확립할수 있다. 그리고 수령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대렬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고수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당을 유일사상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지침으로 삼아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을 령도하며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로 이끄는 선봉대이며 혁명의 참모부이다.

우리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혁명적 전위부대로서의 우리 당의 역할은 오직 전당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받을 때에라야만 원만히 수행될수 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 혁명투쟁의 모든 원칙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당을 유일사상화하여야 모든 당조직들이 수령님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관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옳게 찾고 전체 인민을 그 실현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전당을 유일사상화하는것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울수 있게 한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실현하는 투쟁은 그자체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전면적으로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한것이다. 우리 당에 있어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실현하는 사업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실현하는 사업이며 수령님의 의도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사업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당에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철저히 실현할 때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무조건적인 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철두철미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억세게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전당을 일색화하는 사업은 우리 당의 창건과 함께 시작된 전당의 유일사상화를 전면적으로 완성하는것이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백전백승의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만들기 위한것이다.

*　　　　*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당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의 성과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업을 잠시도 늦출수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전당의 유일사상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만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전당을 유일사상화하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더한층 심화시켜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확고히 보장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10페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전당을 유일사상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방도이다.

당이 가르친바와 같이 전당을 유일사상화하는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주체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우리 당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조직들은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문제를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해결하며 당의 의도와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원들이 당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은 당의 공고화와 전투력을 직접 좌우하며 따라서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그것을 옳게 지도하는것은 당건설의 기초로 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전당을 유일사상화하는데서 당생활을 통한 혁명적단련이 가지는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새로운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당조직생활에 참가하며 당이 제시한 새로운 당생활총화체계에 적극 의거하여 자신을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정형을 일상적으로 깊이 료해장악하고 그들의 당생활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책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우리 당을 유일사상화하는데서 기발을 들고나가야 할 사람은 다름아닌 당일군들이며 이 영예롭고 책임적인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는것은 우리 당일군들의 마땅한 의무이며 혁명적본분이다.

수령님의 두터운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중요한 혁명초소를 맡고있는 우리의 당일군들은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그이의 교시에 대한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살고 싸우며 당중앙의 의도와 방침을 접수하고 관철하는데서 선구자, 정수분자로 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을 유일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방도를 찾고 조직정치사업을 정력적으로 패기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전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이 제시됨으로써 오늘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우리의 투쟁의 앞길에는 더욱 광활한 전망이 펼쳐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주체사상을 떠나서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듯이 전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우리 혁명위업의 휘황한 앞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바로 여기에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나가는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이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전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일대 진공전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과학적공산주의의 불멸의 기치

주 학 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달려온 우리 인민은 오늘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기 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날에날마다 위대한 비약과 기적을 창조하면서 세기를 주름잡아 질풍같이 나가고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중앙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며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가져온 빛나는 열매이다.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신다.

참으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며 그들이 편향없이 공산주의의 휘황한 길로 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공산주의 사회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주체시대의 위대한 혁명적기치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현시대뿐아니라 공산주의미래를 대표하는 과학적공산주의혁명리론이다.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사회의 본질과 기본징표, 이 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와 사회관계, 활동방식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고 그것을 전일적인 체계로 집대성하심으로써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시였다.

과학적공산주의의 혁명리론을 완성하는것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절박한 문제였다.

선행한 력사적시대와는 다른 주체의 시대는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 참다운 지도사상, 지도리론을 요구하였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류력사발전, 로동계급의 혁명운동발전에서 새롭게 도래한 력사적시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시여 불멸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리론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과학적공산주의혁명리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한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리론이다.

종래까지 공산주의사회에 대해서는 그 경제적, 물질적 기초를 해명하고 사회발전과 사회생활에서 생산수단과 물질생활이 가지는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공산주의사회를 주로 경제적측면에서 고찰하는데 주의를 돌렸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과학적공산주의 혁명리론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 근로대중을 중심에 놓고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있다. 따라서 이 리론은 주체사상을 초석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수령님께서 밝히신 과학적공산주의혁명리론의 초석이며 출발점이며 그 전반을 관통하고있는 근본사상이다. 이것으로 하여 과학적공산주의혁명리론의 내적정연성이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참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수령님의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의 위대성과 창조성의 원천이며 이 리론을 가장 높고 빛나는 과학적공산주의의 불멸의 기치로 되게 한 결정적담보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근본초석으로 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과학적공산주의혁명리론이 선행공산주의리론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성이 있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은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우선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징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독창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리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먹고 잘입고 오래 살수 있는 사회, 한사람도 뒤떨어진 사람, 열성이 적은 사람이 없고 모두가 진보적이며 다같이 몸바쳐일하는 사회, 한개의 큰 가정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화목하게 사는 단합된 사회를 건설하는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가 곧 공산주의사회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06페지)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사회는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며 근로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데 모든것이 전적으로 복무하는 사회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천명하시였다.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모든 혁명투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기 위한것이다.

공산주의사회는 근로대중이 물질적으로나 사상정신적으로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는 고도로 발전된 사회이다.

근로대중이 물질생활에서 그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자면 물질적조건, 물질기술적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여야 한다.

공산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을수 있도록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한다. 이것은 근로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는 물질적기초로 된다.

물론 사람들은 물질생활에서 그 어떤 구속도 받지 말아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물건이 폭포처럼 쏟아지나오게 되면 곧 공산주의사회가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사회는 말그대로 물건이 많이 생산되여 노나먹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다.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사람들의 요구와 지향은 다만 풍요한 물질생활만으로는 충족시킬수 없는것이다. 사람들이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자면 온갖 낡은 사상과 도덕, 문화 생활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여야 한다.

공산주의사회, 이것은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된 사회일뿐아니라 모든 사회성원들이 철저히 혁명화되여 오직 하나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 문화만이 지배하는 고도로 의식화되고 문명화된 사회이다.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과 함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화된 사회만이 완성된 공산주의사회라고 말할수 있다. 온 사회가 철저히 혁명화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물건이 많이 생산되여도 공산주의적분배를 원만히 실현할수 없으며 생산력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없을뿐아니라 공산주의사회를 제대로 유지해나갈수도 없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고 온 사회가 철저히 혁명화되여 한사람도 뒤떨어진 사람, 인성이 적은 사람이 없고 모두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몸바쳐 일하는 바로 여기에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이 있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은 현단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뿐아니라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를 담고 있다.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높은 기술과 문화, 고상한 도덕품성을 소유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미래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풍모는 공산주의사상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과 강한 혁명적조직성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적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표징이다.

사람들이 높은 사상성과 강한 혁명적조직성을 가지는것은 고도로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공산주의사회의 필수적요구이다.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높은 사상성과 강한 혁명적조직성을 가져야 공산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살며 행동할수 있으며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은 높은 사상성, 강한 혁명적조직성뿐아니라 높은 기술문화와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소유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높은 사상의식과 함께 높은 기술, 문화 수준과 고상한 도덕적풍모를 소유하여야만 그들이 고도로 자동화된 생산을 훌륭히 관리할수 있으며 개화만발하는 공산주의문화를 마음껏 향유하고 더욱 꽃피워나갈수 있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은 공산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을 밝혀주고있다.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적사회관계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이 무엇이며 사회생활령역에서 세워야 할 공산주의적생활규범과 행동준칙이 어떻게 되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공동의 리익과 공동의 목적을 가지며 긴밀하게 서로 도와주는 동지적관계를 맺게 됩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고락을 같이하면서 화목하고 단합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게 됩니다.》(우와 같은 책, 44~45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집단주의가 공산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의 근본원칙으로 된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룬다. 공산주의사회에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차이가 없어지고 사상과 도덕, 과학기술과 교육, 문화가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리하여 공산주의사회에서는 꼭 같은 사회경제적토대우에서 같은 목적과 지향, 공통된 리익과 사상밑에 완전한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단일한 공산주의적생산관계가 확립되

고 온 사회에 오직 하나의 사상, 공산주의사상만이 지배하게 되는 공산주의사회에서는 개인주의, 리기주의와 같은 낡은 사회의 온갖 유물들이 말끔히 가셔지고 사람들사이에 호상 존중하고 신뢰하며 서로 돕고 긴밀히 협조하는 참다운 동지적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집단주의원칙은 공산주의사회의 모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의 기초로 된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공산주의사회가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되여 물질적으로 풍요할뿐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화되여 온 사회에 오직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 문화만이 지배하는 사회, 물질생활에서나 사상정신생활에서 그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며 근로대중이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행복하게 살며 일하는 사회라는것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심으로써 공산주의사회의 면모를 새롭게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우리가 나가는 공산주의사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완전히 구현된 사회, 다시말하여 온 사회가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일색화된 사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한다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을 전진시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나가는 과정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혁명과 인민을 위하여 무한히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라야만 완성된 공산주의사회라고 말할수 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사회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인류는 공산주의사회를 예측이나 가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기초우에서 더욱 생동하게 파악할수 있게 되였으며 마치도 창문을 열면 푸른산이 보이고 강물과 큰 길, 작은 길이 보이듯이 공산주의사회의 전모를 환히 그려볼수 있게 되였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공산주의에로 가는 혁명적로정과 근본방도를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공산주의에로 가는 혁명적로정과 근본방도에 대한 사상은 수령님의 과학적 공산주의혁명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인류가 어떤 단계와 로정을 거쳐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넘어가는가를 해명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계선을 옳게 그어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넘어가는 전반적 로정과 그 리정표를 명확히 세울수 있으며 혁명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특히 많은 나라들에서 이미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이 일정에 오른 오늘 과도기 계선문제를 명확히 밝히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전반적인 로선과 정책을 바로세우고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초미의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의 계급관계와 발전법칙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신데 기초하시여 과도기의 계선을 사회주의의 완전승리까지로 보아야 한다는것을 새롭게 천명하시였으며 과도기가 끝난 다음에도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올라서자면 혁명과 건설을 계속 전진시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과도기의 계선이 명백히 그어짐으로써 로동계급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공산주의에로 가는 단계와 뚜렷한 리정표를 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에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 즉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 점령에 관한 전략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두개 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물질기술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인데 그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하며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을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생산력을 달성하는것입니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철저히 개조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요새도 점령할수 없으며 따라서 공산주의사회를 완전히 건설할수 없습니다.》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264페지)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여야 한다. 두 요새를 다같이 점령하여야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 점령에 관한 사상은 공산주의건설의 근본강령을 명시한 탁월한 전략사상이다. 이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력사적 기간에 토대로부터 상부구조전반을 포괄하는 모든 분야, 전반적령역에 걸쳐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철저히 혁명화, 공산주의화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성과적으로 이룩할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사상이다.

두 요새 점령에 관한 사상은 기성의 공산주의건설리론의 단순한 보충이나 그 어떤 개별적문제들을 해명한 사상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을 포괄하는 총체적내용을 과학적으로 밝혀준 독창적인 사상이며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오게 한 천재적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 요새 점령에 관한 탁월한 사상을 제시하시면서 두 요새 점령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회주의하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부단히 강화하면서 혁명을 계속할데 대한 문제, 농민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앨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적 자립경제건설과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 관한 문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며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앨데 대한 문제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은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문제들로서 그것은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두 요새 점령에 관한 사상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총체적인 로정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력사적행정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투쟁목표와 혁명적전략이 과학리론적으로 명확하게 되였다.

두 요새 점령에 대한 사상과 리론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면 다만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경제적조건을 개조할뿐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전면적으로 개조하여야 하며 사

람을 개조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하나의 중요한 투쟁전선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 새롭게 해명되였다.

두 요새 점령에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에 의하여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 사업이 단순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물질적부를 생산하는 기술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근로대중을 생산활동과 물질생활에서의 온갖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것은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는것이 독창적으로 해명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 나서는 혁명과업들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57~358페지)

수령님께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고 공산주의에로 넘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심적인 혁명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혁명에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3대혁명을 통일적과정속에서 전격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온 사회를 혁명화, 공산주의화하며 사람들을 온갖 구속에서 해방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근로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탁월한 사상이다.

참으로 두 요새 점령과 그 수행방도에 대한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의 창시, 이것은 수령님께서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고 더욱 완성하신 불멸의 력사적공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두 요새 점령에 관한 사상에 의하여 세계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뚜렷한 설계도를 가지고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로 가장 빨리 나갈수 있는 참된 길을 찾게 되였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령도방법에 관한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야 한다.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어떻게 령도하여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이다.

령도방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혁명운동의 규모가 전례없이 확대되고 지난날 천대받던 수백만 근로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해나가는 주체시대에 와서 더는 미룰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시여 불멸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혁명적령도방법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인민대중을 어떻게 령도하여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혁명적령도방법에 관한 수령님의 사상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광범한 근로대중을 수령과 당의 두리에 철석같이 단결시키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최대한으로 추진시킨데 대한 문제가 전면적으로 밝혀지고있다. 여기에는 특히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이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립하는 문제이며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는것이 깊이 해명되여있다.

령도방법에 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는 또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의 본질과 그 호상관계, 공산주의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할데 대한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공산주의적령도방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람들을 혁명화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로 광범한 인민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공산주의적령도방법은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우리의 혁명과 건설의 실천행정에서 그 정당성이 리론실천적으로 뚜렷이 확증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방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적령도방법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전일적인 체계로 완성하심으로써 종전의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 주의를 돌리지 못한 문제였던 령도방법문제는 비로소 빛나는 해결을 보게 되였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과학적공산주의 혁명리론을 전일적인 체계로 집대성하신것은 수령님께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에 공헌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되며 인류사상사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오게 한 위대한 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사상,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집대성된 과학적공산주의혁명리론과 수령님께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공헌하신 불멸의 업적은 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과 더불어 후손만대에 영원히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과학적공산주의혁명리론은 우리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승리하고있으며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타개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이 땅우에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독립되고 존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 세계의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희망과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사회주의모범의 나라》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은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된 철석같은 신념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령도밑에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워나가는 혁명전사된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이 영원히 승리하며 우리 조국이 무궁토록 번영하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중앙의 탁월한 령도밑에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 과학적공산주의의 불멸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문학예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

현 종 호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문학예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에서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학예술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관한 문제를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와 혁명적문학예술발전의 객관적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주심으로써 온갖 반동적이며 불건전한 사상을 배격하고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가장 건전한 토대우에서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강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우리 문학예술은 이 탁월한 사상에 의하여 지도된 결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혁명적기치를 튼튼히 고수하고 당과 혁명에 철저히 복무하는 예리한 사상적무기로 되고있으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문학예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 원칙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은 우리 문학예술을 참말로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위력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문학예술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미학적본질과 그 구현방도 등을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며 그 전투적기능과 사상교양자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일수 있는 길을 명확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리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하여서도 안됩니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579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혁명의 리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조금이라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혁명의 리익과 당정책에 맞고 로동계급의 비위와 취미에 맞으며 인민대중의 생활감정에 맞는 높은 사상정치성은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미학적본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 예술에만 치중하는것은 예술지상주의이며 문제는 당을 위한 예술, 로동계급을 위한 예술, 인민을 위한 예술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우리 문학예술이 당과 혁명의 리익을 떠나서는 안되며 로동계급의 리해관계를 옳게 반영하고 근로인민에게 철저히 이바지하는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혁명적본성과 계급적성격이 바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그러므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의 필수적요구이

며 관건적문제이다.

문학예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구현된다. 그것은 문학예술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관되지 않고는 당과 혁명에 충실할수 없으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수 없기때문이다.

당중앙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전면에 나서고있는 오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이것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이라고 가르치였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에 있어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구현하지 않고서는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그것은 참말로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 우리 로동계급과 우리 인민의 리익의 체현자이시며 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바라시는것은 바로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념원이며 수령님의 뜻은 우리 당과 인민의 의지이다. 그러므로 참말로 당과 혁명에 충실하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성심성의 복무하려는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오직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만 가장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체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미학적본질에 대한 해명에 기초하시여 그 구현을 위한 방도를 새롭게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문학예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선두에는 우리 당이 서있습니다. 당의 의도를 잘 모르고서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전진운동을 정확하게 리해할수 없습니다.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덮어놓고 공장이나 농촌으로 내려만 간다고 하여 우리의 현실을 잘 알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복잡한 현실속에서 새것과 낡은 것을 가려낼수 있으며 본질적인것을 정확하게 찾아낼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79폐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구체적인 현실, 인민대중의 사상과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혁명의 전략전술이며 우리의 모든 행동의 지침이다. 그러므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만 작가,예술인들은 우리의 혁명적현실의 본질적내용과 특성을 정확하게 인식할수 있는 과학적 태도와 방법을 체득할수 있으며 새것과 낡은것,진보적인것과 반동적인것을 가려내며 부르조아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봉건유교사상 등 온갖 반동적이며 불건전한 사상의 침습을 철저히 막아낼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또한 작가,예술인들이 다양하고 풍부한 사회현실을 심도있게 리해하고 우리 시대의 전형을 정확히 찾아내여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당성, 로동계급성,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작품을 창작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의 유일적지도에 충실하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

도이다.

당의 유일적지도에 충실하여야만 우리의 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문학예술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일관된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영원히 발전할수 있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중앙이 새롭게 밝힌 독창적인 공산주의적 문예리론을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제기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에 진일적인 체계로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가장 정당한 혁명적문예사상과 리론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인 당중앙의 독창적인 혁명적문예리론이다.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에 관한 사상과 리론, 문예창작에서의 종자론과 《속도전》리론, 혁명적문학예술의 전통을 똑바로 찾고 그를 빛나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당중앙이 새롭게 밝혀준 탁월한 혁명적 문예사상과 리론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당적이며 인민적인 문예작품을 창작하는데서 튼튼히 의거하여야 할 지도적 지침이다.

우리 문학예술을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으로 일관된 혁명적문학예술로 발전시키는데서 특히 중요하게 나서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당적문학예술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똑바로 찾고 그를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이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은 우리 문학예술의 튼튼하고 풍만한 뿌리로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탄생한 고전적본보기이다.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등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는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 원칙을 비롯하여 혁명적문예작품창작의 모든 원리들이 훌륭히 구현되여있다. 그러므로 혁명적문예전통을 똑바로 찾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따라배우며 그것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잘 옮기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을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것으로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당중앙은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항일의 혁명적문예전통을 옳바로 계승발전시켜 여러 문학예술부문에서 가장 당적이며 인민적인 공산주의적 문학예술의 본보기를 창조하는 력사적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혁명적문예전통의 계승과 관련하여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명확히 밝혀줌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을 더욱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우리 문학예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그 직접적담당자인 작가, 예술인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들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모습과 그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깊이 연구하고 심도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술가들이 당이 요구하는 작품,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미술작품을 창작하려면 마땅히 생동한 현실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생동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인민대중의 사상과 감정을 알지 못하는 미술가는 그가 아무리 뛰여난 예술적재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수 없습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396～397페지)

우리의 현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이 실현되는 영웅적현실이며 인민대중의 리상과 념원이 현실화되여가는 혁명적 문학예술창작의 모체이다.

우리의 혁명적현실과 그의 주인인 사람들의 정치사상적풍모는 비할바없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고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의 붉은 기치밑에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정과 기백으로 들끓고있으며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하여 심장을 격동시키는 숭고한 이야기들로 가득차있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이 공장과 농촌에 내려가 로동자, 농민들과 같이 일하면서 그들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직접 체험하며 우리 시대의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낳고있는 주인공들의 생활을 깊이 파고든다면 우리 당정책의 위대한 생활력과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관철하는 우리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할수 있다. 이러한 작품이야말로 당이 요구하는 작품,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으로 될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문학예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하기 위한 방도는 우리의 문예작품을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것으로 되게 하는 튼튼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문학예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철저히 당과 혁명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예리한 무기로, 대중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게 하는 길을 밝혀준 독창적인 사상이다.

혁명적문학예술은 근로대중을 공산주의혁명정신으로 교양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의 사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전사로 만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개조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이다.

문학예술이 자기의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한 참다운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되여야 한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문학예술의 혁명적본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표징이며 혁명적문학예술로 하여금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만 인민대중속에서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그들을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하고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숭고한 위업수행에로 고무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문학예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관한 사상은 또한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발전시키며 그 혁명적가치를 고수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혁명적성격을 특징짓는 근본문제이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혁명의 변절자들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전투적기능을 말살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거세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뿐아니라 공화국북반부에까지 저들의 반동문화를 침투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으며 방송, 출판물, 문학예술작품을 비롯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58페지)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흉악한 침략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는 한편 혁명력량을 안으로부터 와해시켜보려고 사상문화적침투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또한 부르조아어용나팔수들과 수정주의자들은 문학예술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부인하면서 문학예술이 이른바 초계급적이며 전인류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는 궤변을 퍼뜨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의 이러

한 책동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혁명적 진수를 거세하려는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온갖 반동적이며 불건전한 사상의 침습을 막아내고 혁명적문학예술의 순결성을 튼튼히 지키기 위한 근본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학예술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관한 문제를 혁명적문학예술발전의 객관적요구에 맞게 새롭게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혁명적원칙을 지키고 그를 건전한 토대우에서 더욱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하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미학적본질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현시대가 혁명적문학예술앞에 제기하고있는 가장 근본적이며 관건적인 문제에 대한 심오한 리론실천적해답으로 된다.

문학예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관한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은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로 하여금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힘있는 무기로 되게 하며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혁명적기치를 고수할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문학예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관한 사상은 우리의 문학예술을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되게 한 결정적요인이다.

수령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현명한 령도,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당중앙의 정력적인 문예활동에 의하여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혁명적기치 높이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이 땅우에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모범의 예술》, 《어둠을 밝혀주는 혁명적인 예술》의 시대를 펼쳐놓았다.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으로 된다는 당중앙의 가르침에 따라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주체형의 새로운 공산주의적전형들을 창조하는 빛나는 혁신을 이룩하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세계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로부터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에서 《인류문화의 최고봉을 장식하는 혁명적예술의 본보기》, 《인류예술의 미래를 대표하는 세계1등급의 예술》로 칭송을 받으며 꽃피여난 우리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을 민족적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앞으로도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당중앙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의 유일적지도에 충실함으로써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을 참말로 당과 로동계급을 위한 예술, 인민을 위한 예술로 더욱 찬란히 꽃피워나갈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에 관한 사상의 초석

리 수 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오늘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우리 시대 문학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로 인류문예사에 주체예술의 새 력사를 아로새기며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다.

세상사람들은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을 두고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참다운 인간을 보여주며 인간을 옹호하고 진정으로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문학예술로 높이 찬양하고있다.

이러한 성과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당이 밝힌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에 관한 탁월한 사상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말하여주고있다.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당이 밝힌 혁명적문예리론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발전을 위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 *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밝히시였을뿐아니라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에 관한 리론의 근본초석을 완벽하게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7폐지)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현실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해명이 주어짐으로써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에 관한 사상의 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사회적본질, 현실세계와 인간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명하는가에 전적으로 의존된다. 인간에 대한 옳바른 철학적해명이 없이는 또한 인간이 현실세계에서 진행하는 실천활동에 대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해석이 없이는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에 관한 문제에 옳은 해답을 줄수 없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에 관한 문제는 오직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철학의 근본원리에 기초할 때라야만 가장 혁명적으로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해명될수 있었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자연과 사회에서 인간의 지위와 역할 특히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의 본질적특성과 그들의 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역할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사상미학적본질이 옳바로 해명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새로운 세계관의 토대우에 서게 되였으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에 관한 사상의 확고한 초석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당은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았다.

당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인간학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공산주의 새

인간학이라고 정식화하고 우리 문학은 무엇보다도 자주적인 산 인간의 전형을 창조함으로써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에 예술적으로 해답하는 그러한 인간학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당의 이 가르침은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 공산주의 새 인간학이 그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를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확고히 두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우리 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과 그 발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는 확고한 립장을 내세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근본문제들을 뚜렷이 밝힘으로써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이 무엇을 묘사대상으로 하며 그것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 그리고 문학예술이 누구를 위하여 복무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등 문학에 관한 로동계급의 근본리론들을 새롭게 하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건저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은 그 중심에 자주적인 인간을 확고히 내세워야 한다는것을 근본요구로 제기하였다.

당에서는 우리 문학의 중심에는 사람일반이 아니라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자주적인 인간이 서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당의 이 가르침에는 문학예술이 우리 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사회적인간의 본성과 지위, 그 역할을 정당하게 밝힐데 대한 원칙적요구가 담겨있으며 우리 문학예술이 무엇을 기본으로 그릴것인가에 관한 문제, 다시말하여 문학의 묘사대상과 그 내용에 관한 문제가 탁월하게 밝혀져있다.

우리 당의 이 새로운 문예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재적으로 밝혀주신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사상과 그것을 문학예술에 구현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관철하여 새롭게 밝힌 심오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통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히시고 그를 문학예술에 정확히 구현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동물과 다름없습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73폐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며 자주성이 없는 사람은 동물과 다름이 없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힘을 가지고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자주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사람은 주위세계에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며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현실세계를 자기의 목적과 지향에 맞게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개조해나간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람의 실천활동, 혁명투쟁의 본질을 자주성을 기본으로 하여 볼수 있게 하였으며 따라서 인간과 그 존재방식인 생활을 자주성을 기본으로 하여 밝히는 문예학의 새로운 원칙적요구를 확고히 세울수 있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에는 생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상이 강조되여야 하며 위대한 생활은 어떤 한둘의 탁월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자각한 수백만 근로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맑스-레닌주의적관점이 명백히 나타나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575폐지)

수령님께서는 현실을 변혁하는데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노는 결정적역할

을 묘사하는데 형상의 중심이 돌려져야 한다는 주체적문예창조의 원칙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문예창조의 주체적인 원리를 더욱 깊이있게 구현하여 그것을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이 가져야 할 근본요구로 확고히 규정하여 주었다.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상의식의 결정적역할을 밝힌데 대한 주체적인 원리를 구현하여 생산문제, 생산공정 그자체에 대한 기록적인 라렬로 형상을 대치하는 그릇된 창작경향을 없앨데 대한 주체적인 창작원칙을 제시하였다.

당의 이 사상은 문학형상의 기본내용, 문학묘사의 기본대상이 철저히 인간문제, 다시말하여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로 되여야 한다는 가장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이다.

당에서는 더 나아가 주체시대의 인간의 사회계급적인 본질을 심오히 밝힘으로써 문학예술이 묘사대상으로 하는 자주적인간의 특질을 해명하여주었다.

당에서는 어느 한 혁명가극이 거둔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들을 밝히면서 그 요인을 주인공을 비롯하여 등장인물들이 지니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잘 형상한데서 찾아주었다. 당은 또한 공산주의적연극예술창조의 강령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의 연극이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인간들, 수령님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형상을 그려야 한다는것을 간곡히 가르치였다.

특히 당에서는 우리 시대의 자주적인간의 기본품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공산주의 새 인간학이 창조하여야 할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주었다.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의 중심에는 당에서 밝혀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형상이 자리잡아야 한다.

이 형상의 시대적이며 사회계급적인 본질, 주도적인 특질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이 주도적인 특질에서 흘러나오는 기본품성은 당에서 밝혀준바와 같이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옹호하며 수령님의 교시를 신념으로 만들고 그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사회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그것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는 충성의 한길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무궁무진한 힘과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보여주는 인간형상이야말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장 높은 형태에서 체현한 우리 시대의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우리 당이 가르친 우리 시대 문학예술의 기본내용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가 철저히 관통되여있으며 빛나게 구현되여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당이 밝힌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근본요구는 또한 우리 문학예술이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에 예술적으로 해답하는것이다.

문학예술은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예술적인 형상을 통하여 해답을 주는 사회적의식의 한 형태이다. 문학예술은 론리적인 추상의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심금을 울리는 인간생활의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사상교양적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 다른 사회적의식형태들과 구별되는 문학예술의 독자성이 있다. 예술성이 없이는 예술 그자체가 존재할수 없다.

당에서는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문학은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에 예술적으로 해답하는 그러한 인간학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

치였으며 산 인간을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그리는것이 곧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이라고 밝혔다.

당의 이 가르침에는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이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을 통하여 근로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키우는데 이바지해야 할 자기의 사명과 기능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수단에 관한 원칙적요구가 담겨져있으며 우리 문학예술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그릴것인가에 관한 근본문제가 밝혀져있다.

당에서 가르친 자주적인 인간에 관한 문제,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에 예술적으로 해답을 줄데 대한 요구는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되기 위하여,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양적기능을 뚜렷이 체현한 문학예술로 될데 대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80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여 당에서는 산 인간, 구체적인 인간을 잘 그려야 그것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고 밝히였다.

혁명적문학예술은 산 인간의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문학예술의 기능을 강화할수 있다. 생활의 진실한 화폭을 통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때 문학예술은 혁명적교양의 기능을 실현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그것을 확고부동한 생활의 신조로 하고 수령님의 교시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자주적인 인간들을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그리면서 예술적인 해답을 주어야 문학예술은 온 사회를 혁명화,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당은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심금을 울리는 산 인간의 생활을 예술적으로 해답함으로써 인간들을 교양개조할데 대한 요구를 독창적으로 밝히고 그것을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예술의 참다운 면모로 뚜렷이 내세웠다.

당에서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도하면서 항상 작품형상에서 온 사회의 혁명화문제에 형상의 대를 세워 끌고나가도록 일관하게 가르쳐줌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이 자신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어떻게 갖추어나가는가 하는데 대하여 사상론의 견지에서 뚜렷이 밝히도록 하여주었다.

당에서는 문학예술작품에서 생활과의 밀착, 생활그대로의 자연스러움과 진실성을 그 생명으로 보는 확고한 관점을 견지하고 그 구현에로 작가, 예술인들을 힘있게 이끌어주었다.

당에서는 문예작품이 생활과 밀착되지 않고 생활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음과 같은것이라고 간곡하게 가르치였으며 특히 힘있는 존재로 자라나는 인간성격의 장성과정이 그 순차성과 생활의 론리에 맞게 형상화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우리 당은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에 예술적인 해답을 줄수 있는 창작실천상의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명함으로써 문예창조의 지침을 주었다.

당에서는 인간생활의 바탕을 진실하게 형성할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옳게 설정하고 그것을 극적으로 심화할데 대하여서와 생활을 진실하고 감동적으로 펼쳐줄수 있도록 심금을 울리는 문학적인 이야기를 만들데 대하여, 실생활에 철저히 근거하여 인간의 사상정신세계를 파고들데 대하여 그리고 인간의 형상을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도록 성격의 생활적세부를 탐구표현할데 대하여 등 수많은 창작실천상의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이리하여 인간혁명화의 진리를 숨쉬며 사고하고 행동하는 산 인간의 실생활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밝히는 확고한 길이 마련되였다.

우리 당이 밝힌 공산주의 새 인간학에 대한 사상과 리론은 참으로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고있으며 그의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건설과 리론발전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초석으로 하고있는 공산주의 새 인간학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적문학예술의 본성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심오한 해명을 준것으로서 그것은 혁명적문예사상과 리론발전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공산주의 새 인간학에 관한 당의 사상에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문학예술이 지녀야 할 기본표징들이 주체사상을 초석으로 하여 전일적인 체계로 밝혀져있다.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문학예술은 무엇을 묘사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그려야 하는가, 또한 그것을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 등 문예창조의 근본리론문제들이 가장 정확하게 밝혀져있다. 공산주의 새 인간학에 관한 당의 사상은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문학예술, 인류예술의 미래를 밝혀주는 공산주의적문학예술의 묘사대상과 그 내용, 묘사방법과 그 목적, 기능에 관한 문제들이 전일적인 체계로 집약된 심오한 정식화로 이루어진것으로서 그것은 혁명적문예사상발전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로 된다.

공산주의 새 인간학에 관한 사상은 또한 우리의 문학예술이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창조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초석으로 하여 공산주의 새 인간학에 관한 사상과 리론이 해명됨으로써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는 명확한 리론실천적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우리의 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자주적인 인간의 무궁무진한 사상정신적힘과 고상한 공산주의적풍모를 전면적으로 그리는 혁명적문학예술로 되게 되였다.

공산주의 새 인간학에 관한 사상은 또한 부르죠아반동문예리론과 수정주의문예리론을 비롯한 온갖 반혁명적문예리론에 결정적타격을 주고 인간의 존엄과 참다운 가치를 옹호하고 그것을 더욱 빛내인 탁월한 문예사상이다. 이 사상은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근로대중의 사회계급적본성과 역할을 무시하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희롱하고 유린하면서 문학예술을 세기말적퇴폐에로 이끌어가는 반동적, 반혁명적 문예《리론》들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근로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 아름다움과 그 고귀한 가치를 자랑차게 노래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예술을 밝은 앞날에로 이끌어가는 휘황한 기치로 되고있다.

*　　　*

오늘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초석으로 삼고있는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 됨으로써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문학예술로,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인간의 무궁무진한 사상정신적힘과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인간학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위한 혁명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심오하게 밝혀주는 참다운 교과서로 되고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밑에 자라온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당이 밝힌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기치높이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련합기업소의 창설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획기적조치

최　　진　　성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련합기업소가 조직되여 운영되고있다.

련합기업소는 창설된지 얼마되지 않으나 우리는 공업관리운영에서와 생산관계의 발전에서, 사회주의대건설사업의 앙양에서 이미 실현된 위대한 전변의 열매를 뚜렷이 찾아보고있다.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건설이 비상히 심화발전된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기업관리조직으로서 이 땅우에 공산주의락원을 건설하려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의 하나이다.

련합기업소에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을 심오히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실생활에서 빛나게 구현하는것은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면서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로 돌진해나가고있는 우리 모든 일군들앞에 나선 긴절하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다.

련합기업소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새로운 사회주의기업관리조직형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사상을 구현하고있는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기업관리의 참다운 길을 밝혀준 빛나는 모범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는 강유력한 무기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훌륭한 형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기관들과 기업소들은 대안체계를 철저히 받아들여 경제건설에서 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14페지)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이 우월한 경제관리체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현대적인 대규모의 사회주의경제를 훌륭히 관리운영하여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수행할수 있었으며 웅대한 6개년계획의 수행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경제의 규모가 커졌으며 기업소들사이의 련계가 비상히 복잡해진 오늘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도 오로지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경제를 과학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믿음직하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조성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안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성과가 중요하게 달려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기업관리조직의 새로운 형태인 련합기업소를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대안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련합기업소의 창설, 이것은 참으로 사회주의기업관리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수령님께서 창설하신 련합기업소는 일정한 사회적재생산에서 밀접히 련관된 여러 부문의 기업소들을 하나의 기업체로 통합한 대규모기업소이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원료, 연료를 생산하

는 기업소들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업소들로써 이루어진 하나의 거창한 공업생산유기체이다.

련합기업소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적 지도밑에 기업소의 통일적인 생산계획을 세우고 생산자원의 분배와 조절을 실시하며 모든 생산활동을 직접 틀어쥐고 조직지휘한다. 그것은 산하기업소들의 생산활동결과에 대하여 당과 국가 앞에 생산적으로, 재정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책임진다.

사회주의경제관리력사에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기업관리조직인 련합기업소는 일련의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산하기업소들의 모든 기업관리활동을 직접 통일적으로 조직진행한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위원회들은 해당단위에서 최고지도기관이며 모든 부문 사업의 참모부입니다. 어느 부문에서나 당정책을 옳게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위원회들의 령도적역할에 결정적으로 달려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70폐지)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련합기업소의 최고지도기관이며 그 모든 부문 사업의 참모부이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산하 모든 기업소들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쥔 기초우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구체화하는 정확한 투쟁방침을 세우고 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진행하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련합기업소의 모든 당조직과 근로단체, 생산자대중을 힘차게 조직동원한다. 개별적기업소의 초급당조직들은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결정이 자기 기업소에서 정확히 집행되도록 행정실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 당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한다.

련합기업소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그것이 각이한 부문의 여러 기업소들을 하나의 생산기술적유기체로 전환시킨 전투단위라는데 있다. 련합기업소는 여러 부문의 기업소들을 기계적으로 합쳐놓은 단순한 생산통합체도, 성이나 관리국과 같이 생산지도단위도 아니다. 그것은 각이한 부문의 기업소들을 모체기업소의 생산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조직된 대규모생산단위이며 필요한 생산기술적 및 행정적 권한뿐아니라 기술경제사업에 대한 시비를 가르는 권한까지 가지고 온갖 물질기술적수단과 기술집단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국가의 생산계획을 자체로 수행해나가는 하나의 대경영단위이다.

련합기업소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그것이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을 련합한 확대된 생산단위라는데 있다.

련합기업소에 들어있는 개별적기업소들은 완전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련합기업소의 기본제품생산계획의 수행결과에 따라 물질적으로 영향을 받도록 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대건설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독창적으로 창조하신 련합기업소는 같은 부문의 기업소들을 합쳐놓은 《생산련합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소속과 지역에 관계없이 생산의 순차적단계에 따라 련쇄된 기업소들을 하나의 생산기술적유기체로 묶은 련합기업소는 생산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면서 련합기업소에 들어있는 모든 기업소들사이의 협동생산을 훌륭히 실현하고 공업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장성속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기업관리조직이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기업관리의 새로운 형태인 련합기업소를 창조하심으로써 과학적사회주의기업관리리론을 발전시키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사회주의기업관리의 조직 형태와 방법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발전의 수준과 사회적분업의 상태, 일군들의 기업관리능력, 대중의 정치적열성 등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사회주의적공업화가 실현되고 공업생산력이 높은 발전수준에 이른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기업관리조직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이 제기하는 매우 긴절한 요구이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기업관리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련합기업소를 내올데 대한 위대한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혁명실천이 해결을 기다리는 이 중대한 문제에 가장 정확한 대답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련합기업소를 창설하심으로써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기업관리조직형태가 어떻게 발전되고 완성되여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새로운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지금까지는 사회주의기업관리조직형태를 오직 경영상 독자성을 가지고 독립채산제원칙에서 활동하는 개별적기업소로만 리해하여왔다. 수령님의 련합기업소에 관한 불멸의 사상이 밝혀짐으로써 사회주의기업관리조직형태에 대한 이러한 리해가 타파되고 그에 대한 새로운 폭넓은 개념이 확립되였다.

수령님께서 련합기업소를 창설하시여 사회주의기업관리발전에 공헌하신것은 또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근본원칙인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공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능숙하게 적용하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것이다.

수령님께서는 련합기업소를 조직하시여 공업생산에 대한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도를 더욱 강화하면서 개별적기업소별로 엄격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도록 하심으로써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련합기업소를 창설하시고 사회주의기업관리조직을 가일층 완성하심으로써 공산주의사회에로 가는 구체적인 길이 어떤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보다 똑똑한 인식을 가질수 있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시여 사회주의기업관리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게 하시였을뿐아니라 나아가서는 공산주의기업관리에로 넘어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련합기업소를 창설하시여 생산단위와 행정관리단위가 밀접히 유착되고 점차적으로 그것이 사람들의 유일한 생활단위를 이루어나가도록 하심으로써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에로 가는 진로를 더욱 똑똑히 밝혀주시였다.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기업관리운영에서 거대한 우월성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련합기업소의 창설은 공업관리운영을 개선하고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을 보장하는데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련합기업소가 조직되고 운영되고있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단위들에서는 사람들의 일본새가 달라지고 기업관리운영이 개선되였으며 생산이 부쩍 올라갔다.

지금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련합기업소들이 국가생산계획을 매달 어김없이 넘쳐수행하고있으며 이 기업소들에서의 생산장성속도가 날을 따라 더욱더 빨라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불패의 생활력은 비단 공업생산의 량적장성에서만 나타나고있는것이 아니다. 련합기업소가 조직된 다음부터는 보장기업소들이 모체공장에 생산공급하는 원료와 연료, 기술봉사의 질이 훨씬 높아졌다.

련합기업소의 창설은 또한 그에 들어있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비상히 강화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조직으로 련쇄된 공장, 기업소들이 한 기업체로 되였기때문에 선진적인 모체공장이 뒤떨어진 개별적 공장, 기업소들의 사업을 모든 측면에서 성의껏 돕고있다.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련합기업소는 이렇듯 기업소들사이의 생산적련계와 사회주의적협동생산을 발전시키는데서, 공업생산의 전반적앙양을 보장하는데서 커다란 우월성을 나타내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가장 중요한 우월성은 그것이 공업에 대한 당적령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는데 있다.

생산에 대한 당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기업관리운영의 근본원칙의 하나이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동원할수 없으며 따라서 기업관리를 옳게 실현하는 문제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 문제도 바랄수 없다.

수령님께서는 련합기업소를 내오게 하심으로써 공업에 대한 당적령도를 사회적생산의 보다 넓은 범위에서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하시였으며 공업생산이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련합기업소의 창설은 무엇보다도 당조직의 공업생산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공업생산에 대한 당조직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여러 부문의 기업소들을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조직동원하고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게 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련합기업소는 당위원회가 여러 부문의 기업소들을 직접 틀어쥐고 지도하게 되여있는것만큼 공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고 사회주의적협동생산을 보다 훌륭히 실현할수 있다.

련합기업소는 또한 공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생산실천과 더욱 밀접히 결합시킬수 있게 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생산에 대한 당적지도가 련합기업소당위원회와 거기에 속하고있는 개별적기업소초급당조직들을 통하여 실시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생산현실과 밀접히 결부되여 실속있게 진행될수 있게 되였다.

련합기업소의 중요한 우월성은 그것이 공업관리운영에서 계획성을 가장 훌륭히 보장하는데 있다.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이며 계획이 없이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공업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선차적조건은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특히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모든 고리들의 련계가 복잡해진 조건에서 기업관리의 계획성을 높이고 협동생산을 원만히 실현하려면 더욱더 당의 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계획화사업을 중간환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진행하는것이 아니라 당과 국가의 의도와 개별적기업소들의 실태를 잘 아는 련합기업소자체가 기본제품생산을 반드시 보장하는 방향에서 그것을 직접 조직진행하기때문에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우고 협동생산규률을 정확히 지키려고 하여도 필요한 원료, 연료와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받지 못하면 생산을 제대로 밀고나갈수 없으며 기업관리의 계획성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없다.

련합기업소는 자신이 원료, 연료 생산기지를 직접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중간다리를 거치지 않고 자기의 통일적인 지령체계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모든 원료, 연료와 자재들을 제때에 공급받을수 있으며 생산을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공업을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서 생산예비와 가능성을 탐구동원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련합기업소는 개별적기업소의 울타리를 벗어나 보다 넓은 사회적생산의 범위에서 날과 더불어 더욱더 늘어나는 생산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을 마련하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새롭게 조직운영되고있는 련합기업소의 우월성은 그것이 생산에 대한 지도를 기술적으로 더욱 심화시킬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은데 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생산과정이란 결국 기술공정이다. 사회주의적생산이 발전하면 할수록 생산과정의 이러한 성격은 더욱더 강화된다. 그러므로 생산은 반드시 기술적으로 지도해야 하며 기술을 아는 사람이 지도해야 한다.

사회적생산의 보다 넓은 규모에서 대

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련합기업소에서는 기술을 아는 사람이 기업소의 모든 생산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지도하게 되여있다.

이리하여 련합기업소에서는 필요한 원료와 연료, 자재들을 제때에 충분히 생산보장하고 모체공장에서의 제품가공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진행하여 당면한 생산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을뿐만아니라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장기적인 계획밑에 전망성있게 개건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창설된 련합기업소는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련쇄된 생산단위들에서 일하는 모든 로동계급들사이의 동지적협조관계를 획기적으로 확대발전시켰다.

련합기업소가 조직되기 이전에는 개별적기업소들사이에서 본위주의와 같은 낡은 사상 잔재들이 발로되였었다. 모든것이 밀접히 련결되고 빈틈없이 맞물려돌아가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본위주의는 경제발전을 심히 저애하는 커다란 장애물로 된다.

수령님의 현명한 조치에 의하여 련합기업소가 창설됨으로써 개별적기업소들사이에 존재하던 이러한 낡은 사상 잔재들이 철저히 극복되고 하나의 목적, 공동의 생산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합심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기풍이 높이 발휘될수 있게 되였다.

련합기업소의 조직은 개별적기업소들사이의 관계를 한 기업소내 직장사이의 밀접한 관계로 전변시켰으며 모든 사람들이 동지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가 생산의 보다 넓은 규모에서 빛나게 관철될수 있게 하였다.

새로 조직된 련합기업소의 위력은 집단주의와 동지적단결, 밀접한 협력의 위력이며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주인다운 태도와 책임성이 높아진데서 나오는 위력이다.

수령님께서 몸소 창설하여주신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확대강화하고 공업에 대한 관리운영을 더욱 발전시키며 사회주의대건설사업을 기운차게 다그쳐나가는데서 불패의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힘차게 앞당길수 있게 하는 강유력한 무기이다.

련합기업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련합기업소는 공업관리운영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켰으며 생산의 새로운 급속한 앙양을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련합기업소를 내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이미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에서 그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우리는 급속히 심화발전하는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운영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공업생산의 부단한 높은 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련합기업소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시켜야 한다.

현시기 련합기업소를 튼튼히 꾸리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모든 일군들속에서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높은 혁명적기풍을 발휘시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운 사업체계를 받아들이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혁명적투쟁정신입니다.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야 하며 여러가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나가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432페지)

련합기업소가 아무리 훌륭한 기업관리조직이라도 혁명적투쟁정신이 없이는 그 우월성을 충분히 나타내게 할수 없다. 오직 견결한 투쟁정신, 높은 혁명적기풍이 있어야만 새로운 사회주의기업관리조직을 성과적으로 공고발전시킬수 있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다.

련합기업소를 조직경제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서 높은 혁명적기풍을 발휘하려면 무엇보다도 일군들이 새로운 사회주의기업관리조직을 내올데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심오한

리론을 잘 알아야 한다. 련합기업소에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사상과 의도를 깊이 인식함이 없이는 새로운 기업관리조직을 공고발전시키는 투쟁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할수 없다. 우리는 련합기업소에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당중앙의 깊은 의도를 진지하게 학습하여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하며 련합기업소의 본질과 특징, 그 우월성을 심오히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련합기업소를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면 새로운 기업관리조직의 요구에 맞게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바로세워야 한다. 련합기업소는 각이한 생산기술적특성을 가지고있는 여러 부문의 기업소들을 하나의 조직체계로 련합한 대규모생산유기체이다. 그러므로 개별적공업부문의 기업소들을 관리운영하던 지난날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가지고서는 련합기업소를 정확히 관리운영할수 없다. 전국의 모든 련합기업소들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따라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체계와 온갖 기업관리운영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새로운 현실에 맞게 사업규범과 직능을 옳게 만들어야 한다.

련합기업소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당사업을 비롯하여 기업관리운영의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련합기업소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당사업을 결정적으로 반전시켜야 한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들은 련합기업소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매 시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관철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히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며 산하 당조직들이 해당단위의 집체적지도기관으로서의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수행하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련합기업소참모부서들이 직능에 밝혀진대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며 모든 기업소들이 집단주의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속도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련합기업소적인 기본제품생산계획을 무조건 넘쳐수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새형의 기업관리조직의 요구에 맞게 계획사업으로부터 생산 및 기술지도사업, 자재보장사업에 이르기까지 생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개편하여나가야 한다.

련합기업소는 생산을 직접 계획하고 조직하며 그것을 실현하는 철저한 집행단위이다.

우리는 새로운 기업관리조직의 요구와 조건을 과학적으로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계획사업, 생산 및 기술 지도사업, 자재보장사업을 비롯한 기업소의 모든 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높이는 것은 련합기업소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경제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수 없다. 특히 련합기업소의 조직으로 생산규모가 커지고 기술공정이 복잡하여진 사정으로 하여 이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새형의 대규모기업체를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능숙히 관리운영할수 있도록 자신의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련합기업소를 공고발전시켜 기업관리운영을 개선해나가는것은 공업생산의 끊임없는 장성을 보장하고 사회주의대건설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과 당중앙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사회주의기업관리조직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기업관리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업생산을 보다 급속히 발전시키고 6개년계획을 훨씬 앞당겨끝내며 나아가서 휘황한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점령하는데로 빨리 달려나가야 한다.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을 옳게 타산하는것은 계획화사업의 기본요구

리 경 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전행정에서 언제나 계획화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를 개선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최근에 주신 강령적교시에서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을 옳게 타산하여 계획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과학적인 방도들을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을 정확히 타산하여 계획화한다는것은 생산의 중요요소들의 현존상태와 그 변화과정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계획의 현실성과 동원성을 보장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을 정확히 타산하는것은 사회주의계획화사업의 기본요구이며 계획화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획은 아주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설비능력, 나라의 자원과 자재, 자금, 로력과 같은 모든것을 구체적으로 따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70페지)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을 정확히 타산하여 계획화하는것은 무엇보다 먼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의 요구대로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생산의 인적 및 물적 요소들을 비롯한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인 수자와 자료에 기초하여 정확히 료해장악하며 그 변화과정을 옳게 포착하고 계획화하여야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의 요구대로 높은 계획성과 철저한 균형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생산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계획, 적극적이고도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다.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을 정확히 타산하여 계획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일뿐아니라 현시기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는 생산규모가 비할바없이 방대해졌으며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되고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장성하고있다.

당중앙에서 밝혀준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이룩되는 오늘의 구체적현실은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 로력 등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더 잘 계획화하며 면밀히 맞물려줄것을 요구하고있다.

특히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10대경제건설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기초를 튼튼히 닦아야 할 영예로운 과업을 다같이 잘 수행하자면 생산의 모든 요소들에 대한 객관적자료에 기초하여 계획화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가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면밀하게 타산하며 어느 한 고리라도 놓치지말고 다 맞물려 생산의 요구와 그 보장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토대우에서 적극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워나간다면 사회

주의대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을 정확히 타산하여 계획화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여기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인민경제계획화의 요소들을 타산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요구의 하나는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있는 설비, 있는 로력, 있는 자재로 더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도록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는것이다.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는것과 함께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생산장성을 위한 기본방도이다.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을 정확히 타산하여 계획화하는것은 무엇보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빨리 늘이며 인민경제 부문간, 부문내부간, 기업소들사이 그리고 기업소내부단위들사이의 옳은 균형을 유지할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의 하나이다.

그렇기때문에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리용할수 있도록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계획화의 요소들을 정확히 타산하는것이 원칙적인 문제로 나선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인민경제계획화의 요소들을 타산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요구는 또한 계속혁신, 계속전진할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동원적으로 모든 요소들을 타산하는것이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반양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경험통계적방법으로가 아니라 과학기술적타산에 기초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생산자대중을 계속혁신에로 불러일으키며 모든 요소들을 빠짐없이 타산하여 세부분에까지 맞물려야 한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할수 있도록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을 타산하여 계획화하는것은 바로 경제가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의 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을 옳게 타산하여 계획화할데 대한 방침은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건설할데 대한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경제건설의 위력한 무기인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어떤 목표와 방향에 따라 계획화사업을 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경제건설에서 주체성이 없이 남에 대한 의존심을 가지고 계획화사업을 진행한다면 결코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오직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을 가지고 계획화사업을 하여야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 모든 문제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을 타산하여 계획화하는데서도 반드시 주체적립장에서 경제의 자립성,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할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을 타산하여 계획화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태도, 현시기 계획화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이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을 정확히 타산

하여 계획화할데 대한 방침은 또한 사회주의대건설사업의 총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경제발전의 적극적인 균형과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준 현명한 방침이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을 정확히 타산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때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며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는 적극적인 균형을 유지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을 옳게 타산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현시기 그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력사정이 매우 긴장되여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로력원천을 적극 동원하며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일수 있도록 로동계획화사업을 잘 짜고드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우와 같은 책, 509폐지)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을 옳게 타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로력을 잘 타산하는것이다.

사람은 생산의 가장 능동적이며 결정적인 요소이다. 로력에 대한 구체적인 타산이 없이 결코 계획의 현실성과 동원성,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것으로, 그 무엇보다 먼저 과학적으로 타산되여야 할것은 로력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력을 홀시하는것은 자본주의잔재이다.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이 몇몇 안되는 착취자들에게 장악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항시적으로 수백만의 실업군중이 거리를 헤매는것만큼 돈만 있으면 로동력은 얼마든지 구할수 있다. 자본가들이 로력을 타산한다면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하면 헐값으로 로동력을 구하며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의 피땀을 더 짜내겠는가 하는것뿐이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근로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력을 홀시하는것은 썩어빠진 자본주의의 사상잔재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이다.

그런것만큼 생산자들의 사상의식상태와 그들의 기술기능수준, 배치정형을 비롯한 로력의 현상태와 그 변화과정을 전면적으로 타산하는것은 계획화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특히 로력배치문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현시기뿐아니라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중요한 문제로 나설수 있다.

인민경제계획화의 모든 요소들가운데서도 무엇보다먼저 로력타산을 정확히 할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위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확고히 구현한것으로서 인민경제계획화의 전반사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현시기 로력을 타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공업로력과 농업로력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며 로력의 절대적인 증가로써가 아니라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의 종합적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적극 실현하여 늘어나는 생산을 보장하는것이다.

특히 석탄, 광업, 지질탐사 등 생산의 첫공정을 담당한 부문들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한편 로력균형을 정확히 보장하여 원료, 연료의 생산을 가공공업에 부단히 앞세우는것이 중요하다.

로력타산에서 힘을 넣어야 할 다른 하나는 종업원한사람당 생산액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는것이다. 기업소경영활동을 종합적으로 특징짓는 종업원한사

람당 생산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과 함께 로동행정사업을 짜고들어 직접부문 로력자수, 그 가운데서도 직접공대렬을 계통적으로 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계획화의 요소들을 타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기술타산을 바로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기술은 사람들의 로동을 대신하며 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기술을 발전시켜야 중로동을 경로동으로 만들고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생산을 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근로자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킬수 있다.

기술타산에서 중요한것은 기술력량과 기술수준의 현상태와 그 발전전망을 정확히 타산하는것이다. 기술력량을 옳게 타산하지 못하고 기술수준을 과대, 과소 평가한다면 계획을 옳게 세울수 없을뿐아니라 경제건설에서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것만큼 기계공업에 대한 평가,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를 바로하고 그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대상설비생산능력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기계설비들의 생산능력을 구체적으로 타산하는것이 중요하다. 기계설비들의 생산능력타산에서는 기계설비총대수와 함께 생산공정별, 기종별로 따지며 매개 설비들의 가동정형까지 면밀하게 타산하여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공작기계를 비롯한 기계설비들을 통일적으로, 집중적으로 리용하며 기종간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고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 기계설비들의 능력을 최대한 내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선박, 뜨락또르, 자동차, 화차 생산부문들에서 설비들의 현상태와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모든 기계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그것들을 만가동시켜 더많은 기계기술수단들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보내야 한다.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을 정확히 타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지하자원에 대한 타산, 채취공업에 대한 타산을 잘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료와 연료, 동력 생산을 앞세우는것은 공업에서 하나의 법칙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생산의 첫공정인 채취공업이 앞서나가야 다른 모든 공업부문들도 빨리 발전할수 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10페지)

지하자원, 채취공업에 대한 타산을 잘하여 원료, 연료, 동력 생산을 앞세우는것은 현시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기계설비와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전반적인민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절실한 문제이다.

지하자원, 채취공업에 대한 타산을 바로하자면 무엇보다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질탐사사업을 더욱 추켜세우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기계설비들로 이 부문을 튼튼히 장비하고 탐사일군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채취공업을 앞세우기 위해서는 지질탐사사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다량채굴, 다량처리하기 위한 타산을 바로하는것이 중요하다. 품위높고 매장량이 많은것만 캐려는 투기적이고 수공업적인 낡은 일본새를 버리고 다량채굴, 다량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것은 당면한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뿐아니라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10대경제목표에 제시된 100만톤의 유색금속고지, 1억톤의 석탄고지를 비롯한 여러 고지점령을 위하여 나서는 전투적과업이다.

지하자원, 채취공업에 대한 타산을 옳게 할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원료, 연료, 동력 공업을 앞세워 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며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사회주의를 더빨리 건설하기 위한 명확한 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인 로력, 기술,

원료와 함께 자금을 잘 타산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자금타산을 옳게 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수요와 원천, 그 리용을 정확히 타산하고 계획화하는것으로서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인 요구이다.

자금타산을 옳게 할데 대한 수령님의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인민경제계획화에서 타산되여야 할 기본요소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게 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이 해명되게 되였다.

자금타산에서 기본은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정확히 설정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도록 재정계획을 세우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등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국가재정활동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재정일군들을 비롯한 당원들과 일군들은 재정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재정지출에서는 엄격한 절약제도를 세우며 수입에서는 그 원천을 최대한 확대하여 재정수입을 끊임없이 늘이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세소상품생산을 늘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급양과 편의봉사사업을 개선하여 국가재정수입을 계속 늘여야 한다.

자금타산에서는 또한 자금리용에서 보수주의를 없애고 자금회전을 촉진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자금회전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자금회전률을 높여나갈 때 우리는 사회주의대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만히 충족시켜나갈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을 정확히 타산하여 계획화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을 옳게 타산하여 계획화할데 대한 방침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는 계획화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수령님께서 이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계획의 현실성과 동원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종합적균형으로부터 세부균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균형을 확고히 유지하여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게 되였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을 옳게 타산할데 대한 방침은 계획화리론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수령님께서 이 방침을 제시하시여 인민경제계획화의 모든 요소들을 정확히 타산할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주심으로써 계획화사업이 경제건설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사명을 더욱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이 방침은 인민경제계획화의 방법론을 개선하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을 옳게 타산할데 대한 방침은 인민경제계획화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그를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발전풍부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밑에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당창건 30돐안으로 앞당겨점령하며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인민경제계획화의 중요요소들을 정확히 타산하여 계획화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자주적조국통일을 앞당겨나아가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남조선정세는 혁명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한 응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1974년은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 위업실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승리의 한해로 빛나고있다.

올해 남조선인민들은 안팎의 민족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며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보다 광범히 떨쳐나섰다. 남조선인민투쟁은 더욱 대중화되고 조직화되면서 힘찬 전진을 이룩하였다.

혁명의 원쑤들은 급속히 장성강화되는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아보려고 극악무도한 파쑈폭압과 온갖 모략책동에 매달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남조선에서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원쑤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심각한 대내외적위기에 직면하고있다.

전반적정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변화발전되고있으며 그것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위업실현에서 확고한 승리의 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남조선정세발전의 새로운 국면은 전적으로 전설적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남조선인민들속에 더욱 널리 전파되고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현된 결과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남조선정세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힘의 원천으로 된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그 어떤 리론을 위한 리론이 아니라 복잡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우리가 내놓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9페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으로서 우리 시대, 주체시대가 제기하고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을뿐아니라 나라의 통일독립과 혁명과 건설을 위한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과정에서 그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과시되고 그 정당성이 검증된 참된 진리이다.

오늘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지난기간의 간고한 투쟁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과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위대한 주체사상만이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주체사상과 그의 구현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수령님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더 없이 귀중한 사상적무기로, 혁명의 량식으로 삼고있다.

올해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지향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연구회》, 《수령님 혁명력사연구회》등 다종다양한 연구회와 학습소조들을 묶고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전략전술로 무장하기 위한 불굴의 노력을 기울이였으며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심장속에 위대한 주체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정치선전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오늘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주체사상의 혁명적진수와 그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남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관점을 더욱 확고히 세우고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주체적인 립장이 확고히 서감에 따라 그들의 혁명정서와 투쟁열의가 높아지고있으며 투쟁에 떨쳐나서는 사람들의 수도 현저히 늘어나고있다.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싸워나가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불같은 지향은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강령을 제시하시고 전민족의 거족적인 힘으로 안팎의 민족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싸울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신 이후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진로를 환히 밝혀준 가장 정확한 방침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을 한없이 고무하고 분렬된 우리 민족앞에 통일의 밝은 서광을 비쳐주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통하여 통일문제에 구현된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진수를 확고히 체득하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통일운동의 확고한 기준으로 삼게 되였다.

특히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영원히 갈라지느냐, 하나로 통일되느냐 하는 엄숙한 시각에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5대강령과 투쟁을 통하여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은 남조선인민들에게는 혁명의 기치로, 투쟁의 홰불로 되였으며 원쑤들에게는 멸망의 운명을 재촉하는 폭탄으로 되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이 비할바없이 두터워지고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민족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려는 혁명적기세가 급속히 높아갔다.

남조선의 한 주민은 수많은 사람들속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5대강령으로 우리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우리모두 조국통일5대강령을 받들고 몸바쳐 싸워나갑시다.》라고 하면서 《적기가》에 맞춰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민중의 기 주체의 기발
백두산 높이높이 휘날린다
어두운 남한땅에
통일서광 비껴온다
높이 들어라 주체의 기발을
그 밑에서 전사하리라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는 주체의 기발을 지키리라》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높이 울려퍼진 이 노래소리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조국통일5대강령이 얼마나 남조선인민들의 확고한 사상적기치로, 투쟁의 강령으로 되고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실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평화적조국통일의 전제조건을 마련하며 혁명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으로서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대중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끌어올리는 주요한 전환점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존경하고 흠모하면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방침을 절대화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확고한 정신도덕적풍모로 되고있다. 이것은 원쑤들의 극악무도한 파쑈폭압을 박차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반제반파쑈민주화투쟁에 인민대중을 떨쳐나서게 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으로, 남조선정세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고있다.

*　　　*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올해 남조선인민들은 안팎의 민족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며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미일침략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반인민적이며 매국배족적인 행위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있습니다.》 (《신년사》, 1974년 1월 1일, 8페지)

올해에 줄기차게 전개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파쑈독재와 민족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애국적이고도 헌신적인 투쟁으로서 그것은 날을 따라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지난해 청년학생들의 10월투쟁에 뒤이어 금년초까지 전개된 광범한 사회계와 재야정치세력들의 《100만명개헌서명운동》, 박정희군사파쑈독재에 항거하는 4월투쟁, 지난 9월이후 계속 확대되고있는 청년학생들과 종교인, 언론인들의 투쟁과 구속자석방운동, 생활개선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로동자들의 폭동적진출 등은 이것을 웅변으로 말하여준다.

남조선인민들의 이러한 투쟁은 물론 적들의 류례없는 파쑈적폭압책동으로 인하여 우여곡절을 겪고있지만 그것이 종래의 투쟁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발전면모를 보여주고있다.

무엇보다도 파쑈독재를 반대하며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통일적이고도 조직적인 투쟁으로 발전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을 조직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그것은 남조선에서의 민주화운동이 세계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악랄한 군사파쑈정권타도를 목적으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워 통일적이고도 조직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고서는 승리할수 없기때문이다.

지난기간 남조선의 민주세력들은 민주화운동을 조직적인 바탕우에서 통일적으로 이끌고나가기 위한 투쟁단체를 내오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여왔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경우에도 지난기간 이러한 투쟁조직의 필요성을 실천을 통하여 더욱 절실히 느끼고 4.19이후 그의 결성을 위한 투쟁을 부단히 벌리왔다.

올해에 있은 4월투쟁에서 진보적인 청년학생들은 투쟁을 통일적으로 전개할수 있는 전투적인 조직을 결성하는데 성공함으로써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리하여 청년학생들의 4월투쟁은 면밀한 계획과 투쟁전술에 따라 전 남조선적인 범위에서 일시에 조직적으로 전개되였으며 그 목표와 투쟁구호는 매우 뚜렷하였다.

청년학생들은 4월투쟁에서 《박정권타도》를 당면한 목표로 제시하고 이에 투쟁의 예봉을 돌리였다.

때문에 이들은 투쟁전반에 걸쳐 시종일관 《박정희를 타도하라》, 《독재정권타도하라》, 《파렴치한 유신헌법을 폐지하라》, 《중앙정보부를 해체하라》는 등의 반독재, 반박정희 구호를 제기하고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투쟁할것》을 선언하였다.

도한 이들은 《로동자들의 로동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근로대중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라》, 《부정부패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빈곤자들에게 돌리라》는 구호와 함께 《도탄에 빠진 중소기업을 육성보존하라》,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각계각층의 절실한 리해관계를 반영하는 구호를 제기함으로써 반파쑈민주화운동에서 나서는 본질적요구들을 폭넓게 제기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뚜렷한 투쟁목표와 혁명적인 구호아래 조직적으로 전개되고있을뿐아니라 적극적인 정치활동이 안받침되고 선행되는 높은 수준의 투쟁으로 발전하고있다.

모든 혁명투쟁에서 그 담당자인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지 않고서는 그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울수 없으며 또 대중운동을 발전시켜나갈수도 없다.

따라서 투쟁에서 정치선전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대중운동지도전술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정치선전을 1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 투쟁에 선행하여 강력한 정치사업을 전개해나가고있다.

4월투쟁을 앞두고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진보적인 계층들은 근 3개월간에 걸쳐 대중을 새로운 투쟁에로 준비시키기 위한 각종 형태의 정치선전활동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들은 반독재, 반외세, 생활개선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선언문과 성명, 결의문 등을 련이어 발표하여 《긴급조치》로 위축상태에 들어가던 대중의 투쟁기세를 다시 갈이올리였으며 투쟁에 떨쳐나선 시각을 앞두고서는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화정책과 매국배족적인 행위를 날날이 폭로규탄하면서 《박정권타도》를 호소하는 《민중민족선언》과 《민중의 소리》를 발표하고 이것을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민주인사들에게 배포하였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수십만매의 삐라를 찍어 남조선도처에 산포하였으며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것을 호소하는 수천통의 《서신》들을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밖에도 애국적인 학생들과 인민들은 공공건물과 군중집합장소들에 전투적인 구호들을 써붙임으로써 대중의 반박정희감정을 더욱 북돋아주었다.

특히 투쟁의 앞장에 선 진보적인 청년학생들은 《결의모임》을 통하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청춘도 생명도 초개와 같이 바칠것을 서로 맹세하였다.

4월투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난 9월부터 다시 타번지고있는 청년학생들과 종교인, 언론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도 역시 적극적인 정치선전활동이 안받침되고있다.

투쟁에서 정치사업이 선행됨으로써 대중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사전에로 서슴없이 떨쳐나서고있으며 살인재판장에서도 자기의 굳은 혁명적기개를 굽히지 않고있다.

남조선에서의 반파쑈민주화운동은 또한 광범한 계급계층들이 참가하고 로동자들의 강력한 경제투쟁으로 뒤받침된 대중적인 투쟁으로 발전하고있다.

방대한 파쑈폭압력량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오늘의 남조선현실에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여 거족적인 공동투쟁을 전개하는것은 민주화운동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4.19이후 남조선에서 전개된 반파쑈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교훈은 이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4.19이후 남조선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전개된 반파쑈민주화투쟁은 광범한 계급계층들을 망라하지 못하였으며 학생운동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최근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반파쑈민주화운동은 보다 광범한 계급

계층들이 망라되고 그들 호상간의 련대성이 강화됨으로써 거족적인 투쟁으로 확대발전하고있다.

요즘 벌어지고있는 민주화운동에는 청년학생, 종교인, 언론인, 문화인, 교육인, 법조인 등 광범한 계급계층들이 참가하고있으며 재야정치세력들도 이에 적극 합류하고있다.

여기에서 남조선종교인들이 반파쑈민주화투쟁의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한것은 매우 주목된다.

남조선종교인들은 교파까지 초월해가면서 공동련합투쟁을 벌리고있다.

이들은 《자진투옥48인위원회》, 《전국기독교자선교련합회》와 같은 투쟁조직을 뭇고 파쑈독재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봉기까지 일으키려고 시도하고있다.

남조선에서의 민주화운동은 생활개선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로동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하여 더욱 활기를 띠고있다.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과 때를 같이하여 일어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있으며 그것은 폭동적인 요소를 띤 투쟁으로까지 발전하고있다.

지난 9월에 있은 울산조선소로동자들의 폭동적진출은 남조선로동운동의 이와 같은 발전추세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울산조선소의 7,500여명의 로동자들은 기아임금을 주면서도 하루 14시간이상의 살인적인 로동을 강요하는 매판자본가들을 반대하여 일시에 폭동을 일으키고 공장건물들을 불사르면서 괴뢰경찰들과 치렬한 공방전을 벌리였다.

울산조선소로동자들의 투쟁은 그 격렬성에 있어서 최근년간에는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투쟁으로서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인민대중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었다.

이와 같이 올해 남조선에서 전개된 반파쑈민주화운동은 포괄하는 계급적지반이 대단히 넓으며 그것은 투쟁의 대중적인 성격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 *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날로 강화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진출앞에서 적들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더는 헤여날수 없는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빠져들어갔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더 큰 불안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였습니다.》(《신년사》, 1972년 1월 1일, 16페지)

올해 박정희괴뢰도당의 위기는 더욱 심각화되여 막다른 지경에 이르고있다.

놈들의 위기는 그 어떤 부문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대외 등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있으며 미일상전들이 겪고있는 엄중한 위기와 직접적으로 련결되여있다.

그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집권》 10여년간에 걸쳐 남조선사회의 밑바탕에서 더욱 뿌리깊이 잠재해온 대중의 강력한 반《정부》적불만을 중요한 배경으로 하고있다. 따라서 이 위기는 전례없는 심각한것으로 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직면하고있는 위기의 심각성은 우선 그 무엇으로써도 인민들의 반《정부》적진출을 내리누를수 없다는데 있다.

박정희악당은 괴뢰정권을 총칼로 가로챈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파쑈화정책을 유일한 수단으로 삼으면서 이것으로써 인민들의 반《정부》적진출을 말살하고 식민지군사파쑈통치체제를 유지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여왔다.

특히 최근년간에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른바 《10월유신》이라는것을 조작하고 남조선사회의 파쑈화를 더한층 다그치

면서 인민들에 대한 극악무도한 탄압을 감행하는데로 나아갔다.

올해에만 하여도 박정희괴뢰도당은 한편으로는 류례없는 파쑈적폭압령인 《긴급조치》를 련발하면서 10월투쟁과 4월투쟁에 떨쳐나섰던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하고 그들에게 사형을 비롯한 중형을 들씌웠으며 다른편으로는 남북대화를 파탄시키고 남북긴장상태를 극도로 악화시키면서 《8.15저격사건》과 같은 비렬한 정치적모략까지 꾸미고 남조선에서 광란적인 《반공》소동을 일으키였다.

그러나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러한 파쑈적폭압과 《반공》소동으로써도 첨예화되고있는 위기를 조금도 해소하지 못하였다. 도리여 놈들의 용납할수 없는 범죄적인 망동은 남조선인민들의 반《정부》적기세를 더욱 격화시켰을뿐이다.

지난 9월초순부터 또다시 전개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인 투쟁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구속자석방》과 《유신체제의 철폐》를 중심구호로 제기하면서 투쟁을 급속히 확대발전시켜나가고있다. 그리고 재야정치세력들도 《유신헌법》의 개정을 요구하여 《개헌촉진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일련의 조직들을 내오면서 《국회》안팎에서 적극 투쟁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는 파쑈독재체제가 연명되느냐, 아니면 타도되느냐 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모든 사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도저히 현위기를 수습할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빠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궁지에 빠진 박정희괴뢰도당은 어리석게도 그 어떤 《리념》을 내세우고 그것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반박정희감정을 무마하고 투쟁의식을 마비시켜보려고 획책하고있다.

그러나 미일침략자들의 철저한 주구이고 칼부림밖에 모르는 군사깡패인 박정희역도에게 있어서 《리념》이란 있을수 없다.

원래 박정희역도는 괴뢰정권을 가로챈 이후 이른바 《민족민주주의》를 들고나오다가 그것이 여지없이 박산이 되자 《한국적민주주의》라는것을 내걸고 《국민총화》와 《국론통일》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으며 이제와서는 《반공》이라는 외마디소리만 되풀이하고있다. 그 기만성이 드러난지 오랜 《반공》구호를 가지고 날로 증대되는 인민들의 반《정부》적기세를 가라앉힐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아무런 《정신적지주》와 《리념》도 가지지 못한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반항은 물론 상층내부의 분렬마저도 막지 못하고있으며 항시적인 불안속에서 헤매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위기의 심각성은 또한 지배층내부의 모순과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 남조선지배층내부에서 서로 물고 뜯는 파벌싸움이 더욱 쉴새없이 벌어짐으로써 상층권력지반은 심히 약화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지탱하고있던 권력지반이란 《5.16주체세력》과 얼마안되는 자유당패거리들이였다.

그런데 이것들은 박정희역도의 지령을 거역해나선 일련의 《항명파동사건》으로 하여 이미 오래전에 수많이 떨어져나가고 지금까지 남아있던 《심복》이란 불과 몇놈밖에 안되였다. 이것마저도 《수도경비사령부사건》, 《륙군보안대사령부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박정희역도의 오른팔이요, 왼팔이요 하던 놈들이 떨어져나갔으며 얼마전에는 《청와대경호실장》이란놈까지도 쫓겨났다.

이리하여 박정희역도의 불안과 고독감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미국의 통신들까지도 《박정희의 불안은 망상에 가까운 정도에 이르고있다.》고 보도하고있다.

남조선경제의 급속한 파산도 박정희 괴뢰도당의 《집권》에 심대한 위협으로 되고있다.

지난해부터 세계적으로 휩쓸고있는 자원파동은 예속경제인 남조선경제의 파산을 더욱 촉진시켜 생산과 류통 등 경제의 모든 고리들을 마비상태에 빠뜨리고있다.

남조선경제의 주도부문인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기업체들의 가동률과 생산이 급격히 떨어지고있다. 방직부문의 대기업체들은 정방기의 50%를 돌리지 못하고있으며 중소기업체의 경우에는 9월말현재 그 가동률이 70%미만에 달하고있다.

여기에다 물가파동까지 겹침으로써 경제적혼란은 더욱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적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남조선의 도매물가상승률은 34%로서 례년의 년간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근 3배에 달하고있다.

이중에서도 쌀값의 급격한 오름세는 큰 사회적혼란을 야기시키고있다. 금년말현재 가마니당 쌀가격은 년초의 1만 1천원선에서 1만 9천원으로, 밀가루는 포대당 1,100원에서 2,200원으로 뛰여올랐다.

이외에도 소비품가격은 30~100%나 뛰여올랐다.

경제의 급속한 파탄은 령락된 인민생활을 더욱 곤궁에 몰아넣고있다. 남조선의 모든 계층들속에서 《더는 못살겠다》는 원성이 터져나오고있다.

올해 남조선정세발전의 주요한 특징을 이루고있는 이 모든 사태는 박정희 괴뢰도당이 그 어떤 발악으로써도 조성된 위기를 타개할수 없으며 결국은 파멸당하고야말리라는것을 보여준다.

*　*

오늘 남조선정세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위업에 매우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조선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앞당겨나갈 만단의 준비를 잘 갖출것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이 영예로운 과업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워 자신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열렬한 혁명전사로 준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충직한 참된 혁명전사들인 우리는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의 북소리 장엄하게 울리게 하여 6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10대경제건설목표에로 번개같이 돌진해나가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을 앞당기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것이며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성다하는 길이다.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그이께서 내놓으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결은 제3세계인민들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조 근 팔

제3세계는 력사무대에 새로 등장한 신흥세력이며 제국주의와 맞서있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이다.

어제날 압박받던 제3세계인민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력사무대에 등장한 것은 인류력사와 세계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제3세계가 출현함으로써 세계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국제무대에서의 력량관계는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고있다.

수세기동안 《식민지대륙》들로 불리여온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이 저주로운 제국주의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반제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세계의 반제혁명력량이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자유와 독립,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혁명운동에 더욱더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였다.

반면에 제국주의의 지배령역은 현저히 좁아지고 그 힘과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되였으며 놈들의 지배체계는 걷잡을수 없이 무너지고있다. 제국주의는 다시는 소생할수 없는 력사무대밖으로 밀려나고있으며 더욱더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지구상에서 주인행세를 하면서 제3세계인민들을 제멋대로 억압하고 략탈하며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이제는 세계무대에서 발언권이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에게 넘어왔으며 인민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여지고있다.

제3세계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민족적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있으며 대외적으로 대소국가들과 동등한 국가관계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관계를 맺고 세계무대에 진출하고있다. 그들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부식하여놓은 온갖 형태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이룩하며 제국주의가 없는 새세계를 건설할 과업을 내세우고있으며 그 실현에 떨쳐나서고있다.

제3세계인민들이 이 력사적과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어떻게 수행해나가는가 하는것은 민족해방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와 현국제정세발전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현시기 제3세계인민들이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신흥세력이 전투적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제3세계인민들이 신앙, 정견, 제도에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할데 대한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제3세계인민들이 단결할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인민들의 해방투쟁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전략적인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해방투쟁은 자본의 힘이 국제적인것처럼 국제적인 운동이다. 개별

적인 나라들의 혁명운동은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241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은 민족적인 운동인 동시에 국제적인 운동이며 매개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다.

그것은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공통한 목적을 지향하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이 국제적으로 련합된 자본의 힘과 맞서있기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은 국제자본의 련합된 세력에 의하여 자기 나라 인민뿐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인민들의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고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며 그들에게 노예적운명을 강요한다. 그렇기때문에 피압박인민들이 혁명투쟁에서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튼튼한 단결과 련대성을 이룩하며 공동으로 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가하여야 한다. 혁명하는 인민들이 서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는것은 그들의 혁명위업자체의 요구이며 혁명발전의 객관적필연성이다.

특히 제3세계인민들의 단결은 현시기 이 신흥세력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과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제3세계인민들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힘은 현저히 약화되였으나 놈들의 침략적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제국주의자들은 제3세계나라인민들이 력사무대에 주인으로 등장하고 그 힘이 급속히 장성강화되고있는데 대하여 극도의 반감을 품고 어떻게 하나 제3세계의 력량을 말살하고 이 나라들을 다시금 지배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제3세계나라들을 반혁명적폭력으로써 굴복시켜보려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곳에서 진보적인 민족국가들을 반대하여 무장간섭과 전복음모, 로골적인 침략전쟁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한편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의 간판밑에 저들의 음흉한 침략목적을 달성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놈들은 자신을 제3세계나라들의 《벗》으로, 《원조자》로 가장하면서 이 나라들에 기여들어 지배와 략탈을 계속하려 하고있으며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여 진보적인 나라들을 우경에로 돌려세워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 모든 책동을 감행함에 있어서 반동적련합을 형성하고 집단적공세를 취하고있으며 반제혁명력량을 하나하나 말살하는 전략으로 나오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흉악한 모략책동은 제3세계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3세계나라인민들이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빨리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단결해야 하며 단결된 력량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맞서야 한다.

단결은 제3세계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있는 무기이며 그들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인구의 압도적다수와 광활한 령토와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는 제3세계인민들의 전투적단결과 긴밀한 뉴대는 세계의 반제혁명력량을 비상히 강화하고 제국주의의 전반적위기를 격화시키며 그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짓부셔버리는 불패의 힘으로 됩니다.》

제3세계는 단결하면 참으로 위대한 힘을 발휘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제3세계나라인민들이 단결하여 투쟁할 때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수 있다.

지구 륙지면적의 71%를 차지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는 세계인구의 3분의 2이상이 살고있으며 무진장한 자연부원이 있다.

오랜 세기에 걸쳐 제국주의자들은 3대륙인민들의 고혈을 빨아내고 그 부원을 긁어내면서 성장해왔으며 살쪄왔다. 오늘도 제국주의자들은 교활한 신식

민주의적수법으로 이 지역에서 원료의 대부분을 략탈해가고있으며 해마다 수백억딸라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만 놓고보더라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약 2천개에 달하는 저들의 독점회사들을 침투시키고 약 1만개의 기간공업기업소들을 통제하면서 이 지역에서 광물을 비롯한 중요 전략원료의 대부분을 빼앗아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마치도 저들의 《원조》없이는 제3세계가 살아갈수 없는것처럼 떠벌이고있으나 사실은 그와 정반대로 놈들이 제3세계의 자원에 의거하지 않고는 살아갈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이것은 제3세계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에게 강한 타격과 압력을 가한다면 놈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을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지난해 아랍나라들이 단결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지원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석유수출을 금지함으로써 서방자본주의세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실과 원료 및 개발 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의 과정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제3세계인민들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한다면 자기의 풍부한 자원을 무기삼아 제국주의의 명줄을 졸라맬수 있을뿐아니라 그것을 적극 개발하여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더 빨리 건설할수 있다.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아직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여 뒤떨어져있으며 발전도상에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식민지통치의 후과이다.

신생독립국가들이 제국주의자들의《원조》나 《협력》에 의거해가지고서는 놈들의 신식민주의적올가미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언제까지나 락후와 빈궁을 면할수 없다.

제3세계나라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힘에 의거할것이 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사이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는데로 나간다면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제3세계인민들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있는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들이다. 특히 오늘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새 력사 창조에 일떠선 제3세계인민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적으로 각성되고있으며 정열과 패기에 넘쳐있다. 제3세계나라들은 서로 교류할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을 몇가지씩 다 가지고있다. 지금 제3세계에 속하는 100여개나라들이 좋은 경험과 기술을 한가지씩만 내놓아도 100여가지의 좋은 경험과 기술이 나온다. 참으로 수억만 제3세계인민들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력을 한데 합친다면 무엇이든 못해낼 일이 없다.

제3세계나라인민들이 서로 아는것은 배워주고 모르는것은 배우며 유무상통해나간다면 강대국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과학과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발전된 나라들을 빨리 따라앞설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3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민족적번영과 륭성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제3세계의 전반적혁명력량을 비상히 강화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에게 더욱더 심대한 타격을 안겨줄수 있다.

제3세계인민들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국제관계분야에서도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제어하고 놈들을 고립무원한 상태에 몰아넣을수 있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은 국제관계와 국제문제해결의 모든 질서들을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강화하고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는데 유리하게 만들어놓고 그것을 리용하여 작고 뒤떨어진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예속,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여왔다. 이로부터 제3세계의 대다수나라들은 사실상 국제무대에서 배제되여왔으며 강대국들의 희생물로 되여왔다.

오늘에 와서 이 불평등한 관계는 더는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고있다.

세계의 주인은 세계각국인민들이며 국제문제는 어디까지나 세계인민들의 진정한 념원과 의사에 부합되게 해결되여야 한다.

세계인구의 압도적부분과 대다수나라들은 제3세계에 속한다. 제3세계의 크고 작은 모든 나라들이 국제무대

에서 힘을 합쳐 공동투쟁을 벌려나간다면 국제관계와 국제문제해결의 낡은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모든 문제들을 더욱더 이 나라 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해나갈수 있다.

지난해 가을 알제리에서 열렸던 제4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유엔총회 제28차회의, 제3차유엔해양법회의, 제3세계청년대회를 비롯하여 최근년간에 진행된 국제회의들의 전과정들은 제3세계나라들이 단결하여 공동으로 투쟁할 때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평화를 이룩하며 모든 국제문제들을 공정하게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처럼 제3세계인민들이 단결하여 모든 전선에서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제국주의자들에게 강력한 집단적반격을 가해나선다면 제국주의의 침략의 마수를 꺾어버릴수 있으며 놈들의 종국적멸망을 앞당길수 있다.

실로 제3세계인민들의 전투적단결과 긴밀한 협조는 이 신흥세력의 힘을 몇배, 몇십배로 강화하게 하며 제국주의의 련합세력을 격파하고 인민들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촉진시키는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된다.

혁명하는 인민들이 하나의 력량으로 굳게 단결하자면 무엇보다도 단결의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 한다.

혁명적이고 원칙적인 단결의 기초가 없는 단결은 공고한것으로 될수 없을뿐아니라 그러한 단결은 혁명위업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수 없다.

제3세계나라인민들사이의 단결이 진실로 불패의것으로 되자면 서로 자주성을 존중하고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단결하는것이 중요하다.

자주성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객관적요구를 반영하여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의 본질적요구를 구현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혁명투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274페지)

자주성은 민족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전제로 된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여 살기를 바라지 않으며 자기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행복이 있고 영예가 있으며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오늘 자주성은 전세계인민들이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사상으로, 그들의 공통된 지향으로 되고있다.

특히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억압밑에서 착취받고 천대받아온 제3세계나라 인민들은 자주성을 양도할수 없는 민족의 권리로 인정하고 그것을 요구하여나서고있다.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정치적신조로 삼고있으며 자주성의 원칙을 국가활동의 지도적원칙으로 선포하고 그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자주성은 모든 제3세계나라들에 있어서 공통한 정치적리념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세계적조류로 되고있다.

이것은 자주성이 제3세계인민들을 최대한으로 단결시킬수 있는 가장 공고한 사상적기초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제3세계인민들은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함으로써만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튼튼한 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자주성은 단결과 협조의 정신과 결코 모순되는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주성은 나라들사이의 혁명적이고 원칙적인 단결과 협조의 전제로 된다.

자주성의 원칙은 그자체가 모든 민족들사이의 평등과 호상 존중을 요구한다. 자주성이 확고해야 평등한 기초우에서 다른 나라들과 단결할수 있으며 국제주의에도 충실할수 있다. 만일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지 못할 때에는 남

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거나 남의 압력에 굴복하게 되며 결국은 자기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에 다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자주성을 옹호하고 자주성의 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호상관계의 규범을 지켜나갈 때 단결과 협조가 진실로 자원적이고 동지적인것으로 될수 있으며 부단히 강화발전될수 있다.

자주성에 기초한 제3세계나라인민들의 전투적단결과 긴밀한 협조는 그들의 반제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촉진하는 위대한 요인으로 된다.

제3세계나라들이 자주성에 기초하여 정치적으로 단결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한다면 제국주의가 없고 끊임없이 륭성번영하는 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게 될것이다.

우리 인민은 제3세계나라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제3세계나라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데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어디까지나 자주성을 존중하고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모든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리익을 절대로 침해하지 않으며 그 누가 우리의 민족적권리와 존엄을 짓밟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전투적 단결과 뉴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정의의 투쟁을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면에서 우리의 경험과 모범으로 힘자라는껏 지원하는것을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고있으며 이렇게 하는것이 세계혁명에 이바지하는것이라고 간주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제3세계나라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모든 전선에서 공동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인류의 선진사상인 자주사상의 기치밑에 전투적단결과 긴밀한 협조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정의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근 로 자 제12호(루계 392호)

편 집 위 원 회

발 행 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 쇄 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4년 12월 1일 발행 • 1974년 12월 5일

ㄱ—14397 값 50전

1974년도 《근로자》차례묶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

편집국론설

혁명전통

당건설

정치사상문제

경 제 건 설

남조선문제

국 제 문 제